

韓國書院學報

제
21
호

韓國書院學會
2025.12



목차

■ 기획논문 :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학술대회

퇴계 이황의 시대 인식과 서원교육의 필요성	홍원식。 7
건립 목적과 제향 기준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한 퇴계 이황의 서원(書院) 교육관(教育觀)	강보승。 33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 - 내면적 '祭享' 儀式으로서 '希賢' 실천을 중심으로 -	최재목。 73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위기와 서원의 존재방식	최주희。 101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을 통한 영남 지식네트워크 형성	정재훈。 147
개항기 도산서원의 정치적 동향 - 진성이씨 문중의 역할을 중심으로 -	강윤정。 175
도산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발전 방향 - 도산서원의 제향 및 강학 기능을 기반으로 -	이상호。 201

■ 일반논문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에서의 우계학통(牛溪學統) 전승과 재생산 - 「서실의(書室儀)」를 중심으로 -	김진홍。 237
서계 박태무의 유람과 서원 인식	김소연。 275
石室書院을 통해 본 近畿 지역 老論 士族의 결합 양상	이은찬。 301

광암서원(廣巖書院)의 명칭(名稱)과 배향(配享)에 관한 연구.. 정원영 .	337
부평향교의 역사적 변천과 운영의 실상	임근실 . 369
朝鮮《西岳志》編纂述略	熊歡歡 . 405
서원 제향인물의 초상화를 통해 본 복식문화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서원을 중심으로 -	이민주 . 427
조선시대 서원 강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자운 . 467

■ 후보

- 연혁·활동 | 503
- 회칙 | 511
- 편집 규정 | 518
- 논문투고 규정 | 522
- 원고작성 규정 | 528
- 연구윤리 규정 | 532
- 임원 및 편집위원 | 535

■ 기획논문 :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학술대회

- 퇴계 이황의 시대 인식과 서원교육의 필요성
- 건립 목적과 제향 기준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한
 퇴계 이황의 서원(書院) 교육관(教育觀)
-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
 - 내면적 '祭享' 儀式으로서 '希賢' 실천을 중심으로 -
-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위기와 서원의 존재방식
-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을 통한 영남 지식네트워크 형성
- 개항기 도산서원의 정치적 동향 - 진성이씨 문중의 역할을 중심으로 -
- 도산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발전 방향
 - 도산서원의 제향 및 강학 기능을 기반으로 -

퇴계 이황의 시대 인식과 서원교육의 필요성

홍 원 식**

- I. 서론
- II. 시대와 현실 인식
- III. 서원설립운동의 전개
- IV. 서원교육관
- V. 결론

【국문초록】

퇴계 이황은 기묘 사림의 후예로서 서원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서원설립운동에 앞장섰다. 그가 서원교육을 중시한 것은 당시 관학 교육에 대한 실망과 연관이 있다. 그는 선생과 학생이 함께 기거하며 위기지학을 추구하는 서원교육이야말로 참다운 유학자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위기지학을 통한 도학의 추구와 이를 통한 진정한 유교의 나라 조선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그는 서원이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유현의 제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연결시킴으로써 사학의 특징을 잘 드러냈으며, 이는 학통 계승과 학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그가 주도한 서원설립운동은 단순히 교육이나 교육제도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곧 그의 서원설립운동은 교육과 관계된 것이었지만, 그에게서 교육은 곧 정치였으며, 정치의 시작이자 완성이었다.

주제어 : 퇴계 이황, 서원설립운동, 서원교육, 위기지학, 도학

* 계명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 gshong425@naver.com.

I. 서론

이항이 49세 때 관직 생활을 버리고 산림처사山林處士의 삶을 택한 것은 결코 ‘위아爲我’의 은일지사隱逸之士로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 원에 한거閑居하며 공부와 강학에 전심전력하였다. 한편 그는 서원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서원설립운동에 앞장섰다. 그 이후 조선에서는 1천여 곳¹⁾에 이르는 서원이 설립되어 이를 중심으로 향촌 교육이 이뤄지고 존조尊祖·존현尊賢 의식이 뿌리내렸으며,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이 모여들어 성리학을 연구하고 확산시키면서 학파 성립의 온상이 되었다.

그가 서원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무엇보다 서원교육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서원교육 중시는 당시 관학교육에 대한 실망과 연관이 있다. 그는 일찍이 24세 때 성균관에 유학하였다가 위기爲己와 실천궁행의 도학道學은 무시하고 사장詞章과 과거에만 몰두하는 부박浮薄한 사습士習을 보고 곧장 낙향해버린 적이 있었다. 그는 사생師生이 함께 기거하며 전인격적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서원교육이야말로 참다운 유학자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가 풍기군수의 직을 버리고 도산으로 돌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원설립운동과 관계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한 일이 바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사액賜額 청원이었으며, 퇴거 후 곧장 시작한 일이 바로 서당을 열어 강학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시 자신의 도산서당 건립과 서원설립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또한 그는 서원설립을 통해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유현儒賢의 제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교

1) 대원군은 1864년(고종 1)부터 1871년(고종 8)에 걸쳐 전국 1,700여 곳의 서원·사묘 가운데 47곳만 남기고 모두 훼철을 단행했다. 『高宗實錄』 1864년 8월 17일, 1866년 6월 2일, 1866년 6월 2일, 1870년 3월 1일, 1870년 9월 10일, 1871년 3월 20일 조 참조. 이처럼 대원군이 서원훼철령을 단행하기 이전 숙종과 영조 때에도 이미 서원훼철령을 단행한 적이 있었다. 홍제연·고수연, 「숙종-영조대의 서원·사우 훼철」, 『한국서원학보』 제20호, 한국서원학회, 2025. 6 참조.

육에 연결시킴으로써 사학의 특징을 잘 드러냈으며, 이는 학통계승과 학파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황의 서원설립운동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으며,²⁾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는 1565년 당시까지 세워진 서원 9곳에 대해 「서원십영書院十詠」을 지어 노래하였다. 그곳은 바로 죽계서원竹溪書院(白雲洞書院, 紹修書院으로 사액, 영주), 임고서원臨臯書院(영천), 문헌서원文憲書院(해주), 영봉서원迎鳳書院(川谷書院으로 바뀜, 성주), 구산서원丘山書院(강릉), 남계서원藍溪書院(함양), 이산서원伊山書院(영주), 서악서원西岳書院(경주), 화암서원畫巖書院(研經書院으로 바뀜, 대구)이다. 이들 서원 중 많은 곳이 그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황이 살았던 시대와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본 뒤 서원설립운동에 나선 동기와 전개 양상, 그리고 그의 서원교육관의 순서로 논의할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³⁾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에 이뤄졌다.⁴⁾ 이후 이황의 서원설립운동에 대해서도 그 배경과 과정 및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심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자료는 이황이 서원설립에 나선 문인⁵⁾들과 주고받은 서찰⁶⁾과 서원설립 때 지은 기문과 발문, 그리고 「서원십

2) 조선의 중앙 정부는 초기부터 留鄉所 설립을 반대하는 등 지방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기묘사화 이후 집권 훈구공신들도 사림과의 후예들이 향촌에 흩어져 강학활동 등을 통해 세력화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있었다. 이황의 서원설립운동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실제로 서원은 지방 권력의 중심점이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전후 3차례의 휘철령이 내려졌다.

3) 유홍렬, 「조선에 있어서의 서원의 성립」, 『청구학총』 29·30, 청구학회, 1937·1938.

4) 대표적인 연구로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퇴계학보』 19집 1호, 퇴계학연구원, 1978)과 정순목의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이태진의 「사림과 서원」(『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1) 등이 있다.

5) 퇴계 문인 가운데 총 56명이 43개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다.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참조.

6) 김형수, 「이황 서한을 통해 본 명종대 서원의 창설과 운영」, 『퇴계학과 유교문

영』 등이다. 본 연구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논자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Ⅱ. 시대와 현실 인식

이황은 한 마디로 사화士禍의 시대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연산군燕山君 시기 무오사화戊午士禍(1498)와 갑자사화甲子士禍(1504)의 난국 속에 안동 땅 예안에서 태어나 기묘사화己卯士禍(1519)를 전후한 시기 안동향교와 성균관에서 수업하고 중종中宗 말년에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인종仁宗에 뒤이어 나이 어린 명종明宗이 즉위하자마자 을사사화乙巳士禍(1545)가 일어나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수렴청정垂簾聽政과 권신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는 낙향과 관직 생활을 반복하며 살얼음판 걷듯 살았다. 문정왕후에 뒤이어 명종이 갑작스레 승하한 뒤 다시 17세의 나이 어린 선조宣祖가 즉위하면서 사화의 정국이 끝났을 때, 그는 조야의 중망을 받는 원로 대신이자 대학자요 대선사大先師의 위치에 섰지만 이미 너무 노쇠했고 근심만 가득 품은 채 곧 세상을 떴다.

이러한 시국 속에 이황은 을사사화 시기 소윤小尹 계열의 공신 이기李訢(1476~1552)의 계청으로 관직을 삭탈 당한 적이 있으며, 특히 그의 넷째 형 이해李滉(호 온계溫溪, 1496~1550)는 1550년 구수담具壽聃의 무고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이기 일파의 탄핵을 받아 갑산甲山으로 유배를 가던 중 병사하는 화를 당하였다. 이황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 을사사화 직후인 46세(1546) 때 이미 물러날 뜻을 가져 향리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퇴계退溪’라 자호自號하였으며, 외직을 자청해 단양군수와 풍기군수를 지낸 뒤 1549년 조정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3년 만에 낙향했다. 이 일로 그는 고신告身 2등

화』 5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등 참조.

의 삭탈을 당했으며, 풍기군수를 그만두면서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경상감사 심통원沈通源에게 청하였다.⁷⁾

이황은 34세 때 문과급제를 한 뒤 관직 생활을 시작해 풍기군수를 사직하기까지 15년 동안 관직 생활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관직 생활을 시작한 무렵은 종종 말년으로, 기묘사화 이후 생존한 기묘사람들이 다시금 중앙 관계로 서서히 재등장하던 때였다. 대표적인 이들로 김안국金安國과 김정국金正國 형제, 이연경李延慶, 이약빙李若氷, 박영朴英, 이언적李彦迪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연스레 소학小學 중시와 도학道學 표방, ‘격군심格君心’을 통한 지치至治의 실현 등 그들이 가졌던 교육과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 주변에는 다시금 신진 사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황도 뚜렷한 사승 관계는 갖질 않았지만, 이들 부류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묘사람들은 기묘사화로 중앙으로부터 밀려난 이후 향촌 각지로 흩어져 활발하게 강학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재지적 기반을 다지며 향약鄕約의 실시 등을 통한 향촌민의 교화에도 앞장섰다. 이런 점에서 기묘사화는 유교가 향촌사회로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이들의 강학활동은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는 가운데 사승의 전통이 확립되고, 나아가 성리학에 대한 심화된 연구와 학파 등장의 길을 열었다. 대표적인 기묘사람의 문생들로 김안국의

7) 이황이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원한 1549년은 乙巳土禍(1545)와 良才驛壁書事件(1547)이 일어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터라 공신과 척신들이 권력을 전횡하던 때였다. 이 때문에 이황이 곧장 중앙 조정이 아닌 경상감사에게 사액을 청원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경상감사 沈通源이 권신인 좌의정 沈連源의 동생이자 명종의 외척이어서 조정 내부의 논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연원과 영의정 李芑, 우의정 尙震, 예조판서 尹漚 등이 논의하여 사액을 결정했다. 『明宗實錄』 卷10, 5年 2月, 丙午 참조. ‘紹修書院’으로 사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대제학 申光漢이 上啓한 ‘紹修’와 ‘興慶’ 가운데 ‘紹修’로 낙점하고 書院記를 짓게 하였으며, 명종 어필의 ‘紹修書院’ 판액을 校書館에서 제작하게 한 뒤 賜書와 함께 사액했다. 申光漢, 『企齋集』 卷1, 記, 「紹修書院記」 참조.

문하에서 유희춘柳希春과 윤개尹概, 송인수宋麟壽 등이, 김정국의 문하에서 정지운鄭之雲 등이, 이연경의 문하에서 노수신盧守愼 등이, 박영의 문하에서 이항李恒, 성운成運, 신계성申季誠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스승의 뒤를 이어 명종, 선조 연간에 대거 중앙으로 진출하여 사림의 조선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기 기묘사림들의 활동 가운데 김안국(1478~1543)에 의한 『주자대전 朱子大全』 간행⁸⁾은 성리학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의 제자인 유희춘은 『주자대전』의 간행에 대해 국왕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증종조의 명신인 김안국은 박학하고 옛일을 잘 알았으며,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좋아하면서 국사에 전념해 온 마음과 힘을 다했습니다. 일찍이 정덕正德 무인년(1518)에 사신으로 북경에 갔을 때 『주자대전』과 『주자어류朱子語類』, 『이락원원록伊洛淵源錄』 등 여러 성리서들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중략) 돌아와서는 이 책들을 인출하자고 계청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고,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람들이 몰락했습니다. 김안국도 19년 동안 쫓겨나 있다가 정유년(1537) 겨울에 이르러서야 다시 서용되어 조정에 복귀한 후 교서관校書館의 제조製造가 되자 마침내 이 책들을 인출하여 유포했습니다.⁹⁾

김안국은 기묘사화 이전 경상도 관찰사 시절 이미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와 『여씨향약呂氏鄉約』 등의 언해본을 간행하고, 향약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창하였으며, 각 향교에 『소학』 교육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1518년 명나라 사행 때 가져온 『주자대전』을 기묘사화로 바로 간행하지 못하다 다시 서용된 뒤인 1543년에 마침내 간행하게 된 것이다. 성리학 관련 서적으로 『사서집주四書集註』는 14세기 중엽 고려 말에 권보權溥가 들여왔다고 전하며, 『성리대전性理大全』은 『오경대전五經大全』, 『사서대전四書大全』과 함께 15세기

8) 최민규, 「증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과 주자의 서원론 활용」, 『한국서원학보』 제20호, 한국서원학회, 2025. 6 참조.

9) 『宣祖實錄』 卷8, 7年 4月 丁卯.

초 세종 때 조선에 들어왔다.¹⁰⁾ 그러나 성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주자대전』이 간행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묘사림들의 강학 열풍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것은 뒷날 서원 설립과 교육으로 이어져 서원이 학파의 온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황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록 적극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후예라는 의식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다. 그 단적인 예가 기묘명현의 일인자인 조광조趙光祖와 이언적의 행장行狀을 찬술한 것이다. 그는 이 두 인물과 아무런 학연이나 사승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요청도 없이 스스로 찬술한 것이다. 이것은 그 자신이 양인의 ‘도’와 ‘학’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며, 그 여파는 지대했다. 이것은 바로 김굉필과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과 더불어 그가 동방 도통을 정통으로 계승한 ‘동방오현東方五賢’으로 일컬어지게 했으며, 함께 문묘종사文廟從祀가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¹¹⁾

돌아보면 기묘사림들은 정몽주와 김굉필을 문묘종사하는 데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연산군 시기 두 차례의 사화를 거치면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교육 현실과 꺾일 대로 꺾여 버린 사기士氣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표로 삼을 만한 두 인물을 문묘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정 공신反正功臣을 중심으로 한 훈구 계열에서는 당연히 두 인물의 행적과 학문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러 곡절 끝에 정몽주 한 명만 문묘종사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김굉필은 비록 문묘종사되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묘사림의 후예들은 다시 김굉필을 중심에 두고 그의 도와 학이 흘러간 길을 씬 없이 거론했

10) 『增補文獻備考』 卷242, 「藝文考」1에서는 世宗 8年(1426)에 明나라 使臣으로 갔던 金時遇가 『性理大全』 등 三大全과 餘他 書籍들을 下賜받아 왔다고 실려 있는데, 『世宗實錄』 元年 12月 丁丑條에 이미 三大全을 들여온 史實이 실려 있다.

11) 이선경, 「김굉필의 도학적 위상과 이황의 역할」(『퇴계학보』 155집, 퇴계학연구원, 2024) 등 참조.

다. 이항의 두 인물에 대한 행장 찬술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자, 그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정몽주에서 시작되어 길재와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을 거쳐 이항에 이르는 ‘동방도통東方道統’은 이렇게 해서 확정된 것이다.¹²⁾

이처럼 이항은 사림의 후예로서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보다는 사림파의 학문적 정통성 곧 도통을 확립하는 데 진력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존현’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었다. 이러한 존현의 대의가 유생 교육과 결합되어 구체적인 제도로 마련된 것이 바로 서원이다.

Ⅲ. 서원설립운동의 전개

이항의 서원설립운동은 기본적으로 관학의 부진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왕조는 유교왕국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학교는 교화의 근본이 되는 곳”¹³⁾이라는 생각에 건국 초부터 중앙의 성균관과 사학四學, 그리고 전국의 군·현에 향교를 설립하여 세종 초에 이르면 그 체제가 거의 완비되었다. 이곳은 모두 관학으로서 관료 양성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성종조부터 여러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연산군 때 이르면 국왕의 유교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극단으로 치달아 관학이 급속히 쇠퇴하고 유풍은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중종반정 이후 관학의 진흥은 훈구파나 사림파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당시 훈구파의 대표 인물인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은 다음과 같이 국왕에게 말했다.

학교의 제도를 고치는 문제는 지금 당장 더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근래

12) 홍원식 외, 『‘낙중학’의 원류, 조선전기 도학파의 사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 14~17쪽 참조.

13) 鄭道傳, 『三峯集』 卷7, 『朝鮮經國典』, 學校條.

선비들이 성균관과 사학四學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 마치 텅 빈 건물같이 비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학교를 맡을 인물을 제대로 얻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옛 격식대로 오래 맡아 보는 법을 다시 써서 스승이 될 만한 유학자(師儒)를 골라 학관學官으로 삼아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케 한다면 선비들이 학교에 많이 모이리라 봅니다.¹⁴⁾

정광필은 관학이 피폐하여 학생들이 모여들지 않는 원인을 사유師儒 곧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을 가려 교육을 전담할 학관을 두지 않은 것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의정부와 이조, 예조, 성균관의 동의를 거쳐 이행李衍, 김안국 등 52명을 '사유가당인원師儒可當人員'으로 선발하기도 했다.¹⁵⁾ 이처럼 훈구 계열에서는 관학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이며 고식적인 대책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에 옮겨지지 않았다.¹⁶⁾

중종은 반정공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서서히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전 사화 때 큰 화를 입은 사림파의 후예들을 중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조광조 등 신진사류들이 중종의 측근에 포진하여 '격군심格君心(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함)'을 통한 지치至治의 실현을 표방하며 도학적 교육이념의 관점에서 새로운 교육진흥책을 제시했다. 그들은 훈구파들이 제시한 관학 중심의 제도적 보완보다 무너진 사습士習¹⁷⁾을 거론하며 도학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생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그들은 소학의 장려와 존현 의식의 고취, 사우지도師友之道의 확립 등에 주력했다.¹⁸⁾ 기묘사림들의 이러한 교육진흥책은 기묘사화로 정치적 몰락을 겪으며 좌절되고 말지만 뒷날 관학 대신 사학을 택한 이황의 서원 교육에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백운동서원은 1543년(명종 38) 훈구파의 후예로 분류되는 주세붕周世鵬에

14) 『中宗實錄』卷25, 中宗 11年 5月 乙巳.

15) 『中宗實錄』卷25, 中宗 11年 6月 乙巳.

16)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14쪽 참조.

17) 『中宗實錄』卷25, 中宗 12年 8月 戊午.

18)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16~22쪽 참조.

의해 풍기 땅에 세워졌다. 그는 풍기군수로 재임하면서 죽계竹溪를 끼고 있는 숙수사宿水寺의 옛터에 안향安珦을 제향할 문성공묘文成公廟를 먼저 설립하여 안향의 화상畫像을 모신 뒤 이어 향촌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서원 건물을 건립했다. 서원 건립 후 그는 자주 서원을 찾아 강학하며 유생들과 어울렸으며,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¹⁹⁾ 그가 풍기를 떠난 이후 경상감사 안현安瑄은 백운동서원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운영 방침 및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의 통제 아래 전반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으며, 몇 년 동안의 교육으로 많은 수의 과거급제자가 나왔음을 자랑삼아 말했다.²⁰⁾

백운동서원이 설립되고 5년 뒤인 1548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했다. 그도 백운동서원의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재정과 교육 상황, 유생들의 습속 등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다. 아무튼 그가 서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는 1년여의 풍기군수 직을 물러나면서 서원 경영의 장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도의 지방관청이 아닌 조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경상감사 심통원沈通源을 통해 사액賜額을 청원했다. 그의 청원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져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사액이 내려지고 약간의 사서賜書도 내려졌다.

이황이 서원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로부터 5년여 뒤인 1550년대 중후반이었다. 백운동서원의 경우와 같이, 이황이 서원설립운동을 벌이기 이전에 몇몇 서원이 먼저 세워지기는 했지만, 「서원십영」에서 볼 수 있듯 그의 생전에 세워진 대부분의 서원은 그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²¹⁾ 특히 백

19) 周世鵬, 『武陵雜稿』 卷7, 原集, 「竹溪志」 「學田錄跋」 참조.

20) 『紹修書院謄錄』 「斯文立議」 참조.

21) 『增補文獻備考』와 『俎上錄』을 보면, 李滉 당시의 서원은 1534년에 설립된 부안의 道東書院을 시작으로 영주의 紹修書院(1543), 해주의 文憲書院(1549), 함양의 藍溪書院(1552), 영천의 臨阜書院(1555), 강릉의 丘山書院(1556), 영주의 伊山書院(1559), 성주의 川谷書院(迎鳳書院에서 개칭, 1560), 경주의 西岳書院(1561)이 실려 있다. 부안의 도동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의 「書院十詠」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운동서원은 먼저 사당이 있고 뒤이어 부수적으로 교육 시설인 서원이 결합되었다는 점과 교육 목적도 관직 진출에 무게를 둔 점, 주세붕이 훈구척신들과 가까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²²⁾ 순수히 교육과 도학 중심의 서원설립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은 이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³⁾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동향의 역동서원(禹倬 주향)은 이황이 직접 주도한 가운데 문인인 조목趙穆을 내세워 설립한 곳이며, 경주의 서악서원西岳書院(薛聰 주향)은 그의 배후 지원 아래 문인 이정李楨이 세운 곳이다. 성주의 영봉서원迎鳳書院 경우는 목사로 있던 그의 문인 노경린盧景麟과 황준량黃俊良이 깊게 관계하면서 그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하였으며, 이 일에는 노경린의 사위였던 이이李珣도 함께 관계하였다.²⁴⁾ 그리고 영주의 이산서원 경우는 그가 원규院規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원용하여 보완함으로써 이후 서원들의 전범이 되었으며, 또한 이곳은 마땅치 않을 경우 반드시 선현을 모실 필요는 없다는 그의 의견에 따라 사당이 없이 세워진 것이 특징이다.²⁵⁾ 이밖에도 그는 영천의 임고서원臨臯書院(鄭夢周 주향)에 사액과 사서를 청하였으며, 역동서원²⁶⁾과 이산서원, 영봉서원에 대해서는 직접 기문을 짓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구에 세워진 화암서원(연경서원)이 이황의 배후 지원 아래 문인 이숙량李叔樑과 전경창全慶昌이 설립을 주도한 점은 서악서원의 경우와 같으며, 선현을 모실 사당이 없이 세워진 것은 이산서원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그의 서원관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경서원의 기문을 비록 그가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제자 이숙량이 지은 기문에 발문을 붙였다는 점에서 임고서원 등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31~32쪽 참조.

23)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60~79쪽 참조.

24)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70~75쪽 참조.

25) 李滉, 『退溪全書』 卷42, 序·記, 「伊山書院記」 참조.

26) 李滉, 『退溪全書』 卷42, 序·記, 「易東書院記」 참조.

이황이 적극적으로 서원설립에 나선 모습은 향리에 세워진 역동서원과 더불어 성주목사 노경린과 황준량을 통해 영봉서원을 설립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량은 노경린에 이어 성주목사에 부임한 뒤 영봉서원의 제향 인물에 대해 스승 이황과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1561년에는 성주목의 속현屬縣인 팔거현八莒縣(현 칠곡군)에 녹봉정사鹿峰精舍를 건립하였고, 이것은 다시 인근 대구의 화암서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이황이 적극적으로 서원설립운동에 나선 모습을 보다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녹봉정사는 서원의 규모를 갖추었지만 서원의 이름을 달지 않은 곳으로 20세기에 이르도록 근 350년 동안 강학이 지속되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며, 근대 시기에 이르기까지 칠곡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다.²⁷⁾ 이처럼 녹봉정사가 긴 시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립 주체가 이황과 그의 제자인 당시 성주목사 황준량이었다는 점, 그리고 설립 초기 강석을 황준량과 성주 향교 교수였던 오건吳健이 담당한 점, 재생齋生 가운데 한강寒岡 정구鄭述가 있었다는 점, 정구의 수제자인 석담石潭 이운우李潤雨 등이 지역 광주이씨廣州李氏 후예들과 재지사족들이 적극적으로 정사 경영에 참여한 점 등을 빼놓을 수 없다.

황준량은 1560년 노경린에 이어 성주목사로 부임해왔다. 그는 지방관의 중요 책무 중 하나인 ‘학교興學校興’을 위해 전심전력했다. 먼저 그는 성주 향교의 교수 오건과 함께 향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스승 이황과 연락하며 영봉서원 문제의 해결에도 노력했다. 한편으로 그는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초간初刊 작업도 추진하였다.²⁸⁾ 이렇게 성주지역의 문풍 진작을 위해 노력하던 중 그가 눈을 돌린 곳이 성주목 가운데 낙동강 건너

27) 홍원식,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 낙중학의 전개」(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편,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참조.

28) 이황이 『주자서절요』를 成編한 것은 1558년이며, 3년 뒤인 1561년 황준량이 성주목사로 재임하면서 성주에서 초간하였다. 이어 1567년 역시 그의 제자였던 柳仲郢이 지방관 재임시 定州에서 다시 간행하였다.

동쪽에 있던 성주목의 속현인 팔거현이었다. 이곳은 읍치로부터 거리가 멀어 향교를 출입하기 어려웠고, 아직 교육을 받을만한 사학도 없었던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황준량은 관의 지원과 함께 현지 유력 가문의 인물들인 광주이씨 이진경李進慶과 야성송씨冶城宋氏 송세례宋世禮, 성주도씨星州都氏 도순신都順臣 등을 앞세워 1561년 녹봉정사를 설립했다. 그는 읍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곡孔谷에도 이렇게 사학을 설립했다. 그의 이러한 사학 설립 노력은 앞서 신령新寧 현감 재임 시절에도 보인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녹봉정사는 관과 향촌 유력 사족들이 합세해 건립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한편으로는 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촌의 유력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다. 먼저 건립 당시 관의 지원은 정사의 규모나 재정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녹봉정사는 정당正堂과 동서재東西齋, 문루門樓에다 별도로 동몽재童蒙齋가 있었고, 인공 연못까지 갖춰 여느 서원과 진배없는 규모였다. 당시 정당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지만, 동재는 시습재時習齋, 서재는 명선재明善齋, 문루는 양호루養浩樓, 연못은 천연지天淵池였다. 그리고 확보된 전답이나 구비된 서책, 인근의 사찰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도록 한 것 등을 볼 때, 재정 기반도 탄탄하여 사액서원과 다를 바 없었다.²⁹⁾ 다만 지원 주체가 사액서원처럼 중앙 정부가 아닌 성주목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뒷날 칠곡 부사 윤광정尹光鼎이 지원 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정사의 철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녹봉정사 설립 초기 지방 수령인 황준량과 교수인 오건이 직접 찾아 통강通講을 실시한 것도 일반적인 사학과 달랐다. 이것은 녹봉정사가 지닌 위상과 더불어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다.³⁰⁾

29) 구본욱, 「녹봉정사의 건립과 경영 및 강학」(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편,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참조.

30) 추제협의 「퇴계학의 남전과 녹봉정사」(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편,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와 정석태의 「금계 황준량의

이황은 성주의 영봉서원뿐만 아니라 녹봉정사의 건립 과정에도 깊이 관계한다. 녹봉정사 건립 공사가 완성되자 황준량은 곧장 정사 편액의 친필 제자題字를 요청하고 각 건물의 명칭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황준량의 편지를 받은 이황은 쾌히 제자 요청을 승낙하고, 각 명칭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였는데, 문루에 대해서만 호연루浩然樓를 양호루養浩樓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밝혔다.³¹⁾

이황의 서원건립운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녹봉정사의 건립은 다시 인근 대구지역의 연경서원 건립으로 이어졌다. 연경서원은 1565년 묘우가 없이 이황의 제자인 매암 이숙량(1519~1592)과 계동 전경창(1532~1585)이 대구 부사의 후원 아래 건립했다. 이숙량은 원래 안동 예안 출신이지만 당시 대구지역에 옮겨 살고 있었으며, 전경창은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1세대 유학자³²⁾로 이황의 문하에 직접 나아간 인물이다. 따라서 이황은 이 두 제자를 통해 연경서원 건립을 권려하였으며, 묘우 없이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지지 표명과 발문跋文, 그리고 「서원십영」 속에 연경서원을 포함시켜 기쁨과 기대의 마음을 노래했다. 연경서원을 건립하기 직전 이숙량은 동문수학한 황준량을 찾아 성주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며,³³⁾ 전경창은 녹봉정사를 방문하였다.³⁴⁾

이처럼 성주의 영봉서원과 칠곡의 녹봉정사, 대구의 연경서원은 이황의 깊

녹봉정사 설립과 성주목사 재직 시절의 활동」(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참조.

31) 李滉, 『국역퇴계전서』 6, 퇴계학연구원, 1989, 108쪽 참조. 그리고 이황은 황준량이 녹봉정사 건립 후 감회를 담아 지은 시(『鹿峰精舍事蹟』 1면, 文集에는 未載)에 대해 차운시로 화답하기도 했다.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3, 詩, 〈次韻黃仲舉寄示鹿峰精舍落成〉.

32) 흔히 대구지역 1세대 대표적 유학자로 계동 전경창과 더불어 松潭 蔡應麟, 林下 鄭師哲을 든다.

33) 이황과 황준량 사이 오간 서신(『退溪先生文集』 卷20, 書, 〈答黃仲舉〉)에서 확인되며, 李文樞의 『默齋日記』에서도 확인된다.

34) 전경창은 당시 進士의 신분으로, 『鹿峰精舍事蹟』의 〈訪舍錄〉과 『鹿齋講舍錄』의 〈講舍錄〉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은 관심과 그 제자들의 적극적인 주도로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연차적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황의 퇴계학이 성주에서 칠곡을 거쳐 대구지역으로 전파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³⁵⁾

IV. 서원교육관

이황은 20대와 30대 2차례 성균관에서 공부하며 일찍이 기묘사람들이 지적인 폐해를 몸소 경험했다. 그것은 바로 관료진출을 위한 과거시험에 매몰된 부박한 사슴士習이었다. 이후 풍기군수로 재임하여 서원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기회를 가졌지만, 사학인 백운동서원에서도 그 모습은 여전했으며, 50대에 2차례나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면서 바라본 관학의 폐해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그가 서원설립운동에 나선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서원교육관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다. 그는 유자를 참칭하며 권세를 휘두르는 현실을 목도하며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내팽개친 채 위인지학爲人之學에만 매달리는 교육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관학이 아닌 사학에 주목하였다. 기묘사람들은 미처 사학인 서원 제도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황은 서원 교육 속에 그들의 교육이념을 그대로 담았다.

서원은 존현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제도이다. 그런데 실은 기존의 관학인 성균관과 향교도 존현과 교육이 결합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 관학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차이가 있다면 사학이란 점일 텐데, 이것만으로는 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존현과 교육 사이의 관계성과 존현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교육의 목적과

35) 홍원식, 「퇴계학의 대구지역 유입과 전개」(장윤수 외, 『대구권 강안학과 한강학파』, 역락, 2024) 참조.

내용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이황은 존현과 교육 가운데 교육 중심적 서원관을 표방했다. 이것은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설립과 좋은 대비가 된다.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안향을 제향할 사묘와 향촌 유생들을 교육할 서원을 구분해 생각하여 먼저 문성공묘를 건립한 뒤 부차적으로 교육 공간인 서원의 건립을 도모했다. 결과적으로 사묘와 서원 곧 강학처가 한 공간 속에 결합되어 있게 되었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제향 중심적 서원관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됨에 따라 서원은 존현과 교육이라는 두 구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원에서 교육받는 유생들은 모름지기 존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와 달리 이황은 서원의 존현과 교육이라는 두 기능이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존현의 마음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속에는 재생들의 ‘흥기지심興起之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존현의 의식이 재생들 마음속에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선현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맹자의 ‘사단지심四端之心’과 “사람은 누구나 요순과 같이 될 수 있다(人皆可以爲堯舜)”와 주자학의 ‘성즉리性即理’ 철학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왜 서원은 관학과 달리 향촌과 연고가 있는 인물을 제향했는가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당시 서원은 관학과 달리 향촌과 연고가 있는 인물을 제향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황은 동의하였다. 서원에 제향할 인물을 놓고 그 선정과 위차, 추가 배향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재생들의 흥기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물론 서원이 향촌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학이나 관학과 등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향 인물에서도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향촌 사회의 교육 수요나 존현·존조 의식의 강화라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

을 수도 있겠지만, 먼 선성들이 매우 훌륭하긴 하나 시공간적 거리감으로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반면 향촌과 연고가 있는 가까운 인물을 제향하게 되면 재생들의 흥기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교육 효능의 이유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이황의 교육중심적 서원관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묘 없이도 서원을 설립한 예에서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는 영천(현 영주)의 이산서원이 낙성을 보고서도 마땅히 제향할 선유를 찾지 못하자 서재書齋로 명명하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옛날에 서원에서 향사함이 어찌 모두 그 지방 출신 인물만이겠는가. 선성先聖이나 선사先師를 제사 지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묘를 두지 않은 곳도 있으니 오직 그 형세가 어떠한가를 보아 그 마땅함에 따랐을 뿐이다. 이제 이 학교를 보건대 아직도 토지를 마련하는 한 가지 일에도 겨를이 없는데 제전祭田을 두어 향사할 인물을 정하는 것은 또한 후일을 기다려 의논해도 잘못됨이 없을 터이다. 다만 그 학교를 세운 규모를 보건대 실로 서원의 제도를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을 피하고 서재로 바꾸려 하는가.³⁶⁾

뒷날 대구에 건립된 화암서원(연경서원)도 이산서원의 예를 따라 사묘 없이 서원을 건립하였으며, 이황 사후 이산서원과 화암서원 모두 사묘를 갖추 그를 배향했다. 앞서 언급한 팔거(칠곡)의 녹봉정사는 서원의 규모를 갖추었음에도 정사의 명칭을 쓴 경우도 있다. 이것은 아마 팔거가 성주목의 속현인 관계로 성주에 이미 영봉서원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한 고을에 두 서원을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여 정사란 명칭을 쓴 것으로 짐작이 된다. 여기에서 서원이란 명칭 자체보다 재생 교육에 중심을 두었음이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이황은 도학을 배향 인물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봉서원의 경우이다.³⁷⁾ 영봉서원은 낙성을 보았음에도 제향 인물

36) 『退溪全書』卷42, 記, 「伊山書院記」.

37) 정우락, 『한강학의 생성공간과 한강학파의 성장』, 역락, 2022, 443~450쪽 참조.

을 놓고 시비가 길게 이어졌다. 특히 원래 배향하기로 한 이조년李兆年の 화상畫像에 염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노경린과 황준량이 질정하자 이황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대개 학교를 세우는 것은 그 누가 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서원으로만 본다면 도학을 위한 뜻이 보다 강한 만큼 그 서원의 제향 인물은 도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³⁸⁾

서원이 본래 도학을 밝히기 위해 세워진 것이니만치 도학을 하지 않은 인물을 사묘에 모시는 것은 합당치 않은 처사이다.³⁹⁾

이황은 여기에서 학교도 물론 그렇지만 서원은 특히 도학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향 인물도 마땅히 도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황의 이러한 생각은 기묘사림들의 정몽주·김광필의 문묘종사운동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기묘사림들은 부박한 사습을 타개하기 위해 진정 사표로 삼을 선현을 택해 문묘종사를 시도했다. 이때 인물 선정의 기준은 도학이었고, 도학은 충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 국학인 성균관의 문묘와 사학인 서원의 사묘라는 차이만 있을 뿐 인물 선정에서 도학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여기에서도 이황이 기묘사림의 후예란 점이 잘 드러난다.

이황의 도학 중심적 서원 배향 인물 선정 기준은 그의 서원 교육 목적이나 내용과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이황은 교육만이 아니라 당시 혼란스런 정치의 원인 또한 모두 위기지학을 추구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았으며, 이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책 또한 위기지학의 추구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임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 철저한 궁행심득躬行心得을 요구했다. 그는 무너진 교육풍토 속에 서원만이 위기지학을 추구할 수 있는 참 도량이라고 생각했다. 위기지학에 대한 강조는 이미 기묘사림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38) 『退溪全書』 卷12, 書, 「答盧仁輔(庚申)」.

39) 『退溪全書』 卷20, 書, 「答黃仲舉(俊良)」 庚申.

오늘날의 유학공부를 한다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이 날마다 하는 바는 고작 과거시험 공부에나 마음을 쓰며 다만 사장詞章이나 외우는 것일 뿐 수기치인에 힘쓰는 자는 드무니 한심하다고 하겠습니까. 먼저 소학으로써 그 근본의 도리를 세워야 합니다.⁴⁰⁾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학이라는 책은 아끼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공경하기를 신명과 같이 해야 하며 방일한 마음을 거두고 덕성을 함양하는 데 이보다 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있는 학교들로 하여금 이 소학을 모두 숭상하는 것을 알게 한다면, 자연히 교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며 소학의 길이 한 세상에 밝아질 것입니다.⁴¹⁾

이황도 대서성 재임 시절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져 관학 교육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기자箕子가 홍범구주洪範九疇를 가르쳐 예의를 잘 지켜왔고, 더구나 여러 성군이 서로 계승하여 유학을 숭상하고 도학을 중시하는 아름다움이 이와 같이 지극하였다. 그런데도 아직 도학을 강명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 비단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숨기고 있으며,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여 성현의 책을 보기를 과거에 오르고 녹봉을 취하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중략) 어찌 사대부의 커다란 수치가 아니겠는가?⁴²⁾

이황은 관학의 최고 책임자로서 한양의 사학四學 재생들에게 교육 현실을 개탄하며 위와 같이 도학에 전념할 것을 유시한 것이다. 그는 기묘사림들과 자신이 관직생활 동안 이루지 못한 위기지학 교육의 꿈을 새로운 서원 교육 속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덧붙여 과거시험 공부에 대한 이황의 입장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오늘날

40) 『中宗實錄』 卷29, 中宗 12年 8月 壬申. 奇遵 上言.

41)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11月 辛巳. 參贊官 金安國.

42) 『退溪全書』 卷41, 雜著, 策問, 「論四學師生文」.

의 선비된 자로서 과거시험 공부하는 것을 비록 완전히 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성현을 제사 지내며 자기 인격을 도야하는 학문이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도리와는 내외內外·본말本末·경중輕重·완급緩急의 순서가 하늘과 땅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하게 구별된다”⁴³⁾고 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이황도 서원에서의 과거시험 공부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관학 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유능한 관료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그의 서원 교육관은 관학의 교육관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황의 이러한 위기지학과 궁행심득의 도학 중시 교육관은 다시 산장山長 곧 서원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종종 시기 훈고 관료들도 관학 피폐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유師儒’를 두지 않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황이 서원 교육에서 산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와 질적 차이가 있다.

아직도 노사숙유老土宿儒를 산장으로 삼아 가르침을 주관하여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서원에 들어온 선비들이 겉으로는 뜻만 크게 가질 뿐 끝내 속된 풍속의 더러움에 빠짐을 면치 못하여 성인의 가르침도 잊고 (서원을 만든) 후현의 좋은 뜻도 잃게 될는지 모른다.⁴⁴⁾

서원에 대해 중국에서는 반드시 유학자로서 도술道術을 알고 있는 이를 택하여 산장山長이나 주맹主盟으로 삼아 (유생을) 이끌게 하니, 그러므로 도술이 나누어지지 않고 배우는 사람들 또한 나아갈 바를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서원의 가르침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이 제도는 강구하지 못하여 후시라도 서원에 들어온 선비의 공부하는 방향이 불행하게도 옛 사람들의 위기지학에서 벗어나 오직 과거시험 보는 일에만 힘쓰게 된다면 (중략) 어찌 두렵지 않으랴.⁴⁵⁾

43) 『退溪全書』 卷42, 記, 「迎鳳書院記」.

44) 『退溪全書』 卷42, 記, 「伊山書院記」.

45) 『退溪全書』 卷42, 記, 「迎鳳書院記」.

이황은 올바른 산장의 선택 유무가 서원 교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았다. 올바른 산장의 선택 기준은 제향 인물의 선택 기준과 똑같이 도학이다. 올바른 스승만이 유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사제와 사우 관계도 더욱 중시되고, 이것은 문호와 학파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여기에서 이황이 ‘숙유’를 말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관학인 향교의 경우 큰 고을이 아니고서는 전문 학관學官을 두지 않은 채 지방관이 초하루와 보름에나 한번 들러 재생들의 학업 상황을 둘러보는 정도였다. 따라서 지방관이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소양이 부족한 경우 그 고을의 교육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황은 산장이 서원에 상시로 거처하며 직접 재생들을 가르치고 궁행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사생지도師生之道와 사우지교師友之交가 강조되고, 학단과 학파의 형성이 자연스레 이뤄졌다.

서원에서 위기지학의 도학 교육은 소학이 첫걸음이었다. 일찍이 김굉필은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일컬었으며, 이에 따라 그의 후예들은 율신수기律身修己의 소학 교육을 강조했다. 이어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을 가르쳤다. 『심경』은 실천궁행의 바탕인 마음에 대한 공부로, 『근사록』은 고원한 데로 나아가기 위한 입문처의 공부로 중시되었다. 이황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여기에서 『주자대전』이 간행되고 널리 유포되어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에 대한 강학과 연구 열풍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후 서원이 조선시대 유학의 학문적 심화와 학파적 분화의 길을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V. 결론

이황이 주도한 서원설립운동은 그가 기대한 이상으로 폭발적이었으며, 그가 생각하지 못한 방면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것이 긍정적 측면

에서든 부정적 측면에서든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그것은 단순히 교육과 교육제도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묘사림의 후예로서 그가 서원설립운동에 나선 이유는 분명했다. 위기지학을 통한 도학의 추구하고 이를 통한 진정한 유교의 나라 조선을 만들고자 했다. 여기에는 국왕도 예외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고 몸소 궁행심득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나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 나이 어린 선조가 즉위하자 이때야말로 지치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사림의 후예들은 벌떼처럼 에워쌌다. 그 가운데 원로 대신이자 노학자 이항도 함께 있었다. 그는 충정을 담아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를 올렸다.⁴⁶⁾

옛 임금들의 도술을 밝혀서 한 시대의 나아갈 바를 정함으로써 모범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또한 어찌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안 쌓인 의혹을 되돌리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을 버려서 한 번 변하여 대중지정大中至正한 가르침에 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반드시 도술을 밝혀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새로운 정치를 펴며 첫머리에 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중략) 그것을 밝히는 일에는 본말·선후·완급의 배움이 있으며, 그 본말에는 또한 허虛와 실實의 다름이 있습니다. 임금이 몸소 실천하며 마음으로 깨우친 데 바탕하여 민생의 일상생활 윤리에서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본이며, 법제를 따르거나 문물의 아름다움만 이어서 지금 것을 고치고 옛 것을 본받으며 비교하여 본뜨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본은 먼저하고 급한 것이라면 말은 뒤의 것이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항은 근심은 그치지 않아 뒤이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 올리면서 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서원설립운동에서 가졌던 생각과 조금의 차이도 없다. 그의 서원설립운동은 교육과 관계된 것이었지만, 그에게서 교육은 곧 정치였으며, 정치의 시작이자 완성이었다.

46) 『退溪全書』 卷6, 教·疏, 「戊辰六條疏」.

【참고문헌】

1. 원전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高宗實錄』

『增補文獻備考』

『俎上錄』

『紹修書院謄錄』

『鹿峰精舍事蹟』

『鹿齋講舍錄』

鄭道傳, 『三峯集』

周世鵬, 『武陵雜稿』

申光漢, 『企齋集』

李滉, 『退溪全書』

李滉, 『退溪先生文集』

李滉, 『국역퇴계전서』

2. 논저

구본옥, 「녹봉정사의 건립과 경영 및 강학」,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김형수, 「이황 서한을 통해 본 명종대 서원의 창설과 운영」, 『퇴계학과 유교문화』 5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유홍렬, 「조선에 있어서의 서원의 성립」, 『청구학총』 29·30, 청구학회, 1937·1938.

이선경, 「김광필의 도학적 위상과 이황의 역할」, 『퇴계학보』 155집, 퇴계학연구원, 2024.

-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 『퇴계학보』 19집 1호, 퇴계학연구원, 1978.
- 이태진, 「사림과 서원」,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1.
- 장윤수 외, 『대구권 강안학과 한강학파』, 역락, 2024.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정석태, 「금계 황준량의 녹봉정사 설립과 성주목사 재직 시절의 활동」,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 정우락, 『한강학의 생성공간과 한강학파의 성장』, 역락, 2022.
- 추제협, 「퇴계학의 남전과 녹봉정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편,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 최민규, 「중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과 주자의 서원론 활용」, 『한국서원학보』 제20호, 한국서원학회, 2025. 6.
- 홍원식 외, 『“낙중학”의 원류, 조선전기 도학파의 사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
- 홍원식,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 낙중학의 전개」, 『녹봉정사와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20.
- 홍원식, 「퇴계학의 대구지역 유입과 전개」, 『대구권 강안학과 한강학파』, 역락, 2024.
- 홍제연·고수연, 「숙종-영조대의 서원·사우 궤적」, 『한국서원학보』 제20호, 한국서원학회, 2025. 6.

Abstract

The Age Awareness of Toegye Yi Hwang and the Need for Education in Seowon

Hong, won sik*

Toegye Yi Hwang took the lead in the campaign to establish a seow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seowon as a descendant of Gimyo Myongheon scholars. His emphasis on education in seowon is linked to disappointment with government university. He thought that the education of a seowon where teachers and students live together and pursue self-culture learning(爲己之學) could cultivate a true confucian scholars. He sought to pursue the study of the way(道學) through self-culture learning and to create Joseon, a true Confucian country through it. In addition, he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by actively connecting them to education through the Memorial Service of Confucianism, which is related to the region, which greatly influenced the succession of academic communities and the formation of schools. Furthermore, the movement to establish a seowon led by him was not just a matter of education or the educational system, but had a profound influence on socie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His seowon establishment movement was related to education, but for him, education was politics, the beginning and completion of politics.

Key word : Toegye Yi Hwang, campaign to establish a seowon, education in seowon, self-culture learning(爲己之學), the study of the way(道學)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 Emeritus professor of philosophy at Keimyung University /
gshong425@naver.com

건립 목적과 제향 기준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한 퇴계 이황의 서원(書院) 교육관(教育觀)*

강 보 승**

- I. 서론
- II. 퇴계의 서원 건립 목적을 통해 본 그의 서원관
- III. 제향 인물 선정 기준을 통해 본 퇴계의 서원관
- IV. 율곡 및 주자 서원관과의 비교 고찰
- V. 결론

【국문초록】

퇴계는 당시의 공교육 제도로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보아 서원 교육을 주장하였고, 서원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풍(士風)을 진작시켜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의 자율성’과 ‘환경의 교육성’ 확보는 퇴계에게 있어서 서원 건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퇴계는 인륜을 밝히는 교육과 도학(道學)의 탐구를 기할 수 있다면 제향(祭享) 유무와 관계없이 서원이라 칭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으나 존현(尊賢)을 통한 도학의 현창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임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선현을 제향하는 것은 도학을 밝히고 인재를 기르기 위한 더 발전된 방법이라고 하였다.

퇴계의 서원 제향자 선정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도학과 관련이 있는 유현(儒賢)’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출신의 인물을 주향(主享)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서원이 소재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물을 우선 제향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서원의 주향자(主享者)는 가급적 전조(前朝)인 고려의 인물

* 이 논문은 2025.9.19.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 yeskbs@cbnu.ac.kr

을 택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서원에 제향할 마땅할 인물이 없으면 굳이 제향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원의 소재지에 연고가 있는 유현(儒賢)을 제향한다는 기준은 퇴계와 율곡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율곡은 우리나라의 인물보다는 도학의 실제적 연원이 되는 주자를 주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또한 퇴계가 도통의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도학자와 충절인(忠節人)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반면, 율곡은 도통의식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퇴계가 가급적 전조(前朝)의 유현(儒賢)을 입사(立祠)하고자 한 데에 비해 율곡에게는 전조의 유현 우선 기준이 없었다.

퇴계와 주자의 서원관을 비교해보면, 주자는 퇴계와 달리 서원 부흥의 목적을 ‘교육의 자율성’이나 ‘환경의 교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학(私學)의 창달보다는 미비하고 쇠락한 지방의 국가 교육기관들을 서원으로써 대체하는 데에 두었다. 따라서 주자는 서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영향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현실적으로 사학과 관학을 절충하는 형태로 서원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제향 인물에 있어서도 주자는 생전에 복송오자 등 직전 시기의 선유(先儒)나 맹자·자사 등의 사배(四配)가 아닌 공자와 십철(十哲)로 제향자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주자가 이학(理學)과 서원의 확대에 대한 당시 조정의 거부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퇴계, 이황, 서원, 제향, 율곡, 주자

I. 서론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은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영남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 선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추앙받고 있다. 이에 따라 퇴계의 삶과 학문에 관한 연구는 현재 1만 건이 훌쩍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 축적되었고 현재도 다방면에서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들이 대부분 철학과 문학 등 제한된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서원에 대한 퇴계의 인식을 조명하고 교육과 제향이라는 서원의 두 중심

기능 중 제향 측면에 대한 퇴계의 관점과 그 실제적 구현 양상을 고찰하며 주자 및 율곡 관련 서원과 비교하여 퇴계 서원관의 특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서원의 필요성에 대한 퇴계의 관점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계가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건립한 백운동서원에 사액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격상시키고 서원 건립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나라 서원 흥기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퇴계가 벼슬을 뒤로 하고 낙향한 후로 서원 건립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당시의 관학 조직으로는 무너진 학풍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퇴계는 서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국학(國學)은 현명한 선비가 관여하고 있으나 군·현의 학교는 한갓 허울만 남았고 가르침이 크게 무너졌으며 선비들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학문이 시들고 피폐함이 극심한데도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¹⁾

“삼대(三代)가 융성할 때에는 교법(教法)이 매우 잘 갖추어져서 가(家)에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주(州)에는 서(序)가 있고, 국(國)에는 학(學)이 있었으니, 가는 곳마다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르침과 학교가 무너져 국학과 향교는 문구(文具)만 겨우 갖추었을 뿐이고, 가족(家塾)·당상(黨庠)의 제도가 아예 전무하다. 그러므로 독실한 뜻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선비로서 책을 가지고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서원(書院)이 생기게 된 이유이다.”²⁾

퇴계는 중기 조선에서 관(官) 주도의 교육은 중앙의 성균관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유명무실해졌고 이를 개선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 진정한 학문을 하

1) 『退溪先生文集』 卷9, 書, 「上沈方伯」: “混竊見今之國學, 固爲賢士之所關, 若夫郡縣之學, 則徒設文具, 教方大壞, 士反以游於鄉校爲恥, 其刊敝之極, 無道以救之, 可爲寒心.”

2) 『退溪先生文集』 卷42, 記, 「迎鳳書院記」: “昔在三代之隆, 教法極備, 家有塾, 黨有庠, 州有序, 國有學, 蓋無適而非學也. 降及後世, 教壞而學崩, 則國學鄉校, 僅有文具, 而家塾黨庠之制寥寥焉. 至使篤志願學之士, 抱墳策而無所於歸, 此書院之所由以起也.”

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곳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 대안으로 서원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이 서원을 학문과 경제의 기반으로 활용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서원이란 명칭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일찍이 남당(南唐) 시대에 이발(李渤)의 은거지인 여산(廬山)의 백록동(白鹿洞)에 학궁(學宮)을 창립하고, 스승과 생도를 두어 가르치며 이를 일러 국상(國庠)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서원의 유래입니다. 남송(南宋) 이후에 전쟁으로 어수선한 때임에도 민월(閩越)·절강(浙江)·호북(湖北)·상남(湘南) 지역에 성리학이 성하게 일어나 선비들의 학문이 날로 번성하여 서로 사모하고 본받아 곳곳에 서원이 증설되었습니다. 오랑캐인 원(元)나라가 중국을 점령하였을 때에도 먼저 태극서원(太極書院)을 건립하여 천하를 창도할 줄 알았습니다. 명나라에 이르러 문화가 크게 천명되어 학교가 더욱 닳고 발전하니 천하에 서원이 모두 3백여 군데나 됩니다. 왕궁과 수도로부터 지방의 고을에 이르기까지 서원이 없는 곳이 없으니 서원에서 취할 이점이 무엇이기에 중국에서 저토록 숭상한단 말입니까? …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역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인재를 얻는 데도 틀림없이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을 것입니다.”³⁾

퇴계는 남송이 금과의 전쟁으로 어수선한 시기에도 서원을 장려하였고 이 민족의 원나라마저도 서원을 세움에 적극적이었으며, 지금의 명나라에서는 서원이 매우 번성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토록 서원을 중시하고 장려하는 이유가 진정한 학문의 연마와 이를 통한 천하 경영을 위해서라고 하

3) 『退溪先生文集』 卷9, 書, 「上沈方伯」: “夫書院之名, 古未有也。昔南唐之世, 就李渤舊隱廬山白鹿洞, 創立學宮, 置師生以教之, 謂之國庠, 此書院之所由始也。宋朝因之, 而其中葉, 猶未盛, 天下只有四書院而已。渡江以後, 雖當百戰搶攘之日, 而閩浙湖湘之間, 斯文蔚興, 士學日盛, 轉相慕效, 處處增置。雖以胡元竊據, 猶知首立太極書院, 以倡天下。逮我大明當天, 文化大闢, 學校之政, 益以修舉, 今以一統志所載考之, 天下書院, 總有三百餘所, 其所不載者, 想又多也。夫自王宮國都, 以及列郡, 莫不有學, 顧何取於書院, 而中國之所尚如彼, 何哉? … 由是言之, 非惟土之爲學, 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 亦必於此而優於彼也。”

였다. 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학이나 향교보다 서원을 통한 인재의 양성이 국가를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하고 퇴계는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沈通源)을 설득하여 조정의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였다. 퇴계는 주자와 그 문인들이 서원에서 행했던 강학활동에 주목하며 중국 서원제를 깊이 이해하였고, 제자·문인들과 함께 서원 건립에 노력하였으며, 10여 곳의 서원 건립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다.⁴⁾

퇴계는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는 것이 그대로 교학의 목적이 되고, 이록(利祿)의 학문이 사림(士林)의 수난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절감하였으며, 숭모하였던 조광조의 이상적 지치주의(至治主義)가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좌절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퇴계는 향촌에서 도학의 이상을 교학을 통해 실현하고자 서원 부흥에 적극적이었고 자연스럽게 퇴계는 제향보다 교학·강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서원을 강조하였으니, 이는 관련 인물의 제향을 비교적 강조하였던 17세기 설립 서원들과 다른 점이었다.⁵⁾

퇴계가 관여하였던 서원의 전체적인 면모는 「서원십영(書院十詠)」에 잘 드러나 있다. 퇴계가 65세에 지은 「서원십영」은 초기의 아홉 서원에 대한 찬시이며,⁶⁾ 마지막 〈총론제원(總論諸院)〉에서는 여러 서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였다.⁷⁾ 「서원십영」에 기록된 서원은 대체로 강릉 구산서원과 해주 문헌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경상도에 소재한 서원이고, 이산, 영봉, 역동, 화암(연경)서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원기(書院記)를 남길 정도로 퇴계는 그 건립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운동서원을 사액서원으로 격상시켰으며, 「서원십영(書院十詠)」에서 언급된 9개의 서원과 역동서원(易東書院) 건립에 직접 관여하고 「역동서원기」를 짓기도 하였다(조준호, 「퇴계 이황의 서원 건립 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제2호, 역사문화연구소, 2006, 116쪽 참조).

5) 정순목, 「朱晦庵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比較」, 『退溪學報』 제53집, 퇴계학연구원, 1987, 36쪽 참조.

6) 퇴계는 「서원십영」에서 죽계(소수)서원, 임고서원, 문헌서원, 영봉(천곡)서원, 구산서원, 남계서원, 이산서원, 서악정사, 화암(연경)서원을 각각 찬미하였다.

7) 『退溪先生文集』 卷4, 詩, 「書院十詠」

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들 서원은 대개 퇴계의 문인들이 관장하였고, 이산서원과 회암서원은 퇴계 졸후 그를 제향할 정도로 퇴계의 영향력이 컸으며, 17세기 이후 퇴계학과 형성의 터전이 되었다.⁸⁾

Ⅱ. 퇴계의 서원 건립 목적을 통해 본 그의 서원관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 퇴계는 관(官) 주도의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륜을 밝히는 학문이 무너지고, 선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재가 육성되지 않아 국가 발전이 저해되므로 서원을 통한 인재의 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장에서는 퇴계의 서원관(書院觀)을 살펴 퇴계가 지향한 서원의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퇴계가 그렸던 이상적 서원의 모습을 요약하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도학(道學)의 연마를 위한 교육을 위주로 향사의 기능을 겸한 곳’이라 할 수 있다.

1. 국가 교육의 보완을 통한 도학(道學)의 확산

퇴계는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에게 백운동서원의 사액 건의를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현의 학교는 한갓 허울만 남았고 가르침이 크게 무너졌으며 선비들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학문이 시들고 피폐함이 극심한데도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오직 서원 교육이 오늘날 성대하게 일어난다면 무너진 학정(學政)을 구제할 수 있어 학자가 귀의할 바가 있고,

8) 조준호,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서원 건립 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제2호, 2006, 115~117쪽 참조.

사풍(士風)이 이를 따라 크게 변혁되고 습속이 날로 아름다워져서 왕의 교화가 이루어질 것이니, 성치(聖治)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뿐이 아닐 것입니다.”⁹⁾

퇴계가 서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국가 교육의 문란에 기인한다. 당시의 공교육 제도로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보아 서원교육을 제창하고 이로써 서원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풍(士風)을 진작시켜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자면 유신(儒臣) 가운데 덕망과 경술(經術)이 있는 사람을 골라 수령(守令)으로 삼고 서원 육성의 책임을 맡겨야 하며, 수령은 각 고을의 명망 있는 선비를 초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원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⁰⁾

지방의 향교는 형식만 갖추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성균관은 과거(科擧)의 등용문 역할을 할 뿐 진정한 교육과 학문을 위한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원은 진정한 학문을 갈망하는 스승과 학생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서원에 반드시 도학(성리학)의 연구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퇴계는 “선비로서 와서 유학하는 자는 비록 과거(科擧)의 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를 강명하는 방법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도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의를 숭상할 줄은 알아서 학행을 겸비하여 사군자(士君子)의 풍도를 익히는 것입니다.”¹¹⁾라고 하여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할 수도 있으나 서원이 추구하는 학문은 이록(利祿)을 위한 학문이 아닌 인륜(人倫)을 위한 도학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볼 때 퇴계가 서원 건립에 매진한 1차적 목적은 국가 교육의 보완을 통한 도학

9) 『退溪先生文集』 卷9, 書, 「上沈方伯」: “若夫郡縣之學, 則徒設文具, 教方大壞, 士反以游於鄉校爲恥, 其刊敝之極, 無道以救之, 可爲寒心. 惟有書院之教, 盛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士風從而丕變, 習俗日美, 而王化可成, 其於聖治, 非小補也.”

10) 『退溪先生文集』 卷9, 書, 「上沈方伯」: “請於朝, 別揀儒紳之有德望經術, 節行風義可爲士林矜式者, 爲之郡守, 以責其任.”

11) 『退溪先生文集』 卷12, 書,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의 연구와 확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의 자율성’과 ‘환경의 교육성’ 확보

정순목은 퇴계가 서원 건립을 통해 추구한 것을 ‘교육의 자율성’과 ‘환경의 교육성’으로 명료하게 제시하였다.¹²⁾ ‘교육의 자율성’과 ‘환경의 교육성’은 퇴계에게 있어서 서원 건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여기서는 정순목이 제시한 ‘교육의 자율성’과 ‘환경의 교육성’을 좀 더 면밀히 고찰하여 퇴계의 서원 건립 목적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교육의 자율성’ 측면에서 퇴계의 서원 건립이 갖는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 내용과 목적의 자율성이다. 퇴계는 “당·송·원·명대에 국학과 향교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별도로 서원을 건립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국학과 향교는 과거(科擧)와 법령의 구속이 있어서 서원이 어진 이를 존경하고 도를 강명하는 아름다운 뜻에 전념하는 것만 같지 못해서입니다.”¹³⁾ 라고 국가 교육기관의 부자율성을 언급하였다.

중앙의 국학과 지방의 향교 모두 국가의 기관으로 국가의 구속을 받아 국가가 의도하는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므로 교육 방향과 내용이 경색될 수밖에 없다. 당나라 때에 처음 생긴 서원이 북송 시기에 공교육 대체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매우 흥성하였으나 그 교육 내용과 방향이 과거 등 국가의 교육수요에 따라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오래지 않아 다시 서원이 쇠락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퇴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목적과 방향,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서원을 통해 참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2) 정순목, 「朱晦庵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比較」, 『退溪學報』 제53집, 퇴계학연구원, 1987.

13) 『退溪先生文集』 卷12, 書「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彼數代非無國學鄉校, 而必更立書院者, 何也? 國學鄉校, 有科擧法令之拘, 不若書院可專於尊賢講道之美意.”

둘째는 규율의 자율성이다. 퇴계는 서원의 학생들이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자율적으로 자신을 검속하고 규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학문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퇴계는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공부이자 수양으로 보고, 주자의 「동규후서(洞規後敘)」를 그 모범으로 삼아 서원의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성학십도(聖學十圖)』에도 그대로 수록하였다. 주자는 「동규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이 백록동서원에서는 그 규범들을 더는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성현들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하도록 한 큰 단서만 모아 조목별로 나열하여 출입문 위에 새로 게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목들을 함께 연구하여 밝히고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이에 저절로 삼가고 조심하게 되므로 예전의 규범들보다 더 엄격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을 스스로 규제하지 못하여 간혹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된다면 타율적인 규범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규범을 없앨 수 없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¹⁴⁾

주자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규율이 아닌 재생 스스로 자신을 검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원이 운영되기를 바랐다. 유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동일한 도덕 기준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선천적 도덕 기준은 성현의 학문에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스스로 의식하고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타율보다 더 엄격할 것이라고 주자는 보았다. 퇴계 역시 서원의 규율에 관하여 주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동규후서」와 같은 자율규범을 자신이 관여한 서원의 기본적 규율 방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외적·타율적 규범에 따라 운영되는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에 대한 발전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4) 『退溪先生文集』 卷7, 筭, 「進聖學十圖筭」: “故今不復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 條列如右, 而揭之楣間. 諸君相與講明遵守, 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 其所以戒謹恐懼者, 必有嚴於彼者矣. 其有不然, 而或出於禁防之外, 則彼所謂規者, 必將取之, 固不得而略也. 諸君其念之哉!”

셋째는 서원 운영의 자율성이다. 퇴계는 경상도 관찰사에게 서원의 사액 건의를 청하면서 “감사와 군수로 하여금 다만 그 진흥하고 배양하는 방법과 공급해 주는 물품만 감독하게 하고 가혹한 법령과 번거로운 조목으로 구속하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¹⁵⁾라고 하여 국가가 지원은 하되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후술하겠으나 이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운영자 선임을 통해 서원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본 주자의 관점과 다른 면이다.

‘교육의 자율성’ 추구에 이어 퇴계는 ‘환경의 교육성’에 주목하여 서원의 효용성을 주장하였다. 환경의 교육성은 서원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학습 환경이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하고 학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서책을 싸 짊어지고 넓고 한적한 들판이나 고요한 물가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조용히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펴서 덕을 쌓고 인(仁)을 익혀 이것으로 낙을 삼을 생각으로 기꺼이 서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곽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학령(學令)에 구애되고 한편으로 과거(科擧) 등의 일에 유혹되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공효를 어찌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¹⁶⁾

이록(利祿)이 아닌 참된 학문에 뜻을 둔 선비들은 국학이나 향교가 위치한 시끄럽고 복잡한 곳을 떠나 조용한 환경에서 도학(道學)에 매진하고자 멀리

15) 『退溪先生文集』 卷9, 書, 「上沈方伯」: “又令監司郡守, 但句檢其作養之方, 贍給之具, 而勿拘以苛令煩條.”

16) 『退溪先生文集』 卷9, 書, 「上沈方伯」: “隱居求志之士, 講道肄業之倫, 率多厭世之囂競, 抱負墳策, 思逃於寬閒之野, 寂寞之濱, 以歌詠先王之道, 靜而閱天下之義理, 以蓄其德, 以熟其仁, 以是爲樂, 故樂就於書院, 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 前有學令之拘礙, 後有異物之遷奪者, 其功效豈可同日而語哉!”

떨어진 서원을 기꺼이 찾는다. 또한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학령(學令)의 구애와 과거지학(科擧之學) 위주라는 학문 내용의 구애가 있다. 그러나 교외의 서원은 그런 구애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참된 학문에 대한 탐구가 조용히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다.

3. 도학의 탐구와 교육에 중점을 둔 사립 교육기관 지향

퇴계는 서재(書齋), 서원(書院), 정사(精舍) 등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았다. 이산서원(伊山書院)이 건립될 때 편액을 받으러 온 장수희(張壽禧)는 “우리 고을의 선정(先正)가운데 입사(立祠)할 분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니 서재라고 부름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이에 퇴계는 “지금 이 학사가 아직 미처 제전(祭田)을 장만하는 한 가지 일을 못하였는데, 제전을 장만하고 제사할 분을 제정하는 것은 훗날을 기다려 의논하여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 학사의 규모를 보면 실로 서원의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서원의 명칭을 피하고 구태여 서재라고 하겠습니까?”¹⁷⁾라고 하였다. 이로써 정사(精舍)와 사묘(祠廟)가 통합하여 서원이 되었다는 기존의 주장들이 퇴계의 관점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퇴계에 입장은 인륜을 밝히는 교육과 도학(道學)의 탐구를 기할 수 있다면 제향(祭享) 유무와 관계없이 서원이라 칭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도학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해도 서원은 운영의 측면에서 국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사립 교육기관의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 이 점은 퇴계를 비롯한 조선 사림파의 기절(氣節)과 관련이 있는 바, 사림파는 도학의 현장을 위하여 종적으로는 자율적 교육과 향사(享祀)를 통해 학통의 계승·발

17) 『退溪先生文集』 卷42, 記, 「伊山書院記」: “今茲學也, 猶未遑於置田一事, 置祭田以定所祠, 且俟後日而議之, 未爲不可, 第觀其立學規模, 實倣於書院之制, 何必避其名, 而遷就於書齋之稱乎?”

전을 도모하고, 횡적으로는 학과의 연계와 유대를 이루고자 하였다.¹⁸⁾ 이에 따라서 서원을 이끄는 사람도 중국의 경우처럼 지방관이 겸직하는 것이 아닌 도학의 관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

“제가 삼가 고사(故事)를 살피건대, 서원에는 반드시 동주(洞主)나 산장(山長)을 두어 스승을 삼아 그 교육을 관장하니 이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 더욱 잘 시행해야 합니다. 세속을 떠난 선비나 벼슬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중에 선택하되, 그의 재덕(才德) 및 명망과 실상이 반드시 발군(拔群)의 아름다움이 있어 우뚝하게 일세(一世)의 사표(師表)가 될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여 헛되이 그 이름만 차지한다면 지금 향교의 교수(教授)와 훈도(訓導)로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어서 뜻있는 선비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갈 것이니, 도리어 서원에 피해만 끼칠 것입니다.”¹⁹⁾

퇴계는 서원의 장(長)은 반드시 이록(利祿)의 자리와 거리가 멀고 학문과 덕망이 완비되어 선비들의 모범이 되고 동시에 선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히 가려 선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학의 탐구와 교육 및 현창에 있어서 서원의 장(長)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퇴계가 이토록 서원 수장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서원에 부여된 도학(道學)의 탐구와 확산 임무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퇴계는 서원의 기능으로 향사보다 교육이 앞선다고 본 것이다. 도학의 탐구와 교육을 위한 서원의 역할은 이산 서원의 학규인 「이산원규(伊山院規)」에서 퇴계가 밝힌 서원의 교육과정(커리큘럼)에도 잘 나타나 있다.

18) 정순목, 「朱晦庵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比較」, 『退溪學報』 제53집, 퇴계학연구원, 1987, 45~46쪽 참조.

19) 『退溪先生文集』 卷9, 書, 「上沈方伯」: “淸謹按故事, 凡書院必有洞主, 或山長爲之師, 以掌其教, 此一件大事, 尤當舉行. 但此須擇於遺逸之士, 或閒散之員, 而其人才德望, 實必有出類超羣之懿, 卓然爲一世師表者, 乃可爲之. 如不得其人, 而徒竊其號, 則與今教授訓導之不職者無異, 有志之士, 必望望而去之, 竊恐反有損於書院.”

“제생들은 독서할 때에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근본을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로 문호(門戶)를 삼으며, 국가에서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지켜 모든 선(善)이 나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도(道)를 지금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어 몸소 행하고 마음에 얻으며, 본체(體)를 밝히고 쓰임(用)에 맞는 학문에 힘쓰도록 한다. 그리고 여러 사서(史書)와 자서(子書)와 문집뿐만 아니라 문장과 과거 공부에도 널리 힘쓰고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내외(內外)와 본말(本末)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의 순서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양하여, 무너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²⁰⁾

퇴계는 서원의 교육과정을 『소학』-『주자가례』-사서(四書)-오경-역사 및 성리학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퇴계는 『소학』과 『가례』를 도학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고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도학의 중심으로 삼으며 여기에 성리학자들의 저술 즉 자서(子書)와 문집을 통해 도학을 심도 있게 탐구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 퇴계가 제시한 이와 같은 서원 교육과정은 이후 영남뿐만 아니라 기호지역 선비들의 공부 순서와 내용으로 널리 수용되면서 조선 사림파의 교학 체제이자 교육과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²¹⁾ 이뿐만 아니라 퇴계는 1553년 임고서원이 완성되자 주향(主享) 인물인 포은 정몽주를 기리는 「제정문충공문(祭鄭文忠公文)」을 지었으며, 자신이 조정에서 받은 『성리대전(性理大全)』 한 질을 보내 원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²⁾ 이는 조선 도학의 뿌리인 정몽주를 현창하여 원생들의 모범으로 삼고, 주자의 도학이 온축된 『성리대전』으로 원생들이 참된 학문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 『退溪先生文集』 卷41, 雜著, 「伊山院規」: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 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 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21) 강보승, 「충청 유학의 교육 사상 형성 과정 고찰」, 『한국철학논집』 제7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22, 118쪽 참조.

22) 차삼임, 「〈서원집영〉 배향 인물을 통해 본 퇴계 이황의 서원관」, 『溫知論叢』 第70輯, 온지학회, 2022, 84쪽 참조.

그러나 퇴계는 서원에서 반드시 주자학, 즉 도학만 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퇴계 자신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과거시험 준비를 하였고, 합격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10년 이상 관리로 생활하였다. 아무리 도학이 중요하여도 인민(人民) 다수의 현실적 바람은 사실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것임을 퇴계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퇴계는 『소학』·『가례』의 문으로 들어와서 경전과 성리서(性理書)를 통해 도학을 연마하는 것 외에도 이록(利祿)을 위한 공부 즉 문장이나 과거 공부도 서원에서 힘써야 할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하였다.

4. 제향을 통한 존현(尊賢)으로 도학을 숭상함

퇴계가 도학의 시초인 포은 정몽주를 임고서원의 주향(主享)으로 삼고 「제문충공문(祭鄭文忠公文)」을 찬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향은 교육과 함께 서원의 중요한 기능이다. 앞서 퇴계가 교육과 제향 중 교육을 서원의 첫째 기능으로 강조하였음을 말하였으나, 도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제향은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서원이 세워지던 초기에는 교육을 위한 서원과 제향을 위한 서원이 별도로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²³⁾ 조선의 서원은 대체로 사묘(祠廟)와 서재(書齋)라는 두 개의 기원이 있는데, 이는 중국 서원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생겨났다. 이후 중국 서원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향과 학문을 겸한 서원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고을마다 즐비할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²⁴⁾ 우리나라는 16세기 이전부터 제향을 위한 서원이나 교육을 위한 서원을 설립하

23) 제향을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는 이단(李端?~1047)의 제향을 위해 1327년 안동에 건립된 계림서원(鷄林書院), 최치원(崔致遠)의 제향을 위해 고려 때 전북 정읍에 건립된 무성서원(武城書院), 문익점(文益漸)을 기리기 위해 1401년 경남 산청에 건립된 도천서원(道川書院), 황희(黃喜)를 모시기 위해 1518년 건립한 상주의 옥동서원(玉洞書院), 조선전기 문신 김일손(金弼孫)의 제향을 위해 1518년 경북 청도에 건립한 자계서원(紫溪書院) 등이 대표적이다(차삼임, 앞의 논문, 78쪽 참조).

24) 鄧洪波 著, 林麗·張允瀾 譯, 『中國書院史』, 학고방, 2025, 506쪽.

였으나 교육과 제향을 겸한 서원은 없었는데, 주세붕(周世鵬)이 1543년 풍기 군수 재직 시 주자가 증긴한 백록동서원을 따라 백운동서원을 건립함으로써 교육과 제향을 겸하는 형태의 서원이 정착·확산되었다. 이로써 제향과 교육은 서원 체제 내에서 융화하였고 도학의 현창에 있어 상승작용을 가져왔다. 서원에서 제향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도학의 발흥에 대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를 아는 선비와 선치를 원하는 임금으로 서원에 정성을 다하지 않은 이 가 없었으니, 이것이 중국의 서원이 근고(近古)에 성행하고 우리나라의 서원 역시 오늘날에 시작되는 원인으로서, 이 모두가 가르침의 사고를 넓히고 교화의 근원을 돈독히 하는 것이요, 사당을 세워 선현을 제사하는 일은 도(道)를 높이고 인재를 진작시키는 방법에 있어 더욱 구비된 것이다.”²⁵⁾

“서원의 제도가 근래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영남 각 고을에 세워진 것이 타도 타읍에 비해 가장 앞서고 많다. 대체로 선현이 머물러 영향을 끼친 곳은 다투어 사모하며 본받지 않음이 없다. 이는 덕의를 높이고 어진 이를 표양 하며 인재를 기르기를 좋아하는 것으로서, 실로 인심이 다함께 원하는 일이며 왕정이 마땅히 가상히 여겨야 할 일이다.”²⁶⁾

퇴계는 서원에서 선현을 제향하는 것이 도학을 밝히고 인재를 기르기 위한 더 발전된 방법이라고 하였다. 퇴계가 서원의 교육 기능을 강조하였지만, 교육은 존현(尊賢)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향 또한 중요한 서원의 기능이자 역할이 된다. 도학(道學)은 강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존현(尊賢)이자 제향이다. 그리고 그

25) 『退溪先生文集』 卷42, 記, 「迎鳳書院記」: “故知道之士, 願治之主, 莫不於是而拳拳焉, 所以中國書院, 鼎盛於近古, 我東書院, 亦昉於今日, 皆所以廣教思敦化原也, 而其有廟以祀先賢者, 則其於崇道作人之方, 尤爲備也.”

26) 『退溪先生文集』 卷42, 記, 「易東書院記」: “書院之制, 近作於東方, 而嶺南州郡之建置者, 比諸道諸邑, 爲最先而居多焉. 凡有前賢留蹤播芬之地, 莫不競慕而爭效之. 蓋崇德表賢, 樂育人材, 固人心之所同願, 而王政之所宜嘉尚者也.”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진 존현은 사림파의 도통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만약 목적성과 방향성 없이 단순히 『소학』과 『가례』를 익히고 사서오경과 성리서(性理書)를 익힌다면 이것은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와 다를 것이 없으며 이는 도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16세기 후반 제향과 교육의 기능을 겸비한 서원이 영남 지방에 가장 많이 세워졌다는 「역동서원기」의 언급을 토대로 볼 때, 퇴계가 존현(尊賢)에 기반을 둔 제향 기능을 갖춘 서원을 세우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제향 인물 선정 기준을 통해 본 퇴계의 서원관

Ⅱ장에서는 퇴계의 서원 건립 목적과 서원에 대한 그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제향 인물 선정에 관한 퇴계의 기준을 통해 퇴계가 바라보는 서원의 이상적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퇴계는 서원 제향 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을 여러 서원에 직접 적용하였다. 그것은 학문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학자,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서원이 건립된 지역의 인물,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조(前朝)의 인물을 우선한다는 것이며, 마땅한 제향자가 없으면 일단 입사(立祠)하지 않고 훗날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이 같은 제향자 선정 기준을 불변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융통성 있게 적용하였다. 제향자 선정 기준과 이의 실제 적용 사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현(儒賢)과 도학자 우선 제향

퇴계는 서원의 제향자 선정에 있어서 ‘도학과 관련이 있는 유현(儒賢)’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중국에서는 서원에서 반드시 유선(儒先)으로서 도를 아는 이를 선택하여 산장(山長)으로 삼아 일을 관장하여 통솔하게 함으로써 도

술(道術)이 분산되지 않고 학자가 거취를 알게 되었다.²⁷⁾”는 퇴계의 언급은 서원의 책임자(山長)뿐만 아니라 제향 인물 또한 도학을 아는 유현이어야만 원생들이 도학의 맥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향 기준에 따라 소수서원에 안향을, 영봉서원에 김굉필을²⁸⁾ 임고서원에 정몽주를 역동서원에 우탁(禹倬)을 오산서원에 길재를, 남계서원에 정여창을 배향하도록 결정 또는 자문하였다.

퇴계가 제향자를 선정하거나 자문한 안향, 우탁, 정몽주, 김굉필은 모두 주자학, 곧 도학의 전승과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학자들이다. 안향은 원(元)으로부터 주자학을 도입하였고, 우탁은 이제 막 도입되던 주자학의 연구와 전승에 힘을 기울였다. 정몽주는 주자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려를 개혁하고자 하였고, 김굉필은 김종직을 이어 조광조에 학문을 전수하였으며 그 자신은 ‘소학동자’라 하면서 『소학』을 준수하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 『소학』이 도학에 들어가는 문임을 밝혀 퇴계를 비롯한 이후 학자들이 『소학』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였다. 이로써 보면 퇴계가 입사(立祠)에 관여하였던 인물은 주로 주자학의 문호(門戶)를 닦고 본원(本原)을 충실히 탐구한 유현(儒賢)으로 조선 도학의 계보와 닿아 있었다.

27) 『退溪先生文集』 卷42, 記, 「迎鳳書院記」: “上國之於書院, 必擇儒先之知道者, 爲之山長, 主盟以倡率, 故道術不分, 而學者知所趨矣.”

28) 서원 건립을 추진했던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퇴계는 처음에 김굉필과 고려조의 유학자 이조년 및 그의 손자 이인복 등 셋을 제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조년이 염주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화상에 그려져 있는 등의 일로 제향 및 위치에 논쟁이 있었다. 영봉서원 제향 인물 선정에 대한 퇴계의 견해는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정자와 주자를 주향으로 하고 김굉필을 배향하는 것으로 훗날 결정되었다. 이 일로 퇴계는 건립 주체나 제향자와 관련된 집안의 요구 등으로 도학자만을 주향(主享)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절감하였다. 그 후 퇴계는 제향자 선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가급적 서원 건립을 주도한 측과 해당 지역 사람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준호(「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서원 건립 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제2호, 2006)의 연구가 자세하다.

“예를 들어 최충(崔冲)·우탁(禹倬)·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되 혹은 조정의 명에 의하고 혹 사사로이 건립하여서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이 되어 성조(聖朝)의 학문을 존중하는 교화와 태평한 세상의 교육의 융성을 빛내고 드높일 것입니다.”²⁹⁾

“세속을 떠난 선비나 벼슬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되, 그 사람의 재덕(才德) 및 명망과 실상이 반드시 발군(拔群)의 아름다움이 있어 우뚝하게 일세(一世)의 사표(師表)가 될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여 헛되이 그 이름만 차지한다면, 지금 향교의 교수(敎授)와 훈도(訓導)로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어서, 뜻있는 선비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것이니, 도리어 서원에 피해만 끼칠까 두렵습니다.”³⁰⁾

“사인공(四印公: 노경린)이 사당을 세우고 서원을 건립한 일은 지난 가을에 우리 아들 이준(李濬)이 남쪽 고을로부터 돌아와 이야기하기에 알았습니다. … 본 고을의 이름난 벼슬한 이나 와서 산 사람 가운데서 경술이나 도학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분을 주향(主享)으로 삼고 이공(李公: 이조년과 이인복)을 배향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³¹⁾

퇴계는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에게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조정에 청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미 경상도 지역에 세워질 서원에 제향할 인물들로 최충(崔冲)·우탁(禹倬)·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 등을 언급하였다. 퇴계는 본격적인 서원 건립 운동을 하면서 이미 제향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향 인물의 선정 기준은 서원의 책임자 선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퇴계가 입사(立祠)에 유학 또는 도학을 연구하여

29) 『退溪先生文集』 卷9, 書, 「上沈方伯」: “若崔冲, 禹倬, 鄭夢周, 吉再, 金宗直, 金宏弼之居, 莫不立書院, 或出於朝命, 或作於私建, 以爲藏修之所, 以貢揚聖朝右文之化, 明時樂育之盛矣.”

30) 앞의 책, 같은 곳: “但此須擇於遺逸之士, 或閒散之員, 而其人才德望, 實必有出類超羣之懿, 卓然爲一世師表者, 乃可爲之. 如不得其人, 而徒竊其號, 則與今敎授訓導之不職者無異, 有志之士, 必望望而去之, 竊恐反有損於書院.”

31) 『退溪先生文集』 卷40, 書, 「答李叔獻」: “四印公立廟建院事, 去秋, 兒子寓自南州還, 言而知之. … 不知本州名宦中流寓中, 有以經術道學鳴世者乎? 有則以是爲主, 而李公配之, 無乃尤好耶.”

후세에 모범이 된 인물을 우선하였듯이 서원의 책임자도 그러한 인물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퇴계는 책임자의 역량 부족으로 당시의 향교들이 참된 학문을 강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원 또한 그러하다면 향교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선비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서원의 책임자는 역량과 인품 및 명망이 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 일세의 사표가 될 정도의 인물이어야 한다. 책임자의 학문적 자질과 인품의 탁월함은 책임자를 선임하는 기준이며 이 기준은 제향 인물 선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입사(立祠)한 제향 인물과 선임된 책임자는 도학의 견지에서 그 격과 결이 같아야 한다. 율곡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당시 제향자 선정 문제로 갑론을박 중인 영봉서원에 대하여 학문과 도학에 이름을 떨친 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주향(主享)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³²⁾

서원의 책임자와 제향 인물로 도학자를 우선하는 퇴계의 원칙은 성리학의 ‘도통의식’과도 관계가 있다. 퇴계는 그 자신이 도통을 자임하지는 않았으나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과 김굉필, 정여창 등 당대 경상도 지역 서원에 모셔진 학자들은 ‘도학’이라는 끈으로 굳게 이어진다고 보았다. 퇴계의 이러한 의식은 퇴계 사후 퇴계학파에 이어지고 확산되었는데, 이는 새로이 건립되는 서원에 향사되는 인물들을 정몽주-김종직-김굉필-조광조-이언적-이황으로 이어지는 도학의 계보에 잇대려는 수많은 시도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16세기 사림파의 도학 전승 의식, 곧 도통의식은 퇴계가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서원들의 서원지(書院志)에 수록된 장서의 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죽계서원의 『죽계지(竹溪志)』와 영봉서원의 『영봉지(迎鳳志)』의 장서 목록을 비교하면 『성리대전』, 『시경대전(詩經大全)』, 『서경대전(書經大全)』, 『역경대

32) 이를테면 우탁이 기존에는 왕에게 충직하게 간하는 신하로서 절개가 높지 평가되었으나 퇴계는 간신(諫臣)으로서의 우탁보다는 성리학자로서의 우탁을 강조하였다. 우탁이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의 제자이고 우탁으로부터 이제현, 이색, 정몽주로 성리학이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봉서원의 김굉필 제향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제향이 추진된 이인복 조차 유학의 발전에 도움을 준 점만을 부각시켰다.

전(易經大全), 『통감(通鑑)』 등 주자가 주석한 경전과 사서(史書)가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고, 그 외에 『춘추좌전』, 『소학』, 『주자대전』, 『주자어류』, 『이락연원(伊洛淵源)』 등의 성리서(性理書)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자학 관련 서책 보유 종수는 동 시대 명나라의 서원에 비하여 오히려 조선의 서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락연원』은 주자가 송나라 도학의 연원과 전승 과정을 밝히기 위해 쓴 것으로 조선 및 동시대 명나라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퇴계도 『이락연원』에 주목하고 송대(宋代)부터 명대(明代)까지 도학의 계보를 연구하여 1560년에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을 완성하였으며, 조선 도학의 전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다.³³⁾ 도학의 탐구와 전승은 강력한 도통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도통의식이 제향 인물 선정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인물이면서 해당 지역 인물, 그리고 전조(前朝)의 인물

퇴계의 서원 제향 인물 선정 기준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물을 주향(主享)으로 배향하는 것이다. 퇴계가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서원은 모두 우리나라 출신의 인물을 주향(主享)으로 하였는데 이는 후술할 율곡 관련 서원의 주자 주향 경향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퇴계가 관여한 서원들의 주향(主享) 인물은 안향, 정몽주, 최충, 우탁, 길재, 정여창 등이고 퇴계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영봉서원의 주향으로 김굉필을 지목하기도 하였으니, 이 모두가 우리나라의 인물들이다. 퇴계는 도학자가 아니어도 충의(忠義)가 현창할 만하면 제향해도 된다고 하였고, 출신지가 반드시 서원의 소재 지역이 아니어도 입사(立祠)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우리나라의 인

33) 임근실,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9집, 2021, 701~705쪽 참조.

물을 제향한다는 원칙은 유독 강하게 지켰다. 역동서원 건립 시 주도자 중 한 사람인 김부필이 주자와 정자(程子)를 주향으로 하고 우탁을 배향하는 것을 건의하자 퇴계는 난색을 표하고 우탁만 배향하기로 결정했던 예가 있는데, 이는 후학들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 배움에는 그리고 존현(尊賢)을 통한 도학의 전승을 위해서는 중국의 유현(儒賢)보다 우리나라의 유현을 제향하는 것이 더 교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³⁴⁾

우리나라의 인물 제향과 함께, 퇴계는 서원이 소재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물을 우선 제향하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안향(순흥), 정몽주(영천), 최충(해주), 우탁(예안), 길재(선산), 정여창(함양) 모두 제향된 서원의 소재지가 해당 인물의 출신지거나 본거지였다. 김굉필은 영봉서원의 소재지인 경북 성주 출신은 아니지만 도학자이면서 처향(妻鄉)이 성주인 관계로 주향자로 거론되었다. 퇴계는 고향 또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 서원을 세워 그 지역의 후학들이 제향자의 학문을 본받아 도학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퇴계가 서원 건립을 적극 추진한 역동서원은 퇴계 자신이 「역동서원기」를 작성하고 서원의 주향자로 우탁(禹倬)을 결정하였다. 우탁은 1290년(충열왕 16)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좌주(成均祭酒) 등을 역임하고, 예안(禮安)에 낙향하여 생을 마친 인물로 정주(程朱)의 역학(易學)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비롯하여 이제 막 전해지기 시작하던 주자학을 깊이 탐구하고 생도를 교육하여 도학 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므로 퇴계는 역동서원에 제향하기 적합한 인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³⁵⁾

아울러 당시 건립된 서원의 주향자(主享者)는 대부분 전조(前朝)인 고려의 인물이었다. 퇴계가 관여한 서원 중 조선시대의 인물이 주향(主享)이 된 서원

34) 김형수, 「退溪 書翰을 통해본 明宋代 書院의 創設과 運營」,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53호, 2013, 39~40쪽 참조. 또한 백운동서원을 퇴계는 죽계서원(竹溪書院)으로 불렀는데 이는 아마도 주자가 증진한 백록동서원과 비슷한 명칭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 주체적인 이름을 써야한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35) 김형수, 앞의 논문, 38쪽 참조.

은 정여창을 모신 남계서원이 유일하며 주향자 안향, 정몽주, 최충, 우탁, 길재는 모두 전조(前朝)의 인물이다. 조선의 인물 배향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아직 조선의 인물에 대해 정확하고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봉서원의 주향자로 김굉필을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적극 김굉필을 고수하지 않은 것도 김굉필이 과연 도학의 견지에서 확고부동한 평가와 지위를 획득했는가에 대해 퇴계가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적합한 인물이 없으면 굳이 제향하지 않음

퇴계가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건립된 서원들은 모두 강학 또는 제향의 한 가지 기능을 위주로 하였다.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이 고을을 맡아 이미 문성공(文成公)의 사당을 세우고 영정을 모셨는데, 생각해보니 사당을 세우고 나니 서원이 없을 수 없어서 서원을 세웠다.”³⁶⁾는 주세붕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과 제향을 겸하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도 처음에는 제향만을 위한 서원이었다. 주세붕의 경우와 같이 퇴계 역시 교육과 제향이 반드시 합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 퇴계는 제향을 통한 존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제향이 서원에 부여된 최우선의 역할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만약 서원을 건립하고도 제향할 마땅할 인물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굳이 제향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이산서원기」에 잘 나타나 있다.

“유생 장수희(張壽禧)를 보내 퇴계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우리 고을 선정(先正)으로 학사에 제사할 만한 자에 대해 정론이 있지 않고 서원의 규모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우선 서재(書齋)로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퇴계가 사양하다 못해 답하기를 ‘옛날 서원에 제사한 분이 어찌 모두 그 고

36) 『武陵雜稿』 卷8, 原集, 跋, 「竹溪志學田錄跋」: “某以無似, 忝守是邦, 既立文成公廟, 奉安影幀, 思有廟不可以無書院, 於是立書院。”

을 사람이겠습니까? 선성(先聖)·선사(先師)를 제사하는 예가 있었고 사묘(祠廟)를 세우지 못하는 자도 있었으니, 오직 그 역량을 보아 상황에 마땅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 이 학사가 아직 미쳐 제전(祭田)을 장만하는 한 가지 일을 못하였는데, 제전을 장만하고 제사할 분을 제정하는 것은 훗날을 기다려 의논하여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 학사의 규모를 보면 실로 서원의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서원의 명칭을 피하고 구태여 서재라고 하겠습니까? 하고는 그 본지(本地)의 이름에 따라 약간 변동하여 이산서원으로 이름 짓도록 하였다.”³⁷⁾

영주의 유생들은 서원을 세우면서 제향 인물을 선정하지 못하여 서재라고 이름붙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학사의 규모가 서원과 같다면 제향을 하지 못하였어도 서원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보면 퇴계에게 있어서 서원은 강학이 우선이며 존현을 위한 향사도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위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퇴계는 제향에 적합한 인물은 첫째 도학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³⁸⁾ 적당한 인물이 없다면 주향(主享)을 비워두어도 무방하다고까지 하였다.³⁹⁾ 제향에 대한 퇴계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화암서원(연경서원)과 이산서원은 묘우(廟宇)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이겠으나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하여 서원 건립 후 제향을 하지 않았던 화암서원과 이산서원은 퇴계 사후 모두 퇴계를 주향자로 입사(立祠)하였다.

37) 『退溪先生文集』 卷42, 記, 「伊山書院記」: “乃遣儒生張壽禧, 來屬於滉, 且曰, 吾鄉先正可祠於學者, 未有定論, 於書院之制, 斯爲未備, 欲姑以書齋名之何如. 滉辭之不得, 則復之曰, 古之書院所祠, 豈盡其鄉之人哉. 有祀先聖先師者, 亦有立祠廟者, 惟視其力從其宜而已. 今茲學也, 猶未遑於置田一事, 置祭田以定所祠, 且俟後日而議之, 未爲不可, 第觀其立學規模, 實倣於書院之制. 何必避其名, 而遷就於書齋之稱乎? 請因其本地之號而稍變之, 名曰伊山書院.”

38) 『退溪先生文集』 卷12, 書, 『答盧仁甫』: “而在書院, 則爲道學之意尤專, 記祀賢也, 以道學爲主, 可也.”

39) 『退溪先生文集』 卷42, 記, 「伊山書院記」: “乃遣儒生張壽禧, 來屬於滉, … 從其宜而已.”

IV. 율곡 및 주자 서원관과의 비교 고찰

퇴계의 서원관 및 제향에 관한 관점은 비슷한 시기 율곡 이이의 관점과 일정 부분 차이가 있으며, 퇴계가 모방하고자 하였던 서원의 모델을 수립하였던 주자의 서원관 및 제향관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율곡의 서원관을 제향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퇴계의 관점과 비교하고, 다음으로 주자의 서원관과 서원 제향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여 퇴계의 관점과 비교함으로써 퇴계의 서원관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서원이 중국의 서원과 다른 점을 시론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율곡 관련 서원의 제향 기준과 비교

〈표 1〉은 퇴계·율곡과 관련이 있는 서원들의 건립 연도와 건립인물, 주향자와 배향자 등을 정리한 것이다. 퇴계 및 율곡과 관계된 서원은 이보다 더 많으나 가급적 16세기 후반 퇴계와 율곡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서원들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구산서원과 충현서원은 설립과 제향자 선정 시 퇴계나 율곡이 밀접하게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소재지역 및 제향인물 비교를 위해 제시하였다. 문헌서원은 퇴계가 「서원십영」을 통해 칭송하였고, 율곡이 학규를 만들었으며 원장을 지내기도 하였으므로 퇴계와 율곡의 영향을 모두 받은 서원이다.

임고서원, 오산서원, 역동서원 등 제향자 선정에 퇴계가 직접 관여한 서원은 앞서 고찰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인물, 유현(儒賢), 서원 소재 지역 관련 인물, 전조(前朝)의 인물이라는 기준에 따라 제향자를 선정하였다. 그 외에 퇴계가 마땅한 제향자가 없다면 비워두고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던 이산서원과 화암서원은 사후에 퇴계를 주향으로 입사(立祠)하였다. 퇴계에 의해 사액서원이 된 백운동서원 또한 안향을 주향자로 하였으며, 비록 퇴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정자(程子)를 주향으로 한 영봉서원은 건립 초기에 김굉필을 주향으로 하려 하였다.

〈표 1〉 16세기 건립 서원의 제향인물 비교

서원명	소재	건립연도	건립인물	주향인물	추향(배향)인물	비고
백운동서원 (소수서원)	경북풍기	1543	주세붕	안향	안축·안보· 주세붕	이황(사액)
영봉서원 (천곡서원)	경북성주	1559	노경린	정자	김굉필	이황(자문)
이산서원	경북영주	1559	이황	이황		이황(학규)
임고서원	경북영천	1553	김응생	정몽주	장현광·황보인	이황(자문)
역동서원	경북안동	1567	이황·곽항	우탁		이황(발의)
오산서원	경북구미	1588	류운룡	길재	장현광	이황 문인
화암서원 (연경서원)	경북대구	1564	이숙량	이황	정구·정경세	이황(자문)
남계서원	경남함양	1552	강익	정여창	정은·강익	
은병정사 (소현서원)	황해벽성	1578	이이	주자	조광조·이황· 이이·성혼	
백록동서원	황해황주	1588	이현배	주자	김굉필·이이	
취봉서원	황해안악	1588	율곡 문인	주자·이이		
문헌서원	황해해주	1549	주세붕	최충·최유선		이황(자문) 이이(원장)
구산서원 (오봉서원)	강원강릉	1556	함헌	공자	주자	이황(자문)
충현서원 (공암서원)	충남공주	1581	서기	주자	이존오·이목· 성제원	

이에 비하여 율곡이 관여하였거나 율곡과 관계된 서원은 건립 후 퇴계와 다른 기준으로 주향자를 결정하였다. 먼저 율곡이 건립에 관여하고 그 자신이 머물렀던 황해도 의은병정사(소현서원)는 처음부터 주자를 주향으로 제향하였고 1610년 소현이라는 사액을 받은 후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을 차례로 배향하였다. 조광조는 사림파가 공히 조선 성리학의 맥으로 받드는 인물이고, 퇴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율곡의 문인이나 제자를 추가로 배향하여 기호학파의 도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퇴계는 비록 기호학파의 연원은 아니나 학파를 막론하고 유현으로 존송받는 인물이었으므로 기호학파

의 유현을 배향한 소현서원에 배향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율곡 사후 율곡의 문인들에 의해 황해도에 건립된 취봉서원은 주자와 함께 율곡을 주향으로 하였고, 같은 시기 황해도에 건립된⁴⁰⁾ 백록동서원도 주자를 주향으로 하고 율곡과 김굉필을 배향하였다. 문헌서원은 퇴계가 「서원십영」에서 찬미하였던 서원으로 율곡이 학규를 만들고 원장으로 재임하기도 하였는데, 주향자로 모셔진 최충과 최유선이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하고 고려의 대표적 유현(儒賢)이었으므로 퇴계와 율곡 모두 제향자에 이견이 없었다.

강릉의 구산서원(오봉서원)은 퇴계와 교유한 함현(咸軒: 1508-?)이 세운 서원으로 서장관으로 북경을 다녀오며 가져온 공자의 진상을 비치하여 제향하였고 퇴계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다. 퇴계가 직접 제향자 선정에 관여한 서원들과 다르게 공자를 주향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공주의 충현서원은 기호학파의 유현으로 분류되는 고청(孤靑) 서기(徐起: 1523-1591)가 건립한 서원으로 주자를 주향으로 모셨다.

이상을 토대로 볼 때 16세기 후반 율곡 또는 기호학파와 관련이 있는 서원의 제향인물은 주자를 주향(主享)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서원의 소재지에 연고가 있는 유현(儒賢)을 제향한다는 선정 기준은 퇴계와 율곡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율곡은 우리나라의 인물보다는 도학의 실제적 연원이 되는 주자를 주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계가 도학의 전승 즉, 도통의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도학자와 충절인(忠節人)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반면,⁴²⁾ 율곡은 도통의식

40) 율곡 관련 서원은 16세기에는 해주를 중심으로 율곡이 머문 지역에 주로 세워졌고 이후 기호학파가 발전함에 따라 율곡을 모신 서원이 17세기 이후 경기·충청 지역에 많이 세워졌다.

41) 율곡과 관련된 서원들의 '주자를 주향으로 하는 경향'이 일반적인지는 더 많은 표본을 조사해야 하겠으나, 율곡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던 몇몇 서원들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도 사실이다.

42) 퇴계는 문인 이정(李楨: 1512~1571)이 경주부윤으로 있으면서 강당과 동·서재를 포함하는 정사(精舍)를 건립하고 정사의 사당에 신라의 무열왕과 김유신을 향사

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계가 가급적 전조(前朝)의 유현(儒賢)을 입사(立祠)하고자 한 데에 비해 율곡에게는 전조의 유현 우선 기준이 없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주자에 대한 존숭과 함께 학파와 관련된 도통을 제향자 선정 기준으로 강조하는 입장은 율곡 사후 기호학파의 서원 제향 기준으로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퇴계학과·영남학과와 관련된 서원의 제향자 선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기호학파에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2. 주자의 서원관과 제향인물 선정

가. 주자의 서원관

북송(北宋)의 유학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유학을 전파하기 위하여 서원 건립에 노력을 경주하였고, 여기에 부족한 관학을 서원으로 대체하려는 조정의 정책이 맞물려 북송 시기 서원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북송의 서원은 교육 내용과 운영의 모든 면에서 관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다 남송의 주자에 의한 백록동서원의 중건을 기점으로 신유학 탐구와 전파의 거점이 되는 서원의 정체성이 정착·확산되었다. 주자 이후 서원 조직 구성, 경비의 조달 등 운영의 측면과 강학 내용, 서적의 보유, 그리고 제향의 측면 모두에 신유학의 이념이 반영되었고 이러한 서원을 기반으로 신유학의 발전

하고자 퇴계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퇴계는 무열왕을 위해 큰 규모의 사당을 짓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당에는 다만 김유신만 제향하고 건립한 정사는 동몽(童蒙)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하였다. 사실 퇴계는 김유신 같은 무신(武臣)을 향사하는 것은 유생의 공간인 서원이나 정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정의 계획을 끝까지 억지로 막지는 않았다. 퇴계의 권유에도 이정은 김유신을 제향하면서 설충(薛聰)과 최치원을 함께 제향하였다.(조준호,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서원 건립 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제2호, 2006, 133~134쪽 참조.)

이 가속화되었다.⁴³⁾

백록동서원의 역사는 당대(唐代)에 시작되었지만 주자가 강조한 것은 북송 백록동서원의 전통이었다. 주자와 여조겸은 백록동서원과 전혀 관계없었던 북송의 이학(理學)을 서원과 연결하여 이것을 백록동서원의 전통으로 내세웠다. 즉 백록동서원의 전통은 주자와 여조겸이 부여한 것이며 이로써 백록동서원은 이학(신유학)과 결합하게 되었다. 주자에게 백록동서원의 부흥은 서원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이학의 부흥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⁴⁴⁾ 따라서 이학 정신의 발양을 위해 제향 인물을 선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주자는 기본적으로 서원을 기존의 관학에서 이루어졌던 과거(科擧) 위주의 학문이 아닌 유학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실천을 위한 공부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수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근본으로 자율적인 학습과 수양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는 인륜을 밝히기 위해 박학(博學)·심문(審問)·신사(愼思)·명변(明辯)의 방법으로 이치를 궁구하고 독행(篤行)으로 구현하는 것이 서원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주자의 관점은 주자의 「동규후서(洞規後絃)」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주자는 관학의 영향력이 짙었던 북송의 서원에서 탈피하여 유학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사학(私學)으로 서원을 복원하려 하였으나 운영의 측면에서 그리고 다수의 학생이 원하는 교육의 현실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서원의 관학적 성격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주자 이후 서원은 점차 관학적 성격이 강해지고 사학 정신이 약화되었다. 남송 후기 조정은 서원에 적극 사전(賜田), 사액(賜額), 사서(賜書)하였고 운영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서원을 발전

43) 배다빈, 「제향 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14호, 2022, 251~252쪽 참조.

44) 范慧嫻,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 나타난 주희의 서원관」, 『한국서원학보』 제3호, 2015, 171쪽 참조.

시키면서도 통제를 강화시켰으며 백록동서원도 예외 없이 관학화 되었다.⁴⁵⁾ 따라서 중국의 서원은 대부분 관설(官設)이고 주자학 부흥 이후에도 주자학 창명(唱明)을 위하여 서원의 관학화는 계속 유지되었다. 서원의 산장(山長)은 국가가 임명하고 대개 주학(州學)의 교수가 겸직하였다. 주자의 서원 부흥 운동에서는 ‘교육의 자율성’이나 ‘환경의 교육성’을 기반으로 사학(私學)을 창달하기보다는 미비하고 쇠락한 지방의 국가 교육기관들을 서원으로써 대체하려는 의도가 더 강조되었다.⁴⁶⁾ 따라서 사학을 추구하면서도 서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영향을 주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현실적으로 사학과 관학을 절충하는 형태로 서원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⁴⁷⁾ 이는 퇴계가 ‘지원은 있되 간섭은 없는’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학(私學)으로써의 서원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과 차이가 있다.⁴⁸⁾

서원에 의한 관학의 대체 외에 주자가 서원의 부흥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

45) 范慧嫻, 앞의 논문, 190~191쪽 참조.

46) 정순목, 「朱晦庵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比較」, 『退溪學報』 제53집, 퇴계학연구원, 1987, 43쪽 참조.

47) 복송 이후로 중국의 서원은 강학(講學), 장서(藏書), 학전(學田), 그리고 제사라는 4대 기능이 관학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서원 내부에 설치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도 중앙이나 지방의 관부로부터 지원받게 된 바, 이같은 관학과 유사한 성격의 서원은 남송 이후 서원 재건 과정에서도 다시 전승된다.(배다빈, 「제향 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14호, 2022, 252쪽 참조.)

48)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자는 백록동서원을 순수한 사학이 아닌 관학에 가까운 형태로 재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자는 조정에 백록동서원 복원의 승인과 등록을 요구했고, 서원의 사서(賜書), 사액(賜額)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서원의 장(長)인 동주가 되기를 청원했다. 주자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지방 관리의 도움을 통해 서원을 복원하였다. 서원의 승인·등록과 사서·사액은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자는 백록동서원을 사학이 아닌 관학 성격을 지닌 서원으로 부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주자는 서원에서 강학을 통해 이학(理學)의 이념을 확산함으로써 과거 준비에 치중하던 기존의 관학 교육을 바로잡고자 하였던 것이다.(范慧嫻, 앞의 논문, 175쪽 참조.)

는 당시 흥성하였던 노불(老佛)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학과 제향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퇴계는 선비들이 조용히 도학에 매진할 곳이 없으므로 서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당시 조선은 주자 당대의 송과 달리 노불이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계로서는 노불을 견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주자는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는 노불의 영향에서 정학(正學)인 유학을 보호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왕의 예의를 가르치는 학궁(學宮)과 이단(異端)·귀교(鬼敎)의 거처 중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사특하며, 삼강오상(三綱五常)의 가르침과 부모·군주를 부정하는 이론 중 어느 것이 이롭고 어느 것이 해롭습니까? 지금 노불(老佛)의 집은 온 천하에 가득하여 큰 군(郡)은 천여 곳이 넘고, 작은 읍(邑) 역시 수십여 곳을 밀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일군(一郡) 일현(一縣)에 겨우 한 곳이 설치되어 있으니, 그 다과(多寡)와 성쇠(盛衰)의 현격함이 이와 같은데도, 유사(有司)가 저것은 바로잡을 수 없다하고 도리어 신이 여기에 주청한 것은 의심스럽다고 하니, 신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⁴⁹⁾

주자는 노·불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학문의 터전으로서 서원이 필요하며, 서원은 예의(禮義)와 인륜으로 백성을 교화하므로 노불의 해로움에 비할 수 없는 이로움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주자는 도관과 사원이 천하에 가득한 반면 관학은 군·현에 하나뿐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관학을 보완하여 노불을 견제하는 것으로 서원을 장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⁰⁾ 그러나 주자의 서원 부흥을 위한 건의는 이미 관학이 많은데 무슨 이유로 서원을 늘리려 하느냐는 조정의 바움과 의심을 샀고 직접 임금을 친견하고 백록동

49) 『琴易堂集』 卷3, 書, 「答西厓柳先生」: “夫先王禮義之宮與異端鬼敎之居, 孰正孰邪? 三綱五常之敎, 與無父無君之說, 孰利孰害? 今佛老之宮, 徧滿天下, 大郡至踰千計, 小邑亦不下數十. 而學校則一郡一縣, 僅一置焉. 其多寡盛衰之縣絕如此, 有司不能有所正於彼, 而反疑臣之請於此, 臣不識其何說也.”

50) 范慧嫻,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 나타난 주희의 서원관」, 『한국서원학보』 제3호, 2015, 173, 179쪽 참조.

서원에 사액을 받기까지 많은 곡절과 시간을 견뎌야 했다.

나. 서원 제향 인물 선정에 대한 주자의 관점

북송 대에 발전하였던 관학의 보조로서의 서원은 한 때 침체하였다가 남송 대에 주자의 백록동서원 증건을 계기로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특히 주자에 의해 서원은 강학(講學)과 사묘(祠廟)를 겸비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주자는 1175년에 한천정사(寒泉精舍)를 건립하여 강학하고, 이어 1179년 정사(精舍) 내에 오현당(五賢堂)을 세워 주돈이(周敦頤) 등 북송유현을 봉사(奉祀)하면서부터 교육과 제향을 겸한 서원이 본격적으로 건립되었다.⁵¹⁾ 이로써 보면 주자가 이학(理學)·도학(道學)을 기준으로 제향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천정사는 서원이 아닌 사적으로 운영되는 ‘정사(精舍)’였으므로 주자가 도학자를 위주로 제향한 것으로 생각된다.⁵²⁾

주자학이 아직 흥성하지 못했던 북송 대에 서원의 제향 인물은 대부분 공자 또는 공자와 십철(十哲: 안자, 민자건, 염백우, 증궁, 재아, 자공, 염유, 계로, 자유, 자하)로 대표되는 공자의 제자들이었다. 남송 이후 공자 제자에 대한 제향은 십철에 더해 사배(四配: 안자, 증자, 자사, 맹자)의 기준이 생겼고 72제자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사배(四配)는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학자들이므로 남송 이후로 사배라는 기준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주자는 백록동서원

51) 차삼업, 「〈서원십영〉 배향 인물을 통해 본 퇴계 이황의 서원관」, 『溫知論叢』 第70輯, 2022, 78쪽.

52) 죽림정사(竹林精舍)의 제향에 있어서도 주자는 공자와 사배(안자, 증자, 자사, 맹자), 주돈이, 이정(二程), 장재, 소옹, 사마광 및 자신의 스승 이동(李侗)을 제향하였다(배다빈, 앞의 논문, 259~261쪽 참조). 서원의 경우 주자는 생전에 도학자의 제향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로써 보면 주자에게 서원(書院)과 정사(精舍)는 다른 것으로, 서원은 관학으로서 공공의 성격이, 정사는 사학으로서 자율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는 강학의 기능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다면 서재(書齋), 서원(書院), 정사(精舍)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았던 퇴계의 관점과 다른 점이다.

을 중수할 때 공자와 십철의 상을 세웠다. ... 1181년 백록동서원 중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도 서원의 제사 대상은 여전히 공자와 그 제자들뿐이었다. 이는 곧 당시의 서원 제사 대상이 여전히 공자 등 선진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⁵³⁾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자는 생전에 북송오자 등 선배 유학자들이나 맹자·자사 등의 사배(四配)를 서원에 제향하지 않았다.

이는 주자가 이학(理學)과 서원의 확대에 대한 당시 조정의 거부감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주자는 서원을 관학의 성격으로 부흥시키고자 하였으므로, 관학에서 제사 지내는 인물은 아직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학자가 아닌 공자와 십철(十哲) 같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성인과 유현이어야 했을 것이다. 주자 이후 백록동서원의 배향 인물은 선진제유(先秦諸儒), 이학의 명유(名儒), 그리고 현지의 명현(名賢)이라는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자 사후 원과 명을 거치며 배향된 인물을 포함하여 정리한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⁵⁴⁾ 원나라 이후 서원이 더욱 늘어나면서 서원의 제향 대상 선정 기준은 더욱 희석되었다. 선현 중 제사를 지냈던 분이거나, 마을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덕행이 많거나, 출신을 불문하고 벼슬에 올라서 공을 세웠거나, 학문에 전념하여 몸소 도를 이루었거나, 가르침을 설파하여 타인을 교화하였던 현지 사람들이면 제향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⁵⁵⁾

주자 이후 중국에서 서원의 제향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시되었다. 첫째, 관학화 된 서원에서 공자를 비롯하여 유현과 현지의 명현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존현(尊賢)을 통해 유학과 도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사찰에 모셔진 보살이나 도관에 모셔진 신선에

53)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第6期, 2011, 235쪽(배다빈, 앞의 논문 258~259쪽 참조 및 재인용).

54) 백록동서원의 경우 육상산과 왕양명도 배향하였는데, 육구연은 주자가 서원에 초청하여 강연한 당대의 명유이므로, 왕양명은 양명학이 흥하였던 명나라 말기(1603)에 배향된 것으로 주자의 제향 기준과는 무관하다.

55) 鄧洪波 著, 林麗·張允瀾 譯, 『中國書院史』, 학고방, 221쪽 참조.

필적하여 유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의미를 아울러 지닌다. 둘째, 남송 이후 거둬 발전된 서원은 여러 학파의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각 학파는 서원에 사당을 짓고 자신의 학파가 배출한 현인을 제향함으로써 학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였다. 중국 서원에서 제향이 가진 이 같은 의미는 백운동서원이 퇴계에 의해 사액서원으로 승격함으로써 촉발된 조선의 서원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이기도 하다.

V. 결론

퇴계는 당시의 공교육 제도로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보아 서원교육을 제창하고 이로써 서원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하고 시풍(士風)을 진작시켜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의 자율성’과 ‘환경의 교육성’ 확보는 퇴계에게 있어서 서원 건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교육의 자율성’ 측면에서 퇴계의 서원 건립이 갖는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 내용과 목적의 자율성이다. 중앙의 국학과 지방의 향교 모두 국가의 기관으로 국가의 구속을 받아 국가가 의도하는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므로 교육이 경색될 수밖에 없으므로 퇴계는 목적과 방향,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서원을 통해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규율의 자율성으로, 퇴계는 서원의 학생들이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자율적으로 자신을 검속하고 규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학문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는 서원 운영의 자율성으로, 국가는 지원은 하되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퇴계는 또한 ‘환경의 교육성’에 주목하여 서원의 효용성을 주장하였다. 환경의 교육성은 서원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학습 환경이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효과를 말한다.

퇴계는 서원의 제향자 선정에 있어서 ‘도학과 관련이 있는 유현(儒賢)’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향 기준에 따라 소수서원에 안향을 영봉서원에 김굉필을 임고서원에 정몽주를 역동서원에 우탁(禹倬)을 오산서원에 길재를 남계서원에 정여창을 배향하도록 결정 또는 자문하였다. 퇴계의 서원 제향 인물 선정 기준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인물을 주향(主享)으로 배향하였다는 점이다. 퇴계가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서원은 모두 우리나라 출신의 인물을 주향(主享)으로 하였는데 이는 율곡 관련 서원의 주자 주향 경향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또한 퇴계는 서원이 소재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물을 우선 제향하고자 하였다. 안향(순흥), 정몽주(영천), 최충(해주), 우탁(예안), 길재(선산), 정여창(함양) 모두 제향된 서원의 소재지가 해당 인물의 출신지거나 본거지였다. 아울러 당시 건립된 서원의 주향자(主享者)는 대부분 전조(前朝)인 고려의 인물이었다. 퇴계의 제향 기준 중 마지막은 서원을 건립하고도 제향할 마땅할 인물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굳이 제향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향에 대한 퇴계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화암서원(연경서원)과 이산서원은 묘우(廟宇)를 설치하지 않았고 우연의 일치이겠으나 이 두 서원은 퇴계 사후 모두 퇴계를 주향자로 정하였다.

율곡이 관여하였거나 율곡과 관계된 서원들은 퇴계와 다른 기준으로 주향자를 결정하였다. 먼저 율곡이 건립에 관여하고 그 자신이 머물렀던 황해도 의 소현서원은 처음부터 주자를 주향으로 제향하였고 1610년 소현이라는 사액을 받은 후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을 차례로 배향하였다. 취봉서원은 주자와 함께 율곡을 주향으로 하였고, 같은 시기 황해도에 건립된 백록동서원도 주자를 주향으로 하고 율곡과 김굉필을 배향하였다. 이로써 볼 때 16세기 후반 율곡 또는 기호학과와 관련이 있는 서원의 제향인물은 주자를 주향(主享)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의 소재지에 연고가 있는 유현(儒賢)을 제향한다는 기준은 퇴계와 율곡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율곡은 우리나라의 인물보다는 도학의 실제적 연원이 되는 주자를 주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율곡이 퇴계보다 도통의식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퇴계가

가급적 전조(前朝)의 유현을 입사(立祠)하고자 한 데에 비해 율곡에게는 전조의 유현 우선 기준이 없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주자에 대한 존숭과 함께 학파와 관련된 도통을 제향자 선정 기준으로 강조하는 입장은 율곡 사후 기호학파의 서원 제향 기준으로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자는 관학의 영향력이 짙었던 북송의 서원에서 탈피하여 유학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사학(私學)으로 서원을 복원하려 하였으나 운영의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의 현실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서원의 관학적 성격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송 후기 조정은 서원에 적극 사전(賜田), 사액(賜額), 사서(賜書)하였고 운영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서원을 발전시키면서도 통제를 강화시켰으며 백록동서원 또한 관학화 되었다.

주자의 서원 부흥 운동에서는 ‘교육의 자율성’이나 ‘환경의 교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학(私學)의 창달보다 미비하고 쇠락한 지방의 국가 교육기관들을 서원으로써 대체하려는 의도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주자는 서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영향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현실적으로 사학과 관학을 절충하는 형태로 서원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퇴계가 ‘지원은 있되 간섭은 없는’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학(私學)으로써의 서원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과 차이가 있다. 서원에 의한 관학의 대체 외에 주자가 서원의 부흥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흥성하였던 노불(老佛)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학과 제향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주자는 노·불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학문의 터전으로서 서원이 필요하며, 서원은 예의(禮義)와 인륜으로 백성을 교화하므로 노불의 해로움에 비할 수 없는 이로움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주자학이 아직 흥성하지 못했던 북송대에 서원의 제향 인물은 대부분 공자 또는 공자와 십철(十哲)이었다. 남송 이후 공자 제자에 대한 제향은 십철에 더해 사배(四配)의 기준이 생겼다. 그러나 주자는 생전에 북송오자 등 선배 유학자들이나 맹자·자사 등의 사배(四配)를 서원에 제향하지 않았다. 이는 주자가 이학(理學)과 서원의 확대에 대한 조정의 거부감을 의식한 것일 수 있

다. 아울러 주자는 서원을 관학을 대체하는 교육기관으로 부흥시키고자 하였으므로 관학에서 제사 지내는 인물은 아직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학자가 아닌 공자와 십철(十哲) 같은 이미 인정받는 성인과 유현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명을 거치며 확산된 중국 서원의 제향자들은 선진제유(先秦諸儒), 이학의 명유(名儒), 현지의 명현으로 범주가 확대되었고 중국의 서원은 이들의 제향을 통해 학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퇴계와 율곡 사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조선 서원의 제향 양상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

『退溪先生文集』

『武陵雜稿』

2. 논저

鄧洪波 著, 林麗·張允瀨 譯, 『中國書院史』, 학고방, 2025

강보승, 「충청 유학의 교육 사상 형성 과정 고찰」, 『한국철학논집』 제75집, 한국 철학사연구회, 2022.

김형수, 「退溪 書翰을 통해본 明宋代 書院의 創設과 運營」,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 53호, 2013.

배다빈, 「제향 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14호, 2022.

范慧嫻,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 나타난 주희의 서원관」, 『한국서원학보』 제3 호, 2015.

임근실,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9집, 2021.

정순목, 「朱晦庵과 李退溪의 書院敎育論 比較」, 『退溪學報』 제53집, 퇴계학연구원, 1987.

조준호, 「퇴계 이황의 서원 건립 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제2호, 역사문화연구소, 2006.

차삼임, 「〈서원십영〉 배향 인물을 통해 본 퇴계 이황의 서원관」, 『溫知論叢』 第70 輯, 온지학회, 2022.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eow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Toegye Yi Hwang

Kang, Boseung*

Toegye, believing that the existing public education system of the time could not fulfill its essential function, advocated for seowon education. Specifically, securing "educational autonom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the most important goals for Toegye in establishing seowon.

Toegye believed that as long as a seowon could provide education that illuminates ethics and the study of Zhu Xi's teachings, it could be called a seowon regardless of whether ancestral rites were performed. However, he recognized the important function of seowons in promoting Zhu Xi's teachings through the "respect of the sages." Furthermore, he believed that ancestral rites for the sages were a more advanced way to elucidate Zhu Xi's teachings and cultivate talent.

Toegye's criteria for selecting ancestral rites for seowon were, first, to prioritize "Confucian scholars with ties to Zhu Xi's teachings." Second, to primarily honor figures from Korea. Third, prioritize ancestral rites for figures with ties to the local area where the seowon is located. Fourth, prioritize selecting figures from the Goryeo Dynasty as figures for the seowon. Finally, if there are no worthy figures to honor, even after the seowon is established, there is no need to rush the rites.

*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yeskbs@cbnu.ac.kr

A comparison of Toegye and Yulgok's views on seowon reveals that both shared the standard of honoring Confucian scholars with ties to the seowon's location. However, Yulgok strongly believed in honoring Zhu Xi, the originator of Zhu Xi's teachings, rather than Korean figures. Furthermore, while Toegye did not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Confucian scholars and loyal subjects depending on the situation, Yulgok sought to honor only Confucian scholars and did not prioritize Goryeo Confucian scholars.

A comparison of Toegye and Zhu Xi's views on seowon reveals that Zhu Xi, unlike Toegye, prioritized the revival of seowon over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based on "educational autonomy" or "environmental pedagogy." Rather than prioritiz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based on "educational autonomy" or "environmental pedagogy," he prioritized replacing deficient and declining local state-run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seowon. Also, in terms of the people to be offered sacrifice, unlike Toegye, Zhu Xi limited the people to be offered sacrifice to Confucius and his disciples.

Key word : Toegye, Yi Hwang, Korean Seowon, Yulgok, Zhu Xi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

—내면적 ‘祭享’ 儀式으로서 ‘希賢’ 실천을 중심으로—

최재목*

- I. 들어가는 말
- II. 현재의 도산서당과 도산서원
- III. 도산서당의 ‘희현(希賢) 풍경’의 재음미
- IV.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향(祭享)’ 의식(儀式)으로서의 ‘희현(希賢)’ 실천을 중심으로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라는 내용을 논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도산서당은 ‘희현(希賢)’을 통한 ‘위성(爲聖)’의 공간으로서 스스로 ‘성현 되기’라는 일상적 수행 과정 즉 강학 자체에 이미 ‘성현 존송·흠모’의 내면적 제향이 실천되는 경건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산서당에서의 강학 활동은 곧 경서를 통해 성현의 말씀을 듣고 성현을 만나는 경건한 공간이었다. 예컨대 『심경부주』를 신명처럼 ‘믿고’[信] 엄부[神明·嚴父]처럼 ‘공경’[敬]하는 것은 ‘성현이 곧 신명’임을 인식하는 내면적 장치였다. 따라서 도산서당은 이미 퇴계학단에 있어 일종의 ‘유교 교회’라고 부를만하다.

둘째, ‘도산서당’ 자체에 ‘강학’과 ‘선현에 대한 내면적 제향’이 공존해 있다는 것은 현재 도산서원에 속해 있는 도산서당이 퇴계 당시에 이미 성현에 대한 제향 공간이라는 내면적 합의가 형성된 ‘서원과 동등한 성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퇴계 사후 ‘도산서원’으로의 이행은 ‘도산서당에 이미 내재해 있던 ‘내면적 제향’이 ‘사회적 차원의 제향’으로의 변환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choijm@ynu.ac.kr

셋째, 현재 도산서원의 건물 배치 형태는 교육 공간인 강당이 앞에 있고 제향 공간인 사당이 뒤에 있는 전형적인 전학후묘이다. 한편 도산서당의 당초 모습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도산서원이 도산서당을 품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도산서당은 그 본래의 ‘도학’ 교육의 기능을 정지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퇴계와 그 제자들의 ‘성현 존숭·흠모’라는 내면적 제향이 침묵하고 도산서원의 창건으로 인해 이제 퇴계의 ‘제향’으로 변환돼, 재출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현재 도산서원에 속해 있는 ‘도산서당’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본래적 의미를 어떻게 재평가해야 할지가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주제어 : 도산서당, 도산서원, 퇴계 이황, 제향 공간, 학헌

I. 들어가는 말

－내면적 ‘祭享’ 儀式으로서 ‘希賢’에 대한 문제－

현재 한국은 세계사적 과제인 기후 위기는 물론 인구몰락, 초고령화, AI문명의 도래라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사상과 문화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구 생명과 사람의 존중에 대한 지혜가 아닐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라 하면 보통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화쟁(和靜) 원효(元曉, 617-686)를 꼽는다. 더욱이 이 두 사상가는 대문명만이 아니고, 비(非)대문명과 만나 대화하고 통할 수 있는 ‘통저(通底)철학’(transversal philosophy)으로서 이해, 평가되고 있다.¹⁾

1) 최근 오구라 기조(小倉紀藏)는 철학을 ①보편(普遍)철학[대문명의 철학. 타자와 만나지 않음. 타자와 접촉하면 지배하는 철학], ②통저(通底)철학[transversal philosophy: 대문명만이 아니고, 비(非)대문명과 만나 대화하고, 통하는 철학], ③비통저철학[어떻게든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으며, 통하지 않는 철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에다 주자학과 화엄, 선(禪)을, ②에 퇴계, 원효, 양명학을, ③에 일본의 유교와 불교를 두고 있다. [小倉紀藏, 『日本群島文明史』,

‘힘’의 문명에서 ‘생명’의 문명으로 넘어서기 위한 지성적 모색의 일환에서다.

이올러 인류세 시대, 기후변화 시대의 윤리를 모색하는 경우 퇴계를 비롯한 한국사상가의 발상법이 호출된다. 21세기 접어들어 대기과학자 파울 크뤼천과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는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시대 개념으로 ‘인류세’(anthropocene)²⁾를 제안했다. 이 인류세 시대의 윤리를 한국 사상사의 맥락에서 모색하는 경우 동학의 경물(敬物)은 물론 퇴계의 「천명도(天命圖)」에서 드러나는 ‘경건[敬] 사상이 주목받는다. 이 경건의 덕목은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의 행위를 삼가는 것’과 ‘인간 이외의 존재도 존중하는 것’의 의미로 평가돼, 기후변화 시대의 윤리’로 받아들여진다.³⁾

그런데, 퇴계의 많은 업적 가운데, 특별히 현시점에서 평가해야 마땅한 것이 도산서당(陶山書堂)의 설계와 도학(道學)의 교육적 실천이라고 본다.

퇴계의 도산서당은 애당초 과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를 위성(爲聖)의 성학(聖學)에 둔 ‘도학적(道學的) 서당의 한 전형’이기에 조선 후기의 문중 서당이나 향촌 서당과는 격을 달리한다.⁴⁾ 예컨대 주세붕이 설립한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과거의 명소-필자가 말을 보탠다면, 지금 말로 ‘일타강사가 있는 국가고시전문기관’-로 소문나 있었던 것과 달리 중국 성리학이 조선 내에서 새로운 ‘심학적 공부론’으로 실험되던 교육 공간이었다.⁵⁾

筑摩書房, 2025, 466-467쪽, 472-478쪽 참조.]

- 2) 인신세(人新世)라고도 하며,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오늘날의 지구 환경(지구의 토양, 바다, 대기, 지구 생물들의 생태계)의 극적 변화를 강조하려, 다른 지질시대와 구분하여 ‘인간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친 시대’를 말한다.
- 3) 조성환, 『K-사상사: 기후변화 시대 철학의 전환』, 사단법인 다른백년, 2023, 7쪽, 72-74쪽 참조.
- 4) 정순우, 「초기 퇴계학파의 서당 운영」, 『정신문화연구』통 권85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62~63쪽 참조.
- 5)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93-96쪽 참조. 김자운, 「16세기 안동 지역 서당의 강화활동과 교육내용-도산서당의 교육내용과 공부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69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8.8), 4-7쪽 참조.

퇴계는 신유학적 도학 이념을 추상적인 언설 속에서 구상만 한 것이 아니라 로컬(local)인 안동의 도산(陶山)에서 현실-변혁적으로 실천[praxis]하였던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중앙이 장악한 과거 중심의 관료화된 학문=권력을 스스로 '귀향'을 통해 향촌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 수양(修己)과 사회적 이상 실현(治人)'이라는 유학 본래의 이상을 실현한 인문적, 지성사적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탈중심적 지역 재구축'이라는 중요한 사회사적 의의도 갖는다. 이에 김성실이 「퇴계 이황의 귀향과 서원부흥운동의 의미」에서 퇴계의 귀향과 (서원에 준하는) 서당 활동이 “향촌 사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자치와 공론, 도덕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했던 총체적 시도”로서 “교육, 경제 및 공론 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플랫폼”이었다는 평가에 일단 동의한다.⁶⁾ 어쨌든 도산서당은 당시 중앙의 관료 공공 시스템에 종속된 탑다운(Top-Down) 방식인 학지(學知, episteme)를 유교적 본래의 ‘인간 됨’이라는 개인 덕성 함양 중심 및 지역 인문학에 초점을 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탈구축(deconstruction)하려는 퇴계의 숨은 열정을 담은 변혁적 함의를 갖는다.

이런 조용한-강력한 변혁의 밑바닥엔 유학의 저 고대적 ‘대월상제’(對越上帝)⁷⁾라는 초월적 경건 심리를 ‘희현(希賢)’⁸⁾이라는 일상 세계 내의 탁월한 도덕적 성취로서의 성현 존숭(尊賢)의식으로 변환한, 그래서 ‘성현이 곧 신명’인 사유 장치가 마련돼 있다.⁹⁾

6) 김성실, 「퇴계 이황의 귀향과 서원부흥운동의 의미」, 『퇴계학논집』 제36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25.6), 10쪽, 16쪽.

7) ‘대월상제(對越上帝)’는 주희의 『근사록(近思錄)』과 「경재잡(敬齋箴)」, 서산(西山) 진덕수(眞德秀)의 「심경(心經)」에 명나라의 정민정(程敏政)이 주를 붙인 「심경부주(心經附註)」 등에 보인다.

8) 예컨대, “현인되기를 바라는 실로 우리의 일이네.”(希賢正屬吾儕事)[이황, 「정유일(鄭惟一)의 「한가로이 거처하다」라는 시 스무수에 화답하다(和鄭子中閑居二十詠) 중 2수(求志 [이황, 『퇴계잡영』, 이장우·장세후 옮김, (연암서가, 2009), 253쪽](이하 『퇴계잡영』).

9) 퇴계는 이 유교의 하늘을 받아들여 내면에서 직접 대면한다. 그 근거에는 단군

신유학의 ‘현희성(賢希聖)’¹⁰⁾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시되는 “인간은 누구나 배움에 의해 성인에 이를 수 있다”[聖, 可學¹¹⁾ ; 聖人, 可學而至¹²⁾]는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열정을 버리지 않고 도산서당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그래서 도산서당은 바이블(=유교 경전)과 신앙의 대상인 ‘성현’과 그를 마음으로 기리는 ‘희현(希賢), 이를 실천하는 신도(=학생) 등을 갖춘 이른바 퇴계식의 ‘유교 교회’ 공간이라는 형식을 갖춘 셈이다. 따라서 ‘희현(希賢) 의식은 내면적 제향(祭享) 예식으로서 적극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퇴계의 내면 깊이 깔린 일상 속의 존현 의식은 하늘[천]에 대한 경건(敬)과 접경 있다. 예컨대 퇴계는 정민정(程敏政)의 『심경부주』를 신명처럼 ‘믿고’ [信] 엄부(神明·嚴父)처럼 ‘공경’(敬)하였다.¹³⁾ 신유년(1561) 겨울에 도산서당

이래 전승되는 하늘 관념도 수반되어 작동한다. 이 대목은 ‘천인무간설’과 연관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기동은 중국의 ‘천인합일설’과 조선의 ‘천인무간설’이 수양론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의 천인합일설은 출발점에 있어서 하늘과 사람은 따로 존재하지만, 사람의 본질인 성과 하늘의 명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과 명을 자각함으로써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복잡한 수양 과정이 설정되지만, 목은의 성리학에서는 하늘과 사람이 사이가 없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애당초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천인무간이 전제됨으로써 복잡한 수양 과정이 설정되지 않는다.”[이기동, 「목은의 사상과 한국유학의 세 흐름」, 『한국사상과 문화』 제25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199쪽.) 그리고 조성환은 양촌 권근이 「천인심성분석도(天人心性分釋圖)」에서 맨 윗 자리에 ‘태극’이나 ‘리’ 대신에 ‘천’을 상정하고 있거나, 퇴계에서 ‘상제’ 개념이 두드러지는 것은 모두 하늘을 사상과 삶의 저변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조성환, 「단군신화에 나타난 한국철학의 정체성 - ‘하늘’ 관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7, 6쪽.)

10) 周敦頤, 『通書』, 「志學」제10에 나오는 “성희천(聖希天), 현희성(賢希聖), 사희현(士希賢)”은 『近思錄』 「爲學」, 『小學』 「嘉言」에도 나오므로 조선의 유자들에게 일반적 상식이었다.

11) 周敦頤, 『通書』, 「聖學」제20.

12) 『近思錄』 권2, 「爲學」.

13) 『퇴계선생인행록』, “吾平生信此書如神明, 敬此書如嚴父.”[李祥鎬 편저, 『東學』, 신귀현 번역·감수, (에디터, 2011), p.279.] 퇴계의 『심경부주』 관련 내용은, 최재목, 「韓國思想의 低流와 退溪學 - 朝鮮儒敎의 〈사상 신체 - 얼굴〉 試論 -」, 『한국

의 완락재(玩樂齋)에서 『심경부주』를 “언제나 닦이 올면 한 차례 우렁차게 외웠다”고 한다(김성일의 기록)¹⁴. 그리고 퇴계는 “성현을 존경하고 사모하여 마치 그분들의 신명(神明)이 위에 있는 것처럼 공경하였으며, 글을 대할 때는 반드시 이름자를 바로 읽기를 피하고 그냥 아무개(某)라고만 읽어서 이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김성일 기록)¹⁵ 『성학십도』의 제10도 「숙흥아매잠도」에 잘 제시되었듯이, 퇴계의 도산서당에서의 일상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책을 펴고 성현을 마주 대한다. 공자(孔子)께서 자리에 계시고, 안자(顔子)와 증자(曾子)가 앞뒤에 서 있다. 위대한 스승이 말씀하신 것을 친절히 경청하고 (공자와 그) 제자들이 묻고 따지는 말을 반복해서 참고하여 바로 잡아라”는 광경 그대로의 실천이었다. 이때의 독서는 ‘이성적, 객관적, 논리적, 형식적’인 알은 표의(denotation)의 읽기가 아니라 ‘체험적, 호교적, 실존적, 심층적’인 함의(connotation)의 깊은 읽기였다. 독서 자체로 성현을 대하고, 대화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현’의 겉과 속이 되어가고 있었다.¹⁶ 이런 지향에서 퇴계는 자기 자신의 외부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궁리(窮理)보다도 내면의 이치를 갈고닦는 ‘거경(居敬)을 중시했다. 이것은 주자학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객관주의’가 점차 이념적 ‘관념주의’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¹⁷ 퇴계는 “글짓기 공부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工文藝] - “과거 급제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유자(儒者)가 아니다”[非儒]라 하고,

학논집』 제5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91쪽을 참조.

14) 『퇴계선생언행록』.

15) 『퇴계선생언행록』.

16) 『퇴계선생언행록』. 월천 조목이 간재 이덕홍에게 “퇴계 선생에게 성현의 모습이 있다”고 말한 대목이 李祥鎬 편저, 『東學』에 실려 있다: “趙月川言於李良齋曰, 退溪先生有聖賢底樣子, 良齋曰先生有平易白直底道理, 虛明洞徹底心事, 豈特樣子.”[李祥鎬 편저, 『東學』, 신귀현 번역·감수, 에디터, 2011, 281쪽.] 아울러 제자들의 퇴계의 초연한 태도에 대한 평가는 최재목, 「퇴계의 '초연함'에 대한 인문적 성찰」, 『퇴계학논집』 제22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8. 참조.

17) 下川玲子, 『朱子學的普遍と東アジア - 日本・朝鮮・現代』, (ベリカン社, 2011), 11쪽 참조. 이런 대목은 양명학과의 유사성으로 비교되는 점이기도 하다.

그것을 벗어나 진정한 학문[=도학]에 뜻을 둘 것을 제자들에게 권고한다.¹⁸⁾ 도산서당의 공부 또한 바로 이러한 도학의 실천이었다.

정순우는 조선의 학교를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으로 구분하고¹⁹⁾ 또한 강학과 제향을 ‘도문학’과 ‘존덕성’으로 대비시켜 설명한다.²⁰⁾ 그는 “강학 공

18) 『퇴계선생언행록』, [李祥鎬 편저, 『東學』, 신귀현 번역·감수, 에디터, 2011, 37쪽.]

19) 정순우는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학교는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서원과 향교는 대체로 전학후묘의 형태로 공간이 양분되어 있다. 강학공간이 다수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제향공간은 ‘일정한 의례와 절차’ 속에서만 참례의 자격이 획득되는 닫힌 공간으로 기능한다. 제향과 강학은 대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의 두 요소를 이루고 있다. 제향공간은 성인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현인과 군자들의 위패를 모신 장소이다.” [정순우, 『성인담론과 교육: 조선후기 교육사상사 시론』, 태학사, 2019, 322쪽.]

20) 정순우는 ‘강학’과 ‘제향’을 ‘도문학’과 ‘존덕성’으로 대비시켜 설명한다. “제향의 본질은 존현의 자세를 통하여 경(敬)의 태도를 일상 속에서 회복하는 것에 있다…제향과 강학이라는 두 개의 공간 구성이 유학적 지식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즉 ‘강학의 공간’은 “앎을 우선시하는 도문학(道問學)의 세계를 표상”하고 ‘제향공간’은 “마음을 중시하는 존덕성(尊德性)의 영역을 지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존덕성과 도문학은 “동시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성외왕(內聖外王) 정신을 실현하는 유가의 근본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상사를 조망하면, “제향공간을 주된 것으로 강학공간을 부차적인 차원으로 취급”하고, “존덕성-내성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도문학-외왕의 측면은 다소 경하게 다루던” 주된 흐름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강학의 공간은 앎을 우선시하는 도문학(道問學)의 세계를 표상한다. 도문학의 일차적인 관심은 객관세계의 사물의 이치에 대한 공부에 있다. 이에 비하여 제향공간은 마음을 중시하는 존덕성(尊德性)의 영역을 지시하고 있다. 존덕성과 도문학의 동시적인 실현이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유가의 근본이념이다. 제향공간을 주된 것으로 강학공간을 부차적인 차원으로 취급하던 당시의 상황은 존덕성과 내성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도문학과 외왕의 측면은 다소 경하게 다루던 당시 사상사의 주된 흐름과 일치한다. 조선조가 치지(致知)를 강조하는 도문학의 세계를 경시한 것은 아니나, 극고명(極高明)의 세계를 지향하던 당시의 유자들은 존덕성과 내성에 삶의 의미를 두었다.”

[정순우, 『성인담론과 교육: 조선후기 교육사상사 시론』, 태학사, 2019, 325-326쪽]

간이 하학(下學)의 영역이라면 제향 공간은 상달(上達)의 영역이다. 즉 하학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형이상학의 가치가 제향의 공간에는 논리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²¹⁾고 했다. 그리고 그는 “도산서당의 경우, 형식상 제향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는 후일의 도산서원과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그 교육의 지향점이나 역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할 때는 양자의 구별은 무의미하다.”²²⁾고 했다. ‘교육의 지향점이나 역사적 기능’ 면에서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은 같지만 ‘제향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도산서원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였다.

다만 ‘제향’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면적 의식의 형태’로 유지되었다고 본다면, 도산서당은 그 자체로 서원의 의미를 가졌다고도 하겠다.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의 의미』 앞머리에 실린 괴테의 말 “외경은 인간이 지닌 가장 좋은 면이다. 세상이 아무리 그 감정을 과소 평가할지라도 일단 사로잡히면 우리는 깊이 어마어마한 것을 느낀다.”²³⁾처럼, 퇴계의 희현의 외경심은 그 자체로 제향적 의미라고 봐도 좋겠다.

어쨌든 퇴계식의 유교 교회는 인간 내에 하늘=성현을 품는 것으로 서당이라는 공간을 갖지 않더라도 심신 내에서 일어나는 ‘희현이라는 내면적 제향 예식’만으로 충분하므로, 이를 더욱 밀고 나가면 ‘몸=교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유가 꽃 피는 곳이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유교에서였다. 다시 말해서 내면화된 하늘 의식은 교회라는 형식이 불필요한 무교회주의로도 연결된다고 추정된다.²⁴⁾

정순우의 지적처럼, 서당에서는 향교처럼 대개 제향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동족 마을이 서당 설립의 가장 주요한

21) 정순우, 『성인담론과 교육: 조선후기 교육사상사 시론』, 태학사, 2019, 326쪽.

22)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서당으로 읽는 조선 교육의 흐름』, 태학사, 2012, 109쪽.

23)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김희성 옮김, 분도출판사, 1987, 5쪽.

24)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기회로 돌린다.

주도 세력으로 자리잡자 강학(講學) 기능 이외 선조에 대한 향사(享祀) 기능을 두기도 하였다.²⁵⁾

예컨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불의 일대기를 압축 묘사한 불화인 ‘팔상도’(八相圖)가 있고, 선종(禪宗)에서는 본성을 찾는 것을 소 찾기에 비유하여 그린 선화인 ‘심우도’(尋牛圖)가 있다. 팔상도가 ‘그분’(예: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이야기라면, 심우도는 ‘스스로’ 그분처럼 되어가는 이야기이다. 팔상도의 ‘그분 바라보기’와 심우도의 ‘스스로 되기’를 서당과 서원에 비유한다면, 서당은 ‘스스로 되기’이며, 서원은 ‘그분 바라보기’이지만 퇴계의 도산서당에서는 양자가 오버랩되어 있다고 하겠다.

도산서당은 희현(希賢)을 통한 위성(爲聖)의 공간으로서, 스스로 ‘성현 되기’라는 일상적 수행 과정 즉 <강학 자체에 이미 ‘성현 존송·흠모’의 내면적 제향이 실천되는 경건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퇴계의 경우 ‘도산서당’ 자체에 ‘강학’과 ‘선현에 대한 내면적 제향’이 공존해 있어, 퇴계 사후 ‘도산서원’으로의 이행은 도산서당의 일상적 강학 활동에 내재해 있던 ‘내면적 제향’이 ‘사회적 차원의 제향’으로 변환되었다는 논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현재의 도산서당과 도산서원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의 이행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양파형, 복숭아형, 수박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²⁶⁾ ‘복숭아형’에 해당한다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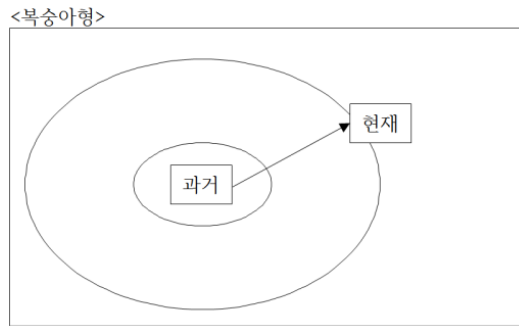
25) 서당의 향사 대상은 선조 또는 종족(宗族)의 비조에 한정하는 가묘적 성격이 강해서, 향사 인물이 문중 위주·혈연 위주로 한정돼 서당의 명륜교육도 가정윤리인 효(孝)의 문제로 축소되어 충(忠)과의 연계성을 위협받게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당’ 항목(<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7680>)참조(검색일자: 2025.8.10)

26) ①양파형, ②복숭아형, ③수박형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①과 ②는 풀 담브로시오

졌다.

즉 복숭아가 하나의 씨앗에서 동심원식으로 과육을 형성해 가듯이 ‘과거의 어떤 중심’(=씨)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상호연관을 가지면서 현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니, 현재는 과거와 연관을 가진 유기적 동일체라는 것이다. [과거⇒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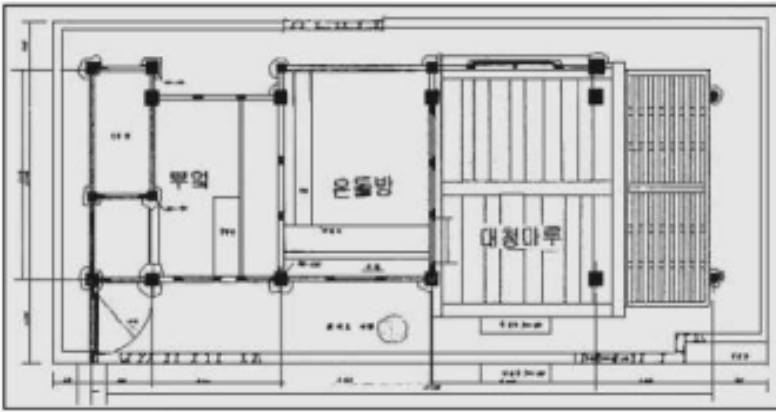


〈도판 1〉 복숭아형

현재의 도산서원은 건축물의 구성면으로 볼 때, ‘도산서당’과 이를 품고 있는 ‘도산서원’으로 구분된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생전에 강학하던 공간이며, 도산서원은 퇴계 사후 후학들이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당초의 서당에 다 위패를 모시는 사당 등을 증축하고 추증되어 마련된 제향 공간이다.

참고로 도산서당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Paul J. D'Ambrosio)가 쓴 「유가적 역할 윤리에 대한 샌텔의 대응」[마이클 샌델·폴 담브로시오,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만나다』, 김선욱·강명신·김시천 역, 와이즈베리, 2018]에 나오는 내용, 즉 “헨리 로즈몬트는 자신과 로저 에임스가 이해한 ‘유가 역할에 기반을 둔 자아 개념’이 마이클 샌델의 ‘상황 속의 자아개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양파인가 아니면 복숭아인가”라는 말로 요약했다”(315쪽)는 데서 차용한 것이다. ‘양파인가, 복숭아인가’ 논의는 같은 책의 318-9쪽을 참조하였다. 다만 ③수박형은 필자가 독자적으로 그린 것이다.



〈도판 2〉 도산서당 평면도²⁷⁾

1570년 퇴계가 세상을 떠나자 위패를 상덕사에 모시기 위해 1572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574년에 도산서원이 설립되었다. 다음 해(1575년)에 선조가 한석봉(韓石峯)에게 편액을 쓰게 하여 하사함으로써 영남 유림의 본산이 되었다. 이후 도산서원은 한국의 대표 서원으로, 2019년 7월 10일 소수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등의 8개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도산서원에는 퇴계 사후 제자와 사림에 의해 퇴계의 위패를 받들어 봄가을로 향사(享祀)하는 상덕사(尙德祠), 그리고 전교당(典敎堂),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광명실(光明室), 진도문(進道門), 장판각(藏板閣)이 건축되었다. 과거 시험 장소였던 시사단(試士壇)은 안동댐 가운데 있고, 유물을 보관하는 옥진각(玉振閣)이 건축되어 퇴계의 청려장(靑藜杖), 포석(蒲席), 투호(投壺), 선기옥형(璇璣玉衡), 기타 서적, 서판(書板) 등을 전시하고 있다.

도산서원 경내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27)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서원실측보고서』, 경상북도 안동군, 1991의 ‘평면도’ 참조.

③ 제향건물군(제사를 집행하는 건물)

상덕사, 삼문, 전사청

④ 부속시설군

옥진각, 열정

앞서 정순우의 지적처럼, 도산서당은 형식상 ‘제향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후일의 도산서원과과는 확연히 구분되나, 그 교육의 지향점이나 역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할 때는 양자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구별하기 어렵다).²⁹⁾

도산서원은 형식상 도산서당을 품은 모습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산서당에 내재한 희현(希賢)을 통한 위성(爲聖)의 과정이, 당시의 ‘서원’ 형식에 맞춰 사회적 제향으로 변환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라는 의미는 도산서당 본래의 ‘도학’ 기능이 정지됨에 따라 퇴계와 그 제자들의 ‘성현 존숭·흠모’라는 내면적 제향이 침묵하고 퇴계의 ‘제향’으로 변환, 재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도산서당의 ‘희현(希賢) 풍경’의 재음미

퇴계의 경우 서당 내에 선조나 선현에 대한 향사(享祀)의 형식을 둔 것은 아니지만 지산와사(芝山蝸舍, 31세), 양진암(養眞庵, 46세), 한서암(寒栖庵, 50세), 계상서당(溪上書堂, 51세)을 거쳐 도산서당(陶山書堂, 50대 후반-65세)에 이르는 과정은 일관되게 “누린 책 속에서 성현들을 마주하는”(黃卷中間對聖賢)³⁰⁾ 시간이었다.

29)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서당으로 읽는 조선 교육의 흐름』, 태학사, 2012, 109쪽.

30) 「도연명집에서 음주시에 화답하다 20수(和陶集飲酒, 二十首)」 중 13수『퇴계잡영』, 81쪽.

권오봉이 잘 밝혔듯이 퇴계의 주거 조성에는 모두 35년간의 다섯 시기에 걸친 단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온계(溫溪) 이해(李滄, 1496~1550)가 동생 퇴계에 대해 “자주 집(莊屋)을 옮겨서 반드시 궁빈에 이를 것이다”(屢遷莊屋, 必致窮窶)라고 근심했을 정도였다.³¹⁾

제1기는 온혜의 남쪽의 지산와사(芝山蝸舍)를 짓고 살던 시기, 제2기는 토계(兔溪) 동암(東巖) 옆에 건축한 양진암(養眞庵)에서 살던 시기, 제3기는 한서암(寒栖庵)에서 부자간에 정착하여 동거하던 시기, 제4기는 계상서당(溪上書堂)에서 고요히 거주하며 교육을 시작하던 시기, 제5기에는 도산정사(陶山精舍)를 지어 ‘나의 사업(吾業)’을 추진하던 시기이다.

이것을 퇴계 연령을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31세에 지산와사, 46세에 양진암, 50세에 한서암, 51세에 계상서당, 50대 후반에서 65세까지 10년간 도산정사, 모두 합쳐서 35년간 이어진 집(莊屋)의 조성이다.³²⁾

권오봉은 「퇴계가서(退溪家書)」에 근거하여 도산서당 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요약한 바 있다.

- ① 도산서당과 정사는 원래는 퇴계의 의지로 계획한 것이 아니다. 금응훈(琴應壘)과 오천(烏川)의 젊은이들이 주장하였으나 퇴계는 두 번이나 거절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 강력하게 정사(精舍)를 지어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요구했기에 세 번째에는 어쩔 수 없이 수락하였다.
- ② 도산에 서당 부지를 택한 것도 금응훈 일행의 문하생들이다.
- ③ 건축설계는 한양에서 퇴계가 설계하여 보냈다. 1차로 한 설계도는 버리고, 2차로 한 것이 지금의 도산서당의 설계였다.
- ④ 건축공사의 목수 역할 및 기와 굽기 담당은 용수사(龍壽寺)의 법련(法蓮) 스님이 담당하였는데 공사 도중에 병사하여 정일(靜一) 스님 이어받아서 완공했다. 공사의 감독과 지휘는 이문량(李文樑)이, 연락책은 장남 준(鴈)이 담당

31) 권오봉, 『가서로 본 퇴계의 삶과 사상』(中), 최재목·진갑곤·이상린·김정곤 옮김, 영남퇴계학연구원, 2020, 431쪽.

32) 권오봉, 『가서로 본 퇴계의 삶과 사상』(中), 431쪽.

했다.

- ⑤ 처음의 설계도는 지금의 서당보다도 작은 소박한 규모였지만 퇴계가 없는 사이 정일 스님이 확대해 버렸다.
- ⑥ 정일 스님은 퇴계의 시봉(侍奉) 역할 뿐만 아니라, 농운정사(隴雲精舍)에 입거해 있던 퇴계 제자들의 식사까지도 담당했다.
- ⑦ 승려를 서당에 거주시킨 것은 첫째로 청결을 위한 것이고, 둘째로 주자가 운곡정사(雲谷精舍)에서 도인(道人)과 동거했던 것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다. (퇴계는 도인(道人)이 조선에는 없기에 승려를 택했다고 말했다.)
- ⑧ 법련 스님은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 경주까지 갈 정도로, 퇴계의 “나의 사업(吾事)”에 협력하였고, 또한 퇴계를 존경하였다.³³⁾

도산서당은 어떤 교육적 의도로 설립되었을까? 정순우는 다음의 「도산육곡」(其三)³⁴⁾을 인용하고 있다.³⁵⁾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마리.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 흘가.

이 시조를 현대역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져 없다고 하니 참으로 거짓말이고
사람의 본성이 어지다 하니 참으로 옳은 말이니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이 다 없어졌다는 말로) 이 세상의 많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느냐.

33) 권오봉, 『가서로 본 퇴계의 삶과 사상』(中), 478-479쪽.

34) 전 6곡의 제 3곡. 「도산십이곡」 시조는 전 6곡과 후 6곡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 6곡은 ‘언지(言志)’로 자연을 지향하는 삶을, 후 6곡은 ‘언학(言學)’으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35)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서당으로 읽는 조선 교육의 흐름』, 태학사, 2012, 107쪽.

정순우는 “서당 설립의 뜻을 드러낸 이 시에는 퇴계의 역사에 대한 도저한 낙관주의가 흘러넘치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초장에서 “당시의 시대는 이미 순박한 민풍(民風)이 사라져 버렸다는 회의주의를 부정하고”, 중장에서 “인간의 본성은 순선하다는 유학의 중심 테제를 확신하면서”, 종장에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 뜻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³⁶⁾고 하였다. 아울러 “공자의 쥘리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말을 더 보탠다.³⁷⁾ 정순우는 김궐원(金鎰源)의 「퇴계선생쥘리가 소고」³⁸⁾에 근거하여, “퇴계가 지은 「공부자쥘리가(孔夫子闕里歌)」를 보면, 그는 공자의 쥘리(闕里)³⁹⁾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았다.

도산서당은 그 자체로 공자의 쥘리를 ‘재현’(representation)하는 열정을 보인다. 재현은 주체적 개성을 토로하며 자신의 생명을 ‘표현’(expression)하려는 욕구⁴⁰⁾와 달리 선현의 지향(志)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 그대로 따르려는 입장을 말한다. 즉 “도서는 사방의 벽 가득 채우고 있네./옛사람 지금 여기 없지만, 그 말씀 향기로이 남아있네.”(圖書盈四壁, 古人不在茲, 其言有餘馥⁴¹⁾)처럼, 고인의 도(道)와 그 숨결에 합일하려는 ‘내면적 지향[志]으로 가득하다. 그런 실천이 바로 학문[學]이었다.

이로 해서 퇴계는, “성현의 해 같이 밝은 고요한 말씀”⁴²⁾을 담은 “못 경서

36)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서당으로 읽는 조선 교육의 흐름』, 태학사, 2012, 107쪽.

37)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서당으로 읽는 조선 교육의 흐름』, 태학사, 2012, 107쪽.

38) 金鎰源, 「퇴계선생쥘리가 소고」, 『퇴계학연구』 제12집, 단국대학교, 1998.

39)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곡부현 쥘리를 말한다.

40) 버질 올드리치(V.C.Aldrich)는 ‘재현’과 ‘표현’의 문제를 논하면서 어떤 것을 지시하는 ‘기술적 묘사(descriptive portrayal)’와 자유롭게 대상을 미적으로 구체화하는 ‘표현적 묘사(expressive portrayal)’를 구분하고 후자를 ‘대상에 생기를 주는’ 방식이라 보고 있다.[질 C. 올드리치 지음, 『예술철학』, 오병남 옮김, 서광사, 2004, 121~127쪽 및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2015, 42쪽 참조.] 이를 참고한다면 퇴계는 신고전주의처럼 재현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겠다.

41) 「한서암에 비가 온 뒤의 일을 쓰다[寒栖雨後書事]」 [『퇴계잡영』, 49쪽].

42) “성현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해와 같이 밝으니”(聖賢說靜明如日): 「정유일(鄭惟一)의 「한가로이 거처하다」라는 시 스무수에 화답하다[和鄭子中閑居二十詠] 중 6수

를 하늘이 내리셨으니 그 속에 들어있는 즐거움을 늙은 몸으로 책벌레처럼 파면서”⁴³⁾ “정신을 맑히며”⁴⁴⁾ 책 속의 도를 배운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에 침놓아 갖은 질병 고쳐서 없애는”(刺得人心百疾夷)⁴⁵⁾ 치인의 길이다. 결국 배움의 뜻은 “현인 되기를 바람”에 있다.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며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어 가는 것이다.⁴⁶⁾

다시 말해서 퇴계는 “어려서나 젊어서나 성인의 가르침 들으니”(少小聞聖賢) “까마득한 저 옛날의 성현들께서는./몸은 죽었지만 도는 길이 올리네.”(邈彼古聖賢)⁴⁷⁾라고 한다. “내 천년 성인을 그리워하냐”(我思千載人)⁴⁸⁾, 고인(古人)을 뵈 수가 없다. 하지만 고인이 다니시던 길은 눈앞에 훤히 펼쳐져 있으니 우리 자신도 다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⁴⁹⁾ 이런 과정을 겪으면 고인과 나 자신의 마음이 통하고 성현의 도가 내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⁵⁰⁾

도산서당 내에서의 풍경은 이와 동일한 것이었다. “원컨대 책 묶어 들고서

[養靜] [『퇴계잡영』, 263쪽].

- 43) “병 많고 능력 없네, 흰 머리 늙은이./한 몸 오래도록 함께 했네. 책 속의 좀벌레와./좀 벌레 글자 파먹은들 어찌 그 맛 알리오./하늘이 못 경서 내리셨으니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네.”(多病無能白髮翁, 一身長伴蠹書蟲, 蠹魚食字那知味, 天賦羣書樂在中): 「동재에서의 일을 느끼다 절구10수[東齋感事, 十絶] 중 4수 [『퇴계잡영』, 218쪽].
- 44) “정신을 깨끗히 하는 데는 옛 책이 있고”(澡神古書在): 「초여름 계상에서[首夏溪上] [『퇴계잡영』, 159쪽].
- 45) 「동재에서의 일을 느끼다 절구 10수[東齋感事, 十絶] 중 8수 [『퇴계잡영』, 224쪽].
- 46) “현인되기를 바람은 실로 우리의 일이네.”(希賢正屬吾儕事): 「정유일(鄭惟一)의 「한가로이 거처하다」라는 시 스무수에 화답하다[和鄭子中閑居二十詠] 중 2수[求志] [『퇴계잡영』, 253]쪽.
- 47) 「도연명집에서 음주시에 화답하다 20수[和陶集飲酒, 二十首] 중 7수 [『퇴계잡영』, 69쪽].
- 48) 「도연명집에서 음주시에 화답하다 20수[和陶集飲酒, 二十首] 중 13수 [『퇴계잡영』, 81쪽].
- 49)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을 못 뵈./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퐁 있네./녀던 길 알퐁 있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陶山十二曲』, 「後三曲」.
- 50) 그래서 “마음으로 통하면 한마디로도 도가 동쪽으로 옮겨감”(心通一語道猶東): 「계상서당에서 청명절에 2수[溪上書堂清明, 二首] 중 2수 [『퇴계잡영』, 117쪽].

성현이 남긴 소리나 외우고자 하네”(願將編簡誦遺音)⁵¹⁾처럼, 성현의 케리그마(Kerygma, 선포)를 듣고 외우는 일이었다. 도산잡영 7언절구 18수에는 공자의 논어를 비롯하여 성현에 대한 존숭의 심정이 깔려 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들어본다.

「도산서당(陶山書堂):

“성인과 현인의 마음 쓰는 일 내 어찌 터득하리오만”(聖賢心事吾何得)⁵²⁾

「곡구암(谷口巖):

“이 이름 마침 옛날의 선현 있던 곳과 비슷하니”(此名偶似前賢地)⁵³⁾

「탁영담(濯纓潭):

“어떠한가? 성인이신 공자 훈계 친절함이”(何如孔聖戒丁寧)⁵⁴⁾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공맹 등의 성현을 인용하여 망라한다.

도산서당과 그 주변의 인위적 혹은 자연 공간을 학(學)의 실천 공간으로 여기고 서당 주위 자연경관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고 자연을 거울로 삼아 그 속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의미를 『도산잡영』 안에 시로 풀어놓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⁵⁾

51) 이황, 「서당을 고쳐 지을 땅을 도산 남쪽에서 얻다改卜書堂得地於陶山南澗」[이황, 『도산잡영: 퇴계, 도산서당에서 시를 읊다』, 이장우·장세후 옮김, (을유문화사, 2005), 24쪽](이하 『도산잡영』).

52) 이황, 「7언절구 18수: 「1. 도산서당(陶山書堂)」[『도산잡영』, 67]쪽.

53) 이황, 「7언절구 18수: 「11. 곡구암(谷口巖)」[『도산잡영』, 84]쪽.

54) 이황, 「7언절구 18수: 「14. 탁영담(濯纓潭)」[『도산잡영』, 89]쪽.

55) 『도산잡영』, pp.67-98에 근거하여 작성[최재목·조용미·김동성, 「〈도산서당〉과 〈도산십이곡〉·〈성학십도〉의 '志·學' 구조가 갖는 인지적 상관성 試論」, 『퇴계학논집』 제28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77-80쪽에서 수정하여 재인용.]

〈표 1〉 퇴계 『도산잡영』 속 도산서당 내·외부 공간

	시제	번역문	원문	주제어
1	陶山書堂	순임금 친히 질그릇 구우니 즐겁고 또 편안하였으며, 도연명 몸소 농사지으니 또한 얼굴에 기쁨 넘치네. 성인과 현인 마음 쓰는 일 내 어찌 터득하리오만, 흰 머리 되어 돌아와 《시경》의 〈고반〉 시 읊어보네.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	聖賢心事
2	巖栖軒	증자는 안연 칭찬하여 왔는데도 빈 듯하다 하였고, 유병산은 끌어서 펼쳐 주었네. 회옹 처음으로 늘그막에 엿보고 터득하였구나, 바위 구멍에 깃든다는 뜻, 널리 요약함과 못에 다다른 듯 얼음 밝듯함 스스로 소원해질까 걱정되네.	曾氏稱顏實若虛 屏山引發晦翁初 暮年窺得巖棲意 博約淵氷恐自疎	巖棲意 博約淵氷
3	玩樂齋	경을 주로 함은 또한 모름지기 의를 모으는 공부이니, 잊지도 말며 돕지도 말고 차츰차츰 두루 통달해야 하네. 꼭 태극이 염계의 오묘함에 도달한다면, 비로소 믿겠네, 천년에 이 즐거움 똑같음을.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千年此樂
4	幽貞門	한문공의 큰 거북을 빌림 기리지 않아도, 새 거처에 아득하게 사립문 비치네. 산의 오솔길 끝에 덮힐 것 걱정할 것 없고, 도 그윽하고 곧은 데 있으니 탄탄하고 평평함 느껴지네.	不待韓公假大龜 新居縹緲映柴扉 未應山徑憂茅塞 道在幽貞覺坦夷	道在幽貞
5	淨友塘	온갖 사물 모두들 온 하늘의 오묘함 머금었는데, 주름제는 어떤 일로 유독 그대만 어여뻐 여겼던가? 향기로운 덕 곰곰이 생각하니 실로 벗하기 어려운데, 깨끗한 것 한 가지로만 칭찬한다면 또한 치우친 듯하네.	物物皆含妙一天 漣漪何事獨君憐 細思馨德眞難友 一淨稱呼恐亦偏	一淨稱呼
6	節友社	소나무와 국화 도연명의 동산에 대나무 더불어 셋인데, 매화 형은 어찌하여 함께 들지 않았던가? 내 이제 바람과 서리의 서약 함께 맺었으니, 굳은 절개 맑은 향기 너무나 잘 이해하네.	松菊陶淵與竹三 梅兄胡奈不同參 我今併作風霜契 苦節清芬儘飽諳	苦節清芬
7	隴雲精舍	늘 도홍공의 언덕 위의 구름 사랑하거늘, 다만 제 스스로 즐길 만한뿐 임금께 보내드릴 수는 하지 않네. 늘그막에 집 하나 얹어 그 가운데 누워서, 한가로운 정취 절반은 들사슴과 나누어 갖네.	常愛陶公隴上雲 唯堪自悅未輸君 晚來結屋中間臥 一半閒情野鹿分	陶公隴上雲
8	觀闌軒	넘실넘실 흘러가는 저 이치가 어떠한가? “이와 같구나”라며, 일찍이 성인께서 탄식하셨다네. 본래부터 도의 본체 이것으로 볼 수 있으니, 공부 중간에 끊어지는 일 많지 않게 하려무나.	浩浩洋洋理若何 如斯曾發聖咨嗟 幸然道體因茲見 莫使工夫間斷多	莫使工夫
9	時習齋	날로 밝음과 정성 일삼음 새가 자주 나는 것과 비슷하고, 거듭 생각하고 다시 실천하여 그때그때 쫓아가네. 얻음 깊어 감은 바로 공부 무르익음에 있으니, 어찌 진귀한 것 익혀 입과 턱만 즐겁게 만들겠는가?	日事明誠數數飛 重思複踐趁時時 得深正在工夫熟 何啻珍烹悅口頤	重思複踐
10	止宿寮	닭 잡고 기장밥 지어 잠깐 그대 불들지 못함 부끄러우나, 나 또한 처음에는 새와 짐승 같은 무리 아니었다네. 원컨대 스승 따라 바다로 떠다닐 뜻 가지고, 침상 나란히 하고 밤새도록 자세히 이야기나 해 보세.	愧無雞黍漫留君 我亦初非鳥獸群 願把從師浮海志 聯床終夜細云云	終夜細云

	시제	번역문	원문	주제어
11	谷口巖	동쪽으로는 강가의 높은 곳 오르고 북으로는 구름까지 들어가, 골짜기 입구 열어젖혀 산의 문 본뒀네. 이 이름 마침 옛날의 선현 있던 곳과 비슷하니, 발갈이에 은거하는 명에 어찌 쉽게 논할 텐가?	東躡江臺北入雲 開荒谷口擬山門 此名偶似前賢地 耕隱風聲詎易論	似前賢地
12	天淵臺	날개 솟구치고 지느러미 놀림 누가 그렇게 시켰던가? 자연의 운행 활발하니 하늘과 연못 오묘하네. 강가 높은 곳에서 하루 종일 마음의 눈 열려, 밝음과 정성의 이치 밝힌 세 번이나 반복하여 읊조렸다네 한 편의 명작 가운데 있는.	縱翼揚鱗孰使然 流行浩漭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	縱翼揚鱗
13	天雲臺 [天光雲影臺]	살아 있는 물 하늘과 구름의 그림자와 빛 비추고 <책 보는 시>의 심오한 비유는 네모반듯한 연못에 들어 있네. 내 이제 뜻 얻었네 맑은 못가에서, 마치 그 당시 감탄 길게 하신 것과 같네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歎長	我今得意
14	濯纓潭	어부 그 당시 홀로 갠 것 비웃었는데. 어떠한가? 성인이신 공자 흔쾌 친절함이. 내 와서 노 두드리며 바람과 달 읊조리니, 오히려 기쁘네, 맑은 못에서 갠 것 잊을 만함.	漁父當年笑獨醒 何如孔聖戒丁寧 我來叩硯吟風月 卻喜清潭可濯纓	清潭可濯纓
15	盤陀石	누런 탁류 도도히 흐르니 형태 감추었다가, 편만한 물결 느긋하니 비로소 분명해지네. 아리따도다! 얼마나 내달아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천고에 편편하고 비스듬함 기울어지지 않네.	黃澗滔滔便隱形 安流岫始分明 可憐如許奔衝裏 千古盤陀不轉傾	盤陀不轉傾
16	東翠屏山	뽕뽕한 못 봉우리 왼쪽의 취병산, 개인 날 남기 이따금 미고 있네, 흰 구름 걸쳐서, 잠깐 만에 변화하여 날리니 비 되니, 아마도 송나라 이성이 붓 대어 생겨난 것이리.	簇簇群巒左翠屏 晴嵐時帶白雲橫 斯須變化成飛雨 疑是營丘筆下生	營丘筆下生
17	西翠屏山	우뚝우뚝한 못 봉우리는 오른쪽의 취병산, 중턱에는 절 감추고 아래로는 동산에 정자 있네. 격조 높이 읊조리며 마주보고 앉기에는 저녁이 정말 알맞아, 한 번 뜬구름에 내맡기니 만고에 푸르르네.	巖巖羣峯右翠屏 中藏蘭若下園亭 高吟坐對眞宜晚 一任浮雲萬古青	浮雲萬古青
18	芙蓉峯	남쪽으로 구름 낀 봉우리 바라보니 반은 형태 감추고, 부용이라 일찍이 사랑스런 이름 드러내었네. 주인 또한 산수를 좋아하는 성벽 가지고 있지만, 뒷집 지으려는 심회 오래도록 이루지 못했네.	南望雲峯半隱形 芙蓉曾見足嘉名 主人亦有烟霞癖 茅棟深懷久未成	足見嘉名
19	蒙泉	산 아래 샘이 있는 패상이 몽이니, 그 패상 내 따른다네. 어찌 감히 잊으리오? 시의에 알맞음, 더욱이 과단성 있는 행동으로 덕을 기름 생각해야 하리.	山泉卦爲蒙 厥象吾所服 豈敢忘時中 尤當思果育	當思果育

퇴계의 제자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 1530-1604)가 쓴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에는, 일상생활에서 퇴계가 경서를 대하는 태도 즉 성

현을 향한 경건한 내면 의식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당은 3칸이며, 현(軒)은 암서(巖棲), 재(齋)는 완락(玩樂)이라 하고, 합해서 편액하기를 도산서당이라 하였다. (중략) 도산서당을 반드시 정남향으로 했던 것은 예를 행하는 것(行禮) 때문이다. (중략) 암서현은 남쪽에 면하였으며 3칸 제도를 취하였다. 삼면에 퇴주를 세우고 동면은 익침을 덮었는데 매우 수려하였다. 방 가운데 서북쪽 벽에 서가를 꾸미고 서쪽 면은 넓은 길이의 절반 정도를 두어 격리하였으며 그 사이를 비웠다. 내가 “서가를 잠자리 아래쪽에 두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더니, 선생이 가로되, “이곳은 내가 잠자며 거거하는 곳인데 성현의 경전과 훈계를 등 뒤에 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다.⁵⁶⁾

퇴계에게는 성현이 계신 곳은 바로 경서였고, 그것을 모아둔 서가도 마찬가지였다. 경서에 대한 태도는 실제의 공자 등의 성현을 대하듯 경건하였다. 퇴계는 경서 속에 ‘문자로 계시는 성현’을神明처럼 받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퇴계는 도산서당을 설계할 때 설계도[屋畧圖子]에서 반드시 정남향으로 했던 까닭을 “예를 행하는 것(行禮) 때문”⁵⁷⁾이라 하였다. ‘예를 행한다’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행하는 예를 말한다. 즉 북쪽이란 전통적으로 임금이 있는 방향, 제의(祭儀)에서는 신위(神位)를 모신 곳, 학교에서는 스승(성현)이 계신 곳이니, 퇴계가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라

56) 『惺齋先生文集』 권3, 〈陶山書堂營建記事〉, “十一月堂成. 堂凡三間. 軒曰巖棲. 齋曰玩樂. 合而扁之曰陶山書堂. 堂之西構精舍八間. 軒曰觀瀾. 齋曰時習. 寮曰止宿. 合而扁之曰隴雲精舍. 其所以堂必南向正方位. 便行禮也. 齋必西偏對園圃. 尙幽致也. 其餘房室厨藏門戶. 皆有意思. 所揭扁額. 皆先生手書. 而敬齋箴. 白鹿洞規. 名堂室記. 亦揭于壁上. 自是又號陶翁. 先生筆法端勁雅重. 非如他名家尙奇怪而已. 或因人求懇. 時書屏簇. 而未嘗見其對人揮灑. 或當寫未畢而有自外至者. 雖常居門下者. 亦必藏而待之. 其謹嚴類如此.

巖棲軒. 位勢面陽. 用三間之制. 而三面立退柱. 東面覆翼簷. 故頗極瀟灑. 室中西北壁造書架. 而西則隔限半寢而空其中. 蘭秀問書架之不設燕寢下方者亦有意乎. 先生曰此是余之寢處及起居之所. 經訓在後背之未安. 故如是爾.” [* 번역문에 맞춰 밑줄.]

57) 이 대목은 다음에도 나온다: 李滉, 『退溪文集』 권15, 〈與李大成〉, “滉卜得陶山下棲息之地. 最是晚幸 … 其所以堂必南向正方位. 便行禮也. 齋必西偏對園圃.”

하겠다.

더욱이 퇴계는 기우제(祈雨祭) 등 ‘천지신명에게 굽어 보살핌’을 비는 여러 제문(祭文) - 「북방의 흑룡(黑龍)에게 지내는 기우문(祈雨文)」 등 - 을 참고하면 북방 수덕(水德)의 신=‘수제(水帝)’, ‘흑룡(黑龍)’, ‘등육(滕六 눈(雪)을 맡은 신), ‘후토씨(后土氏 水土를 맡은 신), 그리고 물이 생기고 양이 시작하는 ‘갑방(坎方)’을 존중하였다.⁵⁸⁾ 이것 또한 퇴계가 도산서당이라는 공간을 설계할 때 ‘제향의 의례’라는 기초로서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내면적 ‘제향(祭享)’ 의식(儀式)으로서의 ‘희현(希賢)’ 실천을 중심으로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라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도산서당은 ‘희현(希賢)을 통한 ‘위성(爲聖)의 공간으로서 스스로 ‘성현 되기’라는 일상적 수행 과정 즉 강학 자체에 이미 ‘성현 존숭·흠모’의 내면적 제향이 실천되는 경건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산서당에서의 강학 활동은 곧 경서를 통해 성현의 말씀을 듣고 성현을 만나는 경건한 공간이었다. 예컨대 『심경부주』를 신명처럼 ‘믿고’[信 엄부(神明·嚴父)처럼 ‘공경’[敬하는 것은 ‘성현이 곧 신명’임을 인식하는 내면적 장치였다. 따라서 도산서당은 이미 퇴계학단에 있어 일종의 ‘유교 교회’라고 부를만하다.

둘째, ‘도산서당’ 자체에 ‘강학’과 ‘선현에 대한 내면적 제향’이 공존해 있

58) 李滉, 「風雨雷雨祈雨文」/「國內山川祈雨文」/「北方黑龍祈雨文」(『退溪文集』 권45) 등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목, 「韓國思想의 低流와 退溪學-朝鮮 儒敎의 <사상 ‘신체-얼굴’> 試論-」, 『한국학논집』 제5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128쪽 참조.

다는 것은 현재 도산서원에 속해 있는 도산서당이 퇴계 당시에 이미 성현에 대한 제향 공간이라는 내면적 합의가 형성된 ‘서원과 동등한 성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퇴계 사후 ‘도산서원’으로의 이행은 ‘도산서당’에 이미 내재해 있던 ‘내면적 제향’이 ‘사회적 차원의 제향’으로의 변환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셋째, 현재 도산서원의 건물 배치 형태는 교육공간인 강당이 앞에 있고 제향공간인 사당이 뒤에 있는 전형적인 전학후묘이다. 한편 도산서당의 당초 모습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도산서원이 도산서당을 품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도산서당은 그 본래의 ‘도학’ 기능이 정지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퇴계와 그 제자들의 ‘성현 존숭·흠모’라는 내면적 제향이 침묵하고 도산서원의 창건으로 인해 이제 퇴계의 ‘제향’으로 변환돼, 재출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현재 도산서원에 속해 있는 ‘도산서당’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본래적 의미를 어떻게 재평가해야 할지가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원전

周敦頤, 『通書』,
朱熹·呂東萊, 『近思錄』
陳德秀, 『心經』
程敏政, 『心經附註』
李滉, 『退溪文集』
琴蘭秀, 『惺齋先生文集』

2. 논저

권오봉, 『가서로 본 퇴계의 삶과 사상』(上·中·下), 최재목·진갑곤·이상린·김정곤
윝김, 영남퇴계학연구원, 2020.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서원실측보고서』, 경상북도 안동군, 1991.
마이클 샌델·폴 담브로시오,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만나다』, 김선옥·강명신·김시
천 역, 와이즈베리, 2018.
小倉紀藏, 『日本群島文明史』, 筑摩書房, 2025.
李祥鎬 편저, 『東學』, 신귀현 번역·감수, 에디터, 2011.
이황, 『퇴계잡영』, 이장우·장세후 윝김, 연암서가, 2009.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정순우, 『성인담론과 교육: 조선후기 교육사상사 시론』, 태학사, 2019.
조성환, 『K-사상사: 기후변화 시대 철학의 전환』, 사단법인 다른백년, 2023.
下川玲子, 『朱子學の普遍と東アジア - 日本・朝鮮・現代』, ペリカン社, 2011.
김성실, 「퇴계 이황의 귀향과 서원부흥운동의 의미」, 『퇴계학논집』 제36호, 영남
퇴계학연구원, 2025.6.
김자운, 「16세기 안동 지역 서당의 강화활동과 교육내용 - 도산서당의 교육내용과
공부론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제69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8.8.
金鎭源, 「퇴계선생광리가 소고」, 『퇴계학연구』 제12집, 단국대학교, 1998.
정순우, 「초기 퇴계학파의 서당 운영」, 『정신문화연구』통권85호,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2001.

조성환, 「단군신화에 나타난 한국철학의 정체성-‘하늘’ 관념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철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7.

최재목, 「韓國思想의 低流와 退溪學 - 朝鮮儒敎의 〈사상 신체 - 얼굴〉試論 -」, 『한국학논집』 제5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9.

최재목·조용미·김동성, 「〈도산서당〉과 〈도산십이곡〉·〈성학십도〉의 '志·學' 구조가 갖는 인지적 상관성 試論」, 『퇴계학논집』 제28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Abstract

From Dosan Seodang to Dosan Seowon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seeking virtuous men'
as an internal 'sacrificial' ritual –

Choi, Jae-Mok*

This paper discussed the topic of <From Dosan Seodang to Dosan Seowon>, focusing on the practice of 'Heehyeon' as an inner ritual of 'Jehyang'. Through this, the following points could be confirmed.

Firstly, Dosan Seodang can be understood as a space for 'becoming sage' (爲聖) through 'valuing the virtuous' (希賢), where the daily practice of 'becoming a sage' itself, that is, the act of lecturing, already embodies a devout internal offering of reverence and admiration for sages. In other words, the lecture activities at Dosan Seodang constituted a sacred space where one could hear the words of sages and encounter them through the classics. For example, treating the annotations of the Book of Filial Piety as sacred texts to be 'believed in' and revered as one would a strict father was an internal mechanism for recognising that 'the sage is equivalent to a spirit'. Therefore, Dosan Seodang can already be considered a kind of 'Confucian church' within the Toegye school of thought.

Secondly, the fact that 'Dosan Seodang' itself encompasses both 'learning' and 'inner rituals for sages' suggests that the Dosan Seodang currently part of Dosan Seowon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same character as a seowon.'

*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 choijm@ynu.ac.kr

where an internal agreement about its role as a ritual space for sages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during Toegye's time. Therefore, after Toegye's death, the transition to 'Dosan Seowon' should be understood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inner rituals' already inherent in Dosan Seodang into 'rituals on a social level'.

Thirdly, the current layout of Dosan Seowon follows the typical structure of 'Jeonhak-humyo', with the educational space, the lecture hall, at the front and the ancestral ritual space, the shrine, at the back. Meanwhile, the original appearance of Dosan Seodang is relatively well preserved. In this way, Dosan Seowon is structured to encompass Dosan Seodang, while the latter's original function of 'academic study' has ceased. In other words, the internal ancestral reverence and admiration of Toegye and his disciples are now silent, and with the founding of Dosan Seowon, they have transformed into the 'ancestral rites' of Toegye, marking a new beginning. From this perspective, how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osan Seodang' currently belonging to Dosan Seowon and how to reevaluate its original significance remains an important task.

Key word : Dosan Seodang, Dosan Seowon, Toegye Yi Hwang, Ritual Space, Valuing the Virtuous

논문 투고일: 2025. 11. 16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위기와 서원의 존재방식

최 주 희*

- I. 머리말
- II.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과 서원의 위상 회복 노력
- III. 소작인 태형사건과 도산서원의 위기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도산서원고문서와 일기,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운영과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19세기 들어 도산서원은 중앙정부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서원 원장 및 재유사의 직임을 진성이씨와 몇몇 가문에서 독점하는, 다소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에 같은 시기 지대 및 노비공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재정 부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산서원은 19세기 후반 식례, 완의, 절목과 같은 자치규약을 공동으로 정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한편, 수령이 원장직을 겸하는 구조 하에서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최말부터 국운이 기울고 유림들의 의병, 항일투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실천적 학문 수양을 선도하던 도산서원의 역할은 위축되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위판을 재봉안하는 문제를 비롯해 『도산급문제현록』을 간행하는 공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거 서원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했다. 문제는 서원 운영의 주체들이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진성이씨 서자들을 원임

* 이 논문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25년 12월 간행한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이 길을 열다』의 수록 원고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인용 시 본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전공 조교수 / nomadic78@duksung.ac.kr

직에서 배제하는 한편, 소작인과 수복에게까지 태형을 가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특히 소작인 태형사건은 도산서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는 불씨를 제공했으며, 이로써 도산서원은 안동화성회와 풍산소작인회에 의해 철폐 대상으로 거론되기까지 하였다.

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은 사회적 비판 여론을 수용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향적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정기적인 향사와 당회를 개최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 타협하며 서원의 위상을 유지해나가고자 했다. 이에 식민통치가 서서히 막을 내릴 무렵, 도산서원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보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학문공동체가 아닌 문화재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주제어 : 도산서원, 통문, 전장기 소작인, 태형사건, 보물

I. 머리말

2025년은 도산서원 4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도산서원에 관한 연구는 서원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退溪 李滉(1501~1570)의 서원건립 운동이나 도산서원을 매개로 한 영남학파의 학문적 계보 형성 및 정치활동을 규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존 연구를 통해 도산서원은 15세기에 구축된 관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선비, 지식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식 네트워크의 전범으로 이해되어왔다.¹⁾ 그러나 도산서당이 1575년 사액을 받고 도산서원으로 격상되었다고 해서 이후 학문적, 정치적 위상이 꾸준히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도산서원의 학문적 권위와 위

1) 이우성 외, 『陶山書院』, 한길사, 2001 ; 정만조 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정시열 외,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 김현영 외,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 차장섭 외, 『서원의 위상 :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 한형조 외, 『도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상은 영·정조 대 영남 남인을 우대하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재구축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²⁾

19세기 들어서는 노론 별열 가문의 세도와 천주교 전파, 잇따른 열강의 침탈 속에서 지식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가 서원 바깥의 영역에 존재했기에, 도산서원 역시 공론 창출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한 채 부침을 이어갔다. 내부적으로도 퇴계 이황의 본손들과 몇몇 가문들이 서원 운영을 주도하는 가운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였으며,³⁾ 이 과정에서 도산서원은 내부 갈등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였다. 문제는 당대 서원 운영의 주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타개해갔는가이다.

도산서원 450주년을 기념하여 서원 운영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던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산서원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서가 아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학문공동체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원 운영에 위기가 도래했던 시기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위기 요인이 어디에서부터 초래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산서원의 학문적 결속과 영향력이 언제부터 약화되었으며, 도산서원이 학문 재생산 공간이 아닌, ‘문화재’로서 관리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도산서원고문서와⁴⁾ 일기류, 신문자료를 중심으

2) 이재현, 「영조와 정조의 서원 賜祭와 도산서원」, 『韓國書院學報』 20, 2025 참조.

3)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 한상우, 「조선후기 退溪 후손들의 陶山書院 院長職 취임 양상과 친족집단의 역할」, 『大東文化研究』 87, 2014 ; 이병훈,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대동한문학』 67, 2021.

4) 현존하는 도산서원고문서들은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기에 도산서원이 어떻게 영남 유림의 본산으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1차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문제는 고문서의 특성상 작성 연대가 불분명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많아 해독이 쉽지 않은 점인데,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 사이트(<https://doc.ugyo.net/>)에서 도산서원고문서의 해제와 탈초본을 제공하고 있기에 분석에 큰 도움을 얻었다.

로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운영 양상과 지역 유림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야기된 대내외적 위기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도산서원이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이 사회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도산금문제현록』의 간행과 서원의 위상 회복 노력

19세기 도산서원은 衛正斥邪의 기초를 지역사회에 재확인하는 공론 창출의 장이자, 국권 침탈의 위기에 맞서 의병 활동을 결의하는 통문 작성의 중심지로 역할하였다. 19세기 전반까지 중앙에서는 도산서원을 옥산서원과 더불어 邪學을 물리치고 正學을 구현하는 영남의 대표 서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⁵⁾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퇴계 후손들을 중심으로 사도세자 추숭만인소(이휘병 등, 1855)와 척사만인소(이만손 등, 1881)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19세기 말에는 하회의 柳道性, 금계의 金興洛 등이 의병을 창 의하는 가운데, 유림을 모으는 통문 작성의 중심지로도 역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성 이씨들이 이끄는 선성의진이 결성되기도 하였다.⁶⁾ 고종대 초반 서원철폐령

5) 『각사등록』 황해도편 3, 황해감영장계등록 22, 기해(1839) 12월 13일, “大王大妃殿答曰 正學明然後 邪教可闢 書院致侑之舉 從速舉行 經行別薦之奏亦甚好 依此爲之可也事 傳教教是乎等乙用良 曹單子因大臣筵奏 關西之仁賢書院 海西之紹賢書院 松京之崧陽書院 畿輔之道峰書院 湖南之竹林書院 嶺南之玉山書院陶山書院 湖西之華陽書院黔潭書院致侑時 例當竝遣承旨 而外道則當此歉歲 不無貽弊之端 以道內守令墳差事定奪 而道峰書院則遣禮郎事 命下矣.”

6) 『驛土所關查員實報存』 01, 建陽元年(1896) 1월 24일(음), “本月十四日 體泉郡에 抵호야 聞호은 則 安東虎溪書堂과 三溪書堂과 禮安陶山書院에서 通文을 發호야 本府로 士林이 會集호다더니 十六日에 河回村居호는 柳都事道性이가 族四十餘名을 率호고 同面各姓人百餘名을 倡起호야 豐山市店으로 先會호야 定論호고 相率入府호는 則 金溪村居호는 金承旨興洛이가 同爲入府호고 府中吏校가 亦爲響應호

이 내려지면서 관권의 개입을 받게 되었지만, 도산서원의 학문적 명성과 인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이에 휘철된 영남지역 유림들이 기댈 수 있었던 곳 역시 도산서원이었다.⁷⁾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위상과 달리, 도산서원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다소 관성적이고 경직된 운영 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도산서원 원장을 비롯한 원임에 진성이씨와⁸⁾ 예안지역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도산서원의 운영은 타지역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⁹⁾ 운영 상의 폐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실제로 도산서원 내에서 서열의 원임직 서용을 막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전 참의 李晩燾와 유학 李晩膺의 탄핵 상소가 조정 에 올라오기까지 하였다.¹⁰⁾ 당시 중앙정부는 중앙 관직에까지 서열 허통을

야 聲勢甚壯호 故로...” 통문 작성의 계기는 중앙의 단발령 조치였으며, 1895년 11월 29일(음)에 예안통문이 돌고, 이어 여러 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통문이 돌았다(김희곤, 「안동 부포마을 사람들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49~50쪽).

7) 경주 용산서원에 소장된 1869년 2월 초9일자 도산서원 통문에는, 서원휘철에 대한 누차례의 關飭이 내려졌으므로, 연소자들의 통문과 상소를 그치도록 효유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문서집성 51-경주 이조경주최씨·용산서원편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01쪽).

8) 우인수, 앞의 논문(2013) 참조. 그에 따르면, 1801~1895년까지 총 217명의 원장이 재임했으며(중임을 제하면 총 203명임), 이중 진성이씨는 129명으로 63.5% (203명 대비)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수환은 『陶山書院前任案』을 바탕으로, 도산서원의 원임 역시 본손들로 임명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수환, 「陶山書院 院任職 疏通을 둘러싼 嫡·庶간의 鄉戰 - 1884年 《庶類事變時日記》를 中心으로」, 『민족문화논총』 12, 1991, 124쪽).

9) 김명자, 「심원록(尋院錄)」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방문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10) 안동 유생 김진우 등이 경상도의 향교와 서원 직임에 서열 허통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고종이 비지를 내려 이를 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안의 도산서원만은 이를 따르지 않고 전 참의 이만도와 유학 이만웅이 임금의 명을 막자고 주장하면서 서자들을 결박해 불기를 치고 ‘物許庶類’를 벽에 써붙이는 사건이 있었는데(『승정원일기』 2937책, 고종 22년 6월 9일(병자)), 이듬해 조사를

용인한 상황에서, 지방 서원의 원임 자리를 불허하고 이들을 결박해 불기를 치는 도산서원의 행태에 손을 들어주기 어려웠다. 이에 관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서류들이 도산서원 원임직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도산서원의 경직성은 다른 지역 유림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도산서원은 서원철폐령 이후 존속한 몇 안 되는 서원으로서 강화과 향사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향사를 성실히 봉행하지 않고, 심지어 타지역 유림들이 향사를 행하는 것을 막기까지 하여 원성을 샀다.¹²⁾ 일례로 道淵書堂은 鄭逵(1543~1620)와 許穆(1595~1682), 蔡濟恭(1720~1799)을 배향하는 봉화의 서원으로, 휘철된 지 31년이 지난 1899년 무렵 당회를 열어 104명이 연명한 통문을 도산서원에 보냈다. 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종황제가 성균관, 향교, 서원에 향사를 잘 받들도록 하는 교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서원이 이를 잘 따르지 않고, 다른 서원에서 향사하는 것을 막기까지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¹³⁾ 도산서원의 기강 해이는 안이한 향사 봉행을 넘어 1901년 위판을 분실하는

통해 이만도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혐의를 벗었다(『승정원일기』 고종 23년 12월 8일(병인)). 1884년 도산서원 원임직을 둘러싼 적서 간의 향전에 대해서는 이수환의 논문(1991)을 참고할 수 있다.

- 11) 그러나 실제 도산서원에서 서류들을 원임으로 선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이수환, 앞의 논문(1991), 128~129쪽 참조). 영양향교에 소장된 1887년 도산서원 통문을 살펴보면, 도산서원 舊儒들이 新儒(서류)들의 허통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 위해 안동향교에서 열리는 도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후로도 도산서원의 반발이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 12)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통문은 총 357건으로 파악되며, 위정척사의 공론 조성, 문집 간행, 효자·열녀 표창 외에도 휘철된 영남 서원들의 고충을 논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도산서원의 주요 통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연숙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최연숙, 「19세기 도산서원의 사회 인식과 소통 방식」, 『도산서원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 13) 「도산서원고문서 - 통문0065」, “今我聖上御極敎勅 屢加國學校院 俾之通等 其在儒林體貌 當遵行之不暇 而不惟不行於本院 甚之通諭遠鄉 欲沮其已行之院 是何設心之不雅 而好勝之太武乎.”

데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영남의 유림을 결집시키고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산서원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하였다. 서원철폐령 이후 각 지역의 서원들에서 배향 인물의 위판이 훼손되고 서원 터에 투장이 자행되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유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권위 있는 채널이 필요했던 것이다.¹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앞서 언급한 1901년 퇴계 위판 분실 사건이다.

1901년 도산서원의 위판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하자, 지역의 유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위판을 재봉안하는 회의에 참여하거나 재정 지원에 동참하였다.¹⁵⁾ 1901년 11월 1일 진시 묘직이 향알례를 치르러 신문을 들어서다 자물쇠가 부서지고 서쪽 협문이 반쯤 열려 있는 채로 위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¹⁶⁾ 당시 원장이었던 李彙璘과 재유사 琴鏞夏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망건을 벗어 석고대죄한 뒤 세 원임에 벌칙을 내리는 한편 도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정에 품의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 실제로 퇴계 위판 분실 사건은 예안현감과 경북관찰사, 장예원을 거쳐 고종에게까지 보고되었으며,¹⁷⁾

14) 「도산서원고문서-통문0038」은, 자인현의 관란서원이 훼손될 당시 이언적의 위패를 묻어두었는데, 정재학이란 자가 이곳에 묘를 쓰고자 하여 1900년 11월 23일 유학 이재백 등이 대책회의를 열면서 도산서원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문이다. 「도산서원고문서-통문0073」 역시 1901년 예천의 정산서당 堂長 朴義淵 등 71명이 도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陶山夫子의 위패가 모셔진 정산서당 터에 黃吏가 투장한 것을 관청에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문이다. 이듬해인 1902년 4월 20일에도 전주유씨 문중서원인 노림서원의 위판을 파고 몰래 묘를 쓴 이중명을 규탄하는 내용의 통문이 도산서원에 발송되었다(「도산서원고문서-통문0001」).

15) 퇴계 위판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陶山書院廟變時日記』와 이중석(1854~1912)의 『囚禁時日記』, 원수부군무국부장 장화식(1853~1938)의 『陶山書院復佳時在京日記』가 남아있다(정순우, 「해제」, 『일기로 보는 도산서원 1』, 한국국학진흥원, 2024, 41쪽).

16) 『도산서원묘변시일기』 1901년 11월 1일.

17) 『도산서원묘변시일기』 1901년 11월 8일 ; 11월 10일.

위판을 즉시 개조, 봉안하고 위안제를 거행하도록 하는 고종의 처분이 내려졌다.¹⁸⁾

끝내 위판을 흠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퇴계 선생 위판을 새로 제작하여 1901년 12월 17일 도산서원 상덕사에 재봉안하는 위안제가 치러졌다.¹⁹⁾ 이 때 위안제에 참여한 인원만 3~4천 명에 달했으며,²⁰⁾ 각지에서 인편을 대신 보내거나 부조를 전하기도 하였다.²¹⁾ 그리하여 당시 도산서원에 모인 부조금만 6~7천 냥에 달하였다.²²⁾ 현존하는 도산서원고문서 중에는 여러 건의 간찰이 남아있는데, 이 중 1901년에 도산서원에 발송된 간찰만 65건에 달한다. 위판이 재봉안된 이후에도 도산서원에는 공론에 동참하거나 주도하기를 촉구하는 통문과 간찰이 이어졌다.

1901년 충주의 苛江壇所 회중 명의로 李夢九 등 72인이 도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李震相의 문집 간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²³⁾ 1904년에는 최윤동을 비롯한 유림 41명이 통문을 보내, 훼손된 성주의 檜淵書堂을 중건하는 데 문중의 본손을 파견하고 재원을 보충해주는 일에 도산서원이 여론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⁴⁾ 같은 해 11월에는 虎溪書堂 명의로 도유사 김필락 등 132명이 지계 김정환의 처 권씨의 순절을 알리고 포상하는 일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도산서원에 통문을 보내왔다. 김정환의 처는 정화 김창의의

18) 『고종실록』 권41, 고종 28년 12월 31일.

19) 이후 도난당한 위판은 종인 李中璧(1855~1921)이 월란(도산면 원천리 소재 지명) 벼랑을 지나다가 구 위판이 강가 큰 바위 사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종손이 이를 받들어 내어 매안하였다(『舊位版埋安時日記』 1902년 2월 28일).

20) 『도산서원묘변시일기』 1901년 12월 22일.

21) 「도산서원고문서 - 간찰0046」 외 64건.

22) 『도산서원묘변시일기』 1901년 12월 22일. 위안제 이후로도 부조금이 뒤미처 전달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12월 22일 기사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

23) 「도산서원고문서 - 통문0041」. 후에 허유와 곽종석 등이, 이진상의 심즉리설이 주자와 퇴계에 배치되는 학설이 아니라고 변론함으로써 도산서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최연숙, 앞의 논문(2014), 151쪽).

24) 「도산서원고문서 - 통문0081」.

중손부이자 열부 박씨의 손녀로서, 지아비인 김정환이 천연두로 죽자 9개월 간 식음을 전폐하다 순절하였기에 도산서원과 호계서원 등이 주도하여 권씨의 행적을 알리고 유림의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는 의론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이듬해인 1905년 8월에는 미수 허목의 『기언』을 중간하면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고 간역소인 二宜亭에 방문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도산서원에 전달되었다.²⁵⁾

19세기~20세기 전반기 동안 斥洋을 외치고²⁶⁾ 의병을 결성하는 통문 작성이 없지 않았지만, 도산서원이 작성한 통문의 다수는 여전히 열녀 및 효행 표창²⁷⁾, 문묘 종사,²⁸⁾ 문집 간행에 따른 시비 논쟁,²⁹⁾ 진성이씨 기강 확립³⁰⁾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고종대 전국적인 서원철폐령 속에서 훼손을 면하였던 도산서원은 옥산서원과 함께 19세기 영남의 중추 서원으로서 지역 유생들의 의론을 수렴하고, 서원의 위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도산서원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된 계기는 1913년 가을부터 추진된 『도산급문제현록』 재간행 작업이었다.³¹⁾ 1913년 4월 24

25) 「도산서원고문서 - 통문0062」.

26) 「도산서원 통문」, 『고문서집성 51 - 경주 이조경주최씨·용산서원편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05~306쪽.

27) 「도산서원고문서 - 통문0080」.

28) 경주 옥산서원에 소장된 1851년 도산서원 통문을 살펴보면, 충재 권벌의 문묘배향 논의를 안동향교에서 진행하지는 뜻을 옥산서원에 전달하고 있다.

29) 경주 옥산서원에 소장된 1931년 도산서원 통문을 살펴보면, 농암 이현보 후손들이 『授受錄』을 간행하면서 퇴계와 농암 사이에 마치 학문을 전수하고 받은 것처럼 꾸민 데 대해 옥산서원에서 성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분천의 영천이씨들과 도산서원 간의 분쟁은 1931년에 작성된 『신미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 「도산서원고문서 - 통문0048」.

31) 도산서원고문서에는 『도산급문제자록』으로 쓰여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도산급문제현록』은 충재 권벌의 5세손인 權斗經(1654~1725)이 백여 명의 제자 행적을 담은 『溪門弟子錄』으로 처음 작성하였으며, 李守淵(1693~1748)이 여기에 60명을 보충해 『도산급문제현록』으로 편집하였다. 이후 李守恒(1695~1768)이 내용과 체제를 보완하고 李野淳(1755~1831)이 인원을 추가해 총 260여명

일 도산서원 상유사였던 이충철이 재임 이희운, 이용호 및 회원들과 연명하여 『도산급문제현록』 발간을 위해 攷訂을 요청하는 통문을 돌렸다.³²⁾ 각 문중에서 별개로 편집한 것을 모아 사실을 대조, 확인하고 증보해 재발간하는 형식이었다. 이에 『도산급문제현록』에 보완할 내용과 의견을 담은 간찰이 1913년에 수차례 발송되었으며, 1914~1915년에는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을 축하하고 서적을 보내달라거나 잘 받았다는 내용의 간찰이 도산서원에 전달되었다.³³⁾ 이후 『도산급문제현록』에 누락된 선조의 행적을 보충해줄 것을 요청하는 유림들의 간찰이 전달되기도 했다.³⁴⁾ 한편 도산서원고문서 중에는 1913년 『도산급문제현록』 간행 당시 도산서원에 부조한 집안 명단과 부조금이 「扶助記」로 남아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³⁵⁾

의 급문록을 작성하였으나 각 본이 상자에 담긴 채 간행되지 못하였다. 1913년 간재 이덕홍의 후손이 와서 간행에 뜻을 비치자 퇴계의 13대 사손 이충호가 족인들과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다(『及門錄營刊時日記』; 정순우, 앞의 글(2024), 43~44쪽).

- 32) 「도산서원고문서 - 통문0020」, “(皮封)徐涵齋宅入納 陶山書院簡通 蘇湖 謹拜 伏惟 肇夏 僉體勳止萬重 區區仰溯 就陶山及門諸子錄 前輩 各家編輯已久 未克鈐刊 至今 藏在耶 衍者 特當於慎重之意 而及此年代寢遠之日 如又難慎 而因循未遑 則恐不得爲 百歲文獻之徵 茲自本院 先發刊布之論 擬以初秋始役 而竊伏念 纂錄諸本 曾非一手 則註脚之或詳或畧 職由於住居相懸 久蹟之未及就覽而然也 後聚諸家 如有可採可入 之據實事行 趁期來會 對同攷訂 使此授受旨訣 同門契誼之重 得以開見 瞭然垂耀於無窮 千萬幸甚 伏惟僉察 癸丑四月二十四日 上有司李中喆 齋任李義運 李用鎬 會員李中植 李昌淵 李晚鳳 李中輒 李建永 李晚瑗 金魯憲 李中鐸 金輝瑄 李學鎬 金浩根 李忠鎬 朴章煥 李裕容 李炳轍等.”

『도산급문제현록』에 실린 퇴계 학통의 제자들과 간행 과정에 대해서는 김중석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김중석,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第子의 범위」, 『퇴계학과 유교문화』 26, 1998 ;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2000).

- 33) 「도산서원고문서 - 간찰0111」, 「도산서원고문서 - 간찰0015」.

- 34) 「도산서원고문서 - 간찰0096」.

- 35) 『도산서원고문서 - 부조기0001』.

〈표 1〉 『도산급문제현록』 간행 시 부조한 문중 명단

지역	집안	부조금	수령인	지역	집안	부조금	수령인
진보	신고산택	50냥	이충호	영해	영모당	30냥	수노
대구	박무진재택	50냥	이두호	거촌	금잠계택	20냥	이세호
인곡	김지산택	5냥	이두호	순흥 서부	김창봉택	15냥	이중모
밀양	손추천택	100냥	김군이	사천	권매계택	30냥	이두호
의성	김만취당택	100냥	이중모	순흥 사천	서진사택	10냥	이진호
문촌	금매현택	100냥	이중모	신녕	김화서택	100냥	이두호
밀양	남조암택	30냥	묘직	성주 사월	이산남택	20냥	이두호
안동	손삼성재택	30냥	이용호	안동 천전	김약봉파	40냥	이두호
영천	금물암택	40냥	이충호		김귀봉파	40냥	이두호
등현	배임연재택	30냥	이충호	*신당	김운암파	30냥	-
문촌	금종선정책	10냥	이인호	예천 금곡	김남약파	10냥	이두호
문촌	금고암택	30냥	이인호	안동 법흥	이어은택	50냥	이두호
문촌	금노강택	20냥	이인호	안동 송야	권송암택	20냥	이충호
문촌	금취암택	20냥	이인호	유로동	배참봉공택	50냥	-
문촌	금적암택	20냥	이인호	안동 도촌	권송와택	50냥	이두호
문촌	송호봉택	50냥	이인호		청벽공소	20냥	이두호
의성	박운고택	50냥	이두호, 충호	영천	장과재택	35냥	이두호
영천	조지산택	50냥	이인호	금계	김학봉택	100냥	이만경
영천	노소암택	30냥	이인호	화원	신일죽재택	20냥	이두호
예천	권초간택	10냥	이충호	일직	학천택	15냥	수노
예천	박병백당택	8냥	이충호	영천	김백암택	50냥	이광호
순흥	화천박씨 문중	8냥	이인호	영양	권회곡택	20냥	이광호
장흥	문풍암택	100냥	이충호	신당	김운암택	30냥	이병준
함평	기고봉택	50냥	이인호	영천	송매포택	30냥	이병준
소천	정씨문중	20냥	이중모	성주	송정자공택	50냥	이병준
순흥	손명암택	20냥	이세호	이천	이충순공택	10냥	이병준
보성	박죽천택	80냥	이충호	이천	이진사공택		
두곡	홍만전택	10냥	이충호	주촌	송간공소	50냥	이만경
금계	변동호택	100냥	이인호, 충호	주촌	낙금현소	50냥	이만경

지역	집안	부조금	수령인	지역	집안	부조금	수령인
예천	이충순위택	5냥	묘직	도율	정지현택	100냥	이증모
용궁	전사우당택	20냥	묘직	삼강	정씨문중	30냥	이세호
문촌	금배장택	10냥	이증모	오천	이간재택	30냥	이운호
가구	금유일재택	50냥	이충호	오천	이곤재택	10냥	이운호
망천	이동악택	100냥	이두호, 충호	오천	이로운택	10냥	이운호
고감	정문봉택	15냥	이두호	대구	이씨문중 동암후	20냥	이두호
사곡	이인의택	50냥	이두호	순흥	압구동 송○택	5냥	이증모
거촌	변씨문중	10냥	이서호	오천	북다동 금일휴당택	10냥	이만경
온혜	오춘당택	30냥	이두호	운곡	이매암택	15냥	이두호
대곡	정죽사택	10냥	안경	호동	김조성당택	25냥	이만경
형호	유파산택	10냥	수노	온혜	사봉공택	10냥	이충호
예천	장잠재택	5냥	이두호	원전	이대현택	20냥	이충호
영양	구통정공택	10냥		안동	강금춘당택	50냥	이충호
순흥	구송안택	5냥	이증모	구로동	송계택	10냥	이만경
고령	오죽유택	30냥	이두호	삼현	류씨문중	5냥	이만경
일동	금면진재택	5냥	이증모	이상 합계		3,700냥 (실제 합 3,553.5냥)	
분천	이리암택	40냥	이충호	봉화	농천 구백담택	10냥	이만경
	죽동소	20냥	이두호	대곡	손씨문중	10냥	이만경
	몽재소	30냥	수노		김하암택	30냥	이충호
	장사랑공소	30냥	7.5냥 未捧 수노		박목재택	30냥	이충호
					이원암택	5냥	이충호
	동암소	30냥	수노	상온	임씨문중	5냥	이충호
부포	성성재택	50냥	수노		이만량택	5냥	이충호
소산	김창균택	25냥	이만경	수곡	유진사택	10냥	이광호
납곡	권성곡택	50냥	이만경	영천	권칭 송태영택	25냥	이병준
○계	권인재택	50냥	이만경	풍기	정주사 순학택	10냥	이병준
운곡	이양곡당택	15냥	이만경	호동	이호계택	20냥	이두호
부포	금정성재택	60냥	이두호	대곡	심씨문중	5냥	이두호
서벽	만취헌공소	10냥	이두호	가구	안동고택	15냥	이광호
여포	김눌암택	40냥	이두호	서곡	권청암택	10냥	이충호
분천	이행암택	100냥	이증모	서곡	석정택	10냥	이충호

지역	집안	부조금	수령인	지역	집안	부조금	수령인
분천	이사복공택	20냥	수노	영천 우금	김창진택	5냥	이두호
분천	이청암택	30냥	수노	고천	박소고택	20냥	이병준
분천	이지산택	10냥	이두호	고천	박동원택	10냥	박준양
	낙산정소	30냥	수노	의성	박씨문중	50냥	이광호
	지간공소	20냥	수노	안동	권주사 영보택	5냥	이원각
이상 합계						290냥	

*신당의 김운암택은 중복 기재하였다는 세주를 달아놓음.

〈표 1〉에서 보듯이 총 126개 가문(중복 제외)의 지원을 받아 퇴계 이황에게 가르침을 받은 문인들의 명단이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되었다. 부조한 집안을 살펴보면 안동과 예안 각촌의 문중을 비롯해 예천, 의성, 용궁, 영천, 풍기 등 인근 지역과 멀리 순흥, 장흥, 함평, 보성, 여포(여수)에 세거하는 문중까지도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조기에는 중간 정산한 금액이 3,700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금액을 산출해보면 이보다 적은 3,591냥으로 집계되며, 중복 및 미수봉 금액(37.5냥)을 제하면 3,553.5냥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추가 부조금액인 290냥을 더하면 총 금액은 3,843.5냥에 해당한다. 다만, 부조금이 각 집안의 자발적인 협조로 모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장사랑공의 처소에서 부조한 금액 하단에 ‘未捧’이라는 글자가 확인되는데, 『도산급문제현록』 영건을 위해 각 문중에 부조금을 할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⁶⁾ 그럼에도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을 통해 자신의 선조가 퇴계 이황의 직계 제자로서 재확인받는 일은 문중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일이었기에 영호남을 아우르는 문중의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36) 1836년 10월부터 1843년 윤7월까지 『퇴계문집』을 중간할 때에도 도산서원은 경상좌도의 문중, 서원, 향교에 刊役사업을 동참시키고 책임을 분담하였는데, 이 때 모금한 액수 역시 3,940냥 7전 8푼으로 집계되었다(정순우, 앞의 글(2024), 39쪽).

문제는 퇴계와 그 문도의 저술을 교정, 간행하고 정기적인 향사를 치르는 일 외에, 일제의 식민통치구조 하에서 도산서원이 새로운 학문사상적 지표를 그리는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가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1575년 이래 리학, 예학 논쟁의 중심지이자, 영남 남인의 정신적 본향으로 인식되었던 도산서원이 일제강점기 국권회복과 항일의 가치를 내건 전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지 못한 채, 퇴계의 유산을 근근히 이어가는 정도의 형해화된 공간으로 위상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3.1운동 이후 안동 및 예안의 지역사회에도 기독교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전파됨으로써 도산서원은 종래에 누려온 권위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1920년대 신문 기사와 현존하는 도산서원 일기자료와 치부 기록을 바탕으로 일제시대 도산서원이 직면했던 당혹스러운 현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소작인 태형사건과 도산서원의 위기

19세기 말부터 안동·예안지역 사족들은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 봉기에 앞장섰으며, 20세기 초에는 協同學校, 實文義塾과 같은 신식학교 설립을 도모하고, 한일병합 이후로는 3.1만세 시위를 이끌었다. 특히 예안의 진성이씨들은 의연금 모금과 도산서원 전답 기부를 통해 1909년 문중학교의 성격을 띠는 보문의숙을 창설하였다.³⁷⁾ 그러나 1920년대 들어 안동·예안지역의 사족들이

37) 實文義塾에 대해서는 심용선, 신준영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심용선, 「實文義塾(1909~1918)의 교육구국운동」,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준영, 「安東 實文義塾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신준영은 보문의숙이 진성이씨 후손들의 신학문 교육 외에도 서원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창설되었음을 지적했다. 1908년 8월 28일 학부 훈령 제3호 「서당관리에 관한 건」(1908.8.28)에 의거해 서원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하자 문중에서

주도한 공론장은 형해화되고, 기독교 및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청년 지식인들과 소작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부에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었다. 도산서원은 이러한 내부 균열의 한복판에 있었다. 관련하여 1922년 7월 16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경북 안동군 도산면에 조선시대 鄕戰과 다른 新舊戰이 전개되는 상황이 자세히 실려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자.

경북 안동군 도산면 일경은 옛날 조선에서 굴지하는 리퇴계 선생의 후손이 거주하는 디방인데 그디방은 리씨의 문호의 핑결함과 자손이 번창함과 또한 학자가 만흔 곳이며 그에 따라 도덕이 릉송함은 실로 다른 곳에서 보기 들은 터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은 고연 그전 도덕 과학자와는 정반대로 되는 것이 간혹 잇는 바 이에 따라 또한 사람의 생활도 개혁되며 마음도 새로워지는 동시에 전기 리씨 집안에서도 그전과가치 안저서 가문이나 가지고 권도로 사는 수 업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 李中武, 李源永, 李孟鎬, 李雲鎬의 몇 명이 예수교를 미든 후에 지금부터 사년 전에 예수교 레배당을 안동군 도산면 섬촌동에 설립한 후 열심으로 전도하여 현금 남녀교인이 이십여 명이 되며 또한 로동야학까지 설립하고 교수하여 그전 구습을 개량코저 애쓰는 중

서원전을 기부하여 보문의숙의 기초 재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陶山書院田畝寄付實文義塾成冊』을 살펴보면, 도산서원의 기부전답 규모는 논 110두락, 밭 161두락이었는데, 1910년 1월 30일에 기부되었던 이 전답은 1911년 3월 18일 도산서원에 그대로 환원되었다(신준영, 앞의 논문(2015), 20~21쪽 참조).

당시 안동 일대(동후면, 예안면, 도산면) 도산서원의 토지 규모는 1914년 『토지조사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살펴보면 동시기 호계서원, 병산서원에 비해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강윤정,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韓國書院學報』 17, 2023, 31쪽 참조). 한편 도산서원은 영양 등 타지역에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총면적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원	전	답	임야	대지	사사지	계
호계서원	11,97	4,393	0	3,433	0	9,023
도산서원	53,051	12,301	1,652	5,941	1,824	74,769
병산서원	37,164	19,505	5,827	5,104	922	68,522

* 단위: 坪

에 전기 청년 몇 명은 그 집안의 핍박과 곤난을 만히 밧지만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리맹호는 백여의 토대를 내고 그의 교인 중에서 두어 명이 돈을 내여 레배당 삼간을 건설하였던 바 섬촌동에 잇는 리씨들은 사오차나 문회를 열고 예수교회에 대하여 엇더케 조처할 것을 의론한 곶헤 지나간 룽월 십오일에는 오륙인의 장명이 레배당으로 몰녀와서 레배당을 파괴 하얏는데 그대에 방금 모히엿든 慶安老會에서는 이 급보를 접하고 선교사 삼인이 즉시 陶山面警官駐在所에 가서 교섭한 결과 경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일일히 조사하였는데 그 파괴한 이유를 들은 즉 예수교 레배당이 도산서원 정문에서 멀지 아니하며 또는 試士壇(시사단이라함은 정종대왕 때에 텃주교가 조선전도에 편만한 중 경상도에 텃주교가 들어오지 아니함은 곳 퇴계선생의 덕화를 인함이라 그럼으로 대왕께서 그곳에서 과거를 보이르신 룽음이 계신고로 인하여 시사단을 찻코 사교를 배척하였다는 비각을 지은 곳)이 갓갑다함이라 하야 이와갓치 폭행을 행하여 레배당을 파괴한 것이라더라(대구).

기사에 보이는 ‘新舊戰’이라는 사건은 결국, 퇴계 성리학을 오랜 기간 계승해 온 도산서원의 진성이씨들이(이중무·이원영·이맹호·이운회)이 건립한 예배당을 부순 사건을 뜻한다. 정조대 도산서원 인근에 시사단을 건립한 이유가 서학의 전파를 막은 퇴계 선생의 덕화를 기리기 위함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시사단 인근에 예배당이 들어선 일은 지역 유림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 예배당의 건립으로 예안지역에 새로운 성격의 향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도산서원은 민간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기독교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할 사상 논쟁과 학문 활동을 견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도산서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19세기 말부터 공문을 주도해온 지역 유림들이 의병운동과 항일투쟁을 위해 지역을 떠나 국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비밀리에 활동하게 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유학의 본산인 도산서원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기대는 갈수록 낮아졌다.

20세기로 접어든 후에도 도산서원은 주로 퇴계 이황의 후손인 진성이씨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었다.³⁸⁾ 1925년 4

38) 최주희,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재정운영 실태」, 『民族文化研究』 106, 2025

월에는 서원 원장직을 둘러싸고 전임 원장인 이중협과 신임 원장인 이중균 사이에 싸움이 일어, 애꿎은 서원 고지기가 불기를 맞는 일이 벌어졌으며,³⁹⁾ 같은 해 10월에는 소작인이 도조를 내지 않는다 하여 태형을 내린 사건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자.

경북 안동군 도산면 도산서원에서는 재임으로 잇는 李東欽이가 그 서원 소작인 趙壽喆 외 몇사람을 소작료를 더디 받친다는 리유로 그 소작인들을 서원 안에 잡아다놔고 형틀에 매여달고 매를 따렸다함은 괴로운 바이어니와 이 소식을 드른 豐山小作人會에서는 크게 분개하여 즉시 동회 간부 李準泰씨를 파송하여 사실 진상을 조사케 한 바 사실이 명확함으로 지난 룽일 오후 세시에 긴급히 執行委員會를 열고 립시의당 安相吉씨의 사회 아래에 회의가 진행되며 리준태씨의 조사보고가 있슨 후 그 대책을 신중히 토의한 바 최후 수단을 앓기지 안은 기분이 넘치엿스나 잠간 덤허 두기로 하고 우선 몇가지 조건을 포함한 경고문을 도산서원에 발송하기로 결의한 바 그 결의문과 기타 결의와 임원 보결은 아래와 갓다터라.⁴⁰⁾

기사에서 보듯이 서원의 재임(재유사)인 이동흙이, 소작인 조수철 등 몇몇이 지대를 제때 바치지 않자 서원에 잡아다가 태형을 가한 사건이 벌어지자 풍산소작인회에서 간부 이준태를 파견해 진상조사 후 도산서원에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경고장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되, 이동흙, 이원각 2인이 도산서원 유사 자격으로本月 20일 이내 행하도록 하며 불응할 시에는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선일보』 10월 20일자 기사에는 사건 관련 내용이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⁴¹⁾ 기사에 따르면, 도산서원 원임이었던 이동흙, 이원각이 도사령 崔尙伊를 시켜 賭租를 바치지 않는 趙壽喆, 黃遠夏, 李殷石 등을 잡아다 놓고 ‘양

참조.

39) 『조선일보』 1925년 4월 8일 기사.

40) 『동아일보』 1925년 10월 11일 기사.

41) 『조선일보』 1925년 10월 20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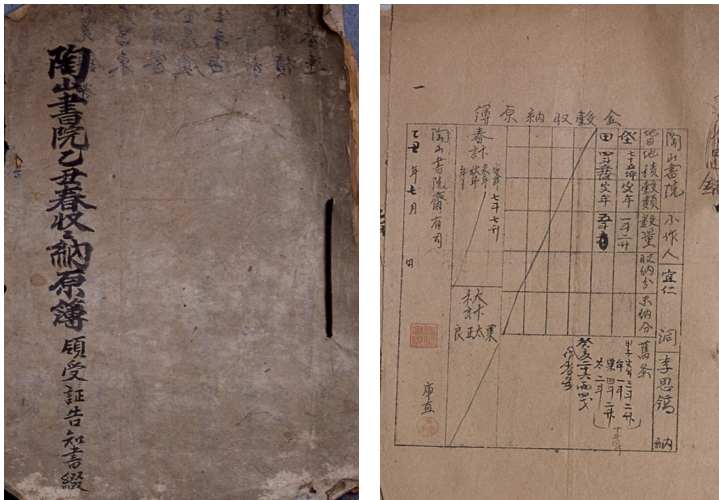
반이 부르는데 즉시 오지 않고 도조는 왜 이때까지 바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며 버르장머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형틀에 매고 밤새 수시로 난타하다가 이튿날 아침 도조를 속히 바친다는 항복을 받은 후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매를 가장 많이 맞은 조수철의 경우, 실제로는 더 바칠 도조가 없는데도 매를 하도 맞아 죽을 지경이 되자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없는 도조를 바친다는 약조를 하고 풀려났다. 후에 서원 원임들이 각성하여 조수철에게 더 낼 도조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통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상황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안동 화성회와 풍산소작회에서는 저간의 상황을 알고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직접 서원에 대표를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도산서원에 경고문을 발송하였다.⁴²⁾

그러면 1925년 당시 서원의 재유사들이 소작인에게 이처럼 지대 수납을 독촉하며 태형을 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소작인이 지대를 제때 바치지 않아 재정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데 대해 책임을 물었을 수 있고, 두번째로는 도산서원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원임의 지대 요구에 안이하게 반응한 작인들을 체벌해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했을 수 있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25년 당시 도산서원의 재정 상태가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보자.

당시 도산서원의 재정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로는 秋收記와 傳掌記를 들 수 있다. 전장기는 서원의 최고 운영 주체인 상유사와 재유사가 바뀔 때마다 서원에 보관된 서책, 재물 목록은 물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인수인계용으로 작성한 치부기록이다. 한편 추수기는 도산서원이 소유한 전답에서 매년 작인들이 바치는 지대를 정리한 세입 장부의 일종이다. 도산서원의 추수기는 봄에 보리 낱이용 ‘춘수기’와 가을에 벼와 잡곡 낱이용 ‘추

42) 일제 강점기 풍산소작인회의 소작쟁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김도형, 「풍산지역의 농업경영과 소작쟁의」, 『한국근현대사연구』 18, 2001 ; 윤순갑·최병덕, 「1920년대 안동지역 사회주의 세력의 민족해방운동」, 『한국동북아논총』 10-3, 2005).

수기'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합쳐 성책해 놓은 것이 많다. 그런데 1925년에 작성된 도산서원 추수기는 다른 해의 추수기와 달리 <그림 1>에서 보듯이 『陶山書院乙丑春收納原簿 領收證告知書綴』(이하 '원부'로 명명)의 형태로 남아있다. 제목에 '춘수'라고 써놓았지만, 실제로는 이 역시 추수곡까지 포함하고 있다. 춘수곡의 경우 7월 그믐에 수납을 마감하였으며, 추수곡은 12월 15일까지 수납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다른 추수기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을축년 지대 수취의 대강은 원부를 중심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 陶山書院乙丑春收納原簿 領收證告知書綴

<그림 1>의 오른쪽 본문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원지에 첩필로 글씨를 굵어 갠지에 복사해 새긴 용지를 쓰고 있다. 오른쪽부터 칸을 만들어 세로로 채워 넣었는데, '陶山書院-小作人-居住地(동네)-소작인 이름'을 쓰도록 하고, 다음 줄에는 '地目-地積-穀類-數量-收納分-未納分'의 항목을 세로로 써 내린 후 다시 왼쪽 줄에 해당 내역을 기입하도록 칸을 나누어 놓았다. 맨 왼쪽에는 춘

수곡과 추수곡의 합계를 적도록 칸을 위아래로 크게 구분해 놓은 후, 도산서원 재유사가 기입 내역과 실제 납부한 수량을 최종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해 놓았다.

또한 영수증 하단 빈칸에는 ‘舊條라 하여 미납된 지대를 부기해 놓았다. 예컨대, 첫장의 영수증에는 도산서원 소작인으로 의인동에 사는 李思鎬라는 이가 75평의 대지와 4두 5승락의 밭을 빌려 경작한 후 춘수곡으로 껌보리[皮牟] 1두 2승(대지)과 5두(밭)를 각각 납부하였으며, 갑자년에 바치지 못한 껌보리 3두 2승, 보리[牟] 1두, 조[粟] 4두 2승, 콩[丈] 2두와 계해년에 바치지 못한 26냥 4전을 ‘舊條로 기재해 놓았다. 이렇게 편철한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소작인만 52인(중복제외 50인)이며, 경작지는 예안의 의인동과 섬촌동, 천하동, 양평동, 영양의 도곡동, 장후동, 파대동, 예안의 이곡동, 의섬동 등이다.⁴³⁾ 주목할 점은 앞서 1925년 소작인 태형사건에 연루되었던 최상이와 황원돌, 조수철, 이은석등이 모두 원부에서 소작인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최상이는 의인동, 황원돌과 趙水哲,⁴⁴⁾ 이은석은 섬촌동의 소작인들이었다. 당해 이들 네 명의 춘수곡의 지대량과 수납 상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3) 1925년 『도산서원을축춘수수납원부 영수증고지서철』에 기재된 소작인은 의인동의 이사호·이만봉·이선이·조도석·이술호·이만부·김덕석·**최상이**·김오운(9명), 섬촌동의 우용이·김방구·이우호·김일학·이화준·**황원돌**·신갑준·이몽호·박덕윤·최원석·전순실·임완돌·이영호·최양선·권주성·박명륜·이중선·김원이·권세원·임복암·박윤이·**조수철**·이목성·이수호·임차암·이중호·이중문·이의호·정용이·**이은석**·김후석(31명), 천하동의 정득이(1명), 양평동의 김봉이(1명), 영양 도곡동의 권양상(1명), 영양 장후동 권도달(1명), 우근호(1명), 영양 파대동 김기철·이준호(2명), 영양 읍동 김호중(1명), 영양 파대동 김봉현(1명), 섬촌동 전순실(1명), 이곡동 정득이(1명), 의섬동 임완돌(1명)이다.

44) 소작인 태형사건에 언급된 趙壽喆과 한자명이 다르나, 같은 해 원부 상에 조수철이라는 작인이 한 명만 확인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도산서원 추수기 상에 趙壽喆은 임술춘수기에만 확인되는데, 임술춘수기에서도 趙壽喆과 趙水喆이 혼용되고 있다. 이밖에 조수철은 趙壽哲(신유춘수기), 趙水哲(경신춘수기, 무오춘수기)로도 쓰였다.

〈표 2〉 1925년 태형사건 관련 소작인 4인의 지대 납부 현황

소재지	작인명	지적	지대	수납	미납	구조
의인동	최상이	畓 2두락	皮牟 0.5두	0.5두	없음	갑자년: 皮牟 0.5두 임술년: 荒正 10두, 荒租 8두, 皮牟 1두
섬촌동	황원돌	垵 225평	皮牟 3.7두	3.7두	없음	무오년: 粟 1.3두 경신년: 粟 1.3두 신유년: 粟 0.3두, 皮牟 4.4두 계해년: 粟 1.3두, 粟 2.1두 (화준 조), 良稻 1.5두 갑자년: 良稻 2두, 粟 3.4두 중 4.7두만 남음
		畓 1두락	2두	2두	없음	
섬촌동	조수철	畓 4두락 *1두락 진전	皮牟 2.5두 秋牟 0.5두	2.5두 0.5두	없음	경신년: 良稻 18두, 牟 0.5두, 皮牟 1두, 조 1두 갑자년: 粟 1두
		田 7두락	牟 5두 皮牟 4.5두	5두 4.5두	없음	
섬촌동	이은석	畓 2두락	皮牟 2두	2두	없음	皮牟 1두 7월 15일 바침

네 명의 소작인은 을축년 6월에 모두 지대를 납입하여 미납분이 없는 상태였다. 다만 이들 모두 을축년 이전의 오래된 미납분(舊條)이 남아있었는데, 이은석은 당해 7월15일에 舊條까지 납입을 완료한 상태였다. 반면 최상이는 갑자년과 임술년의 겉보리와 재해 입은 곡식 19두 5승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황원돌의 경우 무오년과 경신년, 신유년, 계해년, 갑자년에 각각 바치지 못한 17두 6승의 곡식이 구조로 남아 있었는데, 당해 7월 5일, 5두를 갚고 4두 7승만 남은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조수철은 경신년과 갑자년의 미납분 곡식이 21두 5승에 달해 다른 작인들에 비해 구조가 많은 상태였다. 이들이 구조를 가을 추수기에 모두 갚았는지는 원부 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앞의 기사에서 서원 원임들이 조수철에게 더 바칠 도조가 없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후에 구조까지 바친 것으로 짐작된다. 특이한 점은 1925년 가을 추수곡은 영양의 도곡동, 장후동, 파대동, 양읍동과 예안의 섬촌동, 이곡동, 의섬동의 소작인들에게서만 수취하였고, 특히 영양의 논에서 수확한 벼는 대부분 동전가로 환산해 수취하고 있는 점이다.⁴⁵⁾ 그러면 다른 해 도산서원의

지대수입은 어떠했는지 <표 3>을 통해 비교해보자.

현존하는 도산서원 추수기들은 대부분 간지만 표기되어 있어 작성연대를 알기 어렵고, 작성 방식도 통일돼 있지 않아 장기추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에 탑재된 추수기 탈초 자료들을 바탕으로 1925년 원부 상의 소작인들과 이름이 겹치는 추수기들을 추적해본 결과, 을축년 전후로 작성된 춘수기 및 추수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표 3> 20세기 전반 도산서원 지대량 추이

연도	춘수곡(각종 보리)	추수곡(벼 및 잡곡)	비 고
1918(무오)	269두	1,020.5두	무오춘수기(추수기0016)
1920(경신)	244.3두	1,228.9두	경신춘수기(추수기0014)
1921(신유)	244.4두	1,258.0두	신유춘수기(추수기0013)
1922(임술)	281.5두	1,420.8두	임술춘수기(추수기0012)
1925(을축)	168.6두	304.5두	도산서원을축춘수수납원부(원부0001)
1928(무진)	243.5두	626.9두	도산서원본소문부(문부0004)
1929(기사)	288.5두	734.4두	기사춘수(추수기0008)
1939(을묘)	297.7두	719.3두	을묘춘추수기(추수기0007)
1946(병술)	316.6두	1,129.9두	병술춘추수기(추수기0015)

* 1946년(병술) 추수기 말미에는 11월 21일 엔화로 거둔 지대수입이 별도로 확인됨.

1920년대 추수기로는 무오년(1918), 경신년(1920), 신유년(1921), 임술년(1922), 무진년(1928), 기사년(1929) 추수기를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을묘년(1939), 병술년(1946) 추수기 역시 20년대 추수기들과 이름이 겹치는 소작인들이 있어 20세기 전반 추수기로 연대를 파악하였다. 각 추수기는 춘수와 추수 내역을 모두 포괄하면서 하단에 지대액을 ‘斗-升’ 단위로 일괄 합산해 놓아 연도별 지대량 추이를 비교하기 수월하다. 각 추수기의 지대액은 곁보리(皮秬), 가을보리(秋秬), 쌀보리(米秬), 벼[正], 조[粟], 콩[豆] 등으로 납부되었다.

우선 을축년 각 전답과 터에서 거두어야 할 곡량(지대)의 총액은 473.1두

45) 각 영수증에 동전가로 납부한 경우는 일본의 화폐단위인 円-錢으로 기재해 놓았다.

로 집계되는데, 이중 춘수곡은 168두 6승, 추수곡은 304두 5승 가량으로 파악된다(자세한 내역은 〈부표 1〉 참조).⁴⁶⁾ 미납분은 1두 7승 정도에 불과하지만 다른 해와 비교해 볼 때 지대 총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무오춘수기의 경우 보리 각곡으로 구성된 춘수곡의 합은 269두로, 정곡 및 잡곡으로 구성된 추수곡의 합은 1,020두 5승으로 집계해 놓았다. 임술춘수기의 경우 겉보리와 참보리, 가을보리로 구성된 춘수곡의 합은 281두 5승이며, 벼와 여타 잡곡콩, 조으로 구성된 추수곡의 합은 1,420두 8승으로 파악된다.⁴⁷⁾

무진년 춘수액과 추수액이 기록된 『도산서원본소문부0004』 역시 소작인들의 이름이 을축년 원부와 다수 겹치는 점을 고려해 1928년 춘수 및 추수 기록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1928년 도산서원의 춘수곡과 추수곡의 총액을 살펴 보면, 춘수곡은 보리 등 잡곡 총 243두 5승을 지대로 거두었으며, 추수곡은 정곡 및 잡곡 총 626두 9승을 지대로 거두었다. 춘수곡은 1918년과 1922년과 1928년, 1929년이 모두 비슷한 수준이지만, 1925년만 크게 떨어지는 점이 주목된다. 추수곡에 있어서는 1925년 이후 지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러면 1920년대 지대량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1925년과 이후 시기에 지대량이 적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1925년 봄 가뭄 및 가을철 대홍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25년 봄, 안동 지역은 지난 해 한재의 여파로 식량이 부족해 빈민이 4천여 호나 발생했으며,⁴⁸⁾ 봄 가뭄도 극심해 보리 작황이 좋지 못하였다.⁴⁹⁾ 한편 여름과 가을 사이 ‘을축년 대홍수’로 회자되는 폭우가 전국에 쏟아졌는데, 서울은 이로 인해 한강의 유로가 바뀌었으며, 경상도에는 낙동강 일대의 침수피해가

46) 도산서원 춘수기와 추수기의 특징은 곡종과 상관없이 전체 곡식을 ‘斗-升’ 단위로 합산, 작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총액을 이같이 합산하였다. 원부의 마지막 부분에 8월 초 1일 기준 141.9두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중 50.1두를 급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47) 「도산서원고문서 - 임술춘수기(추수기0012)」.

48) 『조선일보』 1925년 6월 10일 기사.

49) 『조선일보』 1925년 7월 11일 기사.

잇따랐다. 1925년 7월 10~11일 간 경상도 일대 폭우가 내려 전답이 피해를 입고 도로가 붕괴되었으며, 낙동강이 28尺이나 불어 법상동과 동부동 일대 침수된 가옥이 100여 호에 달했다.⁵⁰⁾ 그러나 홍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을 추수기에도 이어졌다.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도 폭풍우가 엄습하여 칠일 아침에는 상류지방에서 갑작이 물이 밀려 락동강은 이십팔척오촌으로 증수되야 연안 일대의 전답은 전부 침수되고 락동강 데방이 터질 변하여 일시는 크게 소동을 하였었는데 금년의 안동농작은 레년보다 풍작이 었으나 이번 재해로 수확이 약 반분 가량 감소되리라 하며, 칠일 아침에는 강을 건너가던 하물자동차 두채도 그만물에 떠 내려갔다더라.⁵¹⁾

이날 기사에 따르면, 9월 7일 아침 낙동강 상류지방에 물이 불어 28척 5촌이나 증수됐으며, 연안 일대 전답이 침수되고 제방이 터질 뻔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수확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 예측되었다. 예안 지역의 경우도 폭풍우로 인해 침수가옥이 17호나 발생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⁵²⁾ 위의 기사들로 미루어볼 때, 『을축년춘수수납원부』 상의 춘수곡과 추수곡은 당해 재해로 인한 흉작 상황을 반영한 액수로 볼 수 있으며, 1925년 10월 도산서원 원임이 작인들에게 태형을 가한 사건 역시 1925년 지대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밀린 지대를 서둘러 거두기 위해 원임들이 작인들을 압박한 사건으로 이해된다.

1925년 이후 도산서원의 지대량은 몇 해간의 사례로 볼 때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표 3>에 제시된 해만 두고 볼 때 1920년대 전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이유인즉, 해당 시기에 경상북도에 유달리 한재가 이어져 벼수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1927년에는 경상북도 각군 중 영일,

50) 『조선일보』 1925년 7월 16일 기사.

51) 『동아일보』 1925년 9월 11일 기사.

52) 『동아일보』 1925년 9월 13일 기사.

달성, 안동, 청송, 영덕, 경상, 경주, 예천 등에서 초여름 한발로 이앙을 하지 못한 전답이 늘어나 특별히 면세지와 면세 대상 인원이 신문에 공개됐다.⁵³⁾ 1928년에는, 병자년(1876) 이래 초유의 大旱이 닥쳐 농작물의 피해가 1876년보다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 예안면은 다른 면보다는 사정이 나았지만, 이앙을 평소의 6할 5분밖에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⁵⁴⁾ 1929년에는 경상북도의 작황이 1928년보다 5분 정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6월 8일과 8월 중순 경을 제외하고 비가 오지 않은 탓에 1923년(대정 12년)부터 소화 2년(1927)까지 평균 수확량에 비하면 3割이나 적게 수확된 것으로 언급되었다.⁵⁵⁾ 1939년은 전국적으로 풍작이 예상되는 해였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피해를 심해 대구, 경주, 김천, 안동 등지의 작황이 좋지 못하다는 기사가 실렸다.⁵⁶⁾ 이러한 신문 기사를 통해 볼 때, <표 3>의 지대량 추이는 도산서원의 경작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수치로 이해된다. 다만, 이같은 흉년의 지대량조차도 19세기 초중반의 여러 해들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수입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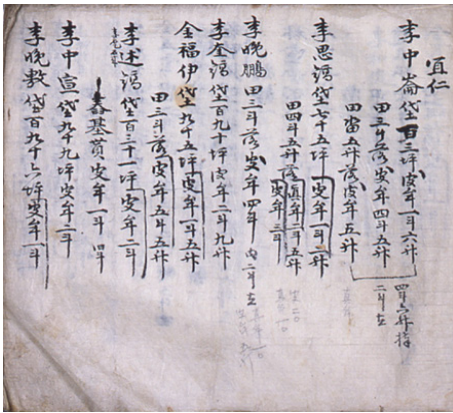
53) 『동아일보』 1927년 11월 29일 기사. 안동군에서는 435町의 면적에 2,326圓을 면세해주었으며, 면세인원은 1,885명에 달했다.

54)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기사.

55) 『조선일보』 1929년 10월 1일 기사. 다만, 1925년 을축년의 작황은 가뭄 및 홍수피해로 인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1923년~1927년의 5개년을 평년작으로 평가하여 비교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56) 『조선일보』 1939년 8월 19일 기사.

57) 이수환에 따르면, 도산서원은 18세기 전 시기에 걸쳐 매년 100여 석의 곡식을 수취하였으며, 노비 산공 역시 600~800냥에서 최대 1,000냥 가량을 수취하였다(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278~280쪽 참조). 최주희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이 19세기 크게 위축되는데, 1824년 도산서원의 추수곡은 정곡 84석 14두(=1,274두), 조 13석(195두)이었던 것이, 1840년에는 정곡 8석 9두(129두), 조 9두까지 하락했다가 1851년에 이르면 정곡 21석 1두(=316두), 잡곡 2석 7두(=37두)에 그쳤다. 1854년 정곡 50석 15두(=765두), 잡곡 89두 정도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18세기의 일반적인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최주희, 앞의 논문(2025), 342쪽 <표 4> 참조). 1910년대 이후 도산서원의 지대량이 일정 수준 회복되는 데에는 식민지 농업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양



〈그림 2〉 도산서원 소장 임술춘수기

도산서원 추수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신문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대를 모두 ‘賭租’로 거두었다는 점이다. 〈그림 2〉의 『임술춘수기』 내용을 살펴보면, 오른쪽부터 세로로 ‘①소작인명-②지목[垞/田/畓]-③면적[坪/斗落]-④지대(賭租)’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현전하는 도산서원

추수기들 역시 『임술춘수기』와 작성 방식이 대체로 유사하다. 반면 경주 교동 최부자택과 단성 김인섭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추수기를 살펴보면, 도산서원 추수기보다 항목이 많고 작성 방식도 복잡하다. 경주 교동 최부자택의 추수기를 살펴보면, ①토지 품질-②소작인 이름-③면적[斗落]-④종자와 부세[種卜]-⑤지대[分租]-⑥벼짚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다.⁵⁸⁾ 도산서원의 『임술춘수기』에는 토지의 품질과 종자 및 부세, 벼짚과 같은 항목이 빠져 있다. 지대의 경우에도 경주 교동 최씨가와 단성의 김인섭가는 ‘分租[打租]’의 방식을 택했으나,⁵⁹⁾ 도산서원은 도조를 적용했다. 경주 교동 최씨가에서는 ‘단갈람’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만큼 분조 즉, 타조법이 오랜 기간 통용되고 있었던 반면, 도산서원에서는 소작인이 경작하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에 따라

척식주식회사가 지역의 지주조합장을 통해 소작인들에게 비료를 빌려쓰도록 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1918년 도산면사무소에서 도산서원에 비료의 종류와 수량 대부 가격을 알리는 간찰을 보내왔다(「도산서원고문서-간찰 0158」).

58) 최주희, 「경주 교동 최씨가 소장 추수기·수세기 자료의 전존현황과 특성」, 『古文書研究』 59, 2021, 75~76쪽 참조.

59) 정진영,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在村 兩班地主家の 농업경영(2) - 경상도 단성 金麟燮家の 家作地 경영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62, 2008 참조.

지대를 정액으로 수취하는 도조법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토지의 품질이나 분조[타조]와 같은 항목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도조법 하에서도 수확 전에 看坪을 거쳐 풍흉을 고려한 지대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표 3>에서와 같이 해마다 지대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도산서원은 봄, 가을에 걸쳐 소작인으로부터 도조의 방식으로 정액 지대를 수취하고 있었으며, 도산서원의 춘수곡과 추수곡에 미납분[구조]이 없지 않았지만, 흉작인 해에도 19세기 초중반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대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산서원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던 收貢錢은 19세기부터 그 액수가 현저히 줄고, 제대로 걷히지도 않게 되면서 정규 수입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결국 1925년 태형사건은, 19세기 후반 이래 지대 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 상황에서 서원 원임들이 봄 가뭄과 여름·가을 홍수로 급감한 지대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소작인을 독촉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을축년 이후로도 태형사건이 재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⁶⁰⁾ 단순히 지대를 충당하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원 원임들의 권위와 위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작인과 수복들에게 무리하게 가해진 폭력 사건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1920년대 이후 도산서원은 이같은 지대 수입을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까? 전장기에 기록된 도산서원의 경상비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서원 운영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1925년에 작성된 전장기를 살펴보면, 연초 정알 시 堂會와 정기 享祀에 쓰는 비용 외에 서원의 유사와 원임, 고직 등이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경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교육 및 강화 관련 지출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4>는 1925년 정월 초5일 正調[새해 정월 초에 유사와 유림이 모여 사당의 위패를 알현하는 예] 시 쓴 물품과 창고 告祀를 지내는데 쓴 제수 비용

60) 『조선일보』 1926년 11월 30일 기사 ; 1928년 4월 7일 기사.

등을 정리한 것이다. 한 해 지출 중 당회와 향사에 이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시기가 바로 세초 정알 시이다. 실제로 도산서원에서는 1월 5일 하루에만 동전 154냥과 백미 10두 8승 7홉을 지출하였다.⁶¹⁾

〈표 4〉 1925년 정월 초5일 정알 시 지출내역

시기	지출항목	지출세목	지출액	비고	
정월 초5일	정알 시	지공미	3두 27승 7홉	상유사 유학 금위열 재유사 유학 이중향 이재교 유학 황병흠	
		술빚는 쌀	1두 5승		
		糯米	1두 5승		
		두부콩	7승		
		메밀	7승		
		나물용콩	7승		
		청어 2두름	24냥		
		대구 3마리	9냥		
		농어 1마리	7냥 5전		
		황육	4냥		
		돼지머리 1개	27냥 5전		
		해의 7첩	5냥 6전		
		건시 3첩	10냥 5전		
		문어 반마리	10냥		
		광어 1마리	1냥 5전		
		2회 장불 때 밥값	2냥		
		생간	1냥		
		마늘	5전		
		현소금 1두	1냥 5전		
		등유값	1냥 1전		
계		백미	10두 8승 7홉		
		동전	105냥 7전		
정월 초5일		영양 2회 인편 여비	6냥	상유사 유학 이정호 재유사 유학 이중향 이재교	
		시루 1좌	6냥		
		도청 손님 왕래	9냥 7전		
계		동전	21냥 7전		

61) 전장기에는 동전 154냥, 백미 6두 28승 7홉으로 합계되어 있다.

정월 초5일	창고 告祀	점미 5승값	9냥 5전	상유사 유학 김소락
		청어 한 마리[支]	4냥 5전	
		대구 1마리	3냥	
		건시 7꽃이	4냥 5전	
		대추 2승	1냥 5전	
		생밤 한번 먹을 그릇	6전	
		술값	2냥 5전	
		초지 10장	5전	
계		동전	26냥 6전	

특이한 점은 전장기가 일제시기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통용되던 동전의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는 점이다. 다른 해의 전장기나 추수기에서 화폐단위를 ‘円’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전장기에서 ‘兩-錢-分’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점은 실제로 동전이 실물 거래에 쓰였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써온 동전을 환산 단위 즉, 가치척도로 활용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⁶²⁾

이는 1925년 전체 지출 내역을 담은 전장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표 5>를 통해 전장기 작성방식을 좀 더 살펴보면, 주로 보름 간격으로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으며, 상유사와 재유사가 항목을 확인하고 書押하는 절차를 중간중간 생략하고 있다. 19세기 중반까지의 전장기에는 수입과 지출 내역이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기재되었는데 반해, 19세기 후반 이후의 전장기에는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일정 구간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19세기 전반까지는 서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민간에 빚을 내어 쓰고[出債] 지대를 받아 이를 갚는[還] 사이클이 전장기 상에 종종 확

62) 일제강점기 동계 자료에 나타나는 동전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용기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이용기, 「식민지기 민중의 쉼법과 ‘자율적’ 생활세계-생활문서의 화폐기록을 통하여」, 『역사문제연구』 23, 2010). 이용기는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생활일기자료와 구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엮전을 기준으로 한 ‘兩’ 단위가 향촌민들에게 더 강인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가치척도로서 기능했을 것이라고 보았다(이용기, 앞의 논문(2010), 116쪽).

인되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지출 항목 위주로 전장기가 작성됨으로써⁶³⁾ 수입 내역보다는, 지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부로서 작성된 측면이 강하다.⁶⁴⁾ 이 같은 변화는 19세기 후반 들어 서원의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서원 운영 주체들이 완의, 식례, 절목 등을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출 내역의 경우 향례가 있거나 당회를 열 때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가 하면, 양평, 자산에 천방을 놓거나 영양의 수확을 간평 하러 갈 때, 안동과 대구 관원이 방문할 때의 지출 역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서원의 주요 기능인 강학 활동에 관한 지출 명목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5〉 1925년 도산서원 정기 지출내역

시기	지출액	주요 지출 내역	상유사	재유사
① 1월 14일~ 2월 15일	동전 29냥 1전 5푼 백미 2두 28승 7홉	반찬값, 닭값, 국값, 접대비, 거마비, 제수비	진사 이중균	-
② 2월 20일	동전 297냥 7전 백미 17두 14승 7홉	향례 시 제수품	유학 이중목	진사 김호직 유학 이중항 이재교
③ 2월 21일~ 3월 15일	동전 21냥 3전 9푼 백미 12승 7홉	반찬값, 국값, 거마비	유학 김세락 (未行公)	유학 이주후 이면호
④ 3월 15일~ 4월 1일	동전 25냥 1전 6푼 백미 1두	반찬값, 술값, 소금값, 옷감, 등유값, 접대비	-	유학 이면호 이원충
⑤ 4월 1일~ 4월 15일	동전 8냥 9전 4푼 백미 7승 7홉	반찬값, 닭값, 거마비, 접대비	-	유학 이후곤 이원충
⑥ 4월 15일~ 4월 30일	동전 56냥 1전 8푼 백미 56승 7홉	반찬값, 술값, 당회 시, 공무 접대비	참봉 이중철	유학 권상옥 이동흙 이원건
⑦ 윤4월 1일~ 4월 14일	동전 6냥 6전 6푼 백미 47승 7홉	말공, 분향 시 술값, 반찬값, 접대비	-	-
⑧ 윤4월 1일~ 29일	동전 41냥 2전 6푼 백미 46승 7홉	반찬값, 술값, 거마비, 담뱃값, 등유값	-	-
⑨ 5월 1일~ 5월 14일	동전 7냥 4전 8푼 백미 20승 7홉	반찬값, 술값, 마부 짚신, 접대비	-	-

63) 최주희, 앞의 논문(2025) 참조.

64) 「도산서원고문서 - 수리문부0003」.

시기	지출액	주요 지출 내역	상유사	재유사
⑩ 5월 15일~ 5월 30일	동전 8냥 8전 8푼 백미 16승 7홉	반찬값, 국값, 담뱃값, 등유 값	-	-
⑪ 6월 1일~ 6월 14일	동전 8냥 1전 4푼 백미 27승 7홉 보리 6승 7홉	반찬값, 술값, 국값, 홍수 시 선박 告祀 비용	-	-
⑫ 6월 15일~ 6월 30일	동전 254냥 2전 5푼 백미 58승 7홉 보리 27승 7홉	반찬값, 담뱃값, 공무 시 접 대비, 양평 천방 비용	-	-
⑬ 7월1일~ 7월 14일	동전 5냥 5전 8푼 백미 1두 19승 7홉 쌀보리 1두 6승 17홉	반찬값	-	-
⑭ 7월 15일~ 7월 30일	동전 37냥 3전 1푼 백미 1두 13승 7홉 쌀보리 1두 5승	반찬값, 개고기국값, 등유 값, 부의	-	-
⑮ 8월 1일~ 8월 15일	동전 134냥 6전 9푼 백미 29승 7홉 반 쌀보리 29승 7홉 반	반찬값, 술값, 영양 看坪 시 거마비, 안동부 교섭비	-	-
⑯ 8월 23일	동전 346냥 4전 5푼 쌀 13두 소미 7승 쌀보리 7두 1승	향례 시 제수품, 석쇠, 철화 로, 양철 세수대야, 석유 등	-	-
⑰ 9월 1일~ 9월 14일	동전 154냥 8푼 백미 27승 7홉	반찬값, 술값, 안동부 차비 와 밥값, 주춧돌 24개 값, 시사 월찬, 담뱃값	-	-
⑱ 9월 15일~ 9월 16일	동전 31냥 4전 2푼 백미 12승 7홉	반찬값, 술값, 호적지 2권 값, 우표값, 주세	-	유학 이동흙 이원건
⑲ 9월 18일~ 29일	동전 86냥 3전 1푼 백미 9승 7홉	반찬값, 술값, 공무시 비용, 등유가, 담뱃값, 전 3임 안 동부 거마비	-	유학 이일호 금학수
⑳ 10월 1일~ 10월 16일	동전 318냥 5전 2푼 백미 22승 7홉	대구 관원 접대비, 당회 시 지출, 지세 분배 시, 내무부 장 알묘시 접대비, 반찬값 등	진사 이중균	유학 이상호 금학수
㉑ 10월 16일~ 10월 30일	동전 20냥 3전 백미 54승 7홉	종향위 제수가, 시사 월찬가, 담뱃값, 등유가, 마철가 등	-	-
㉒ 11월 1일~ 11월 30일	동전 33냥 3전 3푼 백미 4두 9승 7홉	반찬값, 술값, 공무 시 쓸 교자 대여비, 시사 월찬가, 담뱃값, 등유가, 算板, 책 종이값 등	-	-

시기	지출액	주요 지출 내역	상유사	재유사
㉓ 12월 1일~ 12월 16일	동전 70냥 7전 8푼 백미 42승 7홉	용계 제수 비용, 반찬값, 소 반 1개, 자산 防川 비용 등	이중수	이상호 금학수
㉔ 12월 16일~ 12월 31일	동전 27냥 3전 백미 내역 없음	청어, 미역, 굴 등	-	-

* 강조는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간임.

〈표 5〉를 바탕으로 1925년 도산서원의 한 해 지출을 산출하면, 동전 2,031.26냥, 백미·잡곡 56.78두로 집계된다. 여기에 세초 정알 시 비용을 포함하면(〈표 4〉참조), 동전 2,185.26냥, 백미·잡곡 67.65두가 된다. 2,185.26냥은 정곡(벼) 1두=5냥의 환산가를 적용하면 약 437.05두에 해당하며, 백미·잡곡을 正粗로 환산하면 대략 150두에 달한다.⁶⁵⁾ 이는 앞의 〈표 3〉에서 을축년(1925)을 제외한 다른 해의 춘수곡, 추수곡 수입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이다.⁶⁶⁾

요컨대, 도산서원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노비공과 현물납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했지만, 예안과 영양 등지에서 거두는 지대를 잘 관리하고 도산서원의 경상비 지출을 절목과 식례에 의거해 통제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지출구조를 꾀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도산서원은 미납 지대를 빌미로 소작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안동지역 사회단체들의 철퇴운동을 촉발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당시 도산서원의 소작인 태형사건에 사회적 비판과 항의가 크게 일었던 것은 같은 해 9월 호남지역에서 도초도 소작쟁의를 시작으로 소작쟁의가 촉발된 데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⁶⁷⁾ 실제로 안동화성회의 결의문을 살펴보면,

65) 기사년에 작성된 「도산서원고문서-전장기0004」에서는 正租 1두=5냥, 米牟 4승=3냥으로, 갑술년에 작성된 「도산서원고문서-곡용부0003」에서는 精粗(正租) 10두=米 4.5두로 환산하였다.

66) 이밖에도 다른 해의 전장기에서는 관부에 납부하는 지세와 부조금 등의 지출이 확인되나 이 역시 지대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로 파악된다.

도산서원 소작인 태형사건과 도초도 소작쟁의에 대한 결의사항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도산서원 철폐운동이 1920년대 중반 소작쟁의 여파로 야기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⁶⁸⁾ 그러면 도산서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도산서원의 소작인 태형사건으로 안동화성회를 비롯한 5개 사회단체에서 도산서원 철폐를 위한 연합위원회를 조직해 결의문을 작성하고 철폐운동을 벌였다. 이에 당해 11월 20일 도산서원에서는 당회를 열고 소작인 태형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회에서도 소작인에게 태형을 가한 일은 시대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이동흙, 이원각을 처벌하기로 뜻이 모아졌다. 다만, 당사자들도 태형을 내린 데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과실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서원 철폐를 결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안동화성회와 풍산소작인회에 전달하였다.⁶⁹⁾ 같은 맥락에서 의성 등 지역유림들 역시 결의하여 안동화성회 등 도산서원 철폐운동을 벌인 단체에 항의하는 통문을 돌렸다.⁷⁰⁾

문제는 소작인 태형사건으로 도산서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듬해, 신임 원장 선출에 불만을 품은 의춘동의 이섬호가 원장 선출에 참여한 이들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고 무고한 서원 守僕을 데려다 또다시 매질을 가하였다는 점이다.⁷¹⁾ 이에 안동의 사회단체들이 다시 도산서원에 경고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철폐운동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⁷²⁾ 그러나 도산서원은 이러한 사회적 비판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도산서원은 서원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원직의 불기를 때려 언론

67) 『동아일보』 1925년 10월 25일 기사. 도초도 소작쟁의에 대해서는 최성환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최성환, 「일제강점기 도초도 소작쟁의의 전개 과정과 특징」, 『韓國史學報』 86, 2022 참조).

68) 『조선일보』 1925년 11월 03일 기사.

69) 『조선일보』 1925년 11월 27일 기사.

70) 『조선일보』 1925년 12월 16일 기사.

71) 『조선일보』 1926년 11월 30일 기사.

72) 『동아일보』 1926년 12월 30일 기사.

상에 ‘태형사건’을 재소환시키는 한편,⁷³⁾ 충재 권벌의 문집 간행 시 퇴계 이황의 ‘선생’ 호칭을 빼려한 유림들에 항의하는 도회를 열고,⁷⁴⁾ 농암 이현보의 문집에 적힌 퇴계와 농암의 학문적 수수 관계에 반발하는 등의 시비 논쟁을 이어갔다.

1930년대 이후로는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독부의 요구에 순응, 타협하는 한편,⁷⁵⁾ 도산서원이 퇴계 이황의 정신이 담긴 고적 명승지로서 언론에 알려지는 데에 부응하였다.⁷⁶⁾ 이에 1939년 11월 17일, 도산서원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고시로서 영구히 보존할 ‘寶物’로 지정되었으며, 이듬해인 1940년 7월 31일에는 도산서원 교전당과 상덕사가 고적명승지로 새로이 지정되었다.⁷⁷⁾



〈그림 3〉 1940년 고적명승지로 지정된 도산서원 전경
(『동아일보』 1940년 7월 31일 기사)

73) 『조선일보』 1928년 4월 7일 기사.

74) 『조선일보』 1931년 6월 4일 기사.

75) 『동아일보』 1937년 9월 18일 기사.

76) 『동아일보』 1940년 7월 31일 기사.

77) 『조선일보』 1940년 8월 1일 기사.

1939~1940년 조선총독부의 보물 및 고적명승지로의 지정은 학문공동체로서 역할해 온 도산서원이 그간의 소임을 내려놓고 문화재로서 인식되는 계기를 낳았다.⁷⁸⁾

IV. 맺음말

지금까지 도산서원고문서와 일기,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운영과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19세기 이래 도산서원은 중앙정부의 관심이 멀어지고 서원 원장 및 재유사의 직임을 진성이씨와 몇몇 가문에서 독점하는, 다소 폐쇄적이고 경직된 운영 방식을 이어갔다. 여기에 18세기 후반부터 지대 및 노비공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9세기 들어서는 지대 하락의 폭이 커지고 노비공전이 사라지면서 서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세기 후반 서원 내부에서 식례, 완의, 절목과 같은 자치규약을 정해 지출을 통제하는 한편, 수령이 원장을 겸직하는 구조 하에서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⁷⁹⁾

그러나 19세기 최말부터 국운이 기울고 유림들의 의병, 항일투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산서원의 운영은 다시 서원 인근의 진성이씨들과 몇몇 가문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퇴계 이황의 위판을 재봉안하는 문제를 비롯해 『도산급문제현록』을 간행하는 공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문공동체로서 도산서원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했다. 문제는 이들이 서원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 진성이씨 서자들을 원임직에서 배제하는 한편,

78)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로도 지대 수입에 기반한 도산서원의 운영은 지속되어 향사에 쓰이는 제수품, 접빈객을 위한 부식비, 인건비 등이 꾸준히 지출되었다. 도산서원의 수입-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장기는, 서력 추정이 가능한 해만 따져 보았을 때 1945년까지 기록이 확인되며, 특히 1945년에는 금전 출납을 확인할 수 있는 치부기도 남아있다.

79) 최주희, 앞의 논문(2025) 참조.

소작인과 수복에게까지 태형을 가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소작인 태형사건은 도산서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는 불씨를 제공했으며, 이로써 도산서원은 안동화성회와 풍산소작 인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철폐 대상이 되기까지 하였다.

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운영 주체들은 사회적 비판 여론을 수용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향적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정기적인 향사와 당회를 개최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가는 데 주력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순응, 타협하며 도산서원의 위상을 유지해나가고자 했다. 이에 식민통치가 서서히 막을 내릴 무렵, 도산서원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보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계기로 도산서원은 학문공동체가 아닌 문화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도산서원의 학문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47년 12월 3일 도산서원 전교당에서 陶山大學 설립과 임시사무소 설치를 논의하는 ‘陶山大學發起會’가 개최되었으나⁸⁰⁾ 안타깝게도 미완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68년, 안동댐 건설로 도산서원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전국 유림이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는데, 이듬해 박정희 대통령이 도산서원에 방문해 전시관 설립과 서원 안팎의 정화사업을 지시했다.⁸¹⁾ 이어 1970년에는 퇴계 선생 서거 400주기를 맞이해 도산서원 보수 준공식에 참여해 퇴계학리연구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⁸²⁾ 연구소 설립은 현실화되지 못한 듯하다. 반면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도산서원의 보수 및 정화사업은 197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암울한 시련기를 겪어온 도산서원은 해방 이후 학문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

80) 『陶山大學發起會會錄』 1947년 12월 3일.

81) 『동아일보』 1969년 10월 15일 기사.

82) 『경향신문』 1970년 12월 9일 기사. 해방 이후 도산서원의 행보는 정순우 앞의 글(2024), 47쪽 참조.

속했다. 그러나 안동댐 건설로 인해 보수, 성역화해야 할 문화재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중앙의 관리, 지원이 우선시되면서 학술교류 공간으로서가 아닌, ‘명승고적’의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굳어지게 되었다.⁸³⁾

83)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1970년 1월 故이동준 선생을 중심으로 퇴계선생 400주년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퇴계학연구원이 발족하였다. 이후 1978년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에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1984년 사무실을 종로구 명륜동으로 옮긴 이래 오늘날까지 퇴계학연구원은 국내외 퇴계학 연구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부표 1〉 1925년 도산서원 지대수납 영수증(『도산서원을축춘수수납원부(원부0001)』)

번호	소재지	소작인	지목	지적	곡류	수량	수납분	미납분	구조/지대합계(春計·秋計)
1	宜仁洞	李思鎬	堡	75坪	皮牟	1斗2升		없음	갑자년: 皮牟3斗2升, 牟1斗, 粟4斗2升, 太2斗(합 10斗4升) 계해년: 作零條 26兩4錢
			田	4斗 5升落	皮牟	5斗		없음	
2	宜仁洞	李晚鵬氏	田	3斗落	皮牟	1斗		1斗	갑자년: 皮牟1斗, 粟2斗 계해년: 米牟1斗, 皮牟5升, 粟3斗 임술년: 皮牟2斗 신유년: 粟3斗5升, 皮牟10斗5升, 粟11斗, 牟1斗, 太2斗 春計: 皮牟1斗, 牟3斗
			田	3斗落	牟	3斗	2斗5升	5升	
3	宜仁洞	李先伊	堡	190坪	皮牟	2斗9升	2斗9升	없음	春計: 皮牟5斗4升
			畓	3斗落	-	陳			
			畓	2斗落	皮牟	2斗5升	2斗5升		
4	宜仁洞	趙到石	堡	123坪	皮牟	1斗9升	1斗9升	없음	春計: 皮牟3斗1升, 牟4斗5升
			田	3斗落	皮牟	5升	5升		
			田	3斗落	牟	4斗5升	4斗5升		
			春堡	-	皮牟	7升	7升		
5	宜仁洞	李述鎬	堡	131坪	皮牟	2斗	2斗	없음	임술년: 春貰皮牟7升(乙丑7月16日擲) 春計: 皮牟2斗
6	宜仁洞	李萬敷氏	堡	192坪	皮牟	1斗	1斗	없음	계해년: 粟5升, 春計: 皮牟1斗
7	宜仁洞	金德石	田	2斗落	米牟	5升	5升	없음	임술년: 皮牟6升(乙丑7月15日擲) 春計: 米牟5升, 牟1斗5升
			田	2斗落	牟	1斗5升	1斗5升		
8	宜仁洞	崔尙伊	畓	2斗落	皮牟	5升	5升	없음	갑자년: 皮牟5升 임술년: 荒正10斗, 荒租8斗, 皮牟1斗 春計: 皮牟5升
9	宜仁洞	金五雲	堡	5升落	皮牟	1斗1升	1斗1升	없음	春計: 皮牟5斗6升
			畓	2斗落	皮牟	1斗5升	1斗5升		
			畓	2斗落	皮牟	3斗	3斗		
10	剡村洞	禹容伊	堡	80坪	皮牟	1斗	1斗	없음	갑자년: 粟1斗, 皮牟1斗(戊午), 粟1斗(戊午) 계해년: 粟1斗, 金80錢 春計: 皮牟1斗
11	剡村洞	金方九	堡	74坪	皮牟	1斗1升	1斗1升	없음	春計: 皮牟2斗6升
			畓	1斗落	-	陳			
			田	8升落	皮牟	1斗5升	1斗5升		

번호	소재지	소작인	지목	지적	곡류	수량	수납분	미납분	구조/지대합계(春計·秋計)
12	剡村洞	李右鎬	垆	78坪	皮牟	1斗1升	1斗1升	없음	地稅 26錢 春計: 皮牟5斗1升, 米牟1斗7升, 秋牟1斗5升
			田	1斗落	米牟	1斗7升	1斗7升		
			畓	3斗落	皮牟	4斗	4斗		
			畓	3斗落	秋牟	1斗5升	1斗5升		
13	剡村洞	金日學	垆	-	皮牟	1斗	1斗	없음	갑자년: 粟7斗 春計: 皮牟6斗
			田	2斗 5升落	皮牟	5斗	5斗		
14	剡村洞	李花俊	畓	2斗落	皮牟	2斗5升	2斗5升	없음	갑자년: 良1斗5升, 木麥2斗, 垆 粟2斗2升 계해년: 粟2斗2升(此去黃遠夏條) 春計: 皮牟8斗
			畓	2斗落	皮牟	3斗	3斗		
			田	2斗落	皮牟	2斗5升	2斗5升		
15	剡村洞	黃遠夏	垆	141坪	皮牟	2斗2升	2斗2升	없음	무오년: 粟1斗3升 경신년: 粟1斗3升 신유년: 粟3升, 皮牟4斗4升 계해년: 粟1斗3升, 粟2斗1升(花 俊條), 良稻1斗5升 갑자년: 良2斗, 粟3斗4升 以上 粟合 9斗7升內 5斗眞牟換捧 餘在 4斗7升(乙丑7月 初5日) 春計: 皮牟5斗7升
			垆	84坪	皮牟	1斗5升	1斗5升		
			畓	1斗落	皮牟	2斗	2斗		
16	剡村洞	申甲俊	田	5斗落	皮牟	5升	5升	없음	무오년: 皮牟3升, 粟5升 기미년: 粟5升 경신년: 粟5升 계해년: 粟5升 갑자년: 粟1斗(乙丑7月15日捧), 春計: 皮牟5升
17	剡村洞	李蒙鎬	垆	104坪	皮牟	1斗5升	1斗5升	없음	신유년: 粟1斗5升 계해년: 皮牟1斗5升, 粟1斗5升 갑자년: 皮牟1斗5升, 粟1斗5升, 地稅40錢 春計: 皮牟3斗5升
			垆	-	皮牟	1斗	1斗		
			田	5升落	皮牟	1斗	1斗		
18	剡村洞	朴德允	垆	-	皮牟	1斗	1斗	없음	갑자년: 粟9斗內5斗上在4斗 春計: 皮牟4斗
			田	1斗 5升落	皮牟	3斗	3斗		
19	剡村洞	崔元石	田	2斗落	牟	4斗	4斗	없음	계해년: 良1斗 갑자년: 太1斗, 粟5斗(無五誤記), 牟5斗 春計: 皮牟6斗, 牟4斗
			田	3斗落	皮牟	6斗	6斗		
20	剡村洞	全順實	垆	101坪	皮牟	1斗5升	1斗5升	없음	계해년: 粟3斗5升 內2斗 誤記1 斗5升在 春計: 皮牟3斗, 牟5升
			田	3斗落	皮牟	1斗5升	1斗5升		
			田	5升落	牟	5升	5升		
			畓	2斗落	-	陳			

번호	소재지	소작인	지목	지적	곡류	수량	수납분	미납분	구조/지대합계(春計·秋計)
21	剡村洞	林完夏	垡	-	皮牟	2斗	2斗	없음	春計: 皮牟3斗, 米牟1斗
			畓	1斗落	皮牟	1斗	1斗		
			畓	1斗落	米牟	1斗	1斗		
22	剡村洞	李英鎬	垡	122坪	皮牟	2斗	2斗	없음	春計: 皮牟2斗
23	剡村洞	崔養先	垡	120坪	皮牟	2斗3升	2斗3升	없음	春計: 皮牟3斗3升, 米牟3斗5升, 牟4斗
			畓	3斗落	米牟	3斗5升	3斗5升		
			田	1斗 5升落	牟	4斗	4斗		
			田	5升落	皮牟	1斗	1斗		
24	剡村洞	權周成	垡	-	皮牟	1斗	1斗	없음	春計: 皮牟1斗
25	剡村洞	朴命倫	垡	138坪	皮牟	2斗	2斗	없음	春計: 皮牟2斗, 牟5승
			田	5升落	牟	5升	5升		
26	剡村洞	李中璿	垡	73坪	皮牟	1斗2升	1斗 (價4兩捧)	2升	春計: 皮牟1斗2升
27	剡村洞	金元伊	垡	94坪	皮牟	2斗9升	2斗9升	없음	春計: 皮牟2斗9升
28	剡村洞	權世遠	垡	79坪	皮牟	2斗6升	2斗6升	없음	갑자년: 粟2斗5升內(5升眞牟換捧, 粟2斗太5升契約捧乙丑7月14日捧), 太5升 계해년: 粟5斗8升35兩(乙丑7月14日捧) 春計: 皮牟4斗1升, 牟3斗
			田	1斗 5升落	牟	3斗	3斗		
			田	119坪	皮牟	1斗	1斗		
			田	5升落	皮牟	5升	5升		
29	剡村洞	林卜岩	垡	69坪	皮牟	1斗	1斗	없음	갑자년: 粟1斗 春計: 皮牟8斗
			田	2斗落	皮牟	3斗5升	3斗5升		
			畓	1斗落	-	陳			
			田	5升落	皮牟	5升	5升		
30	剡村洞	朴允伊	垡	132坪	皮牟	2斗8升	2斗8升	없음	갑자년: 太1斗, 粟米2斗8升(作錢), 舊條零條 1円60錢 合計6円88錢(乙丑7月望 25兩上在, 9兩4錢 10月望日 上納之意 標上) 春計: 皮牟2斗8升, 牟2斗
			田	2斗落	牟	2斗	2斗		
31	剡村洞	趙水哲	畓	2斗落	皮牟	2斗	2斗	없음	良稻18斗(考庚申記則懸朽而被墨刀), 牟5升, 皮牟1斗, 粟1斗, 甲子粟1斗 春計: 皮牟7斗, 秋牟5升, 牟5升
			畓	1斗落	秋牟	5升	5升		
			畓	1斗落	皮牟	5升	5升		
			田	4斗落	牟	5斗	5斗		
			田	3斗落	皮牟	4斗5升	4斗5升		
			畓	1斗落	-	陳			
32	剡村洞	李木成	垡	72坪	皮牟	1斗1升	1斗1升	없음	春計: 皮牟1斗1升

번호	소재지	소작인	지목	지적	곡류	수량	수납분	미납분	구조/지대합계(春計·秋計)
33	剡村洞	李壽鎬	垡	70坪	皮牟	1斗	1斗	없음	春計: 皮牟2斗
			田	1斗落	皮牟	1斗	1斗		
34	剡村洞	林且岩	垡	109坪	皮牟	1斗6升	1斗6升	없음	春計: 皮牟3斗1升
			田	2斗落	皮牟	1斗5升	1斗5升		
35	剡村洞	李中瀨	垡	221坪	皮牟	3斗2升	3斗2升	없음	신유년: 粟2升 春計: 皮牟3斗2升
36	剡村洞	李中政	垡	259坪	皮牟	2斗8升	作11 兩2錢	없음	신유년: 粟2斗8升 임술년: 皮2斗8升, 粟2斗8升 계해년: 皮牟2斗8升, 粟2斗8升 갑자년: 皮牟2斗8升, 粟2斗8升 春計: 皮牟3斗8升(作11兩2錢)
37	剡村洞	李宜鎬	垡	127坪	皮牟	1斗8升	1斗8升	없음	계해년: 粟1斗8升 갑자년: 粟1斗8升, 皮牟1斗8升 (乙丑7月15日擗) 春計: 皮牟1斗8升
38	剡村洞	鄭用伊	垡	141坪	皮牟	2斗1升	2斗1升	없음	갑자년: 粟1升(乙丑7月15日擗, 1 升價9錢) 春計: 皮牟2斗1升
39	剡村洞	李殷石	畓	2斗落	皮牟	2斗	2斗	없음	皮牟1斗(1斗乙丑7月15日擗) 春計: 皮牟2斗
40	剡村洞	金厚石	垡	87坪	皮牟	2斗	2斗	없음	계해년: 粟5斗3升 임술년: 粟2斗3升, 兩年作條53 兩2錢(40兩納 在13兩2錢7月晦 日納意標上, 7月14日) 春計: 皮牟2斗
41	川河洞	鄭得伊	田	2斗落	皮牟	3斗	3斗	없음	春計: 皮牟3斗, 米牟5升
			畓	1斗落	米牟	5升	5升		
42	良坪洞	金奉伊	畓	-	米麥	2斗5升	2斗5升	없음	春計: 米牟2斗5升
43	英陽 陶谷洞	權養上	畓	2斗落	正	3石10 斗		없음	秋計: 正4石
44	英陽 場後洞	權道達	畓	3斗落	正	3石2斗	1金26兩 63半	없음	秋計: 正3石2斗
45		禹根鎬	畓	4斗落	正	6石10 斗	計金56兩 67錢	없음	實地作년에 12斗 損害(大正15年 1月9日 陰11月25日)
46	英陽 坡拾洞	金基哲	畓	3斗落	良	3斗	2兩 22錢也	없음	秋計: 良3斗
47	英陽 坡拾洞	李準鎬	畓	4斗落	良	5斗		없음	秋計: 良5斗

번호	소재지	소작인	지목	지적	곡류	수량	수납분	미납분	구조/지대합계(春計·秋計)
48	英陽 邑洞	金錦鍾	畓	5斗落	良	4斗	2円 94錢也	없음	秋計: 正4斗, 良4石5斗
			畓	3斗落	正	4石5斗	36円 83錢也		
			田	1斗落	-	-	計39円 77錢也		
49	英陽 坡台洞	金鳳憲	畓	3斗落	良	3斗	2円 22錢也	없음	秋計: 良3斗
50	剡村洞	全順賓	垵	101坪	粟	1斗5升		없음	秋計: 粟4斗5升, 良5斗
			田	3斗落	粟	2斗			
			田	1斗落	粟	1斗			
			畓	2斗落	良	5斗			
51	狸谷洞	鄭得伊	畓	1斗落	穀良	1斗5升		없음	秋計: 良1斗5升
			田	2斗落	-	-			
52	宜剡洞	林完夏	垵	-	粟	2斗5升		없음	秋計: 粟2斗5升, 良9斗
			土城 畓	1斗落	良	9斗			

【참고문헌】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黃海監營狀啓謄錄』, 『驛士所關查員質報存』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사이트 도산서원고문서 <https://doc.ugyo.net/>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https://yn.ugyo.net/>

저서

권오추 외, 『일기로 보는 도산서원』 1~4, 한국국학진흥원, 2024.
김현영 외,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2001.
이우성 외, 『陶山書院』, 한길사, 2001.
정만조 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정시열 외,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차장섭 외, 『서원의 위상 :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한형조 외, 『도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논문

강윤정,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韓國書院學報』 17, 2023.
김도형, 「풍산지역의 농업경영과 소작쟁의」, 『한국근현대사연구』 18, 2001.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第子の 범위」, 『퇴계학과 유교문화』 26, 1998.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2000.
김희곤, 「안동 부포마를 사람들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심용선, 「寶文義塾(1909~1918)의 교육구국운동」,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신준영, 「安東 寶文義塾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윤순갑·최병덕, 「1920년대 안동지역 사회주의 세력의 민족해방운동」, 『한국동북

아논충』 10-3, 2005.

이병훈,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대동한문학』 67, 2021.

이수환, 「陶山書院 院任職 疏通을 둘러싼 嫡·庶간의 鄉戰 - 1884年 《庶類事變時日記》를 中心으로」, 『민족문화논총』 12, 1991

이용기, 「식민지기 민중의 썬법과 ‘자율적’ 생활세계 - 생활문서의 화폐기록을 통하여」, 『역사문제연구』 23, 2010.

이재현, 「영조와 정조의 서원 賜祭와 도산서원」, 『韓國書院學報』 20, 2025.

정진영,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在村 兩班地主家の 농업경영(2) - 경상도 단성 金麟燮家の 家作地 경영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62, 2008.

최성환, 「일제강점기 도초도 소작쟁의의 전개 과정과 특징」, 『韓國史學報』 86, 2022.

최주희, 「경주 교동 최씨가 소장 추수기·수세기 자료의 전존현황과 특성」, 『古文書研究』 59, 2021.

최주희, 「19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재정운영 실태」, 『民族文化研究』 106, 2025.

한상우, 「조선후기 退溪 후손들의 陶山書院 院長職 취임양상과 친족집단의 역할」, 『大東文化研究』 87, 2014.

Abstract

Crisis and Adaptation: Modes of Existence
of Dosan Seowon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Choi, Joohee*

Th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al transformations and shifting status of Dosan Seowon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drawing upon archival documents from Dosan Seowon and diaries, newspaper articl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the nineteenth century onward, as central government attention to Dosan Seowon diminished, the seowon came to be administered in an increasingly insular and conservative manner, with the positions of wonjang(院長, director) and jaeyusa(齋有司, ritual officials) monopolized by the Jinseong Yi lineage and a few allied yangban families. This institutional closure coincided with mounting fiscal pressures stemming from declining land rent revenues and nobi(奴婢, hereditary servants) tribute payments beginning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o ameliorate these financial exigencies, Dosan Seowon instituted collective self-regulatory provisions—including siknye(式例), wanui(完議), and jeolmok(節目) — during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enforce expenditure controls, while establishing transparent administrative protocols whereby the local magistrate concurrently assumed the directorship.

Nevertheless,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orward, as national

* Assistant Profssor, Duksung Women's University
/ nomadic78@duksung.ac.kr.

sovereignty deteriorated and Confucian literati mobilized righteous armies(義兵) and led anti-Japanese resistance movements, the operation of Dosan Seowon remained necessarily concentrated within the Jinseong Yi lineage and proximate families. They endeavored to restore Dosan Seowon's function as a scholarly community through public undertakings, such as the re-making of Toegye Yi Hwang's wipae(位牌) and the compilation of the Dosangeupmunjehyeonrok(陶山及文諸賢錄). Problematically, however, their efforts to reinforce internal discipline precipitated the seoryusabyeon(庶類事變) while simultaneously manifesting authoritarian practices through the imposition of corporal punishment upon tenant cultivators and seowon servants.

Rather than embracing progressive reforms responsive to contemporary imperatives, those managing Dosan Seowon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prioritized the stabilization of fiscal revenues. And they pursued institutional preservation through accommodation and strategic compromise with Japanese Government-General policies. Consequently, in 1939 Dosan Seowon received official designation as a bomul(寶物, treasur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thereby transformed from a scholarly community into a cultural heritage site.

Key word : Dosan Seowon, jeonjanggi(傳掌記), tongmun(通文), tenant farmers(小作人), corporal punishment (taehyeong, 答刑), treasure(寶物)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을 통한 영남 지식네트워크 형성*

정 재 훈**

- I. 머리말
- II. 도산서원의 다양한 출판활동
- III. 영남 지식네트워크의 형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퇴계 이황(李滉)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이 영남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산한 과정 및 그 역할을 고찰한다.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경상도 서원 중 압도적으로 많은 책판을 보유하고 문집, 유학서 등 다양한 서적을 간행하며, 단순한 교육·제향 기관을 넘어 지식 생산과 유통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도산서원의 출판은 이황과 그의 학문적 계통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계보화를 가능하게 했고, 『퇴계선생문집』 등의 간행을 통해 퇴계학파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황의 학설을 정전화(正典化)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도산서원은 다른 서원이나 향교의 출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내용에 간여함으로써 지역 유림 간의 학문적 연대를 확대하고, 지역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지식네트워크의 영향력은 만인소(萬人疏) 운동과 같은 정치·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졌으며, 도산서원이 지역의 도덕적 권위자이자 여론 결집의 중심점이었음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3.0(HK3.0)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6B5A02004239)

** 경북대 사학과 교수 / jinsojung@knu.ac.kr

결론적으로,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은 학문 전통의 계승, 지역 간 학술 연대, 향촌 공론장 형성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복합적 지식 기관의 역할을 보여주며, 조선 유교문화의 실천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도산서원(陶山書院), 퇴계 이황(退溪 李滉), 출판활동, 영남 지식네트워크, 공론장 형성

I. 머리말

도산서원은 잘 알려져 있듯이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적 업적과 그의 사회적 실천을 기리기 위해 1574년(선조 5)에 세운 서원이다. 처음에 지역의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으나 이후 점차 도산서원은 이황의 학문적 명성과 영향이 확대되는 것에 비례하여 영남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서원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원래 선현에 대해 제사를 통한 존숭과 또 그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교육이 서원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서원에서의 교육은 따라서 서책과 떼어 수 없는 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곧 서원의 활동 가운데 특히 출판활동과 연관되었다.¹⁾ 도산서원의 위상과 명망은 이황의 학문에서 비롯되는바 그의 학문이 재조명되고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도산서원에서는 많은 출판 활동이 있었으며, 또 소장하였던 책도

1) 서원에서의 출판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서원의 출판활동 전반에 관해 다루는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편이다. 대신에 개별 서원의 간행, 출판에 대한 연구나 혹은 지역 단위의 출판에 관한 연구는 약간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출판에 관해서는 최경훈, 「안동지역 서원의 출판」, 『안동학연구』 20, 2021의 2. 조선시대 서원의 출판 참조. 개별 서원의 장서 및 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참조.

적지 않았다. 간행 서적의 수도 책판을 기준으로 할 경우 34종 이상이었으며 보관 책판의 수도 3,907판 이상이였다. 소장된 전적의 수 역시 1,026종, 4,605책(2006년 기준)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주로 목판을 인쇄한 것이었으며, 일부는 목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한 것도 있다.

도산서원의 이러한 활발한 출판 활동과 많은 소장 도서는 도산서원이 단지 제사의 기능을 담지한 사당이나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넘어서 조선 사회에서 학문적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며 출판을 통한 지식의 유통을 담당하는 지식 생산의 거점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²⁾

본고에서는 영남의 중심서원으로서 도산서원의 활동 가운데 특히 출판활동을 통해서 영남의 지식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도산서원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출판활동이 있었는데, 일례로 다른 서원에 비해 책판의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 도산서원으로서 다른 서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책판과 간행 서적이 있었다.

Ⅱ. 도산서원의 출판활동

1. 도산서원이 주관한 출판활동

도산서원에서의 출판 활동에 관해서는 경상도에서의 출판이라는 지역성과 서원에서의 출판이라는 교육성의 양 측면에서 그 출판 활동의 규모와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경상도라는 지역에서 도산서원의 출판 활동이 차지하

2) 기존의 연구에서는 서원에서의 서적 간행에 대해서 단순히 서적의 간행 소개, 관리 차원에서의 연구가 많다. 이에 비해 서적의 간행, 출판과 지식 체계, 지식 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아래 논문 참조. 김정운,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 체계 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2018 : 김소희, 「호계서원의 지식문화 인프라 : 서적의 생산과 보급」, 『한국서원학보』 15, 2022.

는 위상을 보자.

조선시대 지역에서의 출판은 감영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대구에 경상 감영이 설치된 이후 조선후기에 경상감영에 소장된 책판의 종수는 총 168종으로 확인된다.³⁾ 그에 비해 조선후기에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의 종수는 31종으로 확인되므로 지역에서의 출판활동의 중심이었던 감영에 비해 그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원에서의 출판활동을 비교해 보면 『누판고(鑪板考)』에서는 84개 서원과 사우에서 184종의 서원 장판이 있었다.⁴⁾ 그 가운데 경상도 서원판은 54개소 127종으로 70%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상도의 책판 가운데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후에도 고종 때에 서원이 철폐되기 전까지 경상도의 서원에서 간행된 본은 총 103개 서원에서 227종이 간행되어 정조 대 이후에도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⁵⁾

도산서원은 경상도의 서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책판을 가지고 있었다. 도산서원이 소장한 책판의 수량은 17종 혹은 24종 등 다양하게 파악되기는 하지만, 다른 서원에 비해서는 월등이 많았다. 책판을 소장한 경상도의 서원은 노강서원, 옥산서원, 회연서원, 돈암서원, 소현서원, 표충사 등이 있었는데, 대체로 5종에서 7종 사이에 그쳤다.

그러면 도산서원의 출판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도산서원의 출판 활동은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산서원이 주체가 된 서적의 간행

3) 손숙경, 「조선후기 경상감영의 출판과 간행본의 특징」, 『영남학』 61, 2017, 89쪽.

4) 서원에 소장된 장판(藏板)이 84개 서원에서 184종으로 파악한 것은 1796년(정조 20) 『누판고』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서적이 서원에서 간행되었다. 근래의 연구에서는 누락된 서적이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윤상기의 서원판본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가 참고된다.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 板本考」, 『東義論集:인문사회Ⅰ』 40, 2004과 밀양, 함양, 함안, 진주, 산청 등의 서원판본 연구가 있다. 이외에도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 참조.

5) 손숙경, 「책으로 헤게모니의 중심에 서다」,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글항아리, 222쪽

이 우선 주목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서원 등에서 간행하는 서적의 출판활동을 도와주는 것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책은 1576년 이황이 저술한 『송계원명리학통록』의 각판(刻版) 이래 1910년 이전까지 약 37종의 간행이 확인된다.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도산서원 간행 도서

연번	도서명	편저자	간행시기 및 간행 소장	내용	비고
1	송계원명리학통록 (宋季元明理學通錄)	이황(李滉)	1575, 직	유학사 관련	조목(趙穆) 문인
2			1743, 직		
3	송재시집 (松齋詩集)	이우(李瑄)	1584, 직	시문집	오운(吳潤) 간행. 도산서원 장판본
4	퇴도선생자성록 (退陶先生自省錄)	이황(李滉)	1585, 타	편지	김성일 간행
5			1793, 타		
6	역학계몽전의 (易學啓蒙傳疑)	이황(李滉)	1600, 직	유가류(儒家類)	
7	진성이씨족보 (眞城李氏族譜)	이영도(李詠道)	1600, 직	족보	
8	퇴계선생문집 (退溪先生文集)	이황(李滉)	1600, 직	문집	
9			17세기, 직		
10			1724, 직		
11			1817, 직		
12			1843, 직		
13	경서석의(經書釋義)	금응훈(琴應薰)	1609, 직	경서 주석서	
14	단양우씨족보 (丹陽禹氏族譜)		17세기, 직	족보	
15	고경중마방 (古鏡重磨方)	이황(李滉)	1607, 직	명(銘)·잠(箴)	정구(鄭逵)와 문인 각판
16	경서석의(經書釋義)	이황(李滉)	1609, 직	유가류	
17	치재선생유고 (恥齋先生遺稿)	홍인우(洪仁祐)	1639, 직	문집	증손 홍유형 (洪有炯) 간행
18	농암문집(鰲巖文集)	이현보(李賢輔)	1665, 이	문집	
19	월천문집(月川文集)	조목(趙穆)	1666, 직	문집	

20	퇴계선생언행록 (退溪先生言行錄)	이황(李滉)	1732, 직	언행록	권두경(權斗經) 편
21			1867, 직		
22			1905, 직		
23	주자서절요 (朱子書節要)	이황(李滉)	1743, 직	시문집	
24			1904, 직		
25	퇴계선생속집 (退溪先生續集)	이황(李滉)	1746, 직	문집	
26	무서변파록 (誣書辨破錄)	도산서원	1768, 직	잡저	
27	온계일고(溫溪逸稿)	이해(李滄)	1772, 직	문집	이현룡(李見龍), 이세택(李世澤) 편
28	계암문집(溪巖文集)	김령(金垚)	1772, 이	문집	
29	근시재문집 (近始齋文集)	김해(金垓)	1783, 이	문집	김석운(金錫胤) 편
30	운암일고(雲巖逸稿)	김연(金緣)	1783, 이	문집	김영(金瑩) 편
31	교남빈흥록 (橋南賓興錄)	경상감영	1792, 타	잡저	
32	계산세고(溪山世稿)	이이순(李頤尊) 편	1835(?), 직	시문집	이안도(李安道), 이수연(李守淵), 이세정(李世靖)
33	송재집속집 (松齋集續集)	이우(李堉)	1900, 타	문집	
34	몽재문집(蒙齋文集)	이안도(李安道)	1908(?), 직		유고집
35	후계집(後溪集)	이이순(李頤尊)	1909, 직	문집	
36	도산금문제현록 (陶山及門諸賢錄)	이아순(李理尊) 편	1913, 직	문인록	
37	오가산지(吾家山誌)	이황 저, 이만여(李晩興) 편	1924, 직	시문	청량산 관련 시문

* 간행시기 및 소장에서 직=도산서원 직접간행본, 타=다른서원 간행하여 옮겨온 본, 이=도산서원 간행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간 본을 의미한다.

이들 서적을 위한 목판의 판각과 간행은 도산서원의 건립 직후부터 시작되어서 이후 16세기 3종, 17세기 11종, 18세기 12종, 19세기~1910년 이전 11종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에는 도산서원에서 직접 판각을 하고 간행한 경우도 있었고, 판각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도산서원에 소장된 경우도 있었다. 또 도산서원에서 판각을 하였지만 저자와 관련된 문증으로 옮겨진 책판도 있었다.

예를 들어 광산김씨 문집 3종(운암일고, 근시재문집, 계암문집), 영천이씨 문집 1종(농암문집)이 이에 해당한다.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은 아무래도 도산서원에서 판각하고 이를 인쇄한 경우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약 26종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다른 곳에서 판각되었지만, 도산서원에 목판이 소장된 경우도 필요에 따라 간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출판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서적은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 『송재시집(松齋詩集)』, 『퇴도선생자성록(退陶先生自省錄)』 3종이다.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책은 대체로 문집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족보나 언행록, 명집(銘箴), 경서 관련 주석서나 유학에 관련된 내용이 저술의 대부분이다. 감영에서 간행된 서적들이 주로 경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위주였던 것에 비해서는 문집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비교된다. 경상감영의 경우 현재 파악된 18종 4,205장의 영영장판 가운데 14종이 사서삼경 관련 책판이었으므로 경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목판의 간행본에서도 약 233건의 목판 가운데 사서삼경류만 14종 44건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⁶⁾

도산서원의 이러한 출판 경향은 경상도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의 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경상도의 서원에서 간행한 판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문집 142종, 전기류 43종, 유가류(儒家類) 30종, 경서(經書) 16종, 법첩(法帖) 16종, 사서류(史書類) 10종, 족보류 8종, 원지류(院志類) 7종, 동몽류(童蒙類) 2종, 기타 3종이다.⁷⁾ 여기에서 보면 문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류 역시 서원에 향사된 인물의 실기(實記)이므로 서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기록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서적 가운데 대표적인 문집은 『퇴계선생문집(退溪先

6) 경상감영과 여타 감영에서 출판된 서적에 대해서는 정재훈,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출판문화」, 『영영장판과 영남의 출판문화』, 2017, 경북대학교 출판부, 27쪽.

7) 장인진, 「경상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출판에 끼친 영향」, 『한문화연구』 17, 2003.

生文集』이다. 이황과 관련된 문집은 이외에도 『퇴계선생속집(退溪先生續集)』과 『퇴도선생자성록(退陶先生自省錄)』,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등이 있다. 이황이 편한 서적으로서 청량산에 관한 시문을 모은 『오가산지(吾家山誌)』와 주자의 편지를 모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도 있다. 또 이황의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李瑀, 1469~1517)의 문집과 『송재집속집(松齋集續集)』이 있으며, 이황의 형인 이해(李滢, 1496~1550)의 『온계일고(溫溪逸稿)』도 있다.

다른 사람의 문집으로는 이황의 제자인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의 『월천문집(月川文集)』과 또 제자인 치재(恥齋) 홍인우(洪仁祐, 1515~1554)의 『치재선생유고(恥齋先生遺稿)』, 이황의 선배인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농암문집(農巖文集)』 등이 이황과 관련이 있다. 이황의 후손의 문집도 3종이 있다. 이황의 손자인 이안도(李安道, 1541~1584)의 문집인 『몽재문집(蒙齋文集)』, 이황의 9세손 후계(後溪)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의 『후계집(後溪集)』, 그리고 이안도(李安道), 이수연(李守淵), 이세정(李世靖) 세 사람의 시문을 모은 『계산세고(溪山世稿)』도 있다. 여기에는 권1~2의 『몽재일고(蒙齋逸稿)』, 권3~4의 『청벽일고(靑壁逸稿)』, 권5~6의 『만호일고(晩湖逸稿)』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이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광산김씨의 문집이 3종 있는데, 운암(雲巖) 김연(金緣, 1487~1544)의 『운암일고(雲巖逸稿)』,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 1555~1593)의 『근시재문집(近始齋文集)』, 계암(溪巖) 김령(金鈴, 1577~1641)의 『계암문집(溪巖文集)』이 이에 해당한다.⁸⁾

위와 같이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문집은 모두 37종 가운데 19종을 차지한다. 대체로 이황 자신의 문집이거나 이황의 친족, 제자, 선후배의 문집이 대

8) 광산김씨의 문집 3종이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점은 눈에 띄다고 할 수 있다. 김연은 이황보다 먼저 태어난 사림계 인물로 도학적 정신을 보여주며, 김해는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충절과 학문을 겸비하였으며, 김령은 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후학으로서 모두 퇴계의 학문적 계승 또는 학통과 연관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부분을 차지하여 도산서원에서 차지하는 이황의 위상을 짐작하게 해 준다.

경학 혹은 유학사와 관련된 서적 역시 이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황이 저술한 『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의 경우 중국의 성리학을 정리하는 저술로서 중국학술사에 대한 조선학인의 정리이면서 동시에 주자학이 어떻게 확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이기도 했다. 이황은 이 저작을 통해서 남송에서 명나라까지 성리학의 경험을 정리하고 조선의 사대부들이 근거할 수 있는 성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남송의 성리학을 주목하였다.⁹⁾

금응훈(琴應熏, 1540~1616)이 간행한 『경서석의(經書釋義)』의 경우 이황이 삼경과 사서에서 난해한 구절을 뽑아서 선학의 주석을 종합하고 여기에 제자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서적이다. 이황이 만든 초고를 금응훈이 수습하여 교정하고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도 이황이 은주(殷周) 때부터 원나라 오징(吳澄) 때에 이르기까지 옛 성현의 가르침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모두 25명 78편의 명(銘)과 잠(箴)을 뽑아서 편찬한 것이다.

이황 문인(門人)들의 명단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은 이황의 문인록이다. 이황의 문인인 권두경(權斗經, 1654~1725)이 약 260여 명의 문인을 정하여 편찬한 『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을 편찬한 데에서 출발한 이 책은 이야순(李野淳, 1755~1831)이 정리한 이후 309인으로 완성한 본을 간행한 것이다.¹¹⁾

이와 같이 경학 또는 유학사와 관련된 서적 역시 이황의 직접 저술에서 출발한 것이 간행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황의 학술적 면모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출판활동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20세기 초에 간행된 문인록 역

9) 정재훈,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관과 정치사상」, 『역사문화논총』 2, 2006, 11~12쪽.

10) 전재동, 「퇴계학과 經傳註釋의 전승과 論語釋義」, 『국학연구』 25, 2014, 177쪽.

11)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2000, 2~9쪽.

시 이황의 문인들의 규모를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이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산서원이 협조한 출판활동

도산서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적을 간행하는 출판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출판활동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활동을 하였다. 서적을 간행할 때 영남지역의 다른 서원이나, 향교, 서당 등에서 도산서원에 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황과 관련된 문집을 간행할 때에 도산서원에 도움을 요청한 예이다. 정유년에 병산서원의 도유사(都有司) 김종도(金宗道) 등 78명이 『퇴계선생문집』을 중간할 때에 도산서원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통문(通文)에서 “간행한 시대가 오래되어 판본이 누락되고 자획은 이지러져 간행하여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 원근의 유림들이 함께 근심하고 탄식했으나 중간(重刊)하기에는 겨를이 없고 전하여 배포하는 것도 널리 하지 못했습니다.”¹²⁾ 따라서 간행하는 일에 재물과 힘을 모으고 이에 앞서 대략 1,000여 권에 이르는 내용을 교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병산서원만이 아니라 다른 서원에서도 이황과 관련된 서적을 간행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음에서 보이는 고산서원에서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를 간행할 때에 보낸 통문의 경우 도산서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이다.

앞드려 생각건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선생께서 편찬하신 『퇴도선생서절요(退陶先生書節要)』는 일부가 『자양서절요(紫陽書節要)』에 있습니다. 그러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 대대로 서두르지 못했습니다. … 예전 무자년과 기축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여 파정(爬定, 소임을 나누어 정합)하는 것

12) 〈通文〉 丁酉正月 日 屏山書院

을 거론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불행히도 세상일이 침심(侵尋, 점점 앞으로 나아감)하여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 어렵고 재력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이 지연되었고,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 본당의 회의로 인하여 다시 예전에 의론했던 것을 알리니,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뜻을 함께하여 올겨울에 판각 작업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부득불 일을 먼저 결정하고 우러러 아웁니다. 모든 존위(尊衛)의 뜻에 달려 있으니,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천만다행한 일일 것입니다.¹³⁾

1898년 고산서당에서 도유사 류건호(柳建鎬) 등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이 저술한 『퇴계서절요』의 간행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책이 『주자서절요』에 짝이 될 만큼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간행되지 못하다가 1888~9년 사이에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고산서원이 중심이 되어 논의를 일으켜 1898년 겨울에 판각작업을 마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당시 지역의 유림인 류연박(柳淵博), 권세연(權世淵), 류필영(柳必永), 김흥락(金興洛) 등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출판작업은 순조롭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출간사업이 지연되자 1899년 2월에 경광서당(鏡光書堂)의 명의로 권세연 등 9명이 『퇴계서절요』 간행에 다시 도산서원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광서당에서는 공역이 많이 늦어지므로 3월 22일에 봉정사(鳳停寺)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이 모임에 도산서원에 참여를 당부한 것이었다.

한편 도산서원은 다른 서원에서 간행하는 문집에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그 내용에도 관여하기도 하였다. 1901년 삼계(三溪) 회중에서 보낸 통문에 따르면, 김조영(金祖永) 등 19명이 진행 중인 간행사업에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도산서원에서는 힘을 보태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여 이를 따를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¹⁴⁾

13) 〈通文〉 右通文 陶山書院 戊戌十月 日 손숙경, 앞의 책(2012), 241쪽 재인용.

14) 〈通文〉 ‘通文右文爲回論事’, 손숙경, 앞의 책(2012), 245쪽 주)45 재인용. 이하 아래 사례도 245쪽 참조.

간행하는 서적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비단 도산서원의 일방적인 요청에서 이루어지도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서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허목(許穆)의 문집인 『미수기언(眉叟記言)』의 중간(重刊)을 둘러싼 논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간을 두고 1905년 의령의 이의정(二宜亭) 간소(刊所) 명의로 김재영(金載永) 등 64명이 내용의 일부를 수정 편집하기 전에 의견을 구하는 통문을 보냈던 것이다. 『미수기언』에 실린 간찰은 원래 허목의 편지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인용한 것으로서 조식(曹植)과 이정(李楨)에게 피해를 주는 글들이 있기에 이를 누락하기로 하면서 도산서원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에 관해 1906년 사천의 대관대(大觀臺)에서는 회소(會所)의 명의로 최기환(崔幾煥) 등 15명이 통문을 도산서원으로 보내 의령에서 중간하는 『미수기언』이 예전 나주에서 판각한 구본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조식과 허목에게 누가 되었다는 뜻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일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문집을 간행하는 데에도 도산서원의 의견을 구할 정도로 도산서원의 학문적 위상과 영향은 출판활동에도 반영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향교에서 이루어진 서책의 간행에도 도산서원은 도움을 준 경우가 있었다. 1899년 7월 20일에 상주향교에서는 공무원(公事員) 이시형(李時馨) 등 44명은 류주목(柳疇睦, 1813~1872)이 지은 『전례유집(全禮類輯)』의 판각을 위해 모이기로 한 도회(道會)에 도산서원에서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류주목은 38권이나 되는 예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판각이 3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빠른 진행을 위해 군위에서 도회를 가지자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도산서원은 다른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출판활동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 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집의 간행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집의 간행까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간여는 다른 서원의 도움 요청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도 있었지만, 내용의 수정까지 참여하는 등 적

극적인 간여도 있었다. 또한 서원뿐만이 아니라 서원 이외의 단체, 모임이나 심지어는 향교에서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출판활동에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기도 하였다.

Ⅲ. 영남 지식네트워크의 형성

1. 지역 독자의 학문 기반 강화

서원에서 이루어진 출판 활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문집류가 다수를 이루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전기류와 유가류의 서적이다. 대체로 서원에 모셔진 인물과 관련된 서적이 출판이 주된 대상이었다. 도산서원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특별하였다. 당대부터 학문적으로 종장의 위상을 가졌던 이황을 모신 서원이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황의 문집인 『퇴계선생문집』은 영남 남인의 학문적 원천이자 기초가 되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퇴계선생문집』은 도산서원에서 지속적으로 출간되는 서적에서도 핵심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원래 『퇴계선생문집』이 처음부터 도산서원에서 편찬된 것은 아니었다. 1570년(선조3) 이황의 사후에 곧바로 시작된 이황에 대한 추송작업은 세 가지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묘도문자(墓道文字)의 찬술, 문집의 편찬, 각종 제의(祭儀)의 마련 등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문집의 편찬은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다.¹⁵⁾

문집 편찬의 실질적인 일은 처음에는 예안의 역동서원(易東書院)에서 주도하여 수행하였다. 예안은 이황이 태어난 곳이며,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만년에 도산서당을 지어 문인들과 함께 공부한 곳이었으므로 다른 어느 곳,

15) 정만조, 「서원, 조선 지식의 힘」,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27쪽.

특히 안동보다도 문인, 제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황의 사후 초기에는 예안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문집의 편간이 이루어진 것이다.¹⁶⁾

조선시대의 문집의 편찬과 간행에서 단지 ‘문(文)’은 개인의 문학적 혹은 문화적 성과로서만이 아니라 도학적(道學的) 진리를 담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었다. 특히 이황의 문집인 『퇴계선생문집』은 조선의 문집 편찬사에서 볼 때 그러한 도학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당대(唐代)까지 문이 문학적 성취와 함께 인간과 자연을 관통하는 도를 담지하고 선양하는 것으로 인식된 것에 비해, 송대에서는 문은 도를 실어나르는 도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문보다 도를 강조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¹⁷⁾

『퇴계선생문집』의 편찬은 대체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579년의 초초본(初草本), 1586년의 중초본(中草本), 1599년의 정초본(定草本)이 그에 해당한다. 초초본의 경우 역동서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이황의 손자인 이안도(李安道, 1541~1584)와 조목(趙穆) 등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이 작업에는 이황의 제자인 금난수(琴蘭秀, 1530~1604), 구봉령(具鳳齡, 1526~1586) 등도 참여하였다.

중초본은 편집에 대한 특정한 원칙이 없었던 초초본에 비해 어느 정도의 편집 방침을 마련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편집 작업은 1580년 이안도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1584년에 그가 별세한 후에 조목이 주관하여 1차 완성하였다. 여기에 다시 김성일(金誠一)과 류성룡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참여하여 40책으로 완성하였다.

정초본은 1600년에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대본이 되었던 최종적

16) 문집에 비해 이황의 연보를 편찬한 쪽은 류성룡을 대표로 하는 안동의 문인들이 담당하였다. 조목이 이황의 전 생애를 조망한 「언행총록(言行總錄)」을 찬술하였지만, 문집의 편찬과정에서 소외된 안동지역 문인들에 대한 배려의 결과 이황의 연보는 류성룡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17) 문석윤, 『『退溪先生文集』에서 『定本 退溪全書』,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 300~301쪽.

인 정리본이다.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 1555~1593), 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 1542~1593) 등이 편집 작업에 참여했으며, 조목에 의해 1592년 여강서원(廬江書院)에서 간행하려다가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다. 1598년 조목에 의해 다시 추진되었는데, 도산서원 원장인 김기(金圻, 1547~1603)가 1599년 정초본을 만들어 다음 해에 목판본 49권 30책의 『퇴계선생문집』을 간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간행과정은 이황이 남긴 글을 통해 스승의 학문과 업적을 정리하려는 제자, 문인들의 노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황의 학문을 도학의 관점에서 정전(正典)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학문공동체로서 문인 집단이 학파로서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되었다.¹⁸⁾ 이황의 직계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문집은 이 과정에 참여하였던 제자, 문인들이 이황의 적전(嫡傳)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문집의 편찬 과정에서 그 주도권을 놓게 문집 편찬의 방향을 두고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¹⁹⁾

1600년 목판본(경자본)의 간행 이후에도 목판본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해 속집(續集)의 편찬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746년부터 이수언이 시도하여 만든 것과 1869년 이황의 후손인 이휘부(李彙溥, 1809~1869)가 주도하여 만든 번남본(樊南本)이 그것이다.²⁰⁾

이황의 문집은 편찬과정에서 이미 이황의 제자,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간행된 이후 이황의 학문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영남

18) 신승은, 「한국 문집의 특징과 『퇴계선생문집』 편찬간행의 의미」, 『定本 退溪全書』 편찬사업 제1차 심포지움 자료집』 4쪽, 2017.

19) 『퇴계선생문집』의 편찬 과정에서 문인, 제자 사이에서 두 가지의 입장 대립이 있었다. 즉 조목을 중심으로 한 예안의 제자그룹은 모든 글을 다 실어야 한다는 전고수록(全稿收錄)의 입장과, 류성룡을 중심으로 한 안동의 제자그룹은 정수가 되는 글을 실어야 한다는 산절정선(刪節精選)의 입장으로 나뉘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정문, 「『퇴계집』의 編刊과 月川·西厓門派의 성립」, 『조선중기의 文集編刊과 門派 형성』,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20) 『퇴계선생문집』의 속집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문석윤, 앞의 논문(2017), 314~317쪽 참조.

지역의 사상, 학문과 나아가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도산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講學) 활동에서 이황의 학문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서, 기준으로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854년 도산서원의 갑인강회(甲寅講會)에서는 『심경』, 『근사록』, 『주서(朱書)』 등과 함께 『퇴서(退書)』를 강의의 소재로 삼았다. 또 도산서원 원장인 이한응(李漢鷹)의 주도 아래 1850년 청량정사에서 시행된 강회에서 『대학』을 강론하면서 정호, 주희, 황간 등의 중국 학자만이 아니라 이황, 정경세, 한원진 등의 학설도 논의되었는데, 이때 이황의 학설은 곧 그의 문집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황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의 형성에는 위와 같이 이황의 저작이 학파의 학설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이황의 저작이 생산되고 소비되었던 도산서원이 학파의 근거지가 되었던 점은 지역의 독자적인 학문의 시작과 또 그 학파가 여기에서 출발한 것을 의미하였다. 도산서원이 이황에서 시작하여 수백 명의 문도를 가지게 된 것은 퇴계학파의 형성을 의미하였다.

그에 비해 같은 시기에 세워져서 성균관(成均館, 태학)에 버금갈 만큼 대단한 위상을 가졌던 도봉서원의 경우 도산서원에 비해 여러모로 대비가 된다. 이황에 앞서 사림의 종조로 받아들여진 조광조(趙光祖)를 모신 도봉서원은 그 설립 과정에서부터 백인걸을 비롯한 조정의 관인들이 참여하고, 전국의 사림이 호응하여 그 위상이 드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서원을 중심으로 조광조의 문인이 결집하고 학파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²¹⁾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학파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집단은 이황과 도산서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파의 기본 요건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학문적 주장을 정리할 수 있는 학문적 종조가 있어야 하며, 그와 그의 학설을 공유하는 일정한 사람들의 집단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조선에서 성리학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하였다. 이황 이전에 뚜렷하게 학파라고 부를

21) 정만조, 앞의 논문(2012), 55~57쪽 참조.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학문적으로 새로운 자신만의 독특한 학설을 구성한 사람이 없었던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래한다. 16세기 중반에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성리학에 대한 탐구는 이전과는 다른 면이 있었고, 이황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성리학을 제시하였던 것이다.²²⁾

이황 이후 조선에서는 이이를 중심으로 한 율곡학과, 조식을 중심으로 한 남명학과 등이 형성되었다. 또 율곡학과와의 경쟁과정에서 퇴계학파는 17세기 중반 이후 장현광과 정경세를 대체할 새로운 구심으로서 이현일(李玄逸)을 선택하게 되었다.²³⁾ 이러한 과정에서 도산서원에서의 문집의 간행과 출판활동은 바로 영남학파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2. 서원의 학문적 연대 확대

도산서원은 안동만이 아니라 경상도 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학문적 권위와 명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는 출판활동이나 강학과 같은 학문적 연대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강학과 관련하여 다른 서원과 연계한 활동의 경우 역동서원의 강회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1787년(정조 11) 12월 1일에 역동서원에서 실시된 강회에는 다수의 도산서원의 임원과 관련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도산서원에는 이때의 역동강회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강회에 8명이 참례(參禮)하였고, 36명이 참강(參講)하였다.

참례한 8인은 대체로 주로 도산서원의 원로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예를 들어 도산서원의 간행을 주도하였던 상유사 이세원(李世源)은 이수연(李守淵, 1693~1748)을 도와서 『도산지(陶山誌)』를 발간했고, 김령(金玲)의 문집을 간

22)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23)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2008, 67~75쪽 참조.

행하기도 하였다. 또 권상하의 제자였던 이수정(李守貞, 1709~1795)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향내의 여론을 주도하던 사람이다. 이밖에 재임인 이사우(李師愚), 이급(李級) 등도 예안에서 활동하던 인물이다. 참가한 36인은 대체로 예안에서 활동하던 진성 이씨, 봉화 금씨, 광산 김씨 등과 그들의 외손들이었다.

『심경(心經)』을 강론하였던 역동서원에서의 강회는 기록에 따르면 1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모임이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동서원에서 이황이 강론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학문적 유지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모임이었다. 이황의 심학(心學)은 그 주요 대상이었고, 참석자들은 이를 강회에 대해 읊은 시로 표현하였다. 나아가 학림(學廬)을 구비하여 강회를 정례화할 것을 꾀하기도 하였다.²⁴⁾

이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동서원과의 연대이기는 하지만 이황의 학문을 매개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역동서원에서의 강회를 통해 마련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1795년의 을묘강회의 경우 1794년 봄에 정조가 어제 1책과 경서 1질을 도산사원에 하사하고, 또 1795년 2월에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 3책을 하사한 것을 계기로 강회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을묘강회에서 이를 주도한 인물은 산장(山長)인 이구서(李龜書, 1727~1799)로서 이황의 학통에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강장(講長)인 김태익(金台翼, 1736~?)은 정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출사하지 않았는데, 광산 김씨로서 강회를 이끌었다. 박세당(朴世堂)의 후손인 수령 박헌원(朴獻源)이 청강(聽講)으로 참여하였고, 이밖에도 김시찬(金是瓚) 등도 청강으로 참가하였다. 강생(講生)으로는 풍산 김씨, 봉화 금씨, 의성 김씨, 진성 이씨 등을 비롯하여 60여 명이 참여하여 정조가 하사한 『주서백선』과 『대학』을 3일 동안 윤독하였다.²⁵⁾

24) 정순우, 「심학과 이기, 정확을 둘러싼 논쟁들」,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96~106쪽.

25) 정순우, 앞의 논문(2012), 115쪽.

강회는 서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서원 밖의 정사에서도 시행되었다. 1850년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청량정사에서의 강회가 그러한 사례로서 이 강회도 도산서원이 주도하였지만 총 600여 명이 참여하여 다른 서원에 속한 이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의 강회였다. 집례로 참여한 유학(幼學) 이재은(李在闇)은 경주의 동강서원(東江書院)에서 온 인물이다. 또 정종로(鄭宗魯)의 문인으로 상주의 근암서원(近岳書院)에서 활동한 채주옥(蔡周郁)이 사정(司正)으로 뽑혔다. 이밖에도 영덕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던 유학 남유운(南有漣)이 동반수(東班首)로, 조덕린(趙德鄰)의 후손인 유학 조언강(趙彦綱)이 서반수(西班首)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직임에 참여한 인물들도 문경, 선산까지 망라함으로써 청량강회는 실로 영남권의 대부분과 유력 가문이 망라된 대규모의 학술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행사에 도산서원의 원장인 이한응이 추대된 사실은 도산서원이 이 행사의 중심이면서 다른 서원과 영남권의 인사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서원과의 관련은 서책 간행에 대한 협력에서도 잘 보이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도산서원에서 서책을 간행할 때에는 각 지역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도산금문제현록』을 간행할 때 이 책에 수록된 제자의 후손가문에서는 경제적 부조를 했다. 전국에 걸쳐 120여 개 후손의 문중에서는 5냥에서 100냥에 이르는 돈을 부조하여 수천 냥을 모으기도 하였다. 도산서원 역시 각 지역의 서원과 문중에서의 서적의 출간을 돕기도 하였다. 이는 도산서원과 다른 서원이 학문적으로 출판을 매개로 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지역에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이러한 점은 도서의 간행 이후에 행해진 의례에서도 관찰되었다. 도서의 간행이 이루어지면 이를 의례를 통해 공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집과 같이 개인의 저작이라고 하더라도 유림의 고유(告由)와 봉헌 의례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개인의 문집에서 공적인 저작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원에서 이루어진 출판과정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원에 모셔진 향

사 인물이 공적인 의미를 담보하는 사회적 존재로 바뀌게 되고, 서원의 명예나 위세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도산서원의 도서 출판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1733년(영조 9) 도산서원에서 발간한 이황의 『언행록(言行錄)』을 치제(致祭)하는 과정은 한 사례이다.²⁶⁾ 영조는 홍문관 부수찬 정형복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도산서원은 준비를 거쳐서 하루 전에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도산서원의 전교당에서 공사원, 도집례, 직일, 조사 등의 임원을 임명하였다. 안동부사가 주관이 되어 준비를 하여 예관을 맞아 치제를 치렀다. 이러한 과정은 곧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도서가 서원만이 아니라 사회, 나아가 국가의 인정을 받은 데에까지 그 격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였다.

정조대에도 1781년(정조 5) 승정원 좌부승지를 보내 5월 18일 옥산서원, 5월 22일 도산서원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²⁷⁾ 도산서원의 경우 안동부에서 풍기·영천·예안·영양·진부 등의 수령으로 제사를 돕는 제관으로 임명하여 제사를 준비하였다. 제사를 지낸 때는 무려 2,500명이 모였으며 각 관청과 서원에서 부조를 하였다. 이후에도 정조대에 도산서원에서는 몇 번 더 치제를 하였는데, 이때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유생들이 운집하였다.

도산서원에서 이루어진 제사는 이와 같이 도산서원만이 아니라 주변과 경상도 차원에서 많은 유생들이 집결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연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국가에서는 영남 지역을 회유하고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도산서원은 지역의 일개 서원이 아니라 경상도의 서원들을 연대하여 대표하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서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6)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 「(도산서원)치제시일기(致祭時日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27)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4월 23일(병인).

3. 지역 공론장 형성에 기여

도산서원의 위상은 지역에서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도산서원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고 또 이를 소통하며, 때에 따라서는 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원래 서원은 향촌사회에서 사림, 사족들이 강화처이자 사림의 양성소로서의 기능이 주된 역할이었다. 하지만 향촌에서 사림, 사대부들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활동도 적지 않았다.²⁸⁾

예를 들어 사람들이 향촌사회에서 행하였던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인 향약의 경우 서원을 기반으로 서원에 모여서 임원을 선정하거나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다. 도산서원의 경우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이이(李珥)의 해주향약(海州鄕約)에는 이와 관련하여 향약을 입안(立案)할 때 서원에 모여서 하고, 임원 일부도 서원 유생 가운데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 향약의 조직도 처음에 서원에 모여 정중한 의식과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곧 입약(立約)의식 자체를 서원에서 거행하게 한 것이다.²⁹⁾

도산서원에서는 한편 지역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 판단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의서(宜西) 운곡리(雲谷里)의 민인들이 백징(白徵)에 대해 올린 청원서는 관에 호소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효자의 행적을 표창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899년 2월 9일 순흥향교의 명의로 도유사 이인화 등 62명이 선성(宣城)의 효자인 김건규의 행적을 알리는 데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도산서원에 하는 통문을 발송한 것은 도산서원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었다.³⁰⁾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여론을 결집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남만인소

28) 향촌 사회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사림, 사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된 실제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

29)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184~185쪽.

30) 손숙경, 「책으로 헤게모니의 중심에 서다」,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265쪽

(嶺南萬人疏)가 있다.³¹⁾ 영남 만인소는 정조의 특별 지시로 도산서원에서 별시를 본 지 한 달 후인 1792년(정조 16) 4월 27일에 올려졌다. 당시 영남 유림은 금기시되던 사도세자의 신원(伸冤) 문제를 제기하여 2차례에 걸쳐 유소를 상정하였다.

이에 정조는 소수(疏首)인 유학 이우(李瑀)와 전 수찬 김한동(金翰東) 등을 접견하였다. 이우는 이상정의 문인이었고, 김한동은 도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도산서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산서원의 원장 등의 인물이 주도함으로써 도산서원의 역할이 작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도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이 영남만인소를 주도한 경우는 두 차례 더 있었다. 1855년(철종 6)에 유생 이휘병(李彙炳) 등 10,432명이 경모궁(景慕宮)의 추송 전례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경모궁은 장헌세자, 즉 사도세자로서 그의 추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때 소수인 이휘병 역시 진성이씨로서 이이순(李爾尊)의 아들이었는데, 이이순은 1816년, 이휘병은 1856년에 도산서원의 원장을 지냈다.

1881년(고종 18)에도 유생인 이만손(李晩孫, 1811~1891) 등 만 명이 상소를 올렸다. 이는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황준헌의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에 수록된 조선 외교 정책과 연동하여 조정에서 개화자강(開化自強)의 정책을 추진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척사론을 주장한 것이다. 이때 상소의 소수인 이만손은 바로 1855년에 영남만인소를 주도하였던 이휘병의 아들이었다.

영남만인소 외에도 한말에 국권이 위태로운 시기에 항일 운동을 전개하는 데에도 도산서원은 중심에서 공론을 모으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1895년 말에서 1896년 초에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났다. 안동에서도 의병이

31) 이하 영남만인소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 차장집, 「도산서원의 정치적·사회적 역할과 위상」,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 새물결, 2015, 39~41쪽.

1895년 12월 초에 시작되는데, 이것은 단발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895년 11월 15일에 내려진 단발령은 12일이 지나서 안동에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이틀 만에 안동 지역에서는 통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일 먼저 도산서원이 중심이 되는 〈예안통문(禮安通文)〉이 발표되었다. 이후 이를 계기로 〈삼계통문(三溪通文)〉, 〈청경통문(靑鏡通文)〉, 〈호계통문(虎溪通文)〉 등이 하루 이틀 사이를 두고 발표되었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본의 성종과 중종의 왕릉 훼손사건까지 언급하며, 일본의 강압책인 단발령의 부당함에 맞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는 〈삼계통문〉은 이후 예안에서 결성된 선성의진의 토대가 되었다. 선성의병은 〈예안통문〉에 223명이 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도산서원과 관련된 인물이 다수였다.

이와같이 도산서원은 서원이 위치하였던 예안의 향촌사회에서 공론의 소통처이자 집합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특히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론은 단지 논의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향촌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부터, 국가 운영에 대해서, 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공론을 모으는 데에 도산서원은 항상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다.

IV. 맺음말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창건된 조선 중기의 대표적 서원이자, 단지 향촌의 제향 공간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조선후기 영남 지역 지식 담론의 형성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식 생산의 거점이었다. 본 논문은 도산서원의 활발한 출판 활동과 이를 통한 영남 지식네트워크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도산서원이 지역 학문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기능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도산서원이 간행한 서적은 문집류를 중심으로 족보, 유학서, 언행록 등 다

양한 장르에 걸쳐 있으며, 이는 이황과 그의 학문적 계통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계보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출판 활동은 이황의 학설을 집대성하고 정전화(正典化)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퇴계학파의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도산서원의 출판물들은 단지 개인의 문집으로서가 아니라, 도학적 전통을 담지한 공적 지식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사림 사회는 학문적 권위와 명분을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은 서원의 자율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간 서원 네트워크를 통한 학문적 연대와 상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산서원은 병산서원, 고산서원, 경광서당 등과 함께 서적 간행을 위한 통문 교환과 협조를 주도하였으며, 때로는 서적 내용의 편집과 출판 방식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서원 간의 지식 교류와 학술적 연대의 구체적 실천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영남 지역의 학문적 통합과 지식의 공동 생산체제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은 향촌 사회의 공론장 형성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서적 간행 이후 치제(致祭)나 봉헌 의례 등의 공적 절차는 출판물을 단순한 지식의 산물이 아닌, 사회적 인정을 받은 문화 자산으로 재위치시켰으며, 이를 통해 도산서원은 지역 사회의 의제 형성과 여론 결집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은 만인소 운동이나 향일 의병의 통문 활동, 효자 표창과 같은 정치·사회적 실천으로도 이어졌으며, 도산서원이 지역의 도덕적 권위자로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은 단순한 간행 사업을 넘어 학문적 전통의 계승, 지역 간 학술 연대, 향촌 공론장 형성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사회·문화적 실천이었다. 도산서원의 사례는 조선 후기 서원이 단지 교육이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을 넘어서 지식의 생성, 확산, 유통을 아우르는 복합적 지식 기관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조선 유교문화의 실천적 구조와 지역 지식 네트워크의 형성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도산서원제시일기(陶山書院致祭時日記)』, 『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정조실록』

2. 논저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集成과刊行에관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2000.
서정문, 「『퇴계집』의編刊과月川·西厓門派의성립」, 『조선중기의文集編刊과門派형성』,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손숙경, 「책으로 헤게모니의 중심에 서다」,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글항아리.

손숙경, 「조선후기 경상감영의 출판과 간행본의 특징」, 『영남학』 61, 2017.

신승운, 「한국 문집의 특징과 『퇴계선생문집』 편찬간행의 의미」, 『定本 退溪全書』 편찬사업 제1차 심포지움 자료집.

문석운, 「『退溪先生文集』에서 『定本 退溪全書』」,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 板本考」, 『東義論集:인문사회 I』 40, 2004.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민족문화』 58, 2016.

장인진, 「경상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출판에 끼친 영향」, 『한문화연구』 17, 2003.

전재동, 「퇴계학과 經傳註釋의 전승과 論語釋義」, 『국학연구』 25, 2014.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정만조, 「서원, 조선 지식의 힘」,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정순우, 「심학과 이기, 정확을 둘러싼 논쟁들」,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정재훈,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관과 정치사상」, 『역사문화논총』 2, 2006.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2008.

정재훈,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출판문화」, 『영영장판과 영남의 출판문화』, 2017, 경북대학교 출판부.

차장섭, 「도산서원의 정치적·사회적 역할과 위상」,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 새물결, 2015.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Yeongnam Intellectual Network through Dosan Seowon's Publishing Activities*

Jung, Jaehoon**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and role of Dosan Seowon's publishing activities in forming and expanding the Yeongnam Intellectual Network, which was dedicated to commemorating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oegye Yi Hwang (李滉). Dosan Seowon possessed an overwhelmingly large number of woodblocks among the seowon (Confucian academies) in the Gyeongsang reg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By publishing various books, including literary collections and Confucian texts, it functioned as a hub for knowledg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going beyond its simple role as an educational and memorial institution.

Dosan Seowon's publishing made possible the genealogy of knowledge centered on Yi Hwang and his academic lineage. Through the publication of works such as the Collected Works of Toegye (퇴계선생문집), it played a crucial role in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ty of the Toegye School and canonizing Yi Hwang's doctrines.

Furthermore, Dosan Seowon actively cooperated with or intervened in the content of publishing projects undertaken by other seowon and hyanggyo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umanities Korea 3.0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5S1A6B5A02004239)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jinsojung@knu.ac.kr

(local schools), thereby expanding academic solidarity among local Confucian scholars and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a local public sphere. The influence of this intellectual network led to socio-political practices such as the Maninso (萬人疏, ten thousand-man petition) movement, demonstrating that Dosan Seowon functioned as a moral authority and a focal point for public opinion in the region.

In conclusion, Dosan Seowon's publishing activities illustrate its role as a complex intellectual institution with multi-layered significance: the inheritance of academic tradition, academic solidarity among regions, and the formation of a local public sphere. Thi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practical structure of Joseon's Confucian culture.

Key word : Dosan Seowon(陶山書院), Toegye Yi Hwang(退溪 李滉), Publishing Activities, Yeongnam Intellectual Network,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a local public sphere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개항기 도산서원의 정치적 동향

—진성이씨 문중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 윤 정*

- I. 머리말
- II. 영남만인소운동과 도산서원
- III. 전기의병시기의 도산서원
- IV. 의병항쟁과 퇴계종택의 수난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시대 서원은 16세기 이래 사람의 성장과 함께 향촌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강학과 출판이 그 대표적인 활동이다.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대규모의 집단 강회가 이루어졌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건립된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향촌사회 공론화의 장을 넘어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이에 대한 대응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개항기 도산서원은 영남만인소 운동을 주도하며,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위정척사운동은 의병항쟁으로 전환되었다. 도산서원은 전기의병시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의병시기 의병의 본거지였던 청량사와 오산당, 그리고 후기의병기까지 이어지는 퇴계종택의 수난에 견주어 도산서원의 역할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종택을 중심으로 한 문중공동체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항기 의병항쟁사에서 도산서원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도산서원, 영남만인소, 의병항쟁, 진성이씨 문중, 퇴계종택

* 국립경국대학교 인문·문화학부 부교수 / sanman0115@daum.net

I.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16세기 이래 사림의 성장과 함께 향촌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강학과 출판이 그 대표적인 활동이다.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대규모의 집단 강회가 이루어졌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건립된 도산서원은 공론화의 장을 이끌었던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이에 대한 대응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본고는 신사년(1881년)의 위정척사운동과 그 이후 전개한 의병항쟁 시기의 도산서원의 동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만민소 운동을 추동한 도산서원 발의 통문이 알려진 정도에 머문다.¹⁾ 특히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의 움직임과 임원들의 역할은 규명이 되지 못했다. 이는 개항기 도산서원의 동향과 역할을 살피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서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 서술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개항 이후 도산서원의 임원들과 예안의 진성이씨 문중인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진성이씨 문중은 가학을 면면히 이어오며, 이황의 학문과 사상, 지향을 이어왔다. 이들은 문중을 넘어 도산서원이라는 강학 공간을 중심으로 확장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산서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한 시대를 이끌었던 문화의 중심부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성상 개항, 즉 이질적인 문명과 대면하면서 적극적인 저항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저항을 이끌었던 공동체의 구심력은 이황을 정점으로 한 문중공동체가 강하게 작동한 측면이 있다.

1) 이광우, 「안동 유림 李壽琰의 『疏廳日錄』을 통해 본 1881년 嶺南萬人疏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5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60~66쪽.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영남만인소운동과 도산서원

조선후기 안동지역 유림은 일정한 사회·경제 기반 위에서 형성된 동성(同姓) 반촌을 중심으로 현조를 내세워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고, 문집을 간행하는 등 재야유림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향촌 기반 위에 유소(儒疏)를 통하여 시국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개항기 이질적 서구문명과 맞닥뜨린 이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안동인들이 강력한 척사의식을 드러내며, 대규모의 상소운동을 전개한 시기는 척사운동 3기(1880~1881년)였다.²⁾ 도산서원은 이를 이끌어내며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안동과 예안의 유림은 위정척사운동 1기(丙寅·辛未洋擾期; 1866~1871년)와 2기(일본과의 개항기: 1876년)에는 척사의식을 강력한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했다. 위정척사운동 1기, 정재학파의 현실인식은 대외(對外) 문제보다는 병호시비(屏虎是非)의 과정에서 촉발된 서원복설 문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관직에 있었던 이휘발(李龜潑)·권승하(權承夏)·이중진(李中振)에 의해 척사창의의 의론이 일어나긴 하였으나, 척사운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퇴계 이황의 11세손인 이만각(李晩翬, 1815~1874)은 병인양요가 일어나던 시점, 도산서원으로 향내의 선비들을 초청하여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강론하였다.³⁾ 이는 내수(內修)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외세 대항의

2) 위정척사운동은 1기(丙寅·辛未洋擾期; 1866~1871년)와 2기(일본과의 개항기: 1876년), 3기(1881년)으로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다.(박성순, 『朝鮮後期 華西 李恒老의 衛正斥邪思想』, 景仁文化社, 2003, 1쪽.)

3) 권오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03쪽; 이만각은 1830년 이상정의 손자 李秉遠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병원이 죽자 외삼촌인 유치명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위정척사운동 2기에는 일본과 서양의 진출에 대한 위기를 인지하고 척사를 위한 정학의 배양을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 서원복설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 서원복설은 사(邪)에 대항하는 정(正)으로서의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점에서 1기와 차이를 보였다. 이 시기까지 움직임은 주로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 1777~1861)의 후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점차 대외 문제를 인식하면서 화이관(華夷觀) 혹은 인수지별(人獸之別)의 세계관으로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⁴⁾

위정척사운동 3기는 황준현의 『조선책략朝鮮策略』 유입으로 촉발되었다. 1880년 8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이 재야 유림에게 알려지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 정치운동의 형태인 영남만인소로 표출되었다. 그 시작과 중심에 도산서원이 있었다. 1880년 11월 1일 도산서원에서 발의한 「통문(通文)」이 각지로 발송되었다. 발의자는 도산서원 상유사(上有司) 이만손, 재임(齎任) 금정기(琴鼎基)를 비롯한 1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⁵⁾

상유사(上有司) : 이만손(李晩孫), 재임(齎任) : 금정기(琴鼎基)

제통(製通) : 이만협(李晩協), 사통(寫通) : 이만주(李晩疇)

회원(會員) : 전 참판(參判) 이만운(李晩運), 진사(進士) 이증식(李中軾),

전 참봉(參奉) 이증경(李中慶), 진사(進士) 이만걸(李晩杰),

전 교리(校理) 이만양(李晩養), 진사(進士) 이박(李珀),

전 정언(正言) 이중언(李中彦)

위의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도산서원 「통문」의 발의자는 도산서원 임원

4) 강운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149~157쪽; 권오영, 「영남만인소」,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40~355쪽.

5) 도산서원, 「通文」(일본 天理大學 소장); 김희곤 외, 『순절기사 이증언』, 경인문화사, 2006, 176~182쪽

과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표 발의자인 이만손(李晩孫, 1811~1891)은 당시 도산서원 상유사의 직임을 맡고 있었다. 재임으로 기록된 금정기는 1880년 당시 『도산서원 전임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후 1904년 도산서원 유사를 역임하였다. 이만운은 1878년 상유사, 사통 이만주는 1898년 유사를 역임하였다.⁶⁾ 이중언은 1896년 의병에 참여하였으며, 1910년 경숙국치가 있자, 단식 자정한 인물이다.

도산서원 「통문」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하는 내용이다. 청국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수교가 천주교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다르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황준헌은 서양 수괴의 가택을 받은 자임에 분명하다며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둘째는 서양의 재화·농사·교육 등을 배워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셋째, 영남이 앞장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주장을 위해 정조가 내린 ‘선정사유문(先正賜脩文)’의 “비록 이단이 이에 서로 유혹하지만, 영남 일흔 고을이 미혹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 부르니 누구의 공로이겠습니까?”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1880년 11월 25일, 숭보당에서 도회를 연다고 밝혔다.⁷⁾

아, 저 간사하고 속임수를 부리는 무리들은 우리 동방이 천주교를 통렬히 배척하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천주교로 계책을 세울 수 없으므로, 邪蘇의 勸善이라는 한마디 말을 꾸며내어 현혹시키고 國俗을 바꾸려고 도모하였는데, 천주학은 바로 야소교의 명목이니, 어찌 분파가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憲宗大王이 私擬를 배척한 운음에 이르기를 “저 야소라는 것은 비록 사람인지 귀신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무리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천주(天主)가 내려왔다가 죽어서 다시 천주가 되었다고 운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6) 『도산서원 전임안』 (이광우, 「안동 유림 李壽琰의 『疏廳日錄』을 통해 본 1881년 嶺南萬人疏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5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7) 도산서원, 「通文」.

지난달 筵席에서 하교하기를 “하늘이 어찌 이런 무리를 내어 천하에 횡행하게 하였는가.”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 시여! 우리 성상께서 바른 것을 붙들고 사특한 것을 억제하는 의리가 이와같이 지극하시니, 그 뒤에 묘당의 의논과 조처는 과연 유풍을 이어 化教를 펴고 斯文을 위호하는 충언과 嘉謨가 있었습니까? 아, 우리 正宗大王 정조께서 친히 선정의 賜脩文을 지으시기를 “비록 이단이 있어서, 서로 그른 말로 속였으나, 교남의 칠십 고을 가운데, 한 주도 추향이 혼미하지 않았네. 이는 이른바 추로의 고장이니, 곧 누구의 공이던가.”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大嶺이 선조의 장려하는 말씀을 받았고 先正의 남긴 가르침을 복용하였으니, 돌아보건대 어떠하겠는가? 아, 운세가 陽九를 만나 온 세상이 陸沈하였으나, 한 가닥 문명의 기운이 우리 동방에 있으니, 이것을 서로 빠져서 어렵게 하고 없애버리고야 말 수 있겠습니까. 선비가 되어 우리 도를 위하여 죽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에 의론은 모여서 뜻을 모아 疏를 지어 대궐에 호소하여 사특함을 배척하는 일을 이달 25일에 안동의 崇報堂에서 道會를 열기로 정하여 뜻을 함께하는 참존 군자들에게 고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많이 많이 오셔서 기한을 정하여 일을 이루는 장소로 삼는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경진년(1880) 11월 도산서원

「통문」에 명기된 날짜가 되자, 영남지역 유림이 안동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기일 내 도착하지 못한 유림이 많아 하루를 더 기다렸다. 모인 사람이 800여 명에 이르자, 11월 27일 안동향교에서 도회가 열렸다. 장소는 당초 공지했던 숭보당에서 안동향교로 바뀌었다. 좌상(座上)은 이만화(李晩華), 진사 류효목(柳孝睦), 이수경(李秀愨)이 맡았다. 조사(曹司)로 최시술(崔蓍述)·강유(姜鑰)·황재훈(黃在薰)·류필영(柳必永)·권술봉(權述鳳)·이수악(李壽岳)·이능기(李能琦)·이병훈(李炳薰)·이정호(李定鎬)·류도기(柳道器)가 차출되었고, 공사원(公事員)에 김석규(金碩奎)·김양진(金養鎭)·김상흠(金尙欽)·박재홍(朴載洪)·하현원(河顯源) 등이 천거되었다. 소수(疏首) 후보로는 이만손·이재소(李在韶)·이진상이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이만손으로 결정되었다.⁸⁾ 안동도회

8) 『소청일록』, 경진 11월 25~26일.(이광우, 「안동 유림 李壽琰의 『疏廳日錄』을 통해 본 1881년 嶺南萬人疏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5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04쪽에서 재인용) ;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

는 신사(辛巳, 1881)년 첩사 영남만인소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영남만인소의 움직임이 공론화되자, 여러 유림이 소(疏)를 작성하였다. 그 가운데 영남 유림이 선택한 상소문은 강진규의 「위정척사소초(衛正斥邪疏草)」이다. 조정에 제출된 영남만인소는 최종적으로 강진규의 초안을 바탕으로 공론을 모은 것이었지만, 그 근거에 흐르는 의식은 도산서원 통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⁹⁾ 이 소(疏)에는 당시 안동지역을 비롯한 영남유림의 현실인식과 대외관이 담겨있다. 영남만인소에 나타난 영남유생의 현실인식은 ‘인수지별(人獸之別)’에 입각한 화이관에 근거하였다. ‘예수교가 이(夷)의 종족들에게서 전파되어 윤리와 강상(綱常)이 소멸되니 금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영남만인소 시기,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은 서구를 서학과 동일하게 인식했고, 화이관에 입각하여 서구를 이(夷)보다 못한 금수로 파악하였다. 「영남만인소」에 드러난 대외관은 중국을 제외한 일본·미국·러시아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 논지였다.¹⁰⁾

Ⅲ. 전기의병시기의 도산서원

위정척사운동의 흐름은 1894년 갑오변란을 시작으로 의병항쟁으로 전환되었다. 첫 의병은 1894년의 갑오의병이었지만, 안동유림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895~1896년이었다. 안동유림은 갑오·을미개혁기 의리에 입각한 척왜(斥倭)의 논리로 현실을 인식하였고, 그에 따른 거의(舉義)로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화이관에 근거하여 일본을 이(夷), 혹은 금수(禽獸)로 규정하

업사, 2007, 61~62쪽.

9) 영남만인소는 3월 하순까지 김조영金祖永을 소수로 2차, 김석규를 소수로 3차, 김진순金鎭淳을 소수로 4차 상소까지 이어졌다.

10) 강운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149~157쪽; 권오영, 「영남만인소」,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40~355쪽.

였으며, 이러한 인식 아래 일본의 침탈을 도(道)의 위기로 파악하고, 의병항쟁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예의문명에 대한 강한 자존의 표현임과 동시에 성리학적 도(道)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가야 할 대의의 길이었다. 이는 안동 전기의병에서 일관되게 공유된 의식이다.

안동 갑오의병은 한국근대시기 최초의 항일의병으로 이를 주도한 인물은 제천 유생 서상철(徐相轍)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의 휘하에서 활동한 병사층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서산 김홍락, 향산 이만도는 거의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서상철의 인물 됴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군사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1894년 안동갑오의병은 서상철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중엽(李中業, 1863~1921)의 행장에 따르면 1894년 도산서원 시사단에 모여서 거의를 도모하는 상황이 포착된다. 고종이 밀사 이용호를 파견하였고, 이에 응하기 위해 이만도와 이중엽은 동학도를 막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거의를 시도하였으나, 이용호가 체포되면서 중단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갑오변란 이후 도산서원 시사단에 예안유림을 중심으로 의병거의가 시도되었음을 알려주는 의미있는 내용이다.

갑오년에 南敵(일본 : 필자주)들이 궁궐을 침범하여 재앙의 조짐이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에 주상이 近臣인 李容鎬를 은밀하게 三南에 보내 士民들에게 창의하여 入授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용호는 군명을 받들어 영남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먼저 향산을 찾았다. 향산은 교지를 받들고 통곡하고 종족과 향인들과 도모하기를 東學徒를 막는다 청탁하고 시사단에 모여 논의를 하였다. 오래지 않아 이용호가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궁궐에 미칠까 두려워하여 중단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의 대응은 君이 좌지우지하였다.¹¹⁾

이어 1895년 을미사변이 있자 이중엽은 적신을 토벌해야 한다는 「당교격

11) 이중엽, 『기암유고』, 여강출판사, 1986, 574~575쪽.

문(唐橋檄文)」을 지어 원근에 배포하며, 유림의 거의를 중용하였다.¹²⁾

다음 글은 눈물을 쏟으면 알리는 격문입니다. 삼가 다음과 같이 아뢰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섬기는 것은 백성의 떳떳한 성품으로 하늘과 땅이 다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 도적을 치는 것은 春秋의 大義이니, 해와 별이 모두 창공에 훤히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적의 화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오늘의 왜적보다 심한 것이 없고, 역적의 신하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을까마는 어찌 오늘날 十凶과 같았겠습니까. (중략) 아! 팔월의 변고(을미사변-필자주)를 또 어찌 차마 말하리오, 어찌 차마 말하리오. 30년 母位가 텅 비었고, 천만세의 윤리 강상이 끊어지니, 犬戎과 금나라 같은 저 오랑캐를 다시 볼 줄 어찌 생각조차 했겠으며, 秦檜나 申侯같은 간신배들과 어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무릇 우리 이씨의 신하 백성된 자들은 실로 마땅히 피를 토하고 눈물을 삼키며, 제 한 몸을 잊고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해, 이미 떨어진 三綱을 붙잡고, 망하여 가는 종묘사직을 보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넓고 큰 팔도에 일찍이 한 사람도 떨쳐 일어나는 자가 없단 말입니까. (중략)

수개월 동안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찌 의군을 일으키자는 한 마디 목소리조차 없단 말입니까. (중략) 때로 치자면 이미 임박해진 5월의 시기를 잃어서는 안되고, 일로 치자면 한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함을 어찌 다시 의심하겠습니까? 성패와 화복을 따지지 않겠다고 해도 공적만 셈하고 이익을 도모하려는 마음이 더러는 생길 수도 있고 치자와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금을 버리고 아버지를 미워두는 폐단이 필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만일 목숨의 보존과 의리의 실천을 분간하지 못하면 장차 인간과 금수조차 그 구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중략) 한번 호령함에 많은 선비들이 바람처럼 파르고, 격문을 사방에 날려 열음이 구름같이 모인다면 대의를 떨칠 수 있을 것이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倭夷의 목을 베고, 심흉의 고기를 씹어, 위로 군부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 의관을 더럽힌 치욕을 씻게 된다면 천만 행심입니다. (『당교격문』 중에서)¹³⁾

12) 이중엽, 『기암유고』, 여강출판사, 1986, 23~24쪽.

13) 이중엽, 『기암유고』, 여강출판사, 1986, 23~24쪽; 김희곤, 「起巖 李中業의 독립운동과 역사적 위상」, 『기암 이중엽의 학문과 독립운동』(2021년 역사인물선양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국학진흥원, 15~17쪽. 박민영, 『거룩한 순국지사 향산 이만도』, 지식산업사, 2010, 145~150쪽; 이택동, 「起巖 李中業論」,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98쪽 참조.

이중업은 「당교격문」에서 ‘왜적’과 ‘왜적을 끌어들이 역적의 신하’로 인해 강상과 종묘사직이 무너지는 폐해가 어느 시기보다고 크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모 시해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변고인데, 이후 수개월 동안 눈치만 보며 의군(義軍)을 일으키자는 한 마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동과 예안 지역이 여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시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의군은 승패나 화복을 떠난 정당한 의리이자, 사람의 마땅한 길이라고 역설하며, 변고 이후 5개월로 접어드는 12월에는 반드시 거의를 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이중업의 「당교격문」은 을미사변에 대한 대응 논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까지 안동지역 의병의 첫 움직임은 단발령 공포 이후인 것으로 정리되어 왔다. 그런데 「당교격문」은 안동지역에서도 을미사변에 대응한 거위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¹⁴⁾

이후 단발령이 있자 안동과 예안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거의가 잇달았다. 예안을 비롯한 안동지역에서 본격적인 거의가 시작된 것은 1895년 12월 단발령 이후이다. 전기의병은 읍(邑, 고을)을 단위로 결성된 특징을 보였다. 당시 안동과 예안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었던 안동지역에서는 선성의진(예안의진)과 안동의진이 별도로 구성되었다.

1895년 11월 27일(양 1896. 1.11) 단발령 문서가 안동에 도착하자, 이를 뒤인 29일(양 1.13)부터 통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예안통문」은 안동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895년 11월 29일(양 1896.1.13)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발령이 예안에 도착한 날이 1896년 1월 11일(음력 1895.11.27)이었다. 단발령 시행 2주일쯤 지난 뒤였다. 안동지역에서 나온 통문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하루 이틀 사이이긴 하지만, 예안통문이 앞섰다.¹⁵⁾

14) 강윤정, 「제1차 유림단의거와 이만규·이중업의 활동」, 『기암 이중업의 학문과 독립운동안동학연구』, 안동시·한국국학진흥원, 2014, 152~156쪽.

15) 안동문화권 전기의병 관련 통문으로는 1. 禮安通문 : 1895년 11월 29일(양

「예안통문」은 도산서원과 안동향교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안동부 제 2사판위원(第二查辦委員)이 1896년 1월 24일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安東 虎溪書堂과 三溪書堂, 禮安 陶山書院에서 通文을 發ᄃᆡ야 本府로 士林이 會集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¹⁶⁾ ‘예안의 도산서원’이라는 문구로 보아 도산서원에서도 통문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통문과 사료는 주로 「예안향교통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안통문에는 모두 223명이 서명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자 7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예안 유생 이만응(李晩鷹)·금봉렬(琴鳳烈, 혹은 琴鳳述), 목사 이만운(李晩胤), 진사 김수현(金壽鉉), 교리 이만효(李晩孝), 승지 이중두(李中斗), 승지 이중봉(李中鳳)이 그들이다.¹⁷⁾ 금봉렬과 김수현을 제외하면 모두 진성

1896.1.13.) 2. 三溪통문 : 1895년 12월 1일(양 1896.1.15) 3. 靑鏡통문 : 1895년 12월 1일(양 1896.1.15.) 4. 靑鏡사통 : 1895년 12월 1일(양 1896.1.15.) 5. 虎溪통문 : 1895년 12월 2일(양 1896.1.16.) 6. 安東의병대사격문 : 1895년 12월 7일(양 1896.1.21.)이 알려져 있다. (김희근, 「西山 金興洛(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5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0, 9~10쪽.

- 16) 「報告書 第八號」(1896년 01월 24일) 本月 十四日에 禮泉郡에 抵ᄃᆡ야 聞ᄃᆡ온 則 安東 虎溪書堂과 三溪書堂과 禮安 陶山書院에서 通文을 發ᄃᆡ야 本府로 士林이 會集ᄃᆡ다더니 十六日에 河回村居ᄃᆡ는 柳都事 道性이가 族四十餘名을 率ᄃᆡ고 同面各姓人百餘名을 倡起ᄃᆡ야 豐山市店으로 先會ᄃᆡ야 定論ᄃᆡ고 相率入府ᄃᆡ 則 金溪村居ᄃᆡ는 金承旨興洛이가 同爲入府ᄃᆡ고 府中吏校가 亦爲響應ᄃᆡ야 聲勢甚壯ᄃᆡ 故로 翌夜에 觀察使逃避ᄃᆡ 則 警務官과 主事諸人이 亦盡避散ᄃᆡ고 獨參書官 金斗明이가 委曲觀勢次로 會席에 參ᄃᆡ앗다ᄃᆡ오며 會席議論인 則 倡義討日ᄃᆡ야 使全嶺人으로 不得斷髮이오며 倡義大將인 則 柳를 薦ᄃᆡ니 以九十侍下로 辭ᄃᆡ고 金을 薦ᄃᆡ니 以病喉聲沉으로 辭ᄃᆡ고 西谷里居ᄃᆡ는 權參奉世淵을 出ᄃᆡ야 登壇ᄃᆡ옴고 禮安居ᄃᆡ는 李氏로 都統領을 爲ᄃᆡ고 河回居ᄃᆡ는 柳氏로 管糧官을 爲ᄃᆡ고 本府居ᄃᆡ는 權吏로 參謀官을 爲ᄃᆡ야 安奇驛廩로 大將所를 爲ᄃᆡ고 各府各郡에 發關ᄃᆡ야 軍丁을 調發ᄃᆡ고 兵器를 團束ᄃᆡ다더니 十八日에 龍宮郡에 抵ᄃᆡ야 關文을 得見ᄃᆡ온 則 果然 辭意甚峻ᄃᆡ오며 又幽谷丞의게 私通ᄃᆡ 辭意를 見ᄃᆡ온 則 云云本外驛所在馬匹數와 人夫姓名을 修報ᄃᆡ라ᄃᆡ고 此亦中查辦官이 到界커든 逐出境外ᄃᆡ엿스오니 查辦官이 彼輩에게 有何相關이리요 必是存驛用馬ᄃᆡ 意라 因此ᄃᆡ야 驛民의 舉行이 懈緩ᄃᆡ야 查務가 甚難ᄃᆡ와 極爲悶鬱ᄃᆡ옴기로 茲에 報告ᄃᆡ오니 照亮ᄃᆡ시를 要.

이씨이며, 이들 대부분은 도산서원 임원을 역임하였다. 이만응은 진성이씨 상계파로서 영남만인소 소수였던 이만손(李晩孫)의 생가 동생이다. 하계출신의 이중두는 1896년 거의 당시 도산서원 유사였다. 의인출신 이만윤은 1893년 도산서원 상유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중봉은 온혜 용계출신으로 1904년 도산서원 유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1차 선성의병의 부장에 이어 2차 선성 의진의 대장이 된 이중린(李中麟)의 동생이다.¹⁸⁾

통문의 내용은 당시 정국에 대한 극명한 우려와 함께 죽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죽음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윤리와 강상이 변화하는 형국을 맞아 몸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리론이 깔려있다. 이 시기까지 정재학파는 일본의 침략 상에 대한 인식보다는 단발령이 선포되면서 예의와 법도가 무너지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예안 유림은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초하여 의병 거의의 당위성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 의하여 안동부 향교에서 열리는 향회에 참여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¹⁹⁾

사람으로서 짐승이 되란 말인가. 천지간에 강산이 이미 무너지고, 문명국으로서 야만이 되란 말인가. 부모의 유체를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의복을 없애버리는 날, 본인들이 비록 피를 토하고 눈물을 마시는 원한을 이기지 못했으나 權柄의 중요한 자리는 흉적이 차지하고 대궐의 측근에는 왜놈들이 붙어 있어 종묘사직은 조석으로 위태하고 임금님은 망칙한 처지에 계시므로 놀려 참고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 임진년에 우리 陸墓를 침범한 깊은 원수를 갚지 못하고 또 금년 8월에

17) 金祥起, 「在元山領事 報告」, 『韓末義兵資料』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81~82쪽.

18) 『도산서원 전임안』(이광우, 「안동 유림 李壽琰의 『疏廳日錄』을 통해 본 1881년 嶺南萬人疏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5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김희곤 외, 『순절지사 이중언』, 경인문화사, 2006, 36쪽.

19) 강운정,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72~73쪽

우리 국모를 시해한 큰 변이 일어났는데, 우리 국모를 폐위(廢位)하고 복위(復位)하는 것도 그 놈들 손에 있고, 우리 신민(臣民)에게 복을 입히는 것도 그 놈들 마음대로 하니 우리나라를 너무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방자하고 흉악함은 날로 심하여, 더구나 임금의 머리를 깎게 하고 국중에 마침내 석발령을 내리니, 아! 원통합니다. 고금천하에 오늘날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릇 우리나라 백성 치고 누구나 다 그 놈들의 살을 찢고 놈들의 배를 쪼개고 싶은 심정인데,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강압으로 내려진 명령에 복종한다 말입니까. 목숨은 나라에 바쳐 뼈가 가루되고 싶으나, 머리털은 부모에게 받았으니 어찌 죽음이 두려워서 중의 대가리가 된단 말입니까.

이 머리털을 한 번 깎으면 선왕의 백성이 모두 오랑캐의 노이 되고 鄒魯와 같은 옛 나라가 다 금수의 지역에 들어갈 것이니 차마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일은 시각을 다투는 것이라 시일을 천연할 수 없은즉, 양심이 치미는 곳에 어찌 원근대소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죽기로 맹서하고 대략 계획을 세운 바 있으니, 바라건대 여러분께서 각기 의기와 용맹을 떨치어 함께 나아가 성토할 기회를 마련하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을미 12월 일 發文. 李晩鷹·琴鳳述, 牧使 李晩允, 進士 金壽鉉, 承旨 李中鳳²⁰⁾

선성의진은 1895년 12월 9일(양 1.23) 결성되었다. 이후 해산과 재결성을 반복하며, 4명의 대장이 취임하였다. 대장 이만도가 이끌었던 제1차 선성의진의 지휘부 편제는 그 전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대장과 부장, 그리고 유격장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벽산 김도현의 기록 가운데 “12월 15일(양 1.29) 대장 양산령(梁山令) 이만도(李晩燾), 부장 용계(龍溪) 이중린(李中麟)이 위의(威儀)가 정숙하고 언론(言論)이 준절(峻節)하다.”는 내용에서 대장과 부장이 확인된다. 그밖에 온혜 삼백당 출신 원여(元汝) 이인화(李仁和)가 유격장(遊擊將)을 맡은 사실도 확실하다.²¹⁾

1차 선성의진의 대장 이만도는 1866년 대과 장원급제 후 성균관 전적을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 의병항쟁자료집』, 1971, 95~96쪽.

21) 김도현, 「碧山先生倡義顚末」,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17쪽.

시작으로 여러 벼슬을 거쳐 양산군수로 퇴관하였다. 1903년 도산서원 유사를 역임하였으며, 1910년 경술국치 직후 24일 동안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부장 이중린은 온혜 용계 출신으로 흥선대원군 복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된 적이 있으며, 통덕랑 품계를 받은 인물이다.²²⁾ 이후 2차 선성의진(청량의진)을 결성하고, 항전을 이어갔으며 1900년 도산서원 유사를 역임하였다. 1차 선성의진의 유격장을 맡았던 이인화는 이후 3차 선성의진을 결성하고, 대장을 맡아 의병을 항쟁을 이어 나갔다. 4차 선성의진은 노송정 중가의 이찬화가 이끌었다. 이찬화는 1903년 도산서원 유사를 역임하였다.

IV. 퇴계종택의 수난과 도산서원

선성의진은 결성 직후 안동의진이 관군과 맞서 싸우다가 크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9일 만인 12월 18일(양 2.1)에 사실상 해산되었다.²³⁾ 안동부에서 일어난 안동의병은 피신했다가 돌아온 관찰사 김석중의 반격을 받고 퇴각하자, 규모가 적었던 선성의진은 진용 정비의 틈도 없이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선성의진은 흩어졌지만, 재거의(再舉義)의 움직임이 바로 이어졌다. 바로 청량의진(2차 선성의진)의 결성이다.

예안 쪽으로 흩어졌던 의병이 다시 청량산에 모여들었다는 점, 1차 선성의진의 부장 직임을 맡았던 이중린이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의병 자금을 마련한 사실, 그리고 포병 수백을 모집하여 청량산을 근거지로 항전을 펼쳐 나가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안동부(안동관찰사 김석중)를 공격하고자 한점 등이

22) 이중린(1838~1917)은 진성이씨 상계파 퇴계의 12세손이다. 자는 振伯, 호는 雲圃 또는 潢山이다(『眞寶李氏上溪派譜』 卷1, 1986, 195~196쪽; 장인진, 「운포 이중린의 척사정신과 의병항쟁」, 『영남학』 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258~259쪽). 그의 동생 李中鳳도 위정척사와 의병시기에 여러 차례 이름을 드러냈다.

23) 이만도, 「부록연보」, 『향산집』, 乙未 十二月條; 李兢淵 일기 1895년 12월 18일자.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청량산을 근거지로 청량의진(제2차 선성의진, 이하 청량의진으로 명명함)이 다시 결성되었고, 이를 이끈 인물이 이중린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벽산 김도현의 「창의전말」과 김정섭의 『일록』에서 확인된다. 전자인 김도현은 청량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청량의진을 직접 이끌었던 인물이다. 후자인 김정섭은 청량의진의 대장 이중린이 자신의 장인(丈人)이었기에 소식을 자주 접하기도 했고, 또한 특별한 관계였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청량의진은 1893년 1월 13일(양 2.25) 안동부에 집결하였다. 그 규모는 500여 명에 이르렀다. 김도현의 「창의전말」에서는 이날의 청량의진의 출전 모습과 안동의진의 위용을 묘사하고 있다. 이후 1월 19일자 김정섭의 『일록』에서는 김도현이 이끌었던 청량의진의 강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 안동의진은 봉화 유곡의 권세연이 대장을 맡아 이끌고 있었다.

이후 경북 북부지역 6개 의진은 서상철이 이끄는 호좌의진과 연합 의병을 꾸리고 일본군 병참부대가 있는 상주 태봉을 공격하였다. 청량의진과 봉화의 진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청량의진은 이에 맞추어 조직을 재편하였다.²⁴⁾ 그 명단은 봉화의진의 『일기』의 끝부분에 첨부된 「청량의영임안」을 통해 확인된다. 즉 이는 예천회맹과 태봉전투를 위한 조직이었다.

1896년 2월 7일(양 3.20) 중군 김석교(金奭敎)가 이끄는 청량의진의 선발대가 예천으로 향했다. 김석교가 지휘하는 청량의진은 2월 13일(양 3.26) 예천에서 백마의 피로 맹세하는 회맹會盟의식에 참가하였다. 예천회맹 참여 의진은 청량과 봉화, 그리고 안동·영천(영주)·풍기·순흥·호좌 등 모두 7개였다. 그런데 청량의진을 이끌던 김석교의 사퇴로 중군의 직책은 김도현으로 교체되었다.²⁵⁾ 이에 중군 김도현, 선봉장 이인화, 전방장 이중언이 이끄는 청량의

24) 金道鉉, 「碧山先生倡義顚末」,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22쪽 ; 李兢淵, 「乙未義兵日記」, 1896년 2월 8일자.

25) 金道鉉, 「碧山先生倡義顚末」,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22쪽.

진 본대가 뒤이어 예안을 출발하였다. 본대는 2월 15일(양 3.28)에 전투 대기 중인 산양에 도착하였다.²⁶⁾ 태봉 공격에 선성의진이 앞장섰고, 풍기·영주·순흥의진이 뒤를 따랐다. 종일토록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연합 의진이 저녁 무렵에는 밀려나기 시작했고, 선성의진도 학가산 자락을 타고 돌아 회군하였고, 2월 18일(양 3.31일) 예안으로 돌아왔다.²⁷⁾

태봉전투를 치르고 돌아와 예안에 머물던 청량의진은 청량산으로 들어가 전열을 갖추었다. 더러는 안동과 예안 사이를 오르내리기도 했지만,²⁸⁾ 주로 청량산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량의진과 관련된 활동 내용은 봉화의진의 음력 3월 16일자 『일기』에서 일부 확인된다.²⁹⁾ 관련 내용은 봉화의진으로 청량의진의 사통이 이르렀는데, 3월 19일에 각 의병부대의 장위(將位)가 모여 평은역에서 대동회의(大同會議)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그 뒤 4월 들어 일본군과 관군이 예안을 거쳐 본격적으로 청량산으로 짓쳐 들어왔다. “적병들이 선성으로 들이닥쳐 모두 놀라 청량산으로 도망쳤고, 왜놈들에게 조금도 대적하는 이가 없어 고을 안에 있는 재산과 한 마리의 소까지 마음대로 빼앗아 갔다.”고 표현될 정도였다.³⁰⁾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은 결국 청량산 본거지를 불태워 버리는 데 이르렀다. 청량산의 청량사(淸凉寺)와 오산당(吾山堂)이 화공을 당해 소실되었다. 또 이보다 하루 앞서 퇴계종택도 일본군의 방화로 집 일부와 책 1,400권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³¹⁾

병신년 4월 20일

돌아오는 길에 淸凉寺에서 불길에 치솟아 연기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고

26) 김희근,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139~141쪽.

27) 金道鉉, 「碧山先生倡義顚末」,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25쪽; 李兢淵, 「乙未義兵日記」, 1896년 2월 18일자.

28) 李兢淵, 「乙未義兵日記」, 1896년 4월 8·9일자.

29) 봉화의진의 『일기』는 7읍 의진의 예천회맹(醴泉會盟)에서 시작된다.

30) 李兢淵, 「乙未義兵日記」, 1896년 4월 17일자.

31) 李兢淵, 「乙未義兵日記」, 1896년 4월 20일자.

의병들이 반드시 패한 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킬 수 있는 곳마저 또한 이렇게 되니, 저 정예한 왜놈 병졸을 대적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저 적들의 한 대의 포를 백천 명의 의병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저들 앞에서 모두 도망갈 마음만 먹고 있으니 이른바 지리적 이점도 역시 人和만 못하다. 청량사와 오산당도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상계의 선생 종택은 전날 밤 역시 불타는 번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문서와 서책 1천 4백여 권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이궁연, 『乙未義兵日記』)³²⁾

병신년 4월 22일

전하는 말을 들으니, 禮安陣은 패하여 청량淸涼으로 돌아갔는데 兵丁들이 뒤쫓아 와서 강학소講學所와 몇 섬의 군량미를 불 지르고 본택本宅으로 돌아가 창문을 부숴서, 대장과 병졸들은 春召面(춘양면과 소천면 필자 주)으로 피하였다고 했다. 일전에 영주 진중에서 척후병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는 곧 甘泉洪主事の 형이었으며 악형으로 죽었다. 豊基에서 합세하려 하는데 그 진에서 문제를 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浮石寺로 옮겼고, 본진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김정섭, 『일록』)³³⁾

병신년 5월 12일

龍溪에 갔던 하인이 돌아와서 장인(이중린-필자 주) 父子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르기까지 “지난달 17일에 예안읍에서 겁을 당하고 19일에 청량산의 어지러운 탄환이 비 오는듯한 속에 갱참坑塹의 몇 길이나 되는 위에서 곤경을 당하였으나 다행히 하늘과 귀신에게 힘입어 몸이 벗어나 겨우 면하였다. 그러나 저 무리들은 과연 吾山堂에 불을 질러서, 나는 용계·渾春으로 돌아와서 밤을 산 위에서 보냈다. 비록 뒤에 들었으나 놀라고 우려됨을 마지 못하였다. 장인(이중린-필자 주)은 산골로 피해 있다가 돌아와 안정된 지 며칠 되었으나, 이웃집으로 숨어서 中軍으로 하여금 先鋒이 되어 흩어진 자들을 거두어 어느 곳에 머물게 하였다.”고 한다. (김정섭, 『일록』)³⁴⁾

32) 김희곤·권대웅 편, 『한말의병일기』, 국가보훈처, 2003, 164쪽.

3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 2012, 115~116쪽.

34)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 2012, 121쪽.

청량의진은 1896년 1월 8일부터 청량산을 근거지로 4월까지 항전하였다. 그러나 일제 측의 반격으로 근거지였던 청량사와 오산당 등이 잿더미가 되었으며, 의병은 흩어졌다. 을미의병 항쟁 과정에서 청량사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병의 활동 근거지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고, 그 때문에 소실되었다. 이후 선성의진은 이인화·이찬화가 이어가며 의진을 조직하고 전투를 펼쳤다. 이인화가 이끌었던 3차의진 시기에 삼백당종택 등이 또 다시 방화되는 피해를 입었다.³⁵⁾

이후 후기의병시기인 1907년 10월에 퇴계종택은 또 다시 잿더미로 변하는 수모를 겪었다. “구택과 사당, 일병이 불태워”라는 표제아래 “慶北 禮安郡에 在한 退溪先生 古宅 及 祠宇를 日兵이 冲火沒燒하였다니 先生의 道德 學問은 大韓서만 敬仰尊慕할 뿐 아니라 日本 學家에서도 선생을 尊崇함에 大韓 儒林의 朱子를 尊崇함과 如하더니 今에 古宅과 祠宇가 日人의 衝火을 酷破한 것은 可謂 斯文의 一大 劫邐이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의병을 지원하다가 벌어진 참극으로 여겨진다. 1896년 종가에 보관하던 1,400여 권이 책이 소실된 것에 이어, 1907년에는 종가와 사당이 또 다시 불태워진 것이다.³⁶⁾

청량사와 오산당, 삼백당종택, 퇴계종택의 수난을 통해 당시 도산서원의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신사년 영남만인소를 이끌었던 도산서원은 의병 항쟁기 들어 강력한 결집력의 장으로 기능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량사와 오산당이 실제 의병들의 활동 본부였다면, 퇴계종택은 영남지역 의병공동체를 묶어내는 사회적·정신적 공간이었다. 이에 견주어 도산서원 중심의 역할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종택을 중심으로 한 문중공동체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추동했던 인물의 다수는 도산서원과 관련이 적지 않으며, 추후 도산서원의 임원을 역임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항기 의병항쟁사에서 도산서원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5)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159~160쪽.

36) 「禍 及 先正」,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8일자.

V. 맺음말

항일투쟁 연원에는 성리학(性理學)의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 성리학은 인욕(人慾)보다는 천도(天道)를 스스로 구현하고, 나아가 도덕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도덕적 마음의 발로가 되는 근간이었다. 서구와 일제의 침탈은 곧 도덕적 자기완결을 넘어, 이를 구현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일제의 침탈로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위정척사운동에 이어, 무기를 들고 죽음을 불사하며 의병항쟁에 나섰다.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를 주도한 공동체는 퇴계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퇴계학은 주자학적 체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했으며, 이 마음을 통해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인의 덕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현실 속에서 그 덕성을 실현해 나가고자 했다. 즉 이들의 항일투쟁을 추동한 바탕에는 도덕적 방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도산서원 건립 이후 학문공동체를 형성하고, 실천성을 노정하는 쪽으로 나아간 역사적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의 연원에서 도산서원은 영남만민소 운동을 주도하며,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위정척사운동은 의병항쟁으로 전환되었다. 도산서원은 전기의병시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의병시기 의병의 본거지였던 청량사와 오산당, 삼백당 종가, 그리고 후기의 병기까지 이어지는 퇴계종택의 수난에 견주어 도산서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역할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종택을 중심으로 한 문중공동체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항기 의병항쟁사에서 도산서원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추동했던 인물의 다수는 추후 도산서원의 임원을 역임하였다. 또한, 추후 전개되는 항일투쟁의 역사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 적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부록〉 도산서원 『前任案』에 기재된 유사 현황(1866년~1910년)³⁷⁾

년도	성명	직책	경력	비고	년도	성명	직책	경력	비고
1866	李龔寅	상	-		1895	李晩植	상	行縣監	
	李龔溥	상	前府使			柳道獻	상	前都事	
	李晩松	상	前正言			李晩瑄	상	-	
1867	李萬淳	상	-			李晩亭	상	前同樞	
1868	李龔濟	상	-			李晩一	상	-	
	李在顯	상	行縣監			金輝濬	상	前監役	
1869	李龔蘭	상	-			李龔準	상	護軍	
	李龔政	상	前參奉			李晩璞	-	-	
	柳厚祚	상	判府事		1896	李中斗	-	前承旨	
	李龔載	상	前參議			李龔獻	-	-	
1870	鄭基曾	상	行縣監			李晩禹	-	-	
	李龔灝	상	-			李益和	-	-	
1871	洪在錫	상	行縣監		1897	李晩正	-	前應教	
	金 鉞	상	-			李冕宙	-	前承旨	
	李龔淵	상	-			李中健	-	-	
	李基永	상	-			李元魯	-	-	
	李晩松	상	前正言			李基魯	-	前監役	
1872	琴誠述	상	-			李晩定	-	-	
1873	李晩建	상	-			許 禧	-	-	
	李中極	상	-		1898	李晩疇	-	-	
	李晩華	상	-			李晩鉉	-	前校理	
	李龔斗	상	-		1899	姜 鐸	-	前校理	
	李龔益	상	-			鄭世源	-	行郡守	
1874	李耆淳	상	-			朴遇賢	-	前正言	
	李 玟	상	-		1900	李中麟	-	-	
	李晩修	상	-			韓耆東	-	前待教	
1875	李龔詩	상	-			柳道奭	-	前縣監	
	李澤永	상	-			李中應	-	-	
	李龔承	상	前承旨			李中璉	-	-	
	李晩進	상	-			金基洛	-	-	
1876	李徽應	상	行縣監		1901	李晩震	-	-	
	李龔潤	상	-			李晩璞	-	-	
1877	李龔秘	상	-			李龔璘	-	-	

37) 김석하, 「『陶山書院 前任案』 解題」(『퇴계학연구』 2, 단국대퇴계학연구소, 1988)에서 작성.

년도	성명	직책	경력	비고	년도	성명	직책	경력	비고
	李應淳	상	-			金道和	-	前都事	
1878	李晩運	상	前參判		1902	李種杞	-	前都事	
	李晩栢	상	-			朴遇賢	-	前正言	
1879	南德熙	상	行縣監			李中稷	-	-	
	李彙敬	상	-		1903	柳道性	-	前承旨	
1880	李晩孫	상	-			李燦和	-	-	
1881	丁集教	상	前正言			李冕宙	-	宗正卿	
	李晩琦	상	-			李彙璘	-	-	
	李質淳	상	-			李晩胤	-	前翊衛	
	琴翼明	상	-			李晩燾	-	前承旨	
1882	李容淳	상	-			金常壽	-	通政	
	李晩喬	상	-			李晩胤	-	前翊衛	
	李翊相	상	-		1904	李晩膺	-	-	
	李晩郁	상	-			李晩喆	-	-	
1883	柳弔陸	상	前都正			李中鳳	-	-	
	李中和	상	-			金輝璟	-	-	
1884	李晩緯	상	-			李中禧	-	-	
	李龜高	상	-			琴鼎基	-	-	
1885	李晩實	상	-		1905	李中七	-	-	
1886	李彙秉	상	前參議		1906	許 薰	-	前參奉	
	李晩逸	상	前都事			李康準	-	行郡守	
	李長浩	상	-			申觀朝	-	前府使	
1888	李晩衡	상	-		1907	金錫祚	-	-	
	李晩適	상	-		1908	李曷淵	-	-	
	李晩協	상	-			李晩喆	-	前校理	
1889	李晩容	상	前應教			李中植	-	前參奉	
	宋晩燮	상	行縣監			李中赫	-	-	
1890	李晩由	상	前承旨		1909	李中灝	-	-	
	琴敬述	상	-			任百孝	-	-	未行公
1891	姜漢奎	상	前同敦令			李晩喆	-	前校理	
	李晩根	상	-			權敦淵	-	前都事	
1892	李晩逸	상	前都正			李晩九	-	-	未行公
	李中振	상	-			李中五	-	-	
1893	李晩璜	상	-			李豐鎬	-	-	
	李宅魯	상	-			丁大植	-	前縣監	
1893	姜 濟	상	前參奉			李昇九	-	前都事	

년도	성명	직책	경력	비고	년도	성명	직책	경력	비고
	李龔林	상	前校理			李龔容	-	-	
	李龔商	상	-			李運和	-	-	
	李晩昌	상	-			李晩玉	-	前通政	
	趙元植	상	行縣監			李晩熙	-	-	
	鄭東箕	상	行郡守			姜 演	-	前承旨	
	李晩胤	상	行縣監		1910	李昌淵	-	-	
1894	柳寅睦	상	行縣監			李廷鎬	-	-	
	李中杰	상	-			李中軾	-	前參奉	
	李晩膺	상	-	未行公		李中立	-	-	
	李晩弘	상	-			李中鉉	-	-	

【참고문헌】

- 金道鉉, 『碧山先生倡義顛末』,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 의병항쟁자료집』, 1971
 李兢淵, 『乙未義兵日記』
 이중업, 『기암유고』, 여강출판사, 198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 - 의병항쟁자료집』, 197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 2012.
- 강운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강운정, 『사적에서 만나는 안동독립운동』, 지식산업사, 2013.
 강운정·권오영·김희곤 외, 『기암 이중업의 학문과 독립운동』, 안동시·한국국학진흥원, 2021.
 강운정,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한국서원학보』 17, 한국서원학회, 2023.
 강운정, 「대한제국기 안동지역 교육공동체의 변화 - 협동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54, 한국국학진흥원, 2024.
 강운정, 「안동독립운동의 사상적 연원과 변용과정」, 『광복 80주년 안동학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한국국학진흥원, 2025.
- 김석하, 『『陶山書院 前任案』 解題』, 『퇴계학연구』 2, 단국대퇴계학연구소, 1988.
 김희곤·권대웅 편, 『한말의병일기』, 국가보훈처, 2003.
 김희곤 외, 『순절지사 이중언』, 경인문화사, 2006.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박민영, 『거룩한 순국지사 향산 이만도』, 지식산업사, 2010.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3.
 우인수, 「경상도 안동 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이광우, 「안동 유림 李壽琰의 『疏廳日錄』을 통해 본 1881년 嶺南萬人疏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5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이택동, 「起巖 李中業論」,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Abstract

Political Trends of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during the Open Port Period

– With a focus on the role of Jinseong Lee Clan –

Kang, Yun-jeong*

Seowon Confucian Academy during the Joseon Dynasty has performed various functions in the Hyangchon society with the growth of sarim since the 16th century. Lectures and publishing are representative activities. From the 18th to 19th centuries, large-scale collective lectures were held. Dosanseowon, built in 1574 (the 7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to commemorate the learning and virtue of Yi Hwang (1501-1570), was an important symbolic space beyond the public debate of Hyangchon society during the Joseon Dynasty. However, in the situation of the 19th century West Indies, the community centered on the seowon had to spend time responding to this.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led the Yeongnam Maninso Movement and the Wijeong Cheoksa Movement during the opening period. Since then, the Wijong Cheoksa Move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righteous army uprising.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seems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arly days of medical service. However, the role of Dosanseowon is not clearly revealed compared to Cheongnyangsa Temple, Osandang Hall, which was the home of righteous army during the first-term, and Toegye Jongtaek's suffering leading up to the late-term. Rather, it can be said that th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 sanman0115@daum.net

role of a kinship community centered on Jongtaek was large. This can be said to be a characteristic of Dosanseowon in the righteous army resistance during the opening period.

Key word :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Yeongnam Maninso, The Righteous Army, Jinseong Lee Clan, Toegye Jongtaek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도산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발전 방향*

—도산서원의 제향 및 강학 기능을 기반으로—

이 상 호**

- I. 들어가는 말
- II. 서원의 이념과 이황의 서원관
- III. 도산서원의 제향 및 강학 기능
- IV. 도산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그 방향
- V.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영남의 수문 서원이면서 한국의 대표 서원 가운데 하나인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을 맞아 도산서원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과 그 방향을 정리해 봄으로써, 한국의 유학 전통을 대표하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방향을 살펴보려 했다. 도산서원은 창건된 이후 450여 년간 영남의 수문 서원으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특히 유학적 전통을 함께 공유한 중국과는 다른 한국 서원만의 특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황이 주향되어 있는 서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수 많은 서원들이 가진 의미와 가치, 그리고 현대적 활용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도산서원을 바로미터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도산서원은 현재도 여전히 서원의 핵심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향과 강학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활용 방안과 그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곧 한국 서원의 활용 방안 및 방향을 찾는 것일 수

* 이 논문은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과 도산서원이 공동 주관한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기념 학술대회>(2025년 9월 19일~20일)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sookbi@koreastudy.or.kr.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 2장은 이황이 서원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시대적 배경과 이 과정에서 형성된 서원 배향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도학자와 지역을 연고로 하는 성현을 배향해야 한다는 원칙은 중국과 다른 서원의 사회적 기능을 만들어 냈다는 게 요지이다. 이를 기반으로 3장은 도산서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서원의 본래 기능인 제향과 강학 기능을 살펴보았다. 특히 매월 2차례 진행되는 향알을 비롯한 도산서원의 배향 기능을 통해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을 확인하고,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해 강학 기능의 현대적 변용과 활용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 위에서 도산서원의 배향 및 강학 기능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배향 기능을 중심으로 각 지역 서원이 지역의 메모리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서원 의례의 경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할 필요를 제기했다. 강학 기능의 경우에는 공교육기관과의 연대나 온라인 강학 기능의 강화, 더 나아가 지역 대학과의 연구 클러스트 구축 등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 도산서원, 서원 활용, 이황, 제향 및 강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I. 들어가는 말

2019년 도산서원을 비롯한 9개의 서원이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을 때, 축하 반응만큼이나 부정적인 반응 역시 적지 않았다. 조선 중후기 서원의 남설은 지역 공동체 유지의 근간이었던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고, 봉당 정치를 더욱 고착화 시키는 이유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학을 조선 망국의 원인으로 보는 일부 인식은 서원을 망국의 원인으로까지 지칭하면서, 서원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의 저간에는 서원을 사라진 역사 유산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서원에 대한 현대적 의미나 활용 가능성을 찾는 일에 대한 불합성의 근거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의 역사는 오늘날의 일만도 아니다. 숙종 대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서원 남설로부터 이미 이러한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서원은 숙종 대 이후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철폐령과 건립 불허 방침들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864년 흥선대원군이 전국 47개 서원만 남기고 모든 서원을 훼철했을 때, 조선에는 1,000여 개가 넘는 서원이 있었다. 국망 직전까지 서원은 건립 불허와 훼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의미로,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으로 인해 그를 지지했던 유림들로부터 신망을 잃을 정도였다. 문중이나 지역 공동체 및 유림 등에서는 여러 이유에서 서원을 건립해야 할 필요와 이유가 있었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도 막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유교 이념과 거리가 멀어진 현대 사회로도 이어졌다. 광복 이후 50여 년이 조금 넘었을 때 훼철 당시 남한에 22개만 남아 있었던 서원이, 2014년 700여 개로 조사되었고,¹⁾ 10여 년이 더 지난 2024년에는 훼철되기 전 한반도 전체에 있었던 1,000개 와 비슷한 1,087개 서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렇게 서원 복설과 재창설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조선시대와 또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남설일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

1) 황태희·최희수, 「향교·서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활용 방안 : 유교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4.11)에서 재인용. 원자료는 한국관광학회, 『향교서원총람』(한국관광학회, 2014)에서 인용한 것임. 더불어 강진갑 외, 「경기도 유교문화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 제정 및 운영방안 연구」(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12)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672개 소였으므로, 2년 만에 30여 곳에 늘어난 수치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균관대학교에 의뢰한 성균관과 향교, 서원에 대한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24). 26쪽 참조. 여기에는 각 지자체별 수치와 문화유산 지정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 이러한 서원의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그 의미를 현대화 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불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서원들 역시 유산으로만 정리하고 보존 정책만 펼칠지, 아니면 이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유지할지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도산서원이 창건 450주년³⁾을 맞았다. 도산서원은 창건된 이후 450여 년간 영남의 수문 서원으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특히 유학적 전통을 함께 공유한 중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한국만의 서원을 만들게 했던 이황李滉(退溪, 1501~1570)이 주향되어 있는 서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수 많은 서원들이 가진 의미와 가치, 그리고 현대적 활용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도산서원을 바로미터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도산서원은 현재도 여전히 서원의 핵심 기능인 제향과 강학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활용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곧 한국 서원의 활용 방향 및 방법을 찾는 것일 수 있다.

도산서원의 제향 및 강학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활용성과 발전 방향을 점검해 봄으로써, 한국 서원의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찾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서원의 배향 및 강학 기능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서원만의 특징을 만든 이황이 이러한 제향 및 강학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려 한다(2장).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 도산서원에서 이러한 제향 및 강학 기능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키는지 살펴보고, 4장에서는 이것이 가진 현대적 의미와 발전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려 한다. 이러

3) 도산서원은 이황 사후 1572년 위패를 모신 서원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574년 봄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1575년 여름에 낙성되었다. 도산서원 창건의 소식을 들은 선조는 건물이 낙성되기 전에 사액을 명했고, 이로 인해 건물 낙성과 함께 편액이 게첨될 수 있었다. 도산서원은 이를 도산서원 창건으로 봄으로써, 2025년을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으로 설정했다.

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도산서원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서원 활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서원의 이념과 이황의 서원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개념의 서원은 신유학을 창시했던 주희朱熹(晦庵, 1130~1200)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공맹孔孟에 의해 창시된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 내성외왕內聖外王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이를 해석하면 유학은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 성인됨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도덕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목표는 도덕적 마음에 따른 실천을 통해 도덕 정치를 완성하려 했던 공자의 생각이나 이러한 공자의 이론을 따라 인간 본성을 선하게 설정했던 맹자의 기본 입장으로부터 이후 유학 전체 역사까지 관통하고 있다. 한漢대 이후, 오랫동안 혼란기를 겪었던 중국의 역사 속에서 유학은 이러한 본래 목표를 잃었던 적도 있었지만, 송대 이후 신유학은 이러한 목표의 재설정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신유학을 대표했던 주자학은 기존 중국 유학을 집대성集大成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성인됨을 위한 형이상학적 강제를 통해 마음의 구조를 재설정하고, 이를 촘촘한 공부론으로 구조화 했다. 이는 당시 불교나 노장과의 이론 경쟁 과정에서 유학을 보편철학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양을 통해 성인됨에 이르고자 하는 유학의 기본 목적은 잃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이론 영역에서만 유학을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공부 공간에 대한 필요로까지 이어졌다. 서원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등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서원은 도학적 이념에 따른 ‘성인됨’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식론적 진리론에 근거한 서양의 공부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특정한 목표를 삶으로 실천으로 구현하기 위한 공부 공간이었던 것이다. 유학의 이러한 공부를 ‘됨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서원은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공부 공간이 되어야 했다. 이 때문에 주희는 당나라 때 주로 책을 보관했던 기관인 서원의 이름을 차용(借用)하여, 2여 년간의 공사를 통해 ‘천년학부’인 백록동 서원을 열었다.⁴⁾ 이후 주희는 여조점, 장식 등과 더불어 백록동서원을 비롯한 송양서원과 석고서원, 약록서원을 세우고 서원 부흥운동을 주도했다.⁵⁾ 주희의 서원 부흥 운동은 이후 주자학이 성행하면서, 중국에서도 도학 전파의 공간으로 720개의 서원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⁶⁾

그렇다면 ‘됨의 공부’를 위한 공간은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됨의 공부’⁷⁾는 서양의 공부론에 따라 형성된 ‘인식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정확한 인식’을 목표로 하는, 다시 말해 ‘인식론적 진리론’에 기반한 공부가 아니다. 됴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완성된 인간형을 구현’하려는 ‘실천적 진리론’에 기반한 공부이다. 이 때문에 ‘됨의 공부’는 공부의 목표 역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완성된 인간형에 도달했던 ‘사람’과 그의 삶의 태도 및 실천에 둘 수밖에 없다. 유학의 경우 공맹을 비롯한 성인

4) 박원재, 「유학과 서원제도 - 학문을 통한 사회적 실천의 산실」, 『서원을 찾아서』 (한국국학진흥원, 2005), 29쪽.

5) 김자운,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 『퇴계학논집』 18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125쪽.

6) 김형수, 「李滉 書翰을 통해 본 明宗代 書院의 創設과 運營」,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3), 23쪽.

7) ‘됨의 공부’는 종교나 혹은 수양을 통해 특정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공부론에서 많이 보인다. 해탈이 최종 목표이거나 실천적 행동을 통해 전국에 들리고 하는 종교적 공부나 자기 수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신선을 목표로 하는 도교 역시 이러한 공부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학 역시 경전 자체를 ‘잘 알고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그 경전 내용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공부’라는 관점에서 ‘됨의 공부’ 혹은 ‘됨의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들이 최종 공부의 목표로 설정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됨의 공부’를 위한 공간은 이러한 유학의 이념적 표상이 되는 성현들을 후학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따라 배움으로써 성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을 배향하고 이러한 인간형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게 되는 이유이다. 향교나 서원 등과 같이 유교 이념을 가르치는 공간에는 성인을 배향하고 추송하는 공간은 이러한 이유에서 만들어진다. 더불어 이러한 성인들이 어떠한 공부를 거쳐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성현들이 남긴 말씀이나 이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경전에 대한 독서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수양하기 위한 다양한 수양론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주희는 서원을 세우면서, 유학적 이념의 표상이 되는 성인들을 추송하고, 그들을 잇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서원을 창설했다. 학문의 목표가 되는 성인을 배향함으로써, 서원 교육의 학문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성인을 목표로 강학하는 수련장을 서원이라는 공간 속에 배치했던 것이다. 학문적 목표로서의 성인에 대한 ‘배향’과 이러한 성인을 따르는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강학’이 서원의 핵심 기능이 된 이유이다. ‘도학’의 실현 및 전파를 위한 가장 효율적 공간이 주희에 의해 서원의 형태로 드러났던 것이다. ‘백록동규 白鹿洞規’는 바로 이러한 철학이 규약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후 도학의 핵심 윤리인 오륜五倫을 중심으로 한 백록동 서원의 원규는 조선 서원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이 되었다.⁸⁾

이러한 서원의 기본 이념을 조선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조선의 서원 창설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황이다. 이황은 초기 영남 사람들이 중앙정

8) 특히 이와 같은 모습은 주희가 백록동규 뒤에 붙인 후서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박원재, 앞의 글, 33쪽~34쪽 참조.

계 진출을 시도하다가 좌절되면서 선비들이 지속적으로 화를 입었던 사화士禍의 시기 끝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넷째 형 이해李滌(溫溪, 1496~1550)를 사화로 잃었다. 이황이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실천했던 사람들의 삶을 재평가하고 그들의 실천 정신을 이을 필요성을 절감했던 이유이다. 사화 과정에서 절의를 지키다 죽어갔던 이들을 기리고, 그들의 실천 정신을 주자학 내에서 설명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주자학 이론 위에서 마음공부와 이를 기반으로 실천 정신을 이론했던 ‘퇴계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동시에 그렇게 유학 이념을 실천하려다가 목숨까지 잃었던 인물들을 헌창하고, 그들을 잇는 후학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사화과정에서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다 죽어갔던 이들을 성현의 반열에 올리고, 이를 본받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간으로 서원을 만들려 했던 이유이다. 초기 영남 사람들 역시 정몽주와 길재의 절의 정신을 잇는 동시에 지역에서 강학 공간을 건립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중앙정계 진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망있는 선비들이 낙향하거나 유배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서원의 부흥은 시작되고 있었다.⁹⁾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황은 초기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사액을 요청하고 서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서원이 가진 기능에 주목했다. 특히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최초로 조정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사액을 청할 때, 서원 설립의 의미가 출세가 아닌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원은 과거를 향한 공부 공간이 아니라, 도학을 닦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¹⁰⁾ 이황의 이러한 생각은 한국 서원의 중요한 지

9) 박경환, 「유학과 교육 - 올곧은 선비 정신의 요람」, 『서원을 찾아서』(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5), 139쪽 참조.

10) 김형찬, 「退溪의 書院觀에 대한 철학적 해명」, 『퇴계학보』 제136집(퇴계학연구

향점이 되었고, 이는 서원이 과거 시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와 도학 이념을 지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¹¹⁾

이러한 그의 입장은 서원의 배향 기준 설정을 통해 강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성주의 영봉서원迎鳳書院 건립 과정에서 곤란을 겪었던 성주 목사 노경린 盧慶麟(仁甫, 1516~1568)의 편지를 받고 배향의 근거와 원칙을 제시했다. 이황은 우선 “선현을 배향하는 것 역시 도를 높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¹²⁾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서원에서의 배향 역시 강학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황은 배향의 원칙 몇 가지를 정했는데, 이러한 원칙은 이후 조선 서원의 배향 원칙이 되었다.

우선 누가 서원에 배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이후 주향과 종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시 이 문제는 성주지역의 대표 유학자였던 이조년과 이인복, 그리고 처향이었던 김굉필의 제향문제에서 노정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이황은 당시 상황을 물어 왔던 노경린에게 김굉필金宏弼(寒暄堂, 1454~1504)의 주향을 강하게 주장했다.¹³⁾ 이황은 충의忠義

원, 2014), 104쪽 이하 참조.

- 11) 이와 같은 모습은 金垓(호는 溪巖, 1577~1644)이 쓴 『溪巖日錄』에 보면 재미있는 기사로 드러난다. 1624년 7월 3일자 기록에 따르면, 예안지역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居接이 열렸는데, 이들을 관아와 향교, 그리고 역동서원 등에서 준비를 했다. 그런데 여러 불편함으로 인해 역동서원에서 거접을 제안하자, 유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 이유는 바로 서원은 공부하고 독서하는 곳이지 과거를 준비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서원은 그야말로 도학의 본산이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金垓, 『계암일록』 3, 오덕훈 외 옮김(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3), 526쪽 참조.
- 12) 李滉, 『정본퇴계전서』 記-006, 『迎鳳書院記』(1560), “而其有廟以祀先賢者, 則其於崇道作人之方, 尤爲備也.” 참조. 참고로 『정본퇴계전서』(퇴계학연구원, <http://www.toegye.org>)는 퇴계의 각종 서한들이 편집되지 않고 전문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인물별로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다.
- 13) 그러나 결국 이황의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나중에 서원의 명칭을 천곡서원으로 바꾸면서 程頤와 朱熹를 주향으로, 김굉필을 배향으로 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수 앞의 논문, 35쪽 이하를 참조.

와 도학道學 가운데 어느 것이 앞서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서, 핵심은 도학이 가장 우선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가 “지금 서원에서는 도학의 뜻에 더욱 전념해야 하고, 현인賢人을 배향할 때에는 도학을 위주로 해야 옳습니다”¹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연히 여기에는 도학적 이상사회 구현을 위해 죽어갔던 수 많은 초기 사림士林들에 대한 이황의 추모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도학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실천했던 이들을 서원에서 기억해 줌으로써, 이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서원에서 길러내기 위한 의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후 선현 배향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더 만들어졌다. 그 핵심은 동국東國 명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의 논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황은 영봉서원에 김굉필 주향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영봉서원이 천곡서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이와 주희 등 중국 성현들이 주향된 것에 대해 실망하면서, 그 스스로를 “패군지장敗軍之將”¹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조년과 이인복 등에 대한 배향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중국 성현에 대한 배향 문제였다. 이러한 이황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그가 적극적으로 건립에 관여했던 역동서원의 제향인물을 정하는 과정이다. 당시 역동서원을 창건할 때 김부필金富弼(後彫堂, 1516~1577)은 주자학을 만든 주희와 정이를 주향으로 하고, 우탁禹倬(白雲, 1262~1342)을 종향으로 하자는 건의를 했다. 그러나 이황은 주희와 정이의 주향에 반대하면서 우탁만을 배향하자는 주장을 했다.¹⁶⁾ 너무 먼 성현 보다는 직접적으로 모범을 삼아 따라 배울 수 있는 성현을 배향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4) 이황, 위의 책, 「書·盧慶麟」(1560), “而在書院, 則爲道學之意尤專, 其祀賢也, 以道學爲主, 可也.”

15) 위의 책, 書·李仲樸-31, “示喻書院事, 渥何敢定論. 古語云, ‘敗軍之將, 不可語勇.’ 於星謬論, 旣同敗將, 今雖強定, 何異於彼耶?”참조.

16) 김형수, 앞의 논문, 39~40쪽.

이와 같은 이황의 생각은 이후 모든 서원에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서원 배향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특히 너무 먼 성현은 직접적으로 모범을 삼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이후 조선의 서원에서 ‘가까운 성현’을 모시는 경향으로 굳었고, 이는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었다. 주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그 지역에서 벼슬을 했거나 강학 했던 인물,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인물을 제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그 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있으면 공의를 모아 서원을 건립하고 문집을 발간하는 노력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따라서 서원의 배향 인물 선택은 그 지역 유림의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되었다.

‘도학자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과 연고가 있어서 따라 배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준은 중국과 다른 조선 서원만의 배향 원칙이 되었고, 이는 중국과 다른 한국만의 서원 특징을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물론 이는 서원의 남설이라는 부작용의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서원은 그 지역이 배출한 인물을 배향하고 그와 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배향 기능은 서원의 핵심 기능인 제향 기능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도 춘추향사를 비롯한 기림의 의식들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서원에 배향된 인물처럼 되기 위한 노력은 그들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한 강학 기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서원은 이황에 의해 형성된 배향 기준에 따라 그 지역 성현을 배향하고 그 지역 성현의 정신을 잇는, 일종의 ‘지역 인재 양성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Ⅲ. 도산서원의 제향 및 강학 기능

이황의 서원 창건 운동은 이후 당파와 연계되면서 많은 서원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서원 건립 노력은 숙종대 이후 지속된 서원 철폐 및 건립 불허 방침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이후 현대 한국사회에서조차 더 많은 복설로 이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이 많은 서원들은 조선시대 설립기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각기 다른 층위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서원의 본래 기능인 제향과 강학 기능이 동시에 수행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 역할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 특히 유림의 공적 논의를 통해 배향 인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서원을 건립하고 관리했던 전통이 사라지면서 많은 서원들이 문중 중심의 서원으로 남았다. 이 때문에 많은 서원 중에는 특정 문중을 중심으로 한 춘추 향사 기능을 겨우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지역 성현의 정신을 잇는 지역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진 채, 말 그대로 특정 문중의 선조를 기리는 공간으로만 남았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해 두면, 도산서원의 활발한 제향 및 강학 기능은 이례적일 정도이다. 물론 현대적인 교육 기관에 공교육 기능을 넘겨 주면서, 조선 시대와 비교할 때 서원의 제향 및 강학 기능의 사회적 역할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서원은 제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강학에 있어서 현대의 필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목표와 방법을 만듦으로써 450년간 서원이 해 왔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도산서원의 이러한 제향과 강학 기능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용 및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배향 및 제향 기능의 유지

이미 앞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한국의 서원은 대부분 강학 기능 없이 배향 기능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향 기능마저도 기존 서원의 전통과 일상적 기능을 모두 유지하지 못한 채, 춘추 향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산서원은 여전히 일상적 의미의 배향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1575

년 도산서원 건립이 완성된 이후 이황의 위패가 모셔졌고, 이후 40년 뒤인 1615년 이황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조목이 추가 배향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황과 그의 유지를 지켜왔던 조목을 통해 이황에서 조목으로 이어졌던 예안학단의 철학적 입장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마음 공부를 기반으로 한 실천 철학의 메카로서 도산서원이 기능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황과 조목에 대한 제향 기능을 통해 도산서원은 450년 간 이황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이다.

이러한 도산서원의 제향 기능은 봄·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享祀를 넘어, 좀 더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제향 기능의 유지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서원이 춘추 향사에 한정된 제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으로, 매월 2차례 진행되는 향알로부터 봄가을 향사, 그리고 매년 시작을 알리는 정알례 등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도산서원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당에 이를 알리는 고유제와 도산서원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알묘 역시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도산서원은 서원 조직을 구성할 때 전국에 명망있고 유학적 신념을 가진 인물들을 대상으로 배향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재유사를 맡겨, 이러한 제향 기능이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산서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원에서 사라진 제향 기능은 향알이다. 향알은 매월 삭망에 맞추어 상덕사에 향을 올리는 행사로,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 일출 전에 상덕사 위패에 분향하고 위패를 개독한 후 봉심하는 의례이다. 이는 이황과 조목의 위패에 보름 단위로 문안을 드리는 동시에, 사당을 살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의례이기도 하다. 매월 두 차례의 정기적인 제향 행사를 통해 서원 전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서원의 정신과 물리적 형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이다.¹⁷⁾ 도산서원은 지금도 향알 전일

17) 도산서원은 재유사들의 행공일기를 유생교양총서로 발간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다. 대표적으로 장인진, 「유생교양총서 제3집-陶山書院齋有司行公日記」(도산서원박약재, 2014) 및 김영

일몰 전에 입재入齋를 하고, 향알이 행해지는 당일 일출 전에 향을 올리는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¹⁸⁾ 향알은 조선시대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서원과 향교 등에서 동시간 대에 이루어졌던 의례이지만, 현재 향교나 서원에서 이 의례를 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도산서원은 춘추 향사 역시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각 서원이나 향교에서는 봄·가을로 특정한 날을 골라 향사 및 석전대례를 봉행하는데, 도산서원의 경우 춘계 향사는 음력 이월 중정일中丁日에, 그리고 추계 향사는 음력 8월 중정일에 지낸다. 연중 가장 큰 서원의 제례 행사로, 현관을 비롯한 알자들의 경우 기존에는 3일 전에 입재 하여 미리 알묘를 하는 정재일 알묘부터 시작해서 2박 3일의 향사를 거행해 왔다. 2009년 이전까지는 여전히 새벽 1시 향사를 원칙으로 고수하면서, 제사의 시간과 의례 등에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춘추 향사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오전 11시로 시간을 옮겼으며, 이후 여성도 현관으로 참여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진행했다.¹⁹⁾ 1박 2일의 향사를 통해 그 정신만큼은 유지하되, 변화하는 현대에 맞추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도산서원은 정알례를 통해 매년 새해를 고하는 의례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음력 새해 첫날의 경우 서원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5일 뒤인 음력 1월 5일 정알례를 행하고 있다. 일종의 새해 첫 알묘 행사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이다. 특히 정알례는 새해 첫인사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상유나가 재유사, 전임 유사나 유생의 별도 망기나 회문 없이

근, 「유생교양총서 제5집 - 陶山書院齋有司行公日記」(도산서원박약재, 2017) 등에 잘 나와 있다.

18) 자세한 의례 절차에 대해서는 장인진, 위의 글, 10쪽 이하(2014년 음력 3월 1일 향알 관련 일기)를 참조.

19) 춘추 향사의 자세한 의례 절차에 대해서는 김영근, 앞의 글, 67쪽 이하(2013년 음력 2월 14일 춘계 향사 관련 일기)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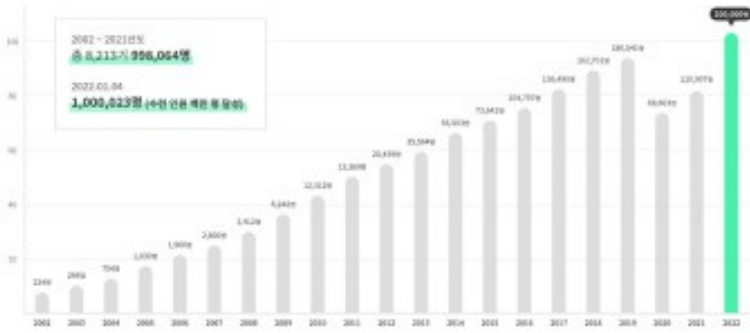
서원 출입이 허락되었다. 이 외에도 퇴계 불천위 제례와 기제사 등에도 도산서원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퇴계 정신을 다양한 의례와 제례를 통해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강화 기능의 전승 및 확대

도산서원은 현재 시점에서 강화 기능이 가장 활발한 서원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서원 강화 기능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탁과 비정기적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도산서원은 이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통해 강화 기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항의 정신을 현대적 개념의 인성교육으로 연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교육을 시작한 도산서원 부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 바로 그것이다.²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을 지향하면서, ‘교양을 갖춘 양심’과 ‘본분을 지키는 지성’, 그리고 ‘도덕을 지키는 시민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개원 초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는데, 이후 초·중·고등·대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 내원하여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인성연수를 받는 경우를 비롯해서, 각 연수 대상에 따라 직접 방문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2002년 개원초 224명의 수련생을 배출한 데 비해, 10여 년 시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2012년 12월 31일 당시 누계 981개 기수 63,407명이 수료했다. 2012년에는 한해만 298기 20,438명 수료하였다.

20)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 홈페이지 및 박경환, 「세계유산 서원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계승 활용 -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학』 22집(한국국학진흥원, 2023), 191쪽 참조.

〈선비문화수련원 수련생 증가 추이〉²¹⁾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12년 전문적인 수련시설을 건축하면서 인성교육연수기관으로 본격 도약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2013년에는 35,564명, 2014년에는 55,503명, 2015년에는 642기 73,64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에는 누적 연수생 백만 명이 연수를 받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성 관련 교육 연수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2016년 제2원사가 준공되면서 규모면에서도 대폭 성장했다. 코로나 19라는 펜데믹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연수생이 일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2022년이 되면서 연간 20만명이 연수를 받아, 매년 수련생 증가의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누적 연수생 백만 명 도달 시간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데 반해, 백만 명에서 2백만 명 도달 시간은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성장 만큼이나 교육 내용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초등 저학년으로부터 고학년, 그리고 중등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역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짧게는 1박 2일에서 길게는 2박 3일로 나누어 운

21)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홈페이지(<https://www.dosansunbi.kr/intro/vision>) 2025년 9월 1일 현재 페이지.

영하고 있다.²²⁾ 프로그램 내용도 도산서원과 그 부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산서원에 배향된 이황과 관계된 종택과 유적지도 활용한다. 도산서원에서 알묘례 등을 행하고, 퇴계종택과 묘소, 퇴계시공원 등을 방문하는 일정들로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더불어 선비 정신에 대한 강의 및 퇴계종손과의 대화 등을 통해 선비 정신을 깨닫고 분임 토의를 통해 선비정신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했다.

이와 같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성공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나는 서원의 전통적 교육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선비정신의 현대화라는 뚜렷한 목표와 그에 따른 현대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교육프로그램들과 달리 전통에 특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교육 기법들과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현대인들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체험형 교육과 유적관광형 교육은 이 프로그램이 대중들로부터 각광 받는 이유가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²³⁾ 특히 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우리 사회 시니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203명의 지도위원은 말 그대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핵심으로, 퇴계의 정신을 현대에 잇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 체계적인 연수 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관련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에는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경북선비아카데미〉 전문과정을 통해 40여 명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2주 60시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교 경전

22) 자세한 내용은 <http://www.dosansunbi.kr/> 참조.

23) 현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사 건립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

에 대한 강독과 이황의 사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산서원을 활용한 서원스테이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25년에는 15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5차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퇴계 마지막 귀향길 행사도 기획하여, 13박 14일간 퇴계의 귀향길을 걷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현재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도산서원 역시 좀 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수련은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단기 연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금은 체계적이고 중기나 장기 과정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강화 기능을 만들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경우 경북 선비아카데미와 같은 학기제나 시즌제 연수로 폭을 넓히고 있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전과 퇴계학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연구로의 확장은 여전히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되는 해를 맞아 도산서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도산서원 강화>을 시작했다.

이 강좌는 고전과 퇴계학에 대한 강화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데, 특히 가장 전통적인 고전을 가장 현대적인 온라인 강좌를 통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2025년 시작하는 이 강좌는 『논어論語』와 『퇴계선집』을 중심으로 고전에 관한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위촉했다. 2025년에는 이기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논어論語』를, 그리고 국립 경상대 허권수 명예교수가 『퇴계선집』에 대한 강의를 맡았다. 각 과정 20여 명을 선발해서 14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 강좌는 평상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강좌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각각 1박2일과 3박4일의 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마칠 때 3박 4일 과정에서는 시험까지 진행해서, 그 수준과 실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강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도산서원은 온라인 강좌를 통해 강화 기능을 보강하는 동시에, 새로운 다양한 정규 과정 운영의 가능성을 모

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강학 기능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참공부 모임’에 근거하고 있다.²⁴⁾ 이 모임은 13명의 한국 최고 유학 관련 연구자와 도산서원의 중요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40여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격월로 대면 모임을 진행하고, 대면 모임이 없는 달에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영상 강독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황 관련 저술들을 함께 강독하고 있는데, 이후 이러한 성과들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저술 작업 등의 성과도 함께 냈다. 이미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학자들이 주도하는 모임의 특징으로 인해,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행사’ 등을 함께 기획할 정도로 도산서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학을 넘어 연구로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IV. 도산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그 방향

앞에서 본 것처럼, 2019년 도산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 9곳이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을 때, 부정적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자운의 연구에서도 서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그만큼 한국의 서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며, 특히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콘텐츠 역시 전통이나 의례 등과 연관되면서 여전히 고리타분한 옛것으로 치부되고

24) 도산서원 참공부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경환, 앞의 글, 195쪽 이하를 참조.

25) 김자운, 「지속 가능한 교육과 활용을 위한 서원의 교육환경 - 세계유산 등재 전후 문화재청 정책과 서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회』 13집(한국서원학회, 2021.12), 75쪽 참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산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발전 방향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록 부정적 인식을 드러나게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진 세계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물론 이로 인해 도산서원은 유산이 갖는 관광지로서의 의미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²⁶⁾ 그러나 세계가 인정했던 ‘사라진’ 서원의 문화적 양상²⁷⁾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지점 역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도산서원의 활용과 발전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는 더 이상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아닌 현실에서, 유교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서원의 현대적 활용은 현대에 맞게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교의 현대화에 대한 고민이면서, 동시에 유교적 이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원의 활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는 서구 중심의 공부 방법, 즉 ‘성인됨’을 위한 공부가 아닌 인식론 기반의 공부가 중심인 사회에서, 나아가 현대 교육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서원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정할

26)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유적 자체가 반드시 원형성을 가지고 현대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유적이 보여주는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호,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 활용 방안 제언」, 『유학연구』 제37집(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11), 445쪽 이하 참조. 다만 이 발표문에서는 관광자원 및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서원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되, 제향과 강학 기능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살펴보려는 목적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27)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OUV) 3번인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라는 점을 인정 받았다. 다시 말해 사라진 한국 성리학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그 가치를 인정 바다는 것으로, 이는 현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에 대한 고민이다. 즉 더 이상 유교 사회가 아니라는 전제, 그리고 나아가 새롭게 만들어진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기존 전통 사회의 유교 중심 교육 시스템의 중심이었던 서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배향기능의 현대적 활용과 가치발굴

도산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은 이항이 제시한 성현 배향 기준에 따라, 중국의 서원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었다. 이항은 서원 창건 운동을 하면서, ‘도학자 중심’과 ‘지역과 반드시 연고가 있는 성현’을 모셔야 한다는 배향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지역 인재가 지역 서원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부를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서원이 지역 공동체의 지식과 학문이 지역 서원을 통해 모여들고 전파되는 지식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유이다.²⁸⁾ 서원에서 지역 유학자들의 학문적 목표가 되는 ‘지역 성현’을 모시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학문과 특수성을 유지해 왔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향 기능은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지역 서원의 기능을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배향 인물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자긍심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향 기능은 그 지역이 배출한 인물을 기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배향에 대한 결정이 문중 중심이 아닌 유림이 공의를 통해 이루어졌던 조선시대에서 제향 기능은 그 지역이 기억해야 할 인물을 서원에 배향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인문적 성격을 만들고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 서원 배향이 가족이나 문중의 영향을 벗어나 ‘공적 담론’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한정된 논의이지만, 지역이 공적으로 기억해야

28) 도산서원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정만조 외 지음,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한국국학진흥원 기획(글항아리, 2012)을 참조. 특히 여기에서는 책을 통한 지식의 형성과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살필 수 있다.

할 인물들을 서원에서 함께 기억하고 기렸던 노력이 바로 배향기능이었다는 의미이다. 서원의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품격과 자긍심으로 이어졌다. 이를 현대적 개념으로 재해석하면 그 지역의 ‘메모리얼 기능’이 살아 움직이는 사례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징과 품격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메모리얼은 특정 인물을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지역이 만든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설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은 그들의 이상적 공동체를 설정할 수 있었다. 도산서원의 건립 역시 이황을 기억하고 그를 기념함으로써, 이후 이황을 본받아 이황과 같은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원의 배향 기능을 살리자는 말은 배향되어 있는 인물에 대해 제사 기능이 아니라, 서원을 통해 그 지역 사회의 메모리얼 기능을 살려 내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사회는 근현대로 이행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얼 기능이 약화되었다. 미국과 같은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도 그 나라와 여러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주는 것은 메모리얼 기능이다. 많은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들이 존재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거나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대해 그 사회가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명예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올바른 삶과 기억될 수 있는 행적에 대한 기준을 만들게 된다. 메모리얼 기능이 갖는 중요한 인문적 가치이다. 그러나 근현대 한국은 이러한 메모리얼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까운 곳에서 훌륭한 삶에 대한 표상을 잃어버렸다.

서원은 조선시대 지역 공동체 성현에 대한 추모와 메모리얼의 산실이었다. 물론 그 당시 문화적 기준에서는 위패를 배향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를 현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메모리얼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산서원은 예컨대 배출한 조선 최고의 학자와 그 제자를 배향한 공간이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지역에는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의 공의를

모아 서원에 추향하는 개념으로 메모리얼관을 만들고, 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에 대해 메모리얼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 말은 상덕사尙德祠에 새로운 인물을 추향하는 말은 아니다. 서원을 통해 현대적 메모리얼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과 건물을 통해 현대적 개념의 메모리얼 기능을 서원이 담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능은 도산서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 서원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로, 이를 통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계승할 수 있다.

더불어 제향 기능 자체에 대한 보존과 그 의미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원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필자는 춘추 향사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권고한다. 현재 도산서원은 서원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도산서원이 소장했던 유교책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 도산서원 편액 전체와 광명실에 소장되어 있었던 1855년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만 4종을 가진 공간으로, 한 단위 공간이 복합적인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²⁹⁾ 이러한 특징은 하회마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켜왔던 ‘정주형 유산(Living Heritage)’³⁰⁾에 많이 보이는 성격으로, 서원 역시 지금까지 기록과 유산, 그리고 그 의례들을 지켜왔던 사람에 대한 전승과 보존이 필요하다.

국가 단위 의례인 ‘종묘제례 및 제례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9) 이러한 성격은 안동의 유네스코 지정 유산이 가진 특징인데, 특히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세 분야에 모두 등재된 곳이다. 그 의미와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 『안동문화100선 - 하회마을』(민속원, 2024), 92쪽 이하를 참조.

30) 정주형 유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정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하회마을의 변화와 주민들의 대응양상」, 『민속연구』 제31집(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2015), 364쪽 참조.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의례와 이러한 의례에 사용되었던 의례 음악을 등재한 경우이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지역 공동체를 유교 이념으로 묶어 내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유교 이념 국가를 만들었던 한국의 서원 및 향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춘추 향사 및 석전대제 역시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산서원만의 춘추 향사를 넘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 서원의 향사 및 향교의 석전제 등을 엮은 후, 지역 공동체를 유교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의례들을 보존하고 전승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서원의 정신과 신념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존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기도 하다.

2. 강학 기능의 현대적 활용과 가치 발굴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산서원의 강학 기능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물론 조선시대 당시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모든 지식이 모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을 전파해 가는 기능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황의 정신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파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활용 방안 역시 ‘변화된 현대사회’라는 조건과 ‘도산서원 본래 정신의 계승’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현대 사회에서 도산서원이 강학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몇 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 도산서원이 지역사회에서 가졌던 가치를 지역 공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역의 초·중·고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가제)1학년 1서원 갖기 운동’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 공교육 기관과 지역 서원을 연계하여, 지역 공교육 기관은 그 역사성과

정신을 지역 서원에서 찾고, 지역 서원은 지역 공교육 기관을 통해 지역의 정신과 가치를 후속세대들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교육 기관은 지역의 ‘메모리얼’ 기능을 수행하는 서원을 통해 지역의 정신과 자긍심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역사성도 선취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산서원의 경우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진행하면, 지역 대학은 창립 450주년의 역사와 지역적 자긍심을 확보할 수 있고, 서원의 관점에서는 지역 대학의 인문학적 특성을 퇴계학을 통해 확보해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³¹⁾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그 지역 학교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도산서원 창건에 맞추고, 도산서원의 정신을 학교 교육 정신과 연계하여 공교육 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도산서원과 연계되어 있는 학교 학생들은 도산서원 유생들의 후배를 자임할 수 있으며, 어릴 때부터 서원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공교육 기관이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참여하는 학교의 경우 지역 교육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서원의 강학 기능을 공교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투영시킬 수 있으며, 지역 공교육 기관은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누구나 쉽게 배움을 청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강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학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전 및 퇴계학 관련 수준 높은 온라인 강의가 학기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강화하여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유학 및 고전, 퇴계학 관련 다양한 교육 강좌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 강좌의 형태로 개설할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 형식도 좀 더 다양화하여 공교육 과정에서

31) 이는 예컨대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성균관의 역사를 안으면서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유학관련 최고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자임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잃어 버린 전통과 고전 기반의 인문학 교육을 살려낼 수도 있다. 특히 온라인 강의는 지역과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배움의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기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도 있고, 다양한 특강들을 비정기적으로 들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복합 콘텐츠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사이버 도산서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도산서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논자는 지역 대학 및 서원 등을 엮어 공동의 학위 과정 및 교육 연구 클러스트 구축을 제안한다. 2000년 대 이후 지방대학의 급격한 퇴보와 인문학의 몰락은 지역 전통 인문학에 대한 퇴보를 가속화 시켰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전통 및 지역학에 대한 연구 기능을 잃어버렸다. 당연히 그 지역에 특화된 연구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 인문학의 몰락이 지역 연구자의 몰락으로 귀결되고, 지역 연구자의 몰락이 지역 인문학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조선시대 450년을 최고의 유학 연구기관으로 기능해 왔던 서원의 핵심 가치를 살려, 도산서원 및 지역 중요 서원들과 지역 대학 및 주요 연구기관들이 함께 협업하여 교육연구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의 자료,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중요 대학의 인문학 전공들을 엮어, 적어도 퇴계학 관련 연구 및 연구자 양성 기능만큼은 한국 최고 수준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서원이 지역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역의 전통과 인문학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연구 및 교육 관련 기관들을 특정 분야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현재 쇠락 일로에 놓여 있는 지역학 및 인문학에 대한 대안이면서, 동시에 오랜 전통의 서원이 갖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 번째 제안은 서원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학술을 전담했던 기능을 살려,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산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대부분 서원은 지역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원이 문화와 예술의 소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정숙의 연구에 따르면 서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³²⁾ 2024년 현재 남아 있는 1,087개의 서원 가운데 일부만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도, 대부분의 문화 소외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서원은 그 지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리얼리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지역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고가 있는 인물이 배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학문적 정체성이 만들어졌다.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독특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서원은 현재의 문화재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미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³³⁾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우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서원 본래의 기능을 살려 유교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고봉 기대승을 배향하고 있는 설봉서원의 경우에는 유교관련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거나 또는 전통혼례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서원 활용에 대한 한 사례를 만들었다.³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녹동서원은 한일문화체험관으로 만들어서 한일의 우호관계를 만들고 충효를 교육시킬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³⁵⁾ 녹동서원은 김충선 장군을 배향하고 있는데, 김충선

32) 정정숙,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08), 63쪽.

33) 위의 글, 같은 쪽

34) 월봉 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준성, 「고봉 기대승의 유물유적과 월봉서원의 문화콘텐츠 활용」, 『유학연구』 제27집(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2)를 참조.

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군으로 참여(원래 이름 사가야)했다가 조선으로 귀화한 인물이다. 이러한 배향 인물의 성격을 살려 한일우호를 위한 체험관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서원을 지역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주로 문화체험관이나 소규모의 박물관(기념관) 형태를 띠게 된다. 이를 통해 서원은 그 지역의 상징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도산서원 역시 안동시에서 약 20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에 있지만,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지역 메모리얼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정신문화의 본향으로서 그 기능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지역민들이 즐겨 찾고 지역 속에서 그 역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원 스테이를 좀 더 체계으로 정착시킬 필요도 있다. 다양한 고택들을 활용한 고택 스테이가 도심 생활에 찌든 현대이들에게 이른바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듯, 서원 역시 이러한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의 사찰 스테이는 종교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서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도 크지 않아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현재 도산서원의 제향과 강학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도산서원의 노력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도산서원의 활용 방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도산서원이 〈한국의 서원〉 9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면서, 실제 도산서원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이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며, 지방 자치단체를

35) 지두환 외,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12쪽.

중심으로 한 세계유산 등재 노력은 이러한 활용성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제향과 강학 기능을 기반으로 한 본래 정신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텔링, 에듀투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개발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현재 도산서원에서의 제향 기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일부 변형은 있지만 가능한 본래 정신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학 기능은 유교 이념에 따른 인성 교육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특히 현장 및 체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성 교육으로 정착되고 있다. 도산서원을 1,000여 곳이 넘는 한국의 서원 가운데 배향과 강학 기능이 가장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서원으로 규정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용 성과들을 유지하면서, 이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려 했다. 특히 이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적 영역으로 제향 및 강학 기능을 확대하고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 가치의 전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 장에서는 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해 보려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좀 더 지속 가능한 공공 기관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영속성을 가진 인성교육 전문 기관을 만드는 노력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부분의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적 조직 체계는 이러한 일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현재 사단법인 체계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공적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련원’

의 기능을 넘어, 도산서원의 조직과 시스템을 지원하고, 도산서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산서원의 다양한 유산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현대화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취업하고 싶고, 이를 통해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조직 또는 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의 마련이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도산서원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그 기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산서원이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 지원일 뿐, 중앙이나 지역문화 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도산서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필요성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한 정책 지원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을 지역 관광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넘어, 새로운 지역 인문 가치의 창출과 향유의 공간으로서 지역 서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폭넓게 서원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산서원은 창건 이후 450년 동안 자기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매 시대 마다 시대의 필요성에 조우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는 힘으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유교가 한 사회의 이념이 아니고 자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은 450년 역사의 도산서원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강한 큰 요소가 되었다.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대가 어쩌면 도산서원 450년 역사의 가장 큰 위협과 도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현대와 미래의 가치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450년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李滉, 『정본퇴계전서』, 『迎鳳書院記』
- 金垠, 『계암일록』 3, 오덕훈 외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13.
- 정만조 외 지음,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한국국학진흥원 기획, 글항아리, 2012.
- 이상호, 『안동문화100선 - 하회마을』, 민속원, 2024.
- 정정숙,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08.
- 황태희·최희수, 「향교·서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활용 방안 : 유교문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글로벌문화콘
텐츠학회, 2014.11.
- 한국관광학회, 『향교서원총람』, 한국관광학회, 2014.
- 지두환 외,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 강진갑 외, 「경기도 유교문화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 제정 및 운영방안 연
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12.
- 박원재, 「유학과 서원제도 - 학문을 통한 사회적 실천의 산실」, 『서원을 찾아서』,
한국국학진흥원, 2005.
- 김자운,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 『퇴계학논집』 18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 _____, 「지속 가능한 교육과 활용을 위한 서원의 교육환경 - 세계유산 등재 전후
문화재청 정책과 서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3집,
한국서원학회, 2021.12.
- 김형수, 「李滉 書翰을 통해 본 明宗代 書院의 創設과 運營」,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3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3.
- 박경환, 「유학과 교육 - 올곧은 선비 정신의 요람」, 『서원을 찾아서』, 안동: 한국국
학진흥원, 2005.
- _____, 「세계유산 서원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계승 활용 - 도산서원 사례를 중
심으로」, 『안동학』 22집, 한국국학진흥원, 2023.
- 김형찬, 「退溪의 書院觀에 대한 철학적 해명」, 『퇴계학보』 제136집, 퇴계학연구원,
2014.
- 이상호,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 활용 방안 제언」, 『유학연구』 제37집, 충

- 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11,
- 조정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하회마을의 변화와 주민들의 대응양상」, 『민속연구』 제31집,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2015.
- 임준성, 「고봉 기대승의 유물유적과 월봉서원의 문화콘텐츠 활용」, 『유학연구』 제2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2.
- 장인진, 「유생교양총서 제3집 - 陶山書院齋有司行公日記」, 도산서원박약재, 2014.
- 김영근, 「유생교양총서 제5집 - 陶山書院齋有司行公日記」, 도산서원박약재, 2017.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홈페이지(<https://www.dosansunbi.kr>)

Abstract

Contemporary Utiliz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Dosan Seowon

Lee, Sangho*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mporary applicability of Dosan Seowon-one of Korea's most representative Confucian academies and the principal Seowon of the Yeongnam region-on the occasion of the 45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By reassessing the modern functions and potential directions of Dosan Seowon, the paper seeks to offer broader insights into the revitalization of Korea's Confucian academy tradition in the present day. Since its establishment, Dosan Seowon has served for more than 450 years as a regional guardian of Neo-Confucian learning and as a symbolic institution embodying Korea's Seowon tradition. I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the academy dedicated to Yi Hwang (Toegye), whose thought helped shap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Seowon culture in contrast to that of China. For this reason, positioning Dosan Seowon as a barometer for evaluating the value, significance, and contemporary utilization of Seowon across Korea is both meaningful and instructive. Given that Dosan Seowon continues to actively perform the core Seowon functions of ritual dedication(Jehyang) and Confucian instruction(Ganghak), an exploration of new models for its modern development can offer practical pathways for the future of Korean Seowon as a whole.

Chapter 2 re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Yi Hwang's Seowon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sookbi@koreastudy.or.kr

revitalization movement and the principles of memorial enshrinement that emerged during this period. The principle that Seowon should enshrine sages associated with the locality and with Neo-Confucian scholarship, the paper argue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social role distinct from that of Chinese academie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performance of Dosan Seowon's traditional functions, including its monthly ritual ceremonies (hyangal) and its efforts to preserve Confucian ritual culture. It also analyzes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its instructional function through the Dosan Seowon Seonbi Culture Training Center. Chapter 4 proposes concrete strategies for updating these functions in contemporary contexts. With respect to ritual dedication, the paper suggests that regional Seowon should serve as local memorial institutions and that Seowon ritual practices be considered for inscription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Regarding instructional functions, the study recommends strengthen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education, expanding online learning programs, and fostering research clusters with regional universities.

Key word : Dosan Seowon, utilization of Seowon, Yi Hwang, Jehyang(ritual dedication) and Ganghak(Confucian instruction), Dosan-Seowon Seonbi Culture Training Center

논문 투고일: 2025. 11. 16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 논문

-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에서의 우계학통(牛溪學統) 전승과 재생산
- 「서실의(書室儀)」를 중심으로 -
- 서계 박태무의 유람과 서원 인식
- 石室書院을 통해 본 近畿 지역 老論 士族의 결합 양상
- 광암서원(廣巖書院)의 명칭(名稱)과 배향(配享)에 관한 연구
- 부평향교의 역사적 변천과 운영의 실상
- 朝鮮 《西岳志》 編纂述略
- 서원 제향인물의 초상화를 통해 본 복식문화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서원을 중심으로 -
- 조선시대 서원 강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에서의 우계학통(牛溪學統) 전승과 재생산 — 「서실의(書室儀)」를 중심으로 —

김진홍*

- I. 머리말
- II.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의 우계학통(牛溪學統) 계승
- III. 「서실의(書室儀)」의 제정과 재생산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 중기 인물인 성훈(成渾)에서 파평윤씨가(坡平尹氏)로 전승되었던 교육 지침인 「서실의(書室儀)」의 전승과 재생산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성훈의 사위이자 제자였던 윤황(尹煌)은 혈연과 학연이 동시에 작용했던 조선 시대 대표적인 학통 전승 사례이다. 윤황으로부터 전승된 성훈의 학문은 그 후손들에 의해 가학으로 발전하였고 선형적 계보를 그리며 계승되었다. 그 근거로 본고에서는 파평윤씨의 일원들은 가학의 연원이 성훈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성훈의 행적을 정리한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들 내면에 성훈의 연원 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 계보 속에서는 「서실의」라고 하는 학자들의 교육 지침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실의」는 성훈이 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제시한 22조목으로 그 교육적 가치는 거경(居敬)·공리(窮理)·역행(力行)의 구현이다. 성훈의 제정 이후 「서실의」는 초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대표적인 지침이 되었고 특히 윤선거(尹宣舉), 윤증(尹拯) 부자를 비롯한 파평윤씨가 일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문인 교육에 활용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전공 박사과정 / scarlet9656@naver.com

하였다. 게다가 「서실의」는 이들의 학통 전수 과정에서 전승과 재생산을 거쳤는데, 윤광소(尹光紹)-강필효(姜必孝)-성근묵(成近默)으로 이어지는 학문 계보 속에서도 「서실의」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른바 우계학(牛溪學)의 계보를 반추해보았을 때 「서실의」는 이들의 학문 전수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서실의(書室儀)」, 우계학파(牛溪學派), 파평윤씨(坡平尹氏), 강필효(姜必孝), 우계서실(牛溪書室)

I. 머리말

학문의 전승 과정인 학통(學統), 혹은 학맥(學脈)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전·후세대를 잇는 유대를 형성하는 매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 전승은 스승과 제자라고 설정된 사회적 관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사제(師弟) 관계가 가(家)¹⁾ 내부의 혈연적 관계로 편입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집안 내부에서 학문이나 제반 전통이 전승되는 형태인 이른바 가학(家學)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혈연적 계승뿐 아니라 집안 내부에서의 교육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며 후손들은 이를 가풍(家風)으로 이어받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며 계승·발전시켜나갔다.

조선 시대의 학문 전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학자들은 사승(師承) 관계를 통해 형성된 학풍과 더불어 가풍 역시 중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풍의 형성은 가문 간의 결합인 혼인(婚姻)의 역할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혼인이 사제와 결합하면서 학문적 전승의 경로가 확장되

1) 본고에서 언급하는 ‘家’는 경대부 반열의 신분적 지위를 획득한 범주로서 이를 조선의 신분 구조로 대입해보았을 때 이른바 양반에 한정하여 말하고자 한다. (김학수, 『가家の 실현 - 사대부가의 존재 양상과 지식문화적 기호嗜好』, 태학사, 2024, 15~16쪽)

있고 이는 곧 가풍의 전개 내지는 확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조선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본고에서는 조선 중기 학자였던 성혼(成渾)과 그 사위 가문이라 할 수 있는 파평윤씨(坡平尹氏)를 살펴볼 것이다.

성혼은 이이(李珣)·송익필(宋翼弼)과 함께 대표적인 기호학파의 인물로 정치적으로 서인을 대표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학문은 15세기 사육신(死六臣) 성삼문(成三問)의 충의(忠義)에 기반한 가학과 함께 스승인 백인결(白仁傑)을 통해 전수한 조선 도학적 갈래에 있다. 두 갈래에서 전개되었던 학문적 물결이 곧 성혼이라는 인물을 통해 합쳐지게 된 것이다. 또한 그의 학문은 제자이자 사위였던 파평윤씨 윤항(尹煊)으로 계승되었다. 성혼은 일찍이 윤항을 사위로 맞아 그를 자신의 학문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성혼의 학문은 윤항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으며 이는 파평윤씨 가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²⁾ 이러한 사실은 성혼의 학문은 혼인과 사제 관계가 결합한 형태로 파평윤씨가로 전승되며 이른바 ‘우계학파(牛溪學派)’라고 부르는 일련의 계보를 제시할 수 있다.

성혼의 학문이 파평윤씨가로 전승되었던 사실은 이후 전개되는 이들의 가학에 대한 연원을 밝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미 축적된 파평윤씨 가학 연구, 그중에서도 노종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보았을 때 주로 가훈과 가범(家範)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성혼의 유훈이 윤항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성혼의 유훈은 세전(世傳)되어 파평윤씨의 가훈으로 성립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혼과 윤항을 비롯한 파평윤씨가 일원들 간의 관계성은 보여주는 것이다.³⁾

2) 조선 도학의 도통에 학문 연원을 둔 성혼이 곧 윤항을 통해 혈연과 학연으로 파평윤씨 가학으로 전승된 계기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도 서술하고 있으나 과연 구체적인 이들 간의 전승된 그 학문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최근묵,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학문연원(學問淵源)과 그 학맥(學脈)」, 『유학연구』 1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7 ; 황의동, 『우계학파 연구』, 서광사, 2005 ; 김경수 외, 『우계학파의 전개와 특성』, 책미래, 2018.

3) 성혼의 유서 내지는 유언이 곧 파평윤씨가로 전래되어 가훈과 가범으로 전개된

그러나 결국 성혼의 학문이 곧 파평윤씨가로 전수된 사실 속에는 이들 간의 공유하는 학문 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한 사례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파평윤씨 가학의 대표적 사례를 유언으로 형성된 가훈으로 제시하였으나 학통의 형성은 가적 차원을 훨씬 넘는 범위이므로 학문 분야에서의 사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답을 지행(知行) 공부를 포괄하는 학문 규범과 그 정신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성혼은 문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직접 서실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위한 규범인 「서실의(書室儀)」를 제정하였다. 「서실의」의 목표는 주자학적 인간의 완성을 지향했던 교육 지침으로, 내적 수양인 거경(居敬)과 학문 탐구를 위한 궁리(窮理)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역행(力行)의 세 단계가 모두 작동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문인들은 「서실의」를 통해 학습하고 체행하였고 이후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를 전수하였다. 성혼의 「서실의」는 파평윤씨가 일원들에게 계승되고 재생산되기도 하였다. 또 한 드물게는 영남 유림이었던 강필효(姜必孝)를 거쳐 성혼의 8대손인 성근묵(成近默)에게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서실의」의 전승·재생산의 양상을 살펴보면 우계학이라는 학문의 면적 범위 안에서도 일정한 계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곧 파평윤씨가임을 반추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의 우계학통(牛溪學統) 전승

1. 혼인을 통한 학문의 전수

학문의 전수 과정은 주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작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문숙자, 「봉사(奉祀)의 세전(世傳)을 위한 가범(家範)의 성립과 전승-논산 파평윤씨 사례를 통하여」, 『고문서연구』 66, 한국고문서학회, 2025 ; 고민정, 「조선 후기 가훈의 형성과 전승-파평윤씨 노종파 가문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4.)

동하게 된다. 사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의식 세계 속에서는 학문적 유대감·동질감이 형성된다. 게다가 스승은 자신의 제자를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인척 관계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기도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제자를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는 경우이다. 제자를 사위로 맞이함으로써 확실하게 학통과 함께 가통(家統)을 함께 전수하는 것이다. 즉, 학연과 함께 혈연이 작동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학문적 연원 인식과 관계의 연속성은 더욱 강화된다.

송(宋) 대 주희(朱熹)와 제자 황간(黃幹)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연속적인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황간은 주희 문하의 대표적인 적전(嫡傳)이자 사위로 25세에 처음 문하에 들어와 23년 동안 스승을 모시며 가장 가까운 문인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주희는 자신의 중녀(仲女)를 황간에게 시집보내며,⁴⁾ 그를 학문을 이을 전수자로서 선택하였다. 황간에 대한 주희의 인식은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되었다. 병세로 위급한 상황에서 “나의 도(道)를 맡길 사람이 이자에게 있으니 나는 유감이 없다.”라고 할 만큼 깊은 유대감을 드러내었으며,⁵⁾ 황간 역시 스승이자 처부(妻父)의 죽음에도 3년의 심상(心喪)으로 보답하였다.⁶⁾ 스승이 제자를 직접 단지(單指)하고 제자는 스승의 죽음에 예를 다하는 모습을 통해 사제·인척 관계를 매개로 한 학통 전수의 실체를 포착할 수 있다.

이처럼 주희-황간으로 이어지는 주자학의 학맥은 사제 관계와 함께 혼인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혼인은 사회적 관계인 사제 관계를 혈연적 기반의 ‘가’와 결합하며, 학문의 전수와 가학 형성을 더욱 견고하게 된다. 스승은 자신의 학문을 적합한 인물에게 전수하고 이를 가문 안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며 제자를 사위로 맞이하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학문 전수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학문을 혈연의 바탕 위에 그대로 사승을

4) 지준호, 「朱子門人の 道統意識」,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369쪽.

5) 朱熹, 『朱子年譜』 卷4, “吾道之託在此, 吾無憾矣.”

6) 『宋史』 列傳, 第一百八十九, 道學四, “訃聞, 幹持心喪三年畢, 調監嘉興府石門酒庫.”

꾸러가며 학문의 순수성을 보존하겠다는 이 의식은 혼인을 성사시키는 순간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을 기저에 깔고 성혼과 파평윤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 역시 그러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성혼의 문하에는 다수 문인이 존재했으며 또한 그는 이이와도 매우 친밀했기 때문에 여러 문인이 양 선생 문하를 오가며 교유하였다.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 수록된 성혼의 문인은 112명 정도였는데⁷⁾ 이 중에서 학연과 직접적인 혈연이 병행하여 전개된 경우에는 파평윤씨가의 윤항(尹煌)을 통해서였다. 윤항은 1590년(선조 23) 20살 때에 성혼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후 그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학문을 연마하였다.⁸⁾ 성혼과 윤항의 관계를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은 가장 위급한 때 함께 헤치는 순간이다. 왜란으로 피난을 가던 중 순천군에 표류하여 추위와 함께 성혼의 병세가 위급해지자 그는 죽음을 염려한 끝에 자신을 수행했던 외생(外甥) 윤항에게 유언을 전해주었다. 위급한 상황에 사위인 윤항에게 유언을 남기는 모습은 바로 앞서 주희와 황간의 사례를 그대로 환기시킨다.

자손이 어지러운 시대에 표류하여 온전히 목숨을 보전할 수 있지 못하니 자손들이 나의 뼈를 가지고 돌아가 상을 치르지 못하면 두 사위가 옛 정의(情義)로 이 일을 맡아 주는 것이 또한 바라는 바이다. 김권(金權) 이중(而中), 황신(黃愼) 사숙(思叔), 신응구(申應渠) 자방(子方), 오윤겸(吳允謙) 여익(汝益), 유대진(俞大進) 신보(新甫), 이귀(李貴) 옥여(玉汝), 한교(韓嶠) 사양(士仰)과 여러 사람 중에 힘이 미칠 수 있는 자에게도 백골을 가지고 돌아가 장례 지내는 일에 대해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⁹⁾

7) 진오균, 「朴世采의 『東儒師友錄』 사본과 구성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사학회』 48, 한국사학사학회, 2023, 326쪽.

8) 윤항, 『국역 팔송봉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3, 173쪽; 윤항의 호인 八松은 당시 성혼의 우거지였던 파산에 머물면서 뜰에 있던 소나무 여덟 그루를 취하여 자호한 것이다. (尹拯, 『明齋遺稿』 卷32, 記, 「牛溪書室重修記」, “我祖考吏部始宅於此, 庭育松樹八株, 自號以八松者, 蓋取於斯, 而今溪南有遺墟在焉.”)

9) 成渾, 『牛溪集』 續集 卷6, 雜著, 「後事書付尹甥煌」, “子孫漂泊亂世, 未保其存全, 子

성혼은 피난 도중 혹시라도 죽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위에게 자신의 백골이 고향에 묻힐 수 있도록 그 후사를 전해주었다. 또한 더불어 장례에 대한 일을 문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였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며 언급되는 김권(金權), 황신(黃愼), 신응구(申應渠), 오운겸(吳允謙), 유대진(兪大進), 이귀(李貴), 한교(韓嶠) 7명이 바로 성혼이 확실하게 부탁할만한 문인 내지는 인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부탁을 각별하게 윤희에게 맡긴 것은 그가 혈연적으로는 사위인 동시에 학문적으로는 자신의 제자였기 때문에 내·외의 일들을 모두 맡길 수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혈연과 학연이 동시에 작용한 관계에서는 성혼의 학문이 파평윤씨가로 계승될 수 있었고 이들의 후손들 역시 이러한 연원을 인식하며 가학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2. 문집 편간을 통한 연원 의식의 표출

성혼의 학문은 사위인 윤희를 통해 전승되었으며 이는 곧 파평윤씨가의 가학으로 형성되고 정착되었다. 가학의 전개 과정에서 윤희의 후손들은 성혼에 대한 학문적 연원 의식을 고취하였고 이를 유지한 채 계승해나갔다. 성혼에 대한 연원 의식은 그의 남겨진 기록들을 수집·정리하는 문집의 편간(編刊) 과정에서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 문집은 한 개인의 사상과 행적 등 그 개인이 속해있었던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저술이다. 다만 문집의 편간은 주로 그 인물 사후에 이루어지며 주로 후손이나 친자(親炙)했던 문인들이 중심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편간 과정에서 죽은 인물과 관련된 자들이 중심이 되어 끊임없는 학문 전승과 연원 의식을 구현하게 한다.

성혼의 문집인 『우계집(牛溪集)』과 이후 속집·연보 등의 기록이 역시 이러

孫不能歸我骨，則兩塋壙以舊義任此事，亦所望焉。金權而中，黃愼思叔，申應渠子方，吳允謙汝益，兪大進新甫，李貴玉汝，韓嶠士仰，諸人力可及者，則亦宜告此歸骨之托可也。

한 맥락 속에서 편간된 것이다. 먼저 『우계집』 원집 6책은 1621년(광해군 13)을 전후로 아들인 성문준(成文濬)과 그 문인들이 주도하여 편간되었다.¹⁰⁾ 그러나 편간의 일은 대북 정권의 용인 아래에서 이루어진 탓에 정치적인 시회(時譏) 표현들이 일부 누락되었다. 당시 김장생(金長生)은 “옛날 우계의 문집을 편찬할 때에 문생들이 저들에게 거슬리는 말들을 모조리 삭제하여 저들과 화해를 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었다.”라고 거론하며 『우계집』 원집 편찬에서 정치적 시회를 삭제했던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다.¹¹⁾ 이처럼 『우계집』 원집이 이루어지던 한편, 시회로 인해 성혼의 저술을 온전하게 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했던 것이다. 불완전성은 곧 파평윤씨가에서는 직접 성혼의 문집을 보완한 작업을 진행하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우계집』 속집 편간은 성혼의 외손이자 윤향의 아들인 윤선거(尹宣擧)가 주도하였다. 그는 누락된 문자들을 수집·편집하여 새롭게 보충하였고 이를 판각까지 하여 노강서원(魯岡書院)에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된다.¹²⁾ 『우계집』 속집의 경우는 원집과 같은 6책의 분량으로 간행되었는데, 앞서 시회에 의해 산삭되거나 혹은 기준에 수록하지 못한 상당한 성혼의 원고들이 속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것이다. 윤선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혼의 행적들을 수집하였는데 이는 그의 아들인 윤증(尹拯)으로 이어졌다. 윤증 역시 성혼의 글들과 사적을 토대로 성혼의 연보에서 빠진 부분을 더한 『우계연보보유(牛溪年譜補遺)』의 편찬을 계획하였다.

이 시기 문집 편간과 함께 성혼의 언행(言行)을 비롯한 행적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윤증과 함께 성혼의 증손이었던 성지선(成至善)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10) 成渾, 『牛溪年譜補遺』 卷2 「雜錄 上」, “光海辛酉, 士林謨刊先生遺文, 張谿谷雜發文中外, 頭辭云, 右文爲收聚財力. 刊行牛溪成先生文集, 以壽道脉事.”

11) 金長生, 『沙溪全書』 卷3, 書, 「與鄭子容書」, “昔年纂牛溪文集時, 門生等, 盡刪觸忤彼輩之言, 而以求解於彼輩, 人多非笑, 君不聞之乎.”

12) 成渾, 『牛溪年譜補遺』 卷2 「雜錄 上」, “後來文集刊於湖南之任實縣, 續集刊於錦營, 板藏於尼山魯岡書院”; 『鏤板考』 卷6, 集部上, “牛溪續集六卷. 本朝議政府左參贊文簡公成渾. 撰外孫尹宣舉編. 尼城魯岡書院藏. …”

살펴볼 수 있다. 처음 윤증은 성지선에게 『율곡집(栗谷集)』 외집(外集)의 예에 따라서 연보습유(年譜拾遺)의 편찬을 중용하였다.¹³⁾ 그러나 성지선에 의해 편찬된 연보습유가 미진하게 되자 그는 자신이 직접 수정·보완하고 개명하여 『연보보유(年譜補遺)』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여기에서 약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베껴 『연보보유(年譜補遺)』라고 이름하고 『연보후설(年譜後說)』과 합쳐 한 질로 만들어 연보(年譜)에 붙여서 판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덕행(德行), 출처(出處), 답문(答問) 등 세 조목으로 나누어 총 수십 장에 불과할 뿐입니다.¹⁴⁾

우계(牛溪) 조고(祖考)의 『연보보유(年譜補遺)』 총 94조목을 책으로 묶어서 그 대에게 드리니, 바라건대 한 벌을 깨끗이 베끼어 화숙(和叔)에게 질정을 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대에게 일찍이 써서 보여주었던 것에는 용잡(冗雜)한 것이 많이 있으므로 단지 여덟 조목만을 뽑아 베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¹⁵⁾

성혼에 대한 행적을 덕행(德行), 출처(出處), 답문(答問)으로 나누어 총 94조항으로 분류하고 서명까지 붙인 것은 모두 윤증의 구상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외손임에도 자신이 성혼의 학문을 계승한다는 강한 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조부로부터 이어졌던 혈연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그는 성혼 가문의 일원들과 함께 성혼을 현창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원 의식을 보여준 활동이었다.

파평윤씨가 내에서 진행되었던 성혼의 현창 사업은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13) 尹拯, 『明齋遺稿』 卷16, 書, 「與成汝中, “又有一計. 欲收拾遺言行及見於他人記載者, 爲年譜拾遺, 如和叔所爲栗谷外集者, 則庶無餘憾”

14) 尹拯, 『明齋遺稿』 卷16, 書, 「與成汝中, “蓋此方裒得若干, 名曰年譜補遺, 欲與年譜後說爲一帙, 爲附刻於年譜之計, 分德行出處及答問爲三件, 總不過數十張耳.” (“年譜後說”는 윤선거의 저술로 이 역시 성혼의 연보를 찬술한 뒤에 붙인 것이다.)

15) 尹拯, 『明齋遺稿』 卷16, 「與成汝中, “牛溪祖考年譜補遺, 總九十四條, 草冊呈上. 幸精寫一本, 以爲就正於和叔之地, 如何. 汝中曾所記記者, 多冗雜. 故只抄取八條, 未知如何.”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윤증을 통해 이루어졌던 『연보보유』의 편찬은 그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잠시 부침을 겪었다가 가문의 일원이었던 윤광소(尹光紹)라는 인물에 의해서 재개되었다.¹⁶⁾ 윤광소는 역시 자신의 가학이 성혼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¹⁷⁾ 그 핵심을 ‘먼저 의(義)를 행하고서 나중에 문예를 닦으며 근본과 실질을 숭상하고 말단과 겉치레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혼이 남긴 규범’이라고 여겼다.¹⁸⁾ 여기서 근본(本)과 실제(實)를 숭상하는 것은 바로 근본에 힘쓰는 것이며 이는 파평윤씨가 내에서 중시했던 학문 전통인 위기지학적 무실(務實)의 추구가 선조들로부터 자신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의미한다.¹⁹⁾

윤광소는 집안 내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연보보유』 친필본을 살펴보고 여기에 다시 성혼과 관련된 기록들을 채집하여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연보보유』를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증이 편차했던 항목에 ‘잡록(雜錄)’이라는 별도의 조목을 추가하였고 『우계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상소와 제문, 축문 등을 수록하였다.²⁰⁾ 특히 그가 발문에서 “이에 선생에게 관계되는 모든

16) 윤광소는 윤증의 종5대손으로 성혼과는 외6대손이 된다. 그는 당시 선조의 행적을 수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유계와 윤선거가 공동 편찬하고 이후 윤증에 의해 수정된 『가례원류』를 다시 편찬 체제에 맞게 수습하고 정리하여 완성하고자 했던 사실이 있다.(김진홍, 『家禮源流』의 編刊과 그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110, 조선시대사학회, 2024.)

17) 실제로 그는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외6대손이라고 발문에 이를 밝혔는데, 역시 성혼과의 학문 연원을 드러내고자 한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尹光紹, 『素谷遺稿』 卷3, 跋, 「牛溪先生年譜補遺跋」, “甲午五月下浣, 先生之外六代孫坡山尹光紹謹書.”)

18) 尹光紹, 『素谷遺稿』 卷3, 跋, 「闇隱集跋」, “先行義而後文藝, 尚本實而略浮華, 卽我坡山之遺規, 而魯翁之法門也.”

19) 윤증 학문관의 특성인 ‘務實’은 바로 위기지학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尹拯, 『明齋遺稿』 卷11, 書, 「與朴和叔」, “以務實二字, 貼於爲學初頭, 庶乎做得基址”; 이치익, 「명재 윤증 위기지학의 특성과 그 현대교육적 의의」, 『양명학』 76, 한국양명학회, 2025, 244쪽.)

20) 成渾, 『牛溪年譜補遺』, 「牛溪先生年譜補遺序」, “光紹少嘗聞有是編, 而未得見焉, 間因修潤文成年譜, 得之舊篋中, 其彙分筆削, 手澤宛然, 摩挲展閱, 益不勝高景之思也.

문자가 거의 빠짐이 없게 되었다.”라고 한 표현은 마침내 자신에 와서야 성혼의 저술과 언행을 완전하게 수습·정리하였음을 강조한 것이다.²¹⁾ 이는 곧 문집 편찬 당시 수록하지 못했던 성혼의 학문과 내력을 집성한 마지막 작업이었으며 성혼 학문의 전승에 대한 책임과 연원 의식을 집약한 것이었다.

또한 윤광소의 저술 가운데 「우계사우록(牛溪師友錄)」이 있다.²²⁾ 사우록(師友錄) 혹은 문인록(門人錄) 역시 공인된 사제관(師弟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편찬 역시 필연적으로 사승 관계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의식에 따라 윤광소는 『우계연보보유』를 완성한 뒤 성혼의 사우록 편찬도 진행하였다. 「우계사우록」의 경우도 이미 그 기획은 윤선거·윤증 부자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²³⁾ 이들 부자가 이이와 성혼의 사우를 정리하였으나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있었으나 윤광소가 이를 계승하며 마무리하였다. 그는 『우계연보보유』를 편찬하고 나서 성혼의 사우록을 완성하는 일이 곧 학문의 원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리하여 121명의 인명과 행적 기록을 갈무리하여 「우계사우록」을 완성하였다.

문간공(文簡公, 성혼)의 『연보보유』가 이미 완성되었으니 사우들이 모두 파산(坡山) 문하 사우행록(師友行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노서(魯西) 문경공(文敬公, 윤선거)께서는 일찍이 모은 행적들을 가지고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고 명재(明齋) 문성공(文成公, 윤증)께서 뒤이어 편찬한 바가 있으셨으나 실현되

惜乎。鄉間少書籍，當時猶以考摭未博爲恨，其不卽出，殆以是歟。遂乃淨寫一本，合以後說。又輒不揆僭易，更加搜輯，得若干條，各以類附。又別爲雜錄一目，以該其餘。又取從享時疏章教書及祭祝文之不見於元譜者，續編其下，於是而凡係先生文字，殆無遺焉。”

21) 尹光紹, 『素谷遺稿』 卷3, 跋, 「牛溪先生年譜補遺跋」, “於是而凡係先生文字, 殆無遺焉.”

22) 尹光紹, 『素谷遺稿』 卷13 編書錄, 「編書錄」, “丁丑春, 增修牛溪先生年譜補遺, 說見跋文. 書凡三卷, 甲午入刊, 實板坡山書院.”; 『素谷遺稿』 卷13, 「編書錄」, “癸巳夏, 編牛溪先生師友錄, 同補遺刊行.”

23) 尹拯, 『明齋遺稿』, 「與成汝中」, “和叔師友錄, 至於退陶門下而止, 自坡山門下, 目爲續錄, 而使我爲之, 此固先人之所嘗留意者. 今欲踵成, 而鄉中無書籍, 謾聞固陋, 深恐因循負此一大事. 左右亦須隨得隨錄, 逐旋寄來, 與之共手, 如何.”

어 지금은 단지 목록에만 있을 뿐이다. 하물며 문성공께서 이미 『연보보유』와 함께 간행하고자 하였으니 더욱 이 책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곧 노문(魯門)의 두 세대에 걸친 뜻을 마무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건대 도움을 받아 나의 덕을 이루는 존재는 사우이며 도움을 받아 나의 도를 전하는 자는 문인이다. 진실로 모두 선생으로부터 온 계통이자 지류이니 선생이 계승하고 열어주신 공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또한 의당 이것을 고증해야 할 것이다.²⁴⁾

윤광소가 성혼의 유문(遺文)을 완성했던 것은 가문 내 미완의 사업을 끝내고자 했던 사명감과 동시에 자신의 학문적 원류가 성혼으로 귀결됨을 자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앞서 자신의 선조가 이미 성혼의 행적을 정리하고 있었고 이것이 파평윤씨가 과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우계연보보유』와 「우계사우록」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⁵⁾ 또한 윤광소는 『우계연보보유』와 「우계사우록」의 편찬 경험을 자신의 선조들에게도 적용하여 윤증의 언행록과 사우록 편찬에도 참고가 되었다. 그는 덕행, 출처, 답문의 체제를 그대로 『명재선생언행록』을 편찬했을 당시에 적용하였는데,²⁶⁾ 이때 편찬의 목적은 문집의 보충적 성격이자 이황(李滉)·이이(李珣)·성혼 세 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하였다.²⁷⁾ 이는 편찬을 통해 선대부터 내려온 학문 전통의 연속성을 드러낸 의도적 행위로 볼 수 있다.

24) 尹光紹, 『素谷遺稿』 卷3, 跋, 「牛溪先生師友錄跋」, “文簡公年譜補遺書既成, 士友咸謂坡門師友行錄 魯西文敬公, 嘗擬緒輯而未果, 明齋文成公繼有所編而見佚, 今只有目錄在. 況文成公既欲與補遺同刊, 則尤宜採附是編, 以卒魯門兩世之志也. 光紹竊惟, 師友所資以成吾德者也, 門人所賴以傳吾道者也, 固皆先生之源派支流, 則欲觀先生繼開之功, 亦宜考徵於斯.”

25) 윤증은 자신들이 완성하였던 성혼의 기록들을 파산서원에 비치하고자 하였는데, 실제로 편간된 『우계사우록』은 이후 파산서원에 보관되었다.(成渾, 『牛溪年譜補遺』, 「又【此下論師友錄】」, “甲午開刊運置板本于坡院”)

26) 尹光紹, 『明齋先生言行錄』, 凡例, “一. 分類從先生所編牛溪先生年譜補遺之例, 爲三目.”

27) 尹光紹, 『明齋先生言行錄』, 跋文, “我東儒門語錄, 昉於陶山, 而石潭之外集, 默庵之補遺, 皆是義也. … 惟我明齋先生正學醇德, 寔承三先生之緒, 文集禮說等書, 已行於世.”

요건대 성혼의 학문과 그 전수의 구체적인 모습은 율향을 통한 파평윤씨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학문적으로는 제자이자 동시에 사위로의 인척 관계 형성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이미 조선 시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후로 파평윤씨가의 인물들은 선대로부터 이어졌던 연원의 의식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미완의 문집을 편간하거나 행적을 정리·보완하는 작업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성혼의 학문이 파평윤씨가로 선행적으로 계승되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로도 파평윤씨가 내부에서는 가학의 연원의식을 거듭 표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Ⅲ. 「서실의(書室儀)」의 제정과 재생산

1. 우계서실(牛溪書室) 건립과 「서실의」의 제정

성혼은 문인의 교육을 위해 파주(坡州)에 서실을 건립하였다. 이는 16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리학(理學)적 수양과 문인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한 사학(私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우계서실(牛溪書室)을 건립한 공간인 파주는 부친 성수침이 터전을 잡았던 공간인 동시에 이이와 송익필(宋翼弼) 등과도 관련한 지역으로 바로 기호학과 유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다. 서실이 건립된 이후 성혼은 이곳에서 머물며 도학을 강학하고 교육적 이상을 구체화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우계서실에 대한 자세한 내력과 목적은 1670년(현종 11) 성혼의 증손인 성희주(成熙胄)의 부탁으로 윤증이 찬술했던 「우계서실중수기(牛溪書室重修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우계서실(牛溪書堂)은 바로 우리 묵암(默庵) 선생께서 도학(道學)을 강하던 곳이다. 대개 선생의 나이 삼십 이전부터, 그의 풍도(風度)를 들은 자들은 이미 배울 만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원근에서 앞다투어 책 상자를 지고 찾아왔

었다. 선생께서는 교육하는 데 즐거워하며 게을리하지 않아 거주하던 집의 동편에다 실(室) 하나를 지었다. ... 서실이 완성되자 스스로 편액하기를 ‘우계서실’이라 하고 또한 손수 22개 조를 썼는데 서실에서 지켜야 할 규범(書室儀)이라고 하였다. ... 숭정(崇禎) 기원후 46년 계축년(1673, 현종14) 9월 하순에 선생의 외증손으로 파평(坡平) 사람 후학 윤증은 삼가 기록한다.²⁸⁾

위의 중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계서실의 공간은 성혼이 직접 설계한 공간이자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570년(선조 3) 성혼은 적성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파주로 돌아왔고 이에 문인들이 그를 찾아 자연스레 모이게 되면서 강학 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²⁹⁾ 또한 우계서실은 성혼 문하의 학문 활동의 구심점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의 결과로 성혼 사후에는 강학과 존현(尊賢)이 이루어지는 파산서원(坡山書院)의 건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혼의 연보 기록에는 1611년(광해군 3)에 유생들이 파산의 옛터에 서원을 세웠다고 하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며 이후 인조반정으로 서인 집권 이후인 1628년(인조 6)에는 파산서원이 건립되자 위판을 봉안하고 석채례(釋菜禮)를 행한 뒤 부친인 성수침과 함께 제향한 기록이 확인된다.³⁰⁾ 따라서 이 우계서실은 성혼의 학문을 계승하고 그의 도학적 전통을 집약하는 공간적 장소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성혼의 학문 전통을 상징하는 것은 중수기에서도 언급했듯이

28) 尹拯, 『明齋遺稿』 卷32, 記, 「牛溪書室重修記」, “牛溪書室者, 卽我默庵先生講道之所也. 蓋先生自歲三十以前, 聞其風者, 已知學之有師, 遠近爭負笈而歸之. 先生樂育不倦, 爲構一室於所居之東偏. 旣成, 自扁其顏曰牛溪書室, 且爲手書二十二條, 以爲書室之儀. ... 崇禎紀元之後四十六年, 癸丑九月下澣, 先生之外曾孫後, 學坡平尹拯, 謹記.”

29) 成渾, 『牛溪年譜』 附錄, 行狀, 「行狀【右議政李廷龜撰】」, “庚午, 除積城縣監, 謝恩卽還坡山, 遠近學徒, 坌集壩門.”

30) 成渾, 『牛溪年譜』, “三十九年辛亥, 諸生建耆院于坡山. 栗谷曾倡多士, 經始聽松書院於溪上, 而火於壬辰, 至是諸生爲竝享先生, 重創于舊址.”; 成渾, 『牛溪年譜』, “毅宗皇帝崇禎元年戊辰十月, 坡山書院成. 奉安位板, 行釋菜禮.”

1570년에 우계서실을 건립하면서 그가 직접 찬술했던 「서실의」 규범이다. 그는 문인 교육을 위해 교육 지침인 학규를 천제하며 이를 가르치기 위한 모범으로 삼았다.³¹⁾ 성혼이 마련한 「서실의」 22조는 리학적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君子)가 되기를 지향하면서 구체적인 학문 방법과 서실 생활 전반에 걸친 실천 규범을 제시한 지침이다. 특히 「서실의」는 주희의 글을 발췌하여 학문하는 방법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을 담은 「위학지방(爲學之方)」과 함께 성혼 문하의 학문 정수를 보여주며 그가 서실에 거주하면서 평소 지니고 있던 교육에 관한 관심과 방안을 제시했던 결과물이었다.³²⁾ 「서실의」 22조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양의 가치를 조목마다 분속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 우계서실 서실의(書室儀) 22조목³³⁾

조목	내 용	덕목의 가치
1	서실에 들어온 자는 먼둥이 틀 적에 일어나서 직접 스스로 침구를 개어 정돈해야 한다.	居敬
2	나이가 어린 자는 빗자루를 들고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居敬
3	차례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바르게 해야 한다.	居敬
4	각자 독서하는 곳에 나아가서 서책을 정돈하고 책상 앞에 단정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히 읽고 외우며, 어지러운 생각을 하지 말고 딴 일을 돌아보지 않으며, 남들과 잡담을 나누지 말고 제멋대로 출입하거나 일어나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窮理
5	아침밥을 먹을 때에는 나이대로 앉아서 조용히 정돈하며 희롱하고 장난하며 음식을 다투지 말아야 한다.	居敬
6	식사가 끝나면 나이대로 나가 밖에서 산책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서실로 들어와 책자를 정돈하고 선생이 불러 책을 가르쳐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窮理

31) 尹拯, 『明齋遺稿』 卷32, 記, 「牛溪書室重修記」, “獨此書室, 則尤有異焉. 其作也, 先生既親自授矩, 而詩書於斯, 禮樂於斯, 席間函丈, 二紀於斯者也.

32) 「書室儀」와 「爲學之方」은 모두 1571년(선조 4) 서실 건립 이후에 찬술된 것으로 역시 찾아왔던 학생들에게 학문 요령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成渾, 『牛溪年譜』, “五年辛未春, 揭書室儀示諸生.【學徒多集, 先生訓迪不倦, 爲作書室儀二十二條, 以立規繩.】抄朱子書爲學之方示諸生.【先生手抄大全語類, 輯成一冊, 題卷首曰, 學者須先讀此以立基本, 不可不讀也.】”)

7	이 사이의 여가에는 글씨를 쓰든지【어지러운 초서(草書)는 쓰지 말고 반드시 단정한 해서(楷書)로 써야 한다.】 의리를 강론하든지 해야지, 게으르고 방자하여 제멋대로 하여 안일하게 있지 말아야 한다.	窮理
8	글을 배운 뒤에는 독서하는 곳에 각자 나아가 똑바로 단정히 앉아서 종일토록 책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곧 와서 질문하되 재차 반복하며 조금이라도 그대로 지나치지 말며 조금이라도 한가롭거나 나태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窮理
9	저녁밥을 먹을 때에 식사하기를 위와 같이 하며 식사가 끝나면 시냇가에 나가서 한가로이 산책하거나 서실 안에 들어와서 책을 보고 문장을 논하고 습자(習字)를 해야 한다.	窮理
10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며 밤이 깊어지면 취침해야 한다.	窮理
11	잠을 잘 때에는 계집종을 불러 잠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취침하되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거두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居敬
12	날마다 거처할 적에 모름지기 공경해야 하지 거만하고 방자하며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	居敬
13	말하는 것은 모름지기 꼭 해야 할 때에만 하고 희롱하거나 웃고 떠들지 말아야 한다.	居敬
14	기거하고 앉고 서는 것을 되도록 단정하고 엄숙하게 할 것이요, 기대거나 태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居敬
15	출입할 때 걸음걸이를 되도록 편안하고 진중하게 할 것이요, 뛰고 달려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한다.	居敬
16	출입할 때 나이순으로 걸어가되 혹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요, 빨리 걸어서 어른보다 먼저 가지 말아야 한다.	居敬
17	온화함과 겸손함으로 자처(自處)하고, 화목함과 공경함으로 남을 대하여야 한다.	居敬
18	연고가 없으면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居敬
19	모든 일은 반드시 겸손하고 공손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요, 기세를 올려 남을 능멸하지 말아야 한다.	居敬
20	아침저녁으로 자주 자신이 익히는 학업을 스스로 점검하고 의리(義理)를 사색하며 체인(體認)하고 실천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방만하고 안일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力行
21	모름지기 勤(勤)과 근(謹)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 조차간에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力行
22	관을 쓴 사람이 출입하면 나이가 어린 자는 모두 일어나야 한다.	居敬

성혼의 「서실의」는 학문을 배우는 실천적인 지침으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을 미루어보면 상당 부분이 성균관의 학령(學令)이나 주희(朱熹)의 교육 지침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³⁴⁾ 이들의 목표가 하학(下學)의 공부를 통해

33) 成渾, 『牛溪集』 卷6, 雜著, 「書室儀」.

34) 박균섭, 「우계서실의 문도교육에 관한 교육사적 고찰」, 『우계학보』 22, 우계문

상달(上達)의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을 위해 먼저 내적 수양의 과정 즉, 거경(居敬)과 궁리(窮理)를 교육의 덕목(德目)으로 설정하였는데, 「서실의」도 이들과 같은 맥락 속에서 제정된 것이다.

성혼의 「서실의」에서는 궁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독서법을 제시한다. 성혼은 학문을 힘쓰는 데에 독서를 통한 공부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통해 실천으로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문은 단지 책을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책이 아니면 어찌 노맥(路脈)을 찾아서 문정(門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지금 시대는 이익과 욕심이 흘러넘쳐서 큰 뜻을 이루려는 자가 없으니 모두 평범하고 속된 선비로서 부귀와 영달을 추구할 뿐이다. 그러므로 세도(世道)가 갈수록 낮아져서 끝내는 망국(亡國)의 화를 보게 될 것이니, 내가 무슨 말을 달리하겠는가? 바라건대 어진 자라면 스스로 대하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책을 읽고 갈고 닦으며 완색(玩索)하고 잡아 지켜서 그 공부를 모두 지극히 해야 하니 이렇게 한다면 거의 들어갈 곳이 있어서 깊이 나아가고 스스로 얻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³⁵⁾

정종명(鄭宗溟)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그의 당부는 다름이 아닌 독서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독서의 강조는 「서실의」 속에도 나타나는 것인데, 이치를 탐구하기 위한 조목들이 전반적으로 독서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혼의 「서실의」에 나타나는 교육 내용은 성현의 가르침을 서책을 통해 이루어짐을 긍정하며 그러한 교육관이 「서실의」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또한 「서실의」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독서를 통한 지(知)의 공부뿐만

화재단, 2003, 170쪽.

35) 成渾, 『牛溪集』卷5, 簡牘, 「與鄭士朝【宗溟】書」, “學非但讀書之謂, 然非書, 何以尋箇路脈以入門庭耶. 今之時利欲滔滔, 無復有大志者, 皆是常俗之儒, 求富貴利達而已. 是以世道益下, 終見亡國之禍, 復何言哉. 願賢者勿輕於自待, 劬書刻厲, 玩索操持, 交致其功則庶有入處, 而深造自得, 卽此而在矣.”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충실하게 실천하는 행(行)의 규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20조)과 근근(勤謹)을 가슴에 새겨 어기지 말아야 하는 것 등이다.(21조)³⁶⁾ 특히 여기서 언급되는 ‘근근’은 윤증 역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관직에 있던 아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글자였다. 그는 “‘근근’ 두 글자는 단지 학자의 급선무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관직에 있는 자들의 요결”이 됨을 강조하였다.³⁷⁾ 독서를 통한 지식 공부의 완성→습득한 배움을 실천하는 단계로의 이행이 바로 학자나 관료로서 가져야 할 자세로 여겼던 것이다. ‘근근’의 가치는 이미 「서실의」에서 배움에 대한 실천성을 강조한 조목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파평윤씨가로 전수되었던 가치이기도 하다.

성혼의 「서실의」 찬술은 바로 이러한 거경·궁리·역행, 세 가지의 가치가 교육적 덕목으로 녹여져 있는 것으로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교육 지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주자학적 교육 가치 속에서 세 가지 덕목의 가치는 초하 자라면 평생 해야 할 당대 교육의 본령이었다.³⁸⁾ 다만 이는 당시 학자들이 학문에 대한 가장 이상적 교육 방법을 논의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기도 하다. 「서실의」는 이러한 맥을 같이하는 교육 지침으로 단지 여기에서 성혼만의 특수한 교육적 가치의 반영이 되었다고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혼의 「서실의」의 경우는 특별히 파평윤씨가와 그 학문적 계보 속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계승·재생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36) 成渾, 『牛溪集』 卷6, 雜著, 「書室儀」. “凡事切須謙恭謹勑, 不得尙氣凌人. 早晚頻自點檢所習之業, 思索義理, 體認服行, 不令心少有放逸. 切須服膺勤謹二字, 造次不違.”

37) 이는 윤증이 아들 윤행교와 서동생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부한 말로 성혼이 「서실의」에서 제시한 ‘勤謹’을 이어받아 이들에게 강조한 것이다.(尹拯, 『明齋言行錄』 卷1, 德行 上, “又曰, 勤謹二字, 非但學者之先務, 實居官要訣. 勤則事立, 謹則寡過”; 尹拯, 『明齋遺稿』 卷27, 「與庶弟拙」, “官無大小, 所當盡心, 勤謹二字, 服膺可也.”)

38) 이이의 『격몽요결』에서도 居敬, 窮理, 力行을 중신토록 해야 할 과업으로 여겼다.(李珣, 『擊蒙要訣』, 持身章第三, “居敬以立其本, 窮理以明乎善, 力行以踐其實三者, 終身事業也.”)

자신들이 건립한 교육 공간에 성혼의 「서실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성혼의 학문 이상을 계속해서 구현해나갔다.

2. 교육 규범으로의 「서실의」의 계승과 재생산

성혼의 「서실의」는 당시 리학의 이론이 심화해가는 상황 속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활용되었던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사실 규범이다. 이 시기 등장하였던 학규를 비롯한 학문 규범들은 후대 교육 규범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파평윤씨가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 계보 속에서는 각별하게 성혼의 「서실의」를 학문의 중요한 지침(指南)이라 여기고 이를 체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의 수양에만 그친 것이 아니며 똑같이 자신들의 문인 교육에도 「서실의」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서실의」는 성혼의 학문 전승 속에서 중요한 지침으로서, 이른바 우계학통의 학문적 특성을 대표하는 하나를 사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혼의 외손인 윤선거는 「서실의」를 가문에 전승되어 온 법도로 인식하였다. 그는 우계서실이 파산서원으로 변모한 시기에 그곳에 우거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에 「서실의」를 벽에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외우게 하였으며 이를 실습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⁹⁾ 또한 파평윤씨가에서는 문중의 자제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인 종학당(宗學堂)을 건립하였는데, 여기서도 「서실의」의 활용이 나타난다. 윤선거와 그의 형인 윤순거(尹舜舉)는 종학당을 건립하면서 이를 위한 종약 및 가훈을 제정하여 학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시 윤선거는 종학당의 학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성혼의 「서실의」를 명시하며 이를 문중 자제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⁴⁰⁾ 이와 별개로 종학

39) 尹宣學, 『魯西遺稿』 卷16, 雜著, 「坡山院齋, 奉別諸賢序」, “其曰書室儀者, 揭之壁上, 其曰爲學方者, 對諸席間, 朝夕誦讀而講習之. 諸生其有以慨然惕若, 以不足自反者乎.”

40) 尹舜學, 『童土集』 卷5, 雜著, 「宗約」, “齋儀, 每日師長晨起, 正衣冠, 率子弟, 詣望墓

당의 건립 목적인 문중 교육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실의」를 내걸었던 종학당에서 이루어졌던 교육 대상은 친족을 포함한 외손까지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종학(宗學)이라고 말하였다면 이성(異姓)은 본래 들어오지 못하지만, 외손(外裔)과 같은 경우라면 다른 사람과는 본래 구별되므로 같은 종중의 자제들과 한 몸으로 여겨 들어오게 허용하여 학문을 널리 가르쳐 인재를 이루는 길을 열고자 한다.⁴¹⁾

이는 성혼의 학문이 자신들에게로 계승되었음을 자각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친·외척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학문 전승의 대상으로 포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학문 전승의 범주를 친·외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서실의」를 교육 지침으로 삼았던 사례는 윤증과 윤광소에게도 확인된다. 윤증은 자신의 서실이었던 경승재(敬勝齋)를 세우고 재규(齋規)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실의」를 가르침의 표준으로 삼았으며⁴²⁾ 윤광소 또한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성혼의 「서실의」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다.⁴³⁾ 이처럼 수기(修己)를 위한 문헌적 사료 속에서 이들은 성혼의 「서실의」를 내적 수양과 이치 탐구, 실천적 수행의 단계를 화통하는 학문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즉, 「서실의」는 곧 자신들이 지향해야 할 학문적 방법론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서실의」의 활용은

位, 再拜. 退坐正堂, 子弟就階下序立, 北面恭揖. 訖, 分立東西階相揖, 訖, 各就所業. 餘倣牛溪先生書室儀. 行之.

41) 尹弘圭, 『陶溪遺稿』 卷2, 「答族弟書」, “既曰宗學, 則異姓固不可通入, 而若外裔則, 與他人自別, 一體許入, 以廣敦學成材之路焉.”

42) 尹拯, 『明齋遺稿』 卷30, 雜著, 「示敬勝齋諸生」, “至於退溪之條, 栗谷之圖, 牛溪之儀, 亦莫不本於考亭, 而爲之準的, 有志於學者, 苟由是而之焉, 則庶乎不畔於道, 而崇德廣業, 希賢希聖, 將無所爲而不至矣.”; 尹拯, 『明齋遺稿』 卷30,

43) 尹光紹, 『素谷遺稿』 卷21, 「自警圖附說」, “牛溪先生書室儀曰 …”

외손자인 파평윤씨가에서 그대로 계승되었고,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갔다. 「서실의」는 파평윤씨의 학통 속에서 유효하게 작동하였으며 이들의 학문 전승의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즉, 「서실의」의 실천과 전승을 통해 우계학통의 전승적 계보가 그려지는 것이다.

성혼이 처음 제정한 「서실의」는 파평윤씨가 일원들을 거치며 계승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남 지역에서도 전해지기도 하였다. 영남 지역에서는 드물게 성혼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선산김씨 김취문(金就文)의 차자 김종유(金宗儒)가 당대 성혼의 문인으로 활동하며 김장생, 정엽(鄭聶) 등과 교류한 사례가 있다. 이후 영천 출신인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형제 역시 평소 윤증의 학문 풍도를 듣고 서신을 통해 학문적 교분을 나누기도 하였다.⁴⁴⁾ 이들 형제는 윤증에게 초학자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묻자 윤증은 이들에게 성혼의 「위학지방」을 권하고 한 부를 보내주기도 하였다.⁴⁵⁾ 이러한 인물들의 존재로 볼 때 영남 지역에도 파편이나마 넓게는 성혼의 학문 범위, 좁게는 윤증의 학문적 범위 속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우계학통의 전승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강필효(姜必孝)가 있다.⁴⁶⁾ 그는 윤광소의 문하에 들어가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대학(大學)』 등 여러 서적을 받으며 성혼의 공부법을 전해 받았던 핵심 제자였

44) 윤증과의 학문적 교류는 윤증의 庶弟 尹拙이 전라도 長水에서 督郵察訪으로 근무하면서 영천에 있던 이들 형제를 방문한 것이 우연한 계기가 된 이후 10년 간의 서신 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최영성, 「鄭萬陽·葵陽 형제의 學問과 思想 - 墳簾思想의 형성 및 畿湖學派와의 학문적 交流를 중심으로 -」, 『동방한문학』 28, 동방한문학회, 2005, 10~11쪽.)

45) 鄭萬陽·鄭葵陽, 『墳簾文集』 卷7, 「上明齋尹先生」, “門下諸覽先講, 何書設科旨訣, 實亦迷方者, 所欲聞也”; 尹拯, 『明齋遺稿』 卷25, 書, 「答鄭萬陽葵陽」, “先人嘗以栗谷先生所著擊蒙要訣, 及牛溪先生所抄朱子書爲學之方一冊, 爲最切於初學, 若有來學者, 必令先讀此二書矣.”

46) 강필효는 姜鄴의 후손으로 이미 안동에 거주하면서 윤증의 제자로 활동한 바가 있다.(尹光紹, 『素谷遺稿』 卷7, 墓碣銘, 「省齋姜公墓碣銘」, “與明齋先生有戚誼, 躬謁門下, 遂以師禮事之. 書疏質問, 聞見益親切. 先生深器之, 書曰, 年紀老大, 講問不輟, 存省不懈, 每用欽嘆. 今其禮疑往復, 見於先生禮書, 可考也.”)

다.⁴⁷⁾ 강필효는 스승과 그 학문의 학통을 깊이 존숭하였으며 특히 창녕성씨와 파평윤씨 두 집안을 친척처럼 대하거나⁴⁸⁾ 심법(心法)의 원류를 성훈과 윤증으로 인식하여 대표적인 전범으로 세우는 등 스승의 학문적 가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⁴⁹⁾

이러한 사실로 강필효는 집안에 서실을 마련하고 나서 윤증의 「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와 「서실의」를 내걸며 이를 준칙으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그는 자신도 직접 서실의를 지어 제자들과 자신을 경계하기도 하였다.⁵⁰⁾ 성훈의 「서실의」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강필효의 학칙은 학령(學令) 11조항, 학규(學規) 16조항, 학금(學禁) 7조항 세 부분으로 총합 34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조항은 성훈의 「서실의」의 조목들을 참고하여 완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강필효(姜必孝)의 「서실의」(學令·學規·學禁)⁵¹⁾

번호	분류	내 용	성훈 「서실의」 연관성
1	學令	서실에 들어오는 학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침구류를 정돈하고 당실(堂室)을 청소하며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갖춘다.	1~3조
2		부모가 계신 곳에 나아가 잠자리가 편안하셨는지를 살피고 사당에 알현한다.	

47) 姜必孝, 『海隱遺稿』, 附錄, 卷1, 「家狀」, “聞素谷尹先生承明翁嫡傳, 講道林泉, 乙巳冬, 負笈千里, 納費 講學. 受心經, 近思錄, 大學, 禮記, 聖學輯要等書, 獲聞洛閩遺緒坡潭心訣.”

48) 成近默, 『果齋集』 卷8, 行狀, 「海隱姜先生行狀」, “其篤於師友, 則必稱素谷先生以致敬, 忌日必設素, 其視成尹兩師門家, 親戚如也.”

49) 成近默, 『果齋集』 卷8, 行狀, 「海隱姜先生行狀」, “我默庵先祖之敦確操履, 明齋先生之立志務實, 爲一揆心法, 則門路之純正, 有如此者矣.”

50) 姜必孝, 『海隱遺稿』, 卷11, 雜著, 「講學立約凡例」, “一. 學規以朱子白鹿洞規, 退翁伊山院規及坡山書室儀, 西峯畫一圖爲節度.”; 같은 책 付祿 卷1, 「家狀」, “庚申築書室於東岡步武地, 倣晦翁滄洲敬義齋之制, 聚村秀講學, 揭白鹿洞規及牛溪書室儀, 明翁畫一圖, 以爲程課準則.”

3	동관(童冠)들은 각자 자리에 나아가 정좌(靜坐)하고 수업 내용을 읽고 외운다.	4조, 8조
4	식사 시간에는 각자 식사에 나아가며, 이미 식사를 마치고 잠시동안 당의 계단에서 돌아 산책한 뒤 곧바로 정좌하여 혹 글을 쓰거나 혹 책을 보거나 혹 강설한다.	6조, 9조
5	각자 때에 맞는 책을 받고 매번 반드시 과정을 둔다.	
6	낮 동안에는 쓸데없는 말을 줄이도록 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며, 한가한 손님을 만나지 않는다.	4조, 18조
7	종일 책을 읽으며, 남는 시간에는 예절을 익히거나 고문(古文)의 문장들을 살핀다.	7조
8	매일 책을 읽되, 의문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거나 서로 토론하며, 수시로 요점을 기록해 두었다가 다시 살핀다.	8조
9	행하는 것에 대한 득실과 학업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점검한다.	20조
10	저녁 식사 시에도 아침 의례처럼 예를 갖추어 식사한다.	6조, 9조
11	날이 저물면 등불을 켜고 책을 읽다가, 밤이 깊으면 잠자리에 든다.	10조
12	사람이 태어나 학업을 하는 것은 때에 미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가장 두려운 것은 머뭇거리 미루는 것이다. 다만 중도에 그만두지 않아야 하니 반드시 ‘근근(勤謹)하여 조차에도 여기지 않는다.	21조
13	책상 위에는 단지 육경(六經)과 사서(四書),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주돈이·정자·장자·주자의 저술만 둔다. 큰 근본이 이미 서면 그 덕을 높일 여지가 없음을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14	독서와 강학은 반드시 번거롭고 고됨을 견뎌내고 공부해야 한다.	
15	책에 적지 않아도 익숙히 읽으면 기억할 수 있으며 뜻에 정밀하지 못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면 정밀해질 수 있다.	
16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 항상 잠과 먹을 것을 잊어야만 마침내 장구한 한 번의 이름(格)을 얻을 수 있다.	
17	허다한 분수 밖에 경영(經營)하는 일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책을 읽는데 부지런하고 힘써서 이 마음을 지킨다.	
18	글은 꼼꼼히 살펴야 하고, 배움은 진실되게 해야 한다.	
19	강독(課誦) 이외에도 항상 성현의 글을 지니고, 눈으로 보고(眼頭過), 입으로 굴리고(口頭轉), 마음으로 융통하면(心頭通) 곧 한 몸과 마음이 항상 의리의 원천(淵藪) 속에 있게 된다.	20조
20	성현의 책을 읽을 때는 마치 오늘 자리에 모셔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듯이 해야 한다.	
21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제들이 차라리 종일토록 책을 읽지 않을지언정 하루라도 소인과 친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 소인과 친해지는 일은 항상 이처럼 절실하게 금지한 것인데 하물며 혹 소인이 됨을 면치 못하겠는가. 아프게 스스로 경계하고 또한 다시 가려서 사한다.	
22	경(敬)은 온갖 사욕함을 이기고, 성(誠)은 온갖 거짓을 이긴다. 항상 스스로 일깨우고 정신을 떨쳐 분명히 한다.	12조
23	항상 스스로 격동시켜 우러러 기개가 있어야 한다.	

24		사람의 인생은 상수(上壽)가 백 년, 중수(中壽)가 팔십, 하수(下壽)가 육십이니 진실로 이미 바쁜 가운데 흘러가는 세월이니 만약 다시 배우지 않는다면 하루살이와 공생하고 초목과 함께 썩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매우 애석할 만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삼가 두려워하고 힘써서 항상 자신의 살날을 헤아려야 한다.	
25		제군들이 항상 남의 번잡한 일에 근심하여 자기와 관계된 일이 아님에도 스스로 닳는 일을 물리쳐서 이를 따라서 폐해지고 늦어지게 되니 어찌 가하겠는가? 반드시 통렬히 유념해야 한다.	
26		존덕성(尊德性), 도문학(道問學), 박문약례(博文約禮), 거경궁리(居敬窮理)이 한 가르침이 마땅히 우리 법문의 지결(旨訣)이 되니 비록 초학자들에게 설명해주기 쉽지 않지만, 또한 마땅히 제목(題目)들을 알아두어 기초로 삼아야 한다.	
27		항상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벗이 찾아오게 하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지며, 깊이 음미하고 실체를 몸소 실천해야 한다.	
28		창문은 반드시 깨끗하게 하고 자리와 책상은 반드시 가지런히 하며 침을 뱉거나 더럽히지 않는다. 침을 뱉거나 더럽히는 자는 벌을 주되, 벌은 회초리로 때린다.	12조 14조
29		서적은 반드시 책상 위에 소중히 두고, 차례대로 두어야 하며 어지럽게 두지 않는다. 어지럽게 두는 자는 벌을 주되, 벌은 위와 같다.	12조 14조
30		거처함에 편리함만을 택해선 아니 된다.	12조 14조
31	學禁	서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서로 규찰하고 경계한다. 떠들거나 싸우는 자는 벌을 주되, 벌은 위와 같다.	13조
32		어린이들은 서로 숨거나 함부로 뛰어다니지 않는다. 숨거나 뛰어다니는 자는 벌을 주되, 벌은 내쫓는 것으로 한다.	15조
33		명절이 아니면 수업을 내버려 두고 밖에 나가 놀지 않는다. 놀고 싶은 마음과 잡다한 유희로 인하여 게을러서 학업을 닦지 않거나 바둑과 장기를 하는 자는 벌을 주되, 벌은 위와 같다.	
34		돌아가며 날마다 함께 청소하고, 해가 기울 무렵에는 불을 모아두어 항상 불이 나지 않도록 한다.	2조

- 51) 姜必孝, 『海隱遺稿』, 卷11, 雜著, 「書室儀」, “學令. 一, 學子之入書室者, 日早作, 整疊寢具, 掃除堂室, 盥櫛衣冠. 一. 往父母所, 省安寢, 謁祠廟. 一. 童冠各就次靜坐, 讀誦所受之業. 一. 食時各就食, 既食暫逍遙於堂階, 旋即靜坐, 或寫字, 或看書, 或講說. 一. 各趁其時受書, 日必有課. 一, 日間省得閒說話, 省了閒往來, 省見閒人客. 一. 終日讀書, 餘時或習禮, 或看古文辭. 一, 逐日讀書, 有疑輒問, 或相訂辨, 逐旋筭錄, 以備更考. 一. 點檢所行得失, 所業勤漫. 一, 夕食時就食, 如朝儀. 一, 既昏張燈讀書, 夜久斯寢. 學規. 一. 人生學業, 貴於及時, 最怕因循. 只不要間斷, 切須勤謹, 造次不違. 一. 案上只存六經四子近心周程張朱書. 大本既立, 不患無地以崇其德. 一. 讀書講

강필효의 「서실의」 34개의 조목은 성혼의 「서실의」(22조목) 보다 분량은 더 많지만, 이미 상당수는 이미 성혼의 「서실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성혼이 「서실의」를 통해 제시했던 거경·궁리·역행의 공부 목표에 따라 서실의 학령과 학규, 학금에 이르는 세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을 이미 「서실의」의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것이며 특히 학령이나 학금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러한 것이다. 성혼이 궁리의 방법으로 제시했던 독서법에 대해서 강필효는 더욱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령 양적으로 34개의 조목 중 독서와 관련된 조항이 12조목이나 존재하며 난이도에 따른 단계별로 정독이나 다독, 속독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이미 성혼이 독서에 대한 강조를 후학들에게도 당부한 만큼 강필효 역시도 독서를 학습의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독서 이후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행적 차원에서의 공효도 드러난다. 특히 성혼이 처음 제시하고 이후 파평윤씨가로 전수되었던 ‘근근’이라는 표현이 직접 학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12조), 이들 학통에서 전수하는 중요한 가치로써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강필효의 「서실의」에서는 구체적인 독서 목록을 별지로 육경(六

學，須是耐煩辛苦，做活計。一。書不記，熟讀可記，義不精，潛思可精。一。讀書做工夫，常忘寢食，乃長得一格。一。除卻許多分外經營，惟勤讀書，維持此心。一。文要密察，學要真實。一。課誦之外，常持聖賢文字，眼頭過口頭轉心頭運，使一箇身與心，常在義理淵藪中。一。讀聖賢書，如今日侍在座，親承旨訣。一。古人云子弟寧可終歲不讀書，不可使一日親小人。親小人，尚如此禁切，況或不免於小人之歸乎。痛自規警，且更擇交。一。敬勝百邪，誠敵萬偽。常要喚醒，振拔精明。一。常自激昂有意氣。一。人生上壽百年，中壽八十，下壽六十，固已忙裏光陰，若更不學，蜉蝣共生，草木同腐，豈不甚可哀也哉。切宜惕厲，常點壽自家年紀。一。諸君常患他人援擾，非關己事，而卻於自修，因循廢地，惡乎可乎。切須痛念。一。尊德性道問學，博文約禮，居敬窮理，此一箇當法門旨訣，雖未易說與初學，然亦當識認題目，以為坯模。一。常以學習朋來，日新又新，深味而實體焉。學禁。一。牕牖必明潔，几案必齊整，勿唾勿汗。唾汗者罰，罰用笞。一。書籍必尊在几上，秩然有序，勿散亂。散亂者罰，罰同。一。居處，無擇便利。一。母相喧聒，母相鬭狠。有過失則相規。喧鬭者罰，罰同。一。小兒輩，母相度匿亂走。度匿亂走者罰，罰用出。一。非名節，勿許放課出遊。遊心雜戲，若怠慢不修業，侑博奕者罰，罰同。一。輪日供灑掃，日晷畜火，惟常防火。”

經), 사서(四書),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과 함께 주돈이(周敦頤), 정부자, 장재(張載), 주희의 책을 제시하였다. 유가의 전통적 서적인 육경과 사서를 포함하여 송대 주자학의 주요 사상적 저술인 『근사록』, 『심경』과 주돈이부터 주희에 이르는 인물의 저술이 위의 독서의 주된 대상이다. 이들 서적 역시 이미 성혼이 정종명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당부하며 반드시 읽어야 할 독서 목록 별지로 제시했던 것이다.⁵²⁾

다만 성혼의 「서실의」 대비 강필효의 「서실의」의 조목이 더 많은 만큼 일부 내용은 새롭게 추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가령 2조의 ‘부모가 계신 곳에 나아가 잠자리가 편안하였는지를 살피고 사당에 알현한다.’라고 하는 조항이나 21조와 25조, 27조와 같이 친구나 주변 환경에 대한 단속 등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이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서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일상 생활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작동하는 경우의 규범이다. 집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효(孝)를 다하고 밖에서는 벗어나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부이기 때문에 강필효의 「서실의」에서는 새롭게 조목으로 추가되었다. 물론 성혼의 「서실의」에서도 장유(長幼)의 차이에 따른 행위의 차이를 두는 조항 등 서실 밖에 이루어지는 규범을 제시한 조항이 있다.⁵³⁾ 그러나 성혼의 「서실의」는 서실이라는 공간적으로 마련된 하나의 교육 공간 속에서 작동하는 규범을 제시한 것이라면 강필효는 이를 계승하는 동시에 장소로써 교육 현장 안팎에서 모두 작동이 되는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52) 여기서 『續綱目』과 『皇明通紀』를 제외하면 나머지의 책들은 모두 부합된다.(成渾, 『牛溪集』續集 卷4, 簡牘, “小學·大學·大學或問·論語·孟子·中庸·中庸或問·近思錄·朱子書節要·心經·詩·書·易·春秋·禮記·二程全書·朱子大全·伊洛淵源錄·延平答問·理學通錄·通鑑綱目·續綱目·皇明通紀.”)

53) 성혼의 「書室儀」 중 2조 나이가 어린 자는 방 안을 청소하거나 밥을 먹을 때 나이대로 앉아서 먹는 것, 출입할 때의 모습, 관이 쓴 사람의 출입에 나이가 어린 자들이 일어나는 등의 조목들이 장유에 따른 경을 이야기하고 있다.(成渾, 『牛溪集』卷6, 雜著, 「書室儀」, “少者操箒, 淨掃室中. … 食時就食, 以齒而坐, … 出入時以齒而行, … 冠者出入, 少者皆起立.”)

그가 「서실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과 별개로 생각하고 있던 교육 지침은 서실을 포함한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규범으로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강필효가 찬술했던 것 「서실의」 역시 기본적으로는 성혼의 「서실의」를 바탕으로 한 동시에 자신이 지닌 가치에 따라 재생산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이를 토대로 성혼의 학문적 방법론인 「서실의」를 다름 아닌 영남 내부에서도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 대상은 경주 지역에서는 드물게 성혼과 함께 윤증, 박태보(朴泰輔) 등 소론계 인물을 제향한 명산서원(明山書院)이었다.

반 마지기의 작은 서원, 빛나는 학문 세계에
존현(尊賢)의 깊은 뜻이 있어 여러 공들을 감동시켰네
파산(坡山)의 독서법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으니
내 마음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해야겠네⁵⁴⁾

우계 성혼 선생의 「서실의」를 마땅히 새겨서 서재에 걸어 두어, 제자들이 학업을 닦고 살펴보며 반성하는 준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⁵⁵⁾

이처럼 강필효 또한 파평윤씨의 일원들과 마찬가지로 성혼에 대한 연원 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초학자들의 공부론으로 중요한 교육 지침이었던 「서실의」를 계승하여 자신의 서실 운영 규범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계승과 재생산은 앞서 파평윤씨가로부터 이어지던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계 학통의 학문 계보 안에서 「서실의」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필효 이후 「서실의」의 계승·재생산은 성근묵(成近默)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근묵은 혈연적으로는 창녕성씨로 성혼의 8대손이자 강필효를 친자했던 핵

54) 姜必孝, 『海隱遺稿』 卷1, 詩, 「明山院中示諸公」, “半畝明宮紫海東, 尊賢深意感諸公. 坡山讀法今猶在, 莫把吾心枉用工.”

55) 姜必孝, 『海隱遺稿』 卷7, 書, 「答明山院儒」, “牛溪先生書室儀, 恐當刻揭齋中, 爲諸生肄業觀省之準則.”

심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성혼의 「서실의」를 학문 방법의 중요한 규범으로 여기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규범 찬술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문간공 우계 선생의 「서실의(書室儀)」를 참고하였고 동토(童土) 선생의 「종학규(宗學規)」를 참고하여 재규(齋規)를 집성하였고 '소학재(小學齋)' 세 글자를 써서 걸어 두었다.⁵⁶⁾

학규와 『서실의』는 기록하고 걸어 두어 항상 눈으로 보고 실천한다.⁵⁷⁾

성근묵은 소학재(小學齋)라는 재실을 짓고 남긴 기문에서도 직접 윤순거의 「종학규」와 함께 「서실의」를 활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두 규범은 모두 자제와 문도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질한 학문적 테두리 안에서 생산된 교육 규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근묵 역시도 가학과 함께 파평윤씨가로부터 전해온 학문을 존중하여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서실에서 똑같이 활용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인 교육을 위한 지식을 가지고 서원 운영을 위한 규범을 제정하는데, 파산서원의 학규를 직접 찬술하여 서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적 방침을 환기하였다. 「파산서원재규(坡山書院齋規)」속에서도 「서실의」의 본령에 따라 배움을 위한 규정을 제시하여 학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 파산서원재규(坡山書院齋規)⁵⁸⁾

번호	내 용
1	무릇 우리 파향(坡鄉)의 유림(儒林)들은 우리 네 선생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지 않은 이가 없으니 모두가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선비들이다. 진실로 남겨진 책들을 감상하여 행실을 신칙(申飭)하고 학문에 힘쓰다면 또한 성현의 무리일 것이다. 노서(魯西) 선생이 파산의 재유(齋儒)들에게 말한 “소나무와 대나무의 남겨진 도를 우러러 의지하며 도덕에 흠뻑 젖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장차 다시 오늘날에 보인다면 아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만약 후이 서원을 드나들면서도 배움에 향하는 실체가 없다면 장차 무슨 얼굴로 사당에 주선하며 문과 답장을 넘어 이들에게 귀의할 수 있겠는가?

56) 成近默, 『果齋集』 卷5, 記, 「小學齋記」, “爰就文簡公牛溪書室儀, 參以童土宗學規, 輯成齋規, 書小學齋三字以揭之.”

57) 成近默, 『果齋集』 卷5, 記, 「小學齋規」, “學規及書室儀書揭, 常目行之.”

2	서원의 재실에서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는 것은 곧 성현의 학문을 배우기 위한 것이지 과거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니 이러한 방도는 마땅히 따로 정한 규범이 있다. 서원의 장부에 등록된 사람 중 학문으로 인해 대중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을 정하여 훈장(訓長)으로 삼아 강회(講會)의 시기를 정하고 훈장의 집에서 돌아가며 강독한다. 이 일을 수년간 시행한 뒤, 그 근면과 태만을 고찰하고 거처하여 공부하게 하면 흥기하고 격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거처하여 공부하는 규범은 반드시 책을 읽는 데에 중점을 두고 틈틈이 과거 공부하며 예로써 몸가짐을 단속하지 못해 게으르거나 방탕하게 유랑하는 자들은 유사(有司)나 훈장(訓長)이 들추어내어 재실에서 쫓아낸다.
4	『청금록(靑衿錄)』에는 전후의 유사(有司)들이 남긴 공적들은 【예컨대 잉여 자금을 이용하여 서원의 건물을 수리하거나, 학전(學田)을 증설한 등의 일과 같은 것】 훗날 재회 시에 그 일을 마땅히 이름 아래 기록하여 명성을 전하고, 후인들을 권면하게 한다.
5	제향하는 중일(中日)에는 강장(講長)과 집례(執禮)가 강당에 오르고 재에 들어온 모든 생도를 모아 사서(四書) 가운데 한 대문을 대면하여 강론한다.
6	제향하기 열흘 전에 재회를 열어 여러 집사를 나누어 정하고 기한이 되면 따라 재실에 들어간다. 그런데 집사가 아닌 자가 혹 반열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성의가 없고 서원에 앉아서 술과 음식 따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접대하지 말 것이다.
7	헌관(獻官) 이하의 인물들이 재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반드시 건(巾)과 복을 갖추고 재실에서 떠나지 않으며 잡담하거나 떠들거나 술을 마셔 용모를 흠트려서는 안된다. 만약 술에 취해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와 사사로운 정(情私)에 구애받지 말고 즉시 재실에서 내보낸다. 【서재(西齋)와 수복(守僕)의 무리 중 한 터럭이라도 규율을 범한 자가 있으면 별도로 징벌을 가하여 다스린다.】
8	장색(掌色)이 번갈아 향을 피우는 일은 곧 교육기관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다. 듣건대 본 서원에서는 잘못된 관례로 인해 불성실한 일이 매우 심하니 이는 고치고 변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는 장색 가운데 한 명이 저녁이 되면 서재에 머물며 숙박한다. 혹 차례에 당하여 오지 않는 자는 벌을 내린다. 【만약 약간의 폐단이 있게 된다면 장색 중 한 자리를 의례 가까이 사는 곳의 유생에게 맡겨서 향 피우는 일을 중히 여기도록 한다.】

- 58) 成近默, 『果齋集』 卷5, 雜著, 「坡山書院齋規」, “一. 凡我坡鄉儒林, 無非尊慕我四先生, 則皆吾同志之士也. 苟能講習遺書, 飭行勗學, 則亦莫非聖賢之徒也. 魯西先生與坡山齋儒書曰, 瞻依松竹之遺逕, 游泳道德之餘波者, 將復見於今日, 於不美歟. 如或出入斯院, 而無向學之實, 則將何顏周旋廟宇, 依歸門牆乎. 一. 院齋之所以待藏修者, 卽聖賢之學, 而非科業之云也. 居接之方, 宜另有定規. 就院籍中, 以文學爲衆所推者, 定爲訓長, 定講會之期, 輪回講讀於訓長家. 行之數年, 考其勤慢, 以居接焉, 則庶乎有興起激勸之效. 一. 居接之規, 必主乎讀書, 間以科工, 而其不能以禮律身, 怠惰荒嬉者, 有司及訓長, 摘發出齋. 一. 靑衿錄中, 前後有司之著事功【如有有贏餘, 修改院宇, 增置學田等事】者, 必於日後齋會時, 錄其事於當名下, 以傳令名, 以勸來者. 一. 祭享中日, 講長與執禮升講堂, 會入齋諸生, 以四書中一大文面講事. 一. 祭享時前一旬齋會, 分定諸執事, 如期入齋, 而執事外. 如或糲以參班, 而無誠意, 坐院村討酒食之類, 切勿接待. 一. 獻官以下入齋後, 必具巾服, 不離齋所, 無得雜談喧譁, 飲酒變貌. 若有

「파산서원재규」는 단순한 서실의 규범에서 나아가 서원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것이다. 성근목은 선조의 흔적이 담겨 있는 파산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규를 마련하고 이를 서원 운영을 위한 방침으로 확립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원 재규의 앞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구성원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파산 지역의 유림으로서, 자신들의 학문적 근원이 특정 인물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곧 자신들의 학문으로 이해하였다. 윤선거가 당시 파산서원을 떠나기 전 벗들과 작별하며 남겼던 글인 ‘소나무와 대나무의 남겨진 도를 우려러 의지하며 도덕에 흠뻑 젖어 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⁵⁹⁾ 그들은 자신들이 학문적 연원 의식이 성혼과 파평윤씨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지한 것이다.

또한 재규에서는 과거 공부와 아니라 성현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근본 공부임을 밝히며 또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역시 성혼의 학문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앞서 윤광소가 성혼이 남긴 규범이자 위학의 덕목을 ‘근본과 실질을 숭상하고 말단과 겉치레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 성근목 역시 성혼의 학문을 ‘근본과 실질에 힘쓰고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한 것을 가볍게 여겼으며, 덕행을 중시하고 명리(名利)를 가볍게 여긴 것’으로 이해하였다.⁶⁰⁾ 즉, 근본과 실질, 덕행 등은 이미 성혼의 교육 이념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서실의」와 이를 계승·재생산한 이들을 통해 구현되어 있었다. 곧 「파산서원재규」에서 직접 힘써야 할 공부를 명시

使酒喧譁者，勿拘年齒顏私，卽爲出齋事。【西齋與守僕輩，有一毫犯科則明加懲治。】
一、掌色之輪回焚香，卽校院通行之規也。聞本院謬例久誠莫甚，此不可不改革。自今掌色中一員，趁夕齋宿西齋，其或當次不來者施罰。【若爲省弊地，則掌色一窠，例屬於近處儒生，以重事面。】”

59) 尹宣舉, 『魯西遺稿』 卷16, 雜著, 「坡山院齋奉別諸賢序」, “今我諸賢邂逅於溪上院齋, 瞻依松竹之舊逕, 游泳道德之餘波, 諸賢之有志於學者, 其必有以玉成之也。”

60) 成近默, 『果齋集』 卷3, 疏啓, 「辭別諭召命及持平疏」, “臣祖文簡之爲學, 敦本實而畧浮華, 重德行而輕名利.”

해주거나 이를 위해 마땅히 따로 정한 규범이라는 것은 곧 선조가 남긴 「서실의」에서 나온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본다면 성혼이 제정했던 교육 지침이었던 「서실의」는 단순한 교육적 기능을 포함하여 학통의 수직으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 작동했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계학통을 대표하는 가문인 파평윤씨가에서의 학문 전수 과정과 그 구체적 형태인 「서실의」의 전승·재생산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선 사회에서는 학문의 전승인 이른바 학통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나타났던 현상 중 하나는 학문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 제자를 사위로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학연이 혈연과 결합한 구조가 주는 순수성이 곧 학문의 전수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강한 기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파평윤씨는 성혼의 적전이자 사위였던 윤황을 기점으로 성혼의 학문을 가학으로 흡수하였고 이를 후세에 전승하였다. 성혼의 외족으로 이어진 이들은 학문 연원이 성혼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은 성혼의 문집 편찬과 그의 행적을 정리하는 일이다. 문집과 연보 등은 윤선거·윤증 부자를 거치며 이후 윤광소에 의해서 정리된다. 특히 윤광소는 가학의 근원이 성혼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개별적 점의 형태로 존재했던 성혼에 대한 행적과 문자 정리 사업들을 선형적으로 연결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내면에는 물론 성혼에 대한 연원 의식이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은 성혼이 문도 교육을 위해 남긴 「서실의」를 중요한 학문 지침으로 여겼다. 「서실의」는 이상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성혼의 의지가 남긴 지침서로 거경과 궁리, 역행이라는 세 가지 가치 틀에서 구체적인 공부 규범

을 제시한 것이다. 「서실의」의 활용은 특히 파평윤씨를 통해 전수된 일련의 계보 속에서 유효하게 활용되었다. 이들은 성혼의 「서실의」를 교육에 중요한 방법으로 여기며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 활용하였고 문도 교육 중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변용하여 실천하였다.

파평윤씨가로부터 학맥을 이어온 영남 지역의 강필효에게로 「서실의」는 전수·재생산되었다. 이후 강필효의 제자이자 성혼의 후손인 성근묵에 의해서도 「서실의」의 정신이 재흡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성혼의 학문적 계보를 전제하고 본다면리학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연원 의식을 밝힐 목적으로 「서실의」의 전승과 재생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 『擊蒙要訣』(李珥)
『果齋集』(成近默)
『古文眞寶後集』
『魯岡書院誌』
『魯西遺稿』(尹宣擧)
『鏤板考』(규장각 古0440-1-v.1-3)
『陶溪遺稿』(尹弘圭)
『東儒師友錄』(朴世采)
『童土集』(尹舜擧)
『明齋言行錄』(尹拯,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22029_B00046_XXX)
『明齋遺稿』(尹拯)
『素谷遺稿』(尹光紹)
『穌齋集』(盧守愼)
『牛溪集』(成渾)
『牛溪土友錄』(成渾, 규장각 奎7154-v.1-2)
『牛溪年譜』(成渾)
『牛溪年譜補遺』(成渾)
『朱子大全』(朱熹)
『朱子大全附錄』(朱熹, 장서각 MF16-317)
『中庸章句』(朱熹)
『海隱遺稿』(姜必孝)
『墳簞文集』(鄭萬陽·鄭葵陽)

2. 논저

- 고민정, 「조선 후기 가훈의 형성과 전승 - 파평윤씨 노종파 가문을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5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4.
김경수, 「우계학파의 형성과 그 특징」, 『우계학보』 28, 우계문화재단, 2010.
김경수 외, 『우계학파의 전개와 특성』, 책미래, 2018.

- 김진홍, 『『家禮源流』의 編刊과 그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110, 조선시대사학회, 2024.
- 김학수, 『가가의 실현 - 사대부가의 존재 양상과 지식문화적 기호嗜好』, 태학사, 2024.
- 문숙자, 「봉사(奉祀)의 세전(世傳)을 위한 가범(家範)의 성립과 전승 - 논산 파평윤씨 사례를 통하여 -」,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2025.
- 박균섭, 「우계서실의 문도교육에 관한 교육사적 고찰」, 『우계학보』 22, 우계문화재단, 2003.
- 성효정, 「우계 성혼의 생애와 문집의 편찬간행 및 내용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국역 팔송봉사』, 동방상사, 2013.
- 이 욱, 「18세기 가학(家學) 전승과 문중서당(門中書堂)」,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이치역, 「명재 윤증 위기지학의 특성과 그 현대교육적 의의」, 『양명학』 76, 한국양명학회, 2025.
- 임선영, 「우계 성혼의 교육사상 연구의 경향과 전망」, 『우계학보』 37, 우계문화재단, 2019.
- 지준호, 「朱子門人의 道統意識」,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 진오균, 「朴世采의 『東儒師友錄』 사본과 구성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사학회』 48, 한국사학사학회, 2023.
- 최근목,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학문연원(學問淵源)과 그 학맥(學脈)」, 『유학연구』 1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7.
- 최영성, 「鄭萬陽·葵陽 형제의 學問과 思想 - 墳簞思想의 형성 및 畿湖學派와의 학문적 交流를 중심으로 -」, 『동방한문학』 28, 동방한문학회, 2005.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務實과 實心의 유학자 명재 윤증』, 청계, 2001.
- 황수영, 「우계 성혼의 교육사상 연구」, 『충청문화연구』 22, 충청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9.
- 황의동, 『우계학과 연구』, 서광사, 2005.

3. 웹사이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디지털 장서각(<https://jsg.aks.ac.kr/>)

충청국학 디지털아카이브(<https://archives.ikcc.or.kr/>)

한국고문서자료관(<https://archive.aks.ac.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Abstract

The Transmission and Reproduction of the Ugye
Intellectual Lineage(牛溪學統) in the Papyeong
Yun Clan(坡平尹氏家):
Centered on the 「Seosilui (書室儀)」,
Rules for an Educational Space

KIM Jin Hong*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mission and reproduction of 「Seosiri (書室儀)」, Rules for an Educational Space, an educational guideline passed down from the mid-Joseon scholar Seong Hon to the Papyeong Yun Clan (坡平尹氏家). Seong Hon's son-in-law and disciple, Yun Hwang, represents a quintessential case of academic lineage where kinship and scholarly ties intersect. This lineage evolved into a distinct family tradition (家學), built upon the clear recognition that their academic roots originated from Seong Hon.

At the center of this transmission lies 「Seosiri」, a 22-item guideline designed by Seong Hon to integrate geogyeong (居敬, dwelling in reverence), gungri (窮理, investigation of principle), and yeokhaeng (力行, practice). Prominent figures of the Papyeong Yun Clan, such as Yun Seon-geo (尹宣舉) and Yun Jeung (尹拯), actively utilized these tenets for disciple education. Furthermore, the guideline was reproduced across broader academic networks, including scholars like Yun Gwang-so (尹光紹) → Kang Pil-hyo (姜必孝) →

*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PhD student
/ scarlet9656@naver.com

Seong Geun-mook (成近默). Ultimately, 「Seosiri」 serves as a vital marker for understanding the pedagogical characteristics and continuity of the Ugye school's academic(牛溪學) tradition.

Key word : 「Seosilui (書室儀)」, Ugye School(牛溪學派), Papyeong Yun Clan(坡平尹氏), Kang Pil-hyo(姜必孝), Ugye Seosil(牛溪書室)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서계 박태무의 유람과 서원 인식*

김 소 연**

- I. 서론
- II. 서계의 유람과 서원 순례
- III. 선현 존모와 도학 전승의 공간
- IV. 결론 : 서원 인식이 지니는 의미

【국문초록】

서계 박태무(1677~1756)는 산수를 유람하거나 선현들의 유적지를 순례하고 기행시를 지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원을 순례하고, 시를 창작하며 선현을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먼저 성리학의 연원이 되는 인물을 인식하며 서원을 시로 형상화할 경우, 서원은 성리학의 연원과 도학을 전승하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서원에 배향된 인물을 인식하며 서원을 시로 형상화할 경우, 그 인물을 존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한편, 박태무 당대에 그 인물이 부재함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서원은 배향된 인물을 존모하는 공간, 또는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자취나 학덕이 깃든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박태무는 서원을 순례를 통해 선현들을 존송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시를 통해 선현들을 지향하고 본받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

주제어 : 박태무, 서원, 순례, 선현, 도학(도통)

* 이 논문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에 한국서원학회, 中國書院學會,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인문한국3.0(HK3.0) 사업단에 서 추천한 “2025년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회의 : 제12회 동아시아 서원과 유학”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국제처 국제교류과 강사 / ksynv@naver.com

I. 서론

서계 박태무(1677~1756)는 경상남도 진주 출생으로, 진주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학술적으로 한강학과 남명학·퇴계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에게 한강학은 家學의 원류이자 학문적 연원이었으며, 한강 정구(1543~1620)는 퇴계학의 적전으로 인식되었다.¹⁾ 그리고 남명학의 중심지인 진주에서 살아가면서, 남명학과에 속하는 검재 하홍도(1593~1666)의 학맥을 이어받았다. 그러는 한편 경상좌도에 거주하는 퇴계학파의 인물들과 교유했다. 이로써 남명학을 바탕으로 퇴계학을 접목시켜, 남명학과 퇴계학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자 했다.²⁾

한편 박태무는 여러 지역과 산수를 유람하며 기행시를 남겼는데, 그 과정에서 선현들의 유적을 탐방하고 시를 남기기도 했다. 그가 선현들의 유적을 탐방한 것은 선현들의 자취를 순례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특히 경상좌도의 북부 지역 일대를 유람할 때 서원을 여러 곳 들렀고, 서원을 소재로 시를 창작했다. 아울러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과 가까운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덕천서원을 들르기도 했다. 조선 시대의 다른 선비들이 서원을 순례한 사례도 있지만, 박태무의 경우 경상좌도에 소재한 서원들을 다수 순방했다는 특징이 있다. 유람할 때 이외에도 그는 서원과 관련한 일로 여러 서원을 다녔다. 다만 서원을 소재로 창작한 시들은 대부분 유람의 과정에서 창작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태무의 가계와 학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1) 김학수, 「한강학(寒岡學)의 호서 확장과 지식문화적 환류(還流) - 공촌동약(孔村洞約)과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20, 한국서원학회, 2025, 21~23쪽.

2) 덧붙여서 박태무는 근기 남인계·소론계 인물들과도 교유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남인의 당색을 가지고 살아갔다(최석기, 「서계집 해제」,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49~55쪽).

어졌다. 선행 연구에서 박태무의 학문을 주로 그의 증조부인 능허 박민(1566~1630)의 영향, 남명학 계승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³⁾ 최근에 박태무가 자신의 학문적 연원을 ‘퇴계 이황(1501~1570)-한강 정구(1543~1620)’로 인식했다고 본 연구도 있다.⁴⁾ 이외에도 박태무의 생애와 문학, 시의 특질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 그의 수양론을 살펴본 연구 등등을 들 수 있다.⁵⁾

서원 순례 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최석기의 연구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박태무는 일평생 여러 지역과 산수를 유람하며 기행시를 다수 지었다. 그중에서 자연 풍경을 표현한 시도 있었고, 선현의 유적을 소재로 창작한 시도 있었다. 선현의 유적을 소재로 창작한 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

3) 강동욱, 『남명학교양총서 28 강우유맥 계승에 평생을 바친 놀암 박지서』, 경인문화사, 2016 ; 김낙진, 「17-8세기 영남의 학술동향과 박태무의 성리학」, 『남명학연구』 1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 사재명, 「서계 박태무의 강학과 향촌교화」,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 이상필, 「泰安朴氏 門中과 南冥學 繼承 樣相」,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 이상필, 「『태안박씨무침록』과 태안박씨의 선계」, 『17-18세기 남명학의 계승과 발전 - 태안박씨 문중을 중심으로 - (발표논문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05(『국역 서계선생집』 7~8권, 도서출판 가람, 2008) ; 이상필 외 7인, 『남명학연구총서 제2집 능허 박민 및 그 후예들의 학문과 사상』, 도서출판 숲이, 2005 ; 한상규, 「凌虛 朴敏의 南冥學精神과 性向」, 『남명학연구논총』 11, 남명학연구원, 2002.

4) 김학수, 「한강학(寒岡學)의 호서 확장과 지식문화적 환류(還流) - 공촌동약(孔村洞約)과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20, 한국서원학회, 2025.

5) 김기엽, 「조선 후기 『濂洛風雅』 讀後詩에 나타난 道學詩의 典範과 詩想의 계승 양상」, 『고전과 해석』 40, 고전문화한문학회, 2023 ; 이동재, 「18세기 문인들의 백제회고시 연구」, 『한문교육논집』 63, 한국한문교육학회, 2024 ; 이종목, 「회재 이언적의 〈임거십오영〉과 그 반향」, 『한국한시연구』 26, 한국한시학회, 2018 ; 전병철, 「『영남인물고』 진주편 등재인물의 시기별 특징」, 『경남문화연구』 3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1 ; 정경주, 「서계 박태무의 수양론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 최석기, 「서계 박태무의 삶과 시세계」, 『17-18세기 남명학의 계승과 발전 - 태안박씨 문중을 중심으로 - (발표논문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05(『국역 서계선생집』 7~8권, 도서출판 가람, 2008).

난 공간이 서원이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서원을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했고, 서원 순례를 통해 선현을 존숭하는 마음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본고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며, 박태무가 서원을 순례하며 읊은 시를 분석하고 서원을 인식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서계의 유람과 서원 순례

박태무는 일생 동안 거주지인 진주의 대각서원·정강서원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서원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강학·향사를 비롯한 서원과 관련한 일[院事]이었다. 그중 대각서원과 정강서원의 경우 강학과 향사 참여를 목적으로 갔던 경우가 많았다.⁶⁾

이러한 원사의 목적뿐만 아니라, 박태무는 산수를 유람하거나 선현들의 유적지를 순례하는 과정에서 서원을 방문했다. 이것은 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따르면 박태무는 선현의 정려나 서원·묘소를 반드시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⁸⁾

6) 이병훈, 「조선 유교의 성지, 안동 도산서원 순례」, 『안동학』 21, 한국국학진흥원, 2022, 79쪽.

7) 「年譜」에 따르면, 박태무는 1707년 여름에 향리의 유생들과, 1741년 가을에 양정재 하덕망과 대각서원에서 강론했다. 1717년 겨울과 1729년 여름에 향리의 유생들과 정강서원에서 강론했다. 그리고 1709년에 임천서원에서 『논어』·『예기』를 강론했다. 1715년에 아버지인朴昌淵(1658~1721)에게 아뢰어, 평안도 운봉서원의 재사와 행랑의 기와를 바꿨다. 1735년에 구계서원에서 『근사록』을 강론했고, 1737년에 현풍 예연서원의 편액이 내린 것을 기념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8) 「연보」, 『西溪集』 卷8, “先生慕賢之誠 出於天性 每在途見旌閣則式 過先賢院宇及墳墓 亦必尋謁”

「연보」와 「알묘문」에 따르면, 박태무는 남명 조식·검재 하홍도의 묘소(1692년), 한강 정구의 묘소(1703년), 동계 정온의 묘소(1704년), 수우당 최영경·동강 김우웅·서애 류성룡·학봉 김성일의 묘소(1705년), 충재 권벌·퇴계 이황·표은 김시온의 묘소(1706년), 육신묘(1707년), 미수 허목의 묘소(1708년), 아은 길재·여

春秋餘大筆	『춘추』가 남은 큰 붓으로,
章奏讀之悲	아된 글 읽으니 슬프네.
主辱生何忍	임금이 욕을 당했는데 살기를 차마 어찌하랴,
臣純死固宜	신하는 오로지 죽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리.
後來蓀嶺老	뒤에 손령 늙은이 와서,
追述魯連詩	노중련의 시 덧붙여 썼네.
回首燕雲黑	머리 돌리니 연경의 구름 어둡고,
縱橫志士淚	거침없이 지사의 눈물 흘렸으리. ⁹⁾

이 시는 박태무가 동계 정온(1569~1641)의 묘소를 참배한 후, 거창 모리서당(모리재)을 순례하고 쓴 것이다. 정온은 병자호란 때에 척화를 주장했으나,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후에 금원산에 은거했다. 거창 지역 선비들은 정온의 행적을 추모하기 위해 모리재를 지었다. 박태무는 1704년에 정온의 유적지를 순례했는데, 이해가 명나라가 멸망한 지 1주갑(61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 정온의 유적지를 찾아가 광세지감을 표현했고, 집안에서 보관하던 가정·만력 연간의 명나라 제기를 수송하여 모리서당에 기증했다.¹⁰⁾

시를 통해 박태무는 정온의 행적을 기리고 있다. 정온이 척화를 위해 상소한 일, 청나라와의 화의가 맺어지자 정온이 자결을 시도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7~8구에서 청나라와 화의가 맺어진 것에 대한 정온의 분함과 슬픔을 표현했다. 7구에서 연경의 구름이 어둡다고 한 것은 청나라로 인해 명나라가

현 장현광의 묘소(1710년), 우복 정경세·회재 이언적의 묘소(1712년), 박비 등 선현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글을 지었다. 박비는 박태무의 9대조로 감무 등을 역임했다.

- 9) 朴泰茂, 〈某里書堂感懷〉, 「詩」, 『西溪集』 卷1;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436쪽.

본고에서 인용한 『서계집』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와 『국역 서계선생집』 1~8권(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도서출판 가람, 2008)을 참고했고, 번역문의 경우 일부 수정했다.

- 10) 「年譜」, 『西溪集』 卷8, “是歲乃皇明革命之周甲也 往訪鄭先生遺墟 以寓曠感 而輸送家藏嘉靖萬曆舊器于某里書堂”

멸망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처럼 박태무는 선현의 유적을 순례하고, 이를 소재로 시를 창작하며 선현을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기행시에서 두드러진다. 박태무는 산수를 유람한 후 지은 시편을 모아서 기행시로 이름해 두었는데, 『서계집』에는 7개의 기행시 모음집이 있다. 이 기행시는 모두 168수이다.¹¹⁾ 그중에서 박태무가 서원을 순례했던 유람은 〈遊淸涼小白山記行〉과 〈遊頭流山記行〉이다. 그리고 이 두 기행시에 박태무가 서원을 소재로 창작한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유청량소백산기행〉은 박태무가 30대에 경상좌도 일대를 유람하고 쓴 시이다. 시에 의거하여 여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청량소백산기행〉

[성주] 회연서원-백매원-한강대

[구미] 동락서원-부지암-지주비(지주중류비)-극재 신익항을 방문함

[안동] 옥연정-병산 만대루-여강서원-도연서당-김명석·김성흠을 증별함-류승현·류관현을 증별함-동파 이만을 증별함-도산서원-천연대-청량산-고산(고산정)-연대사-김생굴-장암-단사협-효랑령

[봉화] 답실 석천정-창설재 권두경을 만남-소산 이광정을 만남-강좌 권만을

11) 〈遊淸涼小白山記行〉 41제 40수(30~38세), 〈遊東都記行〉 10제 10수(36세), 〈遊金剛山記行〉 26제 27수(31~34세경), 〈遊丹陽山水記行〉 20제 20수(시기 미상), 〈遊錦山記行〉 17제 17수(시기 미상), 〈遊頭流山記行〉 36제 36수(60세), 〈重遊頭流山記行〉 18제 19수(69세) (최석기, 앞의 논문, 161~162쪽.)

한편 최석기는 앞의 논문에서 〈유청량소백산기행〉의 기행이 박태무의 나이 30세(1706)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연보」 등을 대조해 본 결과, 본고는 〈유청량소백산기행〉의 기행이 1706년에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연보」와 〈西溪叢竹記〉에 따르면, 박태무는 1710년 봄에 길재와 장현광의 묘소, 지주비(지주중류비)를 찾아갔고, 약목촌에서 극재 신익항을 방문했다. 이해에 그의 나이가 34세였다. 또 박태무가 우복 정경세 묘소를 찾아간 해는 1712년인데, 이해에 그의 나이가 36세였다. 이를 근거로 본고는 〈유청량소백산기행〉의 유람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창작한 시 여러 수를 한데 정리했다고 판단했다.

만남-김정찬을 만남

[여주] 부석사, 우천 정옥을 만남-금성단-백운동-소수서원-소백산-청운대-석
륜사, 월파산인을 만남-자하대

[상주] 우복 정경세 묘소-식산 이만부를 만남-운음 노계원을 만남-자천대-도
남서원

〈유청량소백산기행〉의 유람 여정을 살펴보면, 박태무는 서원 6곳과 서당 1
곳, 묘소 1곳을 방문했고, 13명의 인물들을 만났다. 이들은 경상좌도 북부 지
역에서 유명한 유학자들이었다. 이를 통해 박태무가 이 유람을 통해 퇴계학과
인물들과 교유를 맺는 데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그리고 그 과정에
서 경상좌도 서원이나 묘소 등등 선현들의 유적을 순례한 것으로 보인다. 「연
보」에 따르면 박태무는 1705년에 극재 신익황(1672~1722)과 함께 밀암 이재
(1657~1730)를 뵈고 이재의 문인이 되었다. 그리고 진주로 돌아오는 길에 서
애 류성룡(1542~1607)·학봉 김성일(1538~1593)의 묘소를 찾아가 참배했다.
이후에도 박태무는 경상좌도에 있는 선현들의 서원이나 묘소를 방문했다.¹³⁾

〈遊頭流山記行〉은 박태무가 1736년에 지역 문인들과 지리산(두류산)을 유
람하며 쓴 기행서이다. 「연보」에 따르면, 박태무는 박민이 만력 병진년(1556)
에 지리산을 유람한 일을 추모하여, 양정재 하덕망(1664~1743) 등과 함께 천
왕봉으로부터 쌍계·신응사를 갖고 섬진강에 배를 띄웠다고 한다. 이후 1745
년 봄에 다시 지리산 자락을 유람하여, 백운동으로부터 청암 용신골까지 지리
산 동남쪽의 명승지와 선현들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重遊頭流〉를 지었다.¹⁴⁾

12) 최석기, 앞의 논문, 162~163쪽. 덧붙여서 최석기는 박태무의 다른 기행시들과
달리, 〈遊清凉小白山記行〉에서는 尋眞忘塵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13) 「年譜」, 『西溪集』 卷8, “三十一年乙酉 先生二十九歲 … ○秋候密菴李先生于廬所
… 操文謁西厓鶴峯兩先生墓 三十二年丙戌 先生三十歲 … 秋操文謁冲齋退陶瓢隱先
生墓”

14) 「年譜」, 『西溪集』 卷8, “十二年丙辰 先生六十歲 … 遊頭流山 萬曆丙辰 凌虛先生遊
頭流 先生追感故事 與河養正齋及珠潭居士金公聖運 同遊自天王峯 下至雙溪神凝寺
泛蟾津江而罷 … 二十一年乙丑 先生六十九歲 春重遊頭流山 自白雲洞至青巖龍神洞

지리산 유람 여정은 아래와 같다.

〈유두류산기행〉

사곡-모한재, 양정재 하덕망을 만남-영귀대-도구대-입덕문-덕천서원-영모재, 김대집·조종길을 만남-무위암-바위 구멍[石竅]-남대암-망절정-천왕봉-일월대-쌍계-불일암-향로봉 고령대-완폭대-비로봉-환학대-보조암-쌍계사-학사대-요학루-쌍계석문-신응사-세이암-녹반암-칠불암-화개-도탄-삼암-악양-섬진강-곤산

〈중유두류〉

백운동-폭포-옥녀봉-불장암, 하대관을 만남-만화담-불장암, 김돈을 만남-송객정-삼장사-대원암-公田에 성묘-오대사-백암-안계-진주

지리산을 두 차례 유람하면서 박태무는 서원 1곳을 순례했다. 지리산 유람에서 순례했던 덕천서원은 남명 조식(1501~1572)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두 번째에 지리산을 유람할 때에는 서원을 들르지 않았으며, 이 시기는 하덕망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박태무는 고향의 명산과 명승지를 둘러보고, 박민·조식·검재 하홍도(1593~1666)·일두 정여창(1450~1504) 등등 선현을 떠올렸다.¹⁵⁾

〈유청량소백산기행〉을 살펴봤을 때, 박태무는 30~40대에 경상좌도를 유람하며 퇴계학과 인물들과 폭넓은 교류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¹⁶⁾ 그 과정에

而歸”

최석기, 「서계집 해제」,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44쪽.

- 15) 최석기, 「서계 박태무의 삶과 시세계」, 『17-18세기 남명학의 계승과 발전-태안박씨 문중을 중심으로-(발표논문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05(『국역 서계선생집』 7~8권, 도서출판 가람, 2008), 162~163쪽.

덧붙여서 최석기는 박태무의 다른 기행시들과 달리, 〈遊靑涼小白山記行〉·〈重遊頭流〉에서는 尋眞忘塵·交遊擴大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대신에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하는 정서가 주류를 이루며, 조식과 하홍도를 근본으로 하는 자기 학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느낌을 준다고 했다.

서 서원을 방문하여 사당에 참배하거나, 서원에서 여러 인물을 만났다. 예를 들어 1714년에 안동 도산서원을 방문했을 때, 상덕사에서 이황의 위패에 참배했고, 창설재 권두경(1654~1725)·식산 이만부(1664~1732)·신익황 등을 만난 것이다.

한편 박태무는 <유청량소백산기행>의 유람에서 서원을 가장 많이 다녀왔다. 이것은 박태무가 평소에 선현의 유적지를 순례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의 학문적 성향 및 가학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박태무는 정구를 퇴계학의 적전으로, 한강학을 자신의 가문의 학문적 연원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경향은 그가 성주 회연서원을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1703년에 정구의 묘소를 참배하고 제문을 지은 것에서 드러난다. 이 제문에서 그는 가학이 ‘이황-정구-박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¹⁷⁾

또 <유청량소백산기행>에서 유람한 곳들은 퇴계학과도 연관이 깊다. 박태무는 평소에 주자와 함께 이황을 매우 존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가 이황의 시를 차운한 시를 다수 창작한 점에서 드러난다. 덧붙여서 정구의 묘소를 참배하고 지은 제문에서 드러나듯, 퇴계학은 박태무의 학문에서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경상좌도 지역의 서원들을 순례하며 선현들을 존모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두류산기행>·<중유두류>를 살펴봤을 때, 박태무는 60대에 지리산을 유람하며 남명학과 인물들과 함께했다. 덕천서원과 지리산은 경상우도에 있고, 남명학의 영향을 받은 곳이었다. 아울러 박태무의 가문은 진주하씨 등등 진주 지역의 남명학과 가문들과 혼맥을 맺었다. 그리고 그의 증조부인 박민은 정구와 내암 정인홍(1535~1623)의 문인들을 비롯하여, 조식의 재전

16) 최석기, 앞의 논문, 164쪽.

17) 이외에도 박태무가 한강학을 가학의 원류로 인식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박태무가 유헌에서 정구를 특별한 존현의 대상으로 삼길 명한 점, 박태무가 54세에 집안에서 운영했던 <奈洞洞約>이 황중해의 <孔村洞約>의 영향을 받은 점, 증조부인 박민이 정구의 제자였던 점, 유헌에서 정구를 특별한 존현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한 점 등이다(김학수, 앞의 논문, 21~23쪽).

문인들과 많이 교유했다.¹⁸⁾ 이러한 점은 박태무가 지리산을 유람하며 경상우도 지역의 선현들을 존모하고, 덕천서원을 순례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Ⅲ. 선현 존모와 도학 전승의 공간

박태무의 기행시에서 서원을 소재로 창작한 시는 총 11수이다.¹⁹⁾ 그는 서원을 순례하고 시를 지을 때 선현들을 주목했다. 서원 순례에서 주목했던 선현들은 주로 서원과 관련된 인물, 또는 공맹이나 주자 등등 성리학의 연원이 되는 인물이었다.

退陶傳正脉	퇴도가 전한 정맥,
吾道獨寒岡	우리의 도는 오직 한강 선생.
山川爲毓氣	산천이 기운을 기르고,
日月與齊光	일월이 함께 가지런히 빛나네.
南州同景仰	남쪽 고을에 함께 우러러보매,
東國永輝煌	동국에 영원히 빛나리라.
再拜遺祠下	남겨진 사당 아래 두 번 절하니,
愀然如見牆	초연히 담장을 보는 듯하네.
右謁檜淵書院	위는 회연서원을 배알하고

百梅花皎皎 백매화 하얗게 피었으니,

18) 이상필, 「泰安朴氏 門中과 南冥學 繼承 樣相」,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4~8쪽.

한편 최석기는 박태무가 50대가 되면 동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침잠의 시간을 가지며, 남명학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데에 전념했다고 분석했다(최석기, 앞의 논문, 164쪽).

19) 성주 회연서원 3건(회연서원·백매원·한강대), 구미 동락서원 1건, 안동 병산서원 1건(병산 만대루), 안동 여강서원 1건, 안동 도산서원 2건(도산서원·천연대), 영주 소수서원 1건, 상주 도남서원 1건, 산청 덕천서원 1건.

想像先生臆	선생의 마음속을 상상하게 되네.
百梅花溫溫	백매화 따뜻하고 따뜻하니,
想像先生色	선생의 얼굴빛을 상상하게 되네.
百梅花菲菲	백매화 향기롭고 향기로우니,
想像先生德	선생의 덕을 상상하게 되네.
臨風嗅餘香	바람에 남은 향기 맡으니,
耿耿懷疇昔	잊히지 않았을 옛적을 생각하네.
古植半衰朽	고목 등걸 반쯤 썩었으나,
誰復繼手植	누가 다시 이어서 손수 심으랴?
歎息千載下	천년 뒤를 탄식하나니,
吾道今寂寞	우리의 도 지금도 적막하네.
右百梅園	위는 백매원에서

先生棄後學	선생께서 후학들을 버리시고,
惟餘杖屨處	오직 옛 자취만 남기셨네.
高岡壓晴川	높은 언덕 청천을 누르고,
五月排大暑	오월의 큰 더위 물리치네.
恍如煙火外	어렴풋이 안개 더위 밖에서,
飄然羽衣舉	표연히 날개옷 들추신 듯하네.
水雲竟綿邈	물과 구름 마침내 아득히 멀어지는데,
徊徨不能去	서성거리며 떠날 수 없네.
右登寒岡臺	위는 한강대에 올라서 ²⁰⁾

세 수 모두 정구와 관련한 공간으로, 회연서원의 경내에 속한다. 회연서원은 정구가 생전에 강학했던 회연초당에서 비롯되었고, 백매원은 정구가 매화를 길렀던 동산으로 회연초당 옆에 있었다. 그리고 한강대는 정구가 경영했던 무흘구곡 경관 중 제2곡으로, 회연서원 근처에 있다.

회연서원을 읊은 첫 번째 수에서는 정구가 이황의 학맥을 이어받았다고

20) 朴泰茂, 〈遊清涼小白山記行〉, 『詩』, 『西溪集』 권1;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147~148쪽.

하며, 정구의 학문이 영원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원의 사당에서 정구의 위패에 참배하며, 담장에서 정구를 바라보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이를 통해 회연서원은 박태무가 정구를 그리워하고 경모하면서, 정구의 학문이 영원히 이어지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회연서원에서는 정구의 학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 백매원과 한강대에서는 정구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정서가 조금 더 잘 드러난다. 먼저 백매원에서 박태무는 흰 매화를 통해 정구의 온화함과 덕, 그리고 정구가 살아 있을 때를 생각해 본다. 하지만 정구는 이미 과거의 고인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정구의 도를 누가 이어갈지 탄식한다. 다음으로 한강대에서는 풍경을 보며 정구의 기상을 떠올리다가, 멀어지는 물과 구름처럼 박태무 당대에 정구가 부재한 것을 아쉬워한다.

이처럼 회연서원과 그 주변 공간은 박태무가 과거의 인물인 정구를 인식하고, 그의 학덕과 기상을 존모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특히 박태무의 증조부인 박민은 정구의 문인이었고, 정구의 학문을 착실하게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았다.²¹⁾ 그러므로 회연서원은 박태무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 때문에 박태무가 서원을 순례하고 지은 시 중에 회연서원을 소재로 지은 시들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여운은 박태무가 서원을 다녀온 후로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²²⁾

(가)

祇謁屏山廟	공경히 병산 사당을 알묘하고,
登臨晚對樓	만대루에 올랐네.
層壁當簷近	층암절벽 처마와 가깝고

21) 김학수, 앞의 논문, 22쪽.

22) 유람 이후에 박태무는 봉비암 아래의 회연서원에서 정구가 심학과 이치를 강론 하던 장면을 상상하며, 봉비암을 정구가 강론하던 공간으로 형상화했다.(朴泰茂, <讀曾王考凌虛先生行錄 抄出八條 畫而成帖題之 以寓感慕之意>, 「詩」, 『西溪集』 卷1, “鳳飛巖下水洋洋 云是先生講道場 幾度春風時雨裏 論心論理話言長 右檣淵樞衣”)

平波上檻流	평평한 물결 난간 위로 흐르네.
了得名區債	명승지 빚을 다 갚았는데,
渾忘遠客愁	멀리 떠난 나그네 시름 모두 잊었네.
水雲永綿邈	물과 구름 영원하나 아득히 멀어지기에,
惻悵下滄洲	허전하여 강변으로 내려오네.
右登屏山晚對樓	위는 병산 만대루에 올라 ²³⁾

(나)

昏衢斐皦日	어두운 거리 밝게 빛나는 해,
牖我幾羣愚	우리 몇몇 무리의 어리석음 깨우치셨네.
東方開絕學	동방의 끊어진 학문 열었으니,
南國獨眞儒	남방에 홀로 참된 선비일세.
粹容模孔孟	초상은 공자 맹자 본뜨고,
正脉接程朱	정맥은 주자와 이어지네.
祇拜增遐慕	공경히 절하며 아득한 그리움 더하고,
懷然躡埴途	처연히 진흙 길을 들추네.
右謁紹修書院	위는 소수서원을 알현하고 ²⁴⁾

(가)의 만대루는 병산서원의 입구에 있는 누각이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1542~1607)과 수암 류진(1582~1635)을 배향하고 있다. 박태무는 사당(존덕사)에서 참배한 후 만대루에 올라 풍경을 감상한다. 거주지인 진주에서 먼 거리이지만, 만대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은 객수를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다 이내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며 허전함을 느낀다. 만대루 앞을 흐르는 낙동강과 하늘의 구름은 자연물로서, 항구성을 가지고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자연물과 반대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인간의 삶 역시 자연에 비해 짧다. 이 때문에 낙동강과 구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흘러가지

23) 朴泰茂, 〈遊清涼小白山記行〉, 「詩」, 『西溪集』 권1;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150쪽.

24) 朴泰茂, 〈遊清涼小白山記行〉, 「詩」, 『西溪集』 권1;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150쪽.

만, 병산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박태무는 인간사의 덧없음에 허전함을 느낀 것이다.

(나)의 소수서원은 신재 주세붕(1495~1554)이 세운 서원으로, 최초로 사액을 받았다. 그리고 회헌 안향(1243~1306)을 배향하고 있는데, 1633년에 주세붕 역시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소수서원에 배향된 안향은 중국 원나라로부터 주자의 성리학을 최초로 고려에 들여 온 인물이었다. 성리학은 문화적·학술적으로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조선 시대의 선비들은 성리학의 연원과 도학이 한반도[東方]에 전해졌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며, 박태무는 1~4구에서 성리학을 들여오고 진흥하는 데에 힘썼던 이들의 행적을 칭송한다. 5~6구에서는 소수서원 문성공묘에 배향된 인물들의 초상을 공자와 맹자에 빗대며, 이들이 주자와 이어진다고 했다. 소수서원에 배향된 인물들이 조선 시대 성리학에서 중요한 인물들이고, ‘공자-맹자-주자’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연원과 도학이 이들에게도 이어진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이들을 배향한 소수서원은 성리학을 계승한 인물을 배향한 공간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박태무는 문성공묘에서 이들에게 공경히 참배한다. 다만 이들은 이미 과거의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박태무는 8구에서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다)

鄒魯鄉風好	추로의 고을 풍속 좋으니,
猗歟吾道南	아아 우리의 도남!
正脉淵源接	정맥의 연원을 잇고,
眞工義理探	참된 공부 의를 찾는다네.
俎豆虔誠篤	제사는 경건하고 정성은 도타우며,
絃歌教化覃	현가의 교화는 깊고 넓다네.
江山兼絕勝	강산도 함께 절승이니,
樓外水如藍	누각 밖의 물은 쪽빛과 같네.
右謁道南書院	위는 도남서원을 배알하고 ²⁵⁾

(라)

伊水之陽	이수의 북쪽은,
孔曼且鳥	크게 아름답고 크게 아름다운 곳이네.
九賢之堂	구현의 사당은,
籩豆靜嘉	제기가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絃誦洋洋	거문고 타며 시 읊는 소리 성대하고 성대하니,
於千萬年	아아 천만년에,
吾道重光	우리의 도 거듭 빛나리. ²⁶⁾

(마)

瞻仰先生像	선생의 영정 우러러 보니,
巖巖千仞壁	바위마다 천길의 높고 높은 절벽이네.
緬想先生心	아득히 선생의 마음 생각해 보니,
亭亭歲寒栢	꽃꽂하게 차가운 하늘 겨울의 송백 같네.
吾道屬誰邊	우리 유도 어느 곳에 붙어 있는가,
杏壇春寂寞	학문을 닦는 곳 봄임에도 적막하구나.
方丈山高德川長	방장산 높고 덕천 강물 길이 흐르니,
先生之風永無極	선생의 기풍 영원히 끝남이 없으리라.
右謁德川書院	위는 덕천서원을 배알하고 ²⁷⁾

(다)의 상주 도남서원은 박태무가 <유청량소백산기행>에서 가장 마지막에 순례했던 서원이다. 이곳에는 포은 정몽주(1337~1392)·한훤당 김굉필(1454~1504)·일두 정여창(1450~1504)·회재 이언적(1491~1553)·이황·소재 노수신(1515~1590)·류성룡·우복 정경세(1563~1633)가 배향되어 있다. 그중에서 정몽주와 김굉필·정여창·이언적은 조선 전기 사림파에 의해 성리학의 도통

25) 朴泰茂, <遊淸涼小白山記行>, 「詩」, 『西溪集』 권1 ;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190쪽.
 26) 朴泰茂, <鼎岡書院記>, 「記」, 『西溪集』 권6 ;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5~6권, 도서출판 가람, 2008, 486~487쪽.
 27) 朴泰茂, <遊頭流山記行>, 「詩」, 『西溪集』 권1 ;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550~551쪽.

을 계승한 인물로 인식되었다.²⁸⁾ 그리고 노수신은 만년에 상주에 거주했고, 류성룡은 상주 목사를 부임했으며, 정경세는 류성룡의 제자로서 상주에서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이 시에서 박태무는 공자와 맹자를 인식하며 도남서원을 읊었다. 다만 이를 토대로 선현의 부재에 주목하기보다, 도남서원의 강학과 제사, 그리고 교화를 주목한다. 1~3구에서 박태무는 오래전 공자와 맹자(鄒魯)의 풍속과 맥(正脈)을 도남서원이 이었다고 한다. 유학의 도를 계승하면서 학문과 수양에 힘썼던 공자와 맹자처럼, 도남서원의 선비들은 공부에 힘쓰고 서원의 향사를 정성스럽게 지냈으며, 그 결과 교화되었다. 이로써 도남서원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계승하며, 선비들을 교화하는 공간으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7~8구에서는 도남서원의 이러한 면모를 아름답고 푸른 자연 풍경에 빗대었다.

(라)는 박태무가 46세(1722)에 지은 <鼎岡書院記>의 일부이다. 박태무가 이 글을 지었을 당시에 지역의 선비들이 진주 정강서원으로 모였다. 정강서원을 고치고 그 강당에 <백록동규>를 걸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선비들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라)에서 박태무는 정강서원에 배향된 9현을 인식하고 있다. 정강서원에 배향된 9현은 정온·강숙경·하윤·유백온·이제신·이담·하천주·진극경·박민으로, 진주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학덕·효행으로 이름난 인물들이었다. (라)의 1구에 나오는 '伊水'는 정강서원 앞을 흐르는 시냇물로, 송나라의 성리학자인 정이를 존모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 박태무는 이수와 9현을 연상하며, 정강서원을 유학의 도가 깃든 공간으로 표현했다. 깨끗한 제기는 정강서원이 9현을 모시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거문고와 시는 유학의 가르침을 계승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라)는 원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창작한 작품

28) 차장섭, 「도산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위상」, 『역사교육논집』 54, 역사교육학회, 2014, 154~155쪽. 한편 본고에서 사용한 '도통'은 요순 이래 공맹을 거쳐 주자까지 전해진 유가의 要義이자 성인의 도를 의미한다(함영대, 「성호학파의 『맹자』 해석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90쪽).

이지만, 서원 순례에서 창작한 여타 작품과 비슷하게 서원을 인식·형상화하고 있다.

(마)는 박태무가 60세에 지리산을 유람하던 중에 덕천서원을 순례하고 읊은 것이다. 그는 사당에서 조식의 영정을 보며 그의 높고 꼳꼳하며 차가운 기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조식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만물이 생동하는 봄임에도 불구하고 덕천서원의 분위기는 적막하다. 적막함 속에서도 덕천서원에서 보이는 지리산은 예나 지금이나 높고, 덕천서원 앞을 흐르는 덕천은 오랫동안 쉬 없이 흐른다. 불변하는 자연처럼, 조식의 기상 역시 영원할 것이라고 한다. 중간에 조식의 부재로 인한 적막함이 잠깐 나왔지만, 중국에 그의 기풍을 영원성으로 승화함으로써 조식을 존모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상의 시에서 볼 수 있듯, 박태무는 서원을 통해 과거의 인물들을 연상했다. 이 같은 양상은 이상의 시들 외에도, 〈유청량소백산기행〉 중에 “위는 여강서원을 배알하고[右謁廬江書院]·“위는 도산서원을 배알하고[右謁陶山書院]” 등등에 나타난다. 이러한 시들에 등장하는 과거의 인물들은 주로 선현들로, 성리학의 연원이 되는 인물이거나, 서원에 배향된 인물이다. 하나의 작품에서 전자와 후자가 모두 나오거나, 둘 중 하나만 나오기도 한다.

먼저 성리학의 연원이 되는 인물을 인식하며 서원을 형상화할 경우, 서원은 성리학의 연원과 도학을 전승하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서원에 배향된 인물을 인식하며 서원을 형상화할 경우, 그 인물을 존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한편, 박태무 당대에 그 인물이 부재함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서원은 배향된 인물을 존모하는 공간, 또는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자취나 학덕이 깃든 공간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29) 『논어』, 「선진」 제11, “曰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 동양고전종합DB[db.cyberseodang.or.kr]

아울러 거문고는 유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수양하고 다스리며 성현의 경지를 지향하는 악기로 인식되었다(허승, 「조선시대 거문고 수양정신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3~16쪽).

IV. 결론 : 서원 인식이 지니는 의미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의의를 서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원을 순례하며 박태무는 과거의 선현들을 떠올렸고, 선현을 존송하는 마음과 선현의 학덕을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서원은 선현의 학문적 연원 및 자취가 깃든 공간이자, 선현을 존모하는 마음을 담은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박태무가 서원에서 공맹·주자 등등 성리학의 연원이 되는 선현을 떠올린 것은, 그에게 서원은 성리학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경향은 그가 자신의 거처를 시로 형상화하는 데에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서계서당을 시로 읊었는데, 시에서 무릉도원처럼 세상과 격리된 서계서당에서 책을 읽고 전원을 가꾸며 한가로이 사는 삶을 통해 요순 시절을 꿈꾼다.³⁰⁾ 요순은 아득한 옛날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전해지는 인물로, 요순시대부터 성리학의 도통이 시작된다.³¹⁾ 이를 통해 서계서당은 박태무가 요순의 경지, 즉 선현의 경지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이울리 박태무는 이황의 〈山居四時各四吟 共十六絶〉을 차운하여, 박태무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맑고 깨끗한 정경으로 표현했다. 이황이 도산서당에서 공부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의 경지를 지향하였듯, 박태무 역시 자신이 존모했던 이황처럼 자신의 거처에서 마음을 수양하고 학문하는 모습을 표현했다.³²⁾ 이를 통해 박태무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진다. 서원을 순례하며 선현

30) 朴泰茂, 〈西溪書堂〉, 「詩」, 『西溪集』 卷1 ;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221쪽.

31) 주자는 도통의 계승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했다. 첫 단계가 옛 성군(古聖王)의 시대로 요순·우·탕·문·무·주공으로 이어지는 단계, 두 번째가 공자에 의한 고성왕의 전승과 그 이후의 단계, 세 번째가 맹자가 성인(公자)의 도를 잇는 단계, 네 번째가 맹자 이후의 단계이다(함영대, 앞의 논문, 190~192쪽).

32) 朴泰茂, 〈敬次退陶先生山居四時吟〉, 「詩」, 『西溪集』 卷1 ; 권정석·정경주 외 번

을 존송하는 마음을 드러냈듯, 스스로 선현의 경지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로 박태무가 유람에서 서원을 순례한 것이 선현들을 존송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있다. 박태무는 평소에 주자의 글을 비롯하여, 이황의 『퇴계집』 등 선현들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배우고 스스로 깨달은 내용을 토대로 잠·명을 짓거나, 선현의 작품을 차운한 시를 지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태무는 선현의 유적을 직접 답사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

선현의 글을 읽는 것이 선현의 가르침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공간 속에서 선현이 느꼈던 경지나 선현의 자취를 물리적으로 체득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원의 경우 사당에서 선현의 위패에 몸소 참배함으로써 경의를 표할 수 있었다. 선현의 학문을 공부하고 선현을 존송해 온 박태무에게 이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때로는 서원에서 선현을 직접 뵈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박태무는 서원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선현의 자취를 느끼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선현과 관련한 실제 사물을 통해, 성현의 마음을 느끼고 그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³³⁾

역, 『국역 서계선생집』 1~2권, 도서출판 가람, 2008, 302~308쪽.

- 33) 朴泰茂, 〈送郭鎮若遊陶山序〉, 「序」, 『西溪集』 卷5;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5~6권, 도서출판 가람, 2008, 425~426쪽, “옛날 내가 안동 청량산을 유람할 때에, 단사협에서부터 한서암과 도산을 관람하고 선생의 사당을 보고 추가하여 열여덟 명의 시에 화답하고 금 씨의 고산으로부터 흰 자갈, 우뚝한 바위, 맑은 웅덩이, 긴 여울을 거쳐 탁영담까지 와서 그 아래 농암까지 구경하니, 고목이 우거진 빈터에 시냇물 위의 경치가 자봉 노인이 말한 대로 그림 같은 경치가 끝나지 않아 내가 보고 즐겨 남쪽으로 돌아와서도 꿈속에서도 내 몸이 여기에 있어 잊히지 않았네. 이제 자네가 여기를 유람한다 하니 자네의 즐거움이 나와 같으리. 그러나 도산에서 즐길 것은 다만 산수뿐만 아니네. … 자네가 천연대·관란현에 올라, 선생께서 도체 유행한 묘리 살피신 곳을 보고, 정우당·

세 번째로 서원 순례를 통해 박태무가 경상도 내에 존재했던 여러 학파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 학파의 선현을 두루 존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형 연구에서 대체로 언급되었듯, 박태무가 남명학을 계승하거나, 남명학을 기반으로 두고 퇴계학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하지만 순례했던 서원을 소재로 창작한 시를 분석해 본 결과, 박태무는 학파에 관계없이 서원에 배향된 선현들을 존모하고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박태무가 서원을 순례하며 창작했던 시들 중 성주 회연서원에서 읊었던 시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그가 회연서원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학문적으로 정구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박태무의 서원 방문이 그의 집안 후손에게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박태무가 산수 유람, 선현 유적 답사, 강학·향사 등 서원과 관련한 일로 여러 지역의 서원을 방문했듯, 그의 증손자인 놀암 박지서(1754~1821)도 여러 지역의 서원을 다녔다. 경상좌도의 상주 도남서원·영주 소수서원·상주(현재 문경시 소재) 근암서원 여러 서원을 방문하여 선현을 참배하거나, 향론의 일에 참여한 것이 그 예다. 다만 박태무가 순례했던 서원을 소재로 기행시를 남겼다면, 박지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박지서는 『태안박씨무침록』을 편찬하여, 진주 태안박씨 능허공파의 세계와 선조들의 행장·가훈·제영 등을 정리했다. 『태안박씨무침록』 중 「서계서실제영」에 박태무의 시에 차운한 시들이 수습되어 있는데, 시들을 보면

절우사에서 선생께서 사물을 보고 깨달은 공부를 상상해 보며, 기숙사(寮舍)·시습재에서 선생의 가르침이 들리는 듯하고, 암서현·완락재에서 선생의 모습을 뵈온 듯하면, 선생이 마음과 눈 사이에 영인될 것이니, 누가 선생을 전대 인물이라 하랴? 그런 뒤에 도산 유람을 참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니, 자네가 그걸 알겠는가? [昔余遊清涼山 從丹砂峽觀寒棲庵 陶山謁先生廟 追和十八詠 自琴氏孤山白磔磔巖清潭脩瀨 至濯纓潭而極 其下聳巖 往往古木郊墟川上之趣 紫峯叟所云畫圖所不盡 吾見而樂之 南歸夢寐在此 今吾子有是遊 吾子之樂 必與我一般矣 然陶山之可樂者 非但山水而已 … 吾子登天淵臺觀瀾軒而察先生體道流行之妙 臨淨友塘節友社而想先生觀物反隅之工 止宿寮時習齋而如聞先生之聲效 巖棲軒玩樂齋而如對先生之儀刑 則先生在吾心目間 孰云千古古人哉 夫然後陶山之遊 真可樂也 吾子其知之否?]

권두경·이재·이만부 등등 총 86명의 시들이 실려 있다. 이들 중에 박태무가 경상좌도에 갔을 때 방문하거나 교류했던 인물들도 많다. 물론 하덕망 등등 남명학과 인물들도 있었다.³⁴⁾

이처럼 박태무가 서계정사 제영 차운시를 여러 편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박지서가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점은 박태무가 여러 지역을 유람하고 서원을 순례하며 여러 인물과 교유한 덕분일 것이다.

본고는 박태무의 유람 과정에서 지어진 기행시를 중심으로, 박태무의 서원 인식과 형상화 양상을 분석했다. 다만 박태무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인물, 또는 박태무와 비슷한 지역권에 살았거나 학파가 동일한 인물의 사례를 함께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한다면 박태무의 서원 인식이 지니는 특징을 더 깊게 논의하면서, 박태무를 중심으로 시대별·지역별·학파별로 나타나는 서원 문화를 파악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34) 이상필, 『『태안박씨무침록』과 태안박씨의 선계』, 『17-18세기 남명학의 계승과 발전 - 태안박씨 문중을 중심으로 - (발표논문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05(『국역 서계선생집』 7~8권, 도서출판 가람, 2008), 196·201·204~206쪽. 한편 1770년에 蓮齋에서 불이 나면서, 시첩으로 장첩되었던 서계서실 제영이 소실되었다. 그래서 박지서는 40년 동안 각지를 찾아서, 원시를 남겼던 여러 선대 인물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원시를 추모하여 화답하게 한 뒤, 다시 『서계시첩』 3권으로 장첩했다. 『서계시첩』은 『태안박씨무침록』 속집에 있는데, 『태안박씨무침록』 속집은 간행되지 않은 상태로 능허 박민의 종손 댁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1. 원전

朴泰茂, 『西溪集』.

『論語』.

권정석·정경주 외 번역, 『국역 서계선생집』 1~8권, 도서출판 가람, 2008.

2. 논저

강동욱, 『남명학교양총서 28 강우유맥 계승에 평생을 바친 놀암 박지서』, 경인문화사, 2016.

이상필 외 7인, 『남명학연구총서 제2집 능허 박민 및 그 후예들의 학문과 사상』, 도서출판 숲이, 2005.

김기엽, 「조선 후기 『濂洛風雅』 讀後詩에 나타난 道學詩의 典範과 詩想의 계승 양상」, 『고전과 해석』 40, 고전문학한문학회, 2023.

김낙진, 「17-8세기 영남의 학술동향과 박태무의 성리학」, 『남명학연구』 1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김학수, 「한강학(寒岡學)의 호서 확장과 지식문화적 환류(還流) - 공촌동약(孔村洞約)과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20, 한국서원학회, 2025.

사재명, 「서계 박태무의 강학과 향촌교화」,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이동재, 「18세기 문인들의 백제회고시 연구」, 『한문교육논집』 63, 한국한문교육학회, 2024.

이병훈, 「조선 유교의 성지, 안동 도산서원 순례」, 『안동학』 21, 한국국학진흥원, 2022.

이상필, 「泰安朴氏 門中과 南冥學 繼承 樣相」,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이상필, 「『태안박씨무침록』과 태안박씨의 선계」, 『17-18세기 남명학의 계승과 발전 - 태안박씨 문중을 중심으로 - (발표논문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

- 원 남명학연구소, 2005(『국역 서계선생집』 7~8권, 도서출판 가람, 2008).
- 이종묵, 「회재 이언적의 〈임거십오영〉과 그 반향」, 『한국한시연구』 26, 한국한시학회, 2018.
- 전병철, 『『영남인물고』 진주편 등재인물의 시기별 특징』, 『경남문화연구』 3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11.
- 정경주, 「서계 박태무의 수양론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 차장섭, 「도산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위상」, 『역사교육논집』 54, 역사교육학회, 2014.
- 최석기, 「서계 박태무의 삶과 시세계」, 『17-18세기 남명학의 계승과 발전 - 태안박씨 문중을 중심으로 - (발표논문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05(『국역 서계선생집』 7~8권, 도서출판 가람, 2008).
- 한상규, 「凌虛 朴敏의 南冥學精神과 性向」, 『남명학연구논총』 11, 남명학연구원, 2002.
- 함영대, 「성호학파의 『맹자』 해석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허 승, 「조선시대 거문고 수양정신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 누리집

동양고전종합DB[db.cyberseodang.or.kr]

한국고전종합DB[itkc.or.kr]

Abstract

The travel and point of view about confucian
academy of Seogy Park Tae-mu*

Kim, So-yeon**

Seogy Park Tae-mu(1677-1756) traveled through scenic landscapes and made pilgrimages to the sites associated with earlier sages, composing travel poems along the way. In this process, he visited seowon-private 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and expressed his reverence for earlier figures through poetic composition.

First, when he perceived the seowon in relation to figures regarded as the origins of Neo-Confucian learning and represented the seowon in poetry, these academies were depicted as spaces that inherit the origins and ideal politics of Neo-Confucianism. Next, when he focused on the individuals enshrined in a given seowon and shaped the academy poetically, he revealed both a sense of veneration for those figures and a sense of regret over their absence in his own time. Through this perspective, the seowon came to be portrayed as spaces for honoring the enshrined figures, or as places imbued

* This work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paper of “2025 Korea-China Seow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12th East Asian Seowon and Study”, hosted by The Korean Seowon Studies, The China Sewon Studies, The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The Humanities Korea 3.0(HK3.0) of Toegye Research Institute 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n Friday, November 14th, 2025.

** Lecture, International Exchange Department, OI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synv@naver.com

with the traces and scholarly virtue of those individuals.

In this way, by making pilgrimages to seowon, Park Tae-mu transformed his reverence for earlier sages into concrete action, while through poetry he articulated his aspiration to pursue and emulate their intellectual and moral attainments.

Key word : Park Tae-mu, confucian academy(seowon), pilgrimage, ancient sages (seonhyeon, xiānxián), Neo-Confucianism(dohak, dao xue)(dotong, dàotǒng)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石室書院을 통해 본 近畿 지역 老論 士族의 결합 양상

이 은 찬*

- I. 머리말
- II. 17세기 후반 근기지역 노론계 서원의 동향과 道峯書院의 宋時烈 입향론
- III. 석실서원의 '의리공간화'와 삼헌추배론
- IV. 교유와 사승을 통한 결합의 재생산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7세기 후반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서울 지역 노론 사족(士族)의 결합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석실서원(石室書院)의 추배(追配) 인물 선정의 성격을 분석한다. 서원이 당파의 '의리(義理)'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핵심 거점이었음을 전제로, 같은 노론계 서원인 도봉서원과 비교해 석실서원의 독특하고 안정적인 결합 메커니즘을 밝혀낸다. 1697년 석실서원에 추배된 김수항(金壽恒)·이단상(李端相)·민정중(閔鼎重) 세 인물은 서울 지역 노론이 추구했던 '삼위 일체적' 권력 통합 전략을 상징한다. 즉, 김수항의 노론 의리 계승, 이단상의 학문적 기반 제공, 민정중의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가 그것이다. 이들의 결합은 이단상이 김수항의 아들 김창협과 민정중의 아들 민진후를 사위로 보는 통혼(通婚)을 통해 혈연적으로 견고하게 엮인다. 결론적으로, 석실서원 추배는 근기(近畿) 노론이 가학(家學)의 전통과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통혼을 활용해 정치 권력과 학문 권력을 통합하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파적 지배력을 강화했음을 입증한다.

주제어 : 석실서원, 도봉서원, 김수항, 이단상, 민정중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한국사학전공 박사과정 / audtn5602@naver.com.

I. 머리말

조선의 서원은 서원은 당초 유현(儒賢)을 추모하고 강학기능을 수행하며 관학(官學)을 보조하는 학문적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당쟁 시기 각 당파는 자당의 인물들을 서원에 제향하여 그 인물의 학문 및 도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스스로의 체제 명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기지역의 서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경기지역의 서원은 중앙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로 상신(相臣)들을 제향하며 중앙 정계의 정치논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의 정국변동에 대하여 기민하게 변동하였다. 요컨대 경기지역의 서원은 지방의 그것보다 더욱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는 것이다.¹⁾

양주(楊州)에 위치한 석실서원(石室書院)은 경기지역의 서원이 갖는 정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석실서원은 고종의 서원 휘철령으로 휘철당할 때까지 근기지역의 서인, 그 가운데서도 노론 낙론계의 본산으로 기능하였다.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현대에 이르러 석실서원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 되었다. 석실서원의 건립 과정과 추이를 살펴보는 기초적인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주로 사상사적 측면에서 석실서원의 기능과 활동이 검토되었다.²⁾

1) 조준호, 「경기지역 서원의 정치적 성격 - 석실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2) 석실서원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아 볼 수 있다(김자운, 「17세기 말-18세기 초 석실서원의 강학 실재와 특징 - 농암 김창협을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 이경구,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敎育활동」 『震檀學報』 88, 진단학회, 1999 ; 조성산, 「18세기 후반 石室書院과 지식·지식인의 재생산」,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2013 ; 조준호, 「경기지역 서원의 정치적 성격 - 석실

언급하였듯 특정 인물의 제향은 조선시대 서원의 정치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석실서원에 제향된 인물들과 이들의 결합 양상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석실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은 다소 안동김씨, 그 가운데서도 소위 장동김문(壯洞金門)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석실서원은 철종 조 김창흡(金昌翕), 김창집(金昌集), 김원행(金元行), 김이안(金履安), 김조순(金祖淳) 등이 추배되며 비로소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이념적 기반을 상징하는 도구와 같은 위치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위치 변화가 철종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실서원이 존속하였던 200여년 가운데 철종대 이후 10~20여년에 주목하여 석실서원 인물 제향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석실서원을 이해하기 위한 타당한 접근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석실서원을 조망함에 있어 제향 인물 가운데 유이한 비안동김씨인 이단상과 민정중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고는 석실서원에 배향되었던 또 다른 인물들인 이단상·민정중,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입향된 김수항에 주목하여 이들 3인의 입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근기지역 노론계 서원의 동향을 살핀 후 동시기 석실서원과 유사하게 노론계 수원(首院)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도봉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향론인 ‘송시열 입향론’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 후 석실서원의 이단상·김수항·민정중 3인의 입향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동시기 비슷한 위상의 서원과 비교하여 석실서원에서 이루어진 3인의 추배가 갖는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조준호, 「朝鮮後期 石室書院의 位相과 學風」, 『朝鮮時代史學報』 11, 조선시대사학회, 1999 ; 조준호, 「석실서원의 건립과 안동김씨」, 『한국계보연구』 5, 한국계보연구회, 2014).

Ⅱ. 17세기 후반 근기지역 노론계 서원의 동향과 道峯書院의 宋時烈 입향론

1. 17세기 후반 근기지역 노론계 서원의 동향

17세기 후반은 여러차례의 환국이 단행되며 정국이 혼란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은 당시의 정권 담당 세력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한 번 일신되었다. 정권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 왔다는 점은 경신년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으나 서인 내부의 분기가 보다 분명한 채로 맞은 환국이라는 점에서 경신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서인은 경신환국 이후 남인 처분에 관한 견해차이로 이미 분열의 가능성을 노정한 바 있다. 이는 윤선거(尹宣擧)의 묘갈명을 매개로 1681년 윤증(尹拯)과 송시열(宋時烈) 간 화니시비로 표면화되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단행된 갑술환국은 표면상 서인에게 정국의 주도권이 돌아 간 것이었지만 그것을 받을 주체는 둘이었던 것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정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파의 의리를 현창하고 공인하려는 움직임은 갑술환국 이후 노론과 소론 내부에서 활발히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으로 노론의리의 표상이 된 송시열의 제향과 추배 추이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거나 이미 지어진 서원에 송시열을 추배하는 사업은 갑술환국이 단행된 1694년부터 1696년까지 3년간 16건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표 1〉 1694년-1696년 송시열 제향 서원 현황³⁾

연도	서원명	소재지	
1694	梅谷書院	京畿 水原	주향
	樓巖書院	忠清 忠州	주향
	滄洲書院	忠清 沃川	배향

3) 고수연, 「송시열 제향서원 건립과 권상하의 역할」, 『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2019, 337쪽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여 〈표 1〉을 재작성함.

1695	龍津書院	咸鏡 德源	주향
	文浦書院	咸鏡 文川	주향
	魯峰書院	忠淸 文義	배향
	遯巖書院	忠淸 連山	배향
	崇賢書院	忠淸 懷德	배향
	草江書院	忠淸 永同	배향
	象賢書院	忠淸 報恩	배향
	竹林書院	全羅 驪山	배향
	華山書院	全羅 益山	배향
	考巖書院	全羅 井邑	주향
1696	橘林書院	全羅 齊州	배향
	道峯書院	京畿 楊州	배향
	華陽書院	忠淸 淸州	주향

이러한 흐름에 말미암아 서울·경기지역의 노론들 역시 의리의 표상인 석실서원에 자파의 인물을 추배함으로써 의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송시열의 경우처럼 짧은 시간 내다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울·경기지역에서도 1694년을 시작으로 숙종의 치세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서울·경기지역 노론의 주도로 많은 수의 서원이 건립되었다. 조준호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 건립하거나 기존에 건립된 사우에 자파의 인물들을 추배하는 경우는 11건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5년 간의 남인 집권기에 단 한 건도 사례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었다.⁴⁾

〈표 2〉 갑술환국 후 10년 내 서울·경기지역 노론계 서원 제향 및 추배

연도	서원명	소재지	대상인물	대상인물 제향 위격
1694	梅谷書院	水原	宋時烈	주향
1695	德峯書院	陽城	吳斗寅	주향
1696	道峯書院	楊州	宋時烈	배향
1696	紫雲書院	坡州	朴世采	배향
1697	石室書院	楊朱	金壽恒·李端相·閔鼎重	배향

4) 조준호, 「경기지역 서원의 정치적 성격: 석실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11쪽. 〈표 2〉는 이를 참고하여 재작성 함

1698	玉屏書院	永平	金壽恒·李義健	배향
1700	臨漳書院	漣川	朱熹	주향
1702	鶴山書院	仁川	李端相	주향

눈에 띄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서원을 새로 건립하는 경우보다 기존의 서원에 추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서원에 대한 첩설을 금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있다.

숙종대 서원 첩설 금령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1701년(숙종 27) 이후지만⁵⁾ 서원의 남설과 폐단 및 첩설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조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⁶⁾ 갑술환국 직후는 비록 첩설에 대한 금령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던 시기는 아니지만 남설의 폐단이 노소를 막론하고 지적되고 있었다. 1695년(숙종 21) 박태상(朴泰尙)과 이희무(李喜茂)에 의하여 서원 첩설의 폐단이 지적되어 ‘첩설한 곳에는 사액하지 않는다.’는 금령이 숙종에게 받아들여졌으며,⁷⁾ 민진후(閔鎭厚)는 1694년(숙종 20) 연석에서 서원의 설립을 위해 이름을 열명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정 지원을 청하는 일의 폐단을 지적한 바 있다.⁸⁾

이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서원을 새로 설립하여 제향하는 일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노론 내부에서 제기된 논리가 바로 추배를 통하여 자당의 인물들을 향사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이징명의 상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본조(本曹)의 판서(判書) 박태상(朴泰尙)이 서원(書院)을 첩설(疊設)하는 폐해를 남김없이 말하고, 연석(筵席)에서 청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으니,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해를 깊이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건립된 서원에 다 추배(追配)하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일찍이

5) 『肅宗實錄』 숙종 27년 8월 7일 壬戌.

6) 『仁祖實錄』 인조 22년 8월 4일 己未.

7) 『肅宗實錄』 숙종 21년 4월 2일 癸巳.

8) 『肅宗實錄』 숙종 20년 10월 18일 壬子.

설립되어 이미 사액(賜額)한 곳은 새로 설립하는 서원과 다른 점이 있고, 공역(功役)의 허비나 모입(募入)의 해(害)가 없으니, 진실로 후래에 명현(明賢)을 추배(追配)하는 일에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⁹⁾

즉 추배는 서원 첩설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공역 낭비나 모입과 같은 해가 없으므로 기존의 서원에 추배하여 선현을 기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갑술환국 이후 노론계 서원의 제향과 추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추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서원을 통한 정치적 보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신설과 제향이 제한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

2. 道峯書院의 宋時烈 입향론

이 시기 추배가 이루어진 서원들 가운데 양주의 도봉서원과 석실서원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두 서원은 노론계 경기지역 서원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서원들로 모두 상술한 갑술환국 직후에 새로운 인물들이 추배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 추배의 과정과 이후의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드러내기에 경기지역 서원의 인물 추배가 갖는 성격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우선 도봉서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도봉서원은 선조 6년(1573)에 조광조(趙光祖)를 추송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곳은 경기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사액된 서원으로서 조선 후기 서울·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수원(首院)의 위상을 가졌다. 도봉서원의 기문을 이이가 찬술하였고¹⁰⁾, 서울에서 가깝다는 입지로 말미암아 도봉서원은 인조반정 이후에는 집권 서인 계열의 핵심적인 구심점으로 기능했다.¹¹⁾ 이정구와 같은 서인계 명사들이 이곳에서 독서하였

9) 『肅宗實錄』 숙종 21년 4월 10일 辛丑.

10) 李珥, 『栗谷全書』 13卷, 記, 〈道峯書院記〉.

으며, 송시열, 이단상, 신익성 등은 이곳에 들러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서인이 노소로 분기한 상황에서 노론은 이이(李珥) → 김장생(金長生) → 송시열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기호학과 학통의 정통성을 국가적으로 공인받고 노론의 정권 명분을 확고히하려는 정치적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는 조광조라는 명현을 배향하여 경기지역의 수원으로 자리잡았으며 자신들의 장수처와 같았던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도봉서원 배향하려는 시도로 구체화 되었다.

최초의 시도는 1694년(숙종 20) 5월 이숙(李榘)의 상소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송시열의 배향은 한 선비의 상소만 가지고 성급히 경솔한 의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무산되었다.¹²⁾ 그러나 머잖은 동년 8월 관학유생 이기익(李箕翊)의 상소로 재차 송시열의 도봉서원 배향이 건의되었다. 그는 상소를 통해 숙종에게 송시열을 도봉서원에 배향할 것을 청하며 다음과 같이 논리를 폈다.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는 임금과 백성을 요·순(堯舜) 때처럼 만들려는 뜻이 있었는데,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 화를 만들어 사림(士林)들이 원통함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지금 송시열의 학문과 도덕, 문장(文章)과 절의(節義) 및 화를 입은 상황은 조광조와 앞뒤로 똑같은 것이니, 마땅히 도봉서원(道峰書院)에 배향(配享)하여 영구히 본보기를 삼게 하소서."¹³⁾

송시열의 배향을 청하는 주된 근거는 그가 놓여있는 역사적 좌표가 조광조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직전 문인도 아니며, 도봉서원이 위치한 양주지역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인물이었던 송시열을 이와 같은 논리로 조광조에게 배향하자는 것은 다른 당파로부터 공격받을 여지가 다분한 취약한 논리였다.

11) 조준호, 「송시열의 도봉서원 입향논쟁과 그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90쪽.

12) 『肅宗實錄』 숙종 20년 5월 27일 甲子.

13) 『肅宗實錄』 숙종 20년 8월 22일 丁巳.

노론의 송시열 배향시도는 소론과 남인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기익의 상소가 올라온 3개월 뒤 심사명(沈思溟)은 상소를 올려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배향하는 일을 극력 반대하였다. 그는 '사당을 수립한 것'을 송시열의 죄상으로 지적하며 '조광조의 영령이 응당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송시열의 도봉서원 배향을 극력 반대하였다. 결국 심사명은 이 상소로 인해 김해로 유배 갔으나 반대는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남인계 인물인 진사 이제억과 소북계 인물인 유학 박해 등이 다시 상소하여 추배를 반대하다가 처벌당했으며, 이에 대해 윤지선(尹趾完)은 다시 상소하여 불가함을 전달하였다.¹⁴⁾ 특히 이 가운데 박해의 상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정신 조광조는 실로 우리 나라 도학(道學)의 정종(正宗)이니, 뒷 사람이 견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서원(書院)을 창건한 이래로 전혀 추배(追配)하여 아울러 향사(享祀)한 일이 없었으니, 그 뜻이 어찌 까닭없이 그러한 것이었겠습니까? 이제 국가에서 고(故) 상신(相臣)송시열(宋時烈)을 아울러 향사하도록 허가하니, 신들은 송시열의 처심(處心)·행사(行事)에 무엇이 조금이라도 조광조와 닮은 것이 있기에, 반드시 아울러 향사하여 마치 도(道)가 같고 덕(德)이 맞는 것이 있는 듯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송시열의 평생은 이미 전하께서 환히 아시는 바이고, 나라 사람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인데, 송시열을 숭상하는 자가 년지시 선정(先正)에게 견주니, 또한 매우 우습지 않겠습니까? 한편의 편파한 논의 때문에 마땅히 올리지 않아야 할 곳에 올리니, 신들은 사정(祠庭)이 외람되게 더럽혀지는 것은 통탄하여 이에 감히 진심을 드러내어 일제히 호소합니다.¹⁵⁾

이상의 언급을 통해 여지없이 송시열의 일생이 조광조와 짝한다는 노론의 논리가 중점이 되어 공격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박해와 함께 상소하였던 이제억 역시 송시열을 죄사자(罪死者)로 규정하고 그러한 인물을 조광조와 나란히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다. 역시 송시열의 삶

14) 『肅宗實錄』 숙종 22년 1월 15일 壬申.

15) 『肅宗實錄』 숙종 22년 1월 10일 丁卯.

이 조광조에 찍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렇듯 소론측의 반발이 격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론측에서는 주로 호서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송시열의 문인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그의 스승을 높이는 일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인물로 조정에서는 정호(鄭澍)를, 재야에서는 권상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호는 타 당파로부터 공격이 들어오자 이를 극력변호 하는데 힘썼다. 이제역 등의 상소가 올라온 뒤 곧바로 임선을 비롯한 관학유생 143인이 송시열의 합향이 옳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때 정호는 이들이 올릴 상소문을 대작하였다.¹⁶⁾ 더하여 정호는 한발 더 나가 송시열의 도봉서원 입향은 ‘종래 유생들은 병향(並享)을 주장하였는데 해조(該曹)에서 추향으로 잘못 회계하여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여 송시열의 격을 조광조와 동격으로 높이려는 시도까지 감행하였다.

재야에서는 권상하가 이 문제에 관한 노론 내부의 의론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있었다. 송시열의 도봉서원 추향은 노론의 행사로 기획된 것이었으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기에 기반을 둔 이들과 호서에 기반을 둔 이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표적으로 김창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권섭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처음 도성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마침 이군 하조(李君賀朝)가 북동(北洞)에 찾아와 “도봉서원의 일을 이제 거행하려고 하는데 상의해야 할 점이 있어 일을 맡은 사람이 저더러 형께 품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유생의 상소에서 병향(並享)을 청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았었는데, 예조(禮曹)에서 회계(回啓)하여 배향(配享)하는 것으로 품정(稟定)하였습니다. 만일 배향하는 것이 옳다면 그에 따라 거행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신(筵田)이 다시 임금께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형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였네. 나는 대답하기를, “이 일은 배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네. 더구나 성상의 명령

16) 『肅宗實錄』 숙종 22년 1월 19일 병자; 鄭澍, 『丈巖集』 4卷, 筭, 〈代館學儒生卞李濟億等誣賢疏〉.

이 이와 같았는데 어찌 굳이 다시 청할 것이 있겠는가. 우옹(尤翁)과 정암(靜菴)이 만약 다른 사원(祠院), 예를 들어 황산(黃山)의 죽림서원(竹林書院)에 있는 경우라면 병향을 해야 하겠지만, 도봉서원의 경우는 정암이 본디 주인으로 혼자서 사원의 제사를 받아 온 지가 200년이 넘었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우옹을 병향한다면 정암이 마침내 전적인 높임을 받지 못하여 주객이 혼동될 것이네. 그리고 후대 현인이 선대 현인을 위하여 굽히는 것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으니, 이것을 근거로 말하면 배향이 온당할 것이네.” 하였네.¹⁷⁾

병향으로까지 격을 높이고자 하였던 정호와는 달리 김창협은 ‘도봉서원은 조광조가 주인이므로 갑자기 송시열을 그와 나란히 놓는 것은 주객을 혼동하는 일’이라고 하여 병향이 아닌 원래대로 배향 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권상하는 이에 대하여 김창협에게 편지하여 ‘죽림서원의 사례가 있으나 도봉서원이라고 병향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¹⁸⁾라고 하며 스승 송시열을 병향하는데 동조할 것을 설득하였다. 한편으로 권상하는 이여(李翕)가 소장에서 도봉서원이 일을 논하며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논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다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 한데 대하여 “시비가 어지러울때는 그릇됨을 배척하는데 힘써야지 약간 잘못하는 것을 문책하는 뜻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도봉서원과 관련된 시비가 극렬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세세한 일을 트집잡아 의론을 분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함을 지적하였던 것이다.¹⁹⁾

이들의 이러한 노력에 말미암아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추배하는 문제는 정호의 건의대로 병향 된 채로 유지되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도봉서원과 관련한 논쟁이 종결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입향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은 숙종 22년 장희재(張希載)의 가노 업동(業同)으로 인해 촉발된 옥사가 벌어지자 자연스럽게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마무리 되었다.²⁰⁾ 문제

17) 金昌協, 『農巖集』 18卷, 書, 〈答權燮【乙亥】〉.

18) 權尙夏, 『寒水齋集』 5卷, 書, 〈答金中和丙子〉, “旣曰, 竹林可以并享, 則道峯何獨不然.”

19) 權尙夏, 『寒水齋集』 4卷, 書, 〈答李治甫〉.

20) 조준호, 앞의 논문, 102쪽.

가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 다른 큰 사건의 등장에 의하여 자연스레 무마 된 것이었다.

이는 차후 소론이 정권을 잡는다면 도봉서원 문제를 다시 점화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 둔 것이었다. 실제 경종대 신임옥사(辛壬獄事)가 벌어져 노론이 실각하고 소론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자 송시열은 즉각 도봉서원에서 출향되었다.²¹⁾ 송시열이 다시 도봉서원에 복향 된 것은 영조의 즉위로 다시 노론이 정권에 참여하게 된 1725년(영조 1)이었다.²²⁾

시간의 길이로만 생각해 본다면 송시열은 숙종 대 대부분의 기간 상대 당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봉서원에 합향 되어 있었으며 경종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출향되었고 2년후 영조가 즉위하자 즉시 복향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잡시의 출향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의 도봉서원 내 자리는 입향 이후 지속적으로 공고한 지위를 점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송시열의 빠른 복향은 경종의 예기치 못한 빠른 흥사로 인해 영조가 즉위함으로써 노론이 이른 시일 내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다. 도봉서원 내 송시열의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입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당위성에 대한 시비가 문제시 되었으며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즉시 출향이 이루어졌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노론은 송시열로 표상되는 자파의 의리를 도봉서원이라는 공간에 입힘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고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된 도봉서원은 서인 세력과 접점이 있었을 뿐 당초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곳도 아니었으며, 송시열과 연계성도 빈약한 곳이었다. 이곳에 송시열을 추배하기 위해 겪은 곡절은 도봉서원이 노론의 정치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서원이 정치적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간의 성격’, ‘지역성’, ‘학문적 요소’ 등 여

21) 『景宗實錄』 경종 3월 13일 壬辰.

22) 『英祖實錄』 영조 1월 17일 丙辰.

러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시 그 서원에 부여된 정치적 성격은 외부의 도전에 대하여 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Ⅲ. 석실서원의 ‘의리공간화’와 삼현추배론

1. 석실서원의 의리공간화

석실서원은 경기지역에 위치한 서인 노론계의 중심서원이라는 점과 그 의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도봉서원과 유사한 위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봉서원이 노론의리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많은 곡절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석실서원은 건립 직후부터 노론의리의 상징이자 낙론계 학맥의 본산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석실서원이 서인의 정치 의리 그 자체를 표상하는 공간인 ‘의리공간’으로 조성되었다는 점과 배향된 인물들이 갖는 독특한 결합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살피기 위하여 우선 석실서원의 건립과정과 이후 이단상 김수항 민정중 삼현의 추배 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선생이 이미 세상을 떠나자, 중외(中外)의 장보(章甫)들이 선생의 옛집 옆 대강(大江)가에 사당을 세우고는, 선생의 백씨(伯氏) 선원 선생(仙源先生 김상용(金尙容))도 난리에 임하여 정성껏 세교(世敎)를 부호(扶護)했다 하여, 여기에 아울러 신패(神牌)를 받들어 오른쪽에 배향하였는데, 대체로 갑오년(1654, 효종5) 5월에 사당을 짓기 시작하여 병신년 12월 14일에 배향을 마쳤다.²³⁾

23) 宋時烈, 『宋子大全』 171卷, 碑, 〈石室書院廟庭碑〉, “蓋先生既沒, 而中外章甫建祠於先生舊居之傍大江之濱, 而以先生伯氏仙源先生臨亂立, 謹用扶世教, 並奉神牌而右享之. 蓋經始於甲午五月, 妥侑於丙申十二月十四日.”

위는 송시열이 지은 ‘석실서원묘정비문’의 일부이다. 서원의 건립 계기와 연혁을 적은 이 글에는 석실서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드러나 있다. 석실서원은 사우로 출발하였는데, 김상헌(金尙憲) 형제가 거주하였던 양주 와부의 석실촌에 건립되었다. 주지하듯 김상헌 형제의 거주지는 서울의 장동(壯洞)에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상헌의 6대조 김번(金璠)이 남양홍씨(南陽洪氏) 홍결(洪傑)의 딸과 혼인하며 양주 와부의 전토를 분급받음으로써 양주 일대에 거주를 마련하고 경영할 수 있었다.²⁴⁾ 이렇게 마련된 공간에 당시 유생들의 공의가 모여 사우가 건립되었던 것이다.

송시열은 석실서원의 묘정비문에서 당나라의 한유(韓愈)가 맹자를 평가한 것, 즉 ‘맹자가 없었다면 모두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하게되었을 것’이라는 평을 언급하며 “실로 그러하다.”라고 하였다.²⁵⁾ 아울러 함께 제향된 김상헌의 형 김상용 역시 강화도가 함락되는 순간 폭사(爆死)라는 극적인 방식을 택하여 순절하였다. 두 형제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그들을 존주의리라는 ‘의리’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유생들의 공의가 모여 사우가 건립되었다는 점은 그들이 견지한 의리가 당대 유림들에 의해 포착되어 대대로 기념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마침내 서원과 사우라는 형식으로 공간화 된 것이었다.

석실서원으로 대표되는 서인의 의리는 서인의 집권과 북벌(北伐)을 기치로 삼은 효종의 치세가 맞물리며 조선의 국시(國是)와 같은 위치까지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석실서원에 사액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논의는 1663년(현종 4) 양주의 유생 이추(李樞) 등이 올린 상소로 촉발되었다. 그들은 상소하여 김상용과 김상헌의 서원에 사액(賜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종은 이 상소를 예조에 내렸고 예조에서는 사액을 허락해야 한다는 취지로 복계(復啓)하였으

24) 자세한 내용은 ‘조준호, 『朝鮮後期 石室書院의 位相과 學風』, 『朝鮮時代史學報』 11, 조선시대사학회, 1999.’ 참조.

25) 宋時烈, 『宋子大全』 171卷, 碑, 〈石室書院廟庭碑〉, “退之曰, 向無孟氏, 則皆服左衽, 而言侏離, 其信然矣夫.”

나 현종은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²⁶⁾ 한달 뒤 홍명하(洪命夏)가 입시하여 유소(儒疏)대로 사액하여 줄 것을 청하자 마침내 사액을 윤허하였다.²⁷⁾

석실서원이 서인 의리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은 석실서원의 사액 치제 당시 불거진 갈등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석실서원이 사액된 그 해 10월, 현종이 비변사의 신료들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민유중(閔維重)이 현종에게 석실서원에 사액치제 할 때에 갖추어져야 할 의전이나 절차가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제사의 집사(執事) 향교의 유생들로 충당하여 왕의 말인 어제제문(御製祭文)마저 교생(校生)이 읽도록 하였으며, 제물(祭物) 및 인원이 적소에 갖추지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 석실서원을 관할하던 지방관인 경기감사(京畿監司) 오정일(吳挺一)과 양주목사(楊州牧使) 민희(閔熙)를 징계할 것을 청하였다.²⁸⁾ 오정일은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의 문묘종사에 반대하는 유소를 주도하다가 성균관에서 축출되었던 전력이었으며, 민희는 민암(閔黯)의 형제로 탁남(濁南)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예론을 매개로 서인과 남인 두 정파가 치열하게 대립하던 현종의 치세에 두 남인 지방관에 의하여 석실서원의 치제가 소홀히 다루어졌던 점은 서인 의리의 표상이라는 석실서원의 위상을 방증하는 것이다.

26) 『顯宗實錄』 현종 4년 7월 6일 辛未.

27) 『顯宗實錄』 현종 4년 8월 6일 신축;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최초 이추 등의 상소가 올라오고 예조가 회계하였을 때 현종은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에 내가 재가하지 않은 일이 있는 듯 하다.’라며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예전에도 이 같은 일을 재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대 한 인물을 배향하는 서원이 여러 개 세워지는 첩설(疊設)을 금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논리를 들어 현종 역시 석실서원의 사액을 윤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달 후 홍명하가 ① 사문과 관계되는 바라면 사액하지 아니할 수 없음, ② 첩설을 매번 허락해서야 안되겠지만 이곳은 다른 서원과는 다르며 덧붙여 이 곳은 새로 서원이 세워지는 곳임 두 가지를 근거로 사액을 청하자 현종은 “첩설이 아니라면 사액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전교하며 석실서원에 사액을 윤허하였다(『承政院日記』 顯宗 4년 8월 6일 辛丑).

28) 『顯宗實錄』 현종 4년 10월 5일 己亥.

2. 이단상·김수항·민정중 추배를 통한 위상의 강화

이렇듯 의리 공간으로 조성된 석실서원에 처음 입향이 시도된 인물들은 이단상·김수항·민정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노론의 핵심으로 활동 한 인물들이었다. 노론은 이들을 석실서원에 추배함으로써 석실서원의 위상을 서울의 정치·학문의 중심으로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정파들은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사대부들의 국가 조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학문권력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국왕을 정점으로 한 조정에서의 정치권력을 필요로 한다. 이때 학문권력은 ‘의리’로 표현되는 시대정신의 주창과 이에 대하여 학문을 통한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정치권력은 이의 정점에 있는 국왕과의 연계, 즉 통혼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항은 김상헌의 손자로 김상헌이 수립한 서인 노론의 의리를 가전(家傳)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하여 『숙종실록(肅宗實錄)』의 사관은 그의 정치활동을 ‘장채의 역모를 미리 꺾은’²⁹⁾, 즉 당쟁의 가운데에서 서인이 실각을 막은 것이나 그러한 과정에서 군소배들이 아첨할 적에 홀로 정도를 지킨 것에 있다고 말하였다.³⁰⁾ 이러한 언급은 그가 치열한 당쟁의 과정에서 서인 노론의 존립을 위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단상은 그러한 의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단상은 연안이씨(延安李氏) 관동파(館洞派)의 일원으로 그 일문의 학문적 역량은 이석형(李石亨) 이래로 집적되어 이정구(李廷龜)-이명한(李明漢)-이일상(李一相) ‘3대 대제학’이라는 성과로 표출되었다. 그러한 가풍에 걸맞게 이

29) 장채는 장돈(章惇)과 채경(蔡京)을 가리키는데 모두 송 철종(宋哲宗) 대의 사람이다. 이들은 사마광(司馬光), 유지(劉摯), 양도(梁燾), 여대방(呂大防) 등 유학자들을 동문방옥(同文謗獄)을 조작하여 살해, 축출하였는데 김수항에게 있어서는 당쟁의 과정에서 서인의 실각을 기도한 상대 당을 빗댄 것이다.

30) 『肅宗實錄』 숙종 15년 윤 3월 28일 乙丑.

단상 역시 문장에 뛰어났으며 특히 그는 도학(道學), 즉 주자학에 깊은 관심을 두어 가풍을 문장에서 도학으로 전환시킨 공로가 있는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정중은 숙종의 인척이 되어 정치권력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민정중의 동생 민유중의 딸이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여흥 민씨는 숙종조 인척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실록에는 이들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몇 있는데 판중추부사 이상진(李尙眞)은 숙종에게 올린 차자에서 “경신년 이후 삼척(三戚)의 방자함이 김익훈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³¹⁾”라고 하여 이들의 위세가 상당함을 말하였으며 윤증은 숙종의 효유에 응하지 않는 세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삼척의 위병(威柄)을 제지할 수 없는 것³²⁾을 들기도 하였다.

요컨대 ‘김수항·이단상·민정중’ 세 사람은 추배한 것은 이전까지 의리의 공간이었던 석실서원에 학문권력과 정치권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다만 도봉서원과 비교하였을 때 특이한 점은 이단상·김수항·민정중 삼현의 입향 시도가 반대 정파에 의한 저지에 크게 직면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송시열의 도봉서원 입향이 건의되자마자 반대 하는 의론을 담은 상소가 연이어 올라왔던 것에 비하여 석실서원에 삼현이 추배되는 과정은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실록에 따르면 이들의 석실서원 입향 건의는 1695년(숙종 21)에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건의가 이루어진 이 날 바로 ‘해조로 하여금 품지하여 거행하라.’는 비답을 받았다.³³⁾ 이 기록의 전후로 송시열의 입향시도에서 볼 수 있었던 타 정파의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윤허가 떨어진 2년 뒤인 1697년 4월에 석실서원에 위판이 봉안되는 절차가 마무리 되며 이들의 입향이 확정되었다.³⁴⁾

31) 『肅宗實錄補闕正誤』 숙종 9年 윤6월 28일 戊辰.

32) 『肅宗實錄』 숙종 9年 5월 5일 丙午.

33) 『肅宗實錄』 숙종 21年 4월 10일 辛丑.

34) 李喜朝, 『芝村集』 19卷, 記, 〈先府君墓誌銘後記〉, “上特令依施, 遂以丁丑四月日, 奉安位版焉.”

이들의 입향이 이렇듯 순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로는 세 사람 가운데 김수항을 통해 부여되는 당위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항은 석실서원에 주벽으로 모셔진 김상헌의 손자로 김상헌과 석실서원으로 대표되는 노론 의리의 계승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김수항의 존재를 통해 이들의 추배는 가장 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당성은 이단상과 민정중이 김수항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소이다. 이들이 함께 추배되었음에도 김수항 외 이단상과 민정중에 대한 반대 의견도 드물었다는 점은 이들이 모종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결합 고리는 우선 지역적 요소에서 일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단상·김수항·민정중 세 사람은 모두 서울·경기 출신의 학인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실제 이들은 각각 동촌의 관동과 서촌의 장동, 북촌의 안국동 등 상호 긴밀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요컨대 석실서원에 이들을 입향하는 것은 근기지역의 서원에 근기지역의 핵심인물들을 입향시키는 일로 그 연고관계가 송시열과 도봉서원의 그것에 비하여 비교적 명확하였다.



〈그림 1〉 이단상·김수항·민정중의 도성 내 거주지(지도 출처:서울역사아카이브)

이에 더하여 이들의 추배를 기획하고 관찰시킨 인물들의 면면도 ‘근기를 기반으로 한 학문 및 혈연 공동체’라는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실록에 따르면 추배를 요청하는 상소는 경기지역의 유생 이세위를 소두로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상소는 이식(李植)의 손자 이여(李畬)가 대신 쓴 것이었으며³⁵⁾ 이 상소의 내용을 가지고 숙종에게 복계(復啓)하여 세 사람의 추배를 윤희받은 이징명은 이제신의 5대손으로 이단상의 처당조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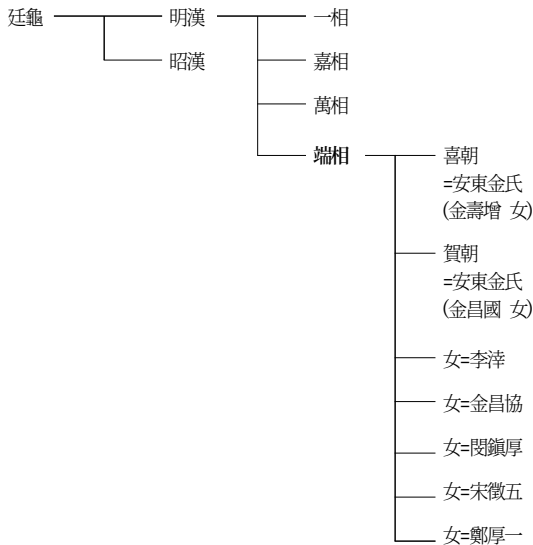
석실서원에 삼현이 추배되는 것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석실서원에 송시열에 대한 추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김상헌과 석실서원의 의리를 서인의 의리로 끌어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송시열이었다. 또한 서인 노론 세력은 자과의 정치적 정당성 제고를 위하여 그를 연관성이 비교적 엷은 도봉서원에 입향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석실서원은 그 건립에 송시열이 깊이 관여하였고 그가 존중해 마지 않았던 존주대의의 상징과 같은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입향시도가 이루어질법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석실서원에 송시열의 입향은 시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의 <표 1>을 살펴보면 주로 그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입향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노론이라고 하더라도 서원의 제향과 추배 문제에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를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호락(湖洛)의 분기로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는 노론 내 지역적 차이가 이미 이 시기부터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석실서원에 추배된 세 사람은 지역적 기반 외에도 통혼을 통해 인척관계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 입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했다. 통혼 결합 중심에는 이단상이 있었다. 김수항의 아들 김창협(金昌協)

35) 이여의 『睡谷集』 4권에 〈石室書院請陞配文谷老峯靜觀三臣疏〉라는 제목으로 해당 상소문의 전문이 실려 있으며 제목 옆에 ‘代作’이라고 부기되어 있어 이 글이 이여의 대작임을 알 수 있다.

과 민정중의 아들 민진후(閔鎭厚)는 모두 이단상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이들의 통혼관계는 의리와 학문권력, 그리고 정치권력이 혼인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응집해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의 관계를 간략히 가계도를 통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李端相의 가계 및 통혼권³⁶⁾

이들은 ‘의리’로 대표되는 이념과 정치권력 및 학문권력을 인적 결합을 통해 묶어내며 정파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이념과 권력의 결합 구조는 단순히 지역적 연고에 의지하는 차원을 넘어 각 요소를 상징하는 가문들을 통혼을 통해 혈연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 공고화 하였다. 혈연을 통한 결합의 공고화는 김수항과 그 가문을 통해 확보한 석실서원 추배의 당위성을 이단상과 민정중, 그리고 그 가문들에게도 부여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형성

36) 1863년 간행된 『延安李氏館洞派譜』를 저본으로 가계 및 통혼관계를 정리하였다.

된 삼가(三家)의 결합을 통해 이들은 석실서원에 비교적 순탄하게 입향될 수 있었으며 근기 노론의 위상 공고화는 이를 통해 완성되었다. 서원이 갖는 상징성을 통해 이들의 결합은 더욱 그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근기 노론 명가들의 결속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석실서원의 위상 역시 더욱 제고되었던 것이다.

신임옥사 직후의 상황은 이들 결합의 안정성을 방증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도봉서원의 송시열이 출향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임옥사 직후 석실서원에서 김수항과 김창협이 위패가 출향되기에 이른다.³⁷⁾ 출향된 것은 마찬가지로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의 출향에는 차이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송시열의 도봉서원 출향이 부실한 명분으로 노론의 의리를 현창하려는 시도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석실서원의 출향은 표면적으로는 노론의 의리를 현창하려는 시도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소론이 석실서원의 김수항·이단상·민정중 입향을 도봉서원의 송시열과 같은 차원에서 인식하였다면 신임옥사로 정권을 잡은 직후 송시열과 마찬가지로 세 사람에 대한 전체 출향이 이루어졌어야 합당하다. 그러나 석실서원에서 출향되는 인물은 세 사람 가운데 김수항에 그쳤는데 이는 그가 이 당시 역안에 오른 김창집(金昌集)의 부친이기 때문이었다. 즉 석실서원에서 김수항이 출향되는 것은 ‘역옥에 대한 연좌’의 성격이 보다 강했던 것이다.

물론 김수항을 석실서원에서 출향하려는 시도 자체가 노론에 대한 소론의 견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도봉서원의 송시열 출향처럼 근본질적인 당위성을 문제삼지 못하고 연좌를 통해 추배 인물 가운데 일부만 출향시킬 수 있었다는 점은 자체로 김수항·이단상·민정중이 갖는 결합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37) 『景宗實錄』 경종 3년 6월 3일 庚戌.

IV. 교유와 사승을 통한 결합의 재생산

1. 사승을 통한 결합의 전승

이러한 결속은 그 구성원들이 사제관계를 맺고 학맥을 전승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다. 또한 학맥을 통한 전승의 형성은 이러한 결속 양상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대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데 기여하였다.

학맥 전승의 시작은 이단상에게서 출발한다. 상술하였듯 그는 김창협을 사위로 맞으며 김수항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김창협은 근기지역 낙론 학맥의 비조가 되는 인물로 그 사상사적 위상이 상당한 인물이다. 김창협은 이단상을 단순히 장인을 넘어 학문적으로 존경할만한 스승으로 대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보인다.

소자의 애통함으로 말한다면 이보다 더 심한 점이 있습니다. 소자는 무지몽매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도 선생은 엄친(嚴親)을 의식하여 소자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혼인을 맺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소자는 그 당시에 나이가 이미 15, 6세가 되었으나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생은 먼저 성리(性理)를 설명한 서책들을 꺼내어 소자를 위해 대체적인 뜻을 풀이해 주고 아울러 학문하는 방법을 유감없이 다 이야기하여 큰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소자의 마음이 어리석어 감히 이끌어 주는 그 수준에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우매함이 열리고 다소나마 배우려는 열정을 지니게 된 것은 사실 선생이 내려 준 것이었습니다.³⁸⁾

이상은 김창협이 작성한 이단상의 제문 가운데 일부이다. 이 제문을 통해 김창협이 15~16세부터 이단상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음과 이단상을 스승으로 깊이 존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설 외에도 그는 이단상의 장지(狀誌)에 후서(後序)를 지으며 자신을 ‘문인 김창협’이라고 칭하며

38) 金昌協, 『農巖集』別集 1卷, 祭文, 〈祭靜觀先生文〉.

문인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임영(林泳)의 죽음에 곡하는 시를 지을 때도 ‘정관재 문하에서 처음 보았고(靜觀門下初相見)’라고 쓰는 등 이단상의 문인으로 써 동문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³⁹⁾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김창협은 스승의 두 아들 이희조(李喜朝)와 이하조(李賀朝) 두 형제와 각별한 교분을 맺었다. 이희조는 김창협보다 네살 연하로 둘은 벗과 같은 사이였다. 두 사람은 시문을 주고 받는데서 출발하여 학문적 영역으로까지 나아갔다.⁴⁰⁾ 김창협과 이희조는 『중용(中庸)』에 등장하는 지각(知覺) 개념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나가기도 하였다.⁴¹⁾

이하조는 김창협보다 13세 연하였다. 그는 5세 때인 1669년(현종 10)에 아버지 이단상을 여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3세 연상의 자형 김창협은 어른으로서 부친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김창협은 이하조의 관례에 참석하여 서문을 지어주며 용모를 알맞게 꾸밀 것과 아버지의 뜻과 사업을 계승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⁴²⁾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난 이하조의 제문에서 ‘15세에 낙포(樂浦, 이하조의 字)의 집에 들어가 당시 어린아이였던 낙포를 쓰다듬으며 장성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술회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⁴³⁾

이희조는 김창협의 사후 그러한 자형에 대한 술회를 제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아, 슬픔니다. 저와 공은 이름으로는 형제였지만 의리로는 실로 벗이었으니, 함께 노닐며 책선(責善)하고 절차탁마한 지가 4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르

39) 金昌協, 『農巖集』 4卷, 詩, 〈哭林德涵[泳]〉.

40) 金昌協, 『農巖集』 1卷, 詩, 〈次韻贈志事齋主人李同甫[喜朝]〉; 金昌協, 『農巖集』 1卷, 詩, 〈寄宿芝洞憶同甫〉.

41) 金昌協, 『農巖集』 13卷, 書, 〈與李同甫[丙戌]〉.

42) 金昌協, 『農巖集』 21卷, 序, 〈贈李樂浦序〉.

43) 金昌協, 『農巖集』 30卷, 祭文, 〈祭李樂浦文〉, “顧余十五而入樂浦之門, 撫樂浦于方孩, 而見其長也.”

치고 인도한 공로와 깨우치고 알려 준 도움으로 말하자면 스승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병들고 쇠약해져 만사를 포기하였다가 바야흐로 예전에 들은 것을 수습하여 공에게 나아가 강론함으로써 노년에 이르러 도학의 일부분이라도 엿보게 되기를 바랐는데, 공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미친 사람이나 바보처럼 어리둥절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갈 곳을 모르고 헤매게 되었습니다.⁴⁴⁾

이름은 형제였으나 의리는 벗이었고 학문에 있어서는 스승이었다고 술회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학문에 있어 ‘이단상-김창협’의 학맥이 다시 ‘김창협-이희조·이하조’로 연결되는 고리를 설정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맥 전승은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원행(金元行)과 민우수(閔遇洙)의 학맥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김원행의 경우 ‘이단상-김창협-이희조·이해조’로 이어지는 연안이씨와 안동김씨간의 결속이 재확인 할 수 있다. 김창집(金昌集)의 손자로 태어난 김원행은 김창협의 요절한 아들 김승겸(金崇謙)의 양자로 입양되면서 김창협의 가통과 학맥을 전승받게 된다.

그는 김창협 이후 낙론의 종장으로 평가받는데, 석실서원에서 강학하며 서원의 강학 기능을 재정비하고 후학들을 기르는 등 석실서원의 문풍을 크게 흥기시켰다.⁴⁵⁾ 그러한 김원행의 행보에 따라 당대의 많은 명사들과 선비들이 석실서원으로 향했다. 연안이씨 일문 가운데 김원행의 문하에 나아간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직보(李直輔)가 있다.

『미호집(溪湖集)』에는 이직보에게 보내는 편지가 6통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내용은 경전의 주석에 대한 질의와 답변부터 독서를 권면하

44) 李喜朝, 『芝村集』 18卷, 祭文, 〈祭農巖金公文〉.

45) 석실서원의 학규와 강규는 그의 대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정비되었다(金元行, 『溪湖集』 14卷, 雜著, 〈石室書院講規〉; 〈石室書院學規〉) 이외에 김원행의 석실서원 정비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연구들을 참조(이경구,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활동」, 『震檀學報』 88, 진단학회, 1999; 김인규, 「김원행의 학문과 석실서원에서의 강학활동」, 『동방학』 22, 2012).

는 것, 심상과 관한 예제까지 학문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김원행은 이직보를 자나 호가 아닌 ‘성보(城補)’라는 명(名)으로 직접 지칭하고 있다.⁴⁶⁾ 편지의 내용이 학문적인 점과 김원행이 또 다른 자신의 문인 홍대용 역시 편지에서 ‘대용’이라고 명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직보를 그의 문인으로 파악하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직보가 김원행의 문인이었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위상이 어떠했는지는 다른 자료들에서 교차 확인된다. 김원행 문하의 동문이었던 황윤석은 『이재난고(頤齋亂藁)』에서 이직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송정휴가 말했다. “〈재주가〉 기이하면 기이한 것이지 미호 문하의 후진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겠다.”하니 내가 말하기를 “집안에서는 정례(正禮: 김이안)가 있고 문하에는 또 이성보와 심정진이 있다. 이 세 사람의 문학은 조만간에 진전이 있을것ियो, 지금 또한 비길 수 있는 이가 드물다.”⁴⁷⁾

큰아이가 함께 동헌에서 묵었다. 이성보가 새로 가감역에 제수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곧 고 감사 이해조의 손자요, 미호 선생의 종매의 아들이니 일찍이 미호 문하에 종유하였다. 무오생이다. 내가 일찍이 문하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다고 하니 기쁘다.⁴⁸⁾

황윤석의 이상의 기록은 이직보가 일찍이 김원행의 문하에 출입하였으며 상당히 중망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직보는 젊은 시절 황윤석으로

46) 이성보는 그 이름자 가운데 ‘성’자의 음이 정조의 어휘를 범한다 하여 순조대 대서헌에 제수된 후 상소를 올려 이름을 직보로 개명할 것을 청하였다. (『純祖實錄』 순조 즉위년 8월 29일 己卯.)

47) 黃胤錫, 『頤齋亂藁』 13卷, 영조 45년 9월 13일, “宋曰奇則奇矣 未知漢上後進如何 余曰家中自有正禮 門下又有李城輔沈定鎮 此三君文學 早晚將必加進 只今亦鮮有其比矣.”

48) 黃胤錫, 『頤齋亂藁』 13卷, 정조 4년 2월 29일, “大兒同宿東軒, 聞李城輔新除假監役 卽故監司海朝孫而漢上丈席從妹之子 早遊漢門 戊午生 余曾一見于門下 今始筮仕可喜

부터 고평가 받았던 것을 넘어 끝내 김원행 학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김원행 문하의 동문이었던 강정환(姜鼎煥)이 정리한 사우록(師友錄)에 따르면 이직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 수문(首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⁹⁾ 이직보를 김원행의 수문에 위치시킬 경우 석실서원 배향을 통해 표상되는 각 집안의 결합 양상은 ‘이단상-김창협-김원행-이직보’를 통하여 대를 거쳐 재생산되고 공고화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연안이씨와 안동김씨 간의 사승관계 외에도 여흥민씨와 안동김씨간의 사승관계 역시 살필 수 있다. 민우수는 민진후의 아들로 석실서원에 배향된 민정중에게는 종손(從孫)이 되는 인물이었다. 고종사촌이었던 이재(李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그는 척신이었던 여흥 민씨 가문에서는 드물게 산림으로 우대받았다. 민우수의 학맥은 낙론 내에서도 자신만의 분파를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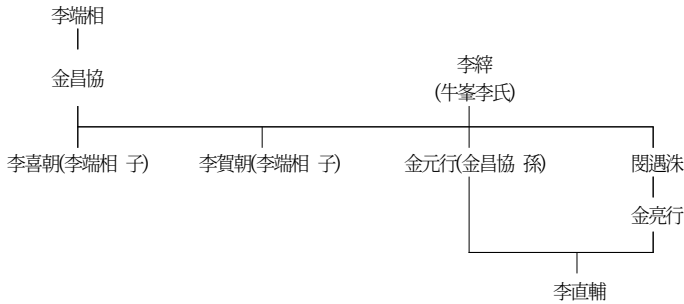
그는 김신겸(金信謙)과 친분이 있었는데, 양자의 관계는 일상부터 학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스며있었다. 민우수는 자녀의 관례에 김신겸을 초청하기도 하였으며, 서산을 통하여 『곤지기(困知記)』와 같은 서책을 교환하고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해서 강론하기도 하였다.⁵¹⁾ 이러한 인연에서 말미암아 그는 김신겸의 아들 김양행을 문하에 들였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김양행에 대한 민우수의 애정은 각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겨울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김신겸을 염려하여 소옹의 〈동지음(冬至吟)〉을 써서 보내기도 하였다.⁵²⁾ 김양행 역시 민우수의 행장을 짓고 말미에 스스로 ‘문인’으

49) 姜鼎煥, 『典庵文集』, 師友錄.

50) 이재의 사후 낙론 학맥의 분화는 홍봉한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불거진 功洪·扶洪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진행되었다. 이때 민우수와 그 문인들은 노론 청류의 의리에 충실한 가운데 湖論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조성산, 「18세기 洛論系 學脈의 변모양상 연구」, 『역사교육』 102, 역사교육연구회, 2007, 81~90쪽.’ 참조.

51) 閔遇洙, 『貞菴集』 6卷, 書, 〈答金尊甫【甲寅】〉.

로 자처하는 등 민우수의 문인임을 가감없이 드러내었다.⁵²⁾ 이러한 학맥의 전승은 세 가문의 결속이 학문을 매개로하여 계속해서 후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이단상 이하 三姓 학맥도

2. 문자 교유를 통한 결합의 강화

사승이 통혼으로 시작된 세 가문의 결합이 시간의 흐름을 넘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교유는 각 세대마다 그러한 결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양태를 보여준다. 요컨대 사승이 결합 구조의 세로축이라면 교유는 결합구조의 가로축으로 비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유는 주로 서발문이나 묘도문, 시문과 같은 문자교류의 형태로 나타난다. 앞 절에서 사승관계를 살피며 사승으로 이어진 인물들 간의 교분이 시문을 통해 형성된 경우도 있었으며 문인의식 또한 제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확인 한 바 있다. 이러한 시문 및 제문을 통한 교류의 연속성은 이천보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천보는 이단상의 백형(伯兄) 이일상의 증손으로 학문보다는 문장에 힘쓴

52) 閔遇洙, 『貞菴集』 8卷, 書, 〈與金子靜【丁巳】〉.

53) 閔遇洙, 『貞菴集』 16卷, 附錄, 「行狀【金亮行】」.

인물이었다.⁵⁴⁾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이단상으로 대표되는 집안의 학문적 성과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때때로 이단상의 옛 거처인 영지동을 방문하여 시문을 남기고 종숙인 이양신을 찾아뵙기도 하였다. 이때 그는 ‘하늘이 우리 도를 궁하게 하려하니, 운손은 응당 옛 산림을 지켜야 하리 [天欲窮吾道, 雲應守故林]⁵⁵⁾’ 영지동과 이단상으로 대표되는 가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계승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더하여 그는 개인적으로 석실이 위치한 미호(美湖)를 유람하고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천보는 오원(吳瑗)을 중심으로 한 시회(詩會)인 ‘종암문회(鐘巖文會)’를 매개로 김원행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김원행과 만난 이 자리에서 시를 한 수 써주며 ‘원컨대 밝고 아름다운 덕으로 선대의 아름다움을 좇기를 노력하길[願言昭令德, 努力追先休]’이라고 하였다.⁵⁶⁾ 이천보는 김원행과 만난 이 자리에서 선대를 상기시켰던 것이다. 이 이후에 이천보는 종암문회의 구성원들인 오원, 남유용 등과 김원행과 석실서원이 있는 미호로 뱃놀이를 떠나는 등 계속해서 교분을 이어나갔다.

시문 교류 외 주목할 점은 각 가문의 구성원 개인의 교류를 넘어 가문적 차원의 추모사업에 있어 문자를 통한 상호간 지원이 이루어 진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 시작은 이정구의 『월사집』 간행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열은 『월사집』의 서문을 쓰며 해당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처음에 문인(門人) 최유해(崔有海)가 공산(公山)에서 그 전집(全集)을 간행하

54) 南有容은 이천보의 문집인 『晉菴集』의 서문을 쓰며 그가 주로 시에 재능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근세에 시로 이름난 이는 많으나 성당의 풍조를 독차지하여 한 시대에 명성을 전한 것이 공처럼 성대한 이가 없었다.’라고 적고 있다.(南有容, 『雷淵集』 12卷, 序, 〈晉菴集序〉, “近世以詩名家者衆矣, 獨擅盛唐風調, 流聲一代, 未有如公之蔚然者也.”).

55) 李天輔, 『晉菴集』 1卷, 詩, 〈芝洞感懷〉.

56) 李天輔, 『晉菴集』 1卷, 詩, 〈鐘巖會席, 贈金伯春[元行]〉.

였으나 지금은 이미 괴란(壞亂)되어 차례가 뒤죽박죽이다. 공의 손자 판서 이익상(李翊相) 필경(弼卿)이 그 선대의 뜻을 받들어 그 당질 이희조(李喜朝) 등과 더불어 서둘러 중간(重刊)을 도모하였는데 노봉(老峯) 민 상국 정중(閔相國鼎重) 대수(大受)가 실로 이 일을 도왔으니, 그 뜻은 대개 "우주 간에 이러한 문장은 절로 민멸되지 않겠지만, 육경(六經)이 전해 오는 것도 오히려 판각(板刻)의 공에 힘입은 것이니, 지금 이 중간의 일은 그야말로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⁵⁷⁾

해당 기록을 보면 『월사집』의 중간에 있어 민정중의 도움이 지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단상을 비롯하여 노론의 중추로 활동한 연안이씨 일문의 일원들은 모두 이정구의 후손이었다. 이정구는 광해군 대 정국에서는 드물게 서인 출신으로 정승을 지내며 서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인조반정 이후에는 우울학통의 천양에 힘쓰며 당대 사류들의 중망을 받았다.⁵⁸⁾ 연안이씨 가문 내적으로는 그로부터 이명한-이일상으로 이어지는 삼대 대제학 가문을 만든 시발점이었다. 그러한 이정구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이정구의 문집을 간행하는 것과 같은 추모사업은 그 후손들에게 절실한 일이었으며, 민정중은 이를 지원함으로써 양가 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정중의 사후 이희조가 작성한 그의 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슴 깊이 명심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선인(先人 이단상(李端相))에 대한 추후 포전(褒典)과 증조(曾祖)의 문집(文集)에 대한 중간(重刊)은 공이 모두 이 일을 주장하면서 전후(前後)로 온 힘을 다하였으니, 어찌 공이 사사로움이 있어 그런 것이겠습니까마는 저는 실로 공의 덕에 감격하였습니다.⁵⁹⁾

상호간에 추모 및 현창 사업을 원조하는 일은 이보다 더 후대에서도 확인

57) 宋時烈, 『宋子大全』 139卷, 書, 〈月沙集序〉,

58)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학수, 「月沙 李廷龜(1564-1635)의 학문적 계통과 사림에 서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16, 한국인물사연구회, 2011, 106~120쪽.' 참조

59) 閔鼎重, 『老峯集』 12卷, 附錄 下, 〈祭文【李喜朝】〉.

된다. 1757년(영조 33) 민백순(閔百順)은 조부 민진원(閔鎭遠)이 작성한 주의문(奏議文)들을 모아 『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라는 이름으로 간행하기에 이른다. 민진원은 숙종대부터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노론의 선봉에서 활약한 인물이었다. 그의 주의문을 모아 간행한다는 것은 선대의 업적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노론이라는 정파의 입장과 견해를 현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⁶⁰⁾ 이 책에 서문을 작성한 이는 다름 아닌 김원행이었다. 당대에 산림으로 이름났던 김원행이 서문을 작성하는 것은 『민문충공주의』가 갖는 권위를 보다 더 배가시키는 행위였을 것이다. 김원행은 이 서문에서 민진원의 글을 제갈량의 출사표에 비유하며 높이 평가함으로써 이 책의 편찬 의도에 충실히 부합하였다.⁶¹⁾

V. 맺음말

본 연구는 근기 지역 노론 사족의 결합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석실서원에 1697년 추배된 김수항, 이단상, 민정중 세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서원이 당파의 '의리'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핵심 거점이었음을 전제로, 이들의 추배가 근기 노론의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지배력 강화 메커니즘을 상징했음을 입증하였다.

석실서원에 추배된 세 인물은 서울 지역 노론이 추구했던 권력 통합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수항의 정통 의리 계승, 이단상의 이론적·학문적 기반 제공, 민정중의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세 가문의 결합은 단순한 정치적 연합에 그치지 않고, 이단상이 김창협 및

60) 이는 민백순이 자신이 쓴 『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의 발문에서 “이 편의 간행이 어찌 한 집안의 사사로움 때문이었겠는가?”라고 한데서 잘 드러난다(『閔文忠公奏議』, 〈後跋〉 “此編之行, 豈爲一家之私哉!”).

61) 金元行, 『漢湖集』 13卷, 序, 〈閔文忠公奏議序〉, “古人有言曰, 讀武侯出師表而不爲流涕者, 是無人心者也. 夫使人而無人心則可, 不然, 雖千古之下, 讀公之書, 誰有不慨然流涕, 而信斯言之爲忠也.”

민진후를 사위로 삼는 통혼을 통해 혈연적으로 견고하게 이단상-김창협으로 이어지는 사승 관계 및 후대 김원행, 민우수 등의 강학활동을 통해 학맥으로 재생산되었다. 이는 안동김씨, 연안이씨, 여흥민씨가 세대를 거쳐 학문적 유대까지 공고히 함으로써, 석실서원을 근기 지역 노론의 본산으로 확립하고 정파적 지배력을 더욱 심층적으로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확보된 석실서원의 안정성은 도봉서원의 송시열 추배 사례와 명확히 대비된다. 도봉서원의 경우, 송시열의 입향 명분이 취약한 논리와 외부 세력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여 정국 변동 시 즉시 출향되는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이와 달리 석실서원은 김상헌 형제의 절의를 계승하는 근기 노론의 의리공간이라는 기반 위에, 서울 지역 연고의 유력 가문들이 통혼과 사승관계 통해 결속함으로써 외부의 도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결론적으로, 석실서원의 3인 추배는 근기 노론이 가학의 전통과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통혼이라는 핵심 수단을 활용하여 정치 권력과 학문 권력을 통합하는 독자적인 결합 양상을 구축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견고하고 체계적인 사족 결합이야말로 조선 후기 서울 지역 노론이 장기간에 걸쳐 정치·학문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으며 석실서원의 이단상·김수항·민정중은 그러한 결합의 표상으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1. 원전

- 『江漢集』(黃景源)
『老峯集』(閔鼎重)
『農巖集』(金昌協)
『雷淵集』(南有容)
『溪湖集』(金元行)
『宋子大全』(宋時烈)
『睡谷集』(李畬)
『栗谷全書』(李珣)
『頤齋亂藁』(黃胤錫)
『丈巖集』(鄭誥)
『典庵文集』(姜鼎煥)
『靜觀齋集』(李端相)
『貞菴集』(閔遇洙)
『芝村集』(李喜朝)
『晉菴集』(李天輔)
『寒水齋集』(權尙夏)
『閔文忠公奏議』
『延安李氏館洞派譜』(1863년 간행본)
『仁祖實錄』
『肅宗實錄』
『肅宗實錄補闕正誤』
『純祖實錄』
『顯宗實錄』
『承政院日記』

2. 논저

- 고수연, 「송시열 제향서원 건립과 권상하의 역할」, 『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2019.

- 김인규, 「김원행의 학문과 석실서원에서의 강학활동」, 『동방학』 22, 2012.
- 김자운, 「17세기 말-18세기 초 석실서원의 강학 실재와 특징 - 농암 김창협을 강학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 김학수, 「月沙 李廷龜(1564-1635)의 학문적 계통과 사림에서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16, 한국인물사연구회, 2011.
- 이경구,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활동」, 『震檀學報』 88, 진단학회, 1999.
- 이경동,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조성산, 「18세기 후반 石室書院과 지식·지식인의 재생산」,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2013.
- 조성산, 「18세기 洛論系 學派의 변모양상 연구」, 『역사교육』 102, 역사교육연구회, 2007.
- 조준호, 「경기지역 서원의 정치적 성격 - 석실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조준호, 「朝鮮後期 石室書院의 位相과 學風」, 『朝鮮時代史學報』 11, 조선시대사학회, 1999.
- 조준호, 「석실서원의 건립과 안동김씨」, 『한국계보연구』 5, 한국계보연구회, 2014.
- 조준호, 「송시열의 도봉서원 입향논쟁과 그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 정재훈, 「조선시대 서원의 발전과 지역적 특징 - 도산서원陶山書院과 석실서원石室書院 -」, 『안동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12.

Abstract

The Pattern of Alliance Among the Seoul–Area Literati (Sa–jok) as Seen Through Seoksil Seowon

Lee Eun Chan*

This research analyzes the nature of the selection of enshrined figures (chubae) at Seoksil Seowon to clarify the pattern of alliance among the Noron literati (sa-jok) in the Seoul area following the Gapsul Hwanguk (Change of Government) in the late 17th century. Assuming that theseowon(Confucian academies) were crucial strongholds for solidifying a faction's 'righteous cause' (eui-ri) and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the study uncovers the unique and stable mechanism of alliance at Seoksil Seowon compared to Dobong Seowon, anotherseowonbelonging to the Noron faction. The three figures enshrined at Seoksil Seowon in 1697—Kim Su-hang, Yi Dan-sang, and Min Jeong-jung—symbolize the 'Trinitarian' power integration strategy pursued by the Seoul Noron. Specifically, this included Kim Su-hang's succession of the legitimateeui-ri, Yi Dan-sang's provision of the theoretical and academic foundation, and Min Jeong-jung's maximization of political influence. Their alliance was robustly interwoven by blood ties through intermarriage (tong-hon): Yi Dan-sang was the father-in-law to Kim Su-hang's son, Kim Chang-hyeop, and Min Jeong-jung's son, Min Jin-hu. In conclusion, the enshrining at Seoksil Seowon demonstrates that the Gyeonggi-area Noron reinforced their factional dominance in a distinct manner by integrating

*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PhD student
/ audtn5602@naver.com

political and academic power, leveraging their tradition of family learning (ga-hak) and regional ties, alongside the strategic use of intermarriage.

Key word : Seoksil Seowon, Dobong Seowon, Kim Su-hang, Yi Dan-sang, Min Jeong-jung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광암서원(廣巖書院)의 명칭(名稱)과 배향(配享)에 관한 연구

정 원 영*

- I. 머리말
- II. 광암서원(廣巖書院)의 명칭-도동(道東)과 광암(廣巖)
- III. 광암서원(廣巖書院)의 배향-독향(獨享)과 추배(追配)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7세기 조선 성리학자(性理學者)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을 주벽(主壁)으로 배향한 광암서원(廣巖書院)을 핵심 사례로 설정하고, 서원 명칭의 변천 과정과 최종 명칭인 광암(廣巖)의 기원을 사료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나아가 서원(書院)의 독향(獨享) 후 추배(追配)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서원의 위상과 학맥 계승 양상에 관해 조명한다.

광암서원의 명칭 변천은 서원의 이중적 기능인 학문 수양의 '장수지소(藏修之所)'와 선현의 자취를 기리는 '장구지소(杖履之所)' 사이의 지향점(指向點)을 절충(折衷)한 결과이다. 초기 명칭인 '도동(道東)'은 정시한이 퇴계학파 내에서 점유하는 도학적 정통성과 사상적 이상을 전면에 내세운 결과였으나, 명칭의 보편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에 직면하였다. 이에 본고는 유림이 배향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이 깃든 지리적 상징인 '광암'을 최종 명칭으로 채택함으로써, 서원의 독자적인 지역적 권위와 정체성을 명료화했음을 사료적으로 증명한다.

주벽 정시한 외에 해좌 정범조(丁範祖)와 병산 한치응(韓致應)을 추배한 과정은 광암서원이 학문적 정통성과 사회적 규범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던 고도의 전략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한국철학 전공) / apriorij@skku.edu

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범조의 추배는 가학(家學) 계승을 통해 학맥의 수직적 연속성을 공고히 하였고, 한치응의 추배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 윤리인 의리(義理) 수호를 수용함으로써 서원의 담론적 범위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광암서원이 명칭 변경과 추배라는 제도적 방편을 통해 ‘내부적 결집’과 ‘외부적 확장’이라는 이중 목표를 어떻게 실현했는지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서원 운영의 능동적 생존 전략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광암서원 명칭의 복잡한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광암’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불분명했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서원의 역사적 배경과 상징성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정시한(丁時翰), 정범조(丁範祖), 한치응(韓致應), 도동(道東), 광암(廣巖), 배향(配享)

I. 머리말

본 연구는 17세기 조선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을 주벽(主壁)으로 모신 광암서원(廣巖書院)을 중심 사례로 설정하여, 서원 명칭의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최종 명칭인 ‘광암(廣巖)’의 유래를 사료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원이 우담 정시한을 독향(獨享) 한 이후 진행된 추배(追配)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광암서원의 위상과 도학(道學) 계승의 전개 양상을 입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광암서원은 조선 후기 서원사(書院史)의 복잡한 흐름을 압축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공간이다. 당시는 서원 남설(濫設)에 따른 폐단으로 국가 차원의 신설 금지와 훼손령(毀撤令)이 예고된 격변기였다.¹⁾ 향촌(鄉村) 사족(士族)들은

1)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實錄)』 卷8, 1871년(고종 8) 3월20일 임오 기사, “傳旨 賜額書院中, 文廟從祀及忠臣孝子節義顯著者, 三種外, 竝令毀撤. 其餘書院 一依未賜額書院例處之.” [解釋] 전지(傳旨)하기를, “사액 서원(賜額書院) 중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된 현인(賢人)의 서원과 충신(忠臣)·효자(孝子)·절의(節義)로 이름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원을 사우(祠宇) 형식으로 건립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며 존속을 모색하였다. 광암서원 역시 초기 도동사(道東祠)에서 시작하여 도동서원, 향현사, 광암사 등으로 명칭이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추이는 서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속성을 확보하려 했던 유림 사회의 정치·사회적 고뇌를 여실히 보여준다.

배향의 중심인물인 정시한은 퇴계 이황(李滉, 1502~1571)의 리(理) 철학을 심화시켰다. 그는 리를 주재자(主宰者)로, 기(氣)를 보조자(補助者)로 규정한 ‘주리어기(主理御氣)’를 주장하면서,²⁾ 리가 혼륜(渾淪) 속에서 분개(分開)함을 인식하며 이기혼륜(理氣渾淪)의 다양한 현실태에 주목하였다.³⁾ 이러한 논리적 변증(辨證)을⁴⁾ 통해 정시한은 퇴계학파(退溪學派) 내에서 독보적인 도학적 정통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광암서원이 지역 문중의 사우를 넘어 기호남인(畿湖南人) 학맥의 구심점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광암’이라는 명칭에 담긴 기원과 상징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도동(道東)’이라는 명칭이 갖는 보편성으로 인해 타(他) 지역 서원과의 차별성이 약화가 되자, 당시 유림은 정시한의 학문적 위상을 고유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담집(愚潭集)』을⁵⁾ 비롯한 제

사람의 서원,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훼손(毀撤)하고, 그 외 서원들은 한결같이 미사액 서원(未賜額 書院)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다.”

2) 금장태, 『퇴溪學派와 理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49쪽.

3) 최영진 외,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사단칠정론」, 『한국철학사』, 새문사, 2009, 360쪽. 리(理)가 기(氣)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리(理)가 기(氣) 안에 내재하면서 기(氣)를 주재(主宰)한다는 것이다.

4) 「사칠변증(四七辨證)」, 율곡 이이(李珥)의 성리설(性理說)을 41조에 걸쳐 조목별로 비판하며 퇴계(退溪)의 주장한 변증서(辨證書).

5) 『우담집(愚潭集)』은 1911년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를 상줄리 송오대(松梧臺)에서 정시한의 7대손인 현감공(縣監公) 정대직(丁大植)이 가업으로 소장해 오던 필사본(13권 13책)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축약·정리한 목판본(12권 6책)을 간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정시한의 10대손인 정범진(丁範鎭)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장(前 成均館大 總長)의 주도로 필사본과 목판본을 합본하여 『우담전집(愚潭全集)』을 간행(1985년)하였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정

반 사료를 분석하여 정시한의 구체적인 행적이 깃든 ‘광암’이 어떠한 근거를 통해 서원명으로 채택되었으며, 그것이 정시한의 학문적 지향점과 어떻게 상응하는지 증명할 것이다. 이어서 광암서원이 해좌 정범조(丁範祖)와 병산 한치응(韓致應)을 추가 배향한 사실을 통해 서원의 외연 확장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정시한의 현손으로서 유업을 이은 정범조의 추배는 학맥의 ‘수직적(垂直的)’ 가학(家學) 계승을 공고히 하여 학파적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반면, 당파가 극심했던 시기에 의리(義理) 수호의 사표가 되었던 한치응의 추배는 서원의 담론적 범위를 ‘수평적(水平的)’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윤리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과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광암서원의 명칭 기원과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원의 명칭 추이와 배향 인물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선 후기 서원이 처했던 구조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려 했던 유림의 능동적인 대응 방식을 밝히는 데 그 의의를 둔다.

Ⅱ. 광암서원(廣巖書院)의 명칭－도동과 광암

1. 장수지소(藏修之所)와 장구지소(杖履之所)

조선시대 서원(書院)은 성현(聖賢)의 도(道)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유학 공동체의 이상(理想)이 투영된 공간이었다. 이러한 서원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하나는 학문을 강론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장수지소(藏修之所)의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배향된 성현의 학문과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후세에 전하는 장구지소(杖履之所)의 역할이다.

범진 著, 『요종기실(耀宗紀實)』, 동문선, 2012.

‘장수지소’는 유학의 본질인 수도(修道)와 강학(講學)의 정신적 목표를 강조하며 서원이 지향하는 도학적 이상을 담아낸다. 반면 ‘장구지소’는 서원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영속하기 위한 현실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원의 명칭은 이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쪽에 사상적 무게 중심을 두거나, 혹은 두 기능을 동시에 표상(表象)함으로써 서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표지(標紙)가 되었다. 우담 정시한을 배향한 서원의 명칭 변천은 이러한 서원의 이중적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 가능하다. 초기의 명칭인 ‘도동’은 ‘장수지소’의 이상을 직접적으로 표상한다. ‘도(道)가 동방으로 전해졌다’는 선언적 의미는 성리학(性理學)의 도통(道統)을 계승하여 동방(東方)에서 학문(脩)을 닦고 강학(講)을 영위하겠다는 유학적(儒學的) 열망을 담고 있다. 정시한의 학덕과 사상적 정통성을 근거로 삼아, 서원이 도학의 맥을 잇는 수양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결과였다. 이 명칭은 지리적 특성보다는 배향 인물의 학문적 위상에 근거하여 명명된 경우로 서원의 사상적 이상을 전면에 내세운 결과이다. 그러나 서원의 명칭이 도동서원(道東書院)에서 광암서원(廣巖書院)으로 변화한 것은 ‘장구지소’의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필요성이⁶⁾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림(儒林)은 서원의 건립지에⁷⁾ 고유한 지리적 상징이자 정시한이 평소 ‘자주 오가며 자연을 감상하던 장구지소(杖履之所)’인 ‘광암’으로 그 명칭을 정한다. 보편성을 띤 ‘도동’ 대신에, 배향 인물의 행적이 깃든 고유의 장소를

6) ‘도동’이라는 명칭이 도학 계승의 이상을 담았기에 복수의 서원에서 차용되었음을 볼 때 이는 유학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것이었으나, ‘광암’으로의 명칭 변화는 성현의 구체적인 자취가 서린 장소의 특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원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관념적인 도학의 상징에서 벗어나 성현의 실천적 행적이 깃든 현장을 강조한 이러한 변화는, 광암서원이 독자적인 학문적 연원을 증명하고 유학 공동체 내에서 그 영속성을 확립하는 핵심적인 사상적 명분이 되었다.

7) 김낙진 外, 『愚潭과 道東書院』, 우담정시한선생기념사업회, 2019. 90쪽. 원주(原州)의 강원도(江原道) 원주시(原州市) 부론면(富論面) 법천2리(法泉2里) 서원말(院村) 서원 테(법천사(法泉寺) 옛터 부근).

통해 서원이 정체성을 명료화하고, 지역적 권위와 존속을 꾀한 선택이었다.

2. 장수지소(藏修之所)로써의 도동(道東)

무릇 ‘도동’이라고 함은 ‘도(道)가 동쪽으로 전해 졌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특수성을 띤 윤리 규범이 아니라 송대(宋代) 성리학에서 확립된 이도(理道) - 즉 천리(天理)의 본체(本體)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도덕적 질서 - 를 의미한다.⁸⁾

정시한은 17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이다. 정시한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사숙(私淑)하면서도, 율곡 이이(李珥)의 일원론적(一元論的) 심성론(心性論)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이기(理氣)의 분립 속 일체성을 추구하였다. 다시 말해,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가운데 불상잡(不相雜)의 원리에 기초하여 도학의 내면적 순수성과 실천적 통일을 강조한 것이다.⁹⁾ 정시한은 ‘도’를 형식이나 제도 속의 교학(敎學)으로 보지 않고, 인간 마음속의 천리로써 자각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천명하였다. 이처럼 정시한의 리(理)에 대한 관점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도학의 동방 부흥과 같이 인식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동’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다.

도통(道統)의 계승과 도학의 의식은 서원 창건 당시의 상량문(上樑文)에 반영되어 있다. 상량문 서두(序頭)의 “온 세상의 표준이 되는 법칙을 드리우시

8) 최영진, 앞의 책, 2009, 360쪽. “우담[愚潭, 丁時翰]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物)의 개재성 및 특수성이 리(理) 자체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영남퇴계학파에 비해 물(物)의 개별성이 더욱 살아난다.”고 하였다. 즉, 리(理)에 대해 그 능동성(能動性)을 강조하여 ‘물(物)의 개별성이 더욱 살아난다’라고 본다.

9) 최영진, 앞의 책, 2009, 162~163쪽. 이발(理發), 즉 이발설이란 “인간에게 선형적으로 내재하는 이치(性理) 즉 天理가 현실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리(理)의 절대 선(善)이 성(性)이라는 형이상학적 차원에 서뿐만이 아니라 사단(四端)이라는 현상적인 정(情)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강한 도덕적 의지를 연표하는 것”을 말한다.

어, 널리 천하에 행할 도리를 보여주셨”다 거나, “후대에 걸쳐 명성을 영원히 세우셨고, 이에 은(殷)나라의 예법을 계승하셨다”라는 문장은¹⁰⁾ 성리(性理)의 ‘도’가 천하에 두루 퍼져 동방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공자(孔子)의 교화가 있던 무우(舞雩) 언덕과 강한(江漢)의 밝은 도심(道心)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데, 도동의 명칭이 바로 ‘도’가 조선(朝鮮)으로 계승된 것임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도동’은 방향성을 드러낸 개념이 아니라 도학이 동방으로 확장하였다는 역시 의식을 표상한 상징어(象徵語)이다. 정시한은 학문을 관직이 아닌 향촌(鄉村)의 삶에서 실천하려 했으며 ‘도는 멀리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시한의 학문적 태도는 도학이 중앙 권력의 교조적(敎條的) 학문에서 벗어나, 향촌 공동체 속에서 자율적으로 계승되는 학문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도동서원’의 명명(命名)은 정시한이 체현(體現)한 생활 속의 도학, 즉 실천 유학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도동서원은 정시한의 도통 계승과 도학 부흥의 상징의 공간이었다. ‘도동’이라는 두 글자에는 동방 유학이 자립적인 학문의 전통을 정립해 성장하고자 한 조선 유림의 자긍심이 내포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상적 선언이다. 결국 도동서원은 정시한의 학문적 세계관이 서원의 정체성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이며, 이는 조선 후기의 이 서원이 사적인 배향 공간을 넘어 학문적 신념의 상징체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신념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로, 시초(始初)에 서원의 명칭은 ‘도동사(道東祠)’였다.

1711년(숙종 37) 2월의 기록을 보면 “광암에 도동사를 건립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사림(士林)들이 정시한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하되, 초기에는 국가의 서원 남설(濫設) 금지령(禁止令) 등 외부적 환경을

10) 蔡彭胤, 『希菴集』 卷25, 「丁先生 時翰 愚潭書院上樑文」. “垂羣方之準則. 誕示周行. 樹百代之風聲. 載將殷禮.” (下略)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제한적인 사우(祠宇)의 형태로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사우는 본래 배향(祀賢)만을 목적으로 하며 강학 기능이 있는 서원과 구분이 되었던바, 이는 설립 단계의 신중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공간은 사우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서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창건 6년 후인 1717년(숙종 43) 가을 기록에는 이미 “도동서원으로 완성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동사에서 도동서원으로의 호칭 변화는 통상의 명칭 변화가 아니라, 향촌 유림이 공간의 기능적 변화를 통해 이 공간을 배향과 더불어 강학(敎育)의 기능을 겸비하고자 했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다음은 서원의 건립 전후 과정에 대해 시간순으로 요약한 것이다.

〈표 1〉 書院의 建立의 과정¹¹⁾

날짜	기 록
1707년	1월 5일 법천초당(法泉草堂)에서 선생께서 천명을 다하셨다. 제자 이식(李弼), 조우명(趙宇鳴) 등 의복을 입은 사람이 16명이었다.
	3월 이때 모인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었다. 사림(士林)들이 선생의 호(號)를 우담(愚潭)이라고 하는 데 뜻을 모았다.
1711년	2월 광암(廣巖)에 도동사(道東祠)를 세웠다. 사람들은 선생께서 살아생전 늘 다니시던 광암에 터를 마련하여 건립했다.
1716년	가을 도동서원(道東書院)이 완성되었다.
1721년	9월 비로소 위판(位版)을 봉안(奉安)하고 제사(祭祀)를 지냈다.

11) 丁時翰, 『愚潭集』 卷11, 「附錄」 年譜

· 丁巳 諸生入見 先生謝其勤問 無他言 己未酉時 考終于法泉草堂 是日氣息漸促 而神識尙了了 作喉間語曰 外祖表石亟暨之 蓋先生嘗爲經紀而未訖故也 酉時 恬然若就寢而逝 時有白氣一條 自東至南亘如疋練 良久乃滅 弔者皆驚異之 訃聞 京鄉士友爲位而哭 莫不曰斯文喪矣 門人李弼趙宇鳴等義服者十六人矣 三月庚申 權窆于茅峴丁坐之原 士林來會者百餘人 ○先生既歿 門人相謂曰 昔張橫渠卒 門人議欲私謚 而伯程子 司馬公以爲不可 遂以所居黃渠爲號 又若程叔子之稱伊川 亦門人語也 今愚潭精舍 卽先生所嘗宴息之地也 以此稱先生可乎

· 辛卯二月 建道東祠于廣巖 士林以廣巖先生杖履之所 乃闢地而營建焉

위 <표 1>을 보면 서원의 건립 과정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밟으며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립 논의 후 약 10년이 지난 1721년(경종 1) 9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판(位版)을 봉안(奉安)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때 위판의 봉안은 통상적인 의례를 넘어, 서원으로의 기능을 공식화하고 지역 유림들에게 정시한의 학맥을 계승하는 공간임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가령 서원 건립 후 약 75년이 지난 1796년(정조 20)에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원주 법천의 도동사를 참배하며 남긴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 정약용은 도동사에 들러 배알 뒤 ‘도동사는 곧 우담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라고 하였다.¹²⁾ 이러한 기록은 ‘도동사’가 사우(祠宇)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정시한의 학문과 덕행을 계승하는 강학의 장소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때까지 서원명이 ‘도동서원’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초기 사우 건립 후 곧바로 ‘도동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배향을 시작했다는 기록은 이 서원의 본래 정체성이 정시한의 도학을 계승하는 ‘장수지소’로서의 이상의 확립을 뒷받침하는 문헌적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광암(廣巖)으로 변화를 보인 것은 ‘도동’이 함의한 기의(記意)의 보편성으로 인해 서원의 지역적·학맥적 정체성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필연적 전략의 결과였다.

앞서 밝힌바 ‘도동’은 도통 계승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17~18세기 당시 복수(複數)의 서원에서 통용하던 것이었다. 실제로 조선 서원의 목록에는¹³⁾ 대구 달성(達城)과 전남 곡성(谷城)에서 ‘도동서원’이라고 기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달성의 도동서원은 1607년(선조 40)에 사액(賜額)을 받아 그 입지적 위상이 이미 높았으며, 곡성의 도동서원 역시 원주의 도동서

· 丙申十月, 遷葬于州西賢雞山善道洞負甲之原, 夫人柳氏合祔.

· 丁酉秋, 道東書院成

· 辛丑九月, 始奉安位版行祭.

12) 丁若鏞, 『與猶堂全書』, 詩集 卷2, 「謁道東祠」(即愚潭先生書院).

13) 韓國書院聯合會, 『韓國書院總覽』(上)·(下),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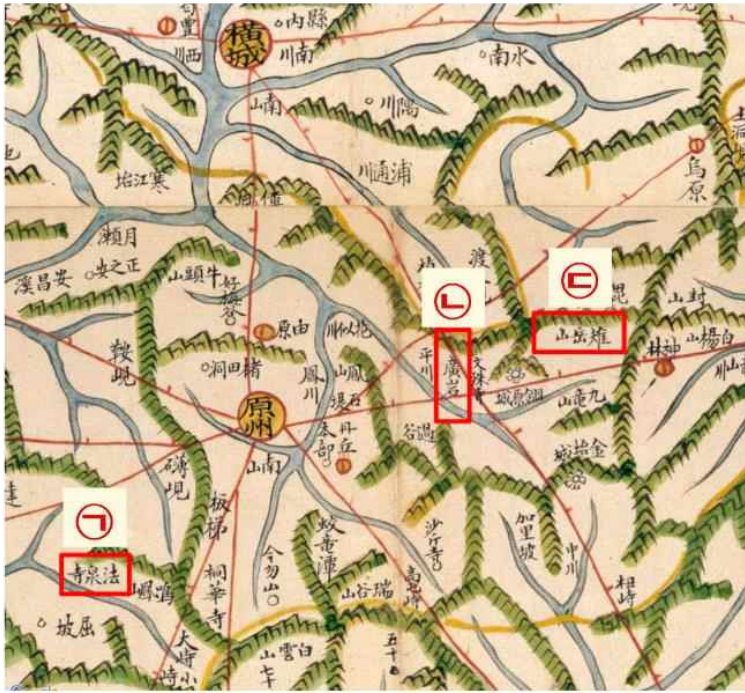
원 보다 약 35년 앞서 건립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서원만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칭의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후학(後學)들은 ‘도동’이 지닌 의미의 보편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시한의 삶의 터전이자 서원 건립지의 고유한 지리적 상징성을 담아 ‘광암(廣巖)’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채택하는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는 서원이 가진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학문적 정통성이 깃든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었다.

3. 장구지소(杖履之所)로써의 광암(廣巖)

『우담집(愚潭集)』에 수록된 정시한의 「연보(年譜)」에는 ‘1711년 2월 광암(廣巖)에 도동사(道東祠)를 세웠다. 사림(士林)들은 선생께서 살아생전 늘 다니시던(杖履之所) 광암에 터를 마련하여 건립했다’라고 되어 있다.¹⁴⁾ ‘광암’이란 말은 여기에 처음 등장 한다. 이를 제외하고, 문집(文集) 내 광암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원을 지칭하는 말로 ‘도동’과 함께 광암사(廣巖祠), 광암향현사(廣巖鄉賢祠), 광암서원(廣巖書院) 등으로 표기가 되어 왔는데, 『원주지명총람(原州地名總覽)』을 보면 원주시 관내 위치한 ‘광암’이란 ‘양금대(陽金臺) 북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¹⁵⁾

14)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辛卯二月. 建道東祠于廣巖. 士林以廣巖先生杖履之所. 乃闢地而營建焉.”

15) 김은철 편저, 『원주지명총람』, 원주시역사박물관, 2019. 양금대란, 지금의 원주시 금대동 지역, 그 일대를 말하는데, 이곳은 치악산을 배경으로 남향(陽向)에 위치하여 이른바 ‘양금’이라 불리는 곳이다. 여기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 광암이라는 사실은 『한국지명총람(韓國地名總覽)』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그 유래는 ‘마을에 넓은 바위가 있어서 너렁바우’인 것을 한자로 변형해 표기하니, 그 이름이 곧 광암(廣岩(岩→巖의 俗字))이라는 것이다.



㉠ 법천사(法泉寺) ㉡ 광암(廣巖) ㉢ 치악산(雉嶽山)

『동여도(東輿圖)』¹⁶⁾

위 『동여도(東輿圖)』를 보면 ㉠ 법천[法泉(寺)]에서 ㉡ 광암(廣巖)까지는 약 35km로, 도보로 하루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정시한이 부친(정언항(丁彦瓊, 1597~1672), 江原道觀察使의 임소(任所)에 따라 머물던 원주 감영(監營)을 기준 하면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조선 철종(哲宗) 때 제작된 위 지도에는 남서쪽에 법천사가 있고, 동북쪽에는 ㉡ ‘광암’과 ㉢ ‘치악산(雉嶽山)’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도의 가치는 광암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특정함으로써 그 유래를 추론하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16) 『동여도(東輿圖)』 조선 후기 철종 때 제작된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전국 지도. 이 지도는 ‘광암(廣巖)’이 어디에 위치한 지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점이다. 무엇보다 당시의 유림(儒林)이 이곳을 서원의 명칭으로 삼았다고 보는 이유는 정시한의 「연보(年譜)」와¹⁷⁾ 「산중일기(山中日記)」에¹⁸⁾ 수록된 기록에 찾을 수 있다. 정시한의 치악산 상원암(上院菴) 방문 시기와 관련 내용은 『우담집(愚潭集)』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 기록(記錄)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雉嶽山 上院菴의 訪問¹⁹⁾

날짜	기 록
1687년 3월	치악산(雉嶽山)을 유람하였다.
1688년 5월	손자 정신과 함께 출발하여 상원암(上院菴)에 올랐다.
1689년	봄에 치악산(雉嶽山) 상원암(上院菴)에서 머물다가 8월에 왔다.
1690년 11월	치악산(雉嶽山) 상원암(上院菴)에 가서 머물렀다.
1691년	치악산(雉嶽山)을 유람하였다.

정시한(丁時翰)에게 치악산 ‘상원암’이 갖는 정신적 위상이란 퇴계 이황(李滉)에게 청량산이 갖는 의미와 동일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과거 이황 스스로 ‘청량산인(淸涼山人)’이라며²⁰⁾ 청량산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정

17)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18) 丁時翰, 「山中日記」, (上)·(下) :

1차 유람 - 1686. 03.13.~1687. 01.22. (316일)

2차 유람 - 1687. 03.08.~1688. 03.17. (375일)

3차 유람 - 1687. 08.02.~1687. 10.20. (80일)

4차 유람 - 1688. 04.10.~1688. 09.19. (163일)

19) 丁時翰, 앞의 「山中日記」, (上)·(下) :

1687년 - “三月, 遊雉嶽山.”

1688년 - “與敬愼發行, 上上院菴.”

1689년 - “春, 往留雉嶽山 上院菴, 八月還.”

1690년 - “往留雉嶽山 上院菴.”

1691년 - “遊雉嶽山.”

20) 청량산인(淸涼山人) : 이황(李滉)이 사용한 별호(別號) 중 하나로, 퇴계(退溪)·도수

시한 역시 상원암이 있는 치악산을 향한 깊은 애착과 흥미를 드러낸 점은 따라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정시한의 문인(門人)들이 남긴 만사(輓詞)와 제문(祭文)을 통해서도 - ‘달은 섬강에 비치고 구름은 치악산에 비꼈네, 닳지도 않고 또 마르지도 않으니 천고의 인간 세상에 남으리’,²¹⁾라고 하였거나 ‘치악산은 높고 맑은 바람은 만고에까지 불으리’,²²⁾ 또한 ‘치악산이 슬픔을 머금었네’ - 라고 하였으니,²³⁾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치악산의 ‘상원암’이 정시한에게 있어 학문과 정신의 기저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683년(숙종 9) 모친상을 마친 후 정시한이 5년 동안 빠짐없이 찾았던 곳이 바로 치악산의 ‘상원암’이었다. 1687년(숙종 13) 3월의 기록을 보면 ‘상원암’은 당시 산중(山中) 유람의 궁극적인 목적지였다.²⁴⁾ 「산중일기」에 따르면 정시한은 1689년(숙종 15) 봄부터 8월까지 5개월여 동안 상원암에 체류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당시 그는 입산에 임하며 다음과 같은 소회(所懷)를 남겼다.

“내가 부모님 모두와 영원히 헤어지고 나이도 60세를 넘겨버렸으니 지금 이 후로는 죽어도 아깝게 생각할 것이 없다. 만약 내가 다시 가산(家産)에 골몰하고 아이들 돌보는 일에 연연해한다면 심사(心事)는 점점 어리석어져서 옛날에 배운 것도 바라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내가 책을 가지고 입산(入山)하여 적막한 물가에서 소요함으로써 의취(意趣)를 넓힐 수 있다면 얻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막지 말아라.”²⁵⁾

(陶叟) 등과 함께 쓰였다.

21) 丁時翰, 『愚潭集』 卷11, 「附錄」 輓詞: 門人 趙湜 - “月照蟾江水. 雲橫~~雉嶽~~山. 不磨亦不渴. 千古在人間.”

22) 丁時翰, 『愚潭集』 卷11, 「附錄」 祭文: 後學 鄭萬陽. 葵陽 - “~~雉嶽~~山高. 清風萬古.”

23) 丁時翰, 앞의 祭文: 門人 金道遠 - “~~雉嶽~~含悲.”

24) 丁時翰, 앞의 「山中日記」, (上)·(下), 참조.

25)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至是歲服闋後. 尤無意於世間事. 途有周流域內山川之意. 今以後. 死無所措. 若復汨沒家産. 眷戀兒. 郎心事漸至昏昧. 而舊學. 難望. 有得無寧携書入山. 逍遙於寂寞之濱. 以廣意趣. 汝輩勿我禁也.”

정시한은 ‘상원암’에서의 수양(修養)을 통해 진정한 학문적 깊이와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시한은 ‘상원암’에 대해 “암재(上院菴)는 높고 끊어진 곳에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이게 뿔려 있었다.”라고 하거나, “땅은(坐地) 편평하여 넓고(廣) 컸다. 좌우, 전후에 있는 암(巖)석은 기이하고 절묘하였다. 돌샘은 달고 차가웠고, 샘물은 크게 흘러 마시기에 맞지 않았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상원(上院)이 첫 번째의 명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헛되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²⁶⁾ 따라서 정시한이 ‘자주 오가면서 자연을 감상하던 장구지소’란 궁극적으로 치악산의 ‘상원암’으로 귀결된다.

‘광암(廣巖)’은 치악산 상원암으로 향하는 길목인 초입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정시한이 평소 머물며 학문을 닦았던 ‘장구지소(杖履之所)’ 역시 바로 이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는 서원의 정체성이 우담 정시한이라는 인물이 지닌 구체적인 삶의 자취와 그 현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건립 초기부터 다양하게 명명되어 온 서원의 명칭 변천 양상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를 넘어 서원의 정체성이 구체화 되는 사유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그 구체적인 변례(變例)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廣巖으로表記한 문헌 外

구분	표 기
광암(廣巖)으로 표기한 문헌	광암사(廣巖祠) ²⁷⁾
	광암향현사(廣巖鄉賢祠) ²⁸⁾
	광암서원(廣巖書院) ²⁹⁾
其他	사우(祠宇) ³⁰⁾
	향현사(鄉賢祠) ³¹⁾

26)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丁卯 三月 〇十一日, “坐語良久. 與客僧鳴善 周觀道場. 菴在高絕之處 眼界通闊. 坐地平正廣大. 左右前後巖石奇怪. 石泉甘冽 浩浩滔滔 不可勝飲. 前聞我國上院之第一名 不虛得也.”

27) 김성찬 역주, 『原州誌』, 2003; 李定求, 『四千年文獻通考』, 1926.

광암서원은 애당초 ‘법천초당(法泉草堂)’을 연원으로 하여 ‘우담정사(愚潭精舍)’, ‘도동사’, ‘도동서원’으로 이어져 왔다. 이후 ‘광암사(廣巖祠)’나 ‘광암향현사(廣巖鄉賢祠)’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처럼 문헌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기록된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원주지』와 『사천년문헌통고』에서는 ‘광암사’로, 『연려실기술』과 『문헌고략』은 ‘광암향현사’로 표기되었다. 반면에 『조선환여승람』에는 ‘향현사(鄉賢祠)’, 『전고방대』는 단지 ‘사우(祠宇)’로 기록되어 명칭이 단순화되거나 일반화되기도 하였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한국서원연합회 등의 자료에서 ‘광암서원’으로 표기되는 등, 해당 명칭들은 문헌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병기(併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명칭 변화의 양상은 서원의 기능 및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요(要)는, 광암이라는 지명이 성현의 학문과 정신을 기려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장구지소’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유학 공동체의 영속성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현의 구체적인 행적이 깃든 ‘광암(廣巖)’이라는 장소를 통해 서원의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러한 의도는, 기존의 도학적 이상을 담은 ‘도동(道東)’에서 ‘광암’으로 명칭이 변화하게 된 핵심적인 사상적 명분이 되었다.

Ⅲ. 광암서원(廣巖書院)의 배향—독향과 추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암은 우담 정시한이 빈번히 왕래하며 자연을 관조(觀照)했던 ‘장구지소’이며, 서원의 명칭 또한 이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원은 광암서원의 독향 및 추배 의례의 대상 선정에 필연적으

28) 李肯翊, 『燃藜室記述』; 『文獻攷略』

29) 한국서원연합회(韓國書院聯合會).

30) 姜敷錫, 『典故大方』, 1924.

31) 李秉延, 『朝鮮褒貶勝覽』, 1933.

로 투영되었다. 따라서 광암서원의 향사(享祀) 인물 선정 과정에서 우담 정시한 외에 어떠한 인물이 추가로 배향(追配)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추배의 배경과 학맥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1. 독향-우담 정시한

정시한이 조선 성리학에 남긴 공헌은 퇴계의 도학을 심화하고 변증(辨證)한 대유(大儒)로서의 위상에서 비롯한다. 정시한의 학문적 근간은 성현의 서적에 그 뜻을 돈독히 두었는데, 특히 『중용(中庸)』을 탐독하며 경(敬)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실천 유학의 기조가 평생의 학문적 근간이 되었다. 치열한 독서와 사변(思辨)의 결과, 당시 성리학의 첨예한 논쟁이었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비롯해 이기론(理氣論)과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 관하여 고제(高弟) 외암 이식(李穡, 1659~1729)과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변을 구체화하였고, 그 결과 「사칠변증(四七辨證)」과 「관규록(管窺錄)」 등의 독창적인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는 퇴계학파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퇴계 학맥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다.³²⁾ 이처럼 퇴계학파의 학맥 속에서 정시한이 지니는 독보적인 위치는, 광암서원이 지향하는 사상적 체계와 도학적 명분을 정초(定礎)하는 핵심적 근간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까닭에 유람 기간 중 퇴계를 비롯하여 김종직, 류성룡, 정경세 등을 배향한 서원을 잇달아 방문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퇴계로부터 이어지는 도학의 정통을 수용하고 그 도통(道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³³⁾

32) 안유경, 『퇴계학파의 심성론』, 삼산, 2016, 221~222쪽. 우담(愚潭)은 리발(理發)에 관해, 측은(惻隱)의 근본을 ‘인(仁)’으로 설명하지만, ‘측’을 ‘지심(之心)’의 기발(氣發)로 보려는 울곡(栗谷)과는 달리, ‘리발’로 이해한다. “측은지심의 근본이 ‘인’이라면 ‘인’이 발하여 ‘측은’이 되는 것은 ‘리발’이 아니겠는가?”라며 ‘측은’은 ‘인’이 발현하여 ‘측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발’이라는 것이라며 퇴계의 이기호발(理氣互發)에 관해 변증(辨證)한다.

33) 丁時翰, 『愚潭集』 卷7, 「四七辨證」: “我東自箕子以後, 文獻之寥寥久矣. 前朝之季,

정시한의 이러한 사상적 지향은 실천으로 이어져,³⁴⁾ 그는 생원시 합격 이후 관직의 길을 뒤로한 채 ‘경이직내 의이방외(敬以直內 義以方外)’의 명제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 산림처사(山林處士)의 삶을 일관되게 고수하였다.³⁵⁾

〈표 4〉 丁時翰의 書院 訪問 및 配享³⁶⁾

年月日	次	書院	先賢
1686. 3. 22.	1次	道南	鄭夢周, 金安弼, 鄭汝昌, 李彥迪 李 滉, 柳成龍, 盧守愼, 鄭經世
1686. 4. 13.		栢淵	崔致遠, 金宗直
1687. 10. 3.	3次	五峰	孔 子
1688. 4. 25.	4次	謙巖	柳雲龍
1688. 4. 25.		屏山	柳成龍, 柳 軫
1688. 4. 26.		青城	權好文
1688. 4. ~ 8. 27.		陶山	李 滉
1688. 4. ~ 8. 28.		易東	李 滉
1688. 5. 1.		鳳覽	李 滉
1688. 5. 4.		南岡	李彥迪, 李 滉
1688. 5. 10.		玉山	李彥迪
1688. 5. 14.		西岳	薛 聰, 金庚信, 崔致遠
1688. 5. 28.		臨臯	鄭夢周
1688. 8. 28.		永溪	金安國
1688. 9. 13.		三溪	權 櫟

鄭圃隱倡明正學. 而我朝四賢繼之於後. 此誠吾道將興之一大幾. 而并未有闡發微言. 開示後學之旨訣. 故後之有志向學之士. 無從以尋其緒而泝其源.” 이처럼 정시한은 도학의 기원에 관해, 가자(箕子) 이래 포은 정몽주(鄭夢周)와 사현(四賢) - 정여창(鄭汝昌), 김굉필(金宏弼),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 을 거쳐 퇴계 이황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주목하였다.

34)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先生日寢處夾室, 使子道恒書‘敬義齋’三大字, 貼諸壁上, 左書敬以直內義以方外, 右書敬勝怠者吉, 怠勝敬者滅, 義勝欲者從, 欲勝義者凶.”

35)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丁時翰之疏, 雖有欠當之語, 其心之斷斷無他. 通朝之所共知, 兇人之以此爲嚆矢, 豈時翰之所及哉. 時翰, 以山林遺逸之士, 恩敘既久, 禮待如初.”

36) 丁時翰, 앞의 「山中日記」, (上)·(下), 참조.

실제로 의금부도사(1644년)³⁷⁾ 시작으로 진보현감(1677년),³⁸⁾ 사헌부지평(1686년),³⁹⁾ 그리고 세자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진선(1690년)⁴⁰⁾에 이르러까지 요직을 두루 제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상소(上疏)를 통해 사직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실은 이러한 처사적 삶의 지조를 명확히 실증한다.

외적으로는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권력 쟁취를 인욕(人欲)으로 간주하고 현실의 당파적 정치와 거리를 둔 채, 오직 처사의 삶을 추구한 것이 본질적인 이유였다. 당색(黨色)이 극심했던 시기에 산림(山林)으로서 올곧은 지조를 지켰던 정시한의 삶은 광암서원의 배향 취지에 부합을 하며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도학을 기반으로 학문적 양심을 지킨 정시한의 생(生)은 도덕적 모범이자 당위(當爲)의 본질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당시 문인들이 정시한을 이곳 광암서원에 독향(獨享)으로 받든 이유가 되었다. 이것은 곧 서원이 추구하는 학문적 정통성과 실천 윤리 강조라는 운영 취지에 적합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원이 이러한 독향의 기반 위에 학맥의 연속성과 지역 유림 공론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후대를 계승하는 인물을 추가로 배향하는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이러한 추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 근거 자료가 바로 칠봉서원(七峯書院)에서 광암서원에 보낸 회통(回通)이다.

2. 추배－통문(通文), 「경중장보회통(京中章甫回通)」

이 통문(通文)⁴¹⁾은 원주 칠봉서원에서⁴²⁾ 광암향현사(廣巖鄉賢祠)로 발송한

37)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甲辰. 先生四十歲. 六月, 蔭補義禁府都事.”

38)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丁巳. 先生五十三歲. 六月, 除眞寶縣監.”

39)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丙寅. 先生六十二歲. 正月, 拜司憲府持平.”

40) 丁時翰, 앞의 문집, 年譜: “庚午. 先生六十六歲. 五月, 拜世子侍講院進善.”

41) 「경중장보회통(京中章甫回通)」, 국학진흥원(도산서원 자료) [通文 0087].

42) 칠봉서원(七峰書院)은 1624년(인조 2) 유림의 공의로 원천석(元天錫), 원호(元昊),

것으로, 내용은 미수(眉叟)와 우담(愚潭)을 잇는 정범조(丁範祖), 구암(久庵)과 번암(樊巖)을 잇는 한치응(韓致應)을 광암서원에 추배하는 일에 대한 유림(儒林)의 공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답서(答書)이다. 광암서원의 제향(祭享) 논의가 갖는 학문, 그리고 제도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비록 이 ‘통문’의 작성 연월일은 불상(不詳)이지만⁴³⁾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한 사료(史料)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문서이다. 「경중장보회통(京中章甫回通)」이라 지칭되는 이 통문은 서원의 제향 결정이 지역 유림의 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향(京鄕) 유림의 공론(公論)을 통해 학맥 계승의 정통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음을 실증한다. 이 통문에는 첫째, 추배 인물 선정의 이유와 둘째, 서원 운영의 제도적 원칙 등이 담겨 있어 이를 통해 우담 정시한 학맥의 계승(繼承) 및 그 양상 또한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경중장보회통」의 원문을 국역한 것이다.

[解釋] 경중(京中)의 장보(章甫) 회통(回通)⁴⁴⁾

이 회통은, 지금 해좌(海左) 정 선생[丁範祖]과 병산(粵山) 한 선생[韓致應]을

정종영(鄭宗榮), 한백겸(韓百謙)을 추모하기 창건이 되어 1693년(숙종 19) 사액(賜額)된 원주(原州)의 서원이다.

- 43)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에 따라 칠봉서원(七峯書院)이 훼손된 것은 1868년(고종 5)의 일이다. 그런데 한치응의 졸(卒)이 1826년(순조 26)이므로, 칠봉서원에서 보낸 회통(回通)의 작성, 즉 추배(追配) 논의가 오가던 때는 1826년에서 1868년 사이 어느 시점, 즉 19세기 중반 전후라고 추론할 수 있다.

- 44) [原文] 通文, 「京中章甫回通」, : 右爲回通事. 今以海左丁先生, 粵山韓先生, 廣巖賢祠之追配事. 貴通辭意. 若是鄭重. 京鄕諸議一辭響應. 誠是斯文之幸也. 大抵兩先生行蹟既備於貴通. 不必疊床. 而海左先生. 早襲愚翁之緒餘. 遠接眉老之型範. 正廟朝嘗曰. 丁某山野人. 其心如水. 其清如水. 蓋其立朝四十年. 高文大策. 輝映當時. 清名雅望. 矜式頹俗. 蔚爲吾黨之師表. 粵山先生. 本以久庵淵源. 夙被樊巖薰陶. 義理秉執. 牢確剛方. 扶植元氣. 辨別土趨. 豈非頹波之砥柱耶. 貴鄉兩先生杖履之所也. 鄉先生祭於社. 禮也. 今此廣巖追配之論峻發之後. 不可遲留. 茲切景仰之心. 搢紳章甫. 卜日齊會. 敬修答通. 伏望僉尊. 克盡崇奉之道. 俾完大事地. 千萬幸甚. 右回通于, 七峯書院

광암(廣巖) 현사(賢祠)에 추배(追配)의 일로 인한 것입니다. 귀 통문(通文)의 말씀이 이처럼 정중하니, 서울과 지방의 여러 의논이 한결같이 이에 호응한 것이, 참으로 우리 유학(斯文)의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체로 두 분 선생의 행적은 이미 귀 통문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으니, 거듭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해좌의 선생께서는 일찍이 우옹(愚翁)⁴⁵⁾의 유업을 이었고, 멀리는 미로(眉老)⁴⁶⁾의 법범(法範)을 잇는 분입니다. 정조 대왕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 “정 모(某)는 산야에 사는 사람으로, 그 마음은 물과 같고, 그 맑음은 얼음과 같다” 하셨습니다. 대개 그가 조정에 서기를 사십 년, 높은 문장(文章)과 큰 정책(政策)으로 그 시대를 빛나게 하였으며, 청렴한 이름과 고아한 명망으로, 풍속이 쇠한 세상을 경계하고 교화하여, 진실로 우리 당대 유림의 스승이요 표본이 되셨습니다.

병산 한 선생은 본래 구암(久庵)⁴⁷⁾의 학맥을 이어받고, 일찍이 번암(樊巖)⁴⁸⁾의 훈도(薰陶)를 깊이 받았으며, 의리(義理)를 굳게 지키고, 뜻은 견고하며 곧았으며, 원기를 복돋아 세우고, 선비들의 진퇴를 분별하였으니, 어찌 무너지는 세상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귀향은 곧 두 분 선생께서 ‘지팡이 짚고 신을 신으며 오가시던 곳’(杖履之所)이니 향현(鄉賢)을 사우(祠宇)에서 제사하는 것은 예(禮)에 맞는 일입니다.

이제 이 광암에서 추배하려는 논의가 높이 이른 이후로는, 더는 지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림의 선비들이 날을 정해 함께 모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회답을 드리니, 바라건대 여러 어른께서는 충심으로 받들어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된다면 이 큰 일을 마치는 데 더욱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통을 하는 바입니다.

- 칠봉서원(七峯書院)

위의 칠봉서원의 회통은 정범조와 한치응의 추배가 내부적 결정이 아닌 경향제의(京鄕詣議)를 통한 학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을 실증하는 핵심 자

45) 우옹(愚翁) = 우담 정시한(丁時翰).

46) 미수 허 목(許 穆, 1595~1682) : 남인(南人)의 대표 영수(領袖).

47) 구암 한백겸(韓百謙, 1552~1615) :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著.

48) 번암 채제공(蔡濟恭, 1720~1799) : 탕평(蕩平)과 개혁(改革) 긍정.

로이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 서원 제향이 도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학 공동체 내에서 담론적 지위를 공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절차였음을 의미한다.

통문에서 “서울과 지방의 여러 의논이 한결같이 이에 호응한 것이, 참으로 우리 유학(斯文)의 다행한 일”이라고⁴⁹⁾ 강조하는 점은 추배 논의가 학문적 대의를 획득했음을 천명한 것이다. 나아가 “더는 지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고⁵⁰⁾ 함은 추배를 통한 서원의 정체성 및 학맥의 공고화가 당대 유림에게 시급한 과제였으며,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려는 광암서원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광암서원은 정시한 학맥 계승(丁時翰 學脈 繼承)이라는⁵¹⁾ ‘연속성 확보’와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규범’ 충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두 인물 추배의 논거로 삼았다.

1) 해좌 정범조-가학(家學)의 계승

해좌 정범조(丁範祖)⁵²⁾를 추배한 결정은 ‘광암서원’의 학문적 뿌리인 우담 정시한의 학맥(學統)이 단절되지 않고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공인받는 핵심적 과정이다. 통문에 명시된 “해좌 선생께서는 일찍이 우옹(愚翁)의 유업(緒餘)을 이었고”라는 문장은,⁵³⁾ 현손(玄孫) 정범조가 정시한의 유학(儒學)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였음을 입증한다. 이처럼 직계 후손을 통한 학맥의 수직적(垂直的) 가학(家學)의 계승 논리는 서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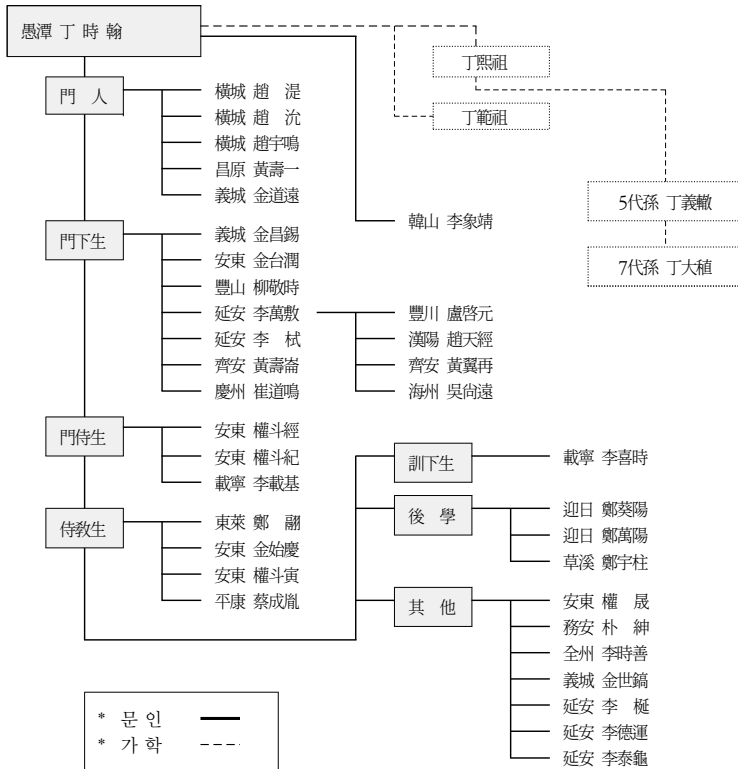
49) 앞의 「경중장보회통」: “京鄉諸議一辭響應, 誠是斯文之幸也.”

50) 앞의 「경중장보회통」: “不可遲留.”

51) 이기원, 『退溪學及其系譜的研究』, 퇴계학연구원, 1989; 금장태, 『退溪學派와 理學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유봉학, 『조선 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등 기존 연구가 밝혀 왔듯이, 정시한은 퇴계학과 내부에서 독자적 위상을 지닌 인물이었다. 여기에 丁熙祖의 『鶴龜齋 遺稿』, 丁義轍의 『希賢遺事』, 그리고 羅州丁氏大宗會, 『羅州丁氏族譜』(己卯譜) 등의 기록은 그의 학문이 약 300년 동안 가학(家學)의 형태로 계승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설득력 있는 학파적 명분으로 작용한다. 이는 광암서원이 단순히 정시한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정시한의 학문적 성과와 도학적 정통성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전수되고 있는 독보적인 학문의 구심점(求心點)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정범조에 대해 “그 마음은 물과 같고, 그 맑은 은 얼음과 같다.”⁵⁴⁾는 정조(正祖)의 평가를 통문을 통해 인용한 점은 통상적

〈愚潭 丁時翰의 學脈〉



52) 정범조(丁範祖, 1723~1801) : 본관은 나주(羅州), 시조(始祖)는 윤종(允宗, 호는 해좌(海左)이고, 정시한의 현손이다. 1763년 증광문과 갑제 후 영정조(英正祖)의 총애를 받았다. 영조 때 ‘건공가(建功勳)’를 지었으며 형조판서를 지냈다. 문집 『해좌집(海左集)』이 있고,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53) 앞의 「경증장보회통」 : “而海左先生, 早襲愚翁之緒餘.”

인 의견의 피력을 넘어 정치적인 공인(公認)을 의미한다.

즉, 정법조의 고결한 도덕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시한이 평생 고수했던 청빈하고 올곧은 지조와 일치하는 도학적(道學的) 모범이 후대 인물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되었음을 논증한 것이다. 그 결과 격변하는 조선 후기 당파적 상황 속에서 서원 제향(祭享)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고히 하는 주요 명분으로 자리를 잡았다.

2) 병산 한치응-의리(義理)의 수호

한편, 병산 한치응(韓致應)⁵⁴⁾의 추배는 정법조의 학맥 계승 논리와는 달리 당대 사회 윤리의 재정립이라는 규범적(規範的) 필요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통문은 “한치응이 구암 한백겸(韓百謙)과 변암 채제공(蔡濟恭)의 훈도를 받아 의리(義理)를 굳게 지키고, 그 뜻이 견고하며 곧았음”⁵⁵⁾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한치응이 의리론(義理論)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서 조선 후기 심화(深化)되는 당파적(黨派的) 폐단(弊端)과 학문적(學問的) 퇴영(頹營)에 대한 도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한치응에 대해 “어찌 무너지는 세상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라며⁵⁶⁾ 극찬한 문장은 당파성이 극심했던 시기에 유학자로서 지켜야 할 불변의 도덕적 기강에 관해, 한치응을 통해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리적 지주(支柱)가 되는 인물을 추배함으로써 학맥의 내부적 계승을 넘어 유학적 가치와 기풍을 교화(教化)하는 사회적 거점으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궁극

54) 앞의 「경중장보회통」: “其心如水, 其清如冰.”

55) 한치응(韓致應, 1760~1824)은 본관은 청주(淸州), 호는 병산(甁山), 1784년 정시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1806년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채제공(蔡濟恭)의 신원을 청하다가 삭출(削黜)됐지만 다시 기용되었다. 문집 『병산집(甁山集)』이 있고, 정법조의 행장(文憲海左丁先生行狀)을 지었다.

56) 앞의 「경중장보회통」: “夙披樊巖薰陶, 義理秉執, 牢確剛方.”

57) 앞의 「경중장보회통」: “豈非頽波之砥柱耶.”

적으로 한치응의 추배는 서원의 담론적 범위를 수평적(水平的)으로 확대하고 학파의 윤리적(倫理的) 영향력을 강화하여 서원의 기능을 강학(講學)의 공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대적 규범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으로 격상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3. 추배의 논거

이처럼 정범조와 한치응에 대한 광암서원의 추배는 현창(顯彰)을 넘어 조선 후기 서원 운영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함유한다. 특히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동안 축적된 서원의 난립(亂立)과 그에 따른 훼손(毀撤)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서원의 존립을 정당화할 제도적 안전망의 구축은 유림 사회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 시대적 맥락 속에서 ‘광암서원’의 추배 논의는 ‘학문적 계보의 내부적 결집’과 ‘사회적 영향력의 외부적 확장’이라는 두 방향을 동시에 모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담 정시한의 학맥(愚潭 丁時翰의 學脈)’을 통해 볼 때 선명히 드러난다.

정범조의 경우 정시한의 학맥을 혈연과 학통 양 측면에서 동시에 계승한 인물로서, 그의 추배는 광암서원이 나주압해정씨(羅州押海丁氏) 문중만이 아니라 정시한의 학문적 성취를 제도적으로 계승하는 공적 공간임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⁵⁸⁾ 이는 퇴계 이황에서 우담 정시한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사숙(私淑) 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은 물론, 광암서원이 정시한 학맥의 정통성을 보증하는 중심을 대내외에 공인받는 계기가 되었다. 추배의 논의가 「경중장보회통」과 같이 ‘경향제의 일사 향응(京鄕諸議 一辭 響

58) 丁時翰, 앞의 문집, 「祭文」에 [門人] 趙湜, 黃壽一, 趙宇鳴, 金道遠, 趙沆(5명), [門下生] 金昌錫, 金台潤, 柳敬時, 李萬敷, 黃壽崙, 李栻, 崔道鳴(7명), [門侍生] 權斗經, 權斗紀, 李載基(3명), [侍教生] 權斗寅, 蔡成胤, 金始慶, 鄭福熙(4명), [訓下生]에 李喜時(1명), [後學] 鄭葵陽, 鄭萬陽, 鄭宇柱(3명), [其他] 權晟, 金世鎬, 李德運, 李時善, 李泰龜, 李挺, 朴紳(7명) 등이 있다. 그리고 玄孫인 海左 丁範祖, 鶴龜齋 丁熙祖, 5代孫 希賢堂 丁義轍, 7代孫 安峽 縣監을 역임한 丁大植 등이 家學으로 學統을 잇고 있다.

應’이라는 유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광암서원이 이해관계를 넘어 유학 공동체 전체의 학문적 대의를 따르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⁵⁹⁾ 반면에 한치응의 추배는 정시한의 학맥이라는 내부적 울타리를 넘어, 유학적 규범의 사회적 담론을 외부로 확장하려는 은유적 함의[隱喻的 含意]가 있다. 통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한백겸과 채제공의 학풍을 이어받아 의리(義理)를 엄격히 수호한 그의 생애는, 당파적 폐단과 학문적 퇴영이 심화하던 조선 후기 사회에 도덕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징적 지표가 되었다. 특히 그를 ‘무너지는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높게 평가한 것은, ‘광암서원’이 특정 학파의 전유물을 넘어 무너진 도덕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사회적 교화의 거점임을 천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원의 담론적 지평을 수평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강학의 공간이었던 서원의 기능을 시대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론의 장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범조와 한치응에 대한 추배 논의는 광암서원이 정시한의 도학적 유효성을 가학적 계승(丁範祖)을 통해 확보하는 한편, 당대 유학 공동체가 지향한 사회적 의리(韓致應)를 수용함으로써 학맥의 연속성과 규범적 위상을 동시에 확립하고자 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5〉 丁範祖와 韓致應의 追配 意義

구분		海左 丁範祖	粵山 韓致應
通文	目標	학맥의 연속성과 안정성	사회 윤리 교화와 규범적 위상
	淵源	家學 - 내부, 수직적	義理 - 외부, 수평적
	論據 ⁶⁰⁾⁶¹⁾	① 繼承 - 우옹의 緒餘 ② 其心如水, 其清如冰 ③ 高文大策, 師表	① 薰陶 - 구암과 번암 ② 義理秉執, 牢確剛方 ③ 頽波之砥柱

59) 이와 동시에 서원 궤철이라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림 사회의 일종의 ‘방어 기제(防禦機制)’라는 현실적 성격도 함께 지닌다.

60) 海左 丁範祖의 추배 논거 - ① [繼承] 가학으로 우담 정시한의 학통을 이어 유업을 지킴 ② [人格] 물과 얼음과 같은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갖추 ③ [師表] 뒤

특히 한치응의 추배는 정시한 학맥의 내부적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당대의 보편적 윤리로서 의리 수호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서원의 담론적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궁극적으로 정범조와 한치응에 대한 추배는 상호(相互)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정범조의 추배가 정시한 학맥의 연속성과 내부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한치응의 추배는 그 학맥이 지향하는 유학적 의리를 당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광암서원’은 정범조를 통해 학문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한치응을 통해 시대적 규범의 보편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선 후기 유학 공동체 내에서 확고하고 지속 가능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광암서원의 추배는 학문적 정통성과 사회적 공인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方便)이었으며, 학문적 계보의 내부적 결집과 사회적 영향력의 외부적 확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17세기 성리학자 우담 정시한(丁時翰)을 주벽으로 배향한 광암서원을 핵심 사례로 설정하고, 서원 명칭의 변천 과정과 후대 추배 인물 선정의 복합적 배경을 문헌 기록과 사료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 서원 궤철과 신설 금령이라는 시대적 제약 속에서 향촌 유림이 서원의 정통성 확보와 영속성을 관철하기 위해 구사했던 고도의 제도적 노력을 서원의 변천사 속에서 밝혀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어난 문장과 경륜으로 후세의 모범

- 61) 粵山 韓致應의 추배 논거-① [學文] 구암과 변암의 훈도로 학문의 깊이를 더함
② [志撰] 의리를 굳게 지킨 ‘의리병집 뇌확강방’의 선비 정신 ③ [道義] 쇠락의 풍속을 이겨낸 ‘퇴파지지주’의 표상

광암서원 명칭의 변천은 서원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점과 현실적 생존 전략의 조화라는 후기 서원사의 복잡한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명칭인 ‘도동(道東)’은 정시한의 도학적 정통성에 근거한 도통 계승의 이상을 전면으로 내세웠으나, 다른 지역 서원들의 동일 명칭 사용으로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자, 원주 유림은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최종 명칭인 ‘광암(廣巖)’은 정시한의 학문적 근거지이자 평소 발길이 닿았던 고유 지명에서 연원(淵源)한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사상적 이상 대신 배향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이 깃든 장소를 통해 서원의 지역적 권위와 영속성을 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규명하였다. 주벽 정시한 외에 해좌 정범조(丁範祖)와 병산 한치응(韓致應) 두 인물을 추배한 과정은 ‘광암서원’이 학문적 정통성과 사회적 규범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시한은 퇴계 이황의 리(理) 철학을 심화하여 독향의 학문적 정당성을 확고히 했다. 이후 진행된 추배 논의는 회통(回通)에서 보듯, 경향의 유림과의 동의를 얻는 필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정범조의 추배는 정시한 현손으로서 학맥의 ‘수직적’ 가학(家學) 계승을 통해 학파적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으며, 한치응의 추배는 당색이 극심했던 시기에 의리(義理)의 모범을 보인 인물로서 서원의 담론적 범위를 ‘수평적’ 확장하고 보편적 윤리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과 대외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였다. 이처럼 광암서원은 ‘광암(廣巖)’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통해 정체성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범조의 학맥 계승과 한치응의 의리 수호라는 상보적인 두 논리를 통해 내부적 안정과 외부적 포용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후기 서원 운영의 전략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광암서원에 관한 향후 연구는 명칭 및 배향 인물 변천 과정에 내재된 당대 유림의 학문적·정치적 고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광암서원이 퇴계학과(退溪學派)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과 정시한 학맥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원의 명칭 변경과 추배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했던 문인 및 지역 유림 간의 편지나 일기 등 미시적인 사료의 발굴을 통해, 논의의 구체적인 정황과 숨겨진 맥락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高宗太皇帝實錄』

李 滉, 『退溪全書』

丁時翰, 『愚潭集』

丁時翰, (影印)『愚潭全集』, 成均館大學校大同文化研究員, 1985.

丁時翰, (國譯)『愚潭全集』, 羅州丁氏月軒公派宗會, 2007.

蔡彭胤, 『希菴集』

丁範祖, 『海左集』

丁熙祖, 『鶴龜齋遺稿』

丁若鏞, 『與猶堂全書』

丁義輦, 『希賢遺事』

姜敦錫, 『典故大方』

金正浩, 『東輿圖』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定求, 『四千年文獻通考』

國學振興院, 「京中章甫回通」(通文0087)

羅州丁氏大宗會, 『羅州丁氏族譜』(己卯譜)

韓國書院聯合會, 『韓國書院總覽』, 2011.

2. 논저

금장태, 『退溪學派와 理 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기열, 「愚潭과 茶山에 대한 一研究」, 『東國史學』, 20호, 1986.

김낙진 외, 『愚潭과 道東書院』, 우담정시한선생기념사업회, 2019.

김성찬, 『原州誌』, 乾·坤·坎·離, 원주시, 2003.

김우형, 「愚潭 성리학의 특징과 大山 李象靖에 미친 영향」, 『한국철학논집』, 26호, 2009.

김은철 편저, 『원주지명총람』, 원주시역사박물관, 2019.

리기용, 「우담 정시한 성리학의 연원과 전개」, 『溫知論叢』, 온지학회, 2010.

안유경, 『퇴계학파의 심성론』, 심산, 2016.

- 안재순, 「朝鮮 後期 實學派의 思想的 系譜」, 『동양철학연구』, 12호, 1991.
- 유명중, 「丁愚潭 研究」, 『논문집』, 경북대학교, 1958.
- 유명중, 『우담 정시한』, 한길사, 1996.
- 유봉학, 『조선 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 이가원, 『退溪學及其系譜的研究』, 퇴계학연구원, 1989.
- 이상익, 『嶺南性理學研究』, 심산, 2011.
- 이우성, 『한국 고전의 발견』, 한길사, 2000.
- 정범진, 『줄포 안협택 가족 문집』, 삼보기획, 2002.
- 정범진, 『耀宗紀實』, 동문선, 2012.
- 정호훈, 「朝鮮後期 丁時翰의 학문과 그 영향」, 『韓國思想史學』, 31호, 2008.
- 채무송, 『退溪 栗谷哲學의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2.
- 최민홍, 『한국철학사』, 성문사, 1981.
- 최영진, 『조선조 유학 사상사의 양상』,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최영진, 『한국철학사』, 새문사, 2009.
- 최영진 外, 『愚潭의 性理學 辨證』, 우담정시한선생기념사업회, 2017.

Abstract

A Study on the Naming(名稱) and Enshrinement(配享)
of Gwangam Seowon(廣巖書院)

Jung Won-young*

This study focuses on Gwangam Seowon, which enshrines the 17th-century Neo-Confucian scholar Udam Jung Si-han(愚潭 丁時翰, 1625-1707) as its primary enshrined figure(主壁). The research aims to historically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the academy's name and the origins of its final name, 'Gwangam'(廣巖) through archival analysis. Furthermore, it illuminates the academy's standing and the patterns of its academic lineage by reviewing the subsequent process of additional enshrinements(追配).

The transition of Gwangam Seowon(廣巖書院)'s name symbolizes a strategic balance between the dual functions of a Seowon : a place for academic cultivation(藏修之所) and a place to commemorate a sage's legacy(杖履之所). While the initial name, 'Dodong'(道東) reflected the ideological ideal of inheriting the orthodox Neo-Confucian tradition, it faced identity confusion due to the name's universality. In response, local Confucian scholars adopted 'Gwangam'—a geographical symbol associated with Jung Si-han's actual activities—as the final name, thereby clarifying the academy's regional authority and distinct identity.

Moreover, the additional enshrinement of Jung Beom-jo(丁範祖) and Han Chi-eung(韓致應) demonstrates a sophisticated strategic choice to secure both

* Sungkyunkwan University's Ph.D. in Oriental Philosophy / apriorij@skku.edu

academic legitimacy and social normativity. The enshrinement of Jung Beom-jo solidified the vertical continuity of the family's academic lineage(家學), while Han Chi-eung's enshrinement horizontally expanded the academy's discursive scope by embracing the universal ethics of righteousness(義理). Ultimately, this study elucidates the active survival strategies of late Joseon Seowons by analyzing how Gwangam Seowon achieved the dual goals of internal solidarity and external expansion.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 complex history of Gwangam Seowon's name and resolving the ambiguity surrounding its origin, this research clarifies the academy's historical background and symbolism. It holds significant value in identifying the dynamic institutional efforts used to maintain legitimacy amidst the structural crises of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 : Jung Si-han(丁時翰), Jung Beom-jo(丁範祖), Han Chi-eung(韓致應), Dodong(道東), Gwangam(廣巖), Enshrinement(配享)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부평향교의 역사적 변천과 운영의 실상

임 근 살*

- I. 머리말
- II. 부평향교의 건립과 변천
- III. 부평향교의 운영과 실상
- VI.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부평향교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고, 그 운영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평향교가 수행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근대이행기에 나타난 부평향교의 변화와 운영의 실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고문서를 비롯하여 「西齋節目」, 「校宮節目」 등 부평향교 운영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평향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유교적 교화의 중심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도덕적 규범을 유지·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교의 절목과 규정이 국가의 學政 체계가 지방으로 투영되는 핵심 매개였음도 밝혀졌다. 그러나 근대기에 접어들며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해 향교의 기능은 크게 축소되었고, 그 전통적 역할 또한 점차 약화되었다. 본 연구는 부평향교를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지역 사회의 질서와 문화를 구성한 제도적 기반으로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향교와 관련한 공간과 제도의 역사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부평향교, 교공절목, 서재절목, 창씨개명, 근대이행기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조교수 / lims23@dankook.ac.kr.

I. 머리말

富平郷校는 고려시대에 설립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교화와 인재 양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교육·학술 기관이었다. 조선 전기 부평향교는 都護府의 官學으로 기능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병화로 소실되었으나 숙종대에 중건되었다. 조선 후기 부평향교는 지역사회 내에서 예적 질서를 유지하고 강학 활동을 주관하는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부평향교는 校生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부평향교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며 역사적 변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부평향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부평향교의 연혁을 밝히는 논문이 있을 뿐이다.¹⁾ 그러나 선행연구는 부평향교의 실질적인 운영 양상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치 및 의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연혁을 고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부평향교의 실제적인 규모와 운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향교에 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여 부평향교의 설립 배경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²⁾ 또한 본 연구에서

1) 구자혁, 「富平郷校考」, 『기전문화연구』 22·23,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94 ; 최미진, 「부평향교의 연혁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 윤희면, 「朝鮮後期郷校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신동훈, 「조선 초기 향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이와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 향교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 성과도 참조할 수 있다(김희주, 「조선후기 인천의 향교와 유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덕진, 「고흥(高興) 향교(郷校)의 존성계(尊聖契)」, 『역사학연구』 67, 호남사학회, 2017 ; 김자운,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 김문준, 「상주향교 사회교육 활성화 및 운용방안」, 『우계학보』 38, 우계

는 기존 학계에 발표되지 않았던 고문서 및 고도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부평향교의 운영 실상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부평향교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부평향교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는 데 최종적인 목적을 둔다.

이 글의 분석 자료는 부평향교의 重修, 경제적 기반, 인물 등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靑衿錄』, 『田畓衿記』, 『校宮節目』, 『西齋節目』, 懸板, 『富平鄉校誌』 등이다.

Ⅱ. 부평향교의 건립과 변천³⁾

1. 고려시대의 부평향교

고려시대 부평은 樹州라는 지명이었고, 몇 차례 변화를 겪으며 원 간섭기에 현재의 지명으로 정착하였다. 고려 成宗은 수주에 團練使를 두었고, 이후 顯宗이 知州事라 수정하였다. 고려 毅宗은 安南都護府를 설립하였고, 高宗은 이를 桂陽으로 수정하였다. 원 간섭기에 忠烈王이 吉州牧으로 승격시켰고, 忠宣王은 부평으로 개칭한 후 강등하여 府로 하였다.⁴⁾

성종은 12牧에 지방 학관으로 經學博士 1명, 醫學博士 1명씩을 파견하였다.⁵⁾ 이를 통해 고려시대 지역의 관학이 성립한 것이다.⁶⁾ 고려 초기 지방의

문화재단, 2020 ; 최영갑, 「鄉校의 配享 設位와 儀禮禮節의 現代的 조명」, 『우계학보』 38, 우계문화재단, 2020.).

3) 부평향교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은 선행연구(윤희면, 앞의 논문(1989) ; 구자혁, 앞의 논문(1994) ; 최미진, 앞의 논문(2007) ; 신동훈, 앞의 논문(2021).)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學校謄錄』과 『富平鄉校誌』, 『校宮節目』, 重建記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9, 京畿 富平都護府.

5)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丁亥 6年.

호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지방 교육 기구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로 유교 사상을 확대 보급하여 지역민을 교화시키고, 인재를 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⁷⁾ 다만, 부평지역은 그 규모가 牧에 해당하지 않아 시차를 두고 향교가 건립되었을 것이다.

부평향교는 1127년(고려 인종 5)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⁸⁾ 위치는 수주의 鎭山인 桂楊山 남쪽 기슭 深逸里(현 부평초등학교 후면)였다. 이 시기 부평지역은 ‘樹州’라고 명칭하였기에 향교의 명칭도 수주향교였을 것이다. 그리고 원 간섭기 충선왕 시기에 지명을 부평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고려 충선왕 시기부터 이후 조선시대까지 부평향교라 명칭되었다.⁹⁾

고려시대 부평향교는 관료의 8품 이하의子和庶人이 주로 입학할 수 있었다. 7품 이상 관료의 아들은 원하면 입학을 허락하였다.¹⁰⁾ 무신집권기 문벌 귀족층이 몰락하고, 신분 질서가 동요하자 인종 이후 양민 이상의 鄉衆子弟

6) 현재 사료에서 고려시대 향교가 확인되는 건은 총 35개소이며, 경기도의 5개소 중 부평향교도 확인된다. 분포 양상을 통해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향교의 존재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주현에는 향교가 모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신동훈, 앞의 논문(2021), 22~24쪽).

7) 宋春永, 「高麗時代 鄉校의 變遷史의 考察」, 『歷史教育』 41, 역사교육연구회, 1987, 49쪽.

8) 『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88쪽.

9) 향교는 문묘에서 성현에 대한 석전의례를 지내고, 명륜당에서 강학 활동을 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향교의 교육기능을 약화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성균관을 없애고 총독이 관할하는 경학원을 설립하였다(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1993, 119~120쪽). 이후 총독부는 향교의 재산을 관유화하였다(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태동고전연구』 3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35쪽). 또한 지역의 향교도 문묘에서 석전의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 자체적인 강학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이 시기 향교는 문묘로 불렸으며, 부평과 문학의 문묘가 併合되어 仁川文廟로 불렸다. 하지만 부평향교의 유구한 역사를 기준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부평향교로 명칭하겠다.

10) 『高麗史』 卷74, 志28 選舉2 學校條, “...律學書學筭學 皆隸國子學律書筭及州縣學生 並以八品以上子及庶人爲之 七品以上子 情願者聽...”

가 관학에 입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에서 향교의 모든 재정을 지원하지 못하였기에,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인층의 자제는 입학이 힘들었다. 따라서 향교에 입학하였던 교생들은 지역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보유한 향리층의 자제들이었을 것이다.¹¹⁾ 고려시대 향리층은 지방 호족에 뿌리를 둔 경우가 많아서 지방의 관인을 배출하고, 혼맥으로 중앙의 관료 연결된 존재였다. 더욱이 무신집권기 중 최씨정권 시기에는 향리 출신의 문인들이 대거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무신정변으로 인하여 기존 관료와 문인들이 낙향하였고, 신진문인의 양성하기 위해 향리의 자제가 중앙 관직에 종사하였던 것이다.¹²⁾ 더욱이 고려말기의 지배층은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리학과 관학에 주목하였다.

고려 말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지배 이념을 피지배 계급에게 가르쳤다. 즉 고려 말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을 수용한 지배 계급이, 성리학의 民本 이념을 활용하여 피지배 계급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도, 효·충 이념을 피지배 계급에게 가르쳐 안정적인 지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굳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관학 체계를 복구하고 성리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조선이 건국된 후 관학 정비로 이어졌다.¹³⁾

2. 조선시대의 부평향교

조선시대의 부평향교는 지역민의 교화를 담당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학술기관으로 기능하였다. 조선시대 부평은 행정제도상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11) 宋春永, 「高麗時代의 鄕校 教育政策」, 『歷史教育論集』 11, 역사교육학회, 1987, 87쪽.

12) 羅格淳, 「高麗鄕吏의 身分의 特性과 그 變化」, 『史學研究』 45, 한국사학회, 1992, 66쪽.

13) 신동훈, 앞의 논문(2021), 16~18쪽.

1438년(세종 20) 국왕 세조는 富平府를 縣으로 강등하였다가,¹⁴⁾ 8년 후 다시 都護府로 승격시켰다.¹⁵⁾ 1505년(연산군 11)에는 환관 김순손을 처형하면서 부평 출신인 것을 문제 삼아 부평도호부를 혁파했다.¹⁶⁾ 하지만 중종시대에는 부평부사를 제수한 기록이 있어, 다시금 府로 승격된 사실이 확인된다.¹⁷⁾ 이후 조선후기 1895년(고종 32)에는 부평군으로 강등되어 인천 관찰부에 예속되었다.¹⁸⁾

조선의 건국 이후 향교를 통해 성리학과 유교 질서를 지역에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향교는 지방민의 문화거점지로서의 역할과 향촌의 자치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¹⁹⁾ 더욱이 조선 전기부터 향교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였고, 고려시대 건립된 향교가 이어지고 있었다.²⁰⁾ 따라서 고려시대 건립된 부평향교가 부평지역의 학문적 거점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倭亂과 胡亂은 향교의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양란으로 인해 중앙의 성균관과 四學에서도 학생을 찾기 힘들었고, 공간도 파괴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쟁 이후 고갈된 국가재정은 지역의 향교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지역의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향교의 복설과 중건 작업이 진행되었다. 향교는 지역의 교화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학술기관이었기에 지역사회에서 향교의 복설은 시급한 사항이었다.

부평향교는 임진왜란 시기 성현의 位版을 숨겼다가 환안하여 보존할 수 있었다. 당시 부평향교의 교생이었던 박무영, 박대충, 이언복 등이 대성전의 위

14) 『世宗實錄』 卷83, 世宗 20년 11월 8일(戊子).

15) 『世宗實錄』 卷114, 世宗 28년 11월 10일(甲戌).

16) 『燕山君日記』 卷59, 燕山 11년 8월 24일(丙子).

17) 『中宗實錄』 卷1, 中宗 元년 10월 13일(戊午).

18) 『高宗實錄』 卷33, 高宗 32년 5월 26일(丙申).

19) 이동기, 「조선시대 관학의 교육정책 연구」, 『교육철학』 23, 교육철학학회, 2003, 125~126쪽.

20) 신동훈, 앞의 논문(2021), 30~35쪽.

판을 숨겨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향교로 다시 還安하였다. 이에 공을 인정받아 그 자손들에게 참봉첩을 내려주었고 부역 등을 면제해주었다.²¹⁾ 하지만 文廟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이후 부평향교는 이진하여 복설하였다. 아래는 『學校謄錄』의 부평향교 관련 기사이다.

예조의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 장계를 살펴보니. ‘부평부(富平府) 향교(鄉校)가 원래 예전 터가 아니고 바로 임진(壬辰) 병란(兵亂)을 겪은 뒤 초창(初創)한 땅인데, 지세가 낮고 습하여 매번 기울어지니, 예전 터 동쪽 가에 깨끗하고 건조하며 단단한 땅이 있으니 이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사(府使) 구문제(具文濟, 1625~1674)가 사실대로 논보(論報)하였고, 도사(都事) 윤진(尹鎭, 1631~1698)이 본 바도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향교의 이진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대개 풍수에 현혹되는 폐단을 막고자 해서인데, 만약 지세가 불편한 점이 있어 꼭 이진해야 되는 경우라면 또한 반드시 일례(一例)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묘(聖廟)를 이진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대하니, 감사가 직접 살펴서 계문(啓聞)한 뒤 품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위의 기사는 1668년(현종 9) 11월 23일에 논의된 부평향교의 이진과 관련된 기록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부평향교를 이진하여 복설한 곳이 지세가 낮고 습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래 터의 동쪽으로 이진하려는 동향을 부사 구문제가 논보하였고, 도사 윤진도 이 상황을 확인하였다. 원칙적으로 향교의 이진은 불허하지만, 부평향교의 지세가 불편한 점으로 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 이후 기사가 없어 향교의 이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부평향교는 병자호란시기 다시 소실되었다. 1636년(인조 14) 발발한 병자호란으로 부평향교의 대성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를 본 宋琬은 성현의

21) 『富平郡邑誌』(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소장본, K2-4241). “學校 鄉校 在府西 壬辰倭亂時 校生朴茂榮朴大忠李彥馥等三人 奉聖殿位版藏于桂陽山簍中 事定後還安 其時隣邑 皆失位版 而本邑獨車此保全 隣邑之改 奉安者 皆來取規制事 聞並授參奉帖 子孫至今免役.”

位版을 수습하여 간재울(私齋)로 이동했다가 징맹이 고개(景明峯)을 넘어서 公村洞의 평야에 숨겼다. 그 후 1688년(숙종 14)에 문묘를 중건하고, 공촌동에 숨겨놓았던 성현들의 위패를 다시 還安하였다.²²⁾ 이후에도 부평향교는 여러 차례 重修 과정을 거쳤다. 1853년(철종 4) 향교 일곽(명륜당, 동·서무, 명륜당, 동·서재실, 전사청, 주감방, 체문, 수복방, 담장 등) 및 문묘를 중수하였다.²³⁾

1864년(고종 1) 흥선대원군은 전국 서원의 철폐를 명령하였다. 이와 대별하여 관학을 흥기시키기 위하여 전국 각지의 향교를 중수하였다. 또한 향교의 강학 활동을 위하여 문벌과 인망 그리고 학식이 있는 자로 校任을 선정하였다.²⁴⁾ 1871년(고종 8) 부평향교에서도 전체적인 중건이 있었다.²⁵⁾

이후 甲午改革으로 예조가 폐지되고 學務衙門이 창설되면서 학부는 별도의 신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로써 성균관이나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학부의 개설 이후로 성균관 및 향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균관과 향교는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신학교에 빼앗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정책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었던 비중이 급속도로 격감되었다. 그리하여 1907년에는 학부 내에 아예 성균관과 향교를 전담할 부서를 없애고, 1908년에는 학무국내 제일과라는 하위부서에 향교의 업무를 다른 부대 업무로 처리함으로써 구교육의 세력을 의도적으로 축소 외면하였다. 또한 실제 향교의 교생들까지 차츰 향교를 떠나게 되었다.²⁶⁾

22) 『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89쪽.

23) 「富平聖廟重修記」(1853) ; 「桂陽聖廟重修記」(1853). 부평향교의 중수와 관련된 기록은 명륜당의 현판으로 현존한다. 이후 논문에서 논거로 활용하는 중수기는 「기문명」(연도)로 표기하겠다. 중수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 부평향교 중건 및 수리 양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24) 「校宮節目」.

25) 「鄉校重修記」(1907).

26) 강대민, 「한말 향교유림의 동향 연구 - 영남지방 향교를 중심으로」, 『부산사학』 17, 부산경남사학회, 1987, 8~12쪽(최미진, 앞의 논문(2007), 재인용).

하지만 이 시기 부평향교는 그 기능과 운영이 단속되지 않았다. 부평향교는 1904년(고종 4, 광무 8)에도 대성전과 동·서무, 내삼문과 담장 등을 중수하였다.

“군에 향교가 있고 나라에 학교가 있음은 선사(先師)를 석전제례를 지내고 사모하며 선비들이 그윽히 배우고 닦는 곳이다. 내가 신축년 겨울에 이 고을에 부임하여 대성전을 공경하여 배알하고 차례로 동무 서무를 봉심하니, 즉 비가 섰 흔적이 있고 재우(齋宇)가 비뚤어지고 문과 담이 무너져서 그를 주선해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인데 민망하고 탄식할 뿐으로 있었다. 이듬해 추향(秋享) 때에 여러 선비들과 교궁 수리할 것을 의논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일은 크고 무력하니 어떻게 경영해야 완결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봉성하는 정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존성하는 뜻이 과단성 없이 방황만 하고 있다가 혹 게을러질까 걱정이 되어 삼가 보조금을 마련하였다. 드디어 경영할 재정을 구변하여 가지고 향교 임원에게 부탁하여 재료를 절제하고 역사를 감독하게 함에 먼저 내삼문을 정비하고 추위를 만나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듬해 봄에 정사에 보고하고 해서 관청 기와를 청하여 옮겨다 쓰기로 허가를 받고 본 고을 중에 자원하여 보조하겠다는 자가 또한 여러 사람이 있어 여러 달을 지내지 않고 공사를 마쳤는데 기둥이 빛나고 비바람이 걱정 없으며 행단에 색채가 완연하고 제기의 모양은 화나무로 만들어 환하고 아름답다. 거문고와 글 읽는 소리도 듣기 좋다. 아! 천지가 오래됨에 이 도가 깨지지 않고 높은 선비들이 성현을 사모하고 존경하지 않는 자 없고 계속하여 이것을 헐어진 데와 깨어진 기와를 쫓아다니며 보수하니, 즉 문묘의 체모가 빛나고 성현을 사모하는 정성의 발로가 만세를 가도 한결 같을지니 이 어찌 세교의 문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 용렬한 사람이 실상을 기록하여 후에 오는 사람에게 보이고 일러둬이다.”²⁷⁾

27) 「光武甲辰重修」(1904). “郡之有校 卽國之有學 釋奠先師 爲士林藏修之所也 余辛丑冬來守是土 祇謁大成殿歷拜東西廡 仍爲奉審 則多有滲漏之痕 齋宇欹仄 門墻頽圯 其在周旋之地不勝憫歎 至翌年秋享 會諸章甫議 及修理之舉 咸曰事鉅力綿 何以經紀 然而在余非特奉先之誠 其於尊聖之意 罔敢或懈 謹纔捐助 遂謨鳩 辦托于校任節材董役 先整內三門而遇寒且止 乃茲春殷報于京師 請得廢瓦移用焉 本鄉中自願補助者 亦有數人 未踰數月工告訖 棟楹增輝 風雨攸除 文杏古檀苑 然俎豆之容綠槐新市美哉 絃誦之聲 嗚呼 天地悠久斯道 未泯圓冠 方領無不慕聖 而尊賢誦茲 以往隨毀隨葺 則廟貌奕奕 羹牆之見 萬世如一日 豈非有補世教之文明乎哉 茲庸記實以示來有云爾. 光武八

부평향교는 향교의 침체기에도 향교를 중건하였다. 1904년 군수 成輔永(1845~?)²⁸⁾ 부임 후 향교를 拜謁한 후 낙후된 건물을 확인하였다. 다음 해 고궁을 수리하기 위해 보조금을 조달하였고, 관청의 기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건물의 수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묘의 祭器를 해나무로 새로 제작하여 釋奠儀까지 신경을 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중수는 都有司 趙熙龍과 沈魯興과 嚴柱冕이 감독하였다. 부평향교는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역사를 이어나갔다.

3. 일제강점기의 부평향교

일제강점기의 성균관은 총독부에 의해 점차 국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더불어 일제에서 감행한 군현개편²⁹⁾은 향교로 하여금 郡學이자 鄉學으로서의 지위도 모호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향교 소유의 學田을 환수하였기에 향교의 경제적 기반은 소멸되었다.³⁰⁾ 또한 조선 총독부는 1911년 12월 28일 조선총독부령 제127호에 의해 종래의 ‘향교직원’을 ‘문묘직원’으로 직명을 변경시키고 각 문묘에 직원을 1명씩 두었다. 그리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일은 부윤, 군수, 도사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담당했다.³¹⁾ 따라서 향교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들을 이제 일제의 간섭

年甲辰八月 日 知郡 成輔永 都有司 趙熙龍 監董 沈魯興 監董 嚴柱冕.”

28) 성보영(成輔永, 1845~?)은 창녕성씨로 1885년(고종 22) 식년시 생원 3등으로 급제한 기록이 있다(『송정기원후5을유식년사마방목(崇禎紀元後五乙酉式年司馬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B13LB-5])). 해당 기록을 통해 생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 서현주, 「일제의 지방행정구획 개편의 내용과 성격 - 1914년 서울의 町洞개편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3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 272~273쪽.

30) 鄭景柱, 「韓末 鄉校儒林集團의 歷史的 性格」, 『어문학연구』 12, 한국어문교육학회, 1990, 85~86쪽 ;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태동고전연구』 3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참조.

31) 최미진, 앞의 논문(2007), 18~19쪽.

하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1914년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개항장만 인천부에서 관할하고, 이외의 지역은 부평군이 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부평향교는 존속이 위태로웠으나, 계속해서 지역의 관민이 힘을 합쳐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 때에 쓸 돈을 해마다 점점 줄여서 정치의 도를 배우고 닦지 못하니 선비의 풍습이 침식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모든 선비가 오히려 공부자의 송법하심을 잊지 않고 봄과 가을에 항상 석채를 올리고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폐하지 아니하고 성전과 명륜당이 헐어진 데를 따라 보수하였다. 뒤에 개혁할 때를 당하여 향교 토지가 관청 장에 속하게 되고 관으로부터 주는 재정은 겨우 석전 제사 비용에 충당할 뿐이다. 실상 다른 재정이 없이 십여년을 지냈다. 해가 오래되어 무너지고 풀이 뜰에 가득하여 동쪽이 무너지고 서쪽이 무너졌는데 영선할 방도가 없어서 왼쪽으로 버티고 바른쪽으로 지탱하여도 담장이 무너져 길 가는 사람이 다칠까 걱정이 되고 또한 아차하면 고을 전체가 치욕을 받을 지경이었다. 이에 고을 중에서 뜻있는 신사가 있어 마음과 힘을 합하여 재물을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끝나치니 기둥과 전우가 옛 모습과 같고 동계를 수리하고 기와를 이었으며 서무는 새로이 지으니 정교하고 치밀하여 환하게 빛나고 진실로 단청이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사치하지도 않고 검소하지도 않으며 거의 성현을 사모하고 높이는 성심이 나타나고 하느님께서 이 글을 해하고 계시지 않음을 또한 징험할 수 있다. 대저 근 십년이나 경황이 없던 일이 일조에 빨리 성사가 되니 이 누구에 힘이겠는가. 군수장이 열심히 극력 주선한 덕분이다. 이에 용렬한 이 사람이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에게 보이고 성현을 사모하는 뜻을 본 받게 하기 위하여 일러둔다.”³²⁾

- 32) 「桂陽聖廟重修記」(1921). “時之用世及漸 降學政不修儒風浸衰 然諸生猶知誦法孔子 春秋尚設釋菜 朔望不廢焚香 聖殿倫堂隨毀隨補 後值改革之際 校士盡屬元帳 自官量給享費 僅充俎豆之實 無他財政爾來十有餘年矣 歲久壞敗春草滿庭 東顏西祀 果無營繕之方 左撐右支 恐有岩墻之慮行路 亦爲咨嗟鄉邑俱受耻辱 於是郡中有志之紳士 同心協力 鳩財庀工 盡一朔而工告訖 上棟下宇仍舊貫 而修葺東庀西廡初新制而精緻輪奐焉 苟美苟完丹雘焉 不侈不儉庶 可見尊慕之誠心 而天地未喪斯文亦可驗也 大抵近十稔未遑之事 一朝倏然而成 繫誰之力也 郡守丈熱心督勵極力周旋之所致也 茲庸識之以示來裔俾 爲效慕之意云爾 辛酉 八月 既望 晉山 柳承茂 記 直員 南廷協 掌議 李升憲·鄭泰魯·李秀俊 監督員 朴周淳.”

위 柳承茂의 기문을 보면 1921년 부평향교가 명륜당과 문묘 일원을 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수 서정악은 지역의 여러 선비가 성금을 자진해서 헌납하여 부평향교의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³³⁾ 이때 부평향교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향교의 학전은 관청에 소속되었고, 관에서 주는 자금으로는 춘추 석전의례에 소모되는 비용을 겨우 충당하면서 10여 년을 보냈다고 한다. 부평향교는 1933년과 1937년, 1940년에도 향교를 보수하였다.³⁴⁾ 특히 1933년의 중수는 약 430여 명의 기부자 명단을 모두 밝히고 있어, 부평지역 전체의 유림이 향교의 중수에 열의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³⁵⁾

1940년 부평향교는 부평문묘라 불리며 文鶴文廟와 함께 仁川文廟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 인천부역이 확장되면서 문학면의 일부 등 4개의 면이 인천부에 편입되었고, 부평지역도 대부분 통합되었다. 더욱이 1943년 당시 인천 부윤이었던 일본인 永井照雄이 하나의 부 안에 2개의 향교가 불필요하다 하여 文鶴과 부평을 합쳐 인천문묘로 만들었다.³⁶⁾ 이와같이 일제강점기 부평향교는 지역의 학문적 중심지라는 지위가 약화되어 갔다. 거기에 향교의 교생들도 創氏改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³⁷⁾ 이를 통해 부평향교와 지역의 유림도 일제강점기 고난을 겪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³⁸⁾

33) 「辛酉重修」(1921).

34) 「癸酉重修」(1933) ; 「文廟重修記」(1937) ; 「文廟重修記」(1940).

35) 「文廟修繕義捐錄」(1933).

36) 구자현, 앞의 논문(1994), 18쪽.

37) 『靑衿錄』(1943).

38) 현재의 부평향교는 1946년 인천향교와 분리된 후 인천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향교의 직원은 典校로 개칭하고 掌議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부평향교의 석전의례도 현재는 春亨大祭만 봉행하는 상황이다.

Ⅲ. 부평향교의 운영과 실상

부평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부평지역의 정치·사회·사상적 중심 기관으로 기능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부평향교의 운영 양상과 그에 나타나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의 지원 양상³⁹⁾

향교는 국가에서 각 지역에 설치한 官學으로 고려시대부터 지원이 있었다. 고려시대는 3京과 12牧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였고, 고려 인종 시기에 여러 州에도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반포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부평향교는 樹州의 학교로 국가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고려시대는 명문화된 지원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고, 부평향교의 국가지원은 조선시대부터 확인할 수 있다.

〈표 1〉 조선시대 향교의 학전과 학노비 지원

구 분 ⁴⁰⁾	학전[學田, 결(結)]				학노비[學奴婢]		
	태종		세종	성종	태종13년 호(戶)	태종17년 구(口)	경국 대전 명(名)
	양전 (襄田)	제전 (祭典)					
유수관(留守官)	50	6	15	10	20	30	30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40	4	10	10	15	25	25
도호부(都護府, 유(有))	15	4	4	10	10	20	20
도호부(都護府, 무(無))	10	4	4	10	10	20	20
군(郡, 유(有))	15	4	4	7	7	15	15
군(郡, 무(無))	10	4	4	5	7	15	15
현(縣)	10	4	2	5	5	10	10
개성부(開城府)	20	6	20				

39) 부평향교의 국가적 지원 양상에 대한 내용은 『경국대전』과 선행연구(이명화, 앞의 논문(1993) ; 신동훈, 앞의 논문(202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조선은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郡縣까지 향교를 설립하였다. 더욱이 향교의 운영을 위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먼저, 향교의 건축물을 설치·보수·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향교 敎授官의 후생비, 교생들의 숙식비, 학업 활동에 부수되는 제반 비용,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준행되는 석전례·향음례 등에 이르는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조선왕조는 지역까지 균질한 유학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이른바 學田과 學奴婢를 공급하였다.

부평향교는 부평도호부의 관학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먼저, 조선평향교는 부평도호부의 관학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먼저, 조선평향교는 부평도호부의 관학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먼저, 조선평향교는 부평도호부의 관학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태종시기 도호부는 총 19結, 세종시기 4결, 성종시기 10결로 학전의 지원 규모가 규정되었다. 또 학노비도 도호부의 경우 10戶에서 20口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부평향교는 국가의 재정적 기반하에 안정되게 조선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1484년(성종 15)에는 「諸邑鄕校給田節目」을 제정하였고, 이 절목은 이후 1492년에 반포된 『大典續錄』의 기반이 되어 戶田의 학전조에는 성균관을 비롯해서 주·부·군·현 등에 각각 400결·10결·7결·5결씩을 지급하여 收稅하여 그 재정수요를 수령에게 검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향교의 재정은 개국 초로부터 향교에 급여된 位土 전답의 수세 외에도 지방관이 분급한 전곡 및 徭役 그리고 향교에 비축된 전곡의 식리로 충당되었다. 이후 영조시기 『續大典』에 의하면 각 州·府의 향교는 7결, 郡縣의 향교는 5결의 학전이 관에서부터 지급되었다. 또한 지역 유림의 기부 등으로 향교에 부속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향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전의 소출을 관리하고, 문묘의 春秋享祀에 사용되는 경비의 재원도 향교의 재산에서 지출되었다.⁴¹⁾ 따라서 조선후기 부평향교는 5결 이상의 학전을 보유하고, 향교의 대소사에 필요한 경부를 지출했을 것이다.

국가에서 향교 교생의 강학을 위해 교관을 파견하였다. 『경국대전』에는

40) ()의 유무는 교수관의 유무를 나타낸다.

41) 이명화, 앞의 논문(1993), 105쪽.

향교의 교수관을 중6품 教授와 중9품 訓導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군현은 약 330여 개 소에 달하였으나 수령을 파견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던 조선초기에는 교수관의 충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세종시대에는 교도를 파견하고 교관직을 확대하였으며, 성종 시기에는 교수와 훈도로 양분화하여 운영하였다.⁴²⁾ 이처럼 국가에선 교육을 위해 재정 및 교관들을 지원하였고, 서적도 보급하였다. 주로 『小學』, 『四書五經大全』, 『性理大全』, 『通鑑綱目』 등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서적이었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향교에 지원하는 권리 중 교생의 免役이 있었다. 향교의 校生은 예비 관인으로서 향교에서 經學과 詩文, 史書 등을 수학하였다. 교생들의 사회적 신분은 평민부터 양반에 이르렀고, 그들은 軍役을 면제받아 과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각 향교마다 행정구역에 등급에 따라서 교생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었다. 자세한 교생의 정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

구 분	태종	경국대전
유수관(留守官)	50	90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40	70
도호부(都護府, 유(有))	40	70
도호부(都護府, 무(無))	40	70
군(郡, 유(有))	30	50
군(郡, 무(無))	30	50
현(縣)	15	30
개성부(開城府)	15	30

이를 보면 도호부에 해당하는 부평향교의 교생은 태종시기 40명에서 『경국대전』에는 7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생의 숫자는 『경국대전』에서 재조정된 후 조선후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교생 중 日講·月課에 우등한 사람은 戶役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학

42) 신동훈, 앞의 논문(2021), 64~106쪽.

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생원·진사시의 회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전도 부여받았다. 따라서 관학인 부평향교의 교생이라는 신분은 과거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수 많은 이점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지원 양상은 향교 운영과 관련된 고문서 및 현판 자료 등을 통해 실체가 확인된다.

2. 향교 운영의 실상과 변화

부평향교의 운영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19세기 이후 자료가 대다수이다. 해당 자료를 통해 향교 건축물의 수리 과정, 학전의 규모, 새로운 규정의 제정, 청금록의 변화 등을 알 수 있다. 먼저, 부평향교는 19세기 이후 중건한 기록을 현판으로 다수 보존하고 있어 향교 건축물의 수리와 중건 과정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3〉 부평향교 중건 및 수리 양상

	시기	서명	저자	개요
1	1853년 9월	富平聖廟重修記	徐用輔	향교 일괄 보수 (명륜당, 동·서재 등)
		桂陽聖廟重修記	柳濟東	문묘 일괄 보수
2	1871년	鄉校重修記	權謙壽	향교 일괄 보수
3	1904년	光武甲辰重修	成輔永	향교 일괄 보수 (대성전, 동·서무 등)
4	1921년	辛酉重修	徐廷岳	향교 일괄 보수 (담장, 단청 등)
		桂陽聖廟重修記	柳承茂	향교 일괄 보수 (담장, 단청 등)
5	1933년	癸酉重修		향교 일괄 보수 (대성전, 동·서무 등)
		文廟修繕義捐錄	鄭春錫	1933년 보수 당시 기부자 명단
6	1937년	文廟重修記	鄭芝錫	향교 일괄 보수
7	1940년	文廟重修記	宋淳貞	향교 일괄 보수 (외삼문, 고직실 등)
8	1960년 7월	奉納校田讚		이흥식 찬(학전 기부)
	1961년 11월	奉獻誠金讚		최종철 찬(성금 기부)

9	1966년	富平文廟重修記	權奭奎	향교 일과 보수 (대성전, 내·외삼문 등)
10	1970년	富平鄉校重修記	成宗鎬	향교 일과 보수
11	1978년	富平鄉校補修記	權奭奎	향교 일과 보수 (환경정비 공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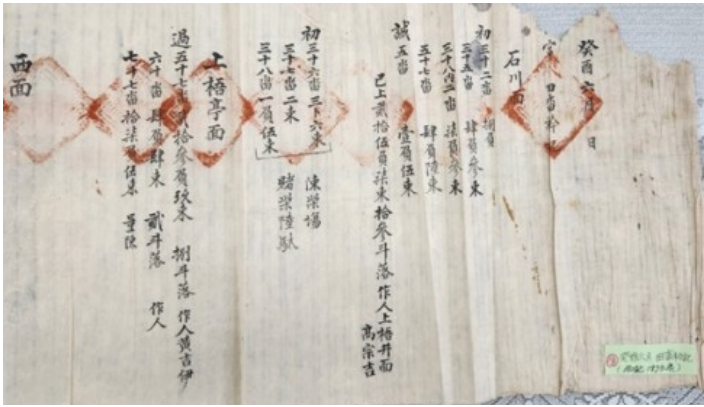
위 표를 보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부평향교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차례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부평향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향교를 증진할 때 지역민의 기부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중심 기구로서 자리했던 부평향교의 위상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중건과 관련한 기사를 통해 부평향교의 교생과 관련한 기록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왜란과 호란이 발발하였을 때 부평향교의 위패를 수습한 공이 있는 교생들이었다. 이들은 李彦復, 朴義榮, 金應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언복과 박의영은 ‘부평고를 사람이다. 그는 소년시절 부평향교 교생이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란에 향교가 화재가 나니 그는 동료들과 함께 향교 위패를 계양산 산굴에 숨겨놓았다. 난이 평정된 후 다시 향교로 불안하자 유림들이 크게 칭찬하여 나라에 보고하였다. 그에게 生員의 벼슬을 내리고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⁴³⁾ 또한 김응신은 “김응신은 교생이다. 어버이를 섬김에 지극히 효도하다가 병자호란을 당하여 어머니를 업고 달아나니 도적이 급히 쫓아 왔다. 모자가 다 살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어머니를 피하게 하고 두 손으로 적에 갈을 당하여 적이 길을 차단하여 응신이 마침내 죽고 어머니는 화를 면하였다. (인조께서) 들으시고 정려를 내리셨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⁴⁴⁾ 이외에도 여러 인물이 확인되나 관련 자료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의 실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43) 이훈의, 『인천의 姓氏·人物考』,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1, 144쪽.

44) 『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300쪽.

다음으로 19세기 부평향교에서 소유한 전답의 규모를 살펴보자. 이는 癸酉年인 1873년(고종 10) 6월 작성된 「田畓衿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⁴⁵⁾



〈사진 1〉 부평향교의 「田畓衿記」

위의 「전답깃기」는 부평향교가 소유한 토지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부평향교가 소유한 전답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19세기 부평향교의 전답 현황

소재지	자(字)	답(畓)/전(田)	부(負) 속(束) 두락(斗落)	비고
석천면	초(初)	32답	8부	25부 7속 13두락지, 작인은 상오정면의 고종길(高宗吉)이다.
		35답	4부 3속	
		38 내 2답	7부 3속	
		57답	7부 6속	
	성(誠)	5답	1부 5속	시지(柴地)
	초(初)	36답	3부 6속	
		37답	2속	
상오정면	과(過)	38답	1부 5속	
		57답	23부 9속 8두락	작인은 황길이(黃吉伊)이다.
		60답	4부 4속 2두락	작인
		77답	17부 5속	

45) 「田畓衿記」(1873년, 부평향교 유림회관 소장본).

서면	하(夏)	17전	1부 9속	채소(菜蔬)
		21전	9속	채소(菜蔬)
		22전	7속	
		22전 내 3전	2부 2속	도태(賭太)의 세는 3두(斗)이다.
		22전 내 4전	4속	
		23전	6속	
		25전	4부 6속	채소(菜蔬)
		26전		
		27전	2부 4속	채소(菜蔬)
		29전	1부 6속	
		28전	9속	도태(賭太)의 세는 1두(斗)이다.
		24전	4부 8속	향교의 기지(基址)
동면	우(宇)	38답	1부 2속	도태(賭太)의 세는 3두(斗)이다.
		32답	11부 4속	시지(柴地)
	주(宙)	33답	1부 7속	
		34답	1부 6속	
		35답	3부 8속	
	왕(往)	15답	8부 7속	
	진(辰)	22답	16부 8속	
	현(玄)	105전	15부 1속	옛 향교의 기지(基址)
		106전	30부 ?속	
		107전	36부	
		108전	12부 4속	
		108전 대 2전	9속	
	지(地)	116전	20부 7속	도조(賭租)의 세는 14두(斗)이다.
모월곶면	재(載)	41답	6부 8속	도조(賭租)의 세는 10두(斗)이다.
		42답	7부 8속	
		43답	1부 4속	
황어면	사(沙)	21전	4부 3속	도조(賭租)의 세는 3두(斗)이다.
		27답	1부 3속	
		21 내 3전	9속	
		내	3부 7속	
	현(玄)	27전	5부 3속	도조(賭租)의 세는 15두(斗)이다.
	우(宇)	58전	3부 ?속	
		60전	12부	
		50전	8부 8속	

위의 표를 통해 부평향교 소유의 전답이 石川面,⁴⁶⁾ 上梧亭面,⁴⁷⁾ 西面,⁴⁸⁾ 東面,⁴⁹⁾ 毛月串面,⁵⁰⁾ 黃魚面⁵¹⁾ 등지에 산개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18세기 제작된 『廣輿圖』의 富平府 지도에서 부평향교와 전답이 위치한 면을 표기한 것이다.⁵²⁾

이를 통해 부평향교가 소유한 전답이 조선시대 부평부의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 부평향교의 토지를 소작한 인물도 확인되었



<그림 1> 「광여도」 부평부

다. 상오정면의 高宗吉은 석천면 초자 논 32, 35, 38, 57 등과 성자 논 5에서 모두 25부 7속 13두락지를 소작하였다. 상오정면의 과자 논 57은 黃吉伊라는 인물이 소작하였다. 그리고 柴地 즉, 땔감이나 菜蔬로 향교에 납부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더불어 각각의 구역을 나누어 해당 구역에서 賭太와 賭租로 받

-
- 46) 1906년 석천면은 읍치에서 남쪽으로 15리에 위치해 있었고, 231戶가 거주하였다(『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276쪽. “石川面 南距十五里 二百三十一戶”).
- 47) 1906년 상오정면은 京에서 20리에 위치해 있었고, 185戶가 거주하였다(『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276쪽. “上梧亭面 京距二十里 一百八十五戶”).
- 48) 1906년 서면은 읍치에서 남쪽으로 5리에 위치해 있었고, 181戶가 거주하였다(『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275쪽. “西面 南距五里 一百八十一戶”).
- 49) 1906년 동면은 읍치에서 동쪽으로 5리에 위치해 있었고, 174戶가 거주하였다(『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275쪽. “東面 東距五里 一百七十四戶”).
- 50) 1906년 모월곶면은 읍치에서 서쪽으로 20리에 위치해 있었고, 354戶가 거주하였다(『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276쪽. “毛月串面 西距五里 三百五十四戶”).
- 51) 1906년 황어면은 읍치에서 북쪽으로 15리에 위치해 있었고, 310戶가 거주하였다(『富平鄉校誌』, 회상사, 1987, 276쪽. “黃魚面 北距五里 三百十戶”).
- 52) 『廣輿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58.

이야 하는 세를 기록하였다.⁵³⁾ 다만 전답 문서에서 사이사이 글자가 결락되어 있거나, 빈칸을 두고 표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19세기 부평향교에서 소유한 전답의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다. 이후 추가적인 고문서 발굴이 있어야 부평향교 학전의 전모를 보다 온전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1910년 토지조사부와 지적원도의 분석을 통해 20세기 초 부평향교의 대지와 학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초 부평향교는 총 31필지 17,664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부평도호부 읍치에서 국유지 다음으로 큰 집단 소유였으며, 향교 운영을 위해 전형적으로 구축된 전답 기반 재정 구조를 보여준다. 부평향교의 垞地는 상동에 3필지 1,682평으로 향교 건물인 대성전·명륜당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田은 상동에 19필지 8,682평, 밭은 하동에 6필지 4,387평이었다. 이러한 학전은 부평향교가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답·대지 구성은 전국 향교들의 일반적인 재정 구조와 동일하며, 부평향교가 조선 말기까지 안정적인 토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⁵⁴⁾

19세기 조선의 정치적 문제와 사회모순, 신분제의 변화는 부평향교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향교의 西齋 교생들에 대하여 새로운 節目이 만들어진 점이 주목된다.

“대저 서재와 상민들과 다른 것은 그들이 유관과 유복을 입고 성묘를 높이고 숭상함이다. 매호에 잡역에 이르러서 혼잡하여 다른 것이 없으면 그 서재에 있는 자가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느냐. 고로 여러 차례 관가에 호소하여 이미 허락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말뿐이고 사령배들이 곡식을 달라고 보쳐서 서재생이 자퇴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성묘를 높이 받들고 거행함에 누구를

53) 賭太는 賭地太를 말하고, 도조는 賭地租를 말한다. 둘 다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의 소작 형태에서 수취되는 정액 지대를 뜻한다. 즉, 다른 사람의 논밭을 빌려서 소작을 하고 그 稅로 해마다 내는데, 이때 콩 또는 벼로 냈다.

54) 조정규, 「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토지이용과 소유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40-2, 경인교육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 2019, 참조.

믿고 할 것이냐. 문제가 되어 한 고을 사람들이 누차 재회를 갖고 흥금을 터놓고 상의한 결과 공사 양편이 편리할 도리를 강구하여 서재는 74원(員)으로 하여금 각자가 20냥씩 돈을 내서 합 1480냥을 사령청에 내어주고 이후로는 제반 잡역을 서재생한테 부과하지 말 것

- 一, 동네에서 면, 마포를 영영 걷지 말 것
- 一, 환자를 면해줄 것(환자: 還穀)
- 一, 호별 부역을 길이 빼줄 것
- 一, 양화나루 배삐를 받지 말 것
- 一, 병역을 빼줄 것
- 一, 사령이나 종들이 곡식을 꾸어 달라지 말 것
- 一, 각 동네일에 가담하지 말게 할 것⁵⁵⁾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부평향교의 서재 교생들은 常民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문제가 되었다. 서재의 교생들은 상민인 평민이었으나 관학의 학생으로 免役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신분제의 동요로 인해 양반과 상민의 구분도 모호해진 시기에 서재의 교생은 여러 役으로 곡식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절목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역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제반잡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還子(환곡), 戶별 부역, 양화나루 배삐, 군역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평향교는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모두 74명의 서재 유생이 20냥씩 각출하여 1,480냥을 사령청에 납부하고, 향후엔 제반 잡역을 면제받는 권리를 획득받은 것이다.

이처럼 부평향교에서 서재 교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동요되고 있던 지역

55) 「西齋節目」. “大凡西齋之異於常民者 爲其冠有服有尊崇聖廟也 至於煙戶雜役混合 而無別則其爲西齋者寧不冤抑乎 茲古呼訴于屢等官家 既承許施之題音 而獨以使令輩乞穀一欸事西齋 至有自退之境 則聖廟之尊奉舉行將復賴誰乎 一鄉士林屢次齋會爛漫相議 至有公私兩便之道 使西齋七十四員各出錢二十兩 合壹仟肆佰捌拾兩出給使令廳而從今以後 諸般雜役 勿侵于西齋等事. 一, 洞布永頃事 一, 還上頃免事 一, 戶役永頃事 一, 楊花津米永頃事 一, 騎兵番軍勿侵事 一, 奴令輩乞穀物侵事 一, 各洞領所任勿侵事. 光緒十四年戊子八月 日 府使.”

사회의 신분질서를 강화하였다. 부평향교는 19세기에도 여전히 부평지역의 정치·사회적 중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시행된 후 부평향교에도 『교궁절목』이 내려와 지역사회의 학술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정비하였다.

“이제부터 각 고을의 향교[校宮] 중 황폐하고 무너진 곳은 모두 수리하여 새롭게 단장하여 사람(士林)의 의지하여 돌아올 만한 곳으로 삼도록 한다. 향교의 임원은 관청에서 반드시 선발하되 명문 중에서 경력이 있고 덕망이 높은 스승과 어른을 가려서 술선수범할 자에게 직책을 맡겨야 한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설법하고 강학함에 주자(朱子)의 「백록동규(白鹿洞規)」에 따라 월강(月講)과 일과(日課)를 시행하여 사람을 크게 진흥할 수 있다. 백성의 준수한 젊은이들이 집집마다 글 읽는 소리를 내고 문마다 인의·예의의 실천이 있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알게 되면 풍속이 새로워지고, 혼란의 사설과 폭행으로 인심이 구렁에 빠졌던 것을 봉쇄함을 가히 볼 것이다. - 중략 -

지역에서 명망과 학술을 갖춘 자가 향교 직임에 선발되면 각 고을에서 명단을 정리하여 책으로 꾸미고 보고하게 할 것이다. 만약 새 인재를 기르고 백성들의 교화 성적이 우수한 자가 있으면 그 이름을 기록하여 표창하니 이는 조정에서 마땅히 시행할 법도이기도 하다. 이 글을 돌려 각 향교에 게시판으로 붙여 항상 경계하고 살피는 규정으로 삼게 하며 또한 교시는 두고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글로 써서 하달하라. 도내 각 관장들은 명심하고 똑똑히 알아서 앞으로 맡은 바 일을 철저히 행할지이다.”⁵⁶⁾

위의 인용문을 보면 점차 향교의 역할이 약해지자 관학의 흥기를 추구한

56) 『校宮節目』, “自今各其邑校宮之荒廢頽圯處 一並修治而改觀 爲士林依歸之地 而校任則自官必擇古家名閥中 幼經飭行 爲一鄉之望 可以師長之人 委之以導率之責 然後說法講習 一遵朱夫子白鹿洞規 月講日課 丕興士林 凡民俊秀 家有鉉誦之聲 戶服仁義之行 咸知孝於親 忠於君 風俗於變 將見比屋之可封 而邇來邪說暴行 陷溺人心 人心陷溺 則殆爲夷狄禽獸之歸矣 豈不大可憂懼 今欲息邪說 莫如明正學 明正學之本 惟在於興學校 學校興 則人倫明於上 民親於下 治化之隆 不外乎是 有國大政 自昔伊然 而尤爲目下之最急先務是如乎 有地望學術 人士之差出校任者 自各其邑 這這修成冊報來爲旂 若其作新人材 蔚其成效者 則錄名掄刻 亦係朝家應行之典也 將此闕辭 俾各板揭于校宮 以爲常目警省之地 亦教是置 並以文移爲去乎道內各官 良中明知委向事.”

대원군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원군은 향교를 수리하고 ‘士林의 귀의처’로 재건할 것과 校任으로 지역의 명망 있는 인물을 선발할 것, 주자의 「白鹿洞規」에 따라 月講과 日課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더욱이 이런 과정을 통해 향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조정이 표창할 것임을 밝히고, 이상의 절목을 향교에 게시하여 항상 경각시키도록 하였다.

이후 부평향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다. 일제강점기 부평향교는 경제적 기반이 학전을 빼앗겨 재정이 축소되었고, 군현의 통폐합으로 문학의 문묘와 合併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시대상은 지역사회에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향교의 대사소를 관장했던 유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일제에 의한 創氏改名이었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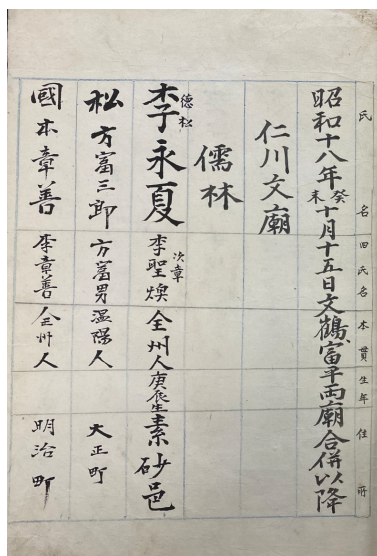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부평향교의 교생들은 姓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게 되었고, 이는 1943년의 『靑衿錄』에도 반영되었다. 부평향교에서는 약 7종의 『청금록』을 소장하고 있다. 부평향교의 『청금록』은 丙寅(1686년 이후 改修), 癸酉(1753년), 癸丑(1853년), 丙申(1896년), 戊辰(1928년), 癸未(1943년) 등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改修된 『청금록』이 다수 있어, 실제 작성 연대는 19세기 이후로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이다. 부평향교의 『청금록』은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약 700명 이상의 인명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本貫, 生年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이사이 결락되고 削籍된 인명도 다수 있어 전체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글에선 부평향교의 『청금록』 중 명확하게 인명과 貫鄉이 기재되어 있고, 創氏改名의 양상이 확인되는 일명 ‘癸未座目’을 중심

57) ‘창씨개명’은 氏를 새로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는 뜻으로 1940년대의 이른바 內鮮一體 정책 중 가장 잘 알려져있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을 주목한 연구(이대화,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승실사학』 26, 승실사학회, 2011) 등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향교의 청금록에서 창씨개명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평향교에서 소장한 청금록의 전모를 분석하여 교생의 변화 추이와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58) 『靑衿錄』(1943년, 부평향교 유림회관 소장본.).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3년(昭和 18년) 10월 15일 부평향교는 문학문묘와 합병되어 인천문묘가 되었고, 이때 유림의 명단을 『청금록』으로 남겼다.⁵⁹⁾ 이 『청금록』에는 부평향교의 교생들이 창씨개명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향교 유생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청금록』이 단순한 유생 명단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즉, 부평향교의 『청금록』은 근대 식 민통치 아래에서 창씨개명한 사실과 같은 새로운 역사의 단면까지 드러내



〈사진 2〉 『청금록』(1943)⁵⁸⁾

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청금록』에는 모두 45명의 인물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본관도 다른 일본식 성씨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5〉 1943년 부평향교 청금록 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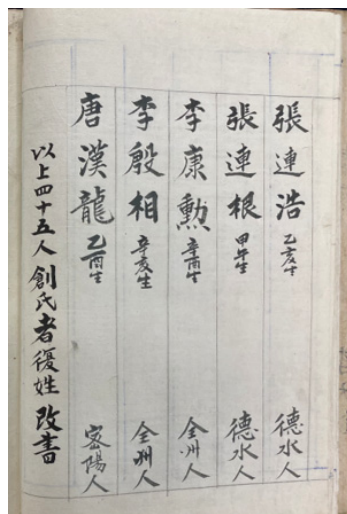
	氏名	旧氏名	本官	生年	住所
1	李德松永夏	李聖煥	全州人	庚辰生	素砂邑
2	松方富三郎	方富男	溫陽人		大正町
3	國本章善	李章善	全州人		明治町
4	富田演鵬	李演鵬	桂陽人	庚寅生	鶴田町
5	金岡頭儀	金頭儀	金海人	乙卯生	吾丁面若大里
6	石原敬造	石福均	忠州人	甲午生	大正町
7	岩本富雄	李潤雨	慶州人	壬午生	明治町
8	松山海運	李海運	全州人	乙亥生	吾丁面若大里

59) 『靑衿錄』(1943년, 부평향교 유림회관 소장본). “昭和十八年[癸未十月十五日] 文鶴富平面兩廟合併 以降仁川文廟.”

9	松山震秀	李震秀	全州人	甲申生	吾丁面若大里
10	河本相道	河相道			淺間町
11	錦川齊文	朴齊文	潘南人	丙申生	吾丁面大北里
12	錦川勝德	朴勝德	潘南人	辛丑生	〃
13	武山相善	崔相善	江陵人	丙申生	〃
14	桑村命烈	金命烈	慶州人		黑田町
15	永嘉榮澤	權榮澤	安東人	丁未生	桂陽面轟室里
16	丹村基弘	禹基弘	丹陽人		素砂邑
17	富川博行	尹順東	坡平人	庚子生	大正町
18	張村春言	張春言	仁同人	乙酉生	玄武町
19	三綿享善	文享善	南平人	己亥生	村上町
20	岩本元雨	李元雨(順仁)	慶州人	壬午生	玄武町
21	金本紅煥	金紅煥	慶州人	己未生	素砂邑
22	金本建洙	金建洙	蔚山人	戊子生	井上町
23	岩村鉞	許鉞	陽川人	壬申生	李家町
24	宮本鼎夏	李鼎夏	全州人	辛卯生	黑田町
25	宮本殷讚	李殷讚	全州人	戊戌生	黑田町
26	宮本殷衡	李殷衡	全州人	癸卯生	黑田町
27	米原賢新	李賢新	延安人	丙戌生	井上町
28	米原薰德	李薰德	延安人	乙丑生	井上町
29	米原昌揆	李昌揆	延安人	甲午生	井上町
30	佳山吉成	崔吉成	全州人	戊申生	黑田町
31	佳山吉俊	崔吉俊	全州人	辛酉生	黑田町
32	佳山吉順	崔吉順	全州人	癸丑生	黑田町
33		李根學	全義人	乙未生	黑田町
34	中山載燁	李載燁	全州人	丙申生	白馬町
35		金顯昌	金海人	甲申生	李家町
36	米原庸德	李庸德	延安人	丁酉生	井上町
37	玉川洪祚	流洪祚	江陵人	乙巳生	壽町
38	曲阜喜範	孔喜範	曲阜人	戊子生	蘇業面 蛇川場
39	金光永奎	金永奎	光山人		鵲田町
40	松山淳吉	俞鳳淳	杞溪人	戊寅生	吾丁面 鵲里
41		張連浩	德水人	乙亥生	井上町
42		張連根	德水人	甲午生	井上町
43		李康勳	全州人	辛酉生	鵲里洞
44		李殷龍	全州人	辛亥生	素砂邑
45		唐漢龍	密陽人	乙酉生	兵居里

앞의 사진 2와 표 5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부평향교 인물들의 창씨개명 이름, 원래 이름, 본관, 생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全州 李氏인 이성환과 이장선은 각기 ‘德松’과 ‘國本’으로 개명하였고, 이후 다른 전주 이씨 중 ‘宮本’, ‘米原’으로 개명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의 거주지 역시 확인되는데, 이 역시 일본식 행정구역의 명칭인 大正町, 明治町 등으로 기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청금록』에는 모두 45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씨개명한 인원 수는 38명이며, 미실시 또는 기록이 없는 경우로 보이는 인물은 7명이다. 전주 이씨 10명(2명 개명기록 없음), 온양 방씨 1명, 계양 이씨 1명, 김해 김씨 2명(1명 개명기록 없음), 충주 석씨 1명, 경주 2씨 2명, 하씨 1명(본관 표기 없음), 반남 박씨 2명, 강릉 최씨 1명, 경주 김씨 2명, 안동 권씨 1명, 단양 단씨 1명, 파평 윤씨 1명, 인동 장씨 1명, 남평 문씨 1명, 울산 김씨 1명, 양천 허씨 1명, 연안 이씨 1명, 전주 최씨 3명, 전의 이씨 1명(개명 기록 없음), 강릉 유씨 1명, 곡부 공씨 1명, 광산 김씨 1명, 기계 유씨 1명, 덕수 장씨 2명(개명 기록 없음), 밀양 당씨(개명 기록 없음) 1명이다. 따라서 전주 이씨를 제외하고선 특정 본관이 다수를 내세워 주도적으로 향교를 운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년의 干支로 볼 때 1870년에서 1920년대 출생자들이 다수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거주지는 黑田町에 7명과 井上町에 5명 등 많은 인원이 살았고, 吾丁面 若大里, 素砂邑, 大正町 등도 3명 이상 거주하였다.



〈사진 3〉 『청금록』(1943)60

60) 『靑衿錄』(1943년, 부평향교 유림회관 소장본).

부평향교는 이후 이상 45명의 창씨개명자를 모두 復姓하여 다시 『청금록』을 작성하였다. 이처럼 부평향교는 창씨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조리한 상황에서 관에 대한 보고 등을 위해 창씨개명된 『청금록』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 해당 인물의 성씨를 바로 써 새로운 『청금록』을 제작했던 것이다.

즉, 부평향교의 『청금록』에 창씨개명된 명단이 남아 있는 것은 향교가 일제 당국과의 보고·관리 체계 속에서 공식 문서를 유지·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식민 정책과 현실적 압력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유생 명부를 넘어서 당시 향교 구성원들이 직면했던 식민지적 제약과 부조리한 구조를 기록한 사료적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겠다.

IV. 맺음말

이 글은 부평향교의 건립과 역사,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치와 의의를 조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부평향교는 고려시대 건립되어 조선시대 도호부의 관학으로써 높은 위상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그리고 부평향교는 지역의 교육과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국가적 관학 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다. 부평향교는 『경국대전』을 통해 70명의 교생 정원을 확정받았고, 교수관의 파견과 여러 성리학 서적도 하사받아 지역의 대표적인 학술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부평향교는 조선초기부터 일정 규모의 學田과 學奴婢를 지급받아 그 수익을 재정의 기초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글에서 분석한 부평향교의 고문서 자료를 통해서 소유한 전답의 규모와 분포, 소작인, 수입 내역 등이 확인되었다. 부평향교의 학전은 부평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또한 부평향교의 학전을 소작하는 인물과 賭太와 賭租의 내역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향교에 땀감이나 채소로 납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부평향교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운영 체계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부평향교에서는 19세기 중후반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세기 사회적 모순이 극심하고, 신분제가 동요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평향교도 사회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免役의 권리를 가졌으나 신분적으로 常民에 해당하는 西齋의 교생들이 雜役に 시달리는 모습이 사료에서 확인되었다. 부평향교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즉, 서재의 교생들이 사령청에 일정액(1인 20냥)을 납부하고, 이후의 잡역을 면제해주도록 하였다. 즉, 사회모순과 신분제 동요에서 부평향교 구성원인 서재 교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였던 것이다. 이는 나아가 부평향교가 해당 시기에도 지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술기관이었던 점을 상기시킨다. 또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시행된 이후 부평향교는 재정비의 시간을 거쳤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부평향교의 가장 큰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발생하였다. 부평향교는 문묘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문헌문묘와 함께 인천문묘로 합병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일제의 침탈과 억압이 점차 더 극심해지면서 부평지역의 유림들도 창씨개명과 같은 식민통치의 압력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였다. 부평향교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금록』을 작성하여 창씨개명한 인물 45명의 인적 사항을 수록하였다. 이 『청금록』에는 개명한 이름, 옛 이름, 생년, 본관,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유생 명단의 기록이란 점을 넘어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아마도 향교는 이러한 자료를 관청에 보고하거나 관리상의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평향교는 이후 이름을 개명한 인물들에 대해 復姓 처리한 새로운 『청금록』을 작성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극심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부평향교가 현실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신분과 신원을 관리하려 했던 노력을 보여준다.

부평향교는 지역의 관학으로서 釋奠祭와 鄉飮酒禮를 주관하였고, 이에 대

한 笏記 등이 남아있다.⁶¹⁾ 이 두 의례는 조선시대 지역의 수령이 禮治로써 지역민을 교화했던 대표적인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향음주례는 행사의 규모와 재정적 이유로 실제로 거행된 경우가 드물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경우도 더욱 희귀하다.⁶²⁾ 따라서 부평향교의 유교의례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복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또 『청금록』의 경우도 추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평향교의 『청금록』은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전시기에 걸쳐 약 7종이 남아 있고, 각기 45명~700여 명의 인물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많은 향교와 서원에서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⁶³⁾ 하지만 각 기관에서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부평향교의 『청금록』을 분석하여 강학과 운영에 실제 참여한 인물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소재를 개발하여 문화유산 및 문화콘텐츠 활용사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1) 부평향교에서 시행한 유교의례와 관련한 홀기 등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부평향교의 유림회관을 통해 존재 여부만 확인하였다.

62) 김문식, 「1807년 경상감사 尹光顔의 鄉飲酒禮」,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사학회, 2018.

63) 김유리·김성수, 「지역문화교육을 위한 김산향교(金山鄕校)의 스토리텔링 제안」,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 노수경, 「디지털 큐레이션의 현황 및 금오서원 적용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5,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5 ; 맹영일,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그 경계를 허물다 -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98, 한민족어문학회, 2022 ; 이형렬, 「제주도 정의향교의 유교문화경관에 대한 공간분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 최영갑, 「鄕校의 配享 設位와 儀禮禮節의 現代의 조명」, 『우계학보』 38, 우계문화재단, 2020 ; 한중완·정성임,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방안: 광주향교와 회경루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9-3,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2 ; 황태희·최희수, 「향교·서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활용 방안-유교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4.

마지막으로 부평향교는 원형을 복원하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부평향교는 외삼문과 홍살문 사이에 도로가 있고, 그 규모 역시 매우 축소되어 부평향교의 격에 맞는 의례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평향교의 원형을 복원할 방안과 함께 인근의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1. 원전

『廣輿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58.

「校宮節目」(부평향교 유림회관 소장본).

『富平郡邑誌』,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소장본, K2-4241.

『富平鄉校誌』, 화상사, 1987.

「西齋節目」(부평향교 유림회관 소장본).

「田畝衿記」(부평향교 유림회관 소장본).

『靑衿錄』(1943년, 부평향교 유림회관 소장본).

『學校謄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2877.

2. 논저

김덕진, 「고흥(高興) 향교(鄉校)의 존성계(尊聖契)」, 『역사학연구』 67, 호남사학회, 2017.

김문식, 「1807년 경상감사 尹光顔의 鄉飲酒禮」,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사학회, 2018.

김문준, 「상주향교 사회교육 활성화 및 운용방안」, 『우계학보』 38, 우계문화재단, 2020.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태동고전연구』 3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김유리·김성수, 「지역문화교육을 위한 김산향교(金山鄉校)의 스토리텔링 제안」,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김희주, 「조선후기 인천의 향교와 유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자운,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羅恪淳, 「高麗鄉吏의 身分의 特性과 그 變化」, 『史學研究』 45, 한국사학회, 1992.

노수경, 「디지털 큐레이션의 현황 및 금오서원 적용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5,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5.

맹영일, 「고전문화와 문화콘텐츠, 그 경계를 허물다 -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98, 한민족어문학회, 2022.

- 宋春永, 「高麗時代의 鄉校 教育政策」, 『歷史教育論集』 11, 역사교육학회, 1987.
- 宋春永, 「高麗時代 鄉校의 變遷史의 考察」, 『歷史教育』 41, 역사교육연구회, 1987.
- 신동훈, 「여말선초 향교 건립의 추이」, 『한국사학사학보』 43, 한국사학사학회, 2021.
- 신동훈, 「조선 초기 향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윤희면, 「朝鮮後期鄉校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동기, 「조선시대 관학의 교육정책 연구」, 『교육철학』 23, 교육철학학회, 2003.
-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1993.
- 이행렬, 「제주도 정의향교의 유교문화경관에 대한 공간분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 이훈익, 『인천의 姓氏·人物考』,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1.
- 장순순, 「향교소장 일제강점기 문헌 자료의 조사 현황과 과제」, 『문화와 융합』 4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鄭景柱, 「韓末 鄉校儒林集團의 歷史的 性格」, 『어문학연구』 12, 한국어문교육학회, 1990.
- 조정규, 「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토지이용과 소유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40-2, 경인교육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 2019.
- 최미진, 「부평향교의 연혁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영갑, 「鄉校의 配享 設位와 儀禮禮節의 現代의 조명」, 『우계학보』 38, 우계문화재단, 2020.
- 한중완·정성임,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방안: 광주향교와 희경루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9-3,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2.
- 황태희·최희수, 「향교·서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활용 방안 - 유교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4.

Abstrac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Operational Realities of the Bupyeong Hyanggyo

Lim, Geun-Sil*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Bupyeong Hyanggyo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to clarify the actual conditions of its operation. By reassessing the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performed by the hyanggyo, the research particularly investigates the transformations that occurr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ity. Primary sources, including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Seojae Jeolmok and Gyogung Jeolmok, were analyzed to illuminate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upyeong Hyanggyo.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hyanggyo functioned not merely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but also as a core center of Confucian moral cultivation, maintaining and reinforcing ethical norms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the hyanggyo's regulations and procedural codes served as an essential medium through which the state's educational governance (hakjeong, 學政) was implemented at the local level. However, during the modern era, its roles were significantly diminished due to Japan's colonial education policies and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This study re-evaluates the Bupyeong Hyanggyo not simply as a cultural heritage site but a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of local social order and culture, and further suggests the potential for its historical application in interpreting regional

* Danko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lims23@dankook.ac.kr

space and institutions.

Key word : Bupyeong Hyanggyo, Gyogung Jeolmok, Seojae Jeolmok, Sōshi-
kaimei (Name Change Policy),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ity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朝鮮《西岳志》編纂述略*

熊歡歡**

- I. 前言
- II. 《西岳志》版本述略
- III. 編纂緣由
- IV. 編纂特色
- V. 結語

【摘要】

朝鮮《西岳志》自1642年刊印後，至20世紀上半葉，以金庚信後裔爲代表的三賢後裔多次在1642年本基礎上增補、印刷，可分爲1907年本，1917年甲、乙、丙本，1933年本。各本之間存在較多差異。《西岳志》首編主要是出於薈萃三賢事跡及編者鄭克後不負師恩的目的。其在20世紀上半葉的多次增補、刊發，除了保存文獻的需要外，還出於彰顯家族聲望需要。總體上，《西岳志》的編纂以人物爲中心，受《伊洛淵源錄》及《名臣言行錄》的影響，具有資料意識、家族化色彩濃厚，這樣一種以人物爲中心的編纂形式在朝鮮中後期書院志中亦有體現。

關鍵詞：《西岳志》，版本，編纂緣由，編纂特色

* 國家社科基金重大項目“東亞國家書院文獻整理與研究”(23&ZD265).

** 湖南大學嶽麓書院博士研究生 / xhhlucky012408@163.com.

【국문초록】

조선의 『서악지(西岳志)』는 1642년 간행된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김유신(金庾信)의 후손을 비롯한 삼헌(三賢)의 후예들에 의해 1642년본을 바탕으로 수차례 증보 및 인행되었다. 이는 1907년본, 1917년 갑(甲)·을(乙)·병(丙)본, 1933년본으로 구분되며 각 판본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서악지』의 초간본은 주로 삼헌의 행적을 집대성하고 편찬자 정극후(鄭克後)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증보와 간행은 문헌 보존의 필요성 외에도 가문의 명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서악지』의 편찬은 인물 중심적이며,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과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의 영향을 받아 자료 의식이 투철하고 가문적 색채가 짙은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인물 중심의 편찬 형식은 조선 중·후기 서원지(書院志)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이다.

주제어 : 『서악지』, 판본, 편찬 동기, 편찬 특징

I. 前言

西岳書院, 位於今韓國慶尚北道慶州. 1561年(朝鮮明宗十六年, 明嘉靖四十年), 李滉門人、慶州府尹李楨爲紀念新羅開國公金庾信建祠堂於仙桃山下. 兩年後, 應當地士人之請, 增設弘儒侯薛聰和文昌侯崔致遠的牌位, 奉三賢於一祠, 生徒肄業其中, 命名爲西岳精舍. 後遭壬辰倭亂, 書院被毀, 後得以重建. 1623年(仁祖元年, 明天啓三年), 因府儒崔東彥疏請, 朝廷賜院額“西岳書院”, 至今仍存於世. 1642年(仁祖二十年, 明崇禎十五年), 朝鮮鄭克後首編《西岳志》, 記錄書院創建始末及奉祀人物事跡等內容. 至20世紀上半葉, 《西岳志》再次被世人關注, 多次進行增補、刊印.

最早關注到《西岳志》的學者是日本東京大學教授六反田豊, 他於2009年發表《〈西岳志〉異本考 - その概要と類型化》一文, 較爲詳細地探討了《西岳志》內容、版

本及各版本之間的區別與聯繫，共計17種18冊，分爲7種類型¹⁾。該文注意到了《西岳志》在20世紀初頻繁的出版現象，但並未深入考察其原因。2025年5月，韓國檀國大學學者林勤實發表《朝鮮時代西岳書院的建立與〈西岳志〉編纂的意義》一文，主要分析16至17世紀西岳書院的構建及《西岳志》編纂的意義²⁾。但這些研究對《西岳志》歷次編纂、刊印的原因及編纂特色討論不多。故本文擬在前人的研究基礎上，基於當前所掌握的材料，分析《西岳志》歷次增補情況，在此基礎上進一步探究其編纂緣由及特色，由此考察朝鮮書院志的編纂特色。

Ⅱ. 《西岳志》版本述略

根據日本學者六反田豐的研究，《西岳志》在1642年首修後的200余年，並無增補刊刻信息。至20世紀上半葉，尤其是日本殖民統治朝鮮後的20世紀10年代至30年代，該志在1642年版本的基礎上多次進行增補、出版³⁾。當下，限於條件⁴⁾，筆者掌握了《西岳志》崇禎十五年刊本（簡稱“1642年本”）、光武十一年刊本（簡稱“1907年本”）、大正六年刊本（簡稱“1917年本”）、昭和八年刊本（簡稱“1933年本”）。其中1917年本，有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本（簡稱“1917年甲本”）、哈佛燕京圖書館藏本⁵⁾（簡稱“1917年乙本”）及韓國國立中央圖書館藏本（簡稱“1917年丙本”）三種。以下展開述略。

1) [日] 六反田豐：《〈西岳志〉異本考 - その概要と類型化》，《朝鮮學報》2009年第211輯。2015年，該文英文版發表於《東洋文庫叢刊》，詳見：Rokutanda Y. “A Survey of Variant Versions of the Sōakchi and Their Taxonomy”,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vol.73, 2015, pp. 111-139.

2) 임근실, 「조선후기 西岳書院의 건립과 '西岳志' 편찬의 의미」, 『역사문화연구』 9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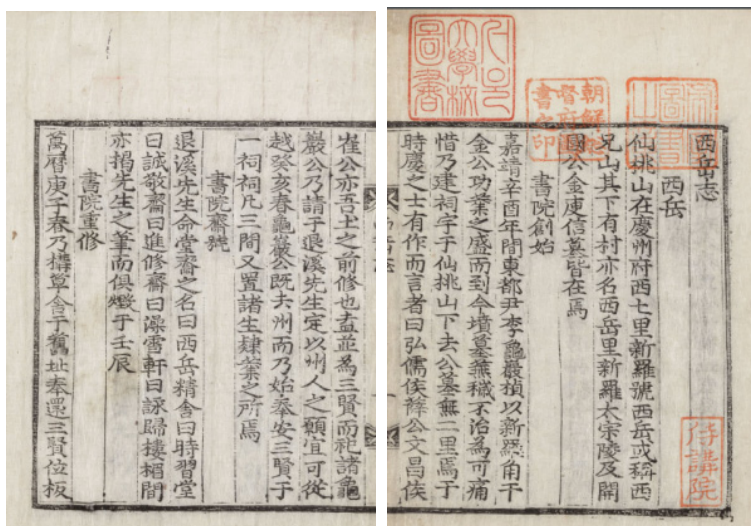
3) [日] 六反田豐：《〈西岳志〉異本考 - その概要と類型化》，《朝鮮學報》2009年第211輯。

4) 《西岳志》還有1915年光州金晷柱刊本、1925年金柄斗刊本。1915年本現藏於東國大學圖書館，1925年本現藏於韓國國立中央圖書館。因筆者目力所限，暫未翻閱，在此提出，以便後續研究者的研究。

5) 哈佛大學燕京圖書館藏《西岳志》沒有被六反田豐注意到，故本文專門提出。

1. 1642年本

1642年，朝鮮鄭克後首編《西岳志》。鄭克後(1577-1658)，字孝翼，號雙峰，烏川人，官至王子師傅，曾求學於儒學家張顯光、鄭述。⑥該書為木活字本，四周雙邊，半頁10行18字，雙花紋魚尾，不分卷，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及首爾大學奎章閣均藏有此書。1642年本主要記錄了建院始末、三賢事跡、儒臣論著、諸賢雜詠、三賢子孫、請額疏略等內容，書末有鄭克後識文。



〈图 1〉1642年本《西岳志》書影，韓國首爾大學奎章閣藏

2. 1907年本

1907年，在金庚信後裔金鍾應的主持下刊刻《西岳志》一卷。該書為木活字本，四周單邊，半葉十行二十字，雙花紋魚尾，現藏於韓國首爾大學奎章閣。書前有目錄，

⑥ 《國朝人物考》卷二《儒學》，韓國古典綜合數據庫，http://db.itkc.or.kr/inLink?DCI=ITKC_KO_C005A_V001_136H_IMG.

以便讀者查詢。正憲大夫、吏曹判書李矯翼爲之作序，金鍾應族兄金鍾煥作識文，記錄刊刻始末。李矯翼在序言中提到：

故旅軒張先生使其門人鄭克後命撰三賢事跡及建院始末，因名《西岳志》，而尚未刊佈於世矣。一日，雪城人金鍾應袖卷一書來予而囑文曰：“此書即羅代三賢實錄也，先賢旅翁編此西志而尚在草稿中，爲其後生者，孰不慨歎？因付剞劂氏云。”予亦斯誌有志未就者久矣，可謂不謀而同也。因考其享禮時笏記、陳設圖諸類，並付篇末，以爲後人之觀感焉。⁷⁾

李矯翼提到《西岳志》並未刊佈於世，且引編者金鍾應的話語“先賢旅翁編此西志而尚在草稿中”證明此事。金鍾煥在識文中亦提到“故旅軒張先生編集斯誌尚在草稿中，爲其後生者，孰不無此類之感乎？今族弟鍾應始營鋟梓。”⁸⁾強調金鍾應的首刊之功。令人難解的是，鄭克後所編的《西岳志》實際在1642年就已經刊出。爲何會出現這樣的矛盾？筆者推測，可能與1642年本《西岳志》刊印後流傳不廣相關，《西岳志》自1642年刊刻後，此後200多年都沒有再次進行增補、刊印，時隔久遠，致使李矯翼等人認爲此書“尚未刊佈於世”。但因材料所限，以上還只是猜測，後續將繼續深入研究。

相比於1642年本，1907年本增加了《西岳書院圖》《陳設圖》《御製祝文》《春秋享笏記》《享禮時會勘香祝需儀》《享禮時執事分定記》《謁廟笏記》等文章。在諸賢雜詠部分，鶴峰金誠一《謁西岳祠示院生》詩名，1907年本作“謁西岳書院”⁹⁾，還增加了徐居正《謁開國公金先生墓》和魚世謙《謁開國公金先生墓》兩首詩及《退溪先生示院生勸學文》。此外，1907年本專設“附錄”來收錄金庾信墓位的祭祀祝文及儀式，如：《開國公墓位春秋享禮祝文》《墓位陳設圖》《致祭文》《開國公墓所春秋享禮元定會勘香祝祭需儀》，由此更加凸顯金庾信的重要性。

7) 李矯翼：《序》，金鍾應：《西岳志》，光武十一年木活字本，第1頁b。

8) 金鍾煥：《識》，金鍾應：《西岳志》，光武十一年木活字本。

9) 金鍾應：《西岳志》，光武十一年木活字本，第31頁b。



〈图 2〉1907年本《西岳志》書影，韓國首爾大學奎章閣藏

3. 1917年本

1916年，金庚信後裔金德泳等人在1642年本《西岳志》基礎上進行增補內容，於次年(1917)發行，發行所為西岳書院。當前筆者掌握有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本(簡稱“1917年甲本”)、哈佛大學燕京圖書館藏本(簡稱“1917年乙本”)及韓國國立中央圖書館藏本(簡稱“1917年丙本”)三種。1917年甲、乙、丙本均為木活字本，版式一致，四周雙邊，半葉十行十八字，雙花紋魚尾。書前有李康鎬所作《〈西岳書院志〉重刊序》。

相較於1642年本，1917年甲本增補內容為《西岳書院圖》《陳設圖》《院規》《白鹿洞規》《夙興夜寐箴》《完議》及書院重修記、《書院重修上樑文》《藏書閣銘》《〈西岳書院志〉重刊跋》《小識》等內容，書末附有大正六年版權頁，著作者兼發行者為金德泳。經過文本對比，可以判斷1917年本並未在1907年本基礎上增補，兩書不存在直接聯繫。

金德泳主持增補、刊刻《西岳志》後，因鄭克後“所著樑頌文及祭告文諸篇則尤屬鄭重”¹⁰⁾，於是將這部分內容謄錄於鄭克後的識文下，同時還請鄭克後後裔鄭重雙

10) 金德泳：《西岳志》“鄭重雙謹識”，1917年，第5頁b-第6頁a，哈佛大學圖書館藏本。

作識文來記錄增補經過，附在文末。因此，1917年乙本在1917年甲本基礎上增加了《祠宇重修上樑文》《位版改題時告由文》《改題後告各位文》《祭弘儒侯文》《祭開國公文》《祭文昌公文》等文章。其增補內容的版心頁碼單獨排列。1917年乙本書末寫有“金哲坤藏”四字。金哲坤(1874-1948)，字薦按，號東樵，本貫金海，生於全羅南道泰仁縣，著名儒學家、書法家。金哲坤曾收藏《西岳志》，並在《三賢子孫》條目上寫有眉批，開頭即言“祖宗一脈，逶迤西行”，署有“東樵”二字¹¹⁾。書末還附有手書的《預言》¹²⁾一篇。

1917年丙本則分為上、下兩冊，不分卷，在1917年乙本基礎上增加了《檢護開國文瑩域文》《書院詠歸樓上樑文》及《詠歸樓重修記》。根據金海金柄斗的記錄，《檢護開國文瑩域文》《書院詠歸樓上樑文》出自朝鮮文人李採之手，因“採摭又在板完之後”，所以在原板“空斷處插入”。金柄斗承認所錄文章可能存在謬誤，“留俟後日之改本歸正”¹³⁾。

值得注意的是，1917年丙本刪去李採後裔李邁久《〈西岳書院志〉重刊跋》，增加李邁久所作識文。從文本內容看，《〈西岳書院志〉重刊跋》一文主要敘述了西岳書院的沿革歷史及重刊志書的經過，而識文則在介紹書院歷史的基礎上強調書院所祭三賢的貢獻，進而凸顯《西岳志》重刊的意義，更加體現《西岳志》的價值，其言：“欲求東土之古人風節，必於三先生而取准焉。欲求三先生事蹟，必於斯輯而觀感焉，此可見今日重輯之所係既重。”¹⁴⁾對於書籍編者而言，彰顯《西岳志》價值的識文分量很可能要比敘述刊刻經過的跋文要重，因此當重新分冊刊刻時，在兩篇文章主題相同的情況下，很有可能會選擇刪去跋文，增加識文。

11) 金德泳：《西岳志》，1917年，第37-39頁，哈佛大學圖書館藏本。

12) 《預言》內容當與風水、解掛相關。因筆者學力限制，無法全面了解《預言》內容的具體指向。

13) 《西岳志》下冊，韓國國立中央圖書館藏本，第56頁b。

14) 《西岳志》下冊，韓國國立中央圖書館藏本，第80頁。

4. 1933年本

1933年，金聖培在1917年丙本《西岳志》的基礎上重新印刷，發行所為金海金氏大同宗約所。1933年本為石印本，四周雙邊，半葉十行十八字，單黑魚尾，現藏於韓國國立中央圖書館。相較於1917年丙本，1933年本只是刪去了《西嶽書院圖》及金昌宇小識內容¹⁵⁾。

綜上，可以發現，《西岳志》自1642年刊印後，至20世紀上半葉，金庾信後裔多次在1642年本基礎上增補印刷，由此造成《西岳志》版本的豐富面貌。各本所增加內容及出版信息的不同，可分為1907年本、1917年本、1933年本，且各本之間有較多差異。詳見附錄〈《西岳志》各版本異同表〉，此不贅述。

Ⅲ. 編纂緣由

《西岳志》的編修刊印可分為兩個階段，一是1642年首編期，二是20世紀上半葉增補刊發期。而每個時間段編修的原因有所不同。

1. 1642年首編緣由

西岳書院的建立，源於李楨於金庾信墓旁建祠祭祀金庾信，後應地方人士之請，才於祠內增設慶州人士薛聰、崔致遠。三人均為朝鮮歷史上的著名人物。金庾信領兵打仗，保家衛國，統一三韓，長期被視作民族英雄。薛聰以方言解九經，教導後生，為東方經學之祖。崔致遠年少入唐，留唐十七載歸國，以文學著名。從高麗顯宗年間至朝鮮時代，薛、崔二人長期以儒臣形象從祀於文廟，在朝鮮儒學傳統中具有

15) 金聖培為何選擇刪去小識內容，因當前所掌握材料有限，無法給出恰當的解釋，尚待考察。

崇高的地位，而西岳書院作為祭祀三賢的重要空間，是記憶三賢事跡的重要場域。

然而，隨著時光的流逝，三賢事跡逐漸被後人遺忘。張顯光道：“西岳書院，祀薛弘儒、金角干、崔文昌三賢久矣，而事迹泯沒，後生莫有知者。”他指出：“三賢實迹，固不可無記。出入院中者，徒知拜謁，而不知其實跡，可乎？況傳示後學，無記而何？須當聚為一冊。”¹⁶⁾張顯光(1554-1637)，字德晦，號旅軒，師承鄭述，開創了旅軒學派，是朝鮮王朝中期著名的性理學家，著有《易學圖說》等書。因此，張顯光開始著手刊刻三賢傳，後又計畫加入建院始末。其門人鄭克後參與其中，在張氏去世後負責此項工作。鄭克後完成《西岳志》後，在書末寫識文以總結編書緣由及經過，其言：

仙桃之下，立祠建院，僅八十年矣，中罹兵燹，迭有廢興，而使人知有古之三賢，則實龜巖李相公之功也。獨其三賢行跡，或有具載於國乘者，或有散出於諸書者，其詳者太煩，略者太簡，而亦未有聚為一錄而會其歸焉。後之學者無所尋逐，以至於今泯泯也，可慨也已！克後昔嘗稟告于旅軒張先生，先生命撰三賢事蹟及其建院始末，而總名之曰《西岳志》。克後既受命而竊重其事，遷就有年。¹⁷⁾

可見，《西岳志》的編纂一方面是出於現實需要，經過壬辰之亂，西岳書院所祭祀“三賢”事跡散佚，“其詳者太煩，略者太簡”，也沒有“聚為一錄而會其歸焉”，以至於後學無所憑依，忘記三賢事跡，因此有必要收集三賢事跡為一書，便於後人了解三賢事跡；另一方面則是編者鄭克後本人的情感因素，鄭克後師承張顯光，張氏生前就有薈萃三賢事跡的行動，還鼓勵並指導鄭克後編寫《西岳志》，所以鄭克後編纂此書也是出於對老師的緬懷。

2. 20世紀上半葉增補、發行緣由

《西岳志》自1642年首刊後，在20世紀上半葉又再次增補、發行，有多個版本。其

16) 張顯光：《旅軒先生續集》卷2，《韓國文集叢刊》第60冊，第61頁b-62頁a。

17) 鄭克後：《西岳志》，1642年，第43頁，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增補、發行的背後，有著多重原因。

首先是保存文獻的現實需要。1894年春，朝鮮內部爆發東學黨起義，朝鮮政府外借清兵鎮壓起義，日本以此為由大舉出兵朝鮮。位於慶州的西岳書院亦受到戰爭影響。崔鉉軾提到：“舊有板本，弄在本院。甲午大侵後，轍佚腐敗，無復存者。”¹⁸⁾《西岳志》的刊刻版片因此散佚。再有，長期受風雨侵蝕等不可抗力因素的影響，志書“板本朽廢，遺失無復存者”。另外，自首編《西岳志》後，“而矧乎上下三百餘年之間，朝家崇獎之典，前輩重葺之蹟，又為闕略不載，文獻之缺欠，尤為章甫雲仍之所慨歎矣。”¹⁹⁾因此，在日本入侵戰爭、自然風雨侵蝕以及志書內容陳舊等現實情況下，實在是有必要重新對《西岳志》進行增補、刊刻。

其次是以金庾信後裔為代表的三賢後裔支持。20世紀上半葉，《西岳志》歷次編纂者以金庾信後裔為主，1907年本是金鍾應，1917年本為金德泳、金柄斗，參與者有三賢後裔，驪江李邁久在《〈西岳書院志〉重刊跋》中言：“由來院志一卷，即雙峰先生鄭公克後編輯，而散佚板本，有杞不足之徵。三先生後裔金德泳、崔秉權、薛東鎮慨然興感，鳩財募板，采輯補略。”²⁰⁾1933年本的主導者則是金聖培等人。編修志書傳播於世，也是一種文化資本。金海金昌宇曾言：“先祖開國公後裔德泳，所以懼其泯沒，與宗人柄斗殫誠竭力，付之剞劂，上因舊本，下增重補，其於紹先厥後，文足徵而在茲矣。豈非斯文之幸，而子孫之榮耶？”²¹⁾《西岳志》記錄了薛聰、金庾信、崔致遠的事跡，其中，金庾信所佔篇幅最多。編修、刊印《西岳志》，對於三賢後裔，尤其是金氏家族來說，不僅僅只是保存文化的需要，更是藉此彰顯祖輩榮耀，增加其家族聲望的重要手段。

金氏為朝鮮半島的大姓，是地方統治精英。然而，1910年日本迫使大韓帝國簽訂《日韓合併條約》，朝鮮半島遂淪為日本殖民地，直到日本在第二次世界大戰中戰敗，朝鮮半島才得以光復。在殖民期間，日本積極推進去朝鮮化進程，禁止在學校內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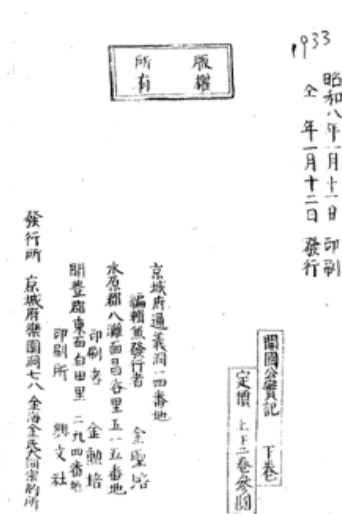
18) 金德泳：《西岳志》，1917年，第62頁a，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19) 金德泳：《西岳志》，1917年，第63頁a，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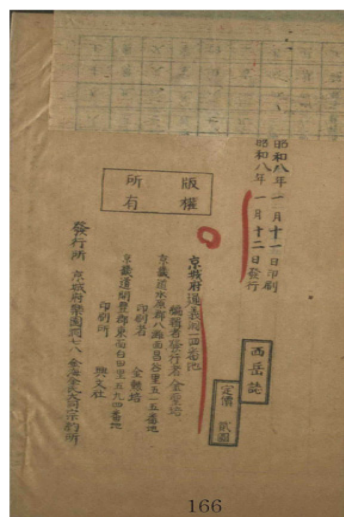
20) 金德泳：《西岳志》，1917年，第45頁b，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21) 金德泳：《西岳志》，1917年，第63頁，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用朝鮮民族語言，極大地衝擊了朝鮮傳統文化及地方社會中原有的統治秩序。在此環境下，金氏家族的地位難免不受影響，因此很可能會通過刊刻與先祖金庚信事跡相關的書籍的方式，強調先祖金庚信的卓越貢獻，以此凝聚家族記憶，維護家族的地位。例如刊印1933年本《西岳志》的金聖培，還刊印了《開國公實記》，該書版權頁內容與1933年本《西岳志》一致，唯一的不同只是售價為“叁圓”。在書末，金聖培還作識文感慨世風日下，其言：“而伏念九原難作，千秋寥寥，世級之降，至於淪喪，為先生後承者，尤不禁感涕漣漣，略敘所激於中者，用識於後裔。”²²⁾



〈图 3〉《開國公實記》版權頁



〈图 4〉1933年本《西岳志》版權頁

最後，印刷技術的發展亦不可忽視。在朝鮮時代，書籍的印刷以活字印刷為主，刊刻所需費用龐大，普通人難以承擔，因此書籍的刊刻多由政府組織進行。至1880年，朝鮮半島引入現代印刷技術²³⁾，但並未完全普及。至1910年，日本佔領朝鮮半

22) 金聖培“識文”，《開國公實記》書末，1933年，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23) 夏陽洋，蔡夢玲：《中日韓傳統書籍裝幀形式比較研究》，《古籍保護研究》2024年第3期，第153頁。

島，加速了朝鮮印刷技術的變革。筆者推測，《西岳志》在1642年首刊後兩百多年沒有再次增補刊刻，刊刻成本高很可能是重要原因之一。《西岳志》在20世紀上半葉的增補刊刻，除了保存文化及彰顯家族聲望的需要外，其背後當離不開印刷技術的發展以及印刷成本的下降。1933年本為石印本，相較於木活字本製作流程複雜、成本較大、字模遇水容易變形、印刷時字樣極易墨色不均，石版本成本低、速度快、所印字跡更加清晰。

IV. 編纂特色

總體上，《西岳志》的編纂有以下特點：

第一，以祭享人物為中心，主要選取《三國史記》《三國遺事》《東國輿地勝覽》及各類文集的記錄，並進行裁剪。截取與人物直接相關的事件，以凸顯人物形象。以金庾信入中嶽石岬學方術為例，《三國史記》卷四十一《金庾信傳》載：

公年十七歲，見高句麗、百濟、靺鞨侵軼國疆，慷慨有平寇賊之志，獨行入中嶽石岬，齋戒告天盟誓曰：“敵國無道，為豺虎，以擾我封場，略無寧歲。僕是一介微臣，不量材力，志清禍亂。惟天降監，假手于我。”居四日，忽有一老人，被褐而來曰：“此處多毒蟲猛獸，可畏之地，貴少年爰來獨處，何也？”答曰：“長者從何許來，尊名可得聞乎？”老人曰：“吾無所住，行止隨緣，名則難勝也。”公聞之，知非常人，再拜進曰：“僕新羅人也，見國之讎，痛心疾首，故來此，冀有所遇耳。伏乞長者憫我精誠，授之方術。”老人默然無言。公涕洟懇請不倦，至于六七。老人乃言曰：“子幼而有并三國之心，不亦壯乎。”乃授以秘法曰：“慎勿妄傳，若用之不義，反受其殃。”言訖而辭，行二裏許，追而望之，不見，唯山上有光，爛然若五色焉。²⁴⁾

而《西岳志》限於篇幅，則以金庾信為中心，刪去金庾信詢問老人姓名的問答話

24) 金富軾著，楊軍校勘：《三國史記》卷41《金庾信傳》，長春：吉林大學出版社，2015年，第602-603頁。

語，載：

公年十七，見麗、濟、靺鞨侵軼國疆，慷慨有削平之志，獨入中嶽石窟，【今斷石山】齋戒告天誓之曰：“敵國無道，爲豺虎，以擾我封域，略無寧歲，惟是一介微臣，不量材力，志清禍亂，惟天降監，假手於我。”居四日，忽一老人被褐而來，曰：“此多毒蟲猛獸，可畏之地，貴少年爰來獨處，何也？”公再拜，曰：“僕新羅人也，見國之讎，痛心疾首，故來此，冀有所遇耳。伏乞長者憫我精誠，授之方術。”老人默然，公懇請不倦，至于六七。老人乃言曰：“子幼而有并三國之志，不亦壯乎？”乃授以秘訣，曰：“慎勿妄傳，若用之不義，反受其殃。”言訖而辭，行二里許，追而望之，不見也。²⁵⁾

又如金庾信塋墓條目，《西岳志》從李滉《退溪先生文集》中的《答李剛而》只摘錄了與金庾信墓相關的內容：

退溪先生答府尹李楨書曰：“武烈、角干，有功烈於三韓如彼，而丘壠荒廢如許，可見從來守土者之闕典，而邦人之所差病也。今欲修治立祠，甚盛舉也。滉意於武烈，則只當修治陵墓，嚴禁樵牧而已，於所立祠宇，只祭角干，其修墓禁樵，亦如武烈之爲，並爲置典守者三兩人，如何？”²⁶⁾

而《答李剛而》²⁷⁾一文實際是李滉針對李楨建祠祭祀金庾信所提建議，中間穿插了李滉因在龍泉寺設專屋奉高麗太祖畫像，而遭人誹謗等事件。此類例子還有很多，茲不贅述。這樣一種以人物爲中心的書院志體例，實際與16-17世紀朝鮮書院志編纂體例變遷相關。根據韓國學者鄭萬祚的研究，朝鮮書院志的編纂始於16世紀中期的《竹溪志》的編纂，其體例是以書院有關的記錄爲中心。在進入17世紀後，以書院爲中心的編纂逐漸趨向於以人物爲中心。²⁸⁾《西岳志》便是其中的典型代表。以人物

25) 鄭克後：《西岳志》，1642年，第6頁b-7頁a，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26) 鄭克後：《西岳志》，1642年，第19頁b，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27) 該文內容較長，受限於篇幅，故不一一摘錄。詳見：李滉：《退溪先生文集》卷21《答李剛而》，《韓國文集叢刊》第30冊，第29頁b-31頁a。

28) [韓國鄭萬祚]：《韓國書院的歷史與書院志的編纂》，《湖南大學學報》2007年第6期，第11頁。

爲中心的書院志，在朝鮮中後期書院志編纂中亦有體現，如18世紀刊行的《鼎山志》，19世紀刊行的《秀巖志》《忠賢書院志》《武城書院志》便是以書院所祭祀人物爲中心，記錄與人物相關的事跡、詩文、祭祝文。

第二，編纂形式受《伊洛淵源錄》及《名臣言行錄》的影響。《西岳志》首編者鄭克後曾言：“今先生既歿，而言猶在耳，遂仿《伊洛淵源》及《名臣言行錄》，列爲三賢事蹟，又首之以書院創置，附之以諸賢稱述，以不忘先生之命。”²⁹⁾《伊洛淵源錄》由南宋理學家朱熹編纂，匯錄了宋代周、張、二程諸儒及其弟子的行狀、墓志、遺事等傳記資料，確立了理學的道統³⁰⁾。《名臣言行錄》主要指《宋名臣言行錄》。該書以輯錄“名臣”言行事跡爲中心，每位名臣的傳記由小傳、正文及注文組成。³¹⁾鄭克後仿《伊洛淵源錄》及《名臣言行錄》體例編纂書院志，與此二書在朝鮮的傳播相關。

朱子學於高麗末年傳入朝鮮。至朝鮮時期，朱子學全面發展，成爲國家主導思想。伴隨著朱子學在朝鮮的傳入，朱子學文獻也不斷傳入朝鮮，並不斷在朝鮮半島進行刊刻。《伊洛淵源錄》及《名臣言行錄》便是這一潮流的產物。這兩本書至晚在16世紀傳入朝鮮³²⁾，爲朝鮮學者閱讀。在長期的閱讀實踐中，其志書編纂形式也影響到朝鮮本地志書。中國學者湯勤福就曾指出，朱熹《伊洛淵源錄》《八朝名臣言行錄》的記事記言體例對朝鮮朱子學者所編先賢言行錄有著重要影響。³³⁾西岳書院以祭祀三賢爲主，其志書編纂亦以三賢爲主，而《伊洛淵源錄》《名臣言行錄》以人物言行爲中心的編纂形式，則爲鄭克後《西岳志》的編纂提供了參考。因此，《西岳志》的編纂以

29) 鄭克後：《西岳志》，1642年，第43頁b，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30) 周春健：《〈伊洛淵源錄〉的編纂與成書》，周國林主編：《歷史文獻研究》第24輯，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2005年，第175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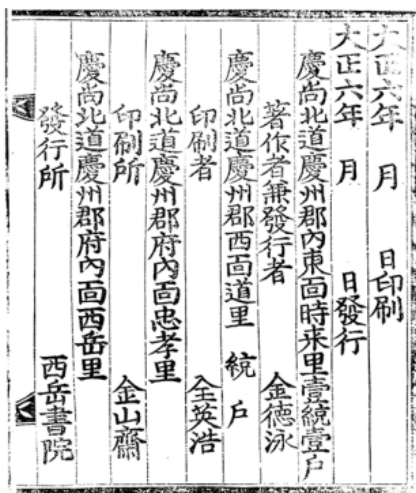
31) 《宋名臣言行錄》前集(10卷)和後集(14卷)由朱熹編纂，續集(8卷)、別集(26卷)和外集(17卷)則由李幼武所輯，共計75卷。

32) 《伊洛淵源錄》於16世紀傳入朝鮮。《名臣言行錄》於1434年前傳入朝鮮。參見：김정신,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중국 사상사 이해와 중국 문헌Ⅳ『이락연원록신증(伊洛淵源錄新增)』, 『황명리학명신언행록(皇明理學名臣言行錄)』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8, 2018, 179쪽; 모개열, 「宋·明名臣言行的 간행과 조선의 編刊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 2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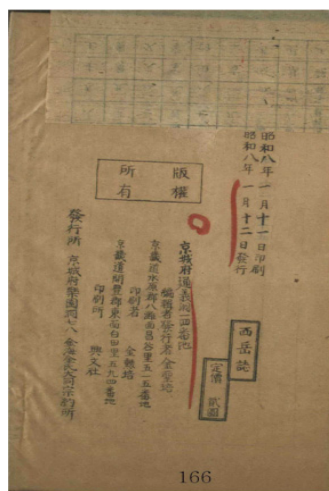
33) 湯勤福：《朱熹的史學思想》，濟南：齊魯書社，2000年，第388-390頁。

書院所祭祀的三賢金庚信、薛聰和崔致遠為中心，每位人物條目下均記錄其本傳、遺事、追封、遺跡等情況。

第三，《西岳志》的編纂具有資料意識，詳載史料出處。凡是抄錄正史、文集等的地方，《西岳志》上均以雙行小字的形式列出出處，如《三國史記》《東國輿地勝覽》《東國通鑒》《東史纂要》等；此外，對於書中出現的地名都會進行考證，標明當下存亡逸失情況，以資考證。如開國公墓，《西岳志》載：“在今慶州府西五里西岳里，即所謂金山原也。新羅文武王命國子博士薛因宣撰碑文，立碑紀功，又定民戶守墓焉。”下附雙行小注“《本傳》及《勝覽》。墓之石物，視王陵有加，而獨龜龍不在。薛因宣所撰碑文亦不傳焉。”³⁴⁾而這正和《名臣言行錄》編纂一致。《名臣言行錄》同樣是以雙行小注的形式標明史料來源，並進行考證。



〈图 5〉1917年甲本版權頁



〈图 6〉1933年本版權頁

第四，志書編纂、出版呈現出家族化色彩。如前所述，進入20世紀後，《西岳志》的增補、編修及出版者以三賢後裔為主，特別是金氏家族。比如：1917年甲本版權頁

34) 鄭克後：《西岳志》，1642年，第19頁，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顯示著作者兼發行者爲金德泳，印刷所爲金山齋，發行所爲西岳書院。1933年本版權頁則顯示編輯者、發行者爲金聖培，發行所爲金海金氏大同宗約所。在《西岳志》增補重刊時，金氏家族成員也會請本家族成員、崔致遠及李滉等人的後裔作記序、跋。如1907年本請金庚信後裔金鍾煥作識文³⁵⁾、1917年本請李滉後裔李康鎬作序³⁶⁾、請崔致遠後裔崔鉉軾作跋文³⁷⁾。

V. 結語

《西岳志》自1642年刊印後，至20世紀上半葉在書院祭享人物金庚信、薛聰和崔致遠後裔的主持下多次增補、發行，各本之間有些許差異。從編修時間看，《西岳志》前後有兩次編修期，一是1642年首編期，二是20世紀上半葉增補，每個時間段編纂的原因有所不同。首編主要是出於薈萃三賢事跡以使後人銘記，以及編者鄭克後不負師囑的目的。20世紀上半葉的多次增補、刊發，除了保存、更新文獻外，還與彰顯家族聲望以及印刷技術的發展相關。從志書編纂角度看，《西岳志》的編纂以書院祭享人物爲中心，仿照了《伊洛淵源錄》及《宋名臣言行錄》言行錄類書的體例，在編纂中註明史料來源，其增補、發行有著濃厚的家族色彩。

像《西岳志》這樣以書院祭祀人物爲中心的書院志編纂形式，在朝鮮中後期書院志中亦有體現，如《鼎山志》《秀巖志》《忠賢書院志》《武城書院志》等。這些書院志在19世紀末、20世紀上半葉的增補、重刊現象，值得予以關注。究竟是何種力量促使著朝鮮書院志在這一時期的大批增補、重刊，在當時朝鮮社會發揮了什麼作用，而這些朝鮮書院志與同時期的中國書院志相比，又有何獨特性？則是筆者後續將要探究的問題。

35) 金鍾煥：《識》，金鍾應：《西岳志》，光武十一年木活字本。

36) 李康鎬：《〈西岳書院志〉重刊序》，金德泳：《西岳志》，1917年，第1-3頁，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37) 金德泳：《西岳志》，1917年，第62頁，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藏。

附錄：《西岳志》各版本異同表

內容條目	1642年本	1907年本	1917年甲本	1917年乙本	1917年丙本	1933年本
所藏地點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首爾大學奎章閣	韓國首爾大學奎章閣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	哈佛大學燕京圖書館	韓國國立中央圖書館	韓國國立中央圖書館
序	×	李矯翼序 金鐘煥謹識	李康鎬序	李康鎬序	上冊：李康鎬序	李康鎬序
西岳書院圖	×	○	○	○	○	×
陳設圖	×	置於鄭克後識文後	○	○	置於下冊首頁	○
西岳	○	○	○	○	○	○
書院創始	○	○	○	○	○	○
書院齋號	○	○	○	○	○	○
書院重修	○	○	○	○	○	○
賜額	○	○	○	○	○	○
廟中神位	○	○	○	○	○	○
御製祝文	×	○	×	×	×	×
享祀時日	○	○	○	○	○	○
書院春秋享笏記	×	○	×	×	×	×
弘儒侯薛先生三國史本傳	○	○	○	○	○	○
弘儒侯薛先生遺事	○	○	○	○	○	○
弘儒侯薛先生追封	○	○	○	○	○	○
開國公金先生三國史本傳略	○	○	○	○	○	○
開國公金先生遺事	○	○	○	○	○	○
開國公金先生異跡	○	○	○	○	○	○
開國公金先生塋墓	○	○	○	○	○	○
開國公金先生祠廟	○	○	○	○	○	○
開國公金先生追封	○	○	○	○	○	○
文昌侯崔先生三國史本傳	○	○	○	○	○	○
《桂苑筆耕》自序	○	○	○	○	○	○
歲年考	○	○	○	○	○	○
文昌侯崔先生遺事	○	○	○	○	○	○
文昌侯崔先生遺跡	○	○	○	○	○	○
文昌侯崔先生追封	○	○	○	○	○	○

內容條目	1642年本	1907年本	1917年甲本	1917年乙本	1917年丙本	1933年本
儒臣論著	○	○	○	○	○	○
諸賢雜詠	○	《謁西岳祠示院生》詩名作《謁西岳書院》。增加《謁開國公金先生墓》《謁開國公金先生墓》《退溪李先生勸學文》	○	○	○	○
三賢子孫	○	○	○	○	○	○
請額疏略	○	○	○	○	○	○
鄭克後識文	○	○	○	○	○	○
享禮時會勘香祝需儀	×	○	×	×	×	×
享禮時執事分定記	×	○	×	×	×	×
謁廟笏記	×	○	×	×	×	×
附錄 開國公墓位春秋享禮祝文、墓位陳設圖、致祭文、開國公墓所春秋享禮元定會勘香祝祭需儀	×	○	×	×	×	×
祠宇重建上樑文	×	×	×	○	○	○
位版改題時告由文	×	×	×	○	○	○
改題後告各位文	×	×	×	○	○	○
祭弘儒侯文	×	×	×	○	○	○
祭開國公文	×	×	×	○	○	○
祭文昌侯文	×	×	×	○	○	○
鄭重變謹識	×	×	×	○	○	○
檢護開國文瑩域文	×	×	×	×	○	○
書院詠歸樓上樑文	×	×	×	×	○	○
金柄斗謹識	×	×	×	×	○	○
增補：常享祝文	×	×	○	○	○	○
開國公墓致祭文 正廟御製	×	×	○	○	○	○
開國公墓致祭文	×	×	○	○	○	○
文昌公武城書院致祭文	×	×	○	○	○	○
開國公墓碣	×	×	○	○	○	○

内容條目	1642年本	1907年本	1917年甲本	1917年乙本	1917年丙本	1933年本
開國公財買井遺墟碑	×	×	○	○	○	○
文昌公讀書堂遺墟碑	×	×	○	○	疑佚	○
角干先生神道碑銘	×	×	○	○	○	○
院規	×	×	○	○	○	○
白鹿洞規	×	×	○	○	○	○
夙興夜寐箴	×	×	○	○	○	○
完議	×	×	○	○	○	○
李晚運：書院重修記	×	×	○	○	○	○
李能政：重修記	×	×	○	○	○	○
閔詠壽：重修記	×	×	○	○	○	○
柳相翼：詠歸樓重修記	×	×	○	○	○	○
崔鉉弼：書院重修記	×	×	○	○	○	○
李邁久：詠歸樓重修記	×	×	×	×	○	○
金得秋：書院重修上樑文	×	×	○	○	○	○
藏書閣銘	×	×	○	○	○	○
李邁久：西岳書院志重刊跋	×	×	○	○	×	×
崔鉉軾謹跋	×	×	○	○	○	○
李邁久：識	×	×	×	×	○	○
金昌宇：小識	×	×	○	○	○	×
版權頁	×	×	大正六年版權頁	大正六年版權頁	×	昭和八年版權頁
其他	×	×	×	在《三賢子孫》條目上寫有眉批，卷末手寫“金哲坤藏”四字；手寫《預言》	×	×

注：○表示書中有所列文章內容

×表示書中沒有該文章。

【참고문헌】

1. 원전

1642年、1907年、1917年、1933年本《西岳志》

《國朝人物考》卷二《儒學》

張顯光：《旅軒先生續集》

1933年本《開國公實記》

金富弼：《三國史記》

李滉：《退溪先生文集》

2. 논저

湯勤福：《朱熹의 史學思想》，濟南：齊魯書社，2000年.

周春健：《〈伊洛淵源錄〉的編纂與成書》，周國林主編：《歷史文獻研究》第24輯，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2005年.

鄭萬祚：《韓國書院의 歷史與書院志의 編纂》，《湖南大學學報》2007年第6期

[日] 六反田豊：《〈西岳志〉異本考 - その概要と類型化》，《朝鮮學報》2009年第211輯.

Rokutanda Y. “A Survey of Variant Versions of the Sŏakchi and Their Taxonomy”,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vol.73,
2015.

김정신,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중국 사상사 이해와 중국 문헌-『이락연원록신증
(伊洛淵源錄新増)』 『황명이학명신언행록(皇明理學名臣言行錄)』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8, 2018.

묘개열, 「宋·明名臣言行之 간행과 조선의 編刊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2.

夏陽洋, 蔡夢玲：《中日韓傳統書籍裝幀形式比較研究》，《古籍保護研究》2024年第3期.

임근실, 「조선후기 西岳書院의 건립과 '西岳志' 편찬의 의미」, 『역사문화연구』 94,
2025.

Abstract

A Brief Study on the Compilation of the Joseon *Seoakji*

XIONG Huanhuan*

ABSTRACT: Since its initial publication in 1642, the Joseon-era gazetteer *Seoakji* (*Record of the Seoak Academy*) underwent multiple supplementations and printings through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se efforts were primarily led by the descendants of the "Three Sages" (三賢), most notably the progeny of Kim Yu-sin (金庾信). Based on the 1642 original, these later editions include the 1907 version, the 1917 versions (A, B, and C), and the 1933 version, with significant textual variations existing between them.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first edition of *Seoakji* was to compile the deeds of the Three Sages and to fulfill the editor Jeong Geuk-hu's obligation to his teacher. The frequent revisions and publications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served not only to preserve historical documents but also to elevate and manifest the prestige of the respective families. Overall, the compilation of *Seoakji* is character-centric, influenced by *Yiluo Yuanyuan Lu* (伊洛淵源錄) and *Mingchen Yanxing Lu* (名臣言行錄). It is characterized by a strong awareness of source material preservation and a distinct lineage-oriented (familial) color. This character-centric compilation format is representative of the stylistic trends found in academy gazetteers during the mid-to-late Joseon period.

* Hunan University, Yuelu Academy, Ph.D. student
/ xhhlucky012408@163.com

Key word : *Seoakji*, Editions, Compilatory Motives, Compilatory Characteristics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서원 제향인물의 초상화를 통해 본 복식문화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서원을 중심으로—

이 민 주*

- I. 머리말
- II. 서원의 제향인물
- III. 초상화 속 제향인물
- IV. 복식으로 본 제향인물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을 기리고 후학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으며, 서원에 초상화를 봉안하는 행위는 추모와 향사뿐만 아니라 자기 수양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 중 초상화가 전해지는 서원을 대상으로, 제향인물의 복식이 상주(像主)의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을 드러내는 시각적 단서이자 봉안자들과 후학의 염원을 투영하는 매개체였음을 규명하고 초상화가 지닌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수서원의 안향과 주세붕, 무성서원의 최치원, 돈암서원의 송시열 등 초상화 속 인물들은 생존 당시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초상화 제작 시기를 추적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인물의 복식은 시대적·제도적 맥락과 상주의 신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봉안자가 부여하고자 한 이상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최치원과 주세붕은 관리로서의 역량과 정치적 덕치를 상징하는 관복을 착용한 모습이며, 안향은 주자학을 들은 학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났기에 편복인 직령포와 조건을 착용하고 있다. 송시열은 조선시대 대학자로서의 학문적 이상과 도덕적 완성을 상징하는 심의와 복건을 착용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연구원 / mjlee815@aks.ac.kr

따라서 서원 초상화 속 복식의 차이는 제향인물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 봉안자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초상화가 단순한 인물 재현을 넘어 봉안자와 후학의 염원을 투영하는 상징적 매개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서원 제향문화 연구와 복식사 및 초상화 연구의 융합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서원, 초상화, 복식, 제향인물, 상징성

I.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을 기리고 후학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¹⁾ 서원에 초상화를 봉안하는 행위 역시 이러한 기능의 일환으로, 추모와 향사라는 제의적 의미뿐만 아니라 수기적(修己的) 의미를 담고 있었다.²⁾ 성리학을 실천한 선현들의 초상화는 대개 심의상(深衣像) 또는 유복상(儒服像)으로 제작되어, 영당이나 서원에 봉안됨으로써 학문의 스승으로 숭배하고 자기 수양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서원 9곳에 봉안된 초상화 중 심의복을 착용한 인물은 송시열 한 사람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 9곳³⁾에 봉안된 제향인물 초상화의 복식을 분석함으로써, 초상화의 복식이 갖는 의미를 봉안자의 시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상주의 신분에 따라 어진, 공신상, 기로상(耆老像), 사

1)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화 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44쪽.

2) 강관식, 「조선시대 초상화를 읽는 다섯 가지 코드」, 『미술사학보』 38, 미술사학연구회, 2012, 1~17쪽.

3) 한국에는 현재 약 6,000여개의 서원이 존재한다. 이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9곳의 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기에 이들 서원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한다.

대부상, 여인상, 승상 등으로 구분된다.⁴⁾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서원의 제향인물 초상화는 대부분 사대부상에 해당하며, 복식은 상복(常服)과 예복(禮服)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무성서원에 봉안된 최치원은 상복인 단령을 착용하였고, 소수서원에 봉안된 안향은 예복인 직령포를 착용하였다. 반면 소수서원에 종향된 주세붕은 단령을, 돈암서원에 추가배향된 송시열은 예복인 심의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복식 차이는 주향 또는 종향, 추가 배향된 인물이 활동한 시대뿐 아니라, 봉안자가 상주(像主)의 정체성을 어떻게 기리고, 기억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서원 중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9개 서원의 주향 또는 종향, 추가배향된 인물을 살펴본다. 둘째, 이들 중 초상화가 남아 있는 인물을 분석한다. 셋째, 초상화 속 상주가 착용한 복식의 종류와 그 의미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초상화 속 주향 또는 종향, 추가배향된 인물의 복식을 바탕으로 당시 복식문화와 초상화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서원의 제향인물

서원에 봉안된 초상화 속 인물의 복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서원이 어떠한 인물을 주향·종향·추가배향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제향 인물의 생애와 신분, 학맥을 통해 초상화 제작의 시대적 배경과 복식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에 2019년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제향인물을 중심으로 각 서원의 설립 배경과 배향 인물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서원의 건립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조선미,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242쪽

〈표 1〉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명칭	소재지	건립 시기	사액	설립자	주향 인물	추가배향/종향인물
소수서원	경북 영주	1542년	1550년	주세붕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
남계서원	경남 함양	1552년	1566년	서구연, 강익, 고을유립	정여창	강익, 정은
옥산서원	경북 경주	1572년	1574년	경주 부윤 이제민	이언적	
도산서원	경북 안동	1574년	1575년	이황 제자	이황	조목(종향)
필암서원	전남 장성	1590년	1662년	호남 선비	김인후	양자징(종향)
도동서원	대구 달성	1605년	1607년	정구와 이황 등	김굉필	정구
병산서원	경북 안동	1614년	1863년	정경세 등 지방유림	류성룡	류진
무성서원	전북 정읍	1615년	1696년	고려시대 지방유림	최치원	정극인, 송세립, 신잠, 정언충, 김약목, 김관
돈암서원	충남 논산	1634년	1660년	지방 유림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고려 후기 유학자 안향(安珦, 1243~1306)을 제향하기 위해 창건한 백운동서원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548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李滉, 1501~1570)이 서원을 공인화하고 나라에 널리 알리기 위해 사액과 국가의 지원을 요청한 결과 1550년에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최초로 받게 되었다.⁵⁾

안향은 주자학을 처음 고려에 소개하고 전파하였으며, 후학 양성에 힘쓴 인물로 약 47년간 관직을 역임하면서도 늘 학문에 힘쓰고 교육에 정열을 쏟았다. 안향은 홍주(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상평리(上坪里) 출신이다. 젊은 시절 경북 영주 숙수사(宿水寺)에 머물며 공부하였다. 소수서원에는 안향과 주세붕의 초상화가 남아 있다.

남계서원(南溪書院)은 1552년(명종 7) 함양군수 서구연과 지방 유림들이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하였다.⁶⁾ 1566년(명종 21)

5) 한상규,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선비문화』 1권, 남명학연구원, 2004, 76쪽.

6)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 남계서원 소장 『부보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화』 75, 대동한문화회, 2023, 36쪽.

‘남계서원’으로 사액을 받았으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12년(광해 4) 중건되었다. 정여창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성리학 이론은 정몽주가 성리학을 시작한 이래 김종직이 쇠퇴한 사문(斯文)을 일으켰고, 이어 김굉필과 정여창이 김종직 문하의 청출어람이 되어 도학을 이끌었다.⁷⁾ 정여창은 관직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후에 강익·정온이 종향되었다.

옥산서원(玉山書院)은 1572년(선조 5) 경주 부윤 이제민이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남계서원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처음 세워졌고, 1574년(선조 6) ‘옥산’으로 사액되었다. 이언적은 경주시 안강읍 옥산의 한 시냇가에 거주처로 안채를 짓고 사랑채 독락당과 정자 계정을 경영하고 약 6년간 성리학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이언적은 16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서 정파 상으로는 초기의 사람파에 속하며, 학파 상으로는 영남학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언적은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경세가로서 뿐만 아니라 정주의 학설을 따르면서도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면모를 보인 16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⁸⁾ 초상화는 없다.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퇴계 이황(李滉, 1501~1570) 사후 영천, 예안, 안동 등 세 고을의 문인들이 같은 시기에 따로 원향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 고을이 모두 퇴계와 연고가 깊고 문인들이 분포해 있었던 만큼 선사를 위해 사묘를 가진 서원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였다. 영천에서는 이산서원에서 사묘를 완성하고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안동에서는 여강서원을 준공하였다. 예안 지역 문인들이 1575년(선조 8) 도산서원을 건립하자 퇴계의 본거지로서 사액이 내려왔으며, 1576년(선조 9) 위판을 봉안하였다. 도산서원 건립 당시에는

7) 정우락,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악양정과 남계서원」, 『남명학연구』 36, 남명학연구소, 2012, 240쪽.

8) 이병훈,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130~132쪽.

퇴계 문인들의 분립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도산서원에서 『퇴계집』을 간행하자 학통 계승이 인정되었으며, 1615년(광해 7) 조목이 도산서원에 종향되면서 사제관(賜祭官)이 파견되고 적통의 계승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⁹⁾ 초상화는 없다.

필암서원(筆巖書院)은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와 그의 문인이며 사위인 고암 양자징(梁子徵, 1523~1594)을 모신 서원으로 1590년(선조 23)에 건립되었으며, 1662년(현종 3)에 사액을 받았다. 필암서원이 존치하는 데에는 김인후 후손들의 공로가 컸다. 또한 송시열은 김인후를 도학과 절의, 문장을 완전하게 겸한 인물로 추앙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암서원은 정조에 의해 송시열의 평가를 계승함과 동시에 해동의 주자이며 호남의 공자라고 하여 김인후의 도학을 높이 평가했다.¹⁰⁾ 초상화는 없다.

도동서원은 한훤당 김굉필(金宏弼)과 한강 정구(鄭逋, 1543~1620)를 모신 서원이다. 도동서원은 현풍에 건립된 쌍계서원이 전란으로 훼손된 후 17세기 초 정구가 주도하여 중건하였다.¹¹⁾ 도동서원의 중건은 지역의 사람과 제향자인 김굉필의 친·외손, 경상감사 및 현감을 비롯한 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도동은 곧 ‘도가 서쪽의 중국이 아니라 동쪽인 우리에게 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1607년 사액되었다.¹²⁾ 초상화는 없다.

병산서원(屏山書院)은 서애 류성룡(柳成龍, 1542~1607)과 그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柳軫, 1582~1635)을 모시고 있다. 병산서원은 풍악서당에서 출발하여 1572년(선조 5) 현재의 안동시 풍천면으로 옮겼으며, 임진왜란으로 불

9) 이병훈,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84~87쪽.

10) 김봉근,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한국계보연구』 5, 한국계보연구회, 2014, 59~61쪽.

11) 김정운,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체계 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6쪽.

12) 김기주, 「도동서원과 한강학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10~11쪽.

에 탔으나 1607년(선조 40)에 중건되었다. 1614년(광해 6) 유성룡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1663년(현종 4) 류진의 위패가 중향되었다. 1863년(철종 14) ‘병산’으로 사액을 받았다.¹³⁾ 류성룡은 이황의 문하에서 『근사록』을 수학한 유자이다. 이황은 류성룡을 ‘수레가 빨리 나아가는 듯’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학문 성장세를 높이 평가하였다.¹⁴⁾ 도학·글씨·문장·덕행으로 이름을 날렸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에도 성곽 수축·화기 제작을 비롯하여 군비 확충에 힘써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다. 병산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해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¹⁵⁾ 초상화는 없다.

무성서원(武城書院)은 1615년(광해 7) 태인현 선비들이 700여 년 전 태산군 태수로 부임하여 이 고을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최치원과 70여 년 전 태인 현감으로 6년간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푼 신잠(申潛, 1491~1554)을 함께 모신 태산서원을 건립하고, 1630년(인조 8) 태인 고을의 향현(鄉賢)인 정극인, 송세립, 정언충, 김약목을 추배하였다. 1696년(숙종 22)에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무성은 신라 때의 고을 명칭이다. 특히 무성서원은 최치원으로 인해서 사액이 결정되었다. 최치원은 부성군(충남 서산), 천령군(경남 함양) 태수를 역임했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으며 천령군에서는 태산사라는 생사당을 건립하였고 그것이 근원이 되어 후대에 무성서원으로까지 이어졌다.¹⁶⁾ 최치원의 초상화가 남아 있다.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1602년(선조 35) 아한정(雅閑亭)의 옛터에 양성당을 짓고 30여년간 강학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

13) 김명자, 「조선 후기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6~7쪽.

14) 김용재, 「류성룡의 실학적 토대로서의 경학관 연구」, 『서애연구』 7, 서애학회, 2023, 91쪽.

15) 최종호, 「병산서원의 역할과 위상」,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119쪽.

16) 안영훈, 「정읍 무성서원과 선비문화 원류 최치원」, 『대순사상논총』 40,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22, 248~250쪽.

르치다가 타계했다. 이에 제자들이 주도하여 세운 서원이다. 김장생은 서울 정릉동에서 태어나 자라고 벼슬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김장생은 1596년(선조 29) 정산군수를 마치고 나서 연산으로 낙향하였다. 이후 김장생은 1602년(선조 35) 정인홍 일파의 횡행을 못마땅하게 여겨 서울을 떠나 연산으로 내려오면서 ‘양성당’이라는 편액을 걸고 강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계서원이라고 하였으나, 1660년(현종 1)에 돈암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¹⁷⁾ 김장생은 예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돈암서원에는 그의 아들 김집(金集, 1574~1656)과 제자인 송준길(宋浚吉), 송시열을 중향하고 있다. 송시열의 초상화가 있다.

Ⅲ. 초상화 속 제향인물

후손들이 조상숭배를 목적으로 사우 또는 서원에서 제향을 지내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를 ‘영정(影幀)’이라 한다. 후손들은 영정 속 조상의 모습을 통해 인물의 사상·정신·학문·기품 등을 배우고 추모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에는 ‘일호불사(一毫不似) 편시타인(便是他人)’이라고 하여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는 북송의 성리학자 정이(程頤)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영정 무용론이 대두되었다. 이후 남송의 성리학자 주희(朱熹)가 영정과 신주를 같이 사용하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여 영정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에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9곳의 서원에는 영정이 없이 신주만 봉안된 곳도 있고 영정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9곳의 서원 중 초상화가 남아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초상화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7) 임선빈, 「돈암서원의 건립배경과 사액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154~167쪽.

1. 소수서원, 안향과 주세붕

소수서원에는 안향과 주세붕의 영정이 남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진 백운동서원의 전신이다. 신재 주세붕이 순흥 출신의 대학자 회헌 안향의 학문 정신을 추승하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건립하였다.

1) 안향

안향은 1243년(고종 30) 홍주(순흥)성 남쪽 평리촌 죽계에서 태어났다.¹⁸⁾ 그의 선조인 순흥안씨는 순흥의 읍사를 장악한 호장가문으로 원의 압제기에 안향과 안축의 양가가 차례로 상경하여 순흥 사대부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가문의 성장은 고려가 대원 정치 질서 안에 편입되면서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자의 성리학이 국내에 도입되어 고려의 문풍 진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¹⁹⁾

안향은 어릴 적부터 몸가짐이 단정하고 중후하여 쓸데없이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또 배우기를 좋아하여 이른 나이에 문장이 성취되니 맑고도 굳세었다고 하며, 1260년(원종 1) 18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려와 원이 강화를 맺은 이후 정치적으로 원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자 1289년(충렬왕 15)에 정동행성의 좌우사랑중(左右司郎中)으로 제수되어 연경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주자서를 손수 쓰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모사하는 등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서 고려학계에 주자학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 개창자였다.²⁰⁾

18) 『고려사』 열전 18, 안향.

19) 장동익, 「안향의 생애와 행적」,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201쪽.

20) 정성식, 「회헌 안향의 주자학 수용과 성격」, 『동방학』 1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227~228쪽.

소수서원에는 안향의 적장손 안정으로부터 기증받은 안향의 초상화가 건립 초부터 봉안되어 있었다. 초상화의 상단에는 안향의 아들 안우기(1265~1329)가 작성한 제발과 찬문이 적혀 있다. 이 제발문에 따르면 안정이 소장하고 있던 안향의 초상화는 '1318년(충숙왕 5) 문묘에 보관할 목적으로 충숙왕의 명에 의해 그려진 본을 홍주 수령 최림이 다시 모사해 홍주향교에 봉안한 본'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1318년은 안향이 이미 졸한 시점으로 충숙왕의 명으로 그려진 안향의 초상화는 추사한 것이거나 안향 생전에 제작된 초상화를 이모한 것이 된다.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안영호(1854~1896)는 안향의 초상화에 대해 "원나라 사람이 그린 구화(舊畵)를 세 차례 옮겨 그려, 여러 본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안향 초상>의 원본은 원나라 화가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홍주 향교 봉안 본은 안향의 후손에 의해 보존되었다가 1543년 소수서원에 기증되어 사당 내에 걸려 봉안된 것이다.²¹⁾ 이후 안향 초상화의 이모 작업은 1559년 풍기군수 박승임(1517~1586)의 주도로 결국 같은 해 화원 이불해가 소수서원을 방문해 안향의 초상화 이모본 2점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본은 미진하다는 이유로 서원 건립시 처음 봉안했던 본과 함께 따로 궤에 넣어 보관하고 두 번째 완성한 본을 사당 내에 걸어 봉안하였다. 이처럼 16세기에는 조정의 허가를 받아 이모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17세기에는 안향의 후손들에 의해 이모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향 초상의 이모 작업은 크게 소수서원본의 보존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와 안향의 후손들이 안향을 제향하기 위해 서원이나 사당에 봉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 후자의 경우는 소수서원 소장본을 범본으로 이모 작업을 벌인 안옥과 안응창의 경우 외에 전국 각지에 세거하는 안향의 후손들이 그에게 향사할 목적으로 다수의 서원 및 사당을 건립하기 위해 봉안하였다.²²⁾

21)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9, 203쪽.



- 〈그림 1〉 작가미상, 〈안향 초상〉, 소수서원.
 〈그림 2〉 작가미상, 〈안향초상(이모본)〉, 만지정.
 〈그림 3〉 작가미상, 〈안향초상(이모본)〉, 1657년(혹은 1659년). 도동묘.
 〈그림 4〉 작가미상, 〈안향초상(이모본)〉, 합호서원.
 〈그림 5〉 김건중(추정), 〈안향 초상(이모본)〉, 국립중앙박물관.

현재 안향의 초상화 이모본들은 대부분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1〉의 〈안향 초상〉을 모본으로 이모한 작품들이다. 〈그림 2〉는 이들 이모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본이다. 〈그림 3〉은 1657년 또

22) 이성훈, 앞의 논문, 2019, 194쪽.

는 1659년 안응창이 주도해 제작한 2본의 이모본 중 한 본이자 1678년 안응창이 전라도 곡성의 사립 및 안향의 후손 안호와 함께 곡성에 도동묘를 건립한 뒤 그 사당에 봉안한 본으로 추정된다. <그림 4>는 합호서원에 소장된 본이며, <그림 5>는 1816년 김건중 등이 만지정본을 주요한 모본으로 사용해서 제작한 초상화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안향의 초상화 중 어느 본에도 그 제작 시기나 작가 등 초상화 제작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제작시기나 작가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초상화 속 복식을 통해 초상화가 그려진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2) 주세붕

주세붕은 1495년(연산군 원년)에 출생하여 1522년(중종 17) 사마시에 입격하고, 같은 해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중 9품직인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어 벼슬길에 올랐다.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한지 3년 만에 안향을 존현하기 위해 회현사당을 짓고 기존의 향교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풍기지역의 교화를 위한 백운동서원을 지었다.²³⁾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운 뜻은 그곳이 도학의 종주인 회현 학문의 시원지(始原地)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²⁴⁾ 1633년 순흥 지역 사람들은 주세붕을 소수서원에 배향하는 문제를 장현광(張顯光, 1554~1673)과 이준(李垿, 1560~1635)에게 품의하였고, 그해 주세붕이 소수서원에 추배되었다. 이후 1655년 소수서원을 방문한 박장원(朴長遠, 1612~1671)이 안향의 초상화를 봉심한 후 서원 강당인 명륜당 협실에 보관되어 있던 공자의 초상화를 강당 벽에 걸어 두고 사배를 올리고, 이어 주세붕의 초상화도 궤에서 꺼내어 참배하였다.

23) 우남주, 『백운동서원의 설립배경 - 주세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4~10쪽.

24) 이정화, 「소수서원 건립의 문화적 토대 연구 - 회현 안향의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48, 동양고전학회, 2012, 48쪽.



〈그림 6〉 작가미상, 〈주세봉 초상〉, 소수서원.



〈그림 7〉 작가미상, 〈주세봉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이것으로 보아 〈그림 6〉은 1633년에서 1655년 사이에 그려진 초상화로 사
우 건물 내부에 봉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⁵⁾ 당시 초상화는 제의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참배의 목적이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주세봉의
전신상이 전해지고 있다. 초상 왼쪽에 ‘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
秋館事行嘉善大夫戶曹參判兼冬至春秋館成均館事愼齋周先生諱世鵬字景遊’라는
글씨로 보아, 주세봉이 예조판서에 추증된 것은 1827년(순조 27)의 일²⁶⁾이므
로 〈그림 7〉의 초상화는 그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무성서원, 최치원

무성서원에는 최치원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다. 최치원은 경주 출신으로

25) 이성훈, 앞의 논문, 2019, 51~52쪽.

26) 『승정원일기』 2218책, 순조 27년 윤 5월 1일(을사).

857년(신라 헌안왕 1)에 태어났다. 당시 경주최씨 집안은 6두품 집안으로 유학과 불법을 존중하면서 도당유학생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경문왕계 왕실과 친밀하였다. 최치원은 868년(신라 경문왕 8)에 국비유학생으로 당(唐)에 들어가 낙양의 국자감 태학에 입학하였다. 이후 890년~893년에는 지방 사회를 직접 위무하려고 대산군과 부성군 등 서해안 일대의 태수를 스스로 맡아 대당교류의 핵심 향구인 당은포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또 893년에는 중앙정계로 돌아와 하정사(賀正使)를 맡았다가 이듬해 진성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진상하였다. 시무책은 귀족세력과 호족세력을 경계·응징하면서 왕실과 국가를 보전하려는 존왕적 정치이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897년 진성여왕이 해인사에 들어가자 최치원도 898년 가족과 함께 해인사에 들어갔으며, 908년 생을 마감하였다.²⁷⁾

최치원의 영정은 합천 해인사, 하동 쌍계사, 진주 단속사에서 형성되어 고승의 진영과 함께 안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찰에 있던 최치원의 영정을 본 유림과 경주최씨들은 나한상과 섞여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영정이 사찰에서 원우로 이안되었다. 이후 유림과 경주최씨들이 이안된 영정을 모사하여 여러 원우에 봉안하였다.²⁸⁾ 최치원의 영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공신풀의 영정으로 전신교의좌상으로 사모에 단령을 입고 공수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 좌안칠분면의 도상이다. 둘째는 신선풍의 영정으로 삼신산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인물 표상과 더불어 동자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 파초선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의 도상이다. 셋째는 유현풍의 영정으로 유학자의 복장과 기물 등을 활용하며 문인 내지 사대부의 정제된 도상이다. 이렇듯 최치원의 영정은 정교적·수기적·제의적 의미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다.²⁹⁾

27) 장일규, 「최치원 관련 유적의 분포와 숭모」, 『한국사학보』 63, 고려사학회, 2016, 11~12쪽.

28) 김지민, 「최치원 영정의 형성과 전파:최치원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6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251쪽.



〈그림 8〉 작가미상, 〈최치원 초상(이모본)〉, 1831년, 무성서원.

〈그림 9〉 채용신, 〈최치원 초상〉, 1924년, 무성서원.

현재 무성서원에 봉안되어 있는 〈그림 8〉의 영정은 1831년에 쌍계사본을 이모한 것이며, 이후 1924년 채용신이 이모하였다.〈그림 9〉 두 그림은 화면의 구성과 인물의 도상 등은 일치하지만 단령의 무늬, 의자의 형태나 문양, 바닥에 깔린 돛자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3. 돈암서원, 송시열

돈암서원은 김장생을 주향으로 모신 서원이지만 초상화가 없다. 대신 추가 배향한 송시열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송시열은 1607년(선조 40)에 태어나 1689년(숙종 15)까지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대 봉당정치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송시열은 율곡과 사계로 이어지는 서인의 조선 성리학풍을 어려서부터 전수받았으며, 아버지 수옹 공 송갑조로부터 절의를 배웠다. 이러한 영

29) 한정호, 「최치원 영정연구」, 『한국지역문화연구』 5(2), 한국지역문화학회, 2016, 1쪽.

향으로 송시열은 의리명분론에 입각한 정통론을 천명하고 북벌론을 주도하는 기반을 닦아 갔다.³⁰⁾

송시열은 한국 도학의 정통 도맥(道脈)인 율곡 이이의 성리학과 사계 김장생의 예학을 계승하여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양란으로 기울어진 국운을 일으켜 세우고자 춘추대의를 들어 학문과 정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한국 정신과 학문사에서의 대학자이면서 한국 정치사에서의 대 정치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대 정치가이기에 앞서 학문과 교육을 중시한 학자요 교육자였다.³¹⁾ 또한 송시열은 율곡 이이를 정통으로 이어받아 조선 성리학을 심화시키고 현실에 적용하여 조선 후기 영·정조 문예부흥을 이루는 근간이 되게 하였던 사상가이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통상 조선의 건국이념인 주자 성리학의 조상숭배 관념을 토대로 하여 성행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주자 성리학의 조상숭배와 제례에서 사자(死者)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널리 사용된 영정을 수·당대 이래의 불교적 전통으로 비판하고 이를 금지했다. 그 대신 주대 이래 제후들이 주로 사용해 온 신주를 사대부 계층까지 확장시킨 새로운 신주제도와 사당제도를 제시하고 이를 성리학적 제례의 정례로 규정했다.

이런 차원에서 송시열은 성리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초상화에 관한 기문을 통해 초상화의 성리학적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강조한 인물이다. 이후 송시열을 기점으로 이후의 대표적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초상화를 그리고 초상화에 관한 기문을 남기며 조선 후기 초상화 문화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³²⁾ 유네스코 등재 9곳의 서원에서 초상화가 남아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초상

30) 지두환, 「우암 송시열의 생애와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1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128쪽.

31)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한국사상과 문화』 2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93쪽.

32) 강관식, 「우암 송시열의 화상 기문과 주자성리학적 영정 제의관」, 『미술사학』 3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7, 97쪽.

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튼 시기가 송시열 초상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이다.

송시열의 초상화는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83년 한시각이 그린 본을 시작으로 1720년대 김창업이 출초하고 진재해가 전사한 초상화가 송시열 종가에 남아 있다.<그림 11> 또 18세기 중후반의 초상화와 이후 그려진 초상화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다. 모두 심의와 복건을 입은 모습이다. <그림 12, 13>



<그림 10> 한시각, <송시열 초상>, 1683년, 국립청주박물관.

<그림 11> 작가미상, <송시열 초상>, 1785년, 송시열 종가.

<그림 12> 작가미상, <송시열 초상>, 18세기 중,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3> 작가미상, <송시열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Ⅳ. 복식으로 본 제향인물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서원 9곳 중 초상화가 있는 서원은 소수서원과 무성서원, 돈암서원이다. 그중에서도 주향인물이 남아 있는 곳은 소수서원과 무성서원이며, 종향 또는 배향인물의 초상화가 있는 곳은 소수서원과 돈암서원이다. 서원의 건립 시기로 본다면 소수서원이 가장 이른 시기이지만 복식

으로 본다면 무성서원의 최치원이 입은 단령이 가장 이른 시기이다.

서원에 봉안된 초상화는 단순히 제례를 위한 도상적 장치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초상화는 봉안자들이 표상하고자 한 인물상과 이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초상화 속 복식은 상주의 신분과 품계를 상징함과 동시에 봉안자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고자 했는지를 반영한다. 즉 복식은 제향 인물의 정체성과 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 체계이며 그 결정은 초상 제작 과정에서 봉안자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초상화 속 복식은 단순히 당시의 관복제도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봉안자들의 제향 인물을 어떤 이상적 인물상으로 기념하고자 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시각적 단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제향 인물 초상화에 나타난 복식을 분석함으로써 봉안자들이 지향한 이상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성서원 최치원의 복식

무성서원에 봉안된 최치원 초상은 복두(幘頭)에 단령(團領)을 착용한 통일신라 시대 관리의 복식이다. 통일신라 시대 관리의 복식은 복두, 단령, 대,화로 구성된다.



〈그림 14〉 통일신라 관리



〈그림 15〉 당나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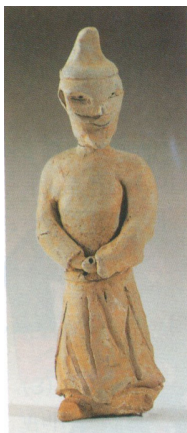


〈그림 16〉 송나라 관리

먼저 복두의 모습을 보면 당나라나 송나라의 관리와 같은 복두를 쓰고 있다. 다만 최치원은 복두의 모정 부분이 당이나 송에 비해 딱딱한 느낌을 주며, 다단의 모정 사이에 흰색의 구슬로 장식되어 있다.〈그림 14〉 다음으로 양각의 형태를 보면 〈그림 15〉의 당나라 관리 복두는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림 16〉의 송나라 관리가 쓴 복두의 양각은 가장자리가 철사로 고정되어 시대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의 ‘오사고모(烏紗高帽)’단계에서 점차 정형화되는 과정의 결과로 최치원의 복두는 연각에서 경각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령은 목이 둥근 옷을 통칭하는 것으로 관리의 공복에 해당한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통일신라시대 황성동과 용강동에서 출토된 토용이다. 이들은 통일신라시대의 관리로서 복두에 단령을 입고 있다. 이 둘은 목이 둥근 단령을 입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소매의 넓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7〉은 소매통이 좁은 착수를 입고 있으며, 〈그림 18〉



〈그림 17〉 단령.
황성동 출토.



〈그림 18〉 단령.
용강동 출토.

은 소매통이 넓은 대수 단령을 입고 있어 신분의 고하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혜와 화이다. 최치원은 발목이 낮은 혜를 벗어 놓은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 반면 당나라와 송나라의 관리는 발목이 높이 올라오는 화를 신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회화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림 19〉는 이중윤묘에서 출토된 단령을 입은 당나라의 관리들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의 복식에서는 화를 착용하고 있지만 최치원의 초상에서는 신발을 벗어 놓고 의자 위에 가부좌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승려의 초상화를 그린 진영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0>의 매산리 사신총의 부부묘주도와 <그림 21>의 쌍용총 묘주 부부도를 보면, 모두 신발을 벗어 놓은 채 평상 위에 올라가 있다. 이는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어깨 위에 보이는 화염무늬도 사후의 세계를 암시한다. <그림 20, 21>



<그림 19> 화, 이중윤묘 출토.

<그림 20> 화, 매산리 사신총 부부묘주도.

<그림 21> 화, 쌍용총 묘주 부부도.

최치원의 신발을 벗은 모습 또한 이러한 상징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치원 영정에 대한 최초 기록인 『파한집』³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인사에 있던 승려는 영정을 그린 이유를 ‘최치원이 관과 신을 벗어 두고 하늘로 올라갔으므로 그날에 명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³⁴⁾ 즉 신발을 벗은 것은 사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신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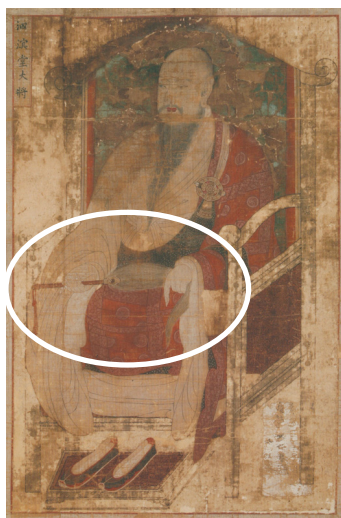
또 하나 불교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최치원이 신발을 벗고 손에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은 고승의 진영과 유사하다. <그림 22>의 청진국사 몽여는 고려시대 승려이며, <그림 23>은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의 진영으로 조선시대 승려이다.

33) 이인로, 『파한집』 권중, 「文昌公致遠字孤雲」, 최치원은 구름 같은 수염과 옥 같은 뺨에 항상 흰 구름이 그 위에 그늘을 이루고 있었으며, 실물 그대로 그린 초상화가 독서당에 지금까지 남아 있다.

34) 김지민, 앞의 논문, 255쪽.



〈그림 22〉 불자, 〈청진국사 진영〉,
송광사.



〈그림 23〉 불자, 〈사명당대장 진영〉,
동화사.

이들은 손에 불자를 들고 있는데, 불자는 불교에서 번뇌라는 먼지를 털어 없애는 상징물로 조사(祖師)의 영정에 지물로 든다. 일반적으로 불자를 파지 할 때는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술을 잡거나 왼쪽 어깨에 기대 어 잡는 것이 보통이지만³⁵⁾ 청진국사와 사명당은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술을 잡고 있다. 반면에 최치원은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 역시 손잡이의 윗부분을 잡고 있어 불자를 쥐고 있는 스님과는 다른 표현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화 속 최치원은 복두(幘頭)에 단령을 입은 통일신 라시대 관리의 복식을 기본으로 하되, 자세와 지물에서는 불교적 도상 요소 가 가미된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최치원을 단순한 관리나 문인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학문과 도덕의 경지를 초월한 '성현적 인물'로 기념하려는 봉 안자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35) 문화재청, 『한국의 초상화-역사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2007, 372쪽.

2. 소수서원 안향과 주세붕의 복식

1) 안향의 복식

안향은 평정건인 조건을 쓰고 직령포를 입은 고려인의 모습이다.〈그림 24〉〈그림 25〉는 안향과 동시대를 산 고려 후기 문신인 이조년(李兆年, 1269~1343)이다. 이조년은 1294년(충렬왕 20) 향공진사(鄉貢進士)로 문과에 급제하여 안남서기(安南書記)에 보직되고, 예빈내급사(禮賓內給事)를 거쳐 지협주사(知陝州事)·비서랑(秘書郎) 등을 지냈다. 1330년 충혜왕이 즉위하자 장령이 되어 여러 번 충혜왕을 따라 원나라에 내왕하였다. 1339년 충혜왕이 복위하자 그 이듬해 정당문학에 승진하였고 예문관대제학이 되어 성산군에 봉해졌다.³⁶⁾



〈그림 24〉 조건, 직령포, 〈안향 초상화〉, 소수서원.

〈그림 25〉 발립, 직령포, 〈이조년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림 26〉 두건, 직령포, 〈원 세조 초상〉.

이조년의 복식을 보면 검은색 발립(鉢笠)을 쓰고 직령포를 입은 모습이다. 발립의 바깥쪽은 검은색이며 챙의 안쪽은 붉은색이다. 발립은 모정의 높이에 차등을 둔 둥글고 넓은 원정립 형태와 둥글고 높은 고정립 형태가 있으며, 구

36) 윤진영, 「성주이씨 가문의 초상화 연구」, 『장서각』 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53쪽.

슬로 만든 갓끈인 입영(笠纓)을 단다. 이조년 역시 둥근 원정립에 구슬로 펜 갓끈이 있다. 원 세조 역시 백색의 원정립을 쓰고 있는데 이조년과 다른 것은 뒤에 수(受)가 내려온 전원후방형의 발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26)

한편 의복은 원세조, 이조년, 안향 모두 직령포를 입고 있다. 직령포는 고려 후기 관리들의 일상 예복으로 둥근 갓의 단령과 달리 갓이 직선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형태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고려 후기에는 직령포를 질손이라고 하였다. 질손은 몽골족 고유의 전통 복식이다. 원대에서는 지손(只孫), 제손(濟孫), 또는 일색의(一色衣)로 불렸으며, 명대에는 예살(曳撒), 일살(一撒)로 불렸다. 질손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복식학자 주석보(周錫保)가 ‘예살은 질손과 같다.’고 하였으며, 『명궁사(明宮史)』에 “뒤는 끊어지지 않고 양옆에는 무가 있으며, 앞은 상의와 하의가 끊어지고 하의에는 마면습(馬面褶)이 있다.”고 하여 질손의 형태는 앞은 철릭형이고 뒤는 직령형의 원대 복식으로 밝혀졌다.³⁷⁾ 그러나 당시 질손은 의복과 관모가 갖추어졌다는 의미를 담는다. 따라서 형태나 복색이 자유로웠던 원대의 대표적인 포를 질손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향과 이조년의 포를 ‘질손’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조년의 초상에서는 이중갓으로 여밈이 깊고 양옆이 터져 있으며, 허리에는 대를 매고 의와 상이 연이어져 있는 직령포이다. 이에 안향과 이조년이 입은 포는 원나라의 질손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고려인의 직령포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만 관모의 형태를 달리함으로써 관리의 예복 또는 일반인의 평상 예복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조년은 허리에 세조대를 띠고 있으며, 신발은 포가 길게 내려와 잘 보이지 않지만, 검은색 화를 신었을 것이며, 안향 역시 화를 신었을 것이다. 초상화 속 안향은 검은색 평정건을 쓰고 직령포를 입은 고려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주자학을

37) 최규순·고부자, 「〈원세조출렵도〉중의 세조 복식 연구」, 『복식문화연구』 13(4), 복식문화학회, 2005, 148쪽.

처음 들어온 학자로서의 면모를 더 닦고 싶었던 봉안자들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 주세붕의 복식

주세붕은 오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은 조선시대 관리의 모습이다. 1522년(중종 17) 사마시에 급제하였고 같은 해 겨울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임명되었다. 1541년(중종 36) 풍기군수가 되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후 조정에 돌아와 내·외직을 두루 거친 학자 관료이다.³⁸⁾ 더욱이 그는 유학을 교화의 방도로 보아 그 보급을 위해 정성을 쏟았고 또 유학의 이념을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그림 27〉의 반신상과 〈그림 28〉의 전신상을 통해 당시 복식을 살펴보면, 사모는 모체가 높고 모정이 둥글며 양각은 넓은 타원형으로 수평을 이룬다. 단령은 깃의 파임이 적고 깃 넓이가 좁으며, 안에는 백색 동정이 붙은 니의(裏衣)를 받쳐입고 있다. 니의(裏衣)의 깃은 목 위로 올라와 깃이 바르게 되어 있다. 이 시기의 유물에서 보면 단령의 깃넓이가 2~5cm폭으로 아주 좁으며 속에 니의를 따로 입었는데 니의의 깃이 스카프를 두른 것처럼 목을 감싸고 있다. 이 시기 소매의 옷길이는 통수이면서 소매부리 쪽만 약간 좁아지는 형태이다.³⁹⁾ 그림만으로는 단령의 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녹색으로 보이며, 단령 안에는 붉은색과 흰색이 보인다. 흰색은 백색 동정이 붙은 니의로 보이며, 홍색은 단령의 옆트임에서 보이는 홍색으로 이는 답호 안에 입은 철릭이 아닌가 한다. 소매는 넓은 대수로 보이고 녹색 계열이지만 옷감에 구름무늬가 있다.

38) 허권수, 「신재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건립의 과정과 의의」, 『연민학지』 38, 연민학회, 2022, 154~156쪽.

39) 최은수,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민속원, 2007, 174~175쪽.



〈그림 27〉 관복,
〈주세붕 초상〉, 소수서원.



〈그림 28〉 관복, 〈주세붕초상〉,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7〉과 〈그림 28〉의 가장 큰 차이는 흉배의 유무이다. 〈그림 27〉은 흉배가 없고 무문의 단령을 입고 있으며, 〈그림 28〉은 흉배가 달려있다. 흉배는 1454년(단종 2)에 문무백관의 상복에 달기 시작하였다. 신분에 따라 문관 1품은 공작, 2품은 운안, 3품은 백한이며, 무관 1,2품은 호표, 3품은 웅비이다. 〈그림 27〉에는 단령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4품관인 군수시절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림 28〉은 학정금대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2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흉배가 달린 초상화는 주세붕이 황해도 관찰사로 제수⁴⁰⁾받은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신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흉배의 무늬나 학정금대와는 차이가 있어 당시 복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화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주세붕의 초상은 풍기 군수로서의 선정을 기리고자 한 봉안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물로 이해된다.

40)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7월 2일(기사).

조선 초기에는 단령의 색상 규정이 없어 잡색단령을 입었다. 이후 세종대에 옅은색의 단령을 금지하면서 압두록색 면포와 홍색 명주로 된 단령을 착용했다. 또 1446년(세종 28)에는 흑색 조의(朝衣)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1471년(성종 2) 진현시, 상참, 조계 등에는 흑단령을 입고, 입시할 때에는 흑단령의 착용을 금지하였다. 1493년 『악학궤범』에는 예복 흑단령을 시복(時服)으로 지칭하면서 명칭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1510년(중종 5)에는 흑단령과 사모를 예복으로 지칭하였으며, 1518년(중종 13)에는 흑단령을 시복으로 지칭하였기 때문이다.⁴¹⁾ 결국 상참과 조참에는 흑단령을 입고 경연에는 홍단령을 입는 것으로 그 용도가 정리되었다.

이후 1649년 『학봉집』에서는 예복으로 흑단령을 입고, 상복으로 홍단령을 입었으며, 『연려실기술』에는 임진란 이후 시복은 흑단령, 상복은 홍단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칭에 대한 혼란으로 1610년(광해군 2)이후 예복인 흑단령이 상복이 되고, 시복은 담홍색의 홍단령으로 정착되었다.⁴²⁾ 따라서 공신 도상에 그려진 모든 공신은 흑단령을 입고 있어 이것이 예복으로서 조선 초에는 시복으로 불려졌으며, 1610년 이후에는 상복으로 불려졌지만 모두 흑단령을 입었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동시대 공신상인 <그림 29>는 사모에 단령을 입은 유순정(1459~1512)이고 <그림 30>은 사모에 단령을 입은 유홍(1524~1594)이다. 이 둘은 부자지간으로 동일한 형태의 사모를 쓰고 있지만 단령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유순정은 공작홍배를 달고 있으며 유홍은 홍배가 없다. 각대도 유순정은 서대를 띠고 있으며, 유홍은 은대를 띠고 있다. 또 유순정은 홍색 답호에 녹색 철릭을 입고 있으며, 유홍은 녹색 답호에 남색철릭을 입고 있다. 이는 홍배, 각대 및 답호와 철릭의 색에 의해 신분을 구분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유순정은 1품에 해당하는 관리의 복식이며, 유홍은 4품에 해당하는 관리의 복식을 입고 있다.

41)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9월 27일(갑자).

42) 『광해군일기』 29권, 광해 2년 5월 19일(계해).



〈그림 29〉 시복-흑단령, 〈유순정 공신 초상화〉, 문화재청.



〈그림 30〉 시복-흑단령, 〈유홍 공신 초상화〉, 문화재청.

또한 단령 안에 입은 답호와 철릭도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출토유물을 통해 주세봉이 단령 안에 입은 복식의 형태를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변수(1447~1524)묘에서 출토된 〈그림 31〉의 철릭⁴³⁾과 답호를 〈그림 32〉의 심수륜(1534~1589) 출토 복식과 비교하면, 소매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착수에서 부리로 가면서 넓어지는 일명 콩깍지형으로의 변화를 보이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림 27〉의 주세봉 초상화에서는 단령의 소매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림 28〉에서는 넓어진 소매를 확인할 수 있다. 단령 속에 입은 철릭의 소매가 콩깍지 형태로 넓어졌기 때문에 단령의 소매가 넓어진 결과일 것이다. 소매의 탈부착은 계속 이어졌으며, 양쪽 다 탈부착이 가능하기도 했다.⁴⁴⁾ 이러한 양식의 변화로 볼 때 주세봉의 초상화에서도 소

43) 최은수, 「변수(1447~1524)묘 출토 요선철릭에 관한 연구」, 『복식』 53(4), 한국복식학회, 2003, 164쪽.

44) 송미경, 「16세기 사대부 남자 복식의 일례연구 - 심수륜(1534~1589)묘 출토복식

매의 너비가 넓어지는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주세붕의 초상화는 풍기군수로서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관리의 상복인 사모에 흑단령을 착용함으로써 선정자가 되고 싶은 봉안자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31〉 철릭과 답호, 변수묘 출토유물,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32〉 심수륜(1534~1589) 철릭과 단령, 심수륜묘 출토유물, 경기도박물관.

3. 돈암서원 송시열의 복식

송시열은 복건을 쓰고 심의를 입은 유학자의 모습이다. 송시열은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조선 중기의 지배적인 실학·정치·사회·사상을 정립한 거유로서 일생동안 주자학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한 인물이다.

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10(1), 한복문화학회, 2007, 94쪽.



〈그림 33〉한시각, 〈송시열 초상〉, 국립청주박물관.

〈그림 34〉김창업, 〈송시열 초상〉, 황강영당.

〈그림 35〉김창업, 〈송시열 초상〉, 리움미술관.

그의 생전에 제작된 초상화는 〈그림 33〉의 도화서 화가 한시각(韓時覺, 1621~?)이 그린 초상, 대제학을 지낸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초를 뜨고 화사가 완성한 초상, 그리고 〈그림 34, 35〉의 김창업(金昌業, 1658~1720)이 초를 뜨고 화사가 완성한 초상 등 세 종류가 있다.⁴⁵⁾ 그중 김창업이 그린 초상화 중 야복을 입고 있는 초상화에 다시 의관만 바꿔 심의 복건을 입은 초상화가 남아 있다.⁴⁶⁾ 이 외에도 작자미상의 〈송시열 초상〉이 여러 건 남아 있는데 대부분 복건에 심의를 입고 공수하고 있는 반신상이거나 전신상이다.

심의는 주자학의 유입과 더불어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유학자들 사이에 통상예복으로 착용되었다. 심의는 그 속에 심연한 의미를 담고 있는 관촬한 포(袍)형으로서 상의와 하상이 허리에서 연결되었고 깃과 소매부리 및 옷의 단에 검은색의 연(緣)이 둘러져 있다.

45) 고연희,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63쪽.

46) 강관식, 「국보〈송시열 초상〉의 제작 시기와 맥락」, 『미술사와 시각문화』 29,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2, 79쪽.

의복 속에 유교의 철학적 의미를 담아 의복을 하나의 소우주로 보았는데 이는 우주와 인간이 일체를 이룬다는 중국의 자연관에 근거하고 있다.⁴⁷⁾ 이처럼 유교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심의를 유자들이 입은 이유를 보면, 첫째 천도를 본받아 인도로 삼고자 하는 유교의 이념을 의복에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을 유복으로 삼아 그 도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심의의 소매, 깃, 등술, 상(裳)의 아랫단 부위는 자연의 공간적 측면을 표현하는 원(圓), 방(方), 직(直), 평(平)의 형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늘은 원을, 땅은 방을, 사람은 직과 평으로서 심의에 하나의 소우주를 담아 인간과 우주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셋째, 심의의 구성에 사용되는 수는 예기에 의하면 심의 12폭은 자연의 시간적 측면을 포함하는 1년(年), 4시(時), 12월(月)로 상징되었다.⁴⁸⁾

조선시대 심의의 용도는 길과 흉에 동일한 제도로 통용되었으며, 길복으로는 천자의 양노예복, 대부·사의 연복 및 문무에 통용되는 의복 등으로 계층이나 업무의 구별 없이 폭넓게 사용되었다. 흉복으로는 제후의 제복을 비롯하여 사서인 및 부녀자의 흉복으로 남녀, 귀천의 구별없이 착용되었다.⁴⁹⁾

심의를 입은 모습은 <그림 36>의 고려 말기 <이제현 초상화>와 <김재 초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 초기에는 고려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가례』와 비교하여 많은 유학자들이 각자의 설을 들어 심의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심의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자가례』의 실천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더욱이 심의를 착용했을 때 체득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 또는 그로 인해 실천하게 되는 유교의 도덕이 있음을 주요하게 여긴 까닭이다.⁵⁰⁾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 복건을 쓰고 심의를 입은 초상화를 남긴 것도 주자의 제도를

47) 정혜경·권영숙, 「역을 통하여 본 심의의 상징성」, 『복식』 16, 복식학회, 1991, 75쪽.

48) 정혜경·권영숙, 앞의 책, 1991, 82쪽.

49) 정혜경, 『심의』,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51~53쪽.

50) 차서연·장동우, 「서유구의 복식관 - 「섬용지」 「복식지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복식』 62(6), 한국복식학회, 2012, 86쪽.

계승한 노론에게 학문적 정통성이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소론과 동인계 남인들은 송시열과 다른 심의제도를 주장하며, 심의를 입을 때 쓰는 복건이 마치 승려가 사용하는 승건과 같다고 하며, 제도에 맞지 않는 복건 대신 <그림 37>과 같이 정자관을 썼다. 또 소론의 박세당도 노론과는 다른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송시열과는 다른 <그림 38>과 같은 합임형 방령심의를 착용하였다.⁵¹⁾

방령심의를 한백겸 이래로 『예기』의 주소 및 『가례』에 대한 주석들이 잘못되었다는 비판 의식 아래 『예기』의 심의제도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중 한백겸의 방령심의를 실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았으며, 그 후 유희문의 심의제에서 여밈 처리가 다소 보완되었으며, 다시 박구수와 허전의 설이 있는 심의제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주로 화서학과를 주축으로 한 위정척사 사상가들에게 널리 착용되었다.⁵²⁾



<그림 36> 작자미상, <이제현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7> 채용신, <황현 초상>, 광주광역시.

<그림 38> <박세당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51) 고윤정·임은혁, 「조선시대 남성복식에 발현된 성리학적 몸 인식」, 『복식문화연구』 31(5), 복식문화학회, 2023, 9쪽.

52) 정혜경, 앞의 책, 1998, 151쪽.

한편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는 <그림 39>와 같이 복건을 쓰고 앞에서 마주 보는 대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허리에는 심의대를 띠고 있는데, 신(紳)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검은색 가선이 둘러져 있다. 또 <그림 40>의 허전(許傳, 1797~1886)은 기호 남인계 학자로서 치포건을 쓰고 방령심의를 입고 있다. 그러나 박세당의 방령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허전의 여밈은 대금이 아닌 우임으로 여며 입었다. 또한 심의대도 전체적으로 검은색 가선을 두르고 있으며, 혜를 신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심의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송시열의 복식은 복건을 쓰고 심의를 입은 조선시대 유학자의 복식이다. 특히 주자의 정통성을 드러내고자 교임형의 심의를 착용하였으며, 봉안자들 역시 그런 모습이 담긴 초상화를 봉안하고자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송시열을 따르는 노론계 유학자들 역시 송시열을 추앙하고 있음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 39> <권상하 초상>, 제천의병전시관.



<그림 40> <허전 초상>, 경기도박물관.

V. 맺음말

본 연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9곳의 서원 중 초상화가 전해지는 서원을 대상으로, 초상화 속 제향인물의 복식을 중심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복식은 제향인물의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시각적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복식을 중심으로 초상화를 분석한 사례가 드물었다. 이는 ‘초상화’가 주로 미술사적·인물사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기 때문이며, 복식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복식사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회화·조각 등 시각자료를 활용한 복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복식사 연구의 심화와 연구대상의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수서원의 안향과 주세붕의 초상화, 무성서원의 최치원 초상화, 돈암서원의 송시열 초상화를 중심으로 복식이 지니는 시대적·상징적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에 봉안된 초상화 속 인물은 상주가 생존했던 당시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러 번의 모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복식은 처음 그려진 상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복식을 통해 초상화의 제작시기를 역추적할 수 있는 유효한 단서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초상화 속 제향인물의 복식은 각 시대의 복식제도와 신분을 반영함과 동시에 봉안자의 의식이 투영된 상징적 장치로 작용하였다. 무성서원의 최치원은 통일신라시대 관리의 복식인 복두에 단령을 착용하였고, 소수서원의 안향은 고려인의 평정건인 조건에 직령포를 입고 있었으며 주세붕은 조선시대 관리의 복식인 사모에 단령을 입고 있었다. 돈암서원의 송시열은 조선시대 유학자의 예복인 복건에 심의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복식의 차이는 각 인물이 속한 시대의 복식체계뿐 아니라 봉안자들이 인물에게 부여한 이상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초상화 속 제향인물의 복식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은 단순한 시대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후손이나 제향자들이 인물에게서 본받고자 한 이상적 인격과 덕목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치원은 유학의 도입과 선정의 상징으로, 안향과 송시열은 대학자적 면모로, 주세붕은 유교적 교화를 실천한 관리로 이상화되었다. 안향의 경우 이조년과 유사한 직명포를 착용하였으나 관모를 달리하여 관리보다는 학자의 정체성을 부각하였으며, 송시열 역시 복건과 심의를 착용함으로써 유학자로서의 위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초상화가 단순한 인물의 형상 재현을 넘어 봉안자와 후학의 염원을 투영하는 매개체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결국 서원에 봉안된 제향인물 초상화 속 복식의 차이는 제향대상 인물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 봉안자의 가치관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치원과 주세붕의 경우 관료적 역량과 정치적 덕치를 상징하는 관리의 복식이 강조되었으며, 안향과 송시열의 경우에는 대학자로서의 학문적 이상과 도덕적 완성을 상징하는 학자의 복식이 선택되었다. 이는 각 서원이 추구한 인물상과 교화 이념이 복식의 형태를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상화 속 복식이 단순한 의복표현을 넘어 제향인물의 정체성과 봉안자의 이상을 연결하는 상징적 매개체로 기능하였음을 밝힘으로써, 서원 제향문화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복식사와 초상화 연구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향후 제향인의 형성과정 및 사회문화적 수용양상을 규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원전

『고려사』

『광해군일기』

『명종실록』

『승정원일기』

『중종실록』

『파한집』

2. 논저

강관식, 「국보<송시열 초상>의 제작 시기와 맥락」, 『미술사와 시각문화』 29,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2.

강관식, 「우암 송시열의 화상 기문과 주자성리학적 영정 제의관」, 『미술사학』 3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7.

강관식, 「조선시대 초상화를 읽는 다섯 가지 코드」, 『미술사학보』 38, 미술사학연구회, 2012.

고연희,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고윤정·임은혜, 「조선시대 남성복식에 발현된 성리학적 몸 인식」, 『복식문화연구』 31, 복식문화학회, 2023.

김기주, 「도동서원과 한강학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김명자, 「조선후기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한국사상과 문화』 2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김봉곤,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한국계보연구』 5, 한국계보연구회, 2014.

김용재, 「류성룡의 실학적 토대로서의 경학관 연구」, 『서애연구』 7, 서애학회, 2023.

김정운,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체계 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 김지민, 「최치원 영정의 형성과 전파:최치원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6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 문화재청, 『한국의 초상화 - 역사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2007.
-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 남계서원 소장 『부보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75, 대동한문학회, 2023.
- 송미경, 「16세기 사대부 남자 복식의 일례연구 - 심수륜(1534~1589)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10(1), 한복문화학회, 2007.
- 안영훈, 「정읍 무성서원과 선비문화 원류 최치원」, 『대순사상논총』 40,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22.
- 우남주, 『백운동서원의 설립배경 - 주세붕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윤진영, 「성주이씨 가문의 초상화 연구」, 『장서각』 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이병훈,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 이병훈,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 이성훈,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19.
- 이정화, 「소수서원 건립의 문화적 토대 연구 - 회현 안향의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48, 동양고전학회, 2012.
-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 -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5, 국학연구소, 2018.
- 임선빈, 「돈암서원의 건립배경과 사액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 장동익, 「안향의 생애와 행적」,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 장일규, 「최치원 관련 유적의 분포와 승모」, 『한국사학보』 63, 고려사학회, 2016.
- 정성식, 「회현 안향의 주자학 수용과 성격」, 『동방학』 1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 정우락,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악양정과 남계서원」, 『남명학연구』 36, 남명학연구소, 2012.
-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 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 정혜경, 『심의』,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정혜경·권영숙, 「역을 통하여 본 심의의 상징성」, 『복식』 16, 복식학회, 1991.

- 조선미,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 지두환, 「우암 송시열의 생애와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1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 차서연·장동우, 「서유구의 복식관 - 「섬용지」 ‘복식지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복식』 62(6), 복식학회, 2012.
- 최규순·고부자, 「〈원세조출렵도〉중의 세조 복식 연구」, 『복식문화연구』 13(4), 복식문화학회, 2005.
- 최은수, 「변수(1447~1524)묘 출토 요선철릭에 관한 연구」, 『복식』 53(4), 한국복식학회, 2003.
- 최은수,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민속원, 2007.
- 최종호, 「병산서원의 역할과 위상」,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 한상규,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선비문화』 1권, 남명학연구원, 2004.
- 한정호, 「최치원 영정연구」, 『한국지역문학연구』 5(2), 한국지역문학학회, 2016.
- 허권수, 「신재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건립의 과정과 의의」, 『연민학지』 38, 연민학회, 2022.

Abstract

Costume Culture in Portraits of Enshrined Figures at UNESCO–Listed Confucian Academies

Lee, MinJoo*

During the Joseon Dynasty, Confucian academies (seowon) functioned as spaces to honor revered scholars and educate future generations. The enshrinement of portraits in these academies carried not only commemorative and ritual significance but also a moral and self-cultivating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cases of extant portraits in UNESCO-registered seowon to examine how the attire of enshrined figures served as a visual indicator of their identity and social status while simultaneously reflecting the aspirations of the enshrining parties and later disciples, thereby re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se portrai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figures depicted in the portraits—An Hyang and Ju Se-bung at Sosu Seowon, Choi Chi-won at Museong Seowon, and Song Si-yeol at Donam Seowon—wore clothing corresponding to the period in which they lived, allowing the dating of the portraits to be inferred. The attire of each figure not only reflected the socio-institutional context and the status of the subject but also functioned as a visual device embodying the idealized identity ascribed by the enshrining parties. Choi Chi-won and Ju Se-bung wore official robes symbolizing administrative ability and political virtue, An Hyang donned the official robe (jikrengpo) and a ceremonial hat (jogeon), and Song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searcher / mjlee815@aks.ac.kr

Si-yeol wore the formal robe (simui) and bokgeon, representing scholarly ideals and moral perfection.

The variation in attire among seowon portraits indicates differences in contemporary perceptions of the enshrined figures and the values of the enshrining parti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portraits functioned not merely as representations of individuals but as symbolic mediators projecting the aspirations of both the enshrining parties and disciple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material for further integrated research on seowon enshrinement culture, costume history, and portraiture in Joseon Korea.

Key word : Seowon,, Portrait, enshrined figures, Costume culture, symbolism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조선시대 서원 강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자 윤*

- I. 서론
- II. 개별 서원 강학 연구
- III. 주제별 강학 연구
- IV. 결론: 강학 연구의 성과 및 과제

【국문초록】

2000년대 이후 강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강학 연구 역시 그 질적인 심화와 함께 연구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 강학 쇠퇴론 혹은 부재론에 대한 반론으로 조선후기까지 실재했던 다양한 강학활동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서원 강학의 구체적 방식에 대한 유형화가 시도되고, 서원 규약에 나타난 조선 서원의 강학 제도와 변천사가 개괄적으로 밝혀졌으며,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강학'이라는 주제를 교육사적 시각을 넘어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강학 연구의 지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강학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그 특징과 의미, 향후 연구과제 및 연구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학 연구 성과는 서원별, 주제별, 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서원별 강학 연구를 경상좌도, 경상우도, 호서, 호남, 경기, 화서학파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강학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주제는 '강학 제도 및 학구 관련 연구', '강학 의례 관련 연구', '총론 및 강학 자료를 소개한 연구', '서원 강학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의 다섯 가지로 구별하였다.

4장에서는 최근 강학 연구의 특징을 첫째, '학교 중심에서 학교 주변'으로 강학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연구소 / jaunkim@kongju.ac.kr

에 대한 관심축의 이동, 둘째, '지식의 수용과 전수'에서 '지식의 생산과 전이'로 강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셋째, 강학 연구를 위한 대상 자료의 확장, 넷째, '강학 의례' 관련 연구의 등장 등 4가지로 분석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서원, 강학, 강학의례, 지식의 수용과 전수, 지식의 생산과 전이

I. 서론

1980년대까지 강학 연구는 대개 서원, 서당 등 기관 중심의 교육제도와 교육사상이라는 제한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80년대 후반 이후 비교적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문집, 서원지, 고문서, 각 기관의 관련 DB 구축 등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2000년대 이후 강학 연구는 그 질적인 심화와 함께 연구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 강학 쇠퇴론 혹은 부재론에 대한 반론으로 조선후기까지 실재했던 다양한 양상의 강학활동을 실증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서원 강학의 구체적 방식에 대한 유형화가 시도되고, 서원 규약에 나타난 조선 서원의 강학 제도와 변천사가 개괄적으로 밝혀졌으며,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강학'이라는 주제를 교육사적 시각을 넘어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강학 연구의 지평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강학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그 의미와 향후 연구 과제 및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학 연구 성과는 서원(서당, 정사 포함)별, 주제별, 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서원별 강학 연구를 경상좌도, 경상우도, 호서, 호남, 경기, 화서학과로 분류하였다. 화서학과파의 서재와 정사는 강원도와 충청도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강학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주제는 ‘강학 제도 및 학규 관련 연구’, ‘강학 의례 관련 연구’, ‘총론 및 강학 자료를 소개한 강학 전반에 대한 연구’, ‘서원 강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적용’의 다섯 가지로 구별하였다.

2000년대 이후 강학 관련 연구는 전체 87편으로, 주제별, 지역별 연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00년대 이후 서원 강학 연구 현황

주제별 강학 연구	연구성과(편)	
개별 서원 강학	64편	경상좌도(30): 도남/근암(2), 도동(1), 도산(1), 병산(2), 소수(7), 연경/영모당(4), 옥산(1), 용산(3), 호계/고산(9)
		경상우도(10): 남계, 회연, 덕천, 산천재, 산해정, 녹봉정사, 자암서당 등
		호서(9): 도산, 돈암, 죽림, 화양, 송천, 지산, 종학당 등
		호남(4): 고암, 죽수, 훈몽재 등
		경기(6): 덕봉, 석실(5)
		화서학파(5): 가정서사, 장담서사, 龜洞精舍 등
제도 및 학규	9편	
강학 의례	5편	
총론 및 강학 자료	7편	
현대적 해석과 적용	2편	
총	87편	

Ⅱ. 개별 서원 강학 연구

1. 영남

1) 경상좌도

경상좌도 지역 서원 강학 연구는 총 30편으로 전체 강학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단일 서원으로는 소수서원이 7편으로 가장 많고,

호계서원 5편, 고산서원 1편, 호계서원과 고산서원 강학을 함께 분석한 연구가 3편이다. 다음으로 연경서원과 영모당 강학을 함께 다룬 연구가 4편, 용산서원이 3편이며, 그 외 도산, 병산, 도동, 도남, 근암서원은 한 두 편에 불과하다. 서원별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수서원

-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사례」¹⁾
- 『소수서원 강학 연구』²⁾
-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³⁾
-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공적 기반 변화와 그 대응-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⁴⁾
-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講學의 변화」⁵⁾
- 「19세기 소수서원 중용 강회와 퇴계학의 분화」⁶⁾
- 「과거 대응 방식을 통해 본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변화」⁷⁾

(2) 호계서원, 고산서원

-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⁸⁾
-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⁹⁾
-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¹⁰⁾

1) 윤희면, 『歷史教育』 92집, 歷史教育研究會, 2004.
 2) 김자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 김자운,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8집, 한국유교학회, 2014.
 4) 김자운, 『지방사와 지방문화』 18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5.
 5) 김자운, 『퇴계학논집』 제18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6) 김자운, 『퇴계학논집』 제19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7) 김자운, 2017, 『퇴계학논집』 제2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8) 권오영,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9) 권오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10) 권오영, 『민족문화논총』 제70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 「大山學派의 高山精舍 강회와 性理說 講論」¹¹⁾
-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¹²⁾
- 「조선시대 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¹³⁾
- 「1765년 虎溪書院 『대학』 강회 연구(1)」¹⁴⁾
- 「虎溪書院의 강학 활동과 학풍」¹⁵⁾
- 「虎溪書院의 이해 방향」¹⁶⁾

(3) 연경서원, 영모당

- 「『慕堂日記』를 중심으로 본 孫處訥의 교육활동」¹⁷⁾
- 「모당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초 대구 사림의 강학활동과 강회」¹⁸⁾
- 「낙동강의 서원과 ‘寒岡學風」」¹⁹⁾
- 「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지역 제3세대 유학자」²⁰⁾

(4) 용산서원

- 「龍山書院과 教育活動」²¹⁾
-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²²⁾
- 「조선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²³⁾

11) 全丙哲, 『東方漢文學』 38집, 2009.

12) 최광만, 『교육사학연구』 22권 1호, 교육사학회, 2012.

13) 김자운, 『유학연구』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14) 김자운, 이우진,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15) 정재훈,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16) 정만조, 『한국서원학보』 19, 한국서원학회, 2024.

17) 정재훈,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2015.

18) 박종천, 『국학연구』 44, 한국국학진흥원, 2021.

19) 정우락, 『유교사상문화연구』 95, 한국유교학회, 2024.

20) 구본옥, 『조선사연구』 28, 조선사연구회, 2019.

21) 정순우, 『龍山書院』, 집문당, 2005.

22) 김경용, 『교육사학연구』 16집, 교육사학회, 2006.

(5) 병산서원

-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²⁴⁾
- 「18세기 말 병산서원의 강학 활동과 그 의의」²⁵⁾

(6) 도남서원, 근암서원

-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²⁶⁾
- 「道南書院의 강회와 강학」²⁷⁾

(7) 도산서원

- 「심학과 이기, 정학을 둘러싼 논쟁들」²⁸⁾
- 「16세기 안동지역 서당의 강학활동과 교육내용 - 도산서당의 교육내용과 공부론을 중심으로」²⁹⁾

(8) 도동서원

- 「도동서원의 교육활동과 사족의 동향」³⁰⁾

(9) 옥산서원

- 「경주 옥산서원의 강학활동과 그 성격」³¹⁾

23) 정재훈, 『한국서원학보』 16, 한국서원학회, 2023.
24) 박중배, 『교육사학연구』 18집 2호, 교육사학회, 2008.
25) 박중배,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26) 이수환, 『민족문화논총』 제6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27) 김정운, 『한국서원학보』 16, 한국서원학회, 2023.
28) 정순우,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29) 김자은, 『민족문화논총』 69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30) 정순우, 『道 東에서 꽃피다』,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2013.
31) 이병훈, 『한국교육사학』 제41권 제2호, 2019.

2) 경상우도

- 「19세기 江右 학자들의 학문동향」³²⁾
- 「조선중기 덕계문인의 형성과 강학」³³⁾
- 「性齋 許傳의 江右地域 門人 考察」³⁴⁾
- 「자암일록으로 살펴본 소눌 노상직의 교육활동과 의미」³⁵⁾
- 「내암 정인홍의 강학과 교육」³⁶⁾
- 「한강 정구의 강회 시행과 그 특성」³⁷⁾
- 「한강정구의 회연초당 건립과 교육활동의 의미」³⁸⁾
- 「녹봉정사와 조선중기 낙중학의 전개」³⁹⁾
- 「녹봉정사의 건립과 경영 및 강학」⁴⁰⁾
- 「조선후기 향약의 교육 활동 - 봉화 성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⁴¹⁾

영남 지역 개별 서원의 강학 연구 중 연구성과가 가장 많은 곳은 소수서원이다. 그 이유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강학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사례」는 소수서원 강학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이다. 18-19세기 소수서원의 『居齋錄』, 『居齋雜錄』, 『講所雜錄』을 토대로, 거재, 강회, 거접, 백일장, 순제 등 32차례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참여 유생들의 성씨와 인원, 신분, 교육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32) 권오영, 『남명학연구』 1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1.

33) 사재명, 『남명학연구』 17,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04.

34) 강동욱, 『남명학연구』 31,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1.

35) 이규필, 『한문학보』 41, 우리한문학회, 2019.

36) 사재명, 『남명학』 24, 남명학연구원, 2019.

37) 김대식, 『한국교육사학』 41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9.

38) 김지은, 『역사교육연구』 35, 한국역사교육학회, 2019.

39) 홍원식, 『한국학논집』 7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20.

40) 구분옥, 『한국학논집』 7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20.

41) 김대식, 『교육사학연구』 31집 1호, 교육사학회, 2021.

『소수서원 강학 연구』는 개별 서원 강학에 대한 최초의 통시적 연구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소수서원 강학의 이념과 실제, 역사적 변천, 경제적 기반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은 ‘관학’이 아닌 ‘사학’으로 ‘사람’이 설립과 운영의 주체라는 기존 서원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달리, 16세기 관학적 성격이 두드러졌던 소수서원 사례에 주목하여 학교로서 조선조 서원이 수행한 교육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공적 기반 변화와 그 대응」은 행정적, 재정적 기반 등 서원교육의 공적 기반 변화와 그 대응 방식에 따라 서원교육의 정체성과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講學의 변화」에서는 소수서원을 창건한 주세붕과 퇴계의 서원관의 차이 및 각 서원관이 소수서원 강학 실제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19세기 소수서원 중용 강회와 퇴계학의 분화」는 조선후기 대산 이상정에게 계승된 영남 퇴계학의 한 학맥이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승, 분화되었는지 밝힌 연구이다. 「과거 대응 방식을 통해 본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변화」에서는 조선시대 서원의 과거 대응 방식과 그에 따른 교육의 성격 변화를 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호계서원과 고산서원에 대한 권오영의 연구 세 편에서는 병론, 호론, 동학, 이진상의 심즉리설과 척사운동, 영남 우도 학자들에게 계승된 허전의 실학과 예학, 애국계몽사상과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19세기 전후반 영남 유림의 사상적 동향과 영남 퇴계학의 분화 과정을 19세기 고산서원, 호계서원, 오산당 등 영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강학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전병철의 연구는 대산의 문인들이 스승의 학문과 사상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켜 나갔는지를 19세기 고산강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최광만의 연구에서는 호계서원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퇴계 학맥의 분화 과정과 향론의 주도라는 사회사적 의미 해석에 치우쳤음을 지적하고, 1856년 호계서원 강회에서 전개된 문답의 구체적 방식과 그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강학을 ‘1:1 문답,

특강 형식의 강학, 고급 세미나의 3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김자운의 연구에서는 16세기 호계서원의 위상과 관학적 성격 및 16-19세기까지 호계서원 강학활동의 전개와 변화상을 추적하였다. 또 18-19세기 강회를 주도한 인물들의 사승관계 분석을 통해 호계서원 강회는 ‘퇴계로부터-학봉 김성일-갈암 이현일-밀암 이재-대산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맥 형성에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었음을 밝히고, 강회의 교재 분석을 통해 18-19세기 호계서원 강회의 특징과 경향성이 심학과 실천적 학풍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김자운, 이우진의 연구에서는 「여강기문록」에 수록된 1765년 〈대학〉 강회의 형식과 절차, 참여 인물 및 문답의 형식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강회에서 이루어진 문답의 특징을 첫째, 3강령과 8조목의 관계, 그리고 8조목 사이의 관계 등 『대학』의 구조에 대한 대산의 독자적 해석, 둘째, 존덕성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던 대산학의 사상적 특징, 셋째, 일상에서의 공부법으로 無自欺와 愼其獨을 강조했던 퇴계 공부론의 계승에서 찾고 있다. 정만조의 연구에서는 서원 강학의 유형을 ‘독서(장수), 승당강학, 강회(세미나), 회강(심포지움)’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용산서원에 대한 정순우의 연구에서는, 18세기 용산서원은 강학 기능이 약화되긴 하였으나, 거점의 운영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기능을 유지하였으며, 거점은 촌락 내부에서 家格을 유지하는 상징적 의미와 용산서원을 하나의 경제적인 단위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김경용의 연구는 정순우의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외에 순제, 백일장 방목과 다수의 거점활동, 강회 기록 등을 추가로 조사, 상세히 분석하여 선행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병산서원에 대한 박종배의 연구에서는 원규, 거재, 통독 등 18세기 강학 자료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18세기 강학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도남서원과 근암서원에 대한 이수환의 연구에서는 近巖書院과 道南書院에서 상주목사와 함께 권상일이 주도했던 강회, 거점, 백일장 등 18세기 강학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도산서원에 대한 정순우의 연구에서는 ‘서책, 지식의 생산과 공론의 수립’

이라는 관점에서 퇴계의 교육관과 도산서당에서의 강학 및 퇴계 사후 도산서원에서 행해진 다섯 차례의 강회를 분석하였다. 시대적 요청에 따른 지식의 생산과 퇴계학과 내부의 공론 수렴 과정이 서원 강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함으로써 서원 강회의 사회사적, 문화사적 의미를 밝혔다.

김자운의 연구에서는 심학적 공부론의 확립을 위해 퇴계가 구체적으로 구상했던 도산서당의 교육내용은 무엇이었고, 이는 계상서당 시절 그가 편찬한 교재들의 내용과 특징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계몽전의』, 『주자서절요』, 『자성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 「溪山記善錄」을 바탕으로 도산서당 강학활동의 실제 및 도산서당의 교육과정에 구현된 경 공부론의 특징을 분석하고, 퇴계가 도산서당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심학적 공부론은 퇴계 사후 문인들의 서당 교육과 간행 및 저술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도동서원에 대한 정순우의 연구에서는 원규에 나타난 도동서원의 교육활동 및 한강 서원관의 특징을 분석하고, 육영재 운영을 통해 18세기 도동서원에서 행해진 교육활동의 일단을 소개하고 있다.

옥산서원에 대한 이병훈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강학 기록은 거의 없지만 심원록, 관련 인사들의 문집, 고문서 자료 등을 토대로 17세기 초반에 장현광이 주도한 강회부터, 17세기의 거재, 거접 활동, 18세기 산당을 활용한 거접, 순제, 백일장 등을 소개하고, 19세기 용산서원과 함께 거재 시행을 도모한 배경 등을 분석하였다.

2. 호서, 호남, 경기, 화서학파

1) 호서

○ 돈암서원

- 「17세기 遯巖書院의 講學活動과 정치·사회적 영향」⁴²⁾

- 「돈암서원의 강학활동」⁴³⁾

○ 논산 파평윤씨 종학당

-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중교육」⁴⁴⁾

- 「논산 노성 파평 윤씨 문중의 종학당 운영 연구」⁴⁵⁾

○ 기타

- 「화양서원의 강학과 학풍」⁴⁶⁾

- 「良齋 田愚의 충청도 중심 강학 활동에 대한 연구」⁴⁷⁾

- 「대전 도산서원(道山書院)의 강학 관련 자료와 시사점」⁴⁸⁾

- 「도학서원으로의 정착 과정과 조선후기 죽림서원 강학의 특징」⁴⁹⁾

- 「최석정의 강학 활동과 청주지역 소론계 서원」⁵⁰⁾

2) 호남

- 「호남지역 서원의 교육활동-竹樹書院誌를 통해 본 유교교양의 수용」⁵¹⁾

- 「18세기 考巖書院의 건립과정과 講會 및 追享의 의미」⁵²⁾

- 「하서 김인후의 순창에서의 강학활동-훈몽재를 중심으로」⁵³⁾

42) 서동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3) 김문준, 『한국철학논집』 제58집, 2018.

44) 이연숙, 『역사와 담론』 52, 2009.

45) 김성수,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4.

46) 권오영, 『우암논총』 1집, 2008.

47) 서종태, 변주승, 『지방사와 지방문화』 20권 1호, 2017.

48) 최광만, 『민족문화논총』 79, 2021.

49) 김자은,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50) 고수연, 홍제연,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51) 한예원, 『유학연구』 2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0.

52) 이선아, 『인문과학연구논총 37』,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일제강점기 노사학맥 부해 안병택 서당의 교육과 그 의미 - 『謹齋北學日記』를 중심으로」⁵⁴⁾

3) 경기

-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활동」⁵⁵⁾
- 「김원행의 학문과 석실서원에서의 강학활동」⁵⁶⁾
- 「18세기 후반 석실서원과 지식, 지식인의 생산」⁵⁷⁾
- 「석실서원의 건립과 교육방법」⁵⁸⁾
- 「老洲 吳熙常의 講學 활동과 독서론」⁵⁹⁾
- 「17세기 말-18세기 초 석실서원의 강학 실재와 특징 - 농암 김창협 강학 활동을 중심으로 - 」⁶⁰⁾

4) 화서학과

- 「성재 유중교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⁶¹⁾
- 「화서 문인공동체 강회의 실재」⁶²⁾
- 「화서학파의 習禮와 行禮 공부」⁶³⁾

53) 최영성, 『유교사상문화연구』 69, 2017.

54) 김새미오, 『대동문화연구』 97, 2017.

55) 李炯丘,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56) 김인규, 『동방학』 22, 2012.

57) 조성산, 『역사와 담론』 66, 2013.

58) 윤경호, 『퇴계학논총』 22, 퇴계학부산연구원, 2013.

59) 신영주, 『한문고전연구』 38,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60) 김자은,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61) 구완희, 『역사교육논집』 44집, 역사교육학회, 2010.

62) 김대식, 『교육사학연구』 21집 1호, 교육사학회, 2011.

63) 김대식, 『교육사상연구』 28권 1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14.

- 「화서학과 문인과 강우지역 문인들의 교유양상 - 경암 곽한소의 『師友從遊錄』을 중심으로」⁶⁴⁾
- 「면암 최익현의 문인 집단 형성과 전개」⁶⁵⁾

호서지역의 강학 연구는 9편으로 돈암서원, 종학당, 화양서원, 대전 도산서원, 죽림서원 등이 있다. 호남은 4편, 경기도는 6편, 화서학파는 5편이다. 호서, 호남, 경기 지역의 강학 연구는 영남지역 강학 연구에 비해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돈암서원에 대한 서동수의 연구에서는 돈암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의 학문과 교육사상을 검토하였다. 실제 강학활동보다는 강학 제도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김문준의 연구에서는, 돈암서원에 직접적인 강학 기록은 현전하지 않지만 서원지, 역대 원장의 명단, 학맥, 사상적 지향, 문집 기록 등을 토대로 돈암서원의 역대 원장, 독서 및 강학 순서, 학규와 강학 활동, 원생 활동을 분석하였다.

파평 윤씨 종학당에 대한 이연숙의 연구는 노서당, 양정재, 산천재 등 노성 파평윤씨의 서재 설립 현황 및 종학당 운영과 강학 자료를 통해 파평 윤씨 문중교육 전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종약과 종학당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를 넘어 파평 윤씨 노종과 전체의 문중교육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성수의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일제시기에 이르기까지 종학당 운영의 변화 과정을 종종 고문서를 토대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파평 윤씨 노종과 문중에 현전하는 방대한 양의 종종 고문서를 분석하여 한말부터 근대시기까지 종학당의 변화상을 밝혔다. 점에서 종학당 연구의 진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죽림서원에 대한 김자운의 연구에서는 서원 건립 이전 김장생의 황산 우

64) 남윤덕, 『인문과 예술』 17호, 2024.

65) 박학래, 『한국철학논집』 64집, 2020.

거와 황산에서의 강학 전통을 검토하고, 건립 초기 지역과 무관한 인물의 제향으로 논란에 직면했던 황산서원이 이후 도학서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가는 과정 및 조선후기 죽림서원의 강학 운영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서원에 향사된 ‘諸賢의 狀德文字’를 강회의 교육과정과 절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죽림서원과 고암서원의 사례를 통해, 서원 강학이 후학들에게 스승의 ‘도통을 전수하고 내면화’하는 구체적인 한 방편으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논증하고 있다.

고암서원에 대한 이선아의 연구에서는 18세기 고암서원 소학 강회와 대학 강회의 배경, 과정, 의의를 분석하였다. 석실서원에 대한 조성산의 연구에서는 주로 정치사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강학을 통한 지식 교환과 전수의 장치’라는 조선조 서원의 고유한 기능에 주목하여, ‘지식’, ‘지식인’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서원이 어떠한 지식을 목적으로 했고, 그 기능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작동하였는지를 안동김문과 석실서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석실서원과 덕봉서원에 대한 신영주의 연구에서는 19세기 노주 오희상이 주도한 덕봉서원과 석실서원의 강회활동과 독서론을 소개하였다. 석실서원에 대한 김자운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주로 김원행이 제정한 석실서원 학규와 강규에 대한 소개, 김원행의 강학활동에 집중되고, 김창협이 강학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고, 『농암집』에 수록된 시, 편지, 제문, 어록, 연보 등에 산견되는 기록을 최대한 검토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까지 김창협이 수행한 강학의 실제와 특징, 과거 공부에 대한 김창협의 독특한 시각과 현실 대응관 등을 조명하였다.

Ⅲ. 주제별 강학 연구

1. 강학 제도 및 학규 관련 연구

- 「朝鮮朝 書院 講學 活動의 性格-會講과 講會를 中心으로-」⁶⁶⁾
-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⁶⁷⁾
-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⁶⁸⁾
- 「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교육과정의 변천」⁶⁹⁾
- 「권상하 문하의 강학활동 연구-강문팔학사를 중심으로-」⁷⁰⁾
- 「종사강학: 황후간의 금양종사」⁷¹⁾
- 「서신강학: 윤기의 소학문목」⁷²⁾
-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⁷³⁾
-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⁷⁴⁾

강학제도 및 학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학규를 통한 강학 이념 및 교육과정의 변천사가 밝혀지고, 강학 방식을 유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종사강학과 서신강학 등 새로운 관점에서 강학이 개념화되기도 하였다.

김대식(2001)의 연구에서는 서원 강학을 개설 주기와 방식에 따라 ‘會講’

66) 김대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7) 박중배,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교육사학회, 2009.

68) 박중배, 『한국학논총』 33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69) 김해용,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0) 김대식, 『교육사학연구』 25집 2호, 교육사학회, 2015.

71) 최광만, 『조선후기 교육사 탐구』,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72) 최광만, 앞의 책(2017).

73) 이정동,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74) 한재훈, 『한국서원학보』 13, 한국서원학회, 2021.

과 ‘講會’로 구별하고, 會講은 별도의 절차나 儀禮 없이 ‘자기 수양을 위한 개인적 활동의 영역’에 속하며, 공식적 의례를 포함하는 講會는 ‘성리학적 윤리관을 향촌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실천적 교화활동’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유형화하였다. 김해용의 연구는 원규, 학규 등 서원 규약을 토대로 각 서원의 科擧 대응 방식의 차이, 교육과정의 변화 및 講會 운영 방식, 강학 관련 규약의 체계화 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김대식(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기관 밖의 사제관계와 학문공동체를 매개로 이루어진 강학활동에 초점을 두고, 호락논쟁이라는 학문적 담론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권상하 문하의 강학 풍토를 규명하였다. 강학 형태를 크게 ‘학습자 주도 강학’과 ‘스승의 인가 관행’으로 구별하고, 학습자 주도 강학은 다시 ‘질의 응답형, 토론 참여형, 활동 참여형’의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강학 풍토가 학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최광만의 연구에서는 일기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강학 자료를 발굴하여 조선 후기 강학을 ‘從師講學’과 ‘書信講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해당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사강학은 학습자 위주의 전인격적 강학, 서신강학은 면대면 학습에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강학방식의 교육사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2. 강학 의례 관련 연구

-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⁷⁵⁾
- 「16세기 안동 지방의 서당의 강학 의식」⁷⁶⁾
- 「조선의 사제관계」⁷⁷⁾

75) 박중배, 『韓國書院學報』 1호, 韓國書院學會, 2011.

76) 정경주, 『조선의 서당에서 배우는 사회적 교육의 지혜』, 새물결, 2018.

77) 김자운, 『사라진 스승-다시 교사의 길을 묻다』, 공저, 현암사, 2019.

- 「조선 서원의 강학 의례와 교육적 의미」⁷⁸⁾
- 「한국 서원 의례의 종류와 의의」⁷⁹⁾

2010년대 이후 강학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이전까지 없었던, 강학 의례 관련 연구의 등장이다. 박종배의 연구는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에서 강학과 함께 시행된 講習禮의 禮敎的 의미를 밝히고 그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정경주의 연구에서는 16세기 중반 이후 안동 지역 서당과 서원 강학에 나타나기 시작한 강학 방식의 변화 및 정읍례 같은 강학 의식의 정착 등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이 시기 강학이 이전 시대와 달리 ‘도학적 성격’을 처음 획득하였음을 논증하고 있다. 16세기 강학의 성격과 목적이 변화되는 과정을 ‘의례’의 변화를 통해 포착하고 해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통찰력 있는 연구이다.

정경주의 연구에 이어 김자운(2020)의 연구에서는, 조선 서원은 제향과 강학공간을 중심으로 크게 의례와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강학 절차는 문자를 매개로 한 지식의 전수 뿐 아니라 다양한 의례들이 긴밀하게 통합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조선 서원이 수행한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 중 어디까지를 ‘강학’의 범주로 볼 것인가를 해명하고, ‘강학 의례’라는 용어를 처음 개념화하였으며, 강학 절차에 수반된 강학 의례들은 서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밝혔다. 김자운(2019)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제간 입문의례 및 그 과정에서 사용된 ‘書贄’라는 고문서를 소개하고, 조선시대 사제관계의 전통과 교육사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78) 김자운, 『민족문화논총』 제7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

79) 한재훈,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3. 총론 및 강학 자료 소개

- 「서원교육의 전개와 교육효과」⁸⁰⁾
- 「한국 서원과 교육활동」⁸¹⁾
- 「조선후기 강학시행 관련 고문서 해제」⁸²⁾
- 「조선시대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⁸³⁾
- 『16세기 嶺南地域 書院 연구』⁸⁴⁾
- 「19세기 말 서원강화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⁸⁵⁾
- 「신산서원 관련자료」⁸⁶⁾

윤희면의 연구에서는 관찬 사료, 서원지, 문집, 고문서 등 폭넓은 자료를 검토하여 거점, 강회, 순제, 백일장 등 조선후기 서원의 다양한 강학 사례를 실증적으로 소개하였다. 정순우(2014)의 연구는 서원 교육의 시대적, 이념적 배경, 강학활동과 교육문화, 교과목과 사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

김경용의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집한 고문서 자료와 고문서집성 시리즈에 수록된 고문서 자료들 가운데 실제 강학활동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해제를 붙였다. 강학 자료가 수록된 곳은 용연서원, 입암서원, 충효당, 의령향교, 삼가향교, 합천향교, 거창향교, 伴鷗亭, 임청각, 二樂齋, 雷龍亭, 新安社 등이다.

임근실의 연구는 16세기 영남지역에 설립된 서원을 대상으로 서원의 설립과 서원지 편찬, 원규의 제정과 서원운영론, 서원 장서의 형성과 지식 기반,

80)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81) 정순우,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82) 김경용, 『한국교육사학』 제40권 제1호, 2018.

83) 김자은, 『유학연구』 제4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84) 임근실,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5) 정순우,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86) 정석태, 『동양한문학연구』 55, 2020.

제향인물의 선정과 도통론 등을 검토하고, 강학 관련 규약과 강학 교재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순우(2021)의 연구는 19세기 말 강회가 사상의 분화 과정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규명하였다. 산천재 강회는 한주 이진상의 주리론이 남명학과 및 노사학과에 진입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석선사 강회는 영남 주리론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며, 도산서원이 주관한 오천강회는 이진상의 학설에 대한 퇴계학파의 대응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또 화서학파의 장담강회는 주리철학이 서양을 배척하는 척양의 논리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을 밝혔다.

정석태의 연구에서는 신산서원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원문과 표점, 자료의 성격과 의의를 밝혔다. 강학 관련 자료로 복인계열 서원 학규로는 유일한 '新山書院立規'를 소개하고 있다.

4. 서원 강학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 「전통 서원 강학 기능의 현대적 복원」⁸⁷⁾
- 「서원 교육의 이념과 실체가 지니는 현대적 시사점 연구-원규와 강회를 중심으로-」⁸⁸⁾

박경환의 연구는 전통 서원 강학 기능의 현대적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설립 배경, 목적,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의 일상적 삶과 소통하는 데 성공한 불교사찰의 사례처럼, 서원 강학의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에 맞는 형식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모색하고 서원문화 계승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87) 박경환, 『안동학』 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88) 김민재, 『퇴계학논집』 2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김민재의 연구에서는 서원교육의 현대적 적용을 위해서는 ‘유교라는 창 안에서 현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대 교육의 창으로 서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산원규, 은병정사학규, 도동원규를 분석하여 ‘학교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재고,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과 자세에 대한 숙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고려 기회 제공’이라는 현대 교육적 시사점을 찾고, 정구의 강법, 석실서원 강규, 호계서원 강회일기 등을 분석하여 현재 도덕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고전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서원 강회의 현대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IV. 결론: 강화 연구의 성과 및 과제

이상에서 검토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강화 연구의 특징과 과제를 ‘학교 중심’에서 ‘학교 주변’으로 강화에 대한 관심축의 이동, ‘지식의 수용과 전수’에서 ‘지식의 생산과 전이’로 강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강화 연구를 위한 대상 자료의 확장 등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으로 ‘학교 중심’ 교육사 담론의 탈피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 강화활동은 근현대 교육처럼 단일 교육기관이나 하나의 학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다양한 서원, 서당, 서재, 정사 등에서 복수의 강화활동에 참여하며 교육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교육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교육의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일 기관 중심의 근대적 시각에서 본다면, 조선의 학교는 교육 기능이 유지된 시기보다 중단된 시기가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호계서원 및 19세기 소수서원의 강화 현황이다.

〈표 2〉 虎溪書院 講學 현황

강학활동	원장, 講席(참여자)	연도	자료
講學	權好文	1583	『松巖集』
講學, 『退溪集』 교정	趙穆, 金誠一	1587	『月川集』
童蒙講學	裴龍吉	1593	『琴易堂集』
居接	金聖鐸	1698	『霽山集』
太極圖說 講會	(權以鎭)	1702. 夏	『有懷堂集』
太極圖說 講會	洞主 李栽	1718. 6	『有懷堂集』 『密菴集』
近思錄講會	金聖鐸, 李樸	1728. 7	『霽山集』
大學·中庸講會	洞主 李栽 訓長 李樸	1729. 春	『大山集』 『霽山集』 『密菴集』
西銘·太極圖說 講會	訓長 李樸	1731	『顧齋集』
大學·心經講會	洞主 金宅東 講席 李象靖	1765. 윤2. 10 - 17	「廬江記聞錄」 『下校遺集』 『大山集』 『隨得錄』 『壺谷集』
心經講會	洞主 鄭來成 講席 柳長源	1789. 7. 16-22	「廬江講會錄」 『雨舉集』 『訂窩集』 『思軒集』
心經講會	(金堧)	1801. 7	『龜窩集』
講會(태극도설, 근사 록, 중용, 대학후문)	洞主 李秉遠(金岱鎭)	1831. 11(20일간)	『訂窩續集』 『所菴集』 『訂窩集』
中庸講會	金岱鎭	1841. 8	『訂窩集』
心經講錄	講席 柳致明	1856. 11. 14-21	『玉山講義』, 虎溪書院講錄 『古文書集成』 49, 虎溪講錄
西銘講會	訓長 金岱鎭	1863. 秋	『訂窩集』
玉山講義 講會	金興洛	1891. 5	『西山先生文集』
廬江講會	(의성김씨 유일재 후손)	1892. 5	『日記』, 右五月廬江講會韻

〈표 3〉. 19세기 紹修書院 講學 현황

강학 개설 시기	강학 형태	수록처
1801년 7월	白日場	年表(『紹修書院誌』)
1801. 12. 7~12. 22	通讀	通讀時回文(『紹修書院誌』)
1807. 9. 9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08년 4월	講會	柳範休 年譜(『壺谷集』)
1810. 11. 29~12. 22	居齋	庚午 11월 29일 居齋日記(『紹修書院誌』)
1813. 12. 7~12. 18	居齋	癸酉 12월 초7일 居齋日記(『紹修書院誌』)
1815년 3월	巡題	乙亥三月巡題榜目(『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1815년 8월	旬題	乙亥八月日巡題榜目(『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1815년 11월	居齋	聖幀改摹日記(『紹修書院誌』)
1818. 3. 4	通讀(鄉飲酒禮)	遊白雲洞記(『邁塾集』)
1826년 4월	旬製	旬製時雜錄(『講所雜錄』)
1826년 5월	旬製	旬製時雜錄(『講所雜錄』)
1826. 11. 19~11. 30	通讀	講學時雜錄(『講所雜錄』)
1827. 3. 14~3. 19	居接	居接時雜錄(『講所雜錄』)
1827. 12. 7~12. 17	居齋	居接時雜錄, 酬唱錄(『講所雜錄』)
1828. 4. 22	文會	戊子四月二十二日文會時古風榜目/小白遊山錄(『講所雜錄』)
1832. 9월	講會	柳致明 年譜(『定齋集』)
1835. 9. 1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40. 3. 7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49년 12월	通讀	紹修書院次會中韻(『惺庵遺稿』)
1858. 3. 1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59. 9. 1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60. 9. 6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72년 3월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73. 3. 19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82년 8월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900년	居齋	紹修書院居齋節目(『貞山集』)

호계서원에서 확인되는 강학 기록은 총 17회, 조선 서원 중 강학 기록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 소수서원도 19세기 100년 동안 고작 27회의 기록만 확인될 뿐이다. 물론 현전하는 자료가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전모를 보여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자료만을 토대로 조선 서원은 교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학교였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1827년 소수서원 중용 강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계신공구’의 해석에 대해 더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은 강회 당시가 아닌, 사후 강회에 불참했던 원로 유취문이 동주 강운에게 당시 강회의 쟁점에 대해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였다.⁸⁹⁾ 1718년 호계서원에서 열린 태극도설과 사철이기변에 대한 강회에서도 강회를 주관했던 李裁와 송시열의 외손이자 명재 윤증의 문인이었던 안동부사 權以鎭 사이에 더 치열한 논변이 벌어진 것도 강회를 마치고 돌아간 뒤 주고받은 편지에서였다.⁹⁰⁾

이는 서원처럼 단일한 교육기관이나 개별 학교 중심의 교육사 담론만으로는 조선의 교육문화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민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교육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학문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한 조명이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교육기관 외부의 사제관계와 학문공동체를 통한 강학 활동에 주목한 김대식의 연구⁹¹⁾ 및 서신 강학과 종사 강학을 중심으로 전통시대의 교육실천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최광만의 연구⁹²⁾는 교육사 분야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교육사 분야 강학 연구의 초점이 ‘학교 중심’에서 ‘학교 바깥’으로 이동하거나 적어도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지식의 ‘수용과 전수’에서 지식의 ‘전이와 생산’으로 강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다. 이 점에서 기존에 주로 정치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선

89) 김자운, 「19세기 소수서원 중용 강회와 퇴계학의 분화」, 『퇴계학논집』 제19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참조.

90) 김자운, 「조선시대 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집, 2021 참조.

91) 김대식, 「화서 문인공동체 강회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1집 1호, 2011 및 「권상하 문하의 강학활동 연구 - 강문팔학사를 중심으로 -」, 『교육사학연구』 25집 2호.

92) 최광만, 앞의 책(2017).

행연구와 달리, ‘강학을 통한 지식 교환과 전수의 장치’라는 조선조 서원의 고유한 기능에 주목하여, ‘지식과 지식인’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서원이 어떠한 지식을 목적으로 했고, 그 기능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안동김문과 석실서원을 중심으로 고찰한 조성산의 연구⁹³⁾ 및 ‘지식의 생산과 공론의 수렴’이라는 관점에서 도산강회를 주목한 정순우의 연구⁹⁴⁾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19세기 말의 강회가 사상의 분화 과정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조명한 정순우의 연구⁹⁵⁾는 강학을 통한 ‘지식의 전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산천재 강회는 한주 이진상의 주리론이 남명학과 및 노사학과에 진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석선사 강회는 영남 주리론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며, 도산서원이 주관한 오천강회는 이진상의 학설에 대한 퇴계학파의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화서학파의 장담강회는 조선 성리학의 주리철학이 서양을 배척하는 척양의 논리로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강학이 단지 지식의 일방적 ‘수용이나 전송’을 넘어 어떻게 ‘지식의 전이와 재맥락화’에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셋째, 강학 연구를 통해 조선의 교육문화를 온전히 포착하고, 지식의 전이와 재맥락화라는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는 강학 연구의 대상 자료 역시 동시에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원 강학과 관련하여 현전하는 자료가 매우 협소한 현실에서 서원 강학 자료의 지속적 발굴과 더불어 서원 바깥에서 생산된 강학 자료들에 동시에 주목한다면, 조선시대 교육의 공백이 상당부분 메꿔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강학과 관련된 일기자료, 사제관계에서 생산된 종사록이나 종유록, 종사일기, 문인록, 특히 문집에 수록된 사우간 문목이나 문답 기록 등으로 강학 연구의 대상 자료를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윤기의 「소학문목」과 황후간의 『금양종사록』에 주목한 최광만의

93) 조성산, 앞의 논문(2013).

94) 정순우, 앞의 책(2012).

95) 정순우, 앞의 논문(2021).

연구⁹⁶⁾, 『慕堂日記』에 주목한 정재훈⁹⁷⁾과 박종천⁹⁸⁾의 연구, 노사 학맥의 서당에서 작성한 강학일기에 주목한 김새미오의 연구⁹⁹⁾, 면암 최익현의 강학활동과 교유 문인에 대해 기록한 『菡薇淵源錄』, 『師友從遊錄』에 주목한 박학래¹⁰⁰⁾와 남윤덕¹⁰¹⁾의 연구, 『자암일록』에 주목한 이규필의 연구¹⁰²⁾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넷째, 2010년대 이후 강학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바로 강학 의례 관련 연구의 등장이다. 서원이나 서당에서 시행된 제향의례 외에 강학 절차에 수반된 ‘강학 의례’와 사제간 입문의례 등은 조선시대 유학교육의 특질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안동 지역 서당과 서원 강학에 나타나기 시작한 강학 방식의 변화와 정음례 같은 강학 의식의 정착 등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이 시기 강학이 이전 시대와 달리 ‘도학적 성격’을 처음 획득하였음을 논증한 정경주의 연구, 서원 강학은 ‘문자를 매개로 한 지식의 전수 뿐 아니라 다단한 의례가 결합된 통합적, 전인적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에서 ‘강학의례’를 처음 개념화하고 교육사적 의미에 주목한 김자운의 연구¹⁰³⁾ 등은 강학과 의례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강학을 조명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다.

이와 같이 강학 연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성과에 비하면 강학 분야의 연구는 양적으로 여전히 매우 소략한 형편이며 대상 시기가 여전히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서원 강학 관련 1차 자료의 지속

96) 최광만, 앞의 책(2017).
 97) 정재훈, 앞의 논문(2015).
 98) 박종천, 앞의 논문(2021).
 99) 김새미오, 앞의 논문(2017).
 100) 박학래, 앞의 논문(2020).
 101) 남윤덕, 앞의 논문(2024).
 102) 이규필, 앞의 논문(2019).
 103) 김자운, 앞의 논문(2020)

적 발굴과 DB화, 원문 자료의 지속적인 번역과 가공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문집 등 각종 문헌들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보다 폭넓게 수집,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전체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들 사이, 지역별, 권역별 내, 지방과 중앙 사이 DB 허브화도 필요하다.

또 강학연구에서 여전히 가장 큰 공백은 강학 내용에 대한 학파별 특징 및 사상사적 비교 연구이다. 이는 서원 강학이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 학문체계 확립과 학파의 분화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연구주제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공백 상태에 가깝다. 특히, 강회의 문답과 토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강회록 중 학파별로 같은 텍스트에 대한 강회록을 찾아 비교, 분석하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같은 텍스트에 대한 강회기록이 학파별로 남아 있는 사례는 흔치 않지만 고암서원, 도산서원, 호계서원, 화서학파의 대학 강회 기록은 그 좋은 사례이다.

또한 서원 강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적용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체험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전통의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서원 강학의 전통 중 현대교육에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적용 가능한 접점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굴하여 이를 현재적 관점에 맞게 번안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유교라는 창 안에서 현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대 교육의 창으로 서원을 바라보자’는 문제 제기 아래 학교현장을 무대로 서원 강회의 현대 교육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 김민재의 연구¹⁰⁴⁾는 매우 적실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104) 김민재, 앞의 논문(2019).

【참고문헌】

- 강동욱, 「성재(性齋) 허전(許傳)의 강우지역(江右地域) 문인(門人) 고찰(考察)」, 『남명학연구』 31, 2011.
- 고수연, 홍제연, 「최석정의 강학 활동과 청주지역 소론계 서원」, 『한국서원학보』 15, 2022.
- 구본욱, 「녹봉정사의 건립과 경영 및 강학」, 『한국학논집』 78, 2020.
- 구본욱, 「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지역 제3세대 유학자」, 『조선사연구』 28, 2019.
- 구완희, 「성재 유증교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 『역사교육논집』 44집, 2010.
- 권오영, 「19세기 강우(江右) 학자들의 학문동향」, 『남명학연구』 11, 2001.
- 권오영,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제70집, 2018.
- 권오영, 「화양서원의 강학과 학풍」, 『우암논총』 1집, 2008.
- 김경용,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집, 교육사학회, 2006.
- 김경용, 「조선후기 강학시행 관련 고문서 해제」, 『한국교육사학』 제40권 제1호, 2018.
- 김대식, 「권상하 문하의 강학활동 연구 - 강문팔학사를 중심으로 -」, 『교육사학연구』 25집 2호.
- 김대식, 「朝鮮朝 書院 講學 活動의 性格 - 會講과 講會를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대식, 「조선후기 향약의 교육 활동 - 봉화 성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31집 1호, 2021.
- 김대식, 「한강(寒岡) 정구(鄭述)의 강회(講會) 시행과 그 특성」, 『한국교육사학』 41권 2호, 2019.
- 김대식, 「화서(華西) 문인공동체(門人共同體) 강회(講會)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1집 1호, 2011.
- 김대식, 「화서학과의 習禮와 行禮 공부」, 『교육사상연구』 28권 1호, 2014.

- 김문준, 「돈암서원의 강학활동」, 『한국철학논집』 제58집, 2018.
- 김민재, 「서원 교육의 이념과 실체가 지나는 현대적 시사점 연구 - 원규와 강회를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5호, 2019.
- 김새미오, 「일제강점기 노사학맥 부해 안병택 서당의 교육과 그 의미 - 『근재북학일기(謹齋北學日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7, 2017.
- 김성수, 「논산 노성 파평 윤씨 문중의 종학당 운영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4.
- 김인규, 「김원행의 학문과 석실서원에서의 강학활동」, 『동방학』 22, 2012.
- 김자운,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8집, 한국유교학회, 2014.
- 김자운, 「17세기 말-18세기 초 석실서원의 강학 실재와 특징 - 농암 김창협 강학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11, 2020.
- 김자운, 「19세기 소수서원 중용 강회와 퇴계학의 분화」, 『퇴계학논집』 제19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 김자운, 「과거 대응 방식을 통해 본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변화」, 『퇴계학논집』 제2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 김자운, 「도학서원으로의 정착 과정과 조선후기 죽림서원 강학의 특징」, 『민족문화논총』 81, 2022.
- 김자운, 「조선 서원의 강학 의례와 교육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제7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
-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제4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공적 기반 변화와 그 대응 - 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5.
- 김자운, 「조선시대 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2021.
- 김자운, 「조선의 사제관계」, 『사라진 스승-다시 교사의 길을 묻다』, 공저, 현암사, 2019.
- 김자운,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講學의 변화」, 『퇴계학논집』 제18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 김자운, 『소수서원 강학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자운, 이우진, 「1765년 虎溪書院 『대학』 강회 연구(1)」, 『민족문화논총』 79, 2021.
- 김정운, 「道南書院의 강회와 강학」, 『한국서원학보』 16, 2023.

- 김지은, 「한강정구의 회연초당 건립과 교육활동의 의미」, 『역사교육연구』 35, 2019.
- 김해용, 「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남윤덕, 「화서학과 문인과 강우지역 문인들의 교유양상 - 경암 곽한소의 『師友從遊錄』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17호, 2024.
- 박경환, 「전통 서원 강학 기능의 현대적 복원」, 『안동학』 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 박종배, 「18세기 말 병산서원의 강학 활동과 그 의의」, 『대동한문학』 67, 2021.
- 박종배,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 『韓國書院學報』 1호, 韓國書院學會, 2011.
-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집 2호, 교육사학회, 2008.
-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교육사학회, 2009.
-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박종천, 「모당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초 대구 사림의 강학활동과 강회」, 『국학연구』 44, 2021.
- 박학래, 「면암 최익현의 문인 집단 형성과 전개」, 『한국철학논집』 64집, 2020.
- 사재명, 「내암 정인홍의 강학과 교육」, 『남명학』 24, 2019.
- 사재명, 「조선중기 덕계문인의 형성과 강학」, 『남명학연구』 17, 2004.
- 서동수, 「17세기 遯巖書院의 講學活動과 정치·사회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서종태, 변주승, 「艮齋 田愚의 충청도 중심 강학 활동에 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0권 1호, 2017.
- 신영주, 「老洲 吳熙常의 講學 활동과 독서론」, 『한문고전연구』 38, 2019.
- 윤경호, 「석실서원의 건립과 교육방법」, 『퇴계학논총』 22.
- 윤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사례」, 『歷史教育』 92집, 歷史教育研究會, 2004.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 李垞丘,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활동」,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 이경동,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 『민족문화논총』 79, 2021.
- 이규필, 「자암일록으로 살펴본 소눌 노상직의 교육활동과 의미」, 『한문학보』 41, 2019.

-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강학 활동과 그 성격」, 『한국교육사학』 제41권 제2호, 2019.
- 이선아, 「18세기 考巖書院의 건립과정과 講會 및 追享의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37』,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제62집, 2016.
- 이연숙,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중교육」, 『역사와 담론』 52, 2009.
- 임근실, 『16세기 嶺南地域 書院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전병철, 「大山學派의 高山精舍 강회와 性理說 講論」, 『東方漢文學』 38집, 2009.
- 정경주, 「16세기 안동 지방의 서당의 강학 의식」, 『조선의 서당에서 배우는 사회적 교육의 지혜』, 새물결, 2018.
- 정만조, 「虎溪書院의 이해 방향」, 『한국서원학보』 19, 2024.
- 정석태, 「신산서원 관련자료」, 『동양한문학연구』 55, 2020.
- 정순우, 「19세기 말 서원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한국서원학보』 12, 2021.
- 정순우, 「도동서원의 교육활동과 사족의 동향」, 『道, 東에서 꽃피다』,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2013.
- 정순우, 「심학과 이기, 정학을 둘러싼 논쟁들」,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정순우, 「龍山書院과 教育活動」, 『龍山書院』, 집문당, 2005.
- 정순우, 「한국 서원과 교육활동」,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정우락, 「낙동강의 서원과 ‘寒岡學風」」, 『유교사상문화연구』 95, 2024.
- 정재훈, 「虎溪書院의 강학 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2022.
- 정재훈, 「『慕堂日記(모당일기)』를 중심으로 본 孫處訥(손처눌)의 교육활동」,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2015.
- 정재훈, 「조선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16, 2023.
- 조성산, 「18세기 후반 석실서원과 지식, 지식인의 생산」, 『역사와 담론』 66, 2013.
-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권 1호, 교육사학회, 2012.
- 최광만, 「대전 도산서원(道山書院)의 강학 관련 자료와 시사점」, 『민족문화논총』 79, 2021.
- 최광만, 2017, 『조선후기 교육사 탐구』,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영성, 「하서 김인후의 순창에서의 강학활동 - 훈몽재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69, 2017.

한예원, 「호남지역 서원의 교육활동 - 竹樹書院誌를 통해 본 유교교양의 수용」, 『유학연구』 22, 2010.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 『한국서원학보』 13, 2021.

한재훈, 「한국 서원 의례의 종류와 의의」, 『한국서원학보』 11, 2020.

홍원식, 「녹봉정사와 조선중기 낙중학의 전개」, 『한국학논집』 78, 2020.

Abstract

Research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Seowon Ganghak(講學)

Kim, Ja-woon*

Since the 2000s, the scope of sources forming the foundation of ganghak(講學) research has expanded, leading to both qualitative advances and a gradual widening of the field. As a result, various forms of ganghak activities that continued into the late Joseon period have been empirically revealed, providing counterarguments to the earlier decline-or-absence thesis regarding late Joseon ganghak. Moreover, attempts have been made to typologize the concrete instructional practices of seowon, and overviews of the instructional systems and their historical development—based on regulations found in seowon codes—have begun to emerge. Case studies of ganghak in individual seowon have also accumulated steadily. In particular, since the 2010s, research that illuminates ganghak from diverse perspectives beyond the strictly educational-historical lens has significantly broadened the horizon of ganghak studi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major research on ganghak produced from the 2000s to the present and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future research tasks, and directions. The existing body of research was examined by seowon, by theme, and by region. Chapter 2 reviews ganghak studies by seowon, organized into the regions of Left Gyeongsang, Right Gyeongsang,

* Pr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jaunkim@kongju.ac.kr

Hoseo, Honam, Gyeonggi, and the Hwasŏ school(華西學派). Chapter 3 classifies ganghak research by topic, dividing it into five categories: (1) studies on instructional institutions and academic regulations ; (2) studies on ganghak rituals(講學儀禮) ; (3) general studies and introductions to ganghak-related sources ; and (4) modern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of seowon ganghak.

Chapter 4 analyzes recent trends in ganghak research in four respects: first, the shift in scholarly interest “from school-centered to school-adjacent” settings ; second, a change in perspective from viewing ganghak merely as “the reception and transmission of knowledge” to seeing it as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knowledge” ; third, the expansion of source materials relevant to the study of ganghak ; and fourth, the emergence of research specifically on ganghak rituals. The chapter concludes by suggesting several task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 : Seowon, ganghak(講學), ganghak rituals(講學儀禮), the reception and transmission of knowledge,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knowledge

논문 투고일: 2025. 11. 17 심사 완료일: 2025. 12. 08 게재 확정일: 2025. 12. 09

■ 후보

1. 주요 연혁

2025. 6. 30. : 한국서원학보 제20호 간행
2025. 7. 10 ~ 7. 13. : 하북대학·한국서원학회 공동개최 학술대회
2025. 8. 23 : 2025년 한국서원학회 하계 워크숍
2025. 9. 19 ~ 20 :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25. 9. 27. : 한국서원학회 9월 연구발표회
2025. 11. 1 : 한국서원학회 11월 연구발표회
2025. 11. 14 ~ 11. 15. : 2025년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회의 '제12회 동아
시아 서원과 유학'
2025. 12. 30. : 한국서원학보 제21호 간행

2. 활동

-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기념 학술대회
 - 〈개 회 사〉 정종섭(한국국학진흥원장)
 - 〈환 영 사〉 김병일(도산서원 원장)
 - 〈환 영 사〉 김학수(한국서원학회 회장)
 - 〈기조강연〉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의 역사적 의미
 - 발표자 :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1 주제〉 퇴계의 서원관

발표 ① 퇴계의 시대 인식과 서원 교육의 필요성

- 발표자 : 홍원식(계명대학교)

발표 ② 퇴계 이황의 서원보급운동과 道學書院의 성립

- 발표자 : 임근실(단국대학교)

발표 ③ 퇴계의 서원관과 제향 기준으로 본 한국 서원의 특징

- 발표자 : 강보승(충북대학교)

〈2 주제〉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

발표 ④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으로

- 내면적 ‘祭享’ 儀式으로서 ‘希賢’ 실천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최재목(영남대학교)

발표 ⑤ 20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명암

- 발표자 :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3 주제〉 도산서원의 창건과 위상 변화 과정

발표 ⑥ 도산서원의 창건 과정과 위상

- 발표자 : 박인호(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발표 ⑦ 도산서원의 출판활동을 통한 영남 지식네트워크 형성

- 발표자 : 정재훈(경북대학교)

발표 ⑧ 조선시대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와 향촌 사회의 주도성

- 발표자 : 이경동(고려대학교)

〈4 주제〉 도산서원의 사회 활동과 현대적 가치

발표 ⑨ 개항기 도산서원과 의병항쟁

- 발표자 : 강윤정(국립경국대학교)

발표 ⑩ 도산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발전 방향

- 발표자 : 이상호(한국국학진흥원)

■ 2025년 9월 연구발표회

발표 ① :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에서의 우계학통(牛溪學統) 전승과 재생산

- 「서실의(書室儀)」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진홍(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자 : 정재훈(경북대학교)

발표 ② ‘서원’의 이야기 소재와 콘텐츠화 가능성

-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

- 발표자 : 신경미(한국국학진흥원)

- 토론자 : 최진경(전남대학교)

■ 2025년 11월 연구발표회

발표 ① : 철학적 도형에서 공간적 질서로:

퇴계의 「천명도」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 발표자 : 한승일(한국국학진흥원)

- 토론자 : 한재훈(성공회대학교)

발표 ② 1811년 高山講會와 영남학계의 학문적 전환

- 발표자 : 이종록(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자 : 임근실(단국대학교)

■ 2025년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회의 ‘제12회 동아시아 서원과 유학

〈개 회 사〉 김학수(한국서원학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환 영 사〉 정만조(국민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서원학회 초대회장)

〈축 사〉 朱汉民(중국서원학회 회장, 후난대학 약록서원 교수)

〈기조 강연 1〉 조선의 서원은 왜 ‘백록동규’를 주목하였는가

발표자 :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기조 강연 2〉 中国古典书院的制度创新

발표자 : 朱汉民(중국서원학회 회장, 후난대학 약록서원 교수)

〈기조 강연 3〉 일본의 유교문화와 유교 교육기관의 형성과 변천

발표자 : 中尾 健一郎(나카오 겐이치로, 구마모토대학 교수)

〈제1 분과〉 정치와 서원

개회 : 이근호(충남대학교)

발표 ① 黄彭年与莲池书院学古堂

- 발표자 : 梁釗, 盛瀛(河北大学)

발표 ② 한·중 서원의 배향인물 연구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과 중국 5대 서원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이경동(고려대학교)

발표 ③ “东方朱子”李滉的书院实践与书院观

- 以绍修书院、迎凤书院、伊山书院为中心

- 발표자 : 邓洪波(湖南大學)

발표 ④ 조선시대 논산지역 지식인의 학술공간 권역화와 그 의미

- 발표자 : 임근실(단국대학교)

발표 ⑤ 政治書寫視闕下朝鮮王朝書院的歷史演變

- 基於《朝鮮王朝實錄》的考察

- 발표자 : 肖红兵(江苏师范大学)

발표 ⑥ 18~19세기 영천 용계서원과 생육신 추승

- 발표자 : 이광우(영남대학교)

발표 ⑦ 朱子《白鹿洞书院揭示》对李氏朝鮮教育的影响

- 발표자 : 刘金(湖南科技大学)

발표 ⑧ 송시열(宋時烈)의 죽음과 집단 기억으로서 추모의 발현

- 『 초산일기(楚山日記)』와 서원 제향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진홍(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⑨ 사충서원 건립에 있어 여흥 민문의 역할과 그 의미

- 발표자 : 이은찬(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⑩ 주자학적 사회의 심화와 龍山書院

- 발표자 : 이자영(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⑪ 신산서원의 사람들: 조선후기 남명학의 계승과 정체성 변용

- 발표자 : 김태욱(한국학중앙연구원)

〈제2 분과〉 서원의 일상과 교육

개회 : 정재훈(경북대학교)

발표 ① 공교육의 개념에 비취 본 조선시대 서원제도

- 발표자 : 이상무(서울대학교)

발표 ② 김희수(金會壽, 1802~1873)의 일상과 서원:

19세기 예천 사대부에게 유학과 서원의 일상성 검토

- 발표자 : 김정운(경북대학교)

발표 ③ 17세기 초 덕천서원의 인물들 :

덕천원생록(1609) 수록 인물 네트워크 구현

- 발표자 : 유인태(전남대학교)

발표 ④ 조선시대 서원강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발표자 : 김자운(공주대학교)

발표 ⑤ 19세기 일본 난학자(蘭學者)의 지식 형성과 교류 -시바타 슈조(柴田

収蔵)의 「庚戌日記」(1850)를 통해 본 서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 발표자 : 박소영(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⑥ 论宋代书院山长的选任、流转与地位

- 발표자 : 刘向培(青岛农业大学)

발표 ⑦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문중서원

- 발표자 : 万振超(北華大学)

발표 ⑧ 歷史進程下的臺灣書院

- 발표자 : 蔡振豐(國立臺灣大學)

발표 ⑨ 히젠(肥前) 사가번(佐賀藩) 번교(藩校)와 인재 양성

- 발표자 : 中尾 友香梨(佐賀大学)

발표 ⑩ 히고(肥後) 구마모토번(熊本藩) 학통과 번교(藩校)

- 발표자 : 中尾 健一郎(熊本大学)

〈제3 분과〉 서원의 공간과 문학

개회 : 정우락(경북대학교)

발표 ① 下學人事의 儒學 共同體 武城書院

- 발표자 : 김덕현(경상국립대학교)

발표 ② 晚清社会变革下蓮池书院之易名考

- 발표자 : 張進紅(河北大学)

발표 ③ 강릉 오봉서원 영정 봉안과 제향

- 발표자 : 김충현(울국국학진흥원)

발표 ④ 尊道与行道之间：孙奇逢与书院的互动及清初夏峰北学的传衍

- 발표자 : 肖永明(湖南大學)

발표 ⑤ 书院乃学校之辅 - 明代书院的教学及其管理

- 발표자 : 陈时龙(中国社科院考古所)

발표 ⑥ 论宋代书院山长的选任、流转与地位

- 발표자 : 兰军(江苏师范大学)

발표 ⑦ 조선후기 충청도 지식인의 자기인식 :

양절공 조온 현장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권지은(한국국학진흥원)

발표 ⑧ 书院产权制度的演进

- 발표자 : 陈月圆(北京师范大学)

발표 ⑨ 18세기 福江書院 성립 과정 및 학문 전승

- 발표자 : 반민득(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⑩ 서계 박태무의 유람과 서원 인식

- 발표자 : 김소연(경북대학교)

3.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1) 8월 하계 워크숍 및 임원회의

- 일시: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12~16시
- 장소: 충북 괴산 화양동 계곡
- 안건
 - (1) 9월, 10월 연구발표회 발표자·토론자 섭외 논의
 - (2) 2025년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회의 계획 점검

2) 9월 임원회의

- 일시: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12~14시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220호
- 안건
 - (1) 2025년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 및 프로그램 준비 논의
 - (2) 2025년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소요 예산 점검 및 답사 일정 수립
 - (3) 『한국서원학보』 제21호 투고 원고 현황 파악
 - (4) 『한국서원학보』 제21호 원고 모집 일정 공고

3) 11월 임원회의

- 일시: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12~14시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 안건
 - (1) 11월 국제학술회의 최종 점검
 - (2) 11월 국제학술회의 분과별 장소 예약 및 발표 원고 편집

4) 11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13~14시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 온·오프라인 이원
- 안건
 - (1) 『한국서원학보』 제21호 원고 모집 현황 점검
 - (2) 『한국서원학보』 제21호 심사자 선정 논의

5) 12월 편집회의

-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17~19시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 온·오프라인 이원
- 안건
 - (1) 『한국서원학보』 제21호 심사 결과 수합
 - (2) 『한국서원학보』 제21호 향후 간행 일정 논의
 - (3) 1년 소요 예산 확인 및 차년도 예산 초안 작성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은,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 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의(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 (A,A,C):수정 후 게재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1매당 2,5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 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과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瑱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¹⁾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²⁾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묵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3.15.〉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개정 2021.3.15.〉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8기 임원명단(2024.3~2026.2)

고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수환
회장	: 김학수(한중연)
부회장	: 이근호(충남대)
총무이사	: 김정운(경북대)
편집이사	: 김충현(울국국학진흥원), 김수경(상지대)
재무이사	: 윤해민(건국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한국국학진흥원),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부산가톨릭대), 김대식(경인교육대),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최석기(경상대), 배창현(울산대), 임근실(단국대), 신채용(국민대), 이치영(공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송실대), 백광렬(서울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김연수(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이사	: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김자운(공주대), 임근실(단국대), 박소영(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채광수(영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왕무(경기대) / 전라·제주 김봉곤(원광대), 박정민(전북대) / 경상 정재훈(경북대),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충청 김의환(충북대),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이사	: 김순한(영남대)
총무간사	: 권지은(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간사	: 김진홍(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근호(역사, 충남대)
편집위원	: 등흥파(역사, 중국 호남대), 정수환(역사, 금오공대), 정우락(문학, 경북대), 조준호(역사, 경기도박물관), 정재훈(역사, 경북대), 어강석(문학, 충북대), 이치영(철학, 공주대), 김자운(교육사, 공주대), 김봉곤(역사, 원광대)
편집이사	: 김충현(울국국학진흥원), 김수경(상지대)
편집간사	: 김진홍(한중연)

종신회원(2006~2025)

강대걸, 권오영, 김덕현, 김문택, 김순한, 김정자, 김의환, 김자운, 김학수, 박종배,
안상천, 이병갑, 이병훈, 이상해, 이수환, 이우진, 이해준, 정만조, 정수환, 정순우,
조준호, 김정운, 김충현

韓國書院學報 제21호

값 15,000원

인쇄일 2025년 12월 27일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학수
발행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전화 031-730-8840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김학수(한국서원학회)
KB국민은행 673601-04-074420
제작 도서출판 온샘(02-6338-1608)

ISSN 2234-8603